

발간등록번호

11-1421000-000002-10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19. 8.

www.mss.go.kr

목 차

제1부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3
1. 중소기업 현황	3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7
제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9
1. 업종별 동향	9
2. 분야별 동향	19

제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29
제1절 민간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29
1. 신설법인 현황	29
2. 창업저변 확대	31
3. 기술 창업 활성화	38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54
5. 지식서비스기업 성장 촉진	68
제2절 벤처열기 확산을 통한 혁신벤처국가 실현	75
1.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75
2. 벤처투자 현황	81
3. 벤처투자 확대	83
4. 회수시장 활성화	88
제3절 재도전 환경 조성	91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91
2. 재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99



C O N T E N T S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촉진	103
1. 중소기업 인력수급 현황	103
2. 근로자 임금상승 및 근로환경 개선	105
3.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111
제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122
제1절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122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122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127
3. 스마트공장 확산	147
4.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150
5.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160
제2절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167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167
2. 정책자금 지원	170
3. 신용보증 공급	174
4. 매출채권보험 운용	178
제3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180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80
2.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국내 판로 촉진	182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195
제4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203
1. 수출 현황	203
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205
3. 수출기업 지원 및 해외교류 인프라 확충	215
4. 국제협력 추진	219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228
제1절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상생협력 촉진	228
1. 대·중소기업간 경영현황	228
2. 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230
3.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235

제2절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 발전	249
1. 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249
2. 포용적 동반성장 확대	252
제3절 지역 중소기업 육성	262
1. 지역 중소기업 현황	262
2.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271
3. 지역 특화산업 육성	275
4. 지역특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282
5.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284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286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생태계 촉진	286
1. 소상공인 현황	286
2. 준비된 창업 유도	291
3.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306
제2절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310
1. 소상공인 성장 지원	310
2.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322
제3절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326
1. 전통시장 현황	326
2. 특성화 시장 육성	328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35
4. 시장경영혁신 지원	337
5. 상권 활성화	344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347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347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350
3. 행정혁신	351
4.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353
5.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360
6.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362



C O N T E N T S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장 기획재정부	367
제2장 교 육 부	370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4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381
제5장 농림축산식품부	385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387
제7장 보건복지부	393
제8장 환 경 부	394
제9장 고용노동부	398
제10장 국토교통부	404
제11장 해양수산부	406
제12장 방송통신위원회	409
제13장 식품의약품안전처	411
제14장 공정거래위원회	413
제15장 금융위원회	415
제16장 국 세 청	417
제17장 관 세 청	420
제18장 조 달 청	422
제19장 병 무 청	424
제20장 방위사업청	426
제21장 농촌진흥청	431
제22장 특 허 청	433
제23장 기 상 청	436

목 차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41
제2장 기술보증기금	475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91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38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49
제6장 창업진흥원	558
제7장 한국벤처투자(주)	586
제8장 (주)중소기업유통센터	594
제9장 (재)중소기업연구원	600
제10장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610
제11장 (주)공영홍소핑	618
제12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25
제13장 중소기업중앙회	633
제14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661
제15장 신용보증기금	676
제16장 금융감독원	683
제17장 대한상공회의소	686
제18장 중소기업은행	695
제19장 한국수출입은행	717
제20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23
제21장 한국무역보험공사	755
제22장 한국무역협회	763
제23장 한국생산성본부	797
제24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04
제25장 산업연구원	813
제26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25
제27장 한국디자인진흥원	838
제28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845
제29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877
제30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886
제31장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901
제32장 한국인터넷진흥원	905



C O N T E N T S

표 I -1-1-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3
표 I -1-1-2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2017년 기준)	4
표 I -1-1-3	기업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4
표 I -1-1-4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추이	5
표 I -1-1-5	2017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5
표 I -1-1-6	지역별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현황	6
표 I -1-1-7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6
표 I -1-1-8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6
표 I -1-1-9	중소기업 종사자수 추이	7
표 I -1-1-10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및 기여율	7
표 I -1-1-11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8
표 I -2-1-1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9
표 I -2-1-2	2018년 월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9
표 I -2-1-3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10
표 I -2-1-4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증감 추이	10
표 I -2-1-5	중소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추이(5~299인)	10
표 I -2-1-6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률, 실업률 현황	11
표 I -2-1-7	원자재 구매액 및 원산지별 구매액 구성비	11
표 I -2-1-8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상황	12
표 I -2-1-9	원자재 구매대금의 어음 지급기일	12
표 I -2-1-10	판매형태별 제품판매액 구성비	13
표 I -2-1-11	제품판매대금 결제상황	13
표 I -2-1-12	제품판매대금의 어음 수취기일	14
표 I -2-1-13	성장성 지표	14
표 I -2-1-14	수익성 지표	15
표 I -2-1-15	안정성 지표	16
표 I -2-1-16	생산성 지표	17
표 I -2-1-17	소상공인 경기동향 BSI(Business Survey Index)	17
표 I -2-1-18	전통시장 경기동향 BSI(Business Survey Index)	18
표 I -2-1-19	신설법인수(전국 기준)	19
표 I -2-1-20	창업기업수(전국 기준)	19
표 I -2-1-21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20
표 I -2-1-22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20

표목차

표 I -2-1-23	국가별 수출액 및 증감현황	21
표 I -2-1-24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21
표 I -2-1-25	기업 대출잔액 현황	22
표 I -2-1-26	기업대출 연체율 현황	22
표 I -2-1-27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추이	23
표 I -2-1-28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2017년)	23
표 I -2-1-29	중소제조업의 학력별 인력구성	23
표 I -2-1-30	중소제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24
표 I -2-1-31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2~'14 : 5~299인, '15 : 5인 이상, '16 : 5억원 초과)	24
표 I -2-1-32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24
표 I -2-1-33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25
표 I -2-1-34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25
표 II -1-1-1	연도별 신설법인수	29
표 II -1-1-2	업종별 신설법인수	29
표 II -1-1-3	연령별 신설법인수	30
표 II -1-1-4	성별 신설법인수	30
표 II -1-1-5	창업에듀 강좌 운영 현황	31
표 II -1-1-6	창업에듀 성과현황	31
표 II -1-1-7	창업에듀 강좌 구성(예시)	32
표 II -1-1-8	창업대학원(석사과정) 설치 현황('18년 기준)	32
표 II -1-1-9	비즈쿨 운영실적	33
표 II -1-1-10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34
표 II -1-1-11	도전 K-스타트업 수상팀 성과('16~'18년 30팀) '19.4월 기준	36
표 II -1-1-12	2018년 지원대상 선정절차	37
표 II -1-1-13	창업선도대학 지정현황('18년 기준, 43개 대학)	39
표 II -1-1-14	창업선도대학 주요실적 및 성과	39
표 II -1-1-15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41
표 II -1-1-16	청년 CEO 양성 규모	42
표 II -1-1-17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42
표 II -1-1-18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44
표 II -1-1-19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48
표 II -1-1-20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성과	49
표 II -1-1-21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50

C O N T E N T S

표 II-1-1-22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50
표 II-1-1-23	2018년 사내벤처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 현황	52
표 II-1-1-24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성과('19.7.)	53
표 II-1-1-25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54
표 II-1-1-26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이용현황	55
표 II-1-1-27	최근 5년간 창업보육센터 사업 운영현황	55
표 II-1-1-28	창업보육센터 주체별 지정 현황	56
표 II-1-1-29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56
표 II-1-1-30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현황	56
표 II-1-1-31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57
표 II-1-1-32	1차 지식산업센터 운영현황(2018.12)	58
표 II-1-1-33	건립중인 지식산업센터 현황	58
표 II-1-1-34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주요기능	61
표 II-1-1-35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18.12월 말, 누적)	62
표 II-1-1-36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8년말)	63
표 II-1-1-37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18)	65
표 II-1-1-38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운영 결과	66
표 II-1-1-39	2018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69
표 II-1-1-40	비즈니스센터 주요 지원 내용	69
표 II-1-1-41	비즈니스센터 지정 현황	69
표 II-1-1-42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71
표 II-1-1-43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71
표 II-1-1-44	스마트창업터 지정기관	73
표 II-1-1-45	스마트벤처캠퍼스 주관기관 현황	73
표 II-1-1-46	스마트벤처캠퍼스 운영 현황	74
표 II-1-2-1	유형별 벤처기업수(2018년)	76
표 II-1-2-2	벤처기업 성과('17년 기준)	76
표 II-1-2-3	연도별 벤처천역기업 현황	77
표 II-1-2-4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 규모	82
표 II-1-2-5	미국-한국의 엔젤투자 규모(2017)	82
표 II-1-2-6	모태조합 조성 및 운용 현황	83
표 II-1-2-7	모태조합 자조합 결성 및 투자 현황('18년말 기준)	84
표 II-1-2-8	엔젤투자 실적(신규)	85

표목차

표 II-1-2-9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현황	86
표 II-1-2-10	연도별 창업투자회사 현황	86
표 II-1-2-11	지역별 액셀러레이터 등록 현황	87
표 II-1-2-12	연도별 액셀러레이터 투자현황	87
표 II-1-2-13	벤처투자 회수 규모(2018년)	88
표 II-1-2-14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89
표 II-1-3-1	실패·패자부활에 대한 청년층 인식조사(오픈서베이, '18.1)	91
표 II-1-3-2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IBK경제연구소, '17.7)	92
표 II-1-3-3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요	93
표 II-1-3-4	재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실적	93
표 II-1-3-5	사업전환의 유형	96
표 II-1-3-6	사업전환 지원 추진실적	97
표 II-1-3-7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융자지원 실적	98
표 II-1-3-8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경과	99
표 II-1-3-9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	100
표 II-1-3-10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내용	101
표 II-2-1-1	대중소기업 취업자 수 및 미충원인원·미충원율	103
표 II-2-1-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수준	105
표 II-2-1-3	채용지원사업 경쟁률 현황	109
표 II-2-1-4	우선공급 절차	110
표 II-2-1-5	연도별 추천실적	110
표 II-2-1-6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원 현황	111
표 II-2-1-7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112
표 II-2-1-8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현황	113
표 II-2-1-9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추진 현황	115
표 II-2-1-10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사업 추진 현황	116
표 II-2-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	117
표 II-2-1-12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일반현황	117
표 II-2-1-13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예산	118
표 II-2-1-14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취업률	119
표 II-3-1-1	R&D 수행 중소제조업체 추이('16부터 종사자수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	122
표 II-3-1-2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122
표 II-3-1-3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123

C O N T E N T S

표 II-3-1-4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123
표 II-3-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 현황	124
표 II-3-1-6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124
표 II-3-1-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지정 현황	126
표 II-3-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126
표 II-3-1-9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128
표 II-3-1-10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129
표 II-3-1-11	2018년 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129
표 II-3-1-12	2018년 지역별 지원실적	131
표 II-3-1-13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32
표 II-3-1-14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133
표 II-3-1-15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134
표 II-3-1-16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현황	135
표 II-3-1-17	업종별 분포현황	136
표 II-3-1-18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의 성과	137
표 II-3-1-19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38
표 II-3-1-2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39
표 II-3-1-21	연도별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140
표 II-3-1-22	연도별 도약협력사업 추진실적	140
표 II-3-1-23	연도별 전략협력사업 추진실적	141
표 II-3-1-24	연도별 연구장비공동활용 추진실적	142
표 II-3-1-25	지원 조건	142
표 II-3-1-2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143
표 II-3-1-27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143
표 II-3-1-28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현황	144
표 II-3-1-29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업체(2018년)	144
표 II-3-1-30	지원 조건	145
표 II-3-1-31	지원 조건	146
표 II-3-1-32	2017년 기술전문기업 선정 및 기술개발 지원현황	146
표 II-3-1-33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147
표 II-3-1-34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148
표 II-3-1-35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5,003개, '18년 기준)	149
표 II-3-1-36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150

표목차

표 II-3-1-3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151
표 II-3-1-38	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추이	152
표 II-3-1-39	KOSBIR 시행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152
표 II-3-1-40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경과	154
표 II-3-1-41	기술로드맵 전략기술 도출현황	154
표 II-3-1-42	6대 뿌리산업 종사자 규모별 현황	155
표 II-3-1-43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현황	156
표 II-3-1-44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정현황	157
표 II-3-1-45	뿌리산업 지역별 지정현황	157
표 II-3-1-46	2018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원현황	159
표 II-3-1-47	2018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원성과	159
표 II-3-1-48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18.12월말 기준)	164
표 II-3-1-49	중소기업 분야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2018년)	165
표 II-3-1-50	연도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165
표 II-3-1-51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실적	166
표 II-3-2-1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대출금리(한국은행, 2018년)	167
표 II-3-2-2	2018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금융감독원)	168
표 II-3-2-3	2018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금융감독원)	168
표 II-3-2-4	2018 신설법인 및 부도업체수(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중소벤처기업부)	169
표 II-3-2-5	2018 중소기업 경기 및 자금사정 실적지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회)	169
표 II-3-2-6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70
표 II-3-2-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2018년)	172
표 II-3-2-8	연도별·기관별 보증 지원실적	175
표 II-3-2-9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현황	175
표 II-3-2-10	연도별 보증 사고율 등 추이	176
표 II-3-2-1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점분야 지원실적	177
표 II-3-2-12	매출채권보험 운용 현황	178
표 II-3-3-1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80
표 II-3-3-2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	180
표 II-3-3-3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81
표 II-3-3-4	연도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81
표 II-3-3-5	공공구매제도 도입 경과	182
표 II-3-3-6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추진경과	183

C O N T E N T S

표 II-3-3-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184
표 II-3-3-8	2019년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185
표 II-3-3-9	연도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	185
표 II-3-3-10	중기간 경쟁제품의 독과점 현황	186
표 II-3-3-11	연도별 적격조합 현황	187
표 II-3-3-12	연도별 직접생산 확인 현황	188
표 II-3-3-1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189
표 II-3-3-1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추진 경과	190
표 II-3-3-15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현황	191
표 II-3-3-16	성능인증 발급 현황	191
표 II-3-3-17	성능보험 계약 현황	192
표 II-3-3-18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자 현황	193
표 II-3-3-19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193
표 II-3-3-20	연도별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194
표 II-3-3-21	마케팅역량강화 지원내용	196
표 II-3-3-22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실적	197
표 II-3-3-23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아임소핑) 운영현황('18년 말 기준)	198
표 II-3-3-24	온라인 판로지원 실적	200
표 II-3-3-25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추진경과	200
표 II-3-3-26	중소기업 공동A/S 지원실적	201
표 II-3-3-27	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실적	202
표 II-3-4-1	수출성공패키지 지원현황	206
표 II-3-4-2	수출성공패키지 성과	206
표 II-3-4-3	2018년 아시아하이웨이 참여기업 지원성과	207
표 II-3-4-4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성과	208
표 II-3-4-5	글로벌 강소기업 및 지역 강소기업 선정 현황	209
표 II-3-4-6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209
표 II-3-4-7	2018년 단체해외전시회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선정결과	210
표 II-3-4-8	무역촉진단 파견실적	211
표 II-3-4-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	212
표 II-3-4-10	온라인쇼핑몰 판매실적 현황	213
표 II-3-4-11	독립몰 판매실적 현황	213
표 II-3-4-12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현황	214

표 II-3-4-13	수출지원센터 구성 현황('18.5)	215
표 II-3-4-14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216
표 II-3-4-15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217
표 II-3-4-16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실적	218
표 II-4-1-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비교	228
표 II-4-1-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비교	229
표 II-4-1-3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중	230
표 II-4-1-4	연도별 어음 납품대금 평균 결제기일	231
표 II-4-1-5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결과 법령위반기업 현황	232
표 II-4-1-6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06~2018)	233
표 II-4-1-7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237
표 II-4-1-8	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238
표 II-4-1-9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241
표 II-4-1-10	2018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	243
표 II-4-1-11	지원 범위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 ('18.12월말 기준)	244
표 II-4-1-12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 ('18.12월말 기준)	244
표 II-4-1-13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	245
표 II-4-1-14	상생결제제도 기업 규모별 실적현황	245
표 II-4-1-15	연도별 대형마트 및 SSM 출점(누계) 현황	246
표 II-4-1-16	사업조정처리현황	246
표 II-4-1-17	연도별 사업조정 처리현황	246
표 II-4-2-1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250
표 II-4-2-2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250
표 II-4-2-3	협력 R&D 연계지원 실적	251
표 II-4-2-4	교류 프로그램 운영실적	251
표 II-4-2-5	여성기업 현황	252
표 II-4-2-6	여성기업 주요 업종별 현황(2016년)	252
표 II-4-2-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253
표 II-4-2-8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254
표 II-4-2-9	여성기업 R&D, 정책자금, 보증 지원 현황	255
표 II-4-2-10	연도별 장애인 현황	255
표 II-4-2-11	장애인 경제활동 동향	256
표 II-4-2-12	장애인가기업 업종별 분포	256

C O N T E N T S

표 II-4-2-13	장애인 고용률 현황	256
표 II-4-2-14	연도별 장애인 창업지원 현황	258
표 II-4-2-15	창업점포지원 사업수혜업체와 일반사업체 비교	258
표 II-4-2-16	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개요	259
표 II-4-2-17	장애인가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현황	259
표 II-4-2-18	연도별 장애인가업 확인현황	260
표 II-4-2-19	연도별 장애인가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261
표 II-4-3-1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	262
표 II-4-3-2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263
표 II-4-3-3	지역별 실업률	264
표 II-4-3-4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265
표 II-4-3-5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수	266
표 II-4-3-6	지역별 신설법인 수	267
표 II-4-3-7	지역별 벤처기업 수	268
표 II-4-3-8	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269
표 II-4-3-9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액	270
표 II-4-3-10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275
표 II-4-3-11	지역주력산업현황	276
표 II-4-3-12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성과현황	278
표 II-4-3-13	2018년 사업 개선사항	279
표 II-4-3-14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성과현황	280
표 II-4-3-15	지역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282
표 II-4-3-16	연도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283
표 II-4-3-17	지역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283
표 II-4-3-18	`18년 지원기업 수행 프로그램	285
표 II-4-3-19	`18년 사업성과	285
표 II-4-3-20	`19년 사업신청 및 연계지원 선정기업 현황(`19.7월 기준)	285
표 II-5-1-1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286
표 II-5-1-2	2017년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287
표 II-5-1-3	주요국의 소상공인 현황	287
표 II-5-1-4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종사자수 현황	288
표 II-5-1-5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289
표 II-5-1-6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290

표목차

표 II-5-1-7	소상공인방송 실시간방송 송출 현황	291
표 II-5-1-8	소상공인방송 연도별 IPTV 일평균 시청 가구수 추이	292
표 II-5-1-9	2018년 소상공인방송 신규 제작 프로그램	292
표 II-5-1-10	소상공인방송 VOD 이용 현황(유튜브, 네이버TV)	293
표 II-5-1-11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295
표 II-5-1-12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295
표 II-5-1-13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297
표 II-5-1-14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장 현황	298
표 II-5-1-15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실적	299
표 II-5-1-16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 보증현황	300
표 II-5-1-17	종별 보증공급 현황	300
표 II-5-1-18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300
표 II-5-2-1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연혁	311
표 II-5-2-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예산 및 실적	312
표 II-5-2-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성과	312
표 II-5-2-4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313
표 II-5-2-5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현황(2018.12월말 기준)	314
표 II-5-2-6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 실적	315
표 II-5-2-7	나들가게 선도지역 선정현황	316
표 II-5-2-8	수준평가 연계지원 내용	317
표 II-5-2-9	시도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2018.12)	318
표 II-5-2-10	건립중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	319
표 II-2-5-11	시도별 백년가게 선정현황(2018.12)	320
표 II-2-5-12	전국 백년가게 지정점포(2018.12)	320
표 II-5-2-13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내역(2018.12월말 기준)	323
표 II-5-2-14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현황(2018.12월말 기준)	323
표 II-5-2-15	공동기반시설 연계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2018.12월말 기준)	324
표 II-5-3-1	연도별 시장수·점포수·상인수 비교	326
표 II-5-3-2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2017년)	327
표 II-5-3-3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 육성시장 현황(2018.12월 말 기준)	329
표 II-5-3-4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 육성시장 현황(2018.12월 말 기준)	332
표 II-5-3-5	2018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시장 현황(2018.12월 말 기준)	332
표 II-5-3-6	2018년 첫걸음시장 육성시장 현황(2018.12월 말 기준)	332

C O N T E N T S

표 II-5-3-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지원 현황	335
표 II-5-3-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성과 평가(2018.12월)	336
표 II-5-3-9	시장경영혁신지원 예산	337
표 II-5-3-10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예산	338
표 II-5-3-11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338
표 II-5-3-12	청년몰 활성화·확장 대상시장 리스트	339
표 II-5-3-13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339
표 II-5-3-14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현황	340
표 II-5-3-15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340
표 II-5-3-16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341
표 II-5-3-17	2018년도 온누리상품권 주체별 구매비율	342
표 II-5-3-18	상인교육 현황	343
표 II-5-3-19	연도별 박람회 개최 현황	343
표 II-5-3-20	상권활성화 지원 현황(2016년)	345
표 II-5-3-21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2018년)	346
표 II-6-1-1	연도별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실적	348
표 II-6-1-2	2018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표사례	349
표 II-6-1-3	중소기업정책정보전달시스템(기업마당) 정보제공 현황	354
표 II-6-1-4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시스템(기업마당) 이용 현황	356
표 II-6-1-5	1357 중소기업 콜센터 상담 현황	358
표 II-6-1-6	비즈니스지원단 현황('18)	358
표 II-6-1-7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실적	359
표 II-6-1-8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실적	359
표 II-6-1-9	규제애로 분야별 발굴 현황	361
표 II-6-1-10	규제애로 유형별 처리 현황	361
표 II-6-1-1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실적	362
표 II-6-1-12	전체 중소기업체와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체와의 경영성과 비교	363
표 III-9-1-1	컨설팅 실적	403
표 III-19-1-1	'17년 중소기업 배정/편입인원	425
표 III-20-1-1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현황	427
표 IV-1-1-1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실적(2018년)	442
표 IV-1-1-2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2018년)	443
표 IV-1-1-3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2018년)	444

표목차

표Ⅳ-1-1-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18년)	444
표Ⅳ-1-1-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18년)	445
표Ⅳ-1-1-6	재도약지원자금 지원실적(2018년)	446
표Ⅳ-1-1-7	2018년 연수실적	461
표Ⅳ-2-1-1	기술보증 규모	476
표Ⅳ-2-1-2	3대 중점지원 분야 보증현황	476
표Ⅳ-2-1-3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477
표Ⅳ-2-1-4	혁신성장산업 보증지원 현황	478
표Ⅳ-2-1-5	신규보증의 기업 당 평균 연대보증인 수	481
표Ⅳ-2-1-6	기술평가건수(누계)	482
표Ⅳ-2-1-7	연도별 전문기술평가 건수(누계)	482
표Ⅳ-2-1-8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지원현황	482
표Ⅳ-2-1-9	기술평가 운용 조직체계	483
표Ⅳ-2-1-10	기술평가 인력현황	483
표Ⅳ-2-1-11	KTRS 유럽적용 로드맵	484
표Ⅳ-2-1-12	지식재산(IP) 관련 보증지원 실적	485
표Ⅳ-2-1-13	R&D 보증지원 실적	486
표Ⅳ-2-1-14	기후기술지원 추진성과	487
표Ⅳ-2-1-15	보증연계투자 주요내용	488
표Ⅳ-2-1-16	강좌별 수료자·참석자 현황	489
표Ⅳ-2-1-17	제2,3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490
표Ⅳ-3-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18.12월 기준)	492
표Ⅳ-3-1-2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495
표Ⅳ-3-1-3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495
표Ⅳ-3-1-4	소상공인컨설팅 제도 도입 경과	498
표Ⅳ-3-1-5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498
표Ⅳ-3-1-6	연도별 지원성과	499
표Ⅳ-3-1-7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499
표Ⅳ-3-1-8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인프라 구축 지원현황	500
표Ⅳ-3-1-9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02
표Ⅳ-3-1-10	연도별 지역별 나들가게 전환 지원실적	502
표Ⅳ-3-1-1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통합 정보시스템 보급 실적 및 계획	504
표Ⅳ-3-1-12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06

C O N T E N T S

표Ⅳ-3-1-13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07
표Ⅳ-3-1-14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08
표Ⅳ-3-1-15	2015년~2017년 구축 공동인프라 현황(10개소)	510
표Ⅳ-3-1-16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11곳)	510
표Ⅳ-3-1-17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공동마케팅)	513
표Ⅳ-3-1-18	연도별 지원실적	515
표Ⅳ-3-1-19	연도별 지원실적	515
표Ⅳ-3-1-20	연도별 지원실적	517
표Ⅳ-3-1-21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17
표Ⅳ-3-1-22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18
표Ⅳ-3-1-23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실적	519
표Ⅳ-3-1-24	전통시장 실태조사 연도별 일반 현황	519
표Ⅳ-3-1-25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	520
표Ⅳ-3-1-26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21
표Ⅳ-3-1-27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523
표Ⅳ-3-1-28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524
표Ⅳ-3-1-29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525
표Ⅳ-3-1-30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525
표Ⅳ-3-1-31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526
표Ⅳ-3-1-32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526
표Ⅳ-3-1-33	자문·지도위원 현황	527
표Ⅳ-3-1-34	연도별 지원실적	527
표Ⅳ-3-1-35	연도별 지원실적	528
표Ⅳ-3-1-36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 선정시장	528
표Ⅳ-3-1-37	연도별 지원실적	529
표Ⅳ-3-1-38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중점사항 변경내역	529
표Ⅳ-3-1-39	글로벌명품시장 지역별 선정시장	530
표Ⅳ-3-1-40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31
표Ⅳ-3-1-41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532
표Ⅳ-3-1-42	그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표본수 변화	534
표Ⅳ-3-1-43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추이	535
표Ⅳ-3-1-44	연도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실적	536

표목차

표Ⅳ-3-1-45	2018년 성장기반자금 집행실적	536
표Ⅳ-3-1-46	2018년 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	537
표Ⅳ-3-1-47	2018년 소상공인특별자금 집행실적	537
표Ⅳ-4-1-1	R&D기획지원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540
표Ⅳ-4-1-2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541
표Ⅳ-4-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541
표Ⅳ-4-1-4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543
표Ⅳ-4-1-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실적(최근5년)	543
표Ⅳ-4-1-6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최근5년)	544
표Ⅳ-4-1-7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545
표Ⅳ-4-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예산	545
표Ⅳ-4-1-9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지원사업 지원현황	546
표Ⅳ-4-1-10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지원현황	547
표Ⅳ-4-1-11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원현황	547
표Ⅳ-4-1-12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548
표Ⅳ-4-1-13	연도별 정보화 지원 예산	548
표Ⅳ-4-1-14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추이	548
표Ⅳ-5-1-1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보증 현황	550
표Ⅳ-5-1-2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550
표Ⅳ-5-1-3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551
표Ⅳ-5-1-4	지역재단의 지점수 현황	556
표Ⅳ-5-1-5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556
표Ⅳ-5-1-6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	557
표Ⅳ-6-1-1	비즈쿨 운영실적	559
표Ⅳ-6-1-2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560
표Ⅳ-6-1-3	최근 5년간 창업리그 주요 추진 성과	561
표Ⅳ-6-1-4	벤처·창업대전 참가규모(최근 3년)	562
표Ⅳ-6-1-5	창업조사·연구 연도별 운영실적	562
표Ⅳ-6-1-6	최근 3년간 K-스타트업 이용실적	563
표Ⅳ-6-1-7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 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564
표Ⅳ-6-1-8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현황	564
표Ⅳ-6-1-9	창업대학원(석사과정) 설치 현황('18년 기준)	565

C O N T E N T S

표Ⅳ-6-1-10	스마트창업터 주관기관	566
표Ⅳ-6-1-11	2018년 지원대상 선정절차	567
표Ⅳ-6-1-12	창업선도대학 지정현황('18년 기준)	568
표Ⅳ-6-1-13	창업선도대학 주요실적 및 성과	568
표Ⅳ-6-1-14	민·관공동창업자 발굴 육성 지원현황	569
표Ⅳ-6-1-15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성과('18.12)	570
표Ⅳ-6-1-16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571
표Ⅳ-6-1-17	글로벌 진출지원 성과	572
표Ⅳ-6-1-18	스마트벤처캠퍼스 주관기관 현황	573
표Ⅳ-6-1-19	스마트벤처캠퍼스 운영 현황	573
표Ⅳ-6-1-20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 지원 내용	574
표Ⅳ-6-1-21	2018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575
표Ⅳ-6-1-22	2018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현황	575
표Ⅳ-6-1-23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576
표Ⅳ-6-1-24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규모	576
표Ⅳ-6-1-2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18년)	579
표Ⅳ-6-1-26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설치현황 (2018년)	580
표Ⅳ-6-1-27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	582
표Ⅳ-6-1-28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지정현황('19년 기준)	582
표Ⅳ-6-1-29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584
표Ⅳ-6-1-30	27개 지역전략산업(2015.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585
표Ⅳ-7-1-1	모태조합 운영 체계	587
표Ⅳ-7-1-2	모태조합 조성규모	587
표Ⅳ-7-1-3	신규벤처펀드 조성액	588
표Ⅳ-7-1-4	모태조합 출자 계정별 자조합 결성 현황	589
표Ⅳ-7-1-5	신규벤처투자액	589
표Ⅳ-7-1-6	모태조합 취약분야 지원 현황	590
표Ⅳ-7-1-7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현황	592
표Ⅳ-7-1-8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현황	592
표Ⅳ-7-1-9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 집행현황	593
표Ⅳ-7-1-10	엔젤투자자 및 전문엔젤 수 누적 현황	593
표Ⅳ-8-1-1	백화점(목동판매장) 판매지원 현황	596

표목차

표Ⅳ-8-1-2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IM Shopping) 운영 현황 (2018년)	596
표Ⅳ-8-1-3	홈쇼핑사업 판매지원 현황	597
표Ⅳ-8-1-4	마케팅 판로지원사업별 주요 지원현황 (2018년)	599
표Ⅳ-9-1-1	2018년 정책연구 추진 현황	601
표Ⅳ-9-1-2	2018년 『중소기업 포커스』 발간 현황	603
표Ⅳ-9-1-3	2018년 『중소기업 정책연구』 주제 및 논문 구성 현황	604
표Ⅳ-9-1-4	2018년 학술세미나 수행 실적	606
표Ⅳ-9-1-5	통합관리시스템 정책정보 제공건수/페이지뷰 및 기업마당 활용 현황	608
표Ⅳ-9-1-6	2018년 정책전문가 교육과정 추진 현황	609
표Ⅳ-10-1-1	최근 5년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실적	612
표Ⅳ-10-1-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 현황(2018년)	612
표Ⅳ-10-1-3	2018년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실적	613
표Ⅳ-10-1-4	3년간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지원예산 현황	615
표Ⅳ-10-1-5	2018년도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 운영현황	615
표Ⅳ-10-1-6	2018년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운영현황	616
표Ⅳ-10-1-7	2018년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시험현황	616
표Ⅳ-10-1-8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개최 실적	617
표Ⅳ-11-1-1	공영쇼핑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619
표Ⅳ-11-1-2	창의혁신 제품 판매지원 현황	620
표Ⅳ-11-1-3	판매지원 중인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창의혁신 상품들	620
표Ⅳ-11-1-4	우수상품 판매지원·육성 현황	621
표Ⅳ-11-1-5	온라인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621
표Ⅳ-11-1-6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현황	622
표Ⅳ-11-1-7	고정 판매방송 프로그램 운영 현황('18년 생방송 기준)	623
표Ⅳ-12-1-1	연도별 창업교육 수료생 수	626
표Ⅳ-12-1-2	'18년 기술교육 현황	626
표Ⅳ-12-1-3	창업보육실 현황	628
표Ⅳ-12-1-4	장애인기업 등록절차	632
표Ⅳ-12-1-5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632
표Ⅳ-12-1-6	등록 장애인기업 현황	632
표Ⅳ-13-1-1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634
표Ⅳ-13-1-2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지원 현황	635

C O N T E N T S

표Ⅳ-13-1-3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자금) 추천 현황	635
표Ⅳ-13-1-4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특징	636
표Ⅳ-13-1-5	단체표준 등록 및 인증현황	637
표Ⅳ-13-1-6	중소기업 정책과제 건의 및 반영 현황(2018년)	639
표Ⅳ-13-1-7	주요 정책건의 반영 현황	641
표Ⅳ-13-1-8	공제사업기금 조성내역	650
표Ⅳ-13-1-9	공제사업기금 대출 현황	650
표Ⅳ-13-1-10	연도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건수 및 부금조성 현황(누계기준)	651
표Ⅳ-13-1-11	중소기업보증공제 운영현황(2018.12.31, 누계기준)	652
표Ⅳ-13-1-12	연도별 손해공제 가입 현황	652
표Ⅳ-13-1-13	연도별 유효계약 보유 현황	653
표Ⅳ-13-1-14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교육운영 현황	654
표Ⅳ-13-1-15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655
표Ⅳ-13-1-16	구매정보망 등록 현황	656
표Ⅳ-13-1-17	공공구매론 이용 실적	656
표Ⅳ-13-1-18	직접생산확인 주요연혁	656
표Ⅳ-13-1-19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현황	657
표Ⅳ-14-1-1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	662
표Ⅳ-14-1-2	수위탁기업간 네트워크형 공동사업 지원중소기업 현황	663
표Ⅳ-14-1-3	해외동반진출 지원 현황	664
표Ⅳ-14-1-4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육성 유형	664
표Ⅳ-14-1-5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지원실적	665
표Ⅳ-14-1-6	사내벤처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 선정 현황 (2018년도 말 기준)	665
표Ⅳ-14-1-7	성과공유 확인제 현황 (2018년도 말 기준)	666
표Ⅳ-14-1-8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666
표Ⅳ-14-1-9	지원 범위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18.12월말 기준)	667
표Ⅳ-14-1-10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18.12월말 기준)	668
표Ⅳ-14-1-11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	668
표Ⅳ-14-1-12	상생결제제도 기업별 실적현황	669
표Ⅳ-14-1-13	상생결제제도 은행별 실적현황 * 도입기업수 : 은행간 중복도입 포함	669
표Ⅳ-14-1-14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	670
표Ⅳ-14-1-15	연도별 동반성장 주간 개최 현황(최근 5개년)	670

표목차

표Ⅳ-14-1-1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시상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실적	671
표Ⅳ-14-1-17	최근 5년간 구매상담회 성과	671
표Ⅳ-14-1-18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현황	672
표Ⅳ-14-1-19	2·3차 수탁기업협의회 지원 프로그램	672
표Ⅳ-14-1-20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	673
표Ⅳ-14-1-21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지원현황(2018년 12월말, 누적)	673
표Ⅳ-14-1-22	2018년 적합업종 신청·합의 현황(2018년말 기준)	674
표Ⅳ-14-1-23	2018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현황	675
표Ⅳ-15-1-1	최근 3년간 신용보증 현황	677
표Ⅳ-15-1-2	보증연계투자 현황	679
표Ⅳ-15-1-3	사회적경제 육성 보증상품 지원계획	679
표Ⅳ-15-1-4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680
표Ⅳ-15-1-5	신용보험 주요 제도 개선 사항	682
표Ⅳ-15-1-6	보증승인 현황	682
표Ⅳ-16-1-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현황	683
표Ⅳ-18-1-1	자금조달 현황	696
표Ⅳ-18-1-2	자금공급 실적	697
표Ⅳ-18-1-3	지원대상별 대출실적	697
표Ⅳ-18-1-4	재원별 대출실적	698
표Ⅳ-18-1-5	금융자금 대출실적	698
표Ⅳ-18-1-6	용도별 대출실적	699
표Ⅳ-18-1-7	산업별 대출실적	700
표Ⅳ-18-1-8	투자실적	701
표Ⅳ-18-1-9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	702
표Ⅳ-18-1-10	온렌딩자금 지원실적	702
표Ⅳ-18-1-1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실적	703
표Ⅳ-18-1-12	2018년 동반자금융 주요 추진 실적	704
표Ⅳ-18-1-13	2019년 동반자금융 중점 추진 사항	704
표Ⅳ-18-1-14	IBK창공(創工) 1기 주요 성과	706
표Ⅳ-18-1-15	2018년 채용박람회 일정 및 성과	707
표Ⅳ-18-1-16	최근 3개년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현황	708
표Ⅳ-18-1-17	중소기업 컨설팅 추진 실적	710

C O N T E N T S

표Ⅳ-19-1-1	중소·중견기업 여신지원 규모	718
표Ⅳ-19-1-2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현황	719
표Ⅳ-19-1-3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지원현황	720
표Ⅳ-19-1-4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현황	720
표Ⅳ-20-1-1	지사화사업 연도별 주요실적	724
표Ⅳ-20-1-2	해외 공동물류센터 연도별 주요실적	725
표Ⅳ-20-1-3	buyKOREA.org의 서비스 제공 내용	725
표Ⅳ-20-1-4	바이코리아 사이트 운영실적	726
표Ⅳ-20-1-5	해외 마케팅 추진성과	726
표Ⅳ-20-1-6	무역사절단 최근 추진성과	727
표Ⅳ-20-1-7	전시회 한국관 참가 현황	727
표Ⅳ-20-1-8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지원 사업 결과	728
표Ⅳ-20-1-9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제공건수	728
표Ⅳ-20-1-10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제공건수	729
표Ⅳ-20-1-11	개별 방한 바이어 지원 현황	729
표Ⅳ-20-1-12	GP사업 계량 실적 현황	734
표Ⅳ-20-1-13	글로벌 역량진단(GCL테스트) 제공 건수	735
표Ⅳ-20-1-14	이동 KOTRA 서비스 제공 건수	735
표Ⅳ-20-1-15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	736
표Ⅳ-20-1-16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 업체 지원현황	736
표Ⅳ-20-1-17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737
표Ⅳ-20-1-18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유형	740
표Ⅳ-20-1-19	글로벌 M&A 지원사업 절차	741
표Ⅳ-20-1-20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역	742
표Ⅳ-20-1-21	교육과정 운영 현황(2018년 기준)	744
표Ⅳ-20-1-22	연도별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현황	746
표Ⅳ-20-1-23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유형별 동향 (5개년)	747
표Ⅳ-20-1-24	투자종합상담실 원스톱서비스 내역	748
표Ⅳ-20-1-25	IKP 인큐베이터 이용실적	748
표Ⅳ-20-1-26	글로벌 인재 유치지원 절차	750
표Ⅳ-20-1-27	글로벌 인재 채용지원 실적	750
표Ⅳ-20-1-28	전문 분야별 DB 구축 현황	750

표목차

표Ⅳ-20-1-29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751
표Ⅳ-20-1-30	고용추천서 발급 실적	751
표Ⅳ-20-1-31	국내인력 해외 취업지원 절차	751
표Ⅳ-20-1-32	주요 사업내용 및 '18년 실적	753
표Ⅳ-20-1-33	2018년 KOTRA KSP 사업 주요국 수행내역	754
표Ⅳ-21-1-1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756
표Ⅳ-21-1-2	무역보험 아카데미 운영 내역	757
표Ⅳ-21-1-3	보험(종료 지원 운영내역(서울시 및 무역협회)	758
표Ⅳ-21-1-4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및 환차손 보험금 지급내역	760
표Ⅳ-23-1-1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현황	798
표Ⅳ-23-1-2	생산성 통계 발간 현황	799
표Ⅳ-23-1-3	생산성경영체제 보급 현황	799
표Ⅳ-23-1-4	컨설팅 지원 현황	802
표Ⅳ-23-1-5	교육 및 훈련실적	802
표Ⅳ-23-1-6	세미나 개최실적	803
표Ⅳ-23-1-7	정보기술자격인증 실적	803
표Ⅳ-24-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기능	806
표Ⅳ-24-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D지원 사업 현황	807
표Ⅳ-24-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방형 실험실 현황(42개)	808
표Ⅳ-24-1-4	개방형실험실 장비활용 실적	809
표Ⅳ-24-1-5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지원 실적	809
표Ⅳ-24-1-6	기업현장출장 지원 실적	809
표Ⅳ-24-1-7	기술이전 실적	810
표Ⅳ-24-1-8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810
표Ⅳ-24-1-9	기술커뮤니티 운영 현황	811
표Ⅳ-24-1-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파트너기업 운영 현황	811
표Ⅳ-24-1-11	기술지도/상담 지원 실적	812
표Ⅳ-26-1-1	KISTI 정보서비스 보유자원 현황	826
표Ⅳ-26-1-2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주요 제공 연구데이터	828
표Ⅳ-26-1-3	NDSL 정보 제공 유형별 서비스 내용	830
표Ⅳ-26-1-4	NTIS 주요 제공 정보	832
표Ⅳ-26-1-5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 현황	836

C O N T E N T S

표Ⅳ-27-1-1	연도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실적	839
표Ⅳ-27-1-2	연도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실적	840
표Ⅳ-27-1-3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현황	843
표Ⅳ-27-1-4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출품 및 선정 현황	844
표Ⅳ-28-1-1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847
표Ⅳ-28-1-2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847
표Ⅳ-28-1-3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18년도)	848
표Ⅳ-28-1-4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848
표Ⅳ-28-1-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849
표Ⅳ-28-1-6	센터의 창업보육실 입주프로세스	849
표Ⅳ-28-1-7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현황	850
표Ⅳ-28-1-8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851
표Ⅳ-28-1-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851
표Ⅳ-28-1-10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852
표Ⅳ-28-1-11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요	853
표Ⅳ-28-1-12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최 현황	854
표Ⅳ-28-1-13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854
표Ⅳ-28-1-14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성과	855
표Ⅳ-28-1-15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856
표Ⅳ-28-1-16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856
표Ⅳ-28-1-1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개요	857
표Ⅳ-28-1-18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858
표Ⅳ-28-1-19	수출교육 개요	858
표Ⅳ-28-1-20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개요	858
표Ⅳ-28-1-21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 목록	859
표Ⅳ-28-1-22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860
표Ⅳ-28-1-23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861
표Ⅳ-28-1-2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861
표Ⅳ-28-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862
표Ⅳ-28-1-2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863
표Ⅳ-28-1-27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개요	863
표Ⅳ-28-1-28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성과	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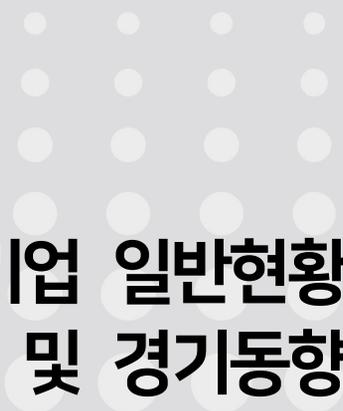
표목차

표Ⅳ-28-1-29	인증브랜드 여움 운영 추진내용	865
표Ⅳ-28-1-30	서로사랑 네트워크 운영 내용	866
표Ⅳ-28-1-31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867
표Ⅳ-28-1-32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868
표Ⅳ-28-1-33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868
표Ⅳ-28-1-34	여성경제인 DESK 신청 및 상담 분야	869
표Ⅳ-28-1-35	연도별 여성경제인 DESK 상담실적	870
표Ⅳ-28-1-36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개요	871
표Ⅳ-28-1-37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성과	872
표Ⅳ-28-1-38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873
표Ⅳ-28-1-39	여성기업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876
표Ⅳ-28-1-40	여성경제연구소 실적	876
표Ⅳ-29-1-1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황	878
표Ⅳ-29-1-2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878
표Ⅳ-29-1-3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878
표Ⅳ-29-1-4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현황	879
표Ⅳ-29-1-5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지원 현황	881
표Ⅳ-29-1-6	네트워크 기획지원 프로그램 구성	882
표Ⅳ-30-1-1	2018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주요 결과	888
표Ⅳ-30-1-2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운영 실적('14년~'18년)	891
표Ⅳ-30-1-3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지원 실적('16년~'18년)	892
표Ⅳ-30-1-4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의 지원 실적('17년~'18년)	893
표Ⅳ-30-1-5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6년~'18년)	894
표Ⅳ-30-1-6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8년)	895
표Ⅳ-30-1-7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실적(1기~7기)	895
표Ⅳ-30-1-8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실적('13년~'18년)	896
표Ⅳ-30-1-9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17~'18년)	897
표Ⅳ-30-1-10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실적('14~'18년)	898
표Ⅳ-30-1-11	해외전시회 이노비즈 공동관 지원 실적('18년)	900
표Ⅳ-31-1-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902
표Ⅳ-31-1-2	유형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	902
표Ⅳ-31-1-3	핵심운영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	903

C O N T E N T S

그림 1	창업선도대학 지원 체계도	38
그림 2	2018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40
그림 3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43
그림 4	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기업 및 특화기능 현황	60
그림 5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75
그림 6	미국의 벤처투자 성공사례 : 페이스북	81
그림 7	내일채움공제	107
그림 8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중소벤처기업부, 2018)	160
그림 9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개요	199
그림 10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203
그림 11	'18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현황	204
그림 12	'18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현황	204
그림 13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240
그림 14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242
그림 15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구성	249
그림 16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277
그림 17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281
그림 18	상권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	294
그림 19	상권정보시스템 18년 제공 주요서비스	295
그림 20	소상공인마당 기능 개선	296
그림 21	희망리턴 패키지	306
그림 22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309
그림 23	유통형태별 매출 추이	327
그림 24	기업마당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화면	354
그림 25	1357 중소기업 콜센터(중소기업종합상담)	356
그림 26	One Call 통합 상담 서비스	357
그림 27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업무프로세스	488
그림 28	소공인특화센터 우수사례(문래동 소공인특화센터)	509
그림 29	창업선도대학 지원 체계도	567
그림 30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571
그림 31	모의클라우드 펀딩 자료	627
그림 32	창업지원 프로세스	628
그림 33	산업위원회 추진 체계	645
그림 34	산업위원회 현황	646

그림 35	IBK기업은행 동반자금융 주요내용	703
그림 36	우량 중소기업 전문 채용플랫폼 「i-ONE JOB」	707
그림 3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연혁	804
그림 3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역할	805
그림 3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현황	806
그림 40	기술커뮤니티 지원	811
그림 41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서비스 개념도	827
그림 42	ScienceON 서비스 개념도	829
그림 43	NTIS 서비스 개념도	831
그림 44	2018 디자인코리아 전시장 전경	841
그림 45	2018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전시장면(2018. 10. 31)	842
그림 46	2018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주요성과	843
그림 47	우수디자인상품선정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시상식 (2018. 11. 28)	844
그림 48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852
그림 49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프로세스	854
그림 50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856
그림 51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프로세스	859
그림 52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프로세스	859
그림 53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860
그림 54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862
그림 55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862
그림 56	TV홈쇼핑 입점 지원 프로세스	864
그림 57	인증브랜드 선정절차	866
그림 58	서로사랑 네트워크 판매자 신청 절차	867
그림 59	여성경제인 DESK 프로세스	870
그림 60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개념도	872
그림 61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873
그림 62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874
그림 63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협력 유형	881
그림 64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화면	889
그림 65	2018년 제19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주요 스틸 컷	890
그림 66	문서 및 영상 매뉴얼 예시	892
그림 67	수출컨소시엄 맞춤형 상담회 및 현지기업 방문	898
그림 68	수출바우처사업 기업매칭 상담회	899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부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제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통계분석과 고 권 호

1

중소기업 현황

2017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3,733천개, 종사자수는 15,5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9.8%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사업체수는 61천개, 종사자수는 135천명이 증가하였다.

표 1-1-1-1 |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체	전체	3,604,773	3,676,499	3,737,465
	중소기업	3,600,882	3,672,327	3,732,997
	비중	(99.9)	(99.9)	(99.9)
종사자	전체	16,774,948	17,051,453	17,294,316
	중소기업	15,127,047	15,392,246	15,527,605
	비중	(90.2)	(90.3)	(89.8)

주 : 20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변경(종사자→매출액)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재편·가공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7.1%), 숙박 및 음식점업(20.0%), 제조업(11.5%), 운수 및 창고업(10.3%) 순으로 사업체수 비중이 높고,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제조업(20.8%), 도매 및 소매업(19.1%), 숙박 및 음식점업(14.0%)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 비중은 한국 및 영국이 99.9%, 미국 99.7%, 대만 97.7%, 일본 9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비중은 한국 89.8%, 대만 78.4%, 일본 75.6%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미국 및 영국은 각각 47.5%와 60.2%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 -1-1-2 |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2017년 기준)

구 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국	3,733	99.9	15,528	89.8
일본	5,451	99.0	43,160	75.6
대만	1,438	97.7	8,904	78.4
미국	5,881	99.7	58,938	47.5
영국	5,660	99.9	16,283	60.2

주 : ① 국가별 기준연도(일본 2014년, 미국 2015년, 영국 2018년) ② 한국은 매출액 기준, 일본·대만·영국·미국은 종사자 기준 ③ 한국·일본은 사업체 기준, 대만·미국·영국은 기업체 기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중소기업통계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전체 사업체수의 96.9%(3,622천개)와 전체 종사자수의 65.9%(11,404천명)를 차지하였으며, 중기업은 각각 3.0%(111천개)와 23.8%(4,123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표 | -1-1-3 | 기업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천개, 천명)

구분	전 체	중소기업				소 계	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 계		
		소상공인					
사업 체수	2016년	3,676,499	3,137,700	3,567,869	104,458	3,672,327	4,172
		(100.0)	(85.3)	(97.0)	(2.8)	(99.9)	(0.1)
	2017년	3,737,465	3,188,006	3,621,635	111,362	3,732,997	4,468
		(100.0)	(85.3)	(96.9)	(3.0)	(99.9)	(0.1)
종사 자수	2016년	17,051,453	6,202,033	11,316,873	4,075,373	15,392,246	1,659,207
		(100.0)	(36.4)	(66.4)	(23.9)	(90.3)	(9.7)
	2017년	17,294,316	6,365,094	11,404,265	4,123,340	15,527,605	1,766,711
		(100.0)	(36.8)	(65.9)	(23.8)	(89.8)	(10.2)

주 : 1.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계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합계임

2.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재편·가공

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수의 47.8%(1,786천개)를 차지하고, 영남권은 26.9%, 중부권은 10.3%, 호남권은 10.1%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로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2.2%(8,104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25.1%, 중부권은 10.1%, 호남권은 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 -1-1-4 |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도권	1,727,304 (48.0)	1,758,553 (47.9)	1,785,662 (47.8)	7,921,828 (52.4)	8,018,404 (52.1)	8,104,239 (52.2)
영남권	970,389 (26.9)	990,755 (27.0)	1,005,324 (26.9)	3,828,511 (25.3)	3,905,038 (25.4)	3,895,993 (25.1)
중부권	367,857 (10.2)	376,709 (10.3)	385,384 (10.3)	1,486,909 (9.8)	1,532,195 (10.0)	1,565,928 (10.1)
호남권	364,862 (10.1)	370,549 (10.1)	375,661 (10.1)	1,317,614 (8.7)	1,347,172 (8.8)	1,357,336 (8.7)
기 타 (강원, 제주)	170,470 (4.7)	175,761 (4.8)	180,966 (4.8)	572,185 (3.8)	589,437 (3.8)	604,109 (3.9)

주 : ()안은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재편·가공

소상공인은 2017년 기준으로 사업체수가 319만개(총사업체의 85.3%)이며, 그 중 46.6%는 수도권(서울 20.2%, 경기 21.5% 인천 4.9%)에 위치하고 있다.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37만 명(36.8%)이다.

표 | -1-1-5 | 2017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 분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업체	3,737,465	3,188,006	85.3	3,621,635	96.9	111,362	3.0	3,732,997	99.9
종사자	17,294,316	6,365,094	36.8	11,404,265	65.9	4,123,340	23.8	15,527,605	89.8

자료 : 통계청,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표 | -1-1-6 | 지역별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체	643,107	231,578	173,771	156,937	93,963	91,991	67,629	10,12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84,334	112,441	100,231	130,756	116,395	120,799	183,876	222,628	47,446

자료 : 통계청,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한편, 소상공인 사업체는 도·소매업(27.7%)과 숙박·음식점업(20.3%)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생활밀접형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표 | -1-1-7 |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全) 산업	3,188,006	100.0	6,365,094	100.0
도·소매업	884,411	27.7	1,610,757	25.3
숙박·음식점업	646,820	20.3	1,359,481	21.4
운수·창고업	369,773	11.6	443,892	7.0
제조업	359,903	11.3	1,166,088	18.3
기타	927,099	29.1	1,784,876	28.0

자료 : 통계청,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자영업자¹⁾는 2002년 최고 수준(621만 명)을 기록한 후, 금융위기 등의 경기침체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2010년 이후 하락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표 | -1-1-8 |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수	전체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a+b)	전년대비 증가율	(a)	전년대비 증가율	(b)	전년대비 증가율
2014년	25,897	5,720	0.3	1,581	3.1	4,139	△0.7
2015년	26,178	5,622	△1.7	1,609	1.8	4,013	△3.0
2016년	26,409	5,614	△0.1	1,584	△1.6	4,030	0.4
2017년	26,725	5,682	1.2	1,608	1.5	4,074	1.1
2018년	26,822	5,638	△0.8	1,651	2.7	3,987	△2.1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1)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거나,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2017년 중소기업 고용은 전체 사업체 고용(17,294천명)의 89.8%에 해당하는 15,528천명을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 -1-1-9 | 중소기업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사업체(A)	15,344,860	15,962,745	16,774,948	17,051,453	17,294,316
중소기업(B)	13,421,594	14,027,636	15,127,047	15,392,246	15,527,605
비중(B/A)	87.5	87.9	90.2	90.3	89.8

주 : 20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종사자→매출액)되어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주의필요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재편·가공

우리나라 종사자수 10인 이상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여율을 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이 전체 증가분의 50.8%를 차지하였다.

표 | -1-1-10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및 기여율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2017년 (c)	증감액(2017-2014년) (a+b+c)
전체 증감액	5.2	11.3	6.9	38.8	57.0
- 중소기업	13.3	15.1	3.9	9.9	28.9
(기여율)	255.2	133.4	57.0	25.6	50.8
- 대기업	△8.1	△3.8	3.0	28.8	28.0
(기여율)	△155.2	△33.4	43.0	74.4	49.2

주 : 1. 중소기업 기준(종사자 10~299인), 대기업 기준(종사자 300인 이상)

2. (a),(b),(c)는 직전년도 대비 증감액임

3. 2016~7년은 10차 산업분류 결과에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제외하여 작성

4. 기여율은 전체 부가가치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경제총조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연대별로 비교해 보면, 1970년대에는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성장정책으로 고용, 부가가치 증가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담당했다.

그러나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율이 82.0%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부가가치 기여율이 처음으로 대기업을 앞서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율은 2000년대 118.3%, 2010년 이후 74.5%로 나타나 고용 증가의 중심축에 중소기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가가치 기여율도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기여율이 64.9%로 대기업을 앞서고 있다.

표 | -1-1-11 |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단위 : %)

구 분			1970년대 (73~79)	1980년대 (80~89)	1990년대 (90~99)	2000년대 (00~09)	2010년 이후 (10~17)
사업 체수	기 여 율	중소기업	95.2	99.3	160.9	101.6	98.4
		대 기 업	4.8	0.7	△60.9	△1.6	1.6
종사 자수	기 여 율	중소기업	49.4	82.0	△26.3	118.3	74.5
		대 기 업	50.6	18.0	△73.7	△18.3	25.5
부가 가치	기 여 율	중소기업	34.0	46.7	47.9	48.2	64.9
		대 기 업	66.0	53.3	52.1	51.8	35.1

- 주 : 1. 중소기업 기준(종사자 10~299인), 대기업 기준(종사자 300인 이상)
 2. 1973~1999년은 광·제조업 결과(8차 산업분류), 1980~2017년은 제조업 결과(9차 산업분류)
 3. 2016~7년은 10차 산업분류 결과에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제외하여 작성
 4.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경제총조사)

제2장

중소기업 경기현황

통계분석과 고건호

1

업종별 동향

가. 제조업

1) 생산

2018년 중소기업 연간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2.5% 감소한 103.5로 나타났다.

표 | 2-1-1 | 연도별 중소기업 생산 추이

(2015=100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산지수	100.0	103.1	106.1	103.5
전년대비 증감률	0.5	3.1	2.9	△2.5

주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2018년 중소기업 월별 생산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표 | 2-1-2 | 2018년 월별 중소기업 생산 추이

(2015=100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지수	101.3	89.6	107.8	106.2	107.5	105.9	104.1	100.6	97.8	109.4	106.3	105.3
전년동월 대비증감률	3.6	△9.4	△4.8	△1.8	△0.7	△4.6	△0.6	△1.8	△14.0	13.6	△3.8	△3.1

주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한편 2018년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0%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다.

표 | -2-1-3 |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4	2/4	3/4	4/4	전체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1.9	73.3	73.1	72.3	73.5	72.7	73.5	73.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2018년 전체 제조업 및 중소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각각 0.2%, 2.6% 감소하였으나 4/4분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 -2-1-4 |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증감 추이

(2015=100기준)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4	2/4	3/4	4/4	전체
전 체	100.0 (0.3)	101.5 (1.5)	102.4 (0.9)	97.8 (△2.5)	103.7 (0.1)	101.5 (△1.6)	105.7 (3.2)	102.2 (△0.2)
중소기업	100.0 (1.4)	103.5 (3.5)	105.9 (2.3)	98.6 (△4.5)	106.5 (△2.3)	100.6 (△5.8)	106.8 (2.1)	103.1 (△2.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고용

2018년 중소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435천원이며,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다.

2018년 중소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81.0시간으로 전년 대비 2.7시간 감소하였다.

표 | -2-1-5 | 중소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추이(5~299인)

(단위 : 천원, 시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소제조업 전체임금총액	3,013	3,160	3,290	3,435
중소제조업 전체근로시간	187.8	186.8	183.7	181.0

주 : 조사대상이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18.6)되었으나 시계열 유지를 위해 5~299인 자료 기재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8년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는 24,299천명으로 전년대비 48천명이 증가하였다. 2018년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실업률은 3.8%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다.

표 | 2-1-6 |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률, 실업률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취업자수(300인 미만)	23,790	23,933	24,251	24,299
고용률	65.9	66.1	66.6	66.6
실업률	3.6	3.7	3.7	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원자재 구매 및 제품 판매

가) 원자재 구매

2017년 중소제조업의 원자재 구매는 291조원으로, 구매처별 원·부자재 구매비율은 국내구매가 90.3%, 해외구매가 9.7%로 나타났다.

표 | 2-1-7 | 원자재 구매액 및 원산지별 구매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률
중소제조업	3,067,822	2,582,909	2,909,423	12.6
- 국 내 산	92.4%	88.2%	90.3%	2.1
- 외 국 산	7.6%	11.8%	9.7%	△2.1

주 : 1.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국내에서 1차 가공된 수입원자재는 국내산으로 봄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7년 중소제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은 현금이 93.3%, 어음이 6.7%로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지급 비중이 전년(93.7%)대비 0.4%p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현금 93.8%, 어음 6.2%로 나타났으며, 중기업은 현금 87.0%, 어음 13.0%로 소기업이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8 |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상황

(단위 : %)

구 분	현 금			어 음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 소 제 조 업	89.3	93.7	93.3	10.7	6.3	6.7
- 소 기 업	89.9	94.4	93.8	10.1	5.6	6.2
- 중 기 업	79.9	85.2	87.0	20.1	14.8	13.0

주 : 1.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기업체당 구매총액 대비 지급금액 비율(%)임.
 3. 현금지급에는 순수현금결제와 어음대체용 현금성 결제가 포함됨.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7년 중 중소기업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어음으로 구매한 경우 구매대금의 어음 평균 지급기일은 33.0일, 결제기일은 69.9일, 지급기일과 결제기일을 합한 총 지급기일은 102.9일로 전년(108.1일)대비 5.2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별 구매대금 어음 총 지급기일은 소기업이 5.1일, 중기업이 5.3일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9 | 원자재 구매대금의 어음 지급기일

(단위 : 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증 감
총 지급 기 일(1+2)	105.5	108.1	102.9	△5.2
· 지 급 기 일(1)	32.1	33.9	33.0	△0.9
· 결 제 기 일(2)	73.4	74.2	69.9	△4.3
- 소 기 업	105.4	107.8	102.7	△5.1
- 중 기 업	106.5	109.6	104.3	△5.3

주 : 1.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지급기일은 원자재를 구매한(납품받은) 날로부터 어음을 지급한 날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3. 결제기일은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4. 총지급기일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과 지급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을 합한 총 기일.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나) 제품 판매

2017년 중소기업의 제품판매총액은 586조원으로 나타났다.

판매액 중 내수 비중은 88.6%('16)에서 89.4%로 0.8%p 증가했으며, 수출 비중은 11.4%('16)에서 10.6%로 감소했다.

표 | -2-1-10 | 판매형태별 제품판매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중소제조업 (전년비 증감률)	6,255,175 (3.5%)	5,406,657 (△13.6%)	5,862,531 (8.4%)
- 수출	8.7	11.4	10.6
- 내수	91.3	88.6	89.4

주 :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7년 중소기업 판매대금의 결제는 현금성 결제가 84.5%, 어음 결제가 15.5%로 나타났으며, 현금성 결제는 전년(83.2%)대비 1.3%p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현금성 결제가 85.1%, 어음결제가 14.9%로 나타났으며, 중기업은 현금성 결제 78.2%, 어음결제 21.8%로 나타나 중기업의 현금결제 비중이 소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11 | 제품판매대금 결제상황

(단위 : %)

구 분	현 금			어 음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 소 제 조 업	80.3	83.2	84.5	19.7	16.8	15.5
- 소 기 업	80.8	83.9	85.1	19.2	16.2	14.9
- 중 기 업	72.9	75.3	78.2	27.1	24.8	21.8

주 : 1.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비율(%임)

3. 현금은 순수현금결제이외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결제 포함됨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7년 중 중소기업이 제품판매 후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는데 소요된 기일과 어음 결제기일을 합한 총 수취기일은 105.7일로 전년(114.8일)대비 9.1일 감소했다. 이를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로 구분하면 수취기일은 전년대비 4.0일 감소했고, 결제기일은 5.0일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전년대비 0.2일 감소했고, 중기업은 0.5일 증가했다.

표 | 2-1-12 | 제품판매대금의 어음 수취기일

(단위 : 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수취기일(1+2)	110.3	114.8	105.7
· 수취기일(1)	33.8	36.9	32.9
· 결제기일(2)	76.5	77.8	72.8
- 소 기 업	110.6	115.4	105.2
- 중 기 업	107.3	108.9	109.4

- 주 : 1.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수취기일은 제품을 판매한(납품한) 날로부터 어음을 받은 날까지 평균 소요기일
 3. 결제기일은 받은 어음의 현금화(결제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4. 총수취기일은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과 수취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을 합한 총기일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4) 재무구조

가) 성장성

2017년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5.89%)은 전년대비 2.88%p 상승하였다.

반면, 유형자산 증가율(5.71%), 총자산 증가율(6.49%), 유동자산 증가율(6.81%) 자기자본 증가율(9.20%)은 전년대비(△1.06%p, △1.43%p, △1.65%p, △1.52%p) 하락하였다.

표 | 2-1-13 | 성장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 출 액 증 가 율	4.93	1.72	3.83	3.01	5.89
유 형 자 산 증 가 율	3.64	8.85	7.73	6.77	5.71
총 자 산 증 가 율	4.89	7.82	7.85	7.92	6.49
유 동 자 산 증 가 율	7.34	6.46	7.18	8.46	6.81
자 기 자 본 증 가 율	14.04	9.54	11.11	10.72	9.20

주 :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나) 수익성

2017년 중소기업의 총자산세전순이익률은 4.48%, 총자산순이익률은 3.87%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6년 364.61%에서 373.72%로 9.11%p 상승했다.

한편, 금융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은 2016년에서 1.52%에서 2017년 1.43%로 소폭 하락했다.

표 | -2-1-14 |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자산 세 전 순 이 익 률	5.19	4.74	4.97	4.92	4.48
총 자 산 순 이 익 률	4.46	4.09	4.36	4.20	3.87
자 기 자 본 세 전 순 이 익 률	12.53	12.33	12.72	11.99	10.79
매 출 액 영 업 이 익 률	5.24	5.18	5.23	5.54	5.35
매 출 액 세 전 순 이 익 률	4.52	4.21	4.51	4.94	4.36
매 출 액 순 이 익 률	3.89	3.64	3.95	4.22	3.76
이 자 보 상 비 율	333.63	294.36	336.43	364.61	373.72
금융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	1.57	1.76	1.56	1.52	1.43
차 입 금 평 균 이 자 율	4.89	4.90	4.18	3.84	3.78

- 주 : 1.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총자산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총자산 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총자산)×100, 3.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4. 자기자본 세전이익률 = (세전순이익/자기자본)×100, 5.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6.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매출액)×100, 7.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8.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100, 9. 금융비용 대 매출액비율 = (이자비용/매출액)×100
 10. 차입금 평균이자율 = (이자비용/차입금(장·단기 차입금+회사채))×100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다) 안정성

2017년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유동비율(비유동자산/자기자본)은 2016년 128.79%에서 126.02%,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2016년 140.65%에서 137.72%로 각각 하락했으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은 2016년 41.55%에서 42.07%로 상승했다.

또한,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도 2016년 138.22%에서 142.76%로 상승했다.

한편, 차입금의존도((장·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산)는 2016년 38.78%에서 38.60%로 소폭 하락했다.

표 | -2-1-15 | 안정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 동 비 율	136.27	129.81	137.44	138.22	142.76
비 유 동 비 율	120.92	134.45	132.53	128.79	126.02
자 기 자 본 비 율	41.38	38.69	39.67	41.55	42.07
부 채 비 율	141.66	158.46	152.09	140.65	137.72
차 입 금 의 존 도	36.84	40.62	41.00	38.78	38.60

- 주 : 1.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3. 비유동비율 = (비유동자산/자기자본)×100
 4.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5.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100
 6.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장·단기 차입금+회사채)/총자산)×100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라) 생산성

2017년 중소제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자본생산성)은 2016년 27.16%에서 2017년 27.37%로 반등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도 2016년 61.85%에서 2017년 63.19%로 전년대비 1.34%p 증가했다

한편,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은 2016년 27.24%에서 26.64%로 하락했다.

표 | -2-1-16 | 생산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자 본 투 자 효 율	27.56	28.35	29.12	27.16	27.37
부 가 가 치 율	24.02	25.23	26.43	27.24	26.64
노 동 소 득 분 배 율	60.79	61.32	62.72	61.85	63.19

주 : 1.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총자본 투자효율(자본생산성) = (부가가치/총자본)×100

3.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매출액)×100, 4.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부가가치)×100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 소상공인 경기동향

2018년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3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 -2-1-17 | 소상공인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구 분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감경기	56.6	64.0	79.7	71.9	71.6	62.2	52.5	55.7	67.9	72.8	66.3	62.1
예상경기	86.9	81.6	103.0	104.0	93.1	84.7	83.9	73.9	99.4	93.7	93.6	86.8

구 분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출	56.0	63.9	80.1	71.1	71.0	61.7	51.9	55.5	68.2	72.9	66.3	61.9
영업이익	55.8	63.5	79.9	70.9	70.7	61.7	51.6	55.4	67.5	72.9	65.9	61.9
자금사정	57.8	64.4	80.0	71.3	71.2	63.3	55.2	56.5	69.7	73.0	68.2	63.6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전통시장 경기동향

2018년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며, 2월에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무더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여름에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 -2-1-18 | 전통시장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구 분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감경기	44.2	79.5	67.0	69.4	62.3	54.1	45.5	38.5	73.2	66.5	68.0	52.7
예상경기	87.5	90.9	92.6	104.5	94.1	76.8	86.1	74.2	106.8	95.8	98.3	82.8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분야별 동향

가. 창업 및 부도

2018년 신설법인 수(전국 기준)는 102,042개로 2017년(98,330개) 대비 3.8% (3,712개) 증가하였고, 부도법인 수 대비 신설법인수를 나타내는 창업배율은 부도 법인이 감소하고 신설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291.5배를 기록하였다.

표 | -2-1-19 | 신설법인수(전국 기준)

(단위 : 개, 배)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4	2/4	3/4	4/4	전체
신설법인수	93,768	96,155	98,330	26,747	26,043	24,061	25,191	102,042
부도법인수	516	433	382	99	90	72	89	350
창업배율	181.7	222.1	257.4	270.2	289.4	334.2	283.0	291.5

자료 : 법원행정처 및 한국은행, 창업배율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

2018년 창업기업 수(전국 기준)는 134.4만개로 2017년(125.6만개) 대비 7.0% (8.8만개) 증가하였고, 그 중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21.2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15.8%를 차지하였다.

표 | -2-1-20 | 창업기업수(전국 기준)

(단위 : 만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1/4	2/4	3/4	4/4	전체	
창업기업수	119.0	125.6	36.6	32.6	32.2	33.1	134.4	
형태별	법인	9.7	9.8	2.6	2.6	2.5	2.5	10.2
	개인	109.4	115.9	34.0	30.0	29.7	30.5	124.2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수	19.1	19.9	5.6	5.1	5.0	5.5	21.2	
형태별	법인	3.7	3.8	1.0	1.0	1.0	1.0	4.0
	개인	15.4	16.1	4.6	4.2	4.0	4.5	17.2

자료 : 통계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나.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14년 1,033억불(18.0%), 2015년 962억불(18.3%), 2016년 995억불(20.1%), 2017년 1,032억불(18.0%), 2018년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052억불(17.4%)을 기록하였다.

수출중소기업은 2014년 88.5천개, 2015년 89.4천개, 2016년 91.9천개, 2017년은 92.3천개, 2018년은 94.2천개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표 | -2-1-21 |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개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수출액	572,665	526,757	495,426	573,694	604,860
중소기업수출액 (비중)	103,291 (18.0)	96,227 (18.3)	99,524 (20.1)	103,209 (18.0)	105,196 (17.4)
수출기업수	88,486	89,364	91,855	92,287	94,162

2017년과 2018년의 기업 규모별 수출을 보면, 모든 기업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중소기업 1.9%, 중견기업 7.8%, 대기업 5.8% 증가하였다.

표 | -2-1-22 |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개사, %)

구분	2017년				2018년					
	업체수	비중	수출액	비중	업체수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중소기업	92,287	96.9	103,209	18.0	94,162	96.7	2.0	105,196	17.4	1.9
중견기업	2,079	2.2	93,726	16.3	2,355	2.4	13.3	101,033	16.7	7.8
대 기업	877	0.9	375,699	65.5	877	0.9	0.0	397,407	65.7	5.8
전 체	95,243	100.0	573,694	100.0	97,394	100.0	2.3	604,860	100.0	5.4

* 전체 수출액은 기타(비영리법인, 개인, 단체 등)를 포함하였으며, 전체 수출업체수는 기타 제외

2018년 중소기업의 수출국가 다변화 정도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이 상위 5개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전체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기존 주력 시장(중·미·일) 및 EU 지역 수출이 늘어났다. 특히 중국은 디스플레이 공장 증설 등 '18년 경제성장세 유지로 평판DP

제조용장비·화장품 등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였고, 미국은 화장품 및 원동기·펌프 수출이 증가하며 2위 수출국 자리를 탈환하였다.

* 2018년 수출중소기업의 5개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58.9%(2017년 58.8%), 10개국 수출은 70.8%(2017년 70.6%)

표 | -2-1-23 | 국가별 수출액 및 증감현황

(단위 : 개사, 백만불, %)

구분	2017년		2018년			
	업체수	수출액	업체수	증감	수출액	증감
중국	31,407	22,329	31,740	1.1	24,780	11.0
미국	19,479	11,478	19,952	2.4	12,094	5.4
베트남	17,436	12,399	18,377	5.4	10,488	△15.4
일본	19,200	9,572	19,606	2.1	10,015	4.6
아세안	37,285	22,467	38,761	4.0	20,586	△8.4
EU	17,237	8,360	17,638	2.3	8,937	6.9

2018년도 주요 수출 품목은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이며, 상위 10대 품목 중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67.1%), 반도체제조용장비(28.2%), 화장품(24.9%) 등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이 32.0%를 차지하였다.

표 | -2-1-24 |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17년			2018년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감
1	플라스틱제품	5,212	5.0	플라스틱제품	5,069	4.8	△2.7
2	자동차부품	4,570	4.4	화장품	4,648	4.4	24.9
3	화장품	3,722	3.6	자동차부품	4,097	3.9	△10.3
4	합성수지	3,476	3.4	합성수지	3,568	3.4	2.7
5	기타기계류	3,263	3.2	반도체제조용장비	2,917	2.8	28.2
6	반도체	2,833	2.7	평판DP제조용장비	2,799	2.7	67.1
7	계측제어분석기	2,688	2.6	기타기계류	2,732	2.6	△16.3
8	철강판	2,425	2.3	반도체	2,683	2.6	△5.3
9	편직물	2,294	2.2	철강판	2,593	2.5	7.0
10	무선통신기기	2,283	2.2	계측제어분석기	2,558	2.4	△4.8

주 : 증감은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MTI 3단위 기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다. 금융

2018년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669.4조원으로 2017년 말 대비 37.6조원 (6.0%) 증가하였다.

표 | -2-1-25 | 기업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1/4 (3월말)	2/4 (6월말)	3/4 (9월말)	4/4 (12월말)
기업대출	744.9	781.4	796.0	806.5	821.5	824.1
대기업	154.7	149.6	151.8	153.6	154.8	154.7
중소기업	590.2	631.8	644.2	652.9	666.7	669.4

자료 : 한국은행

2018년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49%)은 2017년 말(0.48%) 대비 0.01%p 상승하였으며, 대기업 대출 연체율(0.73%)은 2017년 말(0.40%)에 비해 0.33%p 상승하였다.

표 | -2-1-26 | 기업대출 연체율 현황

(단위 : %)

구 분	'17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기업	0.40	0.44	0.45	0.45	1.76	1.81	1.78	1.79	1.80	1.78	1.72	1.67	0.73
중소기업	0.48	0.59	0.69	0.59	0.64	0.69	0.48	0.58	0.66	0.56	0.64	0.67	0.49

자료 : 금융감독원

라. 인력

2017년 중소제조업 인력실태를 살펴보면, 현 인원은 233만 명으로 직종별 인력은 생산직 60.0%, 사무·관리직 24.7%, 기술·연구직 10.0%, 판매·마케팅직 3.6%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 -2-1-27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명, %)

중소제조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 인원	2,086,116	2,375,864	2,430,320	2,198,734	2,331,536
부족인원	55,489	38,210	59,311	69,402	57,073
부족률	2.59	1.58	2.38	3.06	2.39

주 : 1.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인원 + 부족인원) * 100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한편,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생산직이 2.98%로 가장 높고, 기술·연구직 2.38%, 판매·마케팅직 2.02%, 사무·관리직 1.04% 등의 순이며, 학력별 인력구성은 고졸이 5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졸, 전문대졸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원졸 이상은 1.0%에 그쳤다.

표 | -2-1-28 |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2017년)

구 분	전 체	사 무 관리직	기 술 연구직	생산직	판 매 마케팅직	기 타 종사자
부족인원(명)	57,073	6,062	5,685	42,946	1,713	668
부 족 률(%)	2.39	1.04	2.38	2.98	2.02	1.66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표 | -2-1-29 | 중소기업의 학력별 인력구성

(단위 : %)

구 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3년	3.9	53.4	18.3	23.0	1.4
2014년	1.7	56.8	20.2	20.5	0.8
2015년	2.1	57.4	19.5	20.0	1.0
2016년	1.7	58.3	13.7	25.2	1.1
2017년	1.1	54.5	18.7	24.6	1.0

주 :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2017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일수록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 기업규모와 인력부족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30 |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기업	1.85	2.05	2.94	3.22	2.88
중기업	0.82	0.68	1.15	2.71	1.89

주 :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2017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마. 기술

2017년 기준 매출액 5억 원 초과 중소기업체의 33.5%가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31 |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2~'14 : 5~299인, '15 : 5인 이상, '16 : 5억원 초과)

(단위 : 개,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R&D수행 중소기업체	38,531	37,823	45,307	40,588	45,320
중소기업수 대비 비중	31.6	30.0	33.6	31.4	33.5

주 :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2018년 중소기업 실태조사(모집단 : 5억원 초과 중소기업체 159,365개, 표본수 : 7,500개)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2018년 38,734개사로 2012년 24,243개에 비해 1만 4천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소속 연구원 수도 4만 명이상 증가하여, 2018년에 19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32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4,243	27,154	30,478	33,647	36,026	37,696	38,734
소속 연구원수	146,833	155,580	163,887	176,084	184,998	190,686	193,724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8.12)

이와 같은 저변확대에 힘입어 2017년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약 13.7조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 78.8조원의 17.4%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33 |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 공 연구 기 관	63,061	64,418	69,503	72,607	81,127	88,241	91,132	95,432
대 학	47,455	50,338	52,769	54,803	57,670	59,989	63,399	66,825
기 업	328,033	381,833	432,229	465,599	498,545	511,364	539,525	625,634
- 대 기 업	242,129	283,462	320,709	357,781	386,177	389,303	407,787	398,038
- 중 견 기 업								90,687
- 중 소 기 업	85,904	98,371	111,520	107,818	112,367	122,061	131,738	136,909
합 계 (국가 R&D 규모)	438,548	498,904	554,501	593,009	637,341	659,594	694,055	787,891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그러나 중소기업 R&D의 저변확대와 투자증가 등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 -2-1-34 |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

구 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술능력 수준	74.8	75.6	77.1	74.3	75.6	77.3

자료 : 2018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중소기업 육성시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2부

제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제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제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제1절 민간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1

신설법인 현황

▪ 통계분석과 고건호

2018년 연간 신설법인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2,042개로 통계 작성(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하였다.

표 II-1-1-1 | 연도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법인수	75,574	84,697	93,768	96,155	98,330	102,042

업종별로는 건설 및 전기가스업(5.4%, 789개)과 서비스업(9.3%, 5,626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표 II-1-1-2 | 업종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연도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계
2015년	3,161 (3.4)	20,155 (21.5)	10,709 (11.4)	59,743 (63.7)	93,768 (100.0)
2016년	2,391 (2.5)	19,037 (19.8)	11,313 (11.8)	63,414 (65.9)	96,155 (100.0)
2017년	2,559 (2.6)	20,629 (21.0)	14,662 (14.9)	60,480 (61.5)	98,330 (100.0)
2018년	1,531 (1.5)	18,954 (18.6)	15,451 (15.1)	66,106 (64.8)	102,042 (100.0)

연령별로는 40대(35,342개, 34.6%), 50대(27,052개, 26.5%), 30대(21,605개, 21.2%)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특히 30세 미만(전년 대비 10.5%)과 60세 이상(전년 대비 9.5%)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표 II-1-1-3 | 연령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구 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증감수	증감률
30세미만	6,189	6.3	6,837	6.7	648	10.5
30~39세	20,337	20.7	21,605	21.2	1,268	6.2
40~49세	35,086	35.7	35,342	34.6	256	0.7
50~59세	26,527	27.0	27,052	26.5	525	2.0
60세이상	10,015	10.2	10,962	10.7	947	9.5
기 타	176	0.2	244	0.2	68	38.6
총 계	98,330	100.0	102,042	100.0	2,175	3.8

성별로는 여성(6.7%)과 남성(2.8%) 모두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2017년 대비 0.7%p 증가하였다.

표 II-1-1-4 | 성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률
여 성	24,276 (24.7)	25,899 (25.4)	6.7
남 성	74,054 (75.3)	76,143 (74.6)	2.8
계	98,330 (100.0)	102,042 (100.0)	3.8

2

창업저변 확대

- 창업촉진과 정 등 찬
- 벤처혁신기반과 강 병 택
- 창업촉진과 고 종 현
- 창업촉진과 주 재 범

가. 창업교육

예비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지원하는 창업에듀는 '09년 구축되어 '10년도부터 운영되어온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이다.

'16년 온라인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마이크로 러닝(Micro-Learning)' 방식의 강좌를 신규 개편하여 스마트 기기 등에서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표 II-1-1-5 | 창업에듀 강좌 운영 현황

구 분	강좌 수	주요강좌 내용
신규개발 강좌 (Micro Learning)	173개 강좌	창업준비, 시장환경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창업론, 창업인식 개선 콘텐츠(성공창업자 인터뷰) 등
기존 강좌	52개 강좌	창업·경영이론(회계, 재무재표, 생산관리 등)
외부 제휴강좌	143개 강좌	청소년 기업가정신, 기술보호&저작권 등
총 계	368개 강좌	

창업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강생들이 필요한 주제별 강좌를 개발 또는 외부 기관과 제휴하였고,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 등의 주제 강좌 368개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1-1-6 | 창업에듀 성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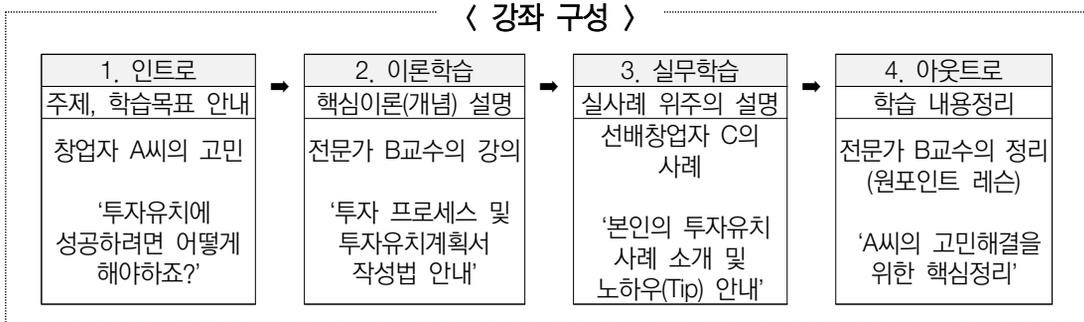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규회원	19,198	14,531	3,620	7,496	8,246	8,021	11,073	10,913	12,347
방문건수	91,414	70,740	108,601	147,716	178,480	212,693	252,775	186,932	225,683
수료생 수	3,075	17,017	34,170	54,979	56,143	27,881	40,968	161,192	303,126

개편 전('10~'16년) 평균 33,462명이던 교육 수요생이 개편 후 '17년 161,192명, '18년 303,126명(개편 전 대비 약 9배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편 시 도입된 기관별 맞춤형 교육서비스인 '패키지 과정'은 첫째 신청기관이 17개 기관(23개 과정)에서 2년 만에 65개 기관(85개 과정)으로 약 3.8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표 II-1-1-7 | 창업교육 강좌 구성(예시)



또한 국내 최초로 2004년부터 중앙대학교, 한밭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호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에 석사과정의 창업대학원을 설치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지원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5개 대학원(국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을 선정하여 보다 넓게 저변을 확대하였다.

표 II-1-1-8 | 창업대학원(석사과정) 설치 현황('18년 기준)

구 분	국민대	계명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부산대
대학원명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글로벌창업 경영대학원	글로벌 창업 대학원	정경·창업 대학원	기술 창업 대학원
개설	2014.9월	2014.9월	2014.9월	2014.9월	2014.9월
형태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5학기	5학기	5학기

특히 창업대학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의 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최근 제2의 벤처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수요 증가에 따라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강좌 이외에 다양한 특별 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스타트업 워크숍



학술포럼



토크콘서트

창업대학원은 석사교육 과정의 우수한 콘텐츠의 외부 확산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세미나, 워크숍, 포럼, 경진대회 등의 다양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생들이 창업과 관련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나. 기업가정신 확산

비즈쿨(2002년~), 대학기업가센터(2014년~), 기업가정신 기반구축 및 확산(2014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비즈쿨(Bizcool)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표적 사업으로, 학교(School)내에서 경영(Business)을 배운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 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평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를 위해 2018년에는 초·중·고·학교 밖 비즈쿨 지정학교(센터) 561개를 지원하였고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표 II-1-1-9 | 비즈쿨 운영실적

구 분	'02~'12	'13	'14	'15	'16	'17	'18
비즈쿨학교(B)	1,027개교	135개교	200개교	412개교	448개교	513개교	561개교
참여학생수	580천명	116천명	133천명	190천명	247천명	262천명	283천명
비즈쿨캠프	89회, 8,850명	22회, 1,808명	15회, 1,035명	11회, 585명	19회, 989명	9회, 469명	9회, 417명
창업동아리	4,622개	830개	1,053개	1,329개	2,092개	2,781개	2,803개



청소년비즈니스쿨 국내캠프



청소년비즈니스쿨 해외캠프



청소년비즈니스쿨 페스티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관련 실전형 전공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전국 9개 대학(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양대)에 대학기업가센터를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대학기업가센터에서는 대학생의 창업 수요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규 전공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1-1-10 |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공강좌 수(개)	37	183	235	264	296
강좌수강생(명)	1,271	7,614	13,273	17,959	17,255
창업네트워킹(건)	86	243	337	558	571
콘텐츠제작(건)	40	69	68	62	58

또한,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112억 원을 조성하여 2011년 3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재단에서는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조사와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전문가 양성 등 기업가정신 확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학생, 예비창업자, 청년기업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4년간 2,232명의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교육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가정신과 국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글로벌 기업가정신 조사

연구(GEM) 활동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별 기업가정신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있다. 그 결과 '18년 전체 49개 국가 가운데 한국의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회형 창업은 4위('17년은 8위)로 상승하였고, 특히,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업가적 생태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 54개 국가 가운데 시장 역동성 2위('17년은 3위), 재무적 환경 25위('17년은 36위) 등 좋은 제반여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를 실시하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 서비스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기업가정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진단한다. 2018년 통계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우수’를 획득하여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기업가정신 통계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가정신 포털사이트(www.eship.or.kr)를 2015년에 구축하여 기업가정신 관련 국내외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 포털은 학생, 연구자, 일반인, 기업인 등 전 국민이 기업가정신을 쉽게 접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기업가정신 교육·행사 등의 활동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단체·협회의 다채로운 기업가정신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그 밖에도 가족단위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 행복한 기업가정신 가족캠프, 세계 기업가정신주간(매년 11월 셋째주) 한국행사, 기업가정신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18.6.11~12)



세계기업가정신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18,
'18.11.12~13)



다큐멘터리 방영
(’18.12.2.)

다. 도전 K-스타트업

사회 전반의 창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이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창업을 테마로 한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부처 통합 경진대회인 One Brand인 “도전! K-스타트업”을 4개 부처(중기부,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각 부처별 특성을 살린 예선을 통해 “도전! K-스타트업” 본선 대회 진출팀을 선발하고, 부처별 우수팀이 모여 공개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왕중왕 10개 팀을 선발하였다.

* 접수 (6,545건) : 중기부(2,502건), 미래부(2,691건), 교육부(772건), 국방부(580건)

* 선발 : 예선(106팀) → 통합본선(25팀) → 결선(10팀) → 왕중왕전(순위 결정)

2017년에도 부처 통합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부처별 예선을 통해 본선 대회 진출 100팀을 선발하였고, 공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왕중왕 10개팀을 선발하였다.

* 접수 (4,055건) : 중기부(1,599건), 미래부(1,267건), 교육부(589건), 국방부(600건)

* 선발 : 예선(100팀) → 통합본선(40팀) → 결선(15팀) → 준결승전(10팀) → 왕중왕전(순위 결정)

2018년에는 중기부의 창업리그와 미래부의 혁신리그를 혁신창업리그로 통합하고 교육부와 과기부가 협업하여 학생리그를 공동 개최하는 한편 중기부에 글로벌 리그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각 부처별 예선을 통해 본선 대회 진출 135팀을 선발하였고, 공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왕중왕 10개 팀을 선발하였다.

* 접수 (5,770건) : 중기부(1,599건), 미래부(1,267건), 교육부(589건), 국방부(600건)

* 선발 : 예선(135팀) → 통합본선(40팀) → 1차 결선(20팀) → 2차 결선(10팀) → 왕중왕전(순위 결정)

또한 경연 과정을 공중과 방송으로 제작·송출하여 국민들에게 창업에 대한 도전 정신과 창업열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후속연계 프로그램으로 본선대회 진출자 및 수상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보호 연계, 크라우드 펀딩 참가, 기술보증기금 연계, 국내외 전시 참가 등을 지원하였다.

표 II-1-1-11 | 도전 K-스타트업 수상팀 성과('16~'18년 30팀) '19.4월 기준

구분	'16년	'17년	'18년	합계
수상자 수(팀)	10	10	10	30
투자 유치(백만원)	28,885	54,090	4,790	87,765

구분	'16년	'17년	'18년	합계
정부 지원(백만원)	4,509	3,282	2,723	10,514
고용 현황(명)	152	279	65	496



본선 대회 출정식



본선 진출팀 투자상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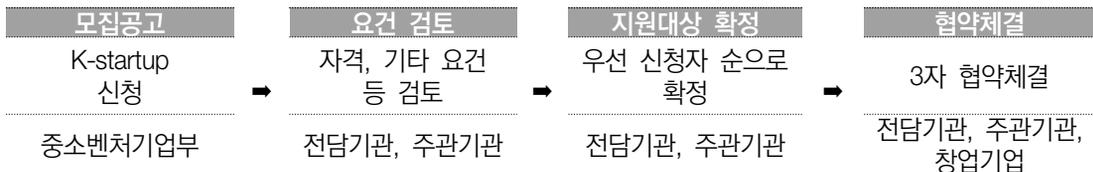
도전! K-스타트업 방송

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재무 상황이 열악한 초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자의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청년 일자리 대책('18.3)」의 일환으로 '18년 신설되었다.

세무·회계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2개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18년에는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에 총 8,698개사를 지원하였다.

표 II-1-1-12 | 2018년 지원대상 선정절차



지원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의 바우처를 연 100만원 한도(최대 2년)로 지원하며, 세무·회계 부문은 가장대행 수수료 및 결산·조정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술보호 부문은 기술임치 계약(갱신)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18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바우처 사용 및 지원방식, 사업 추진절차 등의 개선을 통해 사업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3 기술 창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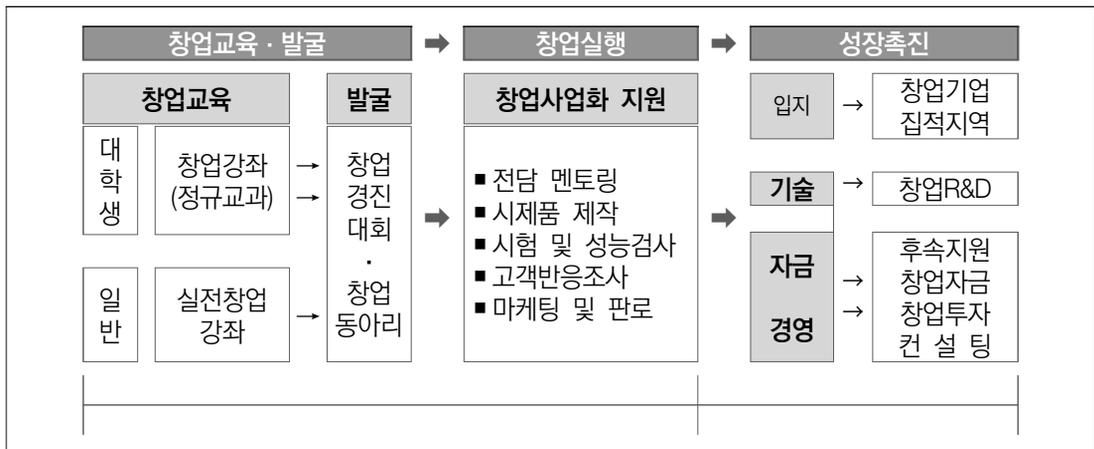
- 기술창업과 이 성 룡
- 창업촉진과 정 동 찬
- 기술창업과 박 형 목
- 기술창업과 이 광 범
- 기술창업과 홍 명 기

가.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선도대학(전국 43개교) 육성사업은 우수한 창업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기업가정신, 실전 창업강좌) → 창업자 발굴(창업동아리, 경진 대회 등) → 창업실행(시제품제작, 멘토링, 창업공간 제공, 자금지원 등) → 성장촉진(투자유치, 컨설팅 등)에 이르는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은 창업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창업지원단)을 갖추어 전문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창업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명실 공히 전국 단위의 대표적 창업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림 1 | 창업선도대학 지원 체계도



2018년에는 우수 제조 인프라를 보유한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참여대학을 전환평가 후 창업선도대학으로 편입하여, 전국 총 43개 창업선도대학을 운영하였다. 창업선도

대학은 (예비)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교육, 창업활동 공간 제공, 집중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전문기술창업 촉진 및 스타벤처 발굴육성을 통해 대학의 기술창업 플랫폼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표 II-1-1-13 | 창업선도대학 지정현황('18년 기준, 43개 대학)

수도권(17)		강원권(2)	충청권(7)	호남권(6)	동남권(7)	대경권(4)
서울(10)	경인(7)					
건국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성신여대 송실대 연세대 인덕대 한양대	가천대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성균관대 한국산기대 인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순천향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한남대 호서대	광주대 원광대 순천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울산대 창원대	계명대 경북대 경일대 대구대

* '18년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에서 편입한 창업선도대학(3개)은 진한 글자체로 표시

표 II-1-1-14 | 창업선도대학 주요실적 및 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구 분	예산	창업아이템 사업화				대학생 창업강좌		일반인 창업강좌	
		선정	창업	매출	일자리	개설	수강	개설	수강
2011년	250	537	524	297	1,435	86	4,461	15	514
2012년	250	510	504	367	1,150	147	8,004	18	610
2013년	402	590	573	340	1,196	159	11,201	18	628
2014년	508	629	616	515	1,401	470	27,608	28	1,005
2015년	652	913	889	1,306	2,339	545	25,800	114	2,144
2016년	753	997	986	2,409	3,074	706	30,592	151	2,958
2017년	1,022	1,326	1,306	6,259	4,596	897	38,869	176	3,653
합 계	3,837	5,502	5,398	11,493	15,191	3,010	146,535	520	11,512

* '18년 최종실적은 주관기관 최종보고서 검토 후 확인가능('19.9월 중)



창업자 전문교육 실시



시제품 제작 지원



맞춤형 컨설팅 제공

나.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청년 CEO 양성을 위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지원은 물론 졸업 후 정책자금 연계, 판로 및 입지지원 등 창업의 전 과정을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 2016년부터 기술창업자의 경우 정원의 10% 이내에서 만 49세 이하 선발

2011년 경기도 안산에 최초 개소하였고, 2012년 광주, 경북(경산), 경남(창원), 2014년 충남(천안)으로 확대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역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2개 광역시도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확대 개소하여 현재 전국 1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그림 2 | 2018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를 양성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도전정신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입교생에게는 기업가정신 등 기본 소양교육과 함께 맞춤형 전문교육을 연간 120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창업 전문인력을 1 : 1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창업의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



2017년부터는 초기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전 교육 및 코칭 등을 지원하는 "Pre-School 과정"과 졸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 개발, 정책자금, 마케팅, 수출 등 성장 단계별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표 II-1-1-15 |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단계별	창업준비	창업실행	성장단계	안정화단계
사업단계	프리스쿨	청년창업사관학교	5년간 후속 연계지원	
주요내용	교육 · 사업계획검증	사업화 지원	성장촉진프로그램 *	사후관리

* 성장촉진프로그램 : 정책자금, R&D연계, 보육코칭, 마케팅수출, 투자유치 등 후속연계지원

또한, 우수창업자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불성실자, 수행능력 미달자를 중간에 탈락시키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기술 · 경영 능력을 갖춘 청년창업가를 배출하고 있다.

표 II-1-1-16 | 청년 CEO 양성 규모

(단위 : 명)

구 분	선발	퇴교	졸업	비고
2011년 1기	241	△29	212	졸업(12.2월)
2012년 2기	229	△16	213	졸업(13.2월)
2013년 3기	301	△47	254	졸업(14.2월)
2014년 4기	307	△23	284	졸업(15.3월)
2015년 5기	278	△26	252	졸업(16.2월)
2016년 6기	324	△24	300	졸업(17.2월)
2017년 7기	500	△27	473	졸업(18.2월)
2018년 8기	1,000	△110	890	졸업(19.3월)

토스, 직방 등 유니콘 기업을 양성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설립 이래 지난 8년간 총 2,878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하였으며, 누적매출 19,196억 원, 고용창출 6,619명, 지적재산권 6,041건의 성과를 창출하며 청년기술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II-1-1-17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졸업기업	212	213	254	284	252	300	473	890	2,878
매출액	2,975	4,693	3,071	3,623	1,204	1,618	999	1,013	19,196
고용인원	423	591	516	854	606	742	1,124	1,763	6,619
지재권	314	677	789	1,034	615	581	868	1,163	6,041

* (매출액, 지재권) '18년 10월말 누적수치, (고용인원) '18년 10월말 기준, (1기, 2기) '18년 5월말 기준

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민간의 유망 창업팀 선별 및 보육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자와 매칭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TIPS'는 '13년부터 시행되어 자금 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의 보육·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 창업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성공 사업화 지원하는 기술창업육성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그림 3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인큐베이터 운영사 선정	창업팀 선정	보육/멘토링	졸업/후속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 입찰방식 - 사업자선정 : 5~10개(매년) · 액셀러레이터 주도 (법인엔젤, 재단, 초기VC 등) · 운영기간: 6년 (3년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팀 선정 - 1차 : 운영사(인큐베이터) 자체심사(12~15배수) - 2차 : 정부심사 (1배수) - 수시(년 7회 내외) 계속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기간 : 2+1년 · 투자 지원 - 운영사 : 1~2억원 내외 (창업팀 자본 60% 이상, 운영사 자본 30% 이하) - 정부 : R&D지원(5억원) (추가연계 포함 최대 9억원) · 마일스톤 관리, 적극적 멘토링, 엔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투자 20억원 이상, M&A연계, IPO(로엑스포럼,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연 수출 50만불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 성공시 기술료 상환 · 포스트팁스 등 후속지원연계

* 성공판정 시 정부 R&D지원금의 최대 20%(경상기술료) 상환

TIPS에서는 정부가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중 투자 및 보육·멘토링 역량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TIPS 운영사²⁾(사업기간 3년+3년)로 선정하고 창업팀 추천권(T/O)을 부여한 후, 운영사가 투자 및 추천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통하여 TIPS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운영사는 유망한 기술창업팀을 발굴하고 선투자(2억 원 내외) 및 부여받은 창업팀 추천권 내에서 정부에 추천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창업팀은 운영사의 보육공간(BI)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밀착보육 및 성공사업화를 위한 멘토링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선정된 TIPS 창업팀을 대상으로 R&D자금(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팀의 필요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창업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 해외마케팅(최대 1억 원),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 2억 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는 초기자본은 없으나 혁신 기술로 무장한 유망 창업팀에게 과감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공동창업자인 이택경 대표가 설립한 매쉬업엔젤스 등 6개의 신규 TIPS 운영사가 추가로 선정되어, 2018년 12월말 기준 44개 운영사, 679개 창업팀이 선정되어 엔젤투자 1,393억 원, 정부R&D 2,236억 원, 창업사업화자금 321억 원, 해외마케팅 293억 원이 투자·지원되었다. '18년 선정된 운영사 중 인라이트 벤처스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대구 및 광주지역 유망 창업팀을 적극적

2) 성공벤처인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 및 엔젤투자회사(법인엔젤), 엔젤투자재단, 초기전문 VC 등(연구중심 대학, 기술지주사, 출연연,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등 컨소시엄 포함)

으로 발굴, 투자할 계획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창업팀이 틱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젤투자회사(재단) 16개, 초기전문VC 14개 등으로 구성³⁾된 TIPS운영사는 평균 2명 내외의 성공창업인이 참여하고 있어, 성공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창업팀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II-1-1-18 |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참여기관	보육공간
1차 (13년 6월)	카이트창업재단	김철환	김철환(이미지앤머티리얼스) + KAIST	KAIST BI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스파크랩(Bernard Moon, 김호민, 이한주) + 아산나눔재단(마루180)	마루180 BI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김범수(카카오) + 서울대기술지주사BI	서울대기술 지주사BI
	프라이머	권도균	권도균(이니시스), 이택경(다음), 이기하(Sazze) + 빅베이스 + 매쉬업엔젤스 + 한양대	자체 BI 한양대 BI
2차 (14년 2월)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강석훈	장병규(네오위즈) +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BI
	더벤처스	호창성	호창성,문지원(Viki) + 더벤처스 스타트업센터	자체 BI
	퓨처플레이	류중희	류중희(올라웍스)+ KETI(전자부품연구원)	TIPS 타운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권혁태	BootstrapLabs(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 광주테크노파크	자체 BI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이상진	한국과학기술지주사(17개 출연연 지주사) + 벤처스퀘어 + BNH	서울대기술지주 TIP스타운 BI
3차 (14년 7월)	엔텔스	심재희	심재희(엔텔스), 네이블 커뮤니케이션	TIPS 타운
	액트너랩	조인제	Lab IX(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 인텔 + SK텔레콤	TIPS 타운
	포스코	권오준	포스코 계열사 +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창조경제 혁신센터
4차 (15년 3월)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이용관(플라즈마트) + 미래과학기술 지주 + 생명공학연구원 + 스테이션시오	KAIST BI 스테이션시오
	BSK 인베스트먼트	백승권	차기철(인바디), 이민화(메디슨) + 디지털 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 벤처기업협회SVI	벤처기업협회 SVI

3) 엔젤투자회사 16개, 초기전문VC 14개, 선도벤처 6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2개, 대기업 2개, 혁신센터 1개, 글로벌투자보육기관 1개로 구성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참여기관	보육공간
	현대자동차	이원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ETRI홀딩스	조병식	DSC인베스트먼트, + ETRI	ETRI BI
5차 (15년 11월)	메가 인베스트먼트	김정민	손주은(메가스터디) + 텐케이아시아 + 유니타스클래스	텐케이 BI
	웹스	이재춘	이재춘(웹스) + 박종환(록앤올) + 부산연합기술지주 + 비스퀘어	부산시 BI
	인포뱅크	박태형	박태형(인포뱅크) + 인텔렉추얼스톤 + 텀블러	자체 BI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오덕환	행복나눔재단(SK) + 씨엔티테크 +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 판도라TV + 카이스트창업원	KAIST BI (서울)
6차 (16년 11월)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오종훈	울산과학기술원 + 부산TP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TP BI, 울산혁신센터
	스프링캠프	최인규	피치트리컴퍼니	자체 BI, 피치트리컴퍼니 BI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지건열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캠텍종합기술원	르호봇비즈니스 센터 BI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윤준원	LG전자 + LG생활건강 + LGU+ + 충북TP +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충북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부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케이런벤처스	권재중 김진호	이녹스 + 테크코드엑셀러레이터 코리아 + 성균관대	성균관대, 이녹스, 테크코드 BI
	케이벤처그룹	김재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연세대학교	연세대 BI, 제주혁신센터
	포스텍기술지주	유주현	포항공대 + 포스텍 기업협업체 + 포스텍 엔젤클럽 +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포항공대 BI
	시너지아이비투자	정안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요즈마그룹	자체 BI, 충북혁신센터
	휴젤	손지훈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LSK인베스트먼트	서울대, 생명연 강원혁신센터
7차 (17년)	린드먼아시아 인베스트먼트	김진하	(中)IngDan + (中)테크코드	테크코드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참여기관	보육공간
7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박기일 김세현	동국제약 + (中)SCORE CAPITAL + 진학어플라이	자체 BI 진학어플라이
	빅뱅엔젤스	황병선	평화홀딩스 + 경북대	경북대
	아이빌트세종	이준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호서대 + 고려대 + 충북수출클럽 + 기계연구원 + 대주회계법인	자체 BI 호서대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스	홍종국	아이에셋 + 비즈헬프 + 아이피텍코리아 + Excitron Partners + 송실대	송실대
	코맥스벤처러스	변우석 소재문	코맥스 + 코스콤 + 미래에셋벤처캐피탈	자체 BI
	킹슬리벤처스	이정훈	한국기술벤처재단 + 전남대기술지주 + SV101벤처파트너스 + 어썸벤처스 + 리앤목특허법인	자체 BI 기술벤처재단
	KB인베스트먼트	김종필	KB금융지주 + 글로벌브레인코리아 + 로아인벤처랩	자체 BI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김수원	고려대의료원 + 아이파트너즈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자체 BI 아이파트너즈
8차 (18년 6월)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미)빅베이스캐피탈 + 슈미트	슈미트
	메디톡스벤처투자	정현호	메디톡스	자체 BI
	서울대기술지주	박동원	서울대 + (미)Church and State Business Center	서울대 BI
	에이치지이니셔티브	정경선	드림플러스강남센터 + 루트임팩트	드림플러스 강남센터
	인라이트벤처스	김용민 박문수	대구경제혁신센터 + 광주경제혁신센터 + (프)EuraTechnologies + 와이앤아처 + 다래전략사업화센터 + 에이전트엑스	대구혁신센터, 광주혁신센터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유현오	한양대 창업지원단 + 한양증권 + 벤처기업협회 + 코스닥협회 + (미)Founders Space, RDK Partners + (싱가폴)Seamo Ventures, Expara Pte Ltd + (홍콩)Metta International Ltd, brinc	한양대 BI

TIPS 창업팀은 기술분야별로 정보통신 287개, 바이오·의료 183개, 전기·전자 87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창업팀 대표자 기준으로 석박사 비율은 57%이고, 삼성, 구글 등 국내외 대기업 경력자가 30%로 고급기술 인력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TIPS 창업팀 신규 고용인원은 3,687명으로 창업팀 당 5.5명의 신규고용을 창출

하였으며, 또한, IPO(기업공개), M&A, 국내외 후속투자 유치 등 TIPS를 통한 괄목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2개 창업팀의 경우, TIPS 창업팀 최초로 IPO(코스닥 1개, 코넥스 1개)에 성공하였으며, M&A 6건⁴⁾ 및 318개의 창업팀이 1조 784억 원의 국내외 후속투자(공개금액만 집계)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팀스 프로그램과 결합된 화학적 창업공간으로서 2015년 7월 조성된 팀스 타운의 운영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총 4개 건물(해성빌딩, 명우빌딩, 현승빌딩, 태광빌딩) 22 개층의 운영을 통해 94개사 654명이 상주하는 공간으로서 팀스창업팀, 운영사, 유관기관 등이 팀스타운이라는 하나의 밀집된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통한 교류·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운 입주사 및 팀스 창업팀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교육, 후속투자 연계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행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팀스타운을 중심으로 인근 “역삼” 지역에 위치한 창업 인큐베이터(마루180 등) 등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지원의 핵심허브로서의 ‘강남 창업가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Beyond TIPS



네트워킹 프로그램(MMM)



후속투자 연계(팀스포럼)

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① 국내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2012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은 기술과 사업성을 가진 예비 창업자 또는 기 창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다. 현지의 액셀러

4) M&A 창업팀 : 키즈노트, 엔트리교육연구소, 파킹스퀘어, 드라마앤컴퍼니, 튜터링, 레드스톤소프트

레이터⁵⁾를 활용하여 창업자가 외국의 이질적인 창업환경을 조기에 극복하고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스타벤처 기업을 양성하고자 함이다.

동 사업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직접 선발하여 해외 현지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 미국, 중국 등 2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진출 국가를 확대하여 2018년에는 동남아 국가와 유럽 국가를 포함한 11개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총 363개 창업 팀을 지원하였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총 363개 창업팀이 1,382억 원 매출액과 1,338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359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2018년에는 7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I-1-1-19 |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연 도	예산	선정	현지진출*	투자유치	매출	고용
2012	31	39	10	88.3	91.4	91
2013	20	28	11	91.1	25.9	30
2014	30	56	25	170.1	260	76
2015	33	62	41	91.5	250	235
2016	100	113	76	707.5	297	579
2017	33	65	28	101.9	116.6	316
합계	247	363	191	1,250.4	1,040.9	1,327

* 현지진출유형 : 법인, 지사·사무소, 합작법인 / '18년 성과 : '19년 하반기 조사 예정



글로벌 밀착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 설명회 및 IR

5) 액셀러레이터 : 창업자를 발굴, 투자뿐만 아니라 3~6개월 동안 투자자·고객 지향형 성공 제품을 만들도록 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또는 기업

②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

우리나라의 창업비자제도 도입(2013년 10월)으로 우수 해외인력 유치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해외 유망 창업기업의 국내유치를 통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 각국에서 우수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⁶⁾를 벤치마킹하여 2016년부터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글로벌 브랜드로 신규 추진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 귀환 유학생 또는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국내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의 신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국내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총 162개 팀 (73개국) 지원, 50개 국내창업, 780.4억 원 투자유치, 220억 원 매출, 119명 신규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1-1-20 |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개), 건)

연 도	예산	선정(국가)	국내법인설립	창업준비비자	신규 고용	매출실적	투자유치
2016	50	40 (21)	18	18	31	38	118
2017	45.8	49 (19)	23	26	54	109	294
2018	73.8*	73 (31)	22	39	34	73	368.4
합계	169.6	162 (71)	63	83	119	220	780.4

마.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이 도약단계(3~7년차)에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발된 창업자에게 사업 모델(BM) 혁신, 국내외 시장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을 50억 원 규모로 '15년부터 시작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은 '18년도에는 예산이 800억 원(추경포함)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3~7년차 창업기업 중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엄선하여 지원하고 있다.

6) 미국: 스타트업 3.0,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칠레: 스타트업 칠레 등

사업화(최대 1.5억 원)의 경우 R&D연계(최대2억 원)를 통해 최대 3.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혁신성과 스케일 업이 가능토록 운영하였고, 성장촉진 분야는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수출, IPO, 시장진입등을 통해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을 극복하고 빠른 수익창출과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표 II-1-1-21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구분	신청	선정	매출	일자리
2015년	513	100	1,151	1,002
2016년	683	160	985	755
2017년	7,121	1,948	9,908	6,993
2018년	14,100	1,944	5,321	4,482
합계	22,417	4,152	17,365	13,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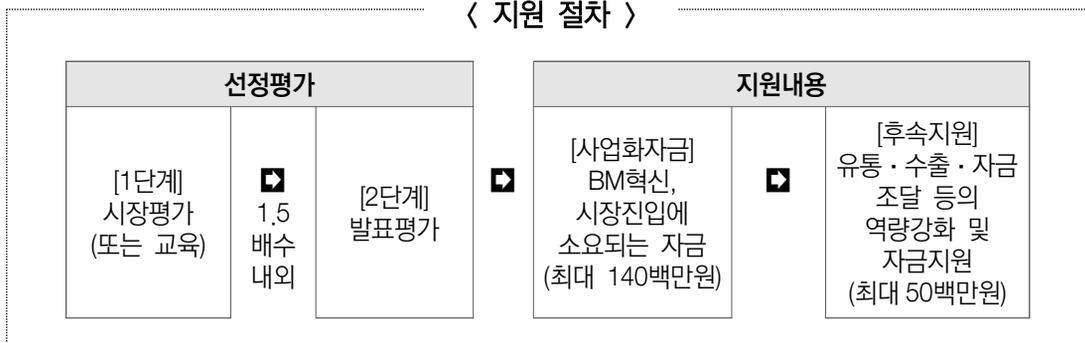
* '15년 : 협약 종료시점, '16년·'17년·'18년 : 연간 기준, '18년 사업 진행 중('19년 10월 최종 성과조사 예정)

'17년도에는 지원예산을 600억 원(추경포함)으로 증액하여 창업기업의 유통, 수출, 자금조달 등의 핵심역량을 보강하는 데에 지원역량을 집중하였다.

창업기업은 1단계 시장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표 II-1-1-22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 지원 절차 〉



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분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민간 기업 중심의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18년 대기업 등 민간과 정부가 공동(50:50)으로 재원을 조성(200억 원)하여 신규 추진된 사업이다.

대·중견·중소기업 등이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하면 정부가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을 1:1 매칭으로 분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및 서비스, 네트워킹 등을 종합 지원한다. 민간 기업이 스스로 사내벤처를 육성하고자 하면 정부가 사내벤처의 육성 체계와 기반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사창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우대를 확대하고 (1점→2점),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사내벤처가 분사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여 창업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혜택과 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분사 목적의 사내벤처팀을 ‘예비벤처’에 포함시켜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면제, 벤처확인 신청 시 기술성 우수 간주 등 혜택을 부여하고, 분사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재입사를 보장하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사내벤처 운영규정 제정, 전담조직 설치, 사무 공간 등 인프라 구축 등 운영여건 조성, 아이디어 발굴 및 선정, 사내벤처팀 구성 및 사업계획서 평가, 사내벤처팀 액셀러레이팅 등 사내벤처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C-Lab(삼성전자), 벤처플라자(현대차) 등의 운영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18.6.)하였다.

2018년 사업 개시 후 2차례에 걸쳐 대기업 등 사내벤처 운영기업 40개사를 선정하였고, 이들 운영기업에서 발굴·추천한 94개 팀을 평가·선정하였다. 총 40개사 중 대기업 12개, 중견기업 6개, 중소기업 11개, 공기업 11개사이며, 이중 27개사(67.5%)는 동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2018년 LG U+, SK하이닉스, 신세계 등 12개 대기업이 신규로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 기업의 관심을 일으키고 사내벤처 도입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⁷⁾

7) 사내벤처 운영 대기업(집단/계열기준, '18.9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17) 7/8 → ('18) 10/20

표 II-1-1-23 | 2018년 사내벤처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 현황

구 분	운영기업명 (40개사)	
대기업 (12개사)	1차(7)	현대차, LG U+, LS전선, CJ올리브네트웍스, 신한카드, 이노션, 롯데액셀러레이터
	2차(5)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LG CNS, 하나금융TI
중견기업 (6개사)	1차(4)	휴맥스, 코스콤, 디와이오도, 한솔교육
	2차(2)	대상, 삼진엘앤디
중소기업 (11개사)	1차(3)	인바디, 휴넷, 한솔인티큐브
	2차(8)	코맥스, 엔라인, 프론텍, 케이엘넷, 위지웍스튜디오, 매스씨앤지, 헬스투데이, 플레이오도
공기업 (11개사)	1차(8)	동서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남부발전, 한전, 남동발전, 철도공사, 한국감정원
	2차(3)	서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합 계
운영기업수 (%)	12 (30.0%)	6 (15.0%)	11 (27.5%)	11 (27.5%)	40
사내벤처팀 (%)	34 (36.2%)	15 (16.0%)	18 (19.1%)	27 (28.7%)	94

사.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사업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창업자가 선배 벤처 기업내에 입주하는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된 예비 창업자 등에게 시제품 제작, 판로·마케팅, 멘토링 등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선도벤처 기업가와 예비 창업자간 협력비즈니스를 통한 투자·아웃소싱, 공동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선도벤처기업은 매출액이 제조업 100억 원, 비제조 5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창업 준비공간,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하고 있다.

민간을 활용하여 창업 초기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모델로 인해 창업자의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며, 2011년 이후 총 587개사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여 고용 2,195명(평균 3.7명), 매출 1,213원을 달성하고 있다.

* 연도별 경쟁률(신규선정기업 기준) : ('17) 14:1 → ('18) 10.6:1

표 II-1-1-24 |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성과('19.7.)

연도	지원(개사)	고용(명)	매출(억원)	투자유치(억원)
'11	30	251	161	13
'12	50	128	83	12
'13	84	213	147	47
'14	84	336	119	48
'15	83	475	226	166
'16	88	454	226	89
'17	83	201	195	37.78
'18	85	137	56.2	14
계	587	2,195	1,213.2	426.78

※ 사업기간 종료 시점 기준이며, '18년 사업은 사업종료('19.11) 이후 업데이트 예정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 창업정책총괄과 강 태 수
- 창업생태계조성과 정 길 섭
- 벤처혁신기반과 서 정 남
- 창업생태계조성과 이 청 수
- 창업생태계조성과 마 경 준
- 창업생태계조성과 정 동 찬

가.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분산되어 운영 중인 법인 설립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창업자들의 법인 설립 시 겪어왔던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해, 2010년 2월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http://www.startbiz.go.kr>)을 개통하였다.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등기소, 지방세납부 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 인터넷지로시스템, 4대사회보험 연계시스템 등을 통합·연계한 시스템으로 법인설립의 쉼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I-1-1-25 |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절 차	기 간		절 차	기 간
① 상호 검색	1	➔	① 법인인감 제작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② 상호 검색 4대보험 등록 취업규칙 신고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등기신청수수료	3
③ 자본금 확인	1			
④ 법인등록세 납부	1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③ 4대 사회보험료 납부	0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1			
⑧ 취업규칙 신고	1			
8단계	14일		3단계	4일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라 무액면 주식발행기능 추가 하였으며, 연계기관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신청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신규 프로세스 개발 등 지속적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법인설립만 지원하던 시스템을 대법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모든 유형의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 이후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총 38,553명의 창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한해만도 8천명이 넘는 창업자가 법인설립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표 II-1-1-26 |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건)

구 분	법인설립	전화상담	인터넷접속
2010년	1,005	18,569	206,018
2011년	1,673	35,642	216,548
2012년	2,403	51,406	260,977
2013년	3,021	51,319	322,011
2014년	4,052	58,837	585,574
2015년	5,045	60,369	584,374
2016년	6,048	61,444	567,688
2017년	7,111	52,898	522,403
합계	30,358	390,484	3,265,593

나. 창업보육센터(BI) 운영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초기(예비) 창업기업에게 사업공간 및 기술·경영 등 보육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제고하기 위해 '98년부터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1-1-27 | 최근 5년간 창업보육센터 사업 운영현황

시행시기	내 용
2014년	예산(204억원), BI 지정·운영(282개 BI), 지원실적(운영비 238개 BI, 리모델링 13개 BI, 보육역량 81개 BI), BI 운영성과(6,254개 기업, 매출 1.5조원, 고용 18천명)
2015년	예산(227억원), BI 지정·운영(272개 BI), 지원실적(운영비 201개 BI, 리모델링 13개 BI, 보육역량 97개 BI), BI 운영성과(6,275개 기업, 매출 1.7조원, 고용 18천명)
2016년	예산(238억원), BI 지정·운영(266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85개 BI, 리모델링 8개 BI, 보육역량 105개 BI), BI 운영성과(5,840개 기업, 매출 1.9조원, 고용 19천명)
2017년	예산(214억원), BI 지정·운영(262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81개 BI, 리모델링 15개 BI, 보육역량 80개 BI), BI 운영성과(5,907개 기업, 매출 2.1조원, 고용 19.8천명)
2018년	예산(165억원), BI 지정·운영(262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97개 BI, 리모델링 7개 BI, 보육역량 84개 BI), BI 운영성과(6,290개 기업, 매출 2.2조원, 고용 21.6천명)

2018년 말 기준, 전국 262개 창업보육센터(대학 195, 연구소 16, 정부/지자체 10, 기타 41)가 대학·연구소(79.4%) 중심으로 지정되었고, 수도권 88개소(33.6%), 비수도권 174개소(66.4%)가 운영 중에 있다.

표 II-1-1-28 | 창업보육센터 주체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대 학	연구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기 타
262	193	15	11	12	31

표 II-1-1-29 |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62	32	18	34	25	32	51	5	14	15	15	17	4

2018년 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총 165억 원이며,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 리모델링비로 9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I-1-1-30 |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현황

(단위 : 개)

구 분		지 역	선정기관명
신규	신규지정	광주전남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일반건물 BI전환	울산	울산과학대
기존 BI	노후시설 개선	강원	강원대(삼척)
		서울	삼육대
		충남	서원대
		경남	창원대
		대구경북	한동대
		서울	한성대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경상비 등 운영비로 83.6억 원과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강화,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 멘토링 등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72억 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 간 개방적, 협력적 보육환경 유도를 위해 창업보육센터경영 평가체계를 기존 평가등급제(S, A, B, C등급)에서 기본 요건 충족제(60점 이상)로 개선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여 운영이 부실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2018년도 말 기준, 전체 입주기업 매출액 2.2조원, 고용인원 2.1만 명 등의 사업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표 II-1-1-31 |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단위 : 개사, 억원,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입주기업 수	6,254	6,275	5,840	5,907	6,290
매출액	15,840	17,330	18,934	21,109	22,064
고용인원	18,290	18,536	18,975	19,847	21,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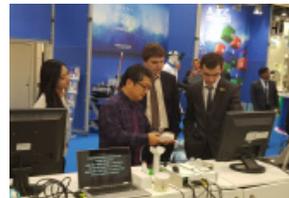
앞으로도, 창업보육센터의 지속적인 운영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율성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간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의 창업혁신 주체들과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산업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교육 지원



입주기업 투자 멘토링 지원



입주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으로써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10년)하였다.

민간의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있는 반면에 우리부의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원은 비수도권 도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등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에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건립비의 70% 이내로 최대 160억 원까지 국고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외 건립비와 부지매입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1,2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3개 센터(1차 선정)가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 13개 센터는 건립중이다.

완공된 3개 센터의 입주기업은 108개사이며 입주율은 평균 93%를 나타내고 있고 고용인원은 총 728명이다.

표 II-1-1-32 | 1차 지식산업센터 운영현황(2018.12)

구분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위치	금곡동 812-8	침산동 999-1	동명동 143-78
규모 (대지,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9,900㎡, 16,226㎡)	지하 1층, 지상 8층 (4,600㎡, 13,479㎡)	지하 1층, 지상 6층 (5,992㎡, 11,650㎡)
공사준공일	'16. 11.	'17. 10	'16. 6.
입주기업	28개사	22개사	58개사
운영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대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광주테크노파크
사진			

표 II-1-1-33 | 건립중인 지식산업센터 현황

구분	2차 ('15.~'18.)	3차 ('16.~'19.)	4차 ('17.~'20.)	5차 ('18.~'21.)
지역	대전(동구) 대구(수성구) 진주(망경동)	대구(달서구) 청주(오창읍) 전주(덕진구)	포항(북구) 울산(남구) 전주(완산구)	부산(남구)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남(고흥)
진행사항	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설계중

건립중인 13개 센터는 2차부터 5차까지 선정된 지자체로서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장기저가로 임대해주어 입지애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통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관련 기업에 대해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 업종을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업종별 집단화를 통해 집적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입주기업 간 또는 입주기업과 외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간 소통, 교류 등을 위한 네트워킹 및 개방형 혁신 공간 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지역의 창조경제 자원과 역량을 연계·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등 지역기업의 성장을 밀착지원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빛가람(나주), 포스코(포항) 2개 기관에서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인력은 내부직원 및 지자체, 전담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파견 나온 인력을 포함하여 평균 35명 정도로 구성되어있다.

창업지원으로는 멘토링, 금융·법률·특허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공모전, 교육·강연, 투자 설명회 등 창업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파트너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17년 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관리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되면서 지역 창업기반 마련과 혁신문화를 확산 하는 등 긍정적인 시각과 정부주도 운영과 인위적 대기업과 창업기업의 연계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여 「혁신 창업 생태계조성방안」(17.11.2.), 「창조경제 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18.2.7.)을 통해 혁신센터를 유지하되,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3대 원칙으로 운영하는 지역 창업생태계허브으로써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개편방향이 마련되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

구분	현행	개선
의사결정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지원체계	대기업 경직적 매칭(일방지원)	중견·벤처, 대학 등 자율참여(상생협력)
지자체 참여	자율적 참여 부족	적극적 참여·협력
센터 기능	창업, 중기지원, 특화산업 지원 등 일률부여	초기창업 + 투자기능 집중, 센터별 특화

개편 이후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민간의 다양한 혁신주체 ('18.12월, 195개)들이 참여하여, 각 센터의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파트너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에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간 소극적으로 참여 하던 지자체들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스스로도 지역의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해 시드머니 확보, 개인투자조합 및 지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유망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등에 착수하는 등의 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림 4 | 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기업 및 특화기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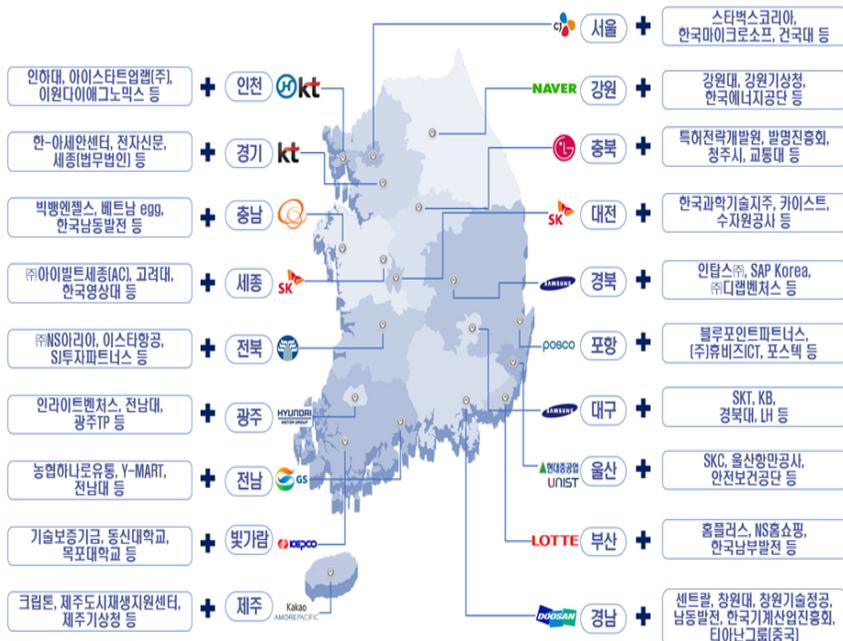


표 II-1-1-34 |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주요기능

	지역 (전담기업)	출범	입지	주요 기능
1	대구 (삼성)	'14.9.15	• 북구 구삼성창조 캠퍼스	- 섬유,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 등 지역산업 지원 - 창조경제단지 등 창조경제 공간 조성 - C-lab 프로그램 등을 통 창업 지원
2	대전 (SK)	'14.10.10	• KAIST 나노랩센터	- 벤처 육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ICT·에너지·반도체 등 지역산업의 첨단화 - 출연연·대학·전담기업 보유기술 공개 및 사업화
3	전북 (효성)	'14.11.24	• 전주시 서광빌딩	- 탄소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 전통문화·농생명 자산 활용 창업 및 사업화 - 기술금융 종합지원 체계 구축
4	경북 (삼성)	'14.12.17	• 구미 금오 테크노밸리	- 노후단지의 창조산업단지 전환 지원 - 중소기업의 신사업 영역 개척 지원 -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화 지원
5	광주 (현대차)	'15.1.27	• KDB 빌딩, GIST	- 자동차 산업 창업 중심지로 육성 - 수소경제 진입의 주도적 역할 -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사업 추진
6	충북 (LG)	'15.2.4	• 청주오송읍 SB플라자	- K-beauty, 의료기기 등 바이오 창업 지원 - 친환경 에너지사업의 산업화 - 특허지원창구 설치 및 확산
7	부산 (롯데)	'15.3.16	• 해운대구 센텀그린타워	- 기획·마케팅 등 상품성 제고 및 유통판매망 지원 -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 스마트시티 연계, IoT 스타트업 육성
8	경기 (KT)	'15.3.30	• 성남 판교 공공지원센터	- ICT융합 신산업 창출 - 창조경제의 글로벌 진출 허브 -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중소·벤처 육성
9	경남 (두산)	'15.4.9	• 창원시 경남 과학기술진흥원	- 메카트로닉스 허브 - 대체수자원 산업 육성 -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
10	강원 (네이버)	'15.5.11	• 강원대 보듬관한빛관	- 빅데이터 산업의 요람 -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구축 - 관광, 헬스케어, 농업 등 혁신 지원
11	충남 (한화)	'15.5.22	• 천안아산역사, 충남TP	- 충청권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 전국 혁신센터의 무역 허브 - 농수산품의 고부가가치화, 판로 확대 지원
12	전남 (GS)	'15.6.2	• 여수 GS 밸류센터	-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의 통합 거점화 - 웰빙 관광산업 육성 -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13	제주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15.6.26	• 제주 벤처마루	- 문화와 SW가 융합한 창조허브 -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역 (전담기업)	출범	입지	주요 기능
14	세종 (SK)	'15.6.30	• 조치원읍 SB플라자	- 농업+ICT '창조마을' 고도화 - 스마트 로컬푸드, 두레농장 등 도농상생 실현 - 대덕단지 협업,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
15	울산 (현대중, UNIST)	'15.7.15	• 남구 벤처빌딩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재도약 - 첨단 의료자동화를 신산업으로 육성 - 지역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
16	서울 (CJ)	'15.7.17	• 광화문 KT 빌딩	- 민간 창업·혁신 네트워크 구축 - 도시 생활스타일 분야 사업화 지원 - 전국 혁신센터 연계 거점
17	인천 (한진, KT)	'15.7.22	• 송도 미추홀타워, 남구 제물포 스마트타운	- 첨단 물류 기반 신산업 창출 - 중소·벤처 수출 물류 지원 - 중국 진출 플랫폼 구축
민간	포항, 광양 (포스코)	'15.1.30 (포항)	• 포스텍 제1융합관	- 에너지·환경·소재 분야 벤처 창업 및 강소기업 육성 - 에너지절감형 ECO 산업단지 조성 - 첨단소재 클러스터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15.8.25 (광양)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광양연구소	- 첨단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 - ECO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부산물 제로화 추진
	나주 (한전)	'17.2.8	• 나주 지식산업센터	- 에너지신산업 육성 - 에너지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6:4 비율 내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국비 380, 지방비 235억 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이후 기능 개편 등을 통해 창업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다양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이는 중기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가 강화되고 활성화된 결과이다.

표 II-1-1-35 |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18.12월 말, 누적)

(단위 : 개사)

창업기업육성	신규채용	투자유치	공통 일반지원		
			원스톱서비스	시제품제작	교육강연
4,065	7,856명	7,736억원	56,680명	31,832건	264,523명

마. 메이커 활성화 지원

3D프린터의 보급, 오픈소스 하드웨어 등장 등 1인 제조환경의 확산으로 아이디어가 바로 신산업이 되는 혁신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상하고 만드는 메이커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제조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11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350여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 공모를 통해 일반인·학생 등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을 지원하는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60개와 전문 창작활동과 제조창업을 연계 지원하는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5개를 선정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표 II-1-1-36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8년말)

(단위 : 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전문형	3	-	-	-	-	-	-	-	1
일반형	17	8	2	2	3	1	3	2	2
구분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계
전문형	-	-	-	-	1	-	-	-	5
일반형	2	4	2	3	3	2	3	1	60

메이커 인프라 조성과 병행하여 메이커 문화의 사회적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메이커 활동을 뒷받침 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강사, 교사 등 578명을 대상으로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159개 청소년, 일반인 메이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 창작활동 및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등 총 129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특히 메이커 활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형 트레일러 등에 만들기 장비를 설치하여 농산어촌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총 3,800여명에게 메이커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지역 단위 19개 메이커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메이커 운동 붐 확산을 유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발굴·지원하여 메이커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메이커 전문가 교육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메이커 해커톤

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퇴직의 본격화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조기 퇴직한 중장년(4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년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창업지원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창업을 할 경우 대부분 영업부진,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생계형 자영업(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등)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이 퇴직 전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 창업 활성화 정책을 2010년부터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는 교육내용 및 사업구조를 기술창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장년 창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성장가능성 높은 기술 창업으로 중장년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경력·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만40세 이상 중장년(예비)

창업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거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전문가 자문·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전국에 7개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25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중장년의 전문성을 고려, 창업만이 아닌 창업생태계에 적합한 역할(기술 멘토, 기술강사, 투자자 등)로 참여하고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센터가 없던 대전, 충남, 제주 지역을 신규로 선정하여 창업자의 성장주기 등을 고려 지역의 혁신창업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교류·협업을 강화하여 인프라간의 시너지를 제고하고 있다. 즉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중장년 기술창업자 발굴, 초기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이들의 투자, 판로·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여 예비창업자가 창업에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다.

2018 교육과 보육을 통해 1,153명의 창업기업을 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출액 620억 원, 고용 549명 달성하였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의 창업 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창출을 제고하고 있다.

표 II-1-1-37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18)

구 분	창업자수	고용인원	매출액	산업재산권 (특허등록기준)
2016년	526명	250명	40,254백만원	95건
2017년	보육 : 791명 교육 : 250명	487명	52,200백만원	196건
2018년	보육 : 741명 교육 : 412명	549명	62,084백만원	237건



예비퇴직자 기술창업 인식교육



우수창업기업 상품설명회



센터 전담인력 통합워크숍

사.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 양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및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창의력 및 문제해결 역량에 기반하여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 실현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 양성 필요하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시스템 변화 및 속도 관점에서 기존 패러다임의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이를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년인재 양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청년인재의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사업을 운영하였다. 청년혁신가는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청년 인재”를 말한다. 2017년 교육 과정 수료생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생이 필요와 역량에 따라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편하였으며, 창업 생태계를 잘 아는 전문가와 청년혁신가를 연계하여 교육성과의 현장적용 가능성 강화와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였다.

창의적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모집하되, 19~39세의 예비창업자, 구직자 등을 우선 선발하였다. 산업·사회문제 관심도, 문제해결 의지, 문제해결, 비즈니스 모델 설계 경험 등을 고려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선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의견이 공유되도록 하였다.

표 II-1-1-38 |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운영 결과

운영센터	교육기관	선정	수료	비즈니스 모델 수
서울센터	알마덴디자인리서치	47명	39명	11건
경기센터		53명	43명	13건
부산센터	청운대	41명	33명	7건
전북센터		56명	49명	13건
	넷임팩트	52명	38명	7건
경남센터	와이즈플래닛	32명	32명	7건
경남센터	와이즈플래닛(대전)	50명	34명	9건
아트센터나비		45명	35명	10건
단국대학교(서울)		104명	49명	18건
단국대학교(경기)		113명	50명	15건

강의식 이론교육은 최소화하고 경험 중심의 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개편하였고, 이론 교육 일부는 창업에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는 블렌디드 러닝방식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110개의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 모색을 위해 투자자, 선배 창업가 등이 참여한 성과 공유회를 운영하였다.



IR 피칭



멘토링 운영



토크콘서트



전체 수료식 진행

5

지식서비스기업 성장 촉진

■ 창업촉진과 임 제 학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경제는 산업경제(Industrial economy)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특히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 등의 ICT(정보통신기술)기반 기술,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지식서비스창업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11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창의적 지식산출물의 사업화를 위해 '1인 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고,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스마트창업터'를 통해 지식서비스 창업붐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ICT기반 지식서비스 분야의 우수 청년창업팀을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멘토링, 개발 및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과 성장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스마트벤처 캠퍼스' 등의 사업을 통해 지식서비스분야의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였다.

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으나, 경영여건이 취약한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및 법률·세무 등의 전문가 상담·교육·네트워킹 등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제공을 위해 '09년 전국에 21개의 센터를 설치하였고, '18년 55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창업 준비부터 보육, 마케팅까지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규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707개의 사무공간 지원을 통해 1,862건의 경영자문과 11,996명의 교육 및 세미나,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지원성과를 달성하였고, 322명이 창업에 성공하는 등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예비) 1인 창조기업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지원을 시행하였다.

표 II-1-1-39 | 2018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년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강원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소계
18	14	3	8	25	2	4	4	1	5	3	2	1	1	1	3	2	1	30	55

표 II-1-1-40 | 비즈니스센터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시행주체
사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데스크 (1인 전용 사무공간, 서비스드오피스) 편의시설 (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프린트, 카페 등) 	주관기관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아이템 시장 멘토링 교육,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정보제공 등 	
교육·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델(BM) 개발 (사업계획서, 피보팅 등)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네트 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확대 1인 창조기업-우수창업기업 간, 입주-졸업기업간 	전담기관 주관기관

표 II-1-1-41 | 비즈니스센터 지정 현황

구분	기관(센터) 명	지역	기관(센터) 명	지역
민간센터 (18개)	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서울	우리은행	서울
	메트로비즈니스	서울	한국여성벤처협회	서울
	한성케이에스콘	서울	(주)미래서비스	인천
	오피스허브	서울	크로스비즈	부산
	(주)하우투비즈	서울	(주)비스퀘어	부산
	(주)오피스이앤씨	서울	(주)나누미넷	대구
	(주)중원게임즈	서울	(주)디지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대구
	(주)더이노베이터	서울	스타트업파트너스	경남

구 분	기관(센터) 명	지역	기관(센터) 명	지역
	(주)코너스톤웍스	서울	(주)유비컴즈	충북
공공/지자체 센터 (37개)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	대구 수성구	대구
	강릉시	강원	대전광역시	대전
	한국나노기술원	경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
	(재)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경기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	부산시 사하구	부산
	창업진흥원	경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경기	서울 마포구	서울
	의정부시	경기	서울 성북구	서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울산광역시	울산
	의왕시	경기	인천광역시	인천
	(재)김해시차세대생명센터	경남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인천
	창원시	경남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남
	(재)포항테크노파크	경북	전라남도	전남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	전남 담양군	전남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경북	전주시	전북
	경상북도	경북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
	광주광역시	광주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광주 광산구	광주	충청남도	충남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	-	-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1인 창조기업에게 맞춤형 마케팅 및 다각적 판로채널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 준비 지원을 위해 기업 당 최대 20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 세부과제는

멀티미디어, 디자인, 광고홍보 등 1인 창조기업들의 보유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표 II-1-1-42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구분	과제	세부 지원 분야
마케팅 지원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디자인	전자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개발
	광고 홍보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표 II-1-1-43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단위 : 억원, 개사, 명)

연도	예산	신청	선정	고용
2014	43.0	2,198	394	221
2015	43.7	2,076	444	229
2016	51.9	2,081	463	314
2017	40.0	1,829	438	752
2018	29.0	1,320	281	416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협업을 통한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역량 있는 대학(원)생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제품화 지원을 목표로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연간 25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멘토링, 디자인 출원은 물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후속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활동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혁신제품들이 다각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설명회, 구매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온라인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등을 통한 유통채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동 사업을 통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아이디어의 마케팅과 판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상품설명회 · 구매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온라인 소셜커머스(인터파크)
입점 지원

다. 1인 창조기업 문화조성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1인 창조기업의 현황, 창업 및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발과 학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을 통해 1인 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이 정신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의 국민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라. 스마트창업터 운영

ICT기술로 연결되는 융복합 시대에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6년부터 대학,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총 20개의 스마트창업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창업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과 멘토링을 제공하였으며,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고객 인터뷰를 수행하며 창업 전에 사업성을 검증하고 고객반응을 제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선발을 거쳐 우수한 창업팀에게는 사무공간과 개발자금 등을 제공하여 아이디어를 이용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8년도에는 3,824명의 창업자가 창업실습교육에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고, 이 중 535팀에 대해 시장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평가를 거쳐 134개의 창업팀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1-1-44 | 스마트창업터 지정기관

기관명	비고	기관명	비고
한양대학교	서울	울산대학교	울산
성신여자대학교		성남산업진흥재단	경기
이화여자대학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원대학교	충북
덕성여자대학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
창업진흥원		영산대학교	경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
IT여성기업인협회		프라이머	기타

마. 스마트벤처캠퍼스 운영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SW, 콘텐츠, 융합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지식서비스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청년창업팀을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멘토링, 개발 및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과 성장 과정을 일괄 지원하기 위해 '13년에 '스마트벤처캠퍼스'를 신설하여 ICT기반 지식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스마트벤처캠퍼스는 2013년 수도권,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2014년 충청·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 2017년 인천·경기권으로 확대하여 총 5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분야 창업 지원에 필요한 개발실, 교육장 등의 전용공간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청년창업자를 육성하고 있다.

표 II-1-1-45 | 스마트벤처캠퍼스 주관기관 현황

기관명	비고	기관명	비고
(주)옴니텔	서울·강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경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경북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호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울산·경남		

2018년까지 동 사업을 신청한 5,803팀 중 우수 창업팀 1,015팀을 선발, 지원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885개 창업팀을 지원하여 일자리 2,785개를 창출하였다.

표 II-1-1-46 | 스마트벤처캠퍼스 운영 현황

연 도	운영기관수	성 과			
		신청(팀)	입교(팀)	창업(팀)	일자리창출(명)
2013년	2개	352	110	81	264
2014년	4개	980	225	168	429
2015년	4개	1,155	209	171	542
2016년	4개	1,193	170	167	531
2017년	5개	1,028	150	147	476
2018년	5개	1,095	151	151	543
합 계		5,803	1,015	885	2,785

제2절 벤처열기 확산을 통한 혁신벤처국가 실현

1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 벤처혁신정책과 김 민 지
- 벤처혁신정책과 송 제 훈
- 벤처혁신정책과 김 영 길

그동안 벤처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3만개를 돌파하였으며, 2018년 12월 말 기준 36,820개를 기록하고 있다. 벤처확인이 최초로 시작된 1998년 2,042개에 비해 18.0배로 성장하였다.

그림 5 |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단위 : 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벤처기업은 국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고 그 금액이 자본금 대비 10%(문화컨텐츠 7%)이상 되거나,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상태에서 R&D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비중이 5~10% 이상이고 사업성 우수평가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8천만 원 이상 보증·대출을 받고(보증·대출 가능 결정 포함) 그 금액이 총 자산대비 5%이상이고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아야 한다.

'18년 벤처확인기업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보증과 대출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각각 74.6%, 14.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II-1-2-1 | 유형별 벤처기업수(2018년)

구 분	합 계	벤처투자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연구개발	예비벤처
업체수(%)	36,820(100)	1,647(4.5)	27,459(74.6)	5,204(14.1)	2,393(6.5)	117(0.3)

가. 벤처기업 성과

벤처기업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성장률, 이익률 등의 면에서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17년도 기준 매출액 성장률은 8.9%로 대기업(7.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2%로 일반중소기업(4.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1-2-2 | 벤처기업 성과('17년 기준)

구 분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수(개)	35,187	3,732,997	4,468
매출액 증가율(%)	8.9	11.0	7.9
매출액 영업이익률(%)	4.2	4.0	7.6
수출액(억불)	196	1,074	4,467
고용인원(만명)	76.2	1,552	176

또한 창업 이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매출 1천억 원 이상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벤처출신 매출 천억 달성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74개였던 매출 1천억 원 이상 벤처천억기업은 2017년 572개로 2015년 대비 98개사 증가했다. 1조 벤처천억기업도 2015년 6개에서 2017년 11개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8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네이버(주)는 10년 연속 1조원의 매출을 유지했다. 그 외 1조 벤처천억기업은 코웨이(주), (주)유라코퍼레이션, (주)성우하이텍, (주)엔씨소프트 등이 있다.

2017년 벤처천억기업들의 총매출액은 130조원으로 2015년 101조원에 비해 28.7% 증가하였으며, 벤처천억기업들 중에서는 매출액 1~2천억 원 미만 기업이 대다수 (67.7%)를 차지하였다.

표 II-1-2-3 | 연도별 벤처천억기업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업수(개)	202	242	315	381	416	453	460	474	513	572
매출액(조원)	40.1	47.8	65.1	77.8	89.2	101.2	98.9	100.9	107	130

4차 산업 혁명 추세를 반영하고, 벤처기업 지속성장과 기업의욕 고취를 위해 벤처 확인제도를 민간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벤처확인제도는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 선별방식으로 제도 안정성, 벤처기업 확산에는 기여했으나, 급격한 기술혁신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18.1월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통해 벤처확인 주체를 기존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기술혁신성 및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벤처확인 하도록 유형을 개편하는 세부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8.11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밖에 '18.5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한 업종을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폐지하였고 '18.10월에는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추가하는 등 혁신기업이 벤처로 선별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나. 벤처기업 지원현황

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0.9%('17, 3.5만개/373만개)에 불과한 수준이나 전체 고용인원의 4.4%('17, 76만 명/1,729만 명), 전체 수출액의 3.4%('17, 196억불/5,737

역불)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 및 사업성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평균 근로자수는 21.7명(17)으로 일반 중소기업(4명)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결과, 벤처기업 평균업력은 11.0년이고, 기업 성장단계는 고도성장기가 51.9%(18,251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성숙기 27.7%(9,735개), 초기성장기 19.1%(6,715개), 창업기 1.1%(403개), 쇠퇴기 0.2%(82개)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 및 운용 애로’가 7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력확보 및 유지관리 애로’ 63.1%,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애로’ 54.9%, ‘국내 판로개척 애로’ 51.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 벤처기업 인력지원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벤처기업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은 벤처기업들의 부정기적인 소규모 개별모집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기업별 수요를 모으고 기간을 정하여 공동으로 인재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채용기업들의 자격을 매출액, 성장률, 연봉수준이 높은 우수한 벤처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대학생 등의 관심 유도과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도 꾀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벤처기업 3,571명을 채용하여 당초 채용목표인 3,565명을 초과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채용목표 인원을 3,58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훈련 지원사업은 벤처기업 신입 직원들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이해와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 총 609명을 교육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벤처기업 인력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조사한 결과 비수혜기업 대비 수혜기업의 매출증가율은 지원 당해에 6.6%, 지원 1년차 7.1%, 지원 2년차에

9.7% 높으며, 고용증가율 역시 지원당해 6.2%, 지원 1년차 및 2년차에 7.5% 높으며, 지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벤처기업 경영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벤처기업은 196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기업군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대다수 벤처기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출초보 벤처기업에게 수출 컨설팅 및 교육, 바이어 상담, 해외영업망 발굴, 해외 전시회 참관, 기업 및 제품 홍보 지원 등을 통한 해외수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수출초보 기업에서 수출희망 기업으로 확대해 플랫폼 구축 후 수출희망기업과 수요기업 DB 구축 및 무역코디네이터를 통한 수출계약 지원으로 변경하여 2017년도 25건 계약체결 126,000\$, 2018년도 116건 계약을 체결하여 2,760,660\$의 수출실적을 거두었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해외 수출기업은 25.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직접수출’만 하는 기업이 18.8%, ‘간접수출’ 1.9%, ‘직접수출+간접수출’ 병행기업은 5.2%였으며, 수출이 없거나 중단된 기업은 74.1%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정보 부족(47.0%)’, ‘무역 전문인력 부족(30.6%)’, ‘기술력 부족(30.0%)’, ‘자금부족(2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책의 부재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벤처기업이 수출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글로벌벤처스(e-플랫폼) 운영을 통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비중 확대, 수출거래 증대를 통한 성공모델 발굴 등 전문무역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 간 해외진출 맞춤형 중개를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수출을 희망하는 벤처기업 DB 469개사와 해외바이어 DB 1,640개사를 구축 후 계약체결 116건(276만 달러)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해외현지 직접마케팅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순수민간 차원의 마케팅 조직인 INKE(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INKE는 2000년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해외거주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민간 조직으로 52개국 90개 지부에 1,5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INKE 해외지부를 활용하여 해외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접촉, 해외지사 설립 등 벤처기업의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정기 상담회 개최, 해외기업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해 초기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를 지원하고 있다.

3) 여성벤처 활성화

여성벤처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말 기준 3,504개사로 전체(36,820개사)의 9.5% 수준에 불과하여 경쟁력 제고와 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균형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벤처CEO를 꿈꾸는 예비창업자에게 비즈플랜 캠프 → 선배 CEO 밀착코칭 → 사업화 애로해결지원 등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실전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이 여성벤처 선배CEO 1:1 코칭을 통해 부족한 시장정보를 얻고 사업방향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15~'17년) 총 71명(81.1%)의 창업자를 배출했으며, 특히 '16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68%(17개사/25개사)로 나타나, 3년차 창업기업 평균 생존율 48%보다 1.4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성벤처 CEO 및 임직원 대상의 혁신아카데미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기술 및 경영관련 정보 등을 제공,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총 804명이 참가했다.

2019년에는 비즈플랜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여성벤처 선배CEO와 매칭 사전 네트워크 미팅을 통해 창업자에 적합한 선배CEO와의 매칭 및 선배 CEO의 노하우 전수와 시장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등의 밀착 코칭을 지원하고, 여성벤처기업 혁신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변화 트렌드에 맞춰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

벤처투자 현황

▪ 투자회수관리과 김 승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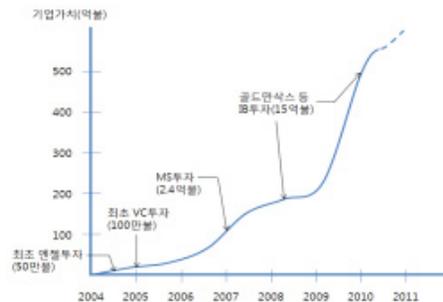
벤처투자는 담보나 상환부담이 없고 성공시의 이익뿐만 아니라 실패시의 책임도 투자자와 함께 공유하는 특성이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중 가장 유용한 자금이다.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투자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6 | 미국의 벤처투자 성공사례 : 페이스북

* 초기(엔젤투자) → 도약기(VC투자)

- 2004년 50만불 엔젤투자로 페이스북 개발
- 이후 벤처캐피탈 100만불, 골드만삭스 15억불 등 대규모 투자로 이어져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2018년 우리나라의 신규 벤처펀드⁸⁾ 조성 규모는 4조 6,868억 원으로 전년 4조 6,087억 원 대비 1.7%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신규 투자 금액도 2018년 3조 4,249억 원으로 전년 2조 3,803억 원 대비 43.9%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8) 벤처펀드 규모 및 신규투자 집계는 중기부에 등록하는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준임

표 II-1-2-4 | 연도별 신규 벤처투자 규모

(단위 : 개사,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업체수	560	613	688	755	901	1,045	1,191	1,266	1,399
투자금액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34,249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소기업 용자 잔액 843.3조원('18년 말 기준,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대비 벤처투자 잔액은 1.1%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9%로 미국 0.64%, 중국 0.26%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엔젤투자⁹⁾의 경우 우리나라의 2016년 투자규모가 2,579억 원으로 2000년 5,493억 원 대비 적은 규모이지만 최저점인 2010년 341억 원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등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창업초기기업의 핵심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투자가 대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 비해 국내 투자시장은 벤처캐피탈 주도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II-1-2-5 | 미국-한국의 엔젤투자 규모(2017)

구 분	엔젤투자	벤처캐피탈(VC) 투자
미 국	255,730억원(24.9%)	769,330억원(75.1%)
한 국	3,159억원(11.7%)	23,803억원(88.3%)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Center for Venture Research(CVR), NVCA (미국벤처캐피탈협회)

* 환율 : 1,070원/\$ 기준 (한국은행, 2017년말 종가기준)

9)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의 직접투자 및 개인투자조합 투자 기준

3

벤처투자 확대

- 벤처투자과 정 미 리
- 투자회수관리과 정 원 철
- 벤처투자과 오 성 업

가. 모태펀드 운영

정부는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2018년까지 총 4조 297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2조 6,991억 원을 출자하여 67.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1-2-6 | 모태조합 조성 및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중진기금	7,351	1,000	320	700	800	1000	2,020	1,000	8,300	4,500	26,991
문산기금	2,700	-	120	-	-	200	541	360	530	540	4,991
영화기금	0	110	460	450	400	100	100	100	180	100	2,000
관광기금	0	-	-	-	-	-	130	100	150	170	550
체육기금	0	-	-	-	-	-	200	200	70	100	570
특허회계	1,430	-	-	-	-	-	170	-	-	200	1,800
방발기금	0	100	-	-	-	500	500	370	200	150	1,820
고용노동	0	-	25	25	25	25	-	-	-	75	175
보건회계	0	-	-	-	200	300	300	-	-	-	800
환경회계	0	-	-	-	-	-	-	-	200	130	330
교육회계	0	-	-	-	-	-	-	-	120	150	270
계	11,481	1,210	925	1,175	1,425	2,125	3,961	2,130	9,750	6,115	40,297
누 계	30,435	12,691	13,616	14,791	16,216	18,341	22,302	24,432	34,182	40,297	

그간 모태조합을 통해 조성된 자펀드는 671개, 총 21조 9,305억 원 조성('05.6~'18.12월, 누계)이며, 총 5,243개사 중소·벤처기업에 15조 1,089억 원을 투자하였다.

2018년에는 모태조합에서 85개 벤처펀드에 9,978억 원을 출자하여 민간제안펀드 6,800억 원 및 창업초기 4,400억 원 등 총 3조 32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였으며, 모태조합이 출자하여 조성한 펀드를 통해 1,523개사에 2조 4,34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하였다.

표 II-1-2-7 | 모태조합 자조합 결성 및 투자 현황('18년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결성	55	21,576 (3,980)	68	21,056 (6,907)	70	26,121 (8,310)	98	34,402 (11,809)	85	30,320 (9,978)
투자	795	13,082	1,045	18,001	1,178	17,460	1,194	17,840	1,523	24,340

* () 안은 모태조합 약정 금액

이와 같이 '05년에 설립된 모태조합은 벤처투자 시장에 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신규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04년 말 0.5조원에서 '18년 말 4.7조원으로 약8.5배가 성장하였고, 매년 신규로 투자되는 투자금도 '04년 6,044억 원에서 '17년 34,249억 원으로 5.7배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모태펀드를 포함한 전체 벤처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17년 대규모 추경 등 예산 8,300억 원을 편성하여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1.9조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가 '18년부터 본격투자 되는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나. 엔젤투자 활성화

엔젤투자 현황을 보면,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는 2000년에 5,493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IT붐 붕괴와 함께 엔젤투자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341억 원까지 급감하였다. 이에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최근 2017년 11월에 수립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 확대(3천만 원까지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70%, 5천만 원 초과 30%) 및 공제한도 상향(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에 이어 공제 대상기업을 기존 벤처기업에 기술성 우수 평가 창업초기기업, 연구개발비 3천만 원 이상 지출 창업초기기업,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을 추가하는 등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2018년 5월에 수립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에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산관리·운용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별도 운영하던 상시 매칭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역 창업자-투자자간 원스톱 투자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엔젤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였다.

표 II-1-2-8 | 엔젤투자 실적(신규)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투 자 자	28,875	674	542	878	1,129	2,632	4,449	6,685	10,892
투자건수	-	874	1,116	983	1,267	2,942	5,388	8,265	14,971
금 액	5,493	459	580	617	959	2,048	2,582	3,166	5,389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선투자 후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는 2017년까지 1,920억 원을 조성하여 2018년 12월까지 616건의 726억 원 매칭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은 기업은 VC 후속투자까지 연결되며 성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18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기업의 약 25.8%가 벤처캐피탈로부터 총 2,389억 원의 후속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문엔젤제도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여 엔젤투자 시장을 리드하는 전문엔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126명을 발굴하는 등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투자정보망을 개설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정보망을 통해 기업의 IR자료를 소개하고 투자자는 투자 대상기업을 손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엔젤리더스 포럼, 엔젤투자 페어 등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도 추진하였다.

또한, 엔젤투자 활성화 추진에 따라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 수는 2018년에 3,030명이 증가하여 총 17,857명에 이르렀으며, 엔젤클럽도 26개가 신규 결성되어 총 227개의 엔젤클럽이 활동 중이다.

표 II-1-2-9 |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펀드명	결성금액
2011년	전국펀드 1호	100
2012년	전국펀드 2호	330
	대학펀드	210
	경남펀드	50
	부산펀드	50
	광주펀드	50
	강원펀드	30
	대구펀드	50
2013년	전국펀드 3호	380
	경기펀드	50
	아산나눔모태	100
2014년	전국펀드 4호*	320
2015년	울산펀드	50
	충남펀드	50
	전남펀드	50
	대전펀드	50
계		1,920

* 결성일(2014.12.19), 등록일(2015.1.8)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97개까지 감소한 등록 창업투자회사의 수는, 2009년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완화(자본금: 70 → 50억 원, 전문인력: 3 → 2인) 및 모태펀드 운용 예산 확대 등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선배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서 성장한 다수의 회사들이 그간의 경험을 살려 창업투자회사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이 하향 조정(50억 원→20억 원)된 결과, 2018년 말 현재 133개 창투사가 활동하고 있다.

표 II-1-2-10 | 연도별 창업투자회사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2017	2018
등록	6	3	6	14	13	5	20
취소	6	7	4	2	8	4	8
등록누계	105	101	103	115	120	121	133
납입자본금	14,455	13,947	14,185	14,843	15,026	15,228	16,15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투자규제 완화와 민간 출자자 유인 정책으로 인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와 신규 펀드 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3조 4,249억 원으로 전년(2조 3,803억 원)대비 43.9% 대폭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신규 펀드 조성도 4조 6,868억 원으로 전년(4조 6,087억 원) 대비 1.7% 증가하여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발굴·육성·투자를 통해 기업성장 죽음의 계곡인 창업에서 벤처기업으로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터제도는 2016년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되어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1호 등록을 시작으로 '18년 말까지 136개가 등록하였다.

표 II-1-2-11 | 지역별 액셀러레이터 등록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전북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강원	합계
기업수	77	11	3	8	6	13	2	1	2	1	2	2	3	2	3	136
비율%	56.6	8.1	2.2	5.9	4.4	9.6	1.5	0.7	1.5	0.7	1.5	1.5	2.2	1.5	2.2	100
	66.9			33.1												100

* '17년 등록현황 : 55개, '18.12.31 기준

짧은 등록기간에 비해 많은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하였으며, 2017년 163억 원, 2018년에 491억 원을 투자하여 총 654억 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이끌어 냈다.

표 II-1-2-12 | 연도별 액셀러레이터 투자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본계정	%	조합	%	소계	%	본계정	%	조합	%	소계	%
금액	10,312	63.2	5,999	36.8	16,311	100	17,207	35.0	31,915	65.0	49,122	100
기업	83	62.4	50	37.6	133	100	170	42.0	235	58.0	405	10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4

회수시장 활성화

▪ 벤처투자과 오 성 업

2018년 글로벌 M&A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 및 브렉시트의 갈등 심화 속에서도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한 3조5,300억 달러(약 4,171조원)를 기록하는 호황세였다.

국내 M&A 시장도 거래건수가 447건으로 지난해 360건보다 24.2%가 증가했으며, 거래대금 또한 2017년 416억 달러(약 49조원) 대비 26.2%증가한 525억 달러(약 62조원)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출처 : Mergermarket (M&A 전문 분석업체))

벤처투자 회수도 전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한 2조 678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M&A를 통한 회수금액도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670억 원을 달성하였다.

표 II-1-2-13 | 벤처투자 회수 규모(2018년)

(단위 : 억원)

구 분	'17년	'18년
벤처투자	17,965	26,780
M&A	573	670

*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는 사인 간의 거래이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지원 수단도 많지 않아 그간 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 인식개선 활동 및 지원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도입('13.5) 및 대상 확대('14.3),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에 따른 계열사 편입 유예 7년으로 확대('15.7), 벤처기업 재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창업·벤처기업 전용 PEF(사모펀드) 설립근거 마련('16.7)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을 통해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M&A시 인수·합병대가로 50%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M&A에 대한 걸림돌을 완화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도 강화하였다.

2018년 2월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통해 기술자료 거래 시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을 의무화 하고, 기술 임치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공정위와 함께 M&A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표 II-1-2-14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안
< 설립요건 > ■ 자산규모 기준 ■ 벤처자회사 범위	■ 5000억원 이상 ■ 벤처기업만 포함	■ 300억원 이상 ■ R&D 5% 이상 중소기업도 포함
< 행위제한 규제 > ■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 손자회사로 벤처지주설립시 증손회사 요건	■ 지분 5% 이내 ■ 증손회사의 지분 100% 보유 의무	■ 폐지 ■ 기존 증손회사 지분보유 특례(50%) 적용
< 인센티브 >	-	■ 대기업 편입유예 확대(7→10년)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現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삼일회계법인, 벤처기업협회 등 4개 기관을 M&A 지원센터로 공식 지정하여 M&A 관련 상담,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4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5년 신용보증기금, 2016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은행, 한국M&A협회를 M&A 지원센터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자금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M&A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M&A 거래소 역할이 가능한 전문 자문기관 간 거래 플랫폼인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을 2012년 7월에 오픈하여 본격 운영 중이다. M&A 거래정보망에는 벤처캐피탈·회계법인·법무법인·소형M&A자문사 등 102개의 M&A 전문 자문기관이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M&A를 희망하는 매도·매수기업 4,639건이 등록되어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2018년 말 기준)

2012년 이후 411건의 M&A가 성사되는 등 M&A 거래정보망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거래정보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018년 말 기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통한 신기술 획득 등 성장동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를 통해 2004년 이후 35개 조합 13,905억 원 규모의 M&A펀드가 결성되었고, 2018년 말까지 237개 기업에 12,024억 원이 투자되었다.

이렇게 M&A는 기업입장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여 신속하게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압축 성장을 실현할 수 있고, 창업가의 원활한 회수를 통한 재도전과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촉진 등 선순환 생태계 구성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제3절 재도전 환경 조성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 재기지원과 김 혜 남
- 재기지원과 최 호 성
- 재기지원과 민 승 주
- 재기지원과 문 종 원

조사기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창업 후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인식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인재가 위험부담이 높은 기술창업에 나서기 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II-1-3-1 | 실패·패자부활에 대한 청년층 인식조사(오픈서베이, '18.1)

구 분	조사결과
창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	1. 적성이 아니라서(39.9%) 2.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서 (33.6%)

* 오픈서베이 만 19~34세 남녀 300명 조사

실패에 따른 재기가 어려운 환경의 원인으로 실패에 따른 과중한 채무, 신용등급 회복의 장기화, 후속 지원 프로그램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은 연대보증채무와 조세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재창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활동도 제약되는 것이 현실로 폐업시 평균부채는 3.6억 원이고 평균체납액은 38백만 원에 달한다.(창업진흥원 조사, '17.1)

이러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소중한 사업 노하우와 실패 경험이 다시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창업 실패 이후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의 현황을 조사해 보면, 평균 창업횟수는 2.47회, 평균나이 51세로 재기기업인의 40%이상이 차명으로 재창업하며, 사업정리부터

재도전까지 평균 5~6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재창업자금 지원기업 대상 조사, 2018년 중진공)

이는, 과거의 실패 기록으로 인한 제도적 장벽과 재창업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 정리부터 재창업까지 기간 중 상당기간이 과거 정리에 소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으로 본인명의로 재창업보다 타인 명의를 활용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표 II-1-3-2 |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IBK경제연구소, '17.7)

구 분	조사결과
① 재창업 시 어려움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곤란(58.9%),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 불가능(23.2%)
② 재창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사업자금 지원(36.8%),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22.6%) 조세지원(17.2%), 교육·상담(14.8%)

이에 따라 정부는 재기기업인의 실패부담을 완화하고 혁신 재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2019년 9월)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가. 재창업 교육

재도전 기업인들이 재도전 의욕을 고취하고, 과거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성공적 재창업을 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재도전 경영자 힐링캠프'를 들 수 있다. 실패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자아성찰, 심리치유 등 재기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힐링캠프식 재기교육을 2011년부터 매년 3회~4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실패원인분석, 1:1코칭 및 멘토링, 재창업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을 지원하였다.

교육시작 이후(2011년 11월), 2018년까지 총 425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나.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은 재도전 희망 기업인이 재기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재창업자금을 도입 운영 중이다.

이는 과거 실패 기록으로 인해, 민간금융 이용이 제한적인 재기기업의 애로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재도전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2018년도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사업성·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업체당 최고 45억 원(운전자금 5억 원) 이내로 재창업 시 소요되는 시설(10년 이내) 및 운전자금(6년 이내)을 융자 지원한다.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지만 민간금융 및 일반 정책자금의 활용이 어려운 재도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표 II-1-3-3 |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조건
- 예비 재창업자, 재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자 -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은 자	직접 대출 (중진공)	- 시설자금 : 10년(4년거치 6년상환) - 운전자금 : 6년(3년거치 3년상환)

재창업자금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371개사에 총 5,1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창업자금 상담, 교육, 멘토링 등 연계지원을 통하여 재창업 자금 지원기업의 3년차 생존율이 2015년 50.0%, 2016년 61.5%, 2017년 71.9%, 2018년 75.1%로 높아졌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창업자금 규모 확대 및 연계지원 강화를 통해 재도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1-3-4 | 재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실적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지원기업수(개사)	15	90	131	263	376	502	576	710	708	3,371
지원금액(억원)	15	124	202	406	513	700	1,000	1,000	1,200	5,160

변화된 기업 환경에 맞춰, 재창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R&D 사업도 2013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3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29개사를 선정·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사업 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과제당 1.5억 원을 한도로 총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하였다.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우수 재창업자를 발굴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2015년도에 신설하여 35억 원으로 59개사를, 2016년도에는 53억 원으로 98개사를, 2017년에는 147억 원으로 298개사를, 2018년에는 150억 원으로 284개사를 지원하였다. 예비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인 재기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70%(최대 1억 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재창업 전용 보육공간(R-Camp)을 7개 주관기관에 신설하여 멘토링과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재창업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 확장되는 시점에는 재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재창업에 성공하더라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다만, 이 시점에도 신용등급의 상향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14년 169억 원, 2015년 150억 원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였다. 조성된 펀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재도전기업에게 적극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추경으로 조성한 3,305억 원 재기지원펀드도 11개 운용사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경영위기기업의 발굴 및 회생 지원

건강관리 시스템과 진로제시·회생컨설팅 등을 운영하여,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사전발굴 및 치유 등을 지원하고 있다.

1) 진로제시·회생컨설팅 및 구조개선계획수립 운영

연간 370개사 내외의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심층진단하고, 회생

또는 청산 등 향후 진로를 제시하는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회생컨설팅’을 통해 법적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구조개선 및 회생 또는 사업전환, 폐업 등의 적절한 진로를 적시에 제공한다.

2018년에는 총 25억 원, 9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구조개선전용자금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회생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조개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을 신규로 50개사 선정,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구조개선, 생산구조개선, 재무구조개선, 조직구조개선 등의 구체적 계획수립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컨설팅 비용 최대 3천만 원 지원)

아울러,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2014년 서울에 첫 설치 이후 2015년 부산, 대전에, 2016년 인천, 대구, 광주, 경남에, 2017년 경기, 서울서부, 2018년 전북, 강원, 울산, 경기북부에 추가 개소 등 전국에 13개 센터를 통하여 재도전 기업인에게 재기 상담부터 신용회복, 컨설팅, 회생, 사업정리, 재창업 등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하고, 향후 기능보강 및 홍보강화를 통해 재도전지원정책의 허브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향후 센터 미설치 지역의 재도전 정책 수요 해소를 위해 충북, 경북, 제주, 전남, 충남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확대하여 재도전 기업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300억 원 규모의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신설(2015년)하여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강도 높은 자체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低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 금융권에서 사실상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경영 정상화를 돕고 있다.

라.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FTA 피해기업 구제

1)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2006년 3월 제정하여 같은 해 9월에 시행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존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컨설팅·유휴설비 유통지원·세제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지원은 사업전환컨설팅 후 사업전환계획 승인, 정책자금 융자의 구조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1-3-5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사 업 전 환 내 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00% 완전전환
업종추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신규 업종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수 30% 이상 전환

*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중기부 고시 제2011-30호)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전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총 8개사에 사업전환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총 107개사에 대해 사업전환 계획을 신규로 승인 하였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2018년 총 248개사에 사업전환자금 1,208억 원을 지원 하였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승인업체 107개사 중 업종 추가가 95.3%인 102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이 4.7%인 5개사이다.

표 II-1-3-6 | 사업전환 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 분	계획승인	자금용자		컨설팅		R&D	
		기업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2006년	104	62	300	39	3.8	-	-
2007년	173	177	1,090	88	11.5	41	30
2008년	237	230	1,148	152	23.1	31	28
2009년	211	280	1,470	60	7.1	30	25
2010년	184	265	1,467	27	4.7	-	-
2011년	179	249	1,473	46	6.5	-	-
2012년	179	297	1,635	46	4.0	-	-
2013년	163	324	1,617	50	6.6	-	-
2014년	200	317	1,596	52	6.8	-	-
2015년	99	225	1,026	57	7.7	-	-
2016년	169	273	1,158	11	1.4	-	-
2017년	125	242	1,148	13	1.9	-	-
2018년	107	248	1,208	8	1.1	6	7.8

2017년 사업전환 종료기업 96개사 (2014년 4/4분기~2015년 3/4분기 사업전환 승인 기업 중 정상 추진기업)를 대상으로 3년간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사업전환 전보다 총매출액은 42.6%, 고용은 20.3%, 수출은 9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전환사업은 총 매출액의 36.7%, 수출액의 55.7%, 고용 인력의 36.1%를 차지하는 등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시적 경영성과를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 기업이 외부의 환경변화 분석과 자사의 핵심역량을 진단하여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선제적인 위기관리에 매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8년에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위기업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자금 추경 금액의 70%(210억)를 배정하고 위기업종 대상 고정금리*를 적용하였다

* 산업위기지역 대출 금리 완화 : (기존) 정책자금 기준금리(4/4분기 2.3%) → (변경) 고정금리 1.8% 적용

2) FTA 피해기업 구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FTA 등 무역환경의 개방 확대로 많이 변화되고 있으며, 2007년에 무역조정지원사업을 도입하여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내수

기업의 신속한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센터는 중진공에 설치되어, 2007년 4월 사업 개시 이후 2018년까지 173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597억 원의 용자를 지원하였고, FTA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총 6건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엄격한 지정요건,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초기에는 중소기업의 활용이 저조하였으나, FTA피해기업이 동 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라디오광고와 인쇄매체, 우수사례집 제작 등 종합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무역조정지원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제도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더불어 '18년에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고객애로 집중관리를 실시하였다. FTA 활용 기업간담회와 통상정책 지역설명회(12회) 개최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파악 및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표 II-1-3-7 |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지원 실적

(단위: 업체수, 백만원)

구분	2008~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기업 지정	7	0	8	24	26	17	24	39	28	145
용자 지원	1,550	200	1,485	8,299	10,320	9,360	9,120	10,130	9,204	50,464

무역조정지원 수혜기업을 대상(2013년~2017년 지정기업)으로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정연도 대비 최근결산년도의 매출액은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조정 지원사업이 FTA 무역피해를 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사업전환 사업성과 우수성 언론보도 (‘18.7월, 파이낸셜뉴스)

사업전환 사업성과 우수성 언론보도 (‘18년.8월, 한국경제)

사업전환 사업성과 우수성 언론보도 (‘18.11월, 머니투데이)

무역조정 사업성과 우수성 언론보도 (‘18.1월, 매일경제)

2

재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 기업금융과 윤성웅
- 재기지원과 민승주
- 재기지원과 민병철

가.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부담 완화

연대보증 폐지는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으로 제기되어 왔다. 연대보증은 부족한 담보력을 신용으로 메움으로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 실패 시 부담해야 할 과도한 채무는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을 2012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이를 통해 개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하였으며,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공식적 지위에 있는 책임자 1인만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

이후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7년 8월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는 업력에 관계없이 신규 용자·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2018년 9월부터는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 심사를 실시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표 II-1-3-8 |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경과

주요 내용	시 기
제3자 연대보증 제도 전면 폐지	제1금융권('12.5), 제2금융권('13.7)
우수기술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정책금융기관('14), 18개 민간은행('14.8)
평가 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	중진공('15.1)
창업 5년까지 연대보증 면제	신·기보('16.2)
창업 7년까지 연대보증 면제	중진공, 신·기보, 지역신보('17.8)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II-1-3-9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

구 분	실 적
중진공	('17) 7,924억원 → ('18) 21,235억원
신보	('17) 11,644억원 → ('18) 55,855억원
기보	('17) 9,625억원 → ('18) 35,661억원
지역신보	('17) 7억원 → ('18) 6,493억원
소진공	('17) 0억원 → ('18) 814억원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정책금융기관(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도에는 8,313억 원(채권 관계자 6천여 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5,484억 원(채권 관계자 17천여 명)을 기관별로 관리종결(소각) 하였다.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30~90%까지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 계층은 최대 90%까지, 중소기업인은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향후 기존 연대보증의 단계적 폐지의 차질 없는 진행과 부실채권의 적기 정리 등을 통해 실패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신속한 회생 지원

경영위기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 법적인 제도인 회생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제도 활용기업의 대부분(93%, '13년 기준)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 중소기업의 애로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회생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13년 10월)에서 간이 회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자로 개정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사위원을 기존 회계법인에서 법원사무관 등으로 대체하는 간이조사 위원제도 적용, 회생계획안을 의결권 총액의 50%(기존 66%)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시 의결 투표 해주는 등 간이회생제도 시행으로, 전반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간이회생제도 시행으로 종전에는 회생인가까지 평균 8.6개월 걸린 기간은 80~100 일로, 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법원 예납금 또한 1,500만원 내외에서 300만원으로 기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하였다.

아울러 기존 개인 회생 시 채무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하는 법률이 2017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되어, 사업실패 이후에도 빠르게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다. 신용회복 및 불이익한 신용정보 관리 체계 개선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실패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지원 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용회복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중인 중소기업인이 신용회복을 신청할 경우 도덕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채무를 조정(이자 : 전액, 상각채권 원금 : 최대 70% 감면, 정책금융기관은 최대 75% 감면,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하고 있다.

표 II-1-3-10 |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내용

대 상	지원 내용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30억원 이하 채무 보유 중소기업인	이자 전액, 상각채권 최대 60% 이내에서 원금감면 (정책금융기관 최대 75%)	조정 후 채무 기준 - 2억원 이하 : 최장 3년 -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기간 중 무이자)	조정 후 채무 기준 - 2억원 이하 : 최장 8년 - 2억원 초과 : 최장 10년

재창업지원위원회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는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을 통해 30억 원 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1월부터는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재창업기업은 정부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을 인정받은 점을 감안, 과거 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년(신복위 개인워크아웃)~5년(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간 공유되었으나, 재기 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에 대해 금융기관 간 공유를 제한하였다.

아울러, 국세의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유예 제도를 시행하여,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국세체납의 애로 해소를 위해 재기기업인이 벌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 각각 9개월, 12개월인데 비해 재기기업인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산이 없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2017년도 말 이전에 폐업을 하고 2018년도에 재창업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체납 조세를 소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한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시행중이다. 다만 아주 오래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17년 10월말부터는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의 경영인에 대해서도 부정적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공유 활용하던 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하는 등 재도전 걸림돌 제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7~8월)



실패박람회(9.14~9.16)



재도전의 날(11.30)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촉진

1

중소기업 인력수급 현황

▪ 일자리정책과 황 선 희

중소기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90.6%에 해당하는 바,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7.7만 명, 미충원율은 12.9%으로 대기업의 수치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많은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있으나, 정작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II-2-1-1 | 대·중소기업 취업자 수 및 미충원인원·미충원율

구분	취업자 수(만명)	비중(%)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전체	2,741	100	83천명	11.2%
중소기업 (300인 미만 사업체)	2,480	90.5	77천명	12.9%
대 기업 (300인 이상 사업체)	261	9.5	7천명	4.4%

* 미충원인원 = 구인인원-채용인원

* 미충원율 = (미충원인원:구인인원)×100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18년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상의 불일치·숙련의 불일치·정보의 불일치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보상의 불일치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임금이나 복지 수준과 중소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수준 간에 격차가 있다는 의미이다.

중소기업학회의 연구('17년 발표)에 따르면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주된 사유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로 나타난다.

즉, 구직자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수준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필요한 만큼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의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숙련의 불일치는 취업자의 직무능력과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간의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취업포털 잡 코리아의 조사('18년 발표)에 따르면, 직원 채용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적다(36.9%)'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18년 발표)에서도 신규직원 채용 시 중요하게 보는 요건으로 학력(1.2%)보다 전문 지식(19.5%)과 관련분야 자격증(7.9%)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장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숙련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수급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세 번째 이유는 정보의 불일치이다. 구직자는 기업의 채용정보, 기업은 필요인력의 정보 및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기업과 구직자 간 구인구직의 미스매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청년 패널 조사결과('17년 발표)에 따르면, 청년들이 구직 활동 중 애로사항으로 수입 또는 보수 부족(26.6%) 다음으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17%)'라는 응답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16년, 잡코리아·알바몬 공동조사)를 보면 기업에 대한 정보(고용안정성, 기업문화, 분위기, 업무 특성 등)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중소기업은 미충원 인원이 많은데, 정작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에게 기업의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상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등으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일자리 매칭을 노력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을 참고하기로 한다.

2

근로자 임금상승 및 근로환경 개선

- 인력지원과 여 운 상
- 일자리정책과 박 현 용
- 인력지원과 조 아 해
- 일자리정책과 정 미 라

그 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하면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과 노동자 등에게 성장의 과실이 전달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 하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 보다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선진 외국 등에서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아래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2-1-2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수준

구분	1997	2007	2015	2016	2017	2018
중소기업(천원)	1,344	2,426	3,110	3,228	3,350	3,494
대기업(천원)	1,739	3,744	5,017	5,131	5,145	5,474
대기업 대비 중기 임금수준(%)	77.3	64.8	62.0	62.9	65.1	63.8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1:2 비율(핵심인력 720만원, 기업 1,500만원)로 5년 동안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공동 적립금 2천만 원 이상을 성과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 사업은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된 지 5년째로 중소기업 15,495여 개사, 핵심인력 근로자 38,654명이 가입('18.12월 기준, 누계)하였다.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이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체제로 기업(월 20만원, 5년), 근로자(월 12만원, 5년), 정부(1,080만원, 3년)가 공동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만기시(5년) 청년근로자에게 전액(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다.

〈 적립구조 〉

(단위 : 만원)

구 분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본인납입	720	매월 12 x 60개월 = 720							
기업적립	1,200	매월 20 x 60개월 = 1,200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유입, 우수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의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가 기업과 핵심인력 근로자간 적립을 하는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적립금(1,080만원)이 추가된다.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술력 및 노하우 축적, 기술전수를 취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공제기간 5년)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6년부터 만 34세 미만의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3백만 원, 기업 4백만 원, 정부 9백만 원의 적립으로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주던 2년 만기형 청년내일채움공제(1,600만원)를 다양화하여, '18년에는 기업·근로자(600만 원), 정부(1,800만 원)가 공동 적립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5만여 개사에 청년근로자 15만 명 이상이 가입('18.12월 기준, 누계)하고 있다.

그림 7 | 내일채움공제



나. 성과공유제 도입 및 확산

청년층 등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단기간 내에 시장 시스템을 통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차이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대기업 100, 고용부, '17년) : 정액급여 77.0%, 특별급여 30.7%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18년부터 본격 도입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18.6월)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미래성과공유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정의하고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우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 유형 정의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가 '18.9월에 제정되었다.

〈 성과공유 유형 〉

구 분	성과공유 유형
성과급	①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약정 (현금) 성과공유 상여금 (주식) 우리사주
성과보상공제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임금수준의 상승	③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임금증가율 보다 높을 것
우리사주 제도 운영	④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복지기금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⑦기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한편, '18년부터 성과공유 교육, 성과공유 도입 컨설팅, 유형별 표준안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19.2월 제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로 법인세 10%,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2018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 애로요인의 하나로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및 잦은 이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인력확보에 필요한 자금, 즉 인건비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애로요인: 기술개발 자금부족(36.6),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및 잦은 이직(18.3), 기술정보 부족 및 획득 어려움(14.3) 순 ('18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 정부가 중점 지원해야 할 기술인력 정책: 중소기업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20.7%), 전문 기술인력 양성 후 중소기업 파견 지원(19.4%) 순으로 확인 ('18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동 사업을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에 공공연 연구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업이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3년간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석·박사급 신규 연구 인력은 기준연봉(석사 4천, 박사 5천) 이상으로 계약할 경우에만 인건비 보조가 가능하다. 이처럼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 인력의 임금 상승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동 사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신청자 수가 전년 945명 대비 급격히 증가(40%↑)하였으며, 1,323명 신청자 중 478명이 선정되어 높은 경쟁률(2.8:1)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원인력을 활용한 기업은 기술개발 건수 및 R&D 투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기술경쟁력이 향상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2-1-3 | 채용지원사업 경쟁률 현황

구 분	신진 석박사 채용			고경력 채용			합계		
	신청	지원	경쟁률	신청	지원	경쟁률	신청	지원	경쟁률
2015	294	122	2.4	147	9	16	551	131	3.4
2016	534	317	1.7	459	123	3.7	993	440	2.3
2017	682	150	4.5	263	65	4.0	945	215	4.4
2018	824	437	1.9	499	41	12.2	1,323	478	2.8

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 및 복지가 열악하다. 그로 인해 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체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 임금격차 : 대기업의 65%(月 임금기준, '18 중소기업 위상지표, 중기중앙회)

* 복지격차 : 대기업의 43%(月 복지비용기준, '17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결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여건 확보가 필요

하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04년부터 주택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근로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표 II-2-1-4 | 우선공급 절차

주택확보	모집공고	추천신청	추천(확인)	입주자선정
사업주체	지방중기청	중소 근로자	지방중기청	사업주체

동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장기근속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원활하게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표 II-2-1-5 | 연도별 추천실적

(단위 : 호)

구 분	추 천				
	계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임대	분양	임대
2014년	511	108	291	112	-
2015년	1,061	112	373	566	10
2016년	1,634	36	433	1,147	18
2017년	2,266	74	244	1,948	-
2018년	1,547	33	234	1,277	3

연도별 추천 실적을 보면, '14년 대비 '18년 우선공급 대상 추천자가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3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인력지원과 백 승 표
- 인력지원과 박 회 경
- 인력지원과 조 아 해
- 인력지원과 김 종 길
- 인력지원과 윤 희 정
- 일자리정책과 박 현 용
- 인력지원과 박 정 은

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정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육성계획(2007년, 교과부)에 따라 2008년부터 교과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¹⁰⁾(66개 전문계고)을 이관 받아 중소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산업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기술을 겸비한 중소기업 기술·기능 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2-1-6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천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지원 예산		28,800	28,600	30,640	30,640	33,856
지원 실적	학교(개교)	160	162	181	181	200
	학생(천명)	127	126	138	138	132

동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인력공급의 주요 원천이었던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학생들의 기술·기능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산업분야와 연계한 예비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유입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부터 업종별 협·단체가 특성화고와 협력하여 공동교육·채용 행사를 실시

10) 특성화고 육성사업은 기존 교육당국에 의한 일괄관리·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2008년부터 업종별 인력수요부처(국방부,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부, 특허청 등)가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 중

하고 회원사 등으로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구인정보를 발굴하여 특성화고에 실시간 연계하여 취업매칭하는 등 중소기업 구인수요와 특성화고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마련하여 산학 협력을 통한 우수 인력양성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인력공동관리협의회) : 18개 협회·단체, 1,442명 채용연계 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3자 취업협약(학생-학교-기업)을 약정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 실시 후 기업에 채용하는 ‘취업(산학) 맞춤형’ 운영을 참여학교 전체로 확대하여 6,234명을 중소기업에 공급하였으며, 학생들의 기업현장 적응력과 현장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기업과 학생(교사)이 공동과제를 발굴, 문제해결을 하는 ‘팀 1기업프로젝트’ 771개 과제를 수행하여, 취업연계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최근 경기부진,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편(17.8)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다.

표 II-2-1-7 |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취업률	58.4	62.6	65.1	50.9	36.1

이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실습 참여기업 감소 및 취업률 하락 최소화를 위해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19.1월)하여 추진 중이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적으로도 기업의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나. 기술사관 육성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을 연계한 4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규과정 외에 방과 후나 방학을 활용한 특약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높아진 기술수준에 맞는 숙련된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동 사업은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 3자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특성화고(2년)는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실습, 기초 및 전공 소양을, 전문대학(2년)은 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이론 및 기술심화 과정으로 운영하며, 동 사업을 통해서 참여 사업단(특성화고+전문대)에 학생연수비, 학생활동 지원비, 강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매칭되어 교육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Uni-Tech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어 2018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신규참여 학생 선발을 중단하고 2022년까지 기존 참여 학생만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용부 Uni-Tech사업이 자체 중단함('17.9월)에 따라 사업간 유사중복 등이 해소되어, 2019년 국회 예산 심의('18.12월)시 '19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신규 선발 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어 사업이 재추진 되었다.

2018년도 졸업학년 참여 학생 370명 중 259명이 협약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며 (취업률 70.0%, '19.2월말 기준), 60%이상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률*을 유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 산업기사 취득률(%) : ('16) 55.6% → ('17) 66.2% → ('18) 62.2%

** 산업기능요원 복무비율(%) : ('15) 36.7% → ('16) 21.7% → ('17) 40.6%

표 II-2-1-8 |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년	2018년	
예산	9,600	7,400	5,600	5,700	5,076	3,850	
지원 실적	학교	전문대 18 + 특성화고 37	전문대 17 + 특성화고 35	전문대 17 + 특성화고 33	전문대 16 + 특성화고 28	전문대 15 + 특성화고 24	전문대 13 + 특성화고 23
	학생	2,445	2,260	2,295	2,267	2,147	1,565
	업체	722	821	908	904	962	904

*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합한 금액

다.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공급

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을 연계, 산학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인재 양성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불일치를 완화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산학협력 지원 인프라 조성이 우수하고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는 학생이 참여 가능한 전문대학을 선정하고, 중소기업-대학(졸업예정) 간 산학협력 운영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10억을 투입하여 5개 전문대학을 시작하여, 2014년에는 25억을 투입하여 12개 대학을, 2015년에는 30억을 투입하여 15개 대학을,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매년 28억을 투입하여 14개 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총 4,369명의 현장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였다.

2019년에도 14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약 870여명의 기술인력을 현장에 바로 투입가능 하도록 양성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운영 및 취업 매칭을 강화하여 전년대비 1.2%p 증가한 83.2%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재수급난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4차 산업관련 분야의 “심화 팀-프로젝트”를 공모·선정하여, 발굴된 프로젝트의 문제해결 능력을 지원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였다.

* 프로젝트 과제 : (기본) 167개/14개교 (심화) 5개/5개교 (과제당 1천만원이내 지원)

2019년부터는 지역특화 및 신산업 주도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맞춤교육 개발과 팀프로젝트 과정을 확대하여 주력할 예정이다.

표 II-2-1-9 |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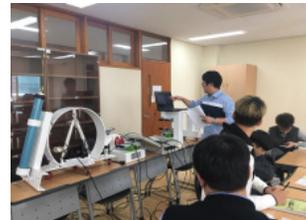
구분	예산	참여대학	협·단체	중소기업	양성학생	취업학생	취업률
2013년	1,000	5	14	174	327	289	88.4
2014년	2,500	12	46	745	830	613	73.9
2015년	3,000	15	30	756	820	604	73.7
2016년	2,800	14	26	756	776	580	74.7
2017년	2,800	14	37	709	778	638	82.0
2018년	2,800	14	36	933	838	697	83.2



전공동아리 활동 (특성화고)



협약업체 교육 (기술사관)



맞춤교육 (산학맞춤)

라.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대학원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현장중심의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석·박사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불일치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원-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하는 현장실습,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인력양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20억을 투입하여 7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2015년, 2016년에는 매년 40억을 투입하여 신규 5개 대학을 포함한 총 12개 대학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39억을 투입하여 11개 대학, 2018년에는 37억을 투입하여 10개 대학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 991명의 R&D석·박사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였다.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석·박사 연구인력의 취업률은 평균 약 90%를 달성하였고,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R&D연구인력에 대한 인재 수급난에 큰 역할을 하였다.

표 II-2-1-10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

구분	예산	참여대학	참여기업	양성학생	취업률
2014년	2,000	7	32	128	89.2
2015년	4,000	12	57	230	90.4
2016년	4,000	12	57	233	91.0
2017년	3,900	11	57	200	88.0
2018년	3,790	10	54	200	-

* 2018년도 취업률 조사예정('19년 12월 말)

마.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이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정부가 산업체 수요를 고려하여 학과(대학)를 선정하여 개설하면 중소기업의 대표는 소속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학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재직 여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과 졸업 후 채용을 약정하고 참여하는 '채용조건형'이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의 65~100%를 지원하는데, 재교육형 석·박사 과정은 65%, 재교육형 학사·전문학사 과정은 85%, 채용조건형은 학위와 상관없이 100%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 외 나머지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 부담한다.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소속기업에서 1~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2010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은 2018년도에 69개 학과를 통해 1,851명을 지원하였다. 2019년도에도 69개 학과를 지원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신산업 분야의 지원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표 II-2-1-11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

연 도	예산	지원학과	제 도 개 선
2014년	76억원	44개 학과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유형 신설
2015년	92억원	48개 학과	■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016년	104억원	65개 학과	■ 지역특화산업 관련 계약학과 확충(16개)
2017년	103억원	69개 학과	■ 학위연계형 계약학과 운영
2018년	114억원	69개 학과	■ 영마이스터 학과(채용조건형) 선정
2019년	114억원	69개 학과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확대

바. 국립 공업고등학교 육성

고등학교 및 재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취업보다는 진학 선호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특성화고의 취업 선도모델로서 ‘한국형 마이스터고¹¹⁾ 육성 기본계획’(2008.7월)을 수립하고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3월)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급당 20명의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전면 자율화하였으며, 교장 자격이 없는 산업계 인사의 교장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마이스터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입학전형을 시행한다.

표 II-2-1-12 |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일반현황

구 분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학교설립	1954년	1967년	1974년
마이스터고 지정	2008.10월	2009.2월	2009.2월
마이스터고 개교	2010.3월		
학과명 (학급수)	전자회로설계전공(4학급) 전자시스템제어전공(4학급) 자동화시스템전공(4학급) 로봇제어전공(2학급)	정밀기계전공(3학급) 폴리메카닉스전공(3학급) 산업설비전공(3학급) 로봇제어전공(2학급)	폴리메카닉스과(3학급) 금형설계제작과(4학급) 로봇자동화과(3학급) 메카트로닉스과(3학급)

11) 초·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구 분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학급 (학생 정원)	1학년	14학급(280명)	메카트로닉스전공(2학급) 전기전공(2학급) 15학급(306명)	13학급(260명)
	2학년	14학급(275명)	15학급(302명)	13학급(260명)
	3학년	14학급(267명)	15학급(297명)	13학급(260명)
	계	42학급(827명)	45학급(905명)	39학급(780명)
	위치 및 부지	경북 구미시 223천㎡(6.7만평)	부산 해운대구 142천㎡(4.3만평)	전북 익산시 77천㎡(2.3만평)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3개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취지에 맞춰 공모를 통해 임용한 산업계 출신 교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산업분야별 현장수요에 맞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실에 취업 지원부를 신설하고 산학협력 지원관을 학교별 2명씩 지원하여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산학협력기업을 발굴하는 등 교원들의 수업이외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I-2-1-13 |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합 계	18,041	14,725	15,459	14,656	19,466
직업교육체제 혁신	7,200	9,805	8,805	8,505	7,679
시설확충	10,841	4,920	6,654	6,151	12,137

중기부 소속 3개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한 이후 입학(2010.3월 입학)한 학생이 졸업한 '12학년도부터 취업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4학년도에 93.2%, 2016학년도에는 94.3%를 달성하였으며, 2017학년도에는 92.3%, 2018학년도에는 90.8%로 소폭 하락 추세이나, 국제로봇올림피아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금(3)·은(4)·동(5)의 수상을 하였다.

표 II-2-1-14 |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취업률

(단위 : %)

구 분	'15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구미전자공고	100.0	100.0	98.5	98.9
부산기계공고	96.9	92.1	84.0	81.5
전북기계공고	95.9	91.2	95.2	93.1
평 균	97.6	94.3	92.3	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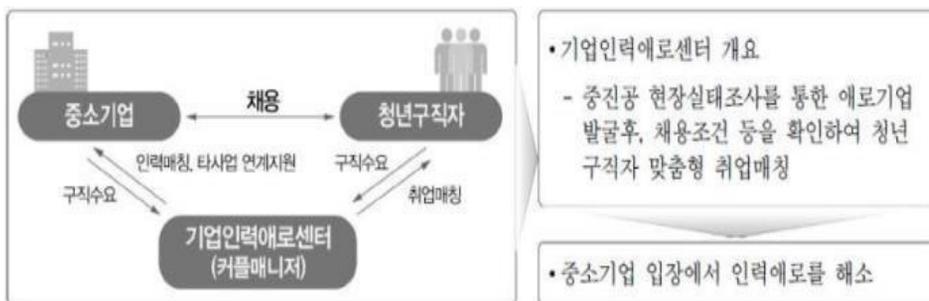
사.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시작되어 2018년 현재 16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이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 이노비즈협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이 현장실태조사 등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통해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적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특성화고·대학·직업훈련기관 졸업생 및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국방부와 협업하여 구직자 대상을 군 청년장병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에 필요한 직무교육 및 취업상담·매칭 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협력사인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청년 구직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매칭을 진행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2018년 구인기업 8,224개사를 발굴하였으며, 2,657명이 취업으로 이어졌다. 향후 지속적인 우수 구인기업 발굴을 통해 중소기업 채용 매칭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 중소기업 인식개선

정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취업자와 일반국민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¹²⁾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¹³⁾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의 가능성과 비전을 바로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인식개선 사업은 2018년 12억 원 예산으로 미디어 언론홍보, 교육특강, 체험활동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중학생 및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업탐방, 선배 및 중소기업 CEO 등의 근무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예비층에 균형 잡힌 중소기업 인식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취업 유도하였다.



고등학생 토크 콘서트
(*18.12.14)



중학생 기업탐방 및 인식개선
교육 특강(*18.12.7)



중소기업 바로알기 도전골든벨
(*18.12.6)

자. 중소기업 재직자 연수원 운영

1982년 중소벤처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

1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확산)

13) 중소기업 부족인원 : 21.3만명, 부족률 : 2.2% (출처 : '고용부, 19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재직자 전문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총 148만여 명 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49,228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21,530명, 지방 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 리더십)은 14,538명, 온라인 연수 13,160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교육 과정을 확대·개편하여 2018년 기준 7,760명의 스마트공장 제조분야 전문인력(국정과제)을 양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공장 실습인프라인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지방으로 확대 추진(2022년까지 6개소 구축) 중이다.

또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조현장을 진단하고, 기업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출,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연수를 실시(2018년 3,375명) 하였다.

구 분	개원	위치	특화분야	연수인원 (2018, 명)
중소벤처기업연수원	'82.10	경기 안산	뿌리기술, 스마트팩토리	22,155
호남연수원	'01.09	광주	철강, 조선, 산업기계	4,141
대구경북연수원	'03.11	경북 경산	자동차 특화	5,270
부산경남연수원	'04.10	경남 창원	공학설계, 현장기술 S/W	4,847
글로벌리더십연수원	'14.09	강원 태백	CEO, 리더십, 식품	3,030
충청연수원	'21.1 예정	충남 천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창업	-

제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제1절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 기술정책과 이 중 호

2017년 R&D 수행 중소기업체는 45,320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체 135,365개사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6년 전인 2011년의 28.1%에 비해 5.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1-1 |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6부터 종사자수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

(단위 : 개사,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R&D수행 중소기업체	31,642	33,991	38,531	37,823	45,307	40,588	45,320
중소기업체수 대비 비중	28.1	31.0	31.6	30.0	33.6	31.4	33.5

* 자료 : 2018년 중소기업실태조사 32page

* 모집단 : 5인 이상 중소기업체 135,365개, 표본수 : 7,500개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2018년 10월 기준 38,612개사로 2012년 24,243개사에 비해 1만 4천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 혁신활동 기반도 탄탄해지고 있다.

표 II-3-1-2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0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4,243	27,154	30,478	33,647	36,026	37,696	38,612
소속 연구원 수	146,833	155,580	163,887	176,084	184,998	190,686	193,660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8.12)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이와 같은 저변확대에 힘입어 2017년 약 13.6조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 78.7조원의 17.2%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3 |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 연구 기관	55,584	63,061	64,418	69,503	72,607	81,127	88,241	91,132	95,432
대 학	42,043	47,455	50,338	52,769	54,803	57,670	59,989	63,399	66,825
기 업	281,659	328,033	381,833	432,229	465,599	498,545	511,364	539,525	625,634
- 대 기 업	199,700	242,129	283,462	320,709	357,781	386,177	389,303	407,787	488,725
- 중 소 기 업	81,959	85,904	98,371	111,520	107,818	112,367	122,061	131,738	136,909
합 계 (국가 R&D 규모)	379,285	438,548	498,904	554,501	593,009	637,341	659,594	694,055	787,891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

그러나 중소기업 R&D의 저변확대와 투자증가 등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75~77%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 되어 있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32%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3-1-4 |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

구 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술능력 수준	74.8	75.6	77.1	74.3	75.6	77.6

* 자료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018.12)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은 OECD가 1993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술혁신평가 매뉴얼인 ‘오슬로 매뉴얼’을 기초로 개발한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1,000점)와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지표(10등급)를 적용하여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개별 기술수준 평가 결과가 B등급(6등급에 해당)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은 재선정 하고, 미흡한 기업은 선정을 취소함으로써 제도의 대외 신뢰성 유지 및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2001년 이노비즈 선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8년 현재 18,093개社가 유지되고 있다.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5년부터 기술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소폭 증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18,000개社를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I-3-1-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 현황

(단위 : 개)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업체수	17,080	16,878	17,472	17,708	18,091	18,09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기술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하는 한편 자금, 판로, 인력, 정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은행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3-1-6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건/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8,881	70,867	8,372	67,359	8,289	69,635	8,309	67,697	8,154	64,103

2018년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은 157.1억 원이고, 수출기업 비중은 51.8%, 평균 수출액은 70.7억 원(직접 50.7억 원+간접 20.0억 원 추정),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20%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고성장기업은 2,481개로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핵심기술을 지속·유지를 위한 생산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발한 기술 및 제품 전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기술 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2000년부터 개최하여 왔다. 지금까지 관련 유공자에게 매년 표창을 수여하여 유공자(기관)를 격려하였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은 국내 중소기업 기술관련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왔고,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기술인재대전’을 2013년도에는 ‘IT & Security’ 행사를 통합하였고 2016년도에는 ‘품질혁신 전진대회’ 및 ‘동반성장 테크페어’와 통합하여 행사의 효과를 높여 개최하였다.



제 18회 기술혁신대전 개막식('17.9)



기술혁신대전 전시관

기업의 혁신은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이외의 요소인 경영혁신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의 경쟁력이 반드시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고객서비스 등에서도 혁신적인 역량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벤처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로는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포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하반기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8년 말 현재 16,733개社가 활동 중이다.

2011년 17,558개사로 정점을 찍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은,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7년 정밀실태조사 결과 평균 매출액은 2015년 158.0억 원, 2016년 144.9억 원, 2017년은 153.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1-7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조업	6,454	7,302	7,664	7,662	8,175
비제조업	5,547	6,596	7,177	7,568	8,558
· R & D 서비스	899	1,006	1,605	2,474	2,826
· 건설운수	1,377	1,656	1,676	1,694	1,898
· 도소매업	2,771	3,239	3,378	3,257	3,771
· 기타	500	695	518	143	63
총합계	12,001	13,898	14,841	15,230	16,73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R&D, 금융 및 보증, 판로·수출 등 시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농협,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금융협약을 체결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료 감면, 여신한도 확대, 금리우대,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성과 분석 및 육성시책 발굴, 확인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망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9월부터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8년에는 총 13,990건 51,910억 원을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협약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3-1-8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2015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290	95,446	23,296	92,157	18,803	72,072	13,990	51,910



중소기업 경영·영업전략 교육



경영혁신대회 개최



메인비즈 제도 설명회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과 황 조 인
- 기술개발과 강 성 원
- 기술개발과 조 무 근
- 기술정책과 최 한 식
- 기술개발과 오 보 언
- 기술개발과 김 범 철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1)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R&D 기획역량 및 자체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R&D 기획역량강화교육, 기획지원 및 외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R&D 기획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 혁신 R&D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8년도 목적 예비비로 신규 추진되었다.

① R&D 기획지원사업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성공 가능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사전에 충분한 R&D기획 없이 기술개발에 착수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동 사업은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제에 대해 기획 전문기관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분석·진단 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R&D기획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 쏠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구분된다.

R&D기획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6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345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수행 결과 우수과제는 R&D 사업으로 연계(선정)지원, 2017년부터는 희망하는 R&D 사업 신청 시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7년 179개 중 108개, 2018년에는 342개 중 104개 과제를 우수 과제로 선정하고 대상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 가능한 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일부(제품개선))에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하여 서면평가 면제 또는 가점 등으로 우대한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이나 용자·보증신청, 기업 IR 등 다양한 분야에 R&D 기획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019년에는 지원대상 조정 및 지정 기획기관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R&D 기획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외지역 및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교육·코칭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표 II-3-1-9 |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2~ 2007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획 지원	과제수	1,406	560	153	169	154	204	178	179	342
	금 액	215	165	35	35	40	50	45	50	45
R&D 사업 연계	과제수	-	338	85	98	92	82	85	108	104
	금 액	-	1,080	252	337	311	263	245	-	-

* '16년까지는 R&D사업으로 연계(선정), '17년부터는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

한편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2014년 시행이후 2018년까지 총 12,75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38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4,136명(온라인교육 : 2,533명 포함)이 수료하였다.

2018년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자 만족도 조사결과, 추천 의향도는 84.9점, 전반적인 만족도는 86.7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3-1-10 |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교육과정	2015		2016		2017		2018		합계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정규	27	950	23	981	29	1,248	26	957	127	4,745
방문형	11	341	10	385	6	301	5	194	41	1,450
협약설명회	-	-	-	-	-	-	4	320	4	320
IP역량강화	-	-	-	-	-	-	2	75	2	75
세미나	-	-	-	-	-	-	1	57	1	57
온라인	-	-	-	1,479	-	2,097	-	2,533	-	6,109
계	38	1,291	33	2,845	35	3,646	38	4,136	175	12,756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기업은 자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기술애로 해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외부 고급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박사급 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분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의 기술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등 산학연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학컨설팅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현재 5개 권역별로 6개의 공학컨설팅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 현장중심의 기술애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II-3-1-11 | 2018년 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단위 : 건, %)

구 분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선정과제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선정	비율
서울/경기/강원	서울대	170	26	56	14	36	22
	인천대	97	15	69	17	46	27
대구/경북	금오공대	119	18	70	18	26	16
호남/제주	전북대	95	14	65	16	22	13
부산/울산/경남	창원대	47	7	35	9	20	12
대전/충청	교통대	129	20	102	26	17	10
총계		657	100	397	100	167	100

2017년도에 국·공립대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학컨설팅센터를 2018년도에는 우수 사립대까지 확대하고 2019년도에는 공학컨설팅센터의 지정범위를 출연연까지 넓힘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조선 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경기침체가 본격화·장기화 되면서 동 산업 거점지역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 고용위기 및 지역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위기지역(6개) : 군산시(전북), 목포시·영암군·해남군(전남), 거제시/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경남), 울산 동구

동 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및 해당 시도 내의 자동차·조선업 등 위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혁신 또는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혁신 주체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기술협력 및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4개 테크노파크(경남, 울산, 전남, 전북)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지역 현장에 필요한 R&D 과제 선정·지원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2018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실적은 현장수요형 R&D 심층과제 74개, 단기과제 39개 등 총 113개를 선정하여 지원 완료하였고, Scale-up R&D 과제는 31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표 II-3-1-12 | 2018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경남	울산	전남	전북	합계	
현장수요형 R&D	심층과제	과제수	13	15	26	20	74
		금 액	155	170	188.4	170	683.4
	단기과제	과제수	15	10	4	10	39
		금 액	45	30	11.6	30	116.6
	소계	과제수	28	25	30	30	113
		금 액	200	200	200	200	800
Scale-up R&D	과제수	8	8	8	7	31	
	금 액	700	700	700	700	2,800	
총 계	과제수	36	33	38	37	144	
	금 액	900	900	900	900	3,600	

2)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지원

지금까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선도 사업이면서 해외수요 확보 및 외화가득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고 실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50%이상으로 추정되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주력산업의 침체, 제조업의 투자 부진, 산업화 진전에 따른 국가 간 기술격차 감소 등 제품생산역량만으로는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등 스마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쏠 산업의 서비스화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차별화가 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07년부터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상승과 신규 고용 촉진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나, 타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제품 개발 R&D과제가 다수 포함 되는 등 서비스 R&D 특성에 적합한 지원이 미흡했다.

이에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비스R&D만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업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제품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① 제조업이 생산하는 제조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지원하는 제품서비스화과제, ② 서비스업의 기존 서비스의 개선 및 신규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신규서비스창출 과제, ③ 동일한 서비스 업종에 공통 적용 가능한 업종공통서비스 과제를 최대 1년에 2.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응과 기술창업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5대 중소기업 전략분야(미디어, 레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직, 스마트 금융)를 중점 지원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서비스화 역량 및 서비스 업종 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획지원의 범위도 쉰 세부과제로 확대하여 총 45개 과제에 83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및 서비스기업의 新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였다.

표 II-3-1-13 |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계
지원금액	58	83	141
지원업체수	38	45	83

2019년에는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BM, UX/UI 및 디자인 특허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IP전략수립을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 계획에 발맞춰 중소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성과 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장수요에 맞게 서비스R&D의 전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너지 창출을 위해 산업간, 이종기술간 융합, 다양한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여 혁신적 서비스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 (강성원 사무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장 및 위상 제고 뒤에는 1997년부터 한결같이 함께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있다.

수출기업과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중소기업 전용 핵심 기술 개발사업이다.

①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②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과 VC 투자기업 대상으로 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간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 II-3-1-14 |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금액	2,325	2,448	2,470	2,620	2,260	2,394	2,269
지원업체수	1,053	1,081	1,087	1,107	1,029	1,147	1,384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7,888개 과제에 1조 6,786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료 과제 중 성공판정 받은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된 결과, 정부출연금 1억 원 당 제품매출액이 4.4억 원, 신규고용은 1억 원 당 1.5명으로 나타났다.

세계최고 수준 대비 과제수행 전·후 기술수준 차이는 32.9%, 기술자립도는 35.2% 향상되었으며, 과제 수행 전·후 기술격차가 2.8년으로 단축되는 등 기술적인 성과도 창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 유망분야 지원을 위한 R&D를 신설하고, 고용지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기술개발 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허청과 협업하여 전주기 IP 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성 심층평가 확대 등 관련 제도와 규정도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장사다리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단계별 R&D지원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도모 하도록 전략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

창업기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력 및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기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의 원동력인 기술개발 투자에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시 수반되는 위험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흡수·완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크게 창업기업과제와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로 구분된다. 창업기업 과제는 업력 7년 이내의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창업기업 등이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년간 4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는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가 선별, 투자한 창업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2년간 5억 원까지 지원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245개 과제에 13,302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하여 소규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II-3-1-15 |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지원 과제수	90	86*	598	1,331	856	1,102	1,230	1,332	1,364	2,256	10,245
지원 예산	100	100	950	1,136	1,314	1,414	1,624	1,888	1,976	2,800	13,302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포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R&D과제 종료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정부출연금 1억 원 당 평균 10.6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기술적 성과로 세계최고수준 대비 기술 수준 및 기술자립도는 각각 33.6%p, 35.6%p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출연금 1억 원 당 신규 고용 인력은 5.2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저변확대形 단기·소액과제 중심에서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민간투자形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사내벤처, 스핀오프 등 시장에서 검증된 과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창업 → 혁신형 → 중견) 구축의 첫 단계인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 유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5)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World Class 기업(세계적 수준의 기업) :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을 확대하여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

2010년 3월, 제51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년 2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30개 기업을 처음으로 선정하였다.

표 II-3-1-16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선정기업	313	30	37	33	56	30	50	36	41
선정취소	23	3	3	6	8	2	1	-	-
누계	290	27	34	27	48	28	49	36	41

이에 따라 매년 30~50개사를 선정하여 2019년 7월 현재 290개사의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400억 원 이상 1조원 미만(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이다.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요건 심사 → 분야평가 → 현장실사 → 종합평가 등 4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현재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을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이 170개사 중견기업이 120개사이고, 수출비중(수출액/매출액)이 58% 이며 기술개발 투자비중(연구개발비/매출액)이 6%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통신,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의료·광학기기, 섬유, 의약품 등 주력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표 II-3-1-17 | 업종별 분포현황

(단위: 개사)

선정 년도	전자부품 · 통신	기계· 장비	자동차 부품	석유· 화학	SW	금속	의료· 광학기기	섬유	농· 식품	의약품	전기 장비	운송 장비	지식 서비스	계
11년	10	3	3	2	3	3	3	0	0	0	0	0	0	27
12년	10	7	3	5	2	1	1	1	0	1	2	1	0	34
13년	9	2	6	1	1	2	3	1	1	0	0	0	1	27
14년	16	5	8	2	6	3	2	1	0	2	2	0	1	48
15년	11	4	4	2	0	0	4	1	0	2	0	0	0	28
16년	10	11	11	6	1	4	4	1	0	1	0	0	0	49
17년	9	9	6	4	1	2	1	0	0	1	0	0	3	36
18년	5	11	9	2	4	2	5	0	0	0	2	0	1	41
계	80	52	50	24	18	17	23	5	1	7	6	1	6	290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업의 향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75억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에서 현지진출까지 해외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간 총 3.8억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특허전략개발원,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기업별 성장전략 이행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기업의 성장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과 더불어 기업 스스로의 성장 노력으로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은 '11~'18년간 선정전 대비 매출액은 24.8%, 수출액은 27.8%, 고용인원은 20.1%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3-1-18 |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의 성과

기업수	평균 매출액(억원)			평균 수출액(억원)			평균 고용인원(명)		
	선정전	'17년	증가	선정전	'17년	증가	선정전	'17년	증가
290	1,470	1,835	24.8%	836	1,068	27.8%	332	399	20.1%

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중소기업이 시장 다변화 및 소비자 기호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개선을 통한 신속한 시장 대응이 필수적이나, 다수 중소기업은 자금·인력·설비 등의 부족으로 시장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등의 기술개발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단기간(1년 이하)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공정개선은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며, 제품개선은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제고를 지원하고, 총사업비의 75%이내를 지원한다.

2015년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상 전용 R&D를 신설하여,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 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조선·IT 등 他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는 뿌리산업은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로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3-1-19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41,503	30,003	31,160	37,714	36,035	44,383
지원과제수	674	611	594	680	838	811

향후 제품의 품질향상,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존 제품 및 공정에 대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주력 산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이 확보되고, 전기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기기, 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이 글로벌 시장선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인력·장비·기술 등)를 활용한 공동R&D를 통해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R&D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2013년)을 실시한 결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통합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첫걸음R&D와 연구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R&D사업이 신설되었다. 2017년에는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전략협력사업을

신설하고 내역사업 개편으로 기존 도약협력의 산연전용, 연구마을과제를 전략협력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을 동 사업 내역사업으로 편입하였다.

2018년에는 사업비 사용 사전 모니터링 및 부적정 용도 사용방지 등의 사업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업비 정산의 일관성·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정회계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3-1-20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93~'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예산	9,458	1,389	1,458	1,520	1,382	1,308	1,395	17,910
참여기업	36,250	2,041	1,865	2,179	2,082	3,457	4,034	51,908

* 2017년부터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과제(수혜기업) 포함

① 첫걸음협력

R&D 초보기업이 산학연협력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활용 하고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정부 R&D를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걸음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이 R&D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업화 방향으로 R&D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R&D 주관기관을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하고, 대학·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R&D 수행 전반에 걸쳐 애로해결 및 조연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2017년부터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공동R&D를 수행 할 대학·연구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복수의 기술매칭기관('17년 : 한국산학연합회, 대학산업기술지원단, '18년 : 한국산학연합회, 기술보증기금)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전문가를 복수로 추천하면 기업이 원하는 전문가를 선택한 후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3-1-21 | 연도별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과제수	898	1,029	902	840	1,048
	금 액	447	532	461	365	387

② 도약협력

도약협력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과제수행 조건이 있는 첫걸음 협력과 달리 전국에 소재한 대학·연구기관과 협력수행이 가능하며, 매출액 5억 이상 또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면 참여 할 수 있어 산학연협력으로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표 II-3-1-22 | 연도별 도약협력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지원	과제수	915	769	893	478	710	'17년 연구마을, 산연전용과제 전략협력으로 편입
	금 액	745	665	819	303	308	

③ 전략협력

전략협력은 산학연협력이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산연전용, 연구마을과제)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사업이다

특히 2014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산업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산연전용과제를 신설하여 현재 까지 764억 원, 616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통해 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위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체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집적하는 형태의 연구마을 사업을 2013년 시범운영하여 현재까지 646억 원, 777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한 24개 거점형 연구마을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R&D특성화를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유망 중소기업과제를 신설하였고, 지역별 산업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과제 공고부터 선정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괄 진행하도록 하였다. 2017년 11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였고 35개 기업에 42억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3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49개 지역 중소기업에게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표 II-3-1-23 | 연도별 전략협력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지원	과제수	490	669	'17년 연구마을, 산연전용과제 전략협력으로 편입
	금 액	443	594	

④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의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입되어 중소기업의 장비부족문제를 적시 지원하고 있다.

표 II-3-1-24 | 연도별 연구장비공동활용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지원	참여기업	1,459	1,374	1,231	1,649	1,743	'17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으로 편입
	금 액	165	165	187	153	106	

8)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

2002년부터 기술개발 단계부터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요처 특성에 따라 국내수요처과제(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 해외수요처과제(외국정부, 해외기업 등) 및 민·관공동투자과제(R&D투자협약기업)으로 구분되며, 국내·해외수요처과제는 2년 이내, 5억 원 한도, 민·관공동투자과제는 2년 이내, 10억 원 한도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표 II-3-1-25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최대2년, 5억원 이내	65%(정부지자체) 66%(기업, 공공기관)	지정공모 /자유응모
민관공동투자	최대 2년, 10억원 이내(투자금 포함)	37.5% 이내	

국방 분야 13개 과제를 시범사업으로 2002년 시작한 동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제5조, 제8조에 의거하여 추진되었다.

표 II-3-1-26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 (2002년) 중기청-국방부간 「국방기술개발협약」 체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범실시
- (2005년) 사업영역(수요처)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대기업 7개사 참여)
- (200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내에 '민·관 R&D 협력펀드 과제'를 신설
- (2009년) 해외 우수기업 및 바이어 등을 수요처로 한 해외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
- (2011년) '민·관R&D 협력펀드 과제'를 확대 개편하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신설
- (2014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수요처는 총 985개에 이르며, 그간 총 1조 2,241억 원을 투자하여 총 4,913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R&D 평균 사업화율(51.6%) 및 과제 매출액(9.5)에 비해 높은 동 사업의 사업화율(62.8%) 및 과제 매출액(18) 수치는, 동 사업이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를 넘어 중소기업의 매출발생이라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3-1-27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억원)	1,336	1,386	1,420	1,436	1,438
지원과제수(개)	540	510	565	560	385

성과조사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화성공률(%)	86.1	77.0	81.6	79.0	79.4
매출액(과제당, 억원)	8.4	6.7	26.9	21.2	18

② 민·관 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확대

2008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관공동R&D 투자협약 과제'를 신설한 이후, 그 재원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내수경기 침체,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총 8개사(신규참여 5개사,

추가조성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까지 총 70개 투자기업과 6,462억 원을 조성하였고, 총 883개 과제에 4,248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I-3-1-28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조성기업(개)	16	22	38	53	57	62	65	70
조성금액(억원)	3,930	4,380	5,508	6,314	6,814	6,004.40	6,285	6,461.8
정부	2,120	2,350.3	2,936.2	3,374	3,656.40	3,292.60	3,455	3,524.4
투자기업	1,810	2,029.7	2,571.8	2,940	3,157.60	2,711.80	2,830	2,937.4
대 기 업	1,534	1,584	1,873	1,888	1,888	1,135.20	1,101	1,290.3
중견기업	76	115.7	303.8	521	678.6	845.6	933	801.1
공공기관	200	330	395	531	591	731	796	846.0

표 II-3-1-29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업체(2018년)

구 분	협력펀드	투자기업명
민 간 (52)	4,770억원	경창산업, 국제종합기계, 네이버,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대상, 대우조선해양, 동양물산기업, 디아이씨, 렉스코, 롯데마트, 루멘스, 르노삼성자동차, 미래나노텍,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성림첨단산업, 세하, 아이즈비전, 아진산업, 에스에너지, SFA반도체, SK텔레콤, LS엠트론, 엠씨넥스, 오텍캐리어, 용산, 웅진에너지, 이레에이엠에스, 이엘케이, 인성정보,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앤지,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톱텍, 파워로직스,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필옵틱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백종합건설, 한솔테크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휴맥스
공 공 (18)	1,692억원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요처에 대한 구매실적 관리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상용화율을 제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및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술개발환경의 대형화·복합화·고비용화 및 기술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단독 R&D 수행이 가지는 부담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으로 혁신역량의 상호 보완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 폐쇄형 기술개발에 치우치고 있어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R&D를 통한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R&D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의 기획지원 단계에서는 공동개발기관 매칭, 사업화 전략수립, 상호협력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협력체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을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하여 네트워크 협력체가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33개 과제에 대해서 기획지원을 지원하였고 24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1-30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획 지원	최대 6개월, 3천만원	100%	전략적 자유응모
R&BD 지원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동 사업은 기술개발의 전주기(기획-기술개발-사업화)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유망 과제 발굴 및 지원방식의 다각화로 개방형 산·산 협력 R&D 환경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④ 기술전문기업(K-ESP) 협력기술개발

2017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여, 기술개발을 글로벌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전문기업과의 협력R&D를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정부의 연구개발전문기업 육성계획(2016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따라 수립되었고, 중소기업의 R&D 취약분야 및 사업화성과제고를 위해 R&D 단계별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시장중심 협력R&D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7년에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설계해석, 디자인 등 6개 서비스 분야 별 기술전문기업 106개사를 선정하였고, 총 106.5억 원을 투자하여 138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I-3-1-31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ESP	최대 1년, 1억원 이내	65%	전략적 자유응모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량 있는 기술전문기업 추가 확보를 통한 R&D성과제고를 위해 2018년 60개의 기술전문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협력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3-1-32 | 2017년 기술전문기업 선정 및 기술개발 지원현황

(단위 : 개사, 건)

기술전문기업 선정	설계·해석	시험·분석	디자인	연구개발	임상시험	시제품제작	전 체
2017	11	13	37	38	1	6	106
2018	2	4	22	13	4	15	60
계	13 (7.8)	17 (10.3)	59 (35.5)	51 (30.7)	5 (3.0)	21 (12.7)	166 (100.0)

구분	설계·해석	시험·분석	디자인	연구개발	임상시험	시제품제작	전 체
계속	8	12	14	21	-	7	62
신규	10	6	21	31	2	6	76
계	18 (13)	18 (13)	35 (25.4)	52 (37.7)	2 (1.4)	13 (9.4)	138 (100.0)

3

스마트공장 확산

▪ 기술정책과 김 준 영

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크게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자금으로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사업과, 정부예산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한 정부주도 사업으로 나뉜다.

'18년부터는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확대되었으며, 정부 지원 기업수도 '17년도 1,678개 지원에서 '18년도 2,221개 지원으로 32%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3-1-33 |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민간	133	304	546	525	679	2,187
정부	144	659	1,014	1,678	2,221	5,716
합계	277	963	1,560	2,203	2,900	7,903

나.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민간주도의 대표적인 사업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으로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4개 대기업에서 총 121억 원을 출연하여 597개(민간사업의 88%, 전체 보급수의 약 21%)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기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14개 기관의 스마트공장 상생협약('19.7월)을 통해 약 210억 원의 대기업 출연금을 확보하여 민간 주도 스마트공장 보급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다.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부주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02년부터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14년~)과 지역특화 산업육성('15년~)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였다.('17.7)

'18년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2,127개,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94개를 지원하여 정부에서 총 2,221개를 보급하였다.

표 II-3-1-34 |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개)	-	308	649	1,218	2,127
생산현장디지털화(개)	144	137	147	193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개)	-	37	58	46	94

*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은 '18년부터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통합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신규구축과 고도화로 구분되며, 신규구축은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사업은 기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은 현장 자동화(센서, 컨트롤러 등),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 제조현장운영시스템), 제품개발(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수요예측, 생산계획수립 등), 기업자원 관리(ERP) 등으로 구분된다.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신규 구축은 최대 1억 원, 고도화 과제는 최대 1.5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운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지도·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은 30.0% 향상되었고, 불량률은 43.5% 감소, 원가는 15.9% 절감, 납기는 15.5% 단축되었다.

표 II-3-1-35 |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5,003개, '18년 기준)

(단위 : %)

지 표	생산성	불량률	원가	납기	매출	고용
성 과	30.0% ↑	43.5% ↓	15.9% ↓	15.5% ↑	7.7% ↑	3명 ↑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매출이 7.7% 증가하면서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하여 제조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산업재해율도 18.3%가 감소하는 등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엑스포(코엑스)



'18년도 우수사례(삼천산업)



스마트공장 상생협약

4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기술정책과 조 영 삼
- 기술정책과 김 연 학
- 기술정책과 최 한 식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확대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2018년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규모는 약 3.1조원으로 정부 전체 R&D예산 19.8조원의 약 15.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2018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1%로, 전체 정부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 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약 15.6%이다.

표 II-3-1-36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정부R&D 예산(a)	168,777	177,358	188,747	190,044	193,927	197,759	3.2	
중소벤처기업부R&D 예산(b)	8,037	8,185	8,717	8,532	9,259	9,786	4.0	
KOSBIR (중기부외)	정부기관(c)	17,178	17,266	19,248	20,386	21,737	20,996	4.1
	공공기관	104	111	119	317	361	388	30.1
	소계	17,282	17,377	19,367	20,703	22,097	21,384	4.4
정부기관 합계(d=b+c)	25,215	25,451	27,965	28,918	30,996	30,782	4.1	
비중(d/a)	14.9	14.4	14.8	15.2	15.98	15.57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은 2013년 8,037억 원에서 2018년 9,786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정부 중소기업 R&D지원 증가율 4.1%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3-1-37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R&D기획역량혁신	55	55	55	55	106	1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448	2,470	2,620	2,260	2,394	2,269
창업성장기술개발	1,314	1,414	1,624	1,888	1,976	2,800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316	1,336	1,586	1,420	1,561	1,702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			200			
공정품질기술개발	415	300	312	377	360	444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831	840	685	906	506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184	165	165	187		
산학연공동기술개발	247	1,458	1,520	1,382	1,308	1,395
산학연기업부설연구소설치	159					
첫걸음 기술개발	390					
도약 기술개발	593					
시장창출형기술개발		41	60	57		
기술개발인력 활용	85	105	90			
제품서비스기술개발					58	83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 지원					701	653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9	38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250	294
합 계	8,037	8,185	8,717	8,532	9,259	9,786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 및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함)¹⁴⁾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14) KOSBIR 시행기관 : (정부부처 1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안전부, 특허청, (공공기관 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가 2013년 1조 7,282억 원에서 2018년도에는 2조 1,384억 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연 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 1,371억 원을 지원하여 전체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예산의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86억 원(15.8%), 방위사업청 1,734억 원(8.1%), 국토교통부 1,297억 원(6.1%)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R&D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3-1-38 | 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행기관 R&D예산(a)	146,015	149,308	158,879	168,538	172,129	171,452
중기 지원(b)	17,282	17,377	19,367	20,703	22,097	21,384
지원 비율(b/a)	11.8	11.6	12.2	12.3	12.8	12.5

표 II-3-1-39 | KOSBIR 시행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10	1,429	2,769	2,944	3,378	3,386
산업통상자원부	11,724	11,612	11,618	12,076	11,984	11,371
방위사업청	1,284	1,217	1,320	1,383	2,253	1,734
국토교통부	923	1,056	1,249	1,222	1,305	1,297
환경부	478	530	747	811	728	856
농림축산식품부	401	481	459	529	614	689
보건복지부	236	297	323	363	401	488
문화체육관광부	217	271	342	356	328	334
해양수산부	122	155	176	213	237	277
농촌진흥청	158	161	177	181	196	227
기상청	20	46	54	61	48	49
산림청	5	9.9	12	19	24	38
문화재청	0.4	1.1	3	-	-	
행정안전부	-	-	-	119	111	102
특허청	-	-	-	109	130	147
한국전력공사	28	31	33	180	218	237
한국가스공사	25	31	34	20	32	34

기 관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도로공사	27	28	19	19	18	20
한국토지주택공사	7	8.1	13	16	-	-
한국수자원공사	6	6.5	8	7	8	10
한국철도공사	12	6.9	12	-	-	-
한국수력원자력	-	-	-	73	75	77
한국전력기술	-	-	-	2	6	8
한전KPS	-	-	-	-	3	3
합 계	17,282	17,377	19,367	20,703	22,097	21,384

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9년 녹색기술·첨단융합·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를 수립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중장기적 기간 설정, 산·학·연 혁신주체 포괄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기술전략은 중소기업 지원 시 해당 분야를 직접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있었으며, 중소기업들도 거시적 로드맵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 운영방향을 직접적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정부의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0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은 국가 전반의 산업전략과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 발표되었던 정부 중점 육성분야와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제조기반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존 문헌 및 시장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유망 기술을 좁혀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으로 구분하여 전략기술을 검토하였고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II-3-1-40 |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경과

- (2010년) 녹색, 융합, 제조기반의 3대 분야로부터 풍력, 수소연료 전지 등 26개 전략분야를 도출하고 112개 전략제품, 1,050개 핵심기술로 구체화
- (2011년) 전년도 로드맵 업데이트를 통해 17개 전략분야, 138개 전략제품, 1,090개 핵심기술 지정하고 각 단계마다 무역현황 등의 분석지표를 추가
- (2012년) 녹색분야 재정의, 서비스분야 신설 등을 추진하고 16개 전략분야, 133개 전략제품, 1,005개 핵심기술을 지정
- (2013년) 수송기계, 안전보안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181개 전략제품, 1,404개 핵심기술을 도출
- (201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smroadmap.smtech.go.kr) 구축을 통해 접근성 향상. 우주항공 분야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215개 전략제품, 1,720개 핵심기술 도출
- (2015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ICT융합 분야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 1,847개 핵심기술 도출
- (2016년) 기존 20대 전략분야를 신성장동력 40대 분야로 확대·재편. R&D사업과의 연계성 강화하였고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266개 전략제품, 1,569개 핵심기술 도출
-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으로 재편하여 236개 전략제품, 1,671개 핵심기술 도출
- (2018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분야별 산업별 구조분석을 강화하였고, 블록체인, 핀테크 등 신성장분야 추가하여 224개 전략제품, 1,610개 핵심기술 도출

기술로드맵은 단순히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R&D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표 II-3-1-41 | 기술로드맵 전략기술 도출현황

구분		전략 기술
4차 산업혁명 (20개)	디지털 역량 강화	①AI ②빅데이터 ③클라우드 ④사물인터넷 ⑤5G ⑥AR/VR
	ICT 제조업 융합	⑦3D프린팅 ⑧지능형반도체 ⑨스마트공장 ⑩지능형로봇 ⑪자율주행차
	신시장 창출	⑫블록체인 ⑬첨단소재 ⑭스마트헬스케어 ⑮스마트팜·O2O·신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핀테크·드론
중소기업 성장기반 (10개)		①일반기계 ②정밀기계 ③전자부품 ④홈어플라이언스 ⑤조선 ⑥유기화학 ⑦무기화학 ⑧금속 ⑨섬유·의류 ⑩식품

창업성장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대해 기술로드맵 전략기술을 지원하는 전용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를 해나갈 계획이다

다. 뿌리중소기업 육성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사업으로 자동차, 로봇, 드론, IT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의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구현하는 초정밀·고도공정이자,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이다.

뿌리기술은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되고 전수되기에, 개도국이 단기간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역역이며,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해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프리미엄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되고 전수되기에, 개도국이 단기간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역역이며,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해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프리미엄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근로환경 개선(공정 자동화, 안전, 친환경,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한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표 II-3-1-42 | 6대 뿌리산업 종사자 규모별 현황

구 분	업체 (개)	비중(%)
1~9인	14,355	57.29
10~19인	4,051	16.17
20~49인	4,273	17.05
50~199인	2,175	8.68
200~299인	125	0.50
300인 이상	77	0.31
합 계	25,056	100

자료 : 2018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정부는 2010년 제 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발표와 2011년 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뿌리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13~'17)'을 통해 뿌리기업의 기술 및 공정개선, 인력 수급, 시설지원 등 수요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을 수행하였다면,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18~'22)'은 뿌리기술의 고부가가치화, 공정혁신(스마트화, 친환경화), 일자리 생태계 구축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2년 12월 지정요건 및 요령 등을 고시하여 우수 뿌리기업 발굴하고 중점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뿌리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평가요건을 3부문(기술, 경영, 품질수준)에서 2부문(기술수준, 경영역량)으로 개편하여 2018년까지 총 775개사를 지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문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2013년 시작).

* 뿌리기술(6분야) 중 기술/경제적 가치,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뿌리기술로 산업부에서 지정고시한 286개 세부 기술 : 주조(49), 금형(47), 소성가공(49), 용접(50), 표면처리(51), 열처리(40)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등 사례중심의 맞춤형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업 육성 자문회의를 마련할 예정이다.

표 II-3-1-43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 산(백만원)	300	400	396	396	412	760	413	396
지 정 수(개사)	-	-	29	114	195	158	135	144

표 II-3-1-44 |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주 조	금 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 접	전 체
2013	9	5	2	3	6	4	29
2014	21	24	10	25	22	12	114
2015	22	43	14	32	47	37	195
2016	23	37	7	24	44	23	158
2017	21	18	39	24	27	6	135
2018	17	31	5	34	25	32	144
계	113	158	77	142	171	114	775

표 II-3-1-45 | 뿌리산업 지역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계
2013	1	3	6		4	6	1			3	5	29
2014	2	12	19	2	5	35	15	1	4	5	14	114
2015	2	24	20	17	11	65	15	2	5	8	26	195
2016	0	15	22	11	14	61	12	0	3	2	18	158
2017	1	7	24	8	15	47	11	0	3	2	17	135
2018	3	11	15	6	8	61	9	0	8	4	19	144
계	9	72	106	44	57	275	63	3	23	24	99	775

2)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뿌리기업 전문가 지원을 위해 일본의 모노즈쿠리 및 독일, 미국, 스위스 등 뿌리 선진기술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일본, 독일, 미국, 스위스 4개국에 303명을 대상으로 뿌리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은 ICT융합 과정을 신설 하여 394명, 2016년에는 423명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지원하였다.

2017년은 뿌리기업 맞춤형 코칭지원으로 64개사, 34개 학교를 지원하였고, 강한현장 육성사업으로 15회 현장지도를 통해 38개사 310명의 재직자를 지원하였다.

2018년은 뿌리기업 맞춤형 코칭지원으로 92개사, 31개 학교를 지원하였고, 강한현장 육성사업으로 282명의 재직자에게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개선을 위한 진단지도 및 사후관리는 50개사 지원하였다. 또한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코칭과 전문가 Pool 확대, 재직자 중심의 뿌리기술 교육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에 기반을 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산업인 뿌리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기술, 자금, 인력, 정보화, 품질혁신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뿌리기술 자동화·첨단화

3)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뿌리기업의 공정혁신을 통해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환경을 개선을 지원하는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사업을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개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화 사업(ICT 도입을 통해 공정제어, 통신, DB구축, 등 공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다.

국가 주요산업의 필수 기반인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뿌리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통해 145개사를 지원('18년 기준)하였다.

또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진행한 결과 불량률 개선(68.13%), 생산성 향상(172.18%), 작업시간 단축(51.78%) 등 대부분의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에는 뿌리기업 공정혁신 지원강화(16개사)와 기존에 수행한 우수한 자동화 설비 사례의 발굴을 통해 유사공정을 보유한 기업에 보급·확산(6개사)을 지원하였다.

표 II-3-1-46 | 2018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원현황

	구 분	주 조	금 형	소성가공	용 접	표면처리	열처리	전 체
2016	예 산(백만원)	751	468	808	660	842	471	4,000
	자동화	6	3	4	2	5	3	23
	스마트화	1	1	2	3	2	1	10
2017	예 산(백만원)	647	390	906	856	943	308	4,050
	자동화	6	4	10	10	10	4	44
2018	예 산(백만원)	350	180	512	346	247	120	1,755
	자동화	3	2	4	3	2	2	16
	보급·확산	1	0	3	1	1	0	6

표 II-3-1-47 | 2018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원성과

구 분	주 조	금 형	소성가공	용 접	표면처리	열처리	평 균
불량률 개선(%)	53.58	35.00	68.98	69.01	87.68	94.50	68.13
생산성 향상(%)	74.03	66.88	212.66	60.00	15.33	604.17	172.18
작업시간 단축(%)	33.88	76.62	63.19	35.35	26.77	74.89	51.7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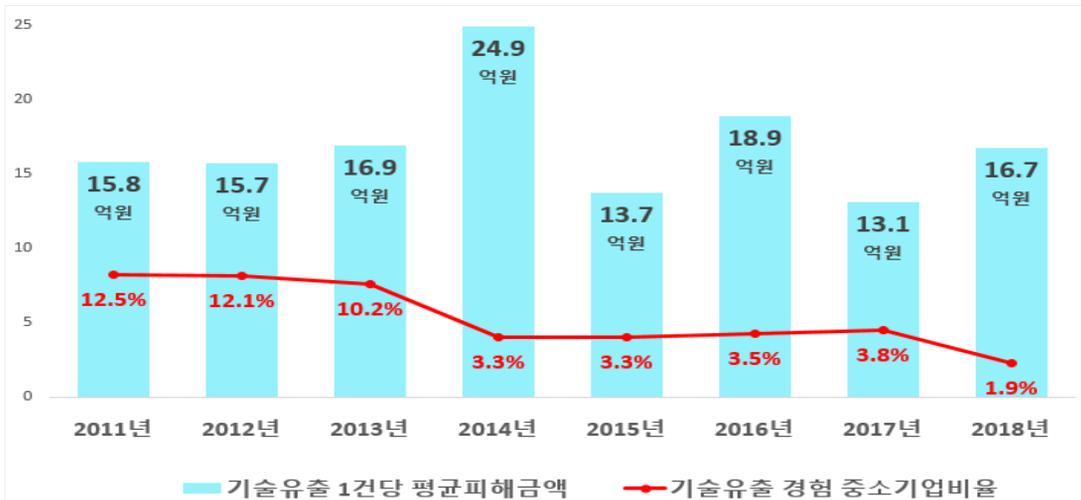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 기술보호과 백 원 현
- 기술보호과 김 기 현
- 기술보호과 김 혜 규
- 기술정책과 허 일 록

가. 中소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15~'17년)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9%가 기술유출을 경험한 바 있으며, 기술유출 1건당 피해액은 약 16.7억 원으로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감소한 반면, 피해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중소벤처기업부, 2018)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4년 11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추진, 기술보호 기반 확충,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설치·운영 등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4.12.22),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등 관련 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고자 법 시행과 동시에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간 업무협력 MOU를 체결('14.12.18)하여 기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소관 정책 정보를 직접 등록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처별(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개소('16.1.28)하여 산업기술유출, 특허침해, 기술유용·유출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중소기업 자체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보호 종합대책('16.4)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고 대응 핫라인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제보 접수기능을 부가하여 체계를 강화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정협의('17.12, '18.2)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2.12)'을 마련·발표하였으며 대책 후속 이행과제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18.6)과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18.5)' 발족, 기술탈취 근절 TF 운영('18.5)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현장작동 가능한 예방수단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18.6.12)하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시행일('18.12.13)부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가능토록 하였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수단으로 기술보호 진단·자문 및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24시 보안관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CEO·임직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1) 기술보호 진단·자문

기술유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대응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3일간 사전 진단 및 보안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발견되거나 기술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최대 7일까지 심화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2) 기술자료 임치

분쟁발생 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하고 거래기업 간에는 안정적인 기술사용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임치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이다. 201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R&D 성과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임치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 중이며, 2018년 5월부터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치수수료의 1/3을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임치한 핵심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을 위해 2015년부터 임치기술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여 임치기술 144건에 대하여, 총 31,685백만 원('15~'18년)의 대출을 지원하였다.

3) 기술지킴서비스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사이버 침해 등 온라인을 통한 중요기술 유출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무료 보안관제를 제공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의 보안 환경에 적합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4)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 운영

조정·중재제도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기술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1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휘하며,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18년 한해 동안 19건의 신청을 받아 3건의 조정 성립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5)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대전 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18.6.11)하여 전문가 Pool을 구축하였다.

법무팀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법률자문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통해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6) 기술보호지원반

기술탈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책임관과 보안·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발족('18.5.10)하여 전국적인 기술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원반은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현장을 찾아가 설명도 진행하고 있다. 분쟁이나 유출 사건 발생 시에는 지원반이 기업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사건처리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3-1-48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18.12월말 기준)

(단위 : 개사,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술보호 진단·자문	-	43	387	206	517	898	1,000	617	737	801	821
기술자료임치	26	120	307	618	2,706	5,685	7,161	8,562	9,467	9,216	9,522
지킴서비스	-	-	-	253	268	498	1,528	2,467	1,076	919	1,056
보안시스템 구축	26	27	-	-	-	27	27	43	44	34	46

2019년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부를 비롯한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나.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매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76개국 중 2위(아이슬란드 1위, 미국 16위, 일본 10위)를 기록하였고,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에서는 2016년 조사대상 139개국 중 13위(싱가포르 1위, 미국 5위, 일본 10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IT 인프라의 보급 및 구축 수준에 비해 IT 활용 및 이를 통한 효과나 성과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대한 접근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잘 갖춰진 IT 인프라를 경제발전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조사를 실시해 왔다.

2018년에는 총 4,300개 기업(중소기업 3,700개, 대기업 300개, 지원기업 3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은 67.15점(100점 만점)으로 대기업(75.48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분야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공통적으로 '전략수립'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추진환경' 및 '구축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49 | 중소기업 분야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2018년)

구 분	정보화수준	전략수립	추진환경	구축활용
대 기 업	75.48 (기업간협력)	88.42	69.14	67.09
중소기업	67.15 (기업간협력)	80.33	61.78	59.01

* 정보화 발전단계 : 정보화도입 → 단위정보화 → 기업내통합 → 기업간협력 → 전략적혁신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표 II-3-1-50 | 연도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 기 업	69.1	71.08	72.78	72.92	75.48
중소기업	53.21	55.95	59.97	61.05	67.15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1년부터 경영·생산 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은 특정 업종이나 단체별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과 간편한 경영관리 솔루션을 발굴·개발하여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초기 정보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정보화비용 감축 효과 달성은 물론, 시공간에 자유로운 접근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2018년 12월 말 기준 17,942개사가 대·중소기업간 정보화격차 해소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42개의 기 구축된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으며, 14개 솔루션을 추가 선정·개발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 대기업과의 정보화 격차를 줄여 나가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정보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3-1-51 |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명,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영혁신플랫폼구축(건)	-	-	-	-	7	14	7	4	9	14



경영혁신플랫폼



기술지킴센터

제2절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 기업금융과 정진관
- 기업금융과 윤성웅

2018년 국내 금융시장은 남북정상회담, 네 차례에 걸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3월, 6월, 9월, 12월) 및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변수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세계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국면을 보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을 통해 한미 간 금리격차 완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였다.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자동차, 조선업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영업 강화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17년에 비해 39.7조원이 증가한 693.2조원이다.

다만, 회사채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시장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17년 대비 직접금융 조달실적이 부진하였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초 대비 8월까지 하락추세에 있었으나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II-3-2-1 |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대출금리(한국은행, 2018년)

(단위 : 조원, %)

지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출 잔액	중소 기업	657.4	662.3	666.2	668.8	672.4	673.9	677.5	683.4	689.0	693.0	697.6	693.2
	대기업	163.9	162.8	162.7	166.2	167.6	165.0	166.9	167.4	166.4	169.0	169.6	167.8
대출 금리	중소 기업	3.92	3.92	3.86	3.85	3.88	3.85	3.86	3.83	3.88	3.84	3.87	3.98
	대기업	3.33	3.31	3.30	3.31	3.31	3.30	3.27	3.25	3.21	3.42	3.42	3.50

한편, 2018년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전체기업 자금조달의 6.87% 수준인 30,640억 원으로 다소 부진하였다.

* 중소기업 직접금융조달 추이(억원,%) : (2013년) 8,212(1.8), (2014년) 15,808(3.3), (2015년) 25,660(5.2), (2016년) 34,046(9.83), (2017년) 32,135(7.54), (2018년) 30,640(6.87)

표 II-3-2-2 | 2018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금융감독원)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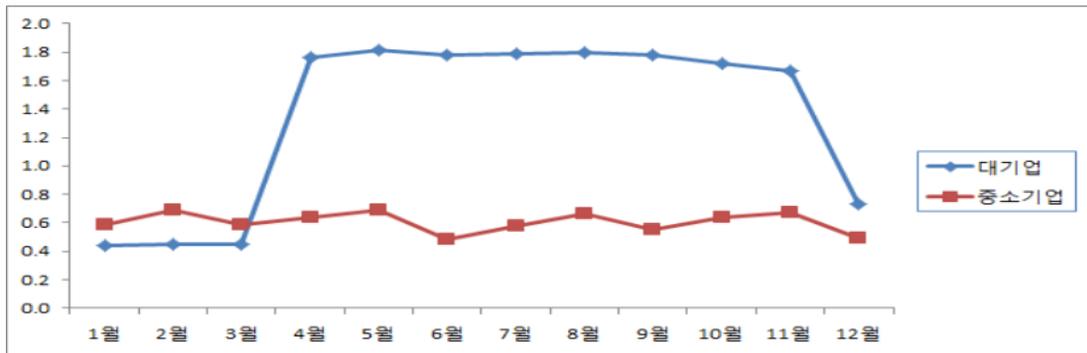
중소기업				대기업			
계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	계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
30,640 (100)	17,463 (57.0)	11,877 (38.8)	1,300 (4.2)	414,909 (100)	5,686 (1.4)	53,933 (13.0)	355,290 (85.6)

중소기업의 대출연체율은 정책금융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연중 큰 폭의 변동이 없었으며, 연말에는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적 상환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부도업체 수는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2018년은 자동차, 조선업 등 산업구조조정이 있었으나 3월 이후 다소 안정적인 추세이다.

표 II-3-2-3 | 2018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금융감독원)

(단위 : %)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표 II-3-2-4 | 2018 신설법인 및 부도업체수(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개수)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설법인	10,041	7,480	9,226	8,926	8,406	8,711	8,918	8,727	6,416	8,473	8,474	8,244
부도업체수	29	28	42	26	30	34	24	17	31	28	35	26

2018년 중소기업 자금사정 실적지수는 지역산업 구조조정, 내수경기 부진 및 미·중무역전쟁 등 대내외의 경기부진 요인에 따라 2017년보다 하락세로 출발한 후 4월 까지 소폭 상승하였다. 5월 이후에는 경기위축, 대외변수 등 불확실성 증가로 연말 까지 변동성을 보였다.

표 II-3-2-5 | 2018 중소기업 경기 및 자금사정 실적지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지 표	'17.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업경기 실적지수	83.7	78.5	75.2	84.5	86.8	86.3	85.5	80.9	79.0	81.9	82.1	82.8	81.3
자금사정 실적지수	79.9	76.2	74.6	78.0	80.3	79.7	79.9	76.9	76.2	77.5	77.4	77.9	77.6

2

정책자금 지원

▪ 기업금융과 윤성웅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의 및 운영 현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발굴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자금이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소기업, 경영 애로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2018년 자동차·조선 산업 구조조정, 고용률 하락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당초 예산 37,350억 원 대비 추경 6,800억 원(18.2%↑)을 증액하여 44,150억 원*을 편성·지원하였으며, 특히 GM군산공장 폐쇄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위주로 지원되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다.

* 당초 예산 37,350억원, 증액 6,300억원, 총 44,150억원 집행

표 II-3-2-6 |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창업기업지원	13,400	15,000	17,500	20,500	20,460
투융자복합금융	1,500	1,000	1,500	1,500	1,700
신시장진출지원	3,500	3,500	3,500	5,750	5,900
신성장기반	8,650	11,270	13,950	12,300	10,800
재도약지원	1,700	2,120	2,550	2,550	2,790
긴급경영안정	1,546	6,000	6,100	3,750	2,500
소상공인	10,304	-	-	-	-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	-	-	-
소상공인(이차보전)	3,881	-	-	-	-
합 계	44,481	38,890	45,100	46,350	44,150

* 소상공인자금은 '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이관

나. 2018년 정책자금 운용성과

1) 수요자 중심 정책자금 지원제도 운영

2018년도 저성장 기조,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되었다.

채무부담 해소로 실패기업인에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혁신창업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규 용자에 대한 법인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총 8,589건(13,088억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에 앞서 전액 상환할 경우 일정기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기상환 패널티'를 폐지하여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환 환경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청년 창업(5천만 원 이하) 등 취약기업의 대출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과 기업자율상환방식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도'를 시범 도입하였다.

2)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미래 신사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였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ICT 융합기반산업 등 「미래신성장분야」(중진공, KDB 등 정책기관 공동선정)를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1.9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생산현장이 고도화 될 수 있도록 336개사에 코칭으로 맞춤형솔루션을 제공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신설하여 스마트공장 등에 3,300억 원을 지원하였다. 정책자금 지원에 더불어 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용 고도화를 위해 특화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83개사 기업의 3대 생산지표(공정 불량 등)를 3.44% 개선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총 예산의 약 50%인 2.2조원을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였고

정부 R&D 성공기술 상용화, 특허기술 담보대출 지원을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337억 원 지원하여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였다.

표 II-3-2-7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2018년)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용 자 조 건		
		용자한도	용자기간	지 원 기 준
창업기업지원	20,460	잔액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기준금리 Δ 0.3%p 업력7년미만, 예비창업자
투융자복합금융	1,700	이익공유:20억원 (운전 5억원) 성장공유:45억원 (운전 20억원)	5년 이내	금리 : 별도금리 적용 미래성장성이 큰 기업
신시장진출지원	5,90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기준금리(수출금융은 Δ 0.3%p)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수출사업화 추진 기업 등
신성장기반	10,800	잔액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기준금리+0.5%p 업력7년이상, 시설투자기업
재도약지원	2,790	잔액 45억원 (운전 연간 5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기준금리 사업전환 승인, 재창업 등
긴급경영안정	2,500	연간 10억원	5년 이내	금리 : 기준금리+1.05%p *재해기업 : 1.9% 고정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등

3)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정책목적성 제고

일자리 창출, 경영 위기 극복 지원,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등 민간 금융기관과의 차별화된 분야에서의 자금 지원으로 정책목적성을 제고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신속(Fast)·우선(First)·집중(Focus)의 3F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하이패스 트랙' 평가체계를 신설하여 3년 연속 고용증가 기업의 평가기간을 61.4%(10.8일) 단축하였다. 또한 고용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성과 배점을 10점 → 20점으로 확대 하였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3점의 가점 제도도 신설하였다.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특화자금으로 3천억 원 규모의 ‘청년고용기업지원 자금’을 신설하고 금리를 최대 0.8% 우대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였다.

조선·자동차 산업위기, 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고용위기 등의 상황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에 6,80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이 예산을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집중 배정하였으며 긴급경영안자금의 금리를 1.05%p 우대하고 상환연장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위기지역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18년도 1,300억 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전환 성공률을 전년대비 4.3%p 증가한 69.8%로 향상시켰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전년대비 71.6% 증가한 386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중진공과 지자체, 사회적기업단체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사업장 구축지원(전남)’,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자금 및 내일채움공제 부담금 지원(대전세종)’ 등 12개의 지원모델이 만들어졌으며 총 173억 원을 지원하여 소외영역의 지속성장을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은 17년 2,467억 원의 매출액을 18년 4,350억 원으로 76.3%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상생협력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3

신용보증 공급

- 기업금융과 정진관
- 벤처혁신정책과 김성훈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위변제 등 신용보증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출연하고 있다.

가. 보증지원 규모 확대

신용보증 지원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되어 2005년 6월 ‘신용보증 제도 개편방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후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으나, 대외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위기상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 확대 기조를 지속하여 유지하게 되었다.

보증지원 규모는 2008년 44.3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에 64.1조원으로 대폭 확대(19.8조원 증가)하였고, 그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2018년에는 2008년보다 28.6조원 증가한 72.9조원으로 확대하였다.

보증기관별로는 2018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 2008년보다 18.8조원이 확대된 50.5조원을, 기술보증기금이 2008년보다 9.8조원이 확대된 22.4조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표 II-3-2-8 | 연도별·기관별 보증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08년 (A)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B)	
								증감 (B-A)	
보증규모(잔액기준)	44.3	63.6	67.2	68.6	69.9	70.7	72.7	72.9	28.6 (64.6%)
신용보증기금	31.7	45.4	47.4	48.5	49.2	49.5	50.8	50.5	18.8 (59.3%)
기술보증기금	12.6	18.2	19.7	20.2	20.7	21.2	21.9	22.4	9.8 (77.8%)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8년 2,500억 원을 출연했던 정부는 2009년 본예산에서 전년대비 8,500억 원 증액한 1조 1,000억 원을 출연했고, 다시 추경을 통해 1조 6,000억 원이 증액된 2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고율을 유지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협약 출연금 증가 등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 출연 없이도 안정적인 운용배수를 유지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신·기보 설립 이래 최초로 여유재원 중 5,000억 원(신보 3,500억 원, 기보 1,500억 원)을 정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

표 II-3-2-9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10년~ 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본예산	추경	계								
합 계	11,000	16,000	27,000	0	45,000	1,300	1,500	1,700	2,900	2,349	2,017
신용보증기금	9,000	10,800	19,800	0	43,500	700	1,000	1,300	2,100	1,841	1,417
기술보증기금	2,000	5,200	7,200	0	1,500	600	500	400	800	508	600

2018년에는 본예산 400억 원과 추경을 통해 66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01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II-3-2-10 | 연도별 보증 사고율 등 추이

(단위 : %, 억원, 배)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증 사고율	신용보증기금	4.0	4.0	3.9	3.5	3.6
	기술보증기금	4.5	4.2	4.5	4.4	4.5
기본재산	신용보증기금	43,903	42,182	42,871	43,852	43,115
	기술보증기금	21,566	21,052	20,207	18,397	15,579
운용배수	신용보증기금	9.2	9.4	9.8	10.1	10.6
	기술보증기금	8.9	9.4	10.2	11.6	14.1

다음으로 보증지원 규모 확대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기 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재정 투입규모 대비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보증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짧은 기간에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므로 재정투입 효과성이 용자나 직접 대출보다 매우 높은 편

보증기관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11.5배 수준의 안정적인 보증운용배수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짧은 기간에 대폭 확대된 보증규모는 경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나.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2018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점지원분야에 2008년 대비 약 400% 증가한 68.3조원을 지원하였다.

표 II-3-2-11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점분야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08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6.9	60.8	53.8	67.3	68.3
창업 + 기술창업	11.6	23.3	21.5	26.2	27.4
수출기업	5.3	13.3	14.1	14.2	14.6
신성장동력산업	-	16.1	14.3	17.0	15.5
고용창출기업	-	8.1	6.9	9.9	10.8

이를 통해 혁신창업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일자리창출 및 미래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2018 신용보증기금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식

사회적경제 박람회

2018 기술보증기금
대학기술 사업화지원 업무협약

4

매출채권보험 운용

▪ 기업금융과 정진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보험 인수를 통해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어음보험제도의 도입(1997년) 이후 보험대상을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취급하기 시작(2004년)하였으며, 매년 보험인수 규모를 지속적으로 2018년까지 총 145조 5,737억 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하였다.

표 II-3-2-12 | 매출채권보험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수총액	152,084	162,764	179,873	196,977	201,605
보험금지급	454	561	732	574	786
정부출연	1,022	685	1,198	1,200	-
기본재산	3,317	3,521	4,120	4,943	4,480
운용배수	10.1	10.4	9.7	8.6	10.5

보험업무 개시 이후 2018년까지 총 8,01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정부는 보험인수 재원으로 2018년까지 총 1조 1,118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다.

2019년에는 20조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인수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매출채권보험 영업 채널 확대 노력

2018년에는 우리은행과 협약보험을 체결하여 매출채권보험 공동마케팅 실시 및 동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대출금리 인하, 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온라인 간편 보험을 도입하여 자료준비, 영업점방문 등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One-Stop 자동심사로 가입 소요시간 단축과 직원의 근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다. 매출채권보험 제도개선 추진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요구사항(가입대상 완화, 보험한도 확대 등)을 제도에 반영하였고, 보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설명 동영상, 만화 약관을 제작하여 보험가입의 문턱을 완화하였다.

한편,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공보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성장群(사회적경제 기업, 영세소기업), 혁신성장群(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신설하여 인수실적이 전년대비 각각 21.5%, 20.9%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보험의 금융연계 기능을 추가한 매출채권담보보험(B2B Plus+보험)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고객 수요에 맞춘 다양한 온라인 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고객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협약 보험



온라인 간편 보험 출시



만화로 된 보험 약관 제작

제3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 판로지원과 신 규 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2006년)된 이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94.0조원이고, 구매율(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은 76.2%로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표 II-3-3-1 |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구매실적(조원)	66.9	67.7	72.0	78.8	78	85.5	86.1	92.2	94.0
구매율(%)	64.1	67.8	67.7	69.7	70.0	71.7	73.7	74.8	76.2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인 구매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자,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2016년부터 도입된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물품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4.53조원으로 전년도('17년, 4.52조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구매율은 법정기준보다 여전히 높은 13.7%를 기록하였다.

표 II-3-3-2 |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구매실적(조원)	1.37	1.68	2.11	2.54	2.62	3.11	3.70	4.52	4.53
구매율(%)	7.5	8.4	9.2	9.1	9.4	10.2	11.9	13.7	13.7

2018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10.58조원으로 전년대비 6.8%(약 0.67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총 구매액의 8.6% 수준으로 법정기준(물품·용역 5%, 공사 3%)을 초과 달성(물품 8.8%, 용역 9.3%, 공사 8.1%)하였다.

표 II-3-3-3 |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구매실적(조원)	2.36	2.60	3.41	4.48	5.49	7.14	8.34	9.91	10.58
구매율(%)	2.3	3.2	4.0	4.6	4.9	6.0	7.1	8.0	8.6

또한 2018년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1.77조원으로 전년대비 14.9%(2천3백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총 구매액의 1.2% 수준으로 법정 구매율(1%)을 초과 달성하였다.

표 II-3-3-4 | 연도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구매실적(조원)	0.21	0.27	0.34	0.68	0.80	1.09	1.32	1.54	1.77
구매율(%)	0.2	0.27	0.3	0.6	0.7	0.9	1.1	1.2	1.4

2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국내 판로 촉진

- 판로지원과 신 규 호
- 판로지원과 강 기 삼
- 판로지원과 영 정 수
- 판로지원과 최 병 진
- 판로지원과 전 상 용
- 판로지원과 이 상 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¹⁵⁾’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현행 체계와 같은 공공구매제도는 단체수의계약제도¹⁶⁾가 폐지 결정된 2006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이 도입되었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제품(물품·용역)에 대해서도 소액입찰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그 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표 II-3-3-5 | 공공구매제도 도입 경과

시행시기	내 용
2007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008년	- 직접생산 확인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협동조합(적격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참여 허용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규정

16)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부장이 지정한 물품(공사 포함)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 단체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1965년 도입하여 2006년까지 시행

시행시기	내 용
2009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도(2.1억원 미만의 非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위장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2013년	- 소기업간 우선조달계약 제도(1억원 미만의 非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대상에 지방공기업을 추가
2014년	-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한 입찰절차 일시중지 명령제도 도입 - 기술개발제품 종류 확대(9종→13종)
2016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달성 의무화(중소기업물품의 10% 이상) - 위장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2017년	- 민간보조사업자(국고보조금 100억원 수령기관)의 중기제품 우선구매 권고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범위(종합공사 20억원→40억원 등) 조정
2018년	-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의 소기업 확인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제품, 여성·장애인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계획 및 직전 연도의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매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 및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부터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점검해왔으며, 2004년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¹⁷⁾」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일정 비율(50%) 이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토록 법제화하였다.

2005년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목표 비율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5%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2009년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목표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표 II-3-3-6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추진경과

시행시기	내 용
1996년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입실적 점검
2004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50%) 달성 의무 법제화
2005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5%) 권장

17) 「판로지원법」 제정('11.5) 이전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규정한 법률

시행시기	내 용
2009년	-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율 상향(5% → 10%)
2014년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물품·용역 5%, 공사 3%) 달성의무 법제화
2016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중기물품 구매액의 10%) 달성의무 법제화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1%) 달성 법제화(권고)
2018년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1%) 달성의무 법제화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1999년 69개 기관에서 2011년 282개 기관, 201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495개 기관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되어 740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2018년에는 지방의료원 등이 추가되어 관리 대상 구매기관이 836개로 더욱 확대되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주요 지표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8년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94조원으로, 총 공공구매액(123.4조원)의 76.2%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3-3-7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

년 도	구 분	총 구 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 율(%)
2011년		998,494	677,272	67.8
2012년		1,063,598	719,860	67.7
2013년		1,130,013	787,956	69.7
2014년		1,115,489	780,290	70.0
2015년		1,192,070	854,858	71.7
2016년		1,169,332	861,358	73.7
2017년		1,234,078	922,492	74.8
2018년		1,234,134	939,943	76.2

2019년도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과 협의하여 총 구매 목표액 124.4조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93.8조원(75.4%),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는 4.56조원(14.0%)으로 설정하였다.

표 II-3-3-8 | 2019년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단위 : 억원, %)

연 도	총 구매액	중소기업 제품구매액	구매율	중소기업 물품구매액	기술개발 제품구매액	구매율
2019년	1,244,031	937,925	75.4	326,264	45,633	14.0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공공부문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 원을 위해 1995년 최초로 도입되고 2006년부터 의무화되었으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상이 되는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동 품목을 구매한 실적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에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존재하여야 한다. 경쟁제품은 3년에 한 번씩 지정되며, 현재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204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적용될 경쟁제품은 212개로서 2018년 12월말에 이를 고시하였다.

표 II-3-3-9 | 연도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

(단위 : 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개수(개)	207	207	204	204	204	212

한편, 2010년 이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 중 일부가 기업을 분할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 입찰에 편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 또는 기업 분할을 통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시행되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혜택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경쟁제품 지정 시 최근 2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을 유의품목으로 지정하고, 차기 경쟁제품 지정 시까지 독과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쟁제품에서 제외시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3-3-10 | 중기간 경쟁제품의 독과점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독점	과점	독점	과점	독점	과점
독과점 품목수(개)	26	44	34	52	35	51
합계(품목수, 중복 제외)	49		53		54	

* 독과점 기준(공정거래법) : 시장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40억원)이고 상위 1개사가 50% 이상(독점) 또는 상위 3개사가 75% 이상(과점) 시장을 점유한 상태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통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초래하여 적정이윤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2006년 중기간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일정한 가격을 보장(예정 가격의 88%)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며, 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7년에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범위를 개정하여(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

7년)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우수기업의 경우 신인도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조합참여 허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영세 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및 5천만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체결 허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2천만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통해 수의계약(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3-3-11 | 연도별 적격조합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적격조합	239	219	209	210	230	119	139	138

2009년 3월에는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상 금액 범위를 종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G2B(국가조달시스템)를 통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추천대상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2018년에 공공기관은 총 398건(102억 원)의 수의계약에 대해 협동조합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83.9%인 334건(83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대기업 혹은 수입 제품 등을 납품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1천만 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및 보훈·복지단체 등과 수의계약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로 주요 생산시설·공정, 최소 필요인력 등으로 확인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업이 이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다.

표 II-3-3-12 | 연도별 직접생산 확인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접생산확인	21,432	13,468	20,796	19,888	23,959	24,017	26,515	28,697

한편, 그동안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였던 직접생산확인 비용을 2018.4월부터 신청 기업에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확인신청을 줄이고 예산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초 신청 시에는 확인비용을 면제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서 단가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당하는 제조중소기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조건의 공사에 사용될 '공사용 자재 지정품목(18년 127개)'을 공급할 경우에는 직접 발주를 통해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공사업체에 관급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 국무총리 지시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발주 의무화'가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일괄발주 선호 경향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방식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40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3억 원 이상의 전문 공사·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관급자재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3-3-13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사용자재	119	123	123	123	127	127

그러나, 관리인력 부족, 행정비용 증가, 공사품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직접구매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에 따라, 2009년 11월에 「판로지원법」을 제정하면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재난관련 공사, 국가안보와 관련한 공사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구체화하였다.

사.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만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판로지원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도 그 추정가격이 일정금액¹⁸⁾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동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 등이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2.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르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원)

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기술제품에 대해 각종 인증을 부여하고, 이 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목표비율 지정을 통해 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1996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I-3-3-14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추진 경과

시행시기	내 용
1996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2006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법령에 상향 규정
2009년	민·관 공동투자 R&D, 녹색인증, 우수조달 공동상표 추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 개발선정품 추가
2015년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추가
2016년	적합성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추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은 조달우수물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NET제품, GS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성공제품의 6종이었으나, 2013년 6월에 민·관 공동투자 R&D(공공부문)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특허권자에 한함)을 추가하여 9종으로 늘었다. 2014년 2월에는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제품으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 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추가하여 13종으로 늘었으며, 2015년 5월에 ICT융합품질인증제품, 2016년 12월에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적합성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이 추가되어 16종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개발 제품 중 GS제품,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NET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구매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구매책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지표로 반영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는 지방공기업 정부권장정책 평가에도 추가로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규모는 2005년 6천억 원에서 2018년도 4.53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3-3-15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금액	1.68	2.11	2.54	2.62	3.11	3.70	4.52	4.53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성능에 대해 확인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앞에서 언급한 기술개발인증 가운데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II-3-3-16 | 성능인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성능인증	288	361	364	310	300	387	395	404

한편 성능보험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하고 있다. 성능보험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자체 교체 또는 수리가액을 보상하며 서울보증보험,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표 II-3-3-17 | 성능보험 계약 현황

(단위 : 건, 개,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약건	34	3	2	11	22	13	16	4
업체수	6	2	2	11	9	8	8	4
계약금액	2,366	912	32	2,767	25,769	13,130	12,220	235

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창업기업 초기 판로 개척을 위해 2018년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구매심의 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그간 공공기관은 감사 및 민원 부담으로 인해 기술개발 신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으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구매 의사결정 당사자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서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인 구매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신제품의 구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제도 도입 초기에 6개(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개에 불과하던 참여 공공기관의 수가 연말 기준 60개까지 늘어나면서 총 268억 원의 시범구매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촉진을 위해 올해 공공기관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시범구매율을 평가지표로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시범구매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차.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제품 납품 및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망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신용평가 등급 등 각종 정보와 기술개발제품 정보가 제공되며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와 공공구매 계획 및 실적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용인원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511천명에서 2017년에는 1,133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입찰정보 제공 건수도 2006년 51천 건에서 2017년 1,026천 건으로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 중소기업제품 납품 및 구매 업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자리를 잡았다.

표 II-3-3-18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자 현황

(단위 : 천명, 천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접속자수	3,464	3,718	4,228	3,408	1,772	1,133	1,123
신규입찰정보	607	637	909	919	982	1,031	1,061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온라인 처리,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카.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및 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업무 담당자를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관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계약의 적절성 검토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3-3-19 |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 중기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상담 등

공공구매지원 관리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위반한 입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권고이행 여부를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2009년도부터 모니터링, 시정권고,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11년 이후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률이 90%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98% 이상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3-3-20 | 연도별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건,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이행률(A=C/B×100, %)	91.5	91.3	92.2	97.4	99.1	98.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적발 건수(B,건)	2,475	2,213	1,480	1,182	673	40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시정 건수(C,건)	2,264	2,021	1,365	1,151	667	401

이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제도를 자주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연간 23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경영평가 등에 반영(감점)하여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공공구매 촉진대회



제도 순회설명회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 판로지원과 이 병 삼
- 판로지원과 김 호 진
- 판로지원과 임 소 현

중소기업 제조사의 유통시장 접근성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대기업의 시장 과점화 심화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간한 ‘2018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매비중은 90.3%로 내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형 유통 업체인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판매망 의존도가 아주 높은 실정이다.

한편,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28.5%로 생존능력이 취약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따라 신설법인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증가하고 있어 창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경우에는 54.3%로 그나마 나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장 큰 경영애로요인으로 ‘만드는 것’ 보다 ‘팔 곳’을 마련하는 것이 지적된다. 특히, 아이디어 창업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유통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소비자를 만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간 정부지원은 R&D·투자 자금 등 요소공급에 집중하여 기술력 우수제품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판로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성장에는 ‘아이디어 → 제품개발 → 사업화 → 판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견인형 시장조성 판로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진입이 활발하고, ‘사업화 → 판매 → 이윤창출 → 투자’로 이어지는 창의성이 보상받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현과 내수경기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선별하여 시장조사, 홍보, 공동상표 지원 등을 통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제품은 TV홈쇼핑 시장을 중심으로 “혁신제품 유통 플랫폼(아임스타즈)”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초기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가. 마케팅역량강화 지원사업

마케팅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시장성 및 소비자 반응, 제품 분석, 홍보 등 마케팅 전략 부재로, 창업초기 신기술 및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고도 초기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기 창업제품의 시장의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개발과 시장 분석, 브랜드의 경쟁력 등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수준은 낮고 자금 및 마케팅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조사 등 사전적 마케팅을 직접수행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해, 마케팅 실행력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마케팅 코칭, 상품성 향상, 실무교육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향상 시키고 있으며, 2017년부터 마케팅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지원, 제품진단 및 개선, 매체홍보지원 등의 내역사업을 마케팅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여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8년도부터는 기존 2회 참여업체 분할 모집·평가 방식을 1회로 축소하여 확보된 일정을 바탕으로 사업지원 기간을 확대하였다.

표 II-3-3-21 | 마케팅역량강화 지원내용

구 분	2017년	2018년
지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자율선택형 지원 ①마케팅전략 ②글로벌진출 ③매체 홍보 ④공동브랜드개발 ⑤제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일부 개편 ①마케팅전략 ②개별업체 브랜드개발 ③매체홍보 ④제품개선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회 분할 모집·평가 1차 모집(30개) : 2~3월 2차 모집(30개) : 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모집·평가 통합모집(60여개) : 1~3월

초기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전략 수립을 지원을 통해, 참여 기업 맞춤형 판매전략 수립, 마케팅역량강화 교육, 유통MD 상담회, 제품의 디자인 및 성능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방송, 온라인,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각 제품특성에 맞는 홍보 방법을 진단·제언해 주고 있다.

2018년 사업 예산은 40억 원으로 총 72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발굴부터 유통망 진출까지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II-3-3-22 |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 (백만원)	홍보실적(제품)			SNS 교육
		언론매체 (방송, 신문, 잡지,, 블로그)	소셜커머스 판매 및 홍보	TV 홈쇼핑	
2012년	1,226	218회, 807 제품	660 제품	-	8회 350명
2013년	1,928	372회, 596 제품	1,223 제품	67 제품	-
2014년	2,150	395회, 653 제품	1,139 제품	55 제품	-
2015년	3,150	435회, 682 제품	1,528 제품	58 제품	-
2016년	2,250	335회, 884 제품	250 제품	30 제품	-
2017년	3,150	198회, 392 제품	70 제품	12 제품	-
2018년	2,061	177회, 327 제품	83 제품	-	-

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중소기업의 원활한 유통채널 진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전에 시장 검증 및 전시·홍보 등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체 판매장 개설이 힘들거나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개설하여 창업 및 초기 혁신제품의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출국장 내 3개소, 갤러리아 등 시내면세점 4개소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 유동고객이 많은 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1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3,135개 업체의 21,526품목을 입점 시켜 12,216백만 원의 매출 성과와 초기제품의 시장검증 및 전시·홍보를 지원하였다.

표 II-3-3-23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아임쇼핑) 운영현황('18년 말 기준)

(단위 : m², 백만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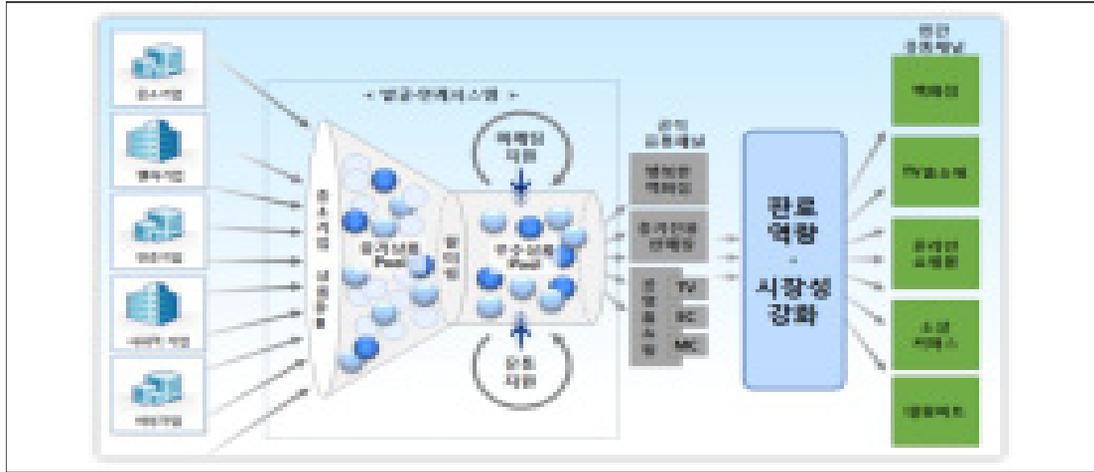
구 분		오픈일	매장면적	판매액	지원 업체 수	비고
면 세 점	인천공항 T1(서편)	12.06.27	76	1,843	88	
	인천공항 T1(동편)	15.11.06	42	1,102	87	
	인천공항 T2(동편)	18.01.18	84	1,647	94	'18년 신설
	갤러리아	15.12.28	50	306	85	
	신세계(센텀)	16.03.01	66	133	120	
	신세계(본점)	16.05.18	53	362	134	
	현대(무역센터)	18.11.01	13	24	14	'18년 신설
대형 유통점	현대백화점(판교)	16.11.09	69	750	118	
	신세계백화점(영등포)	17.09.08	52	349	74	
교통시 설	화성휴게소(하행)	11.12.01	165	433	74	
	KTX 부산역	13.02.05	42	431	94	
백화점	행복한백화점(목동)	11.03.31	2,313	4,703	2,097	
합 계			3,025	12,083	3,079	-

* '19년 폐점한 판매장(SM인사동 판매액 133백만, 지원업체 수 56개)은 제외

다. 온라인 판로지원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 및 홍보·관측 등 온라인 시장진입에 필요한 판매 인프라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9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개요



2015년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접근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진출 및 발주·배송·CS관리 등 판매를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의 오픈마켓, 종합몰 등 인터넷 쇼핑몰과 시스템 연동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온라인 시장진출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9개 온라인몰(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CJ, GS, 롯데닷컴, 롯데몰, 현대H몰)에 11,990여 개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연계 하였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품개발자(MD)에게 우수 혁신제품 기획 제안, 민간의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의 상품 판매기획전 개최 등으로 실질적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성과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상세페이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 쇼핑몰에 입점등록·판매되며, 홍보동영상은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에 업로드하여 개별 기업의 제품을 홍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제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 가능한 일반소비재 완제품이며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및 산업재·부자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II-3-3-24 | 온라인 판로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개)

연 도	예 산	상세페이지	홍보동영상	V-커머스
2016년	2,590	1,000	100	-
2017년	3,050	500	-	108
2018년	3,400	-	-	180

라.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민간의 대형 유통채널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 판매이후 A/S 문제 해결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진 못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은 백화점, TV홈쇼핑 등의 판로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하여 A/S 대응 한계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 A/S지원은 공동 A/S콜센터와 전국적 A/S망, 택배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제품의 A/S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판로확대를 꾀하고 있다.

참여 대상기업은 국내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등 17개 지원 제품군에 해당하여야 한다.

표 II-3-3-25 |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추진경과

연 도	내 용
2006년	중소기업공동A/S콜센터 시범운영
2009년	A/S콜센터 사업과 A/S센터사업 통합·운영
2013년	전국 156개 A/S망, 3개 택배센터, 502개사 참여
2014년	전국 193개 A/S망, 1개 택배센터, 708개사 참여
2015년	전국 142개 A/S망, 1개 택배센터, 738개사 참여
2016년	전국 124개 A/S망, 1개 택배센터, 686개사 참여
2017년	전국 126개 A/S망, 1개 택배센터, 539개사 참여
2018년	전국 126개 A/S망, 1개 택배센터, 546개사 참여

다만,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의류, 일회·소모성 소비재 등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적은 제품은 제외하고 있다.

2010년부터 총 4,126개 업체가 참여하여 17,775천 건의 A/S 콜상담과 1,797천 건의 A/S처리를 지원하였다.

표 II-3-3-26 | 중소기업 공동A/S 지원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참여업체수	154	502	708	738	686	539	546	
A/S 콜수	총콜수	451,455	1,974,506	3,431,721	3,584,174	2,947,462	2,624,348	2,183,915
	월평균	37,621	164,542	285,977	298,681	245,622	218,696	181,993
A/S 처리	36,823	49,108	182,577	368,302	467,239	344,211	311,696	
예 산(억원)	25	135	90	90	84	63	59	

또한, A/S역량교육, 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 A/S대행 처리기관의 생산성 향상, A/S처리 결과의 환류 등 A/S지원 인프라 내실화를 통해 질적 성과창출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마. 공영홈쇼핑(채널명 : 아이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상품판매와 동시에 광고기능까지 수행하는 TV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홍보 효과를 제공하는 좋은 판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여·판매하는 기업은 TV홈쇼핑 입점판매와 홍보를 가장 선호하며 홈쇼핑 시장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TV홈쇼핑사는 대기업·

수입제품과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검증된 기존 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창업 및 혁신기업의 초기제품이나 농수산 식품은 홈쇼핑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 7월 14일, 아이디어 창의혁신제품을 포함하는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채널명 : 아임쇼핑)’을 개국하였다. TV홈쇼핑업계 최저 판매 수수료율 23%를 적용한 채널이었다. 그 후 공영홈쇼핑은 2018년 재승인 심사에서 3%의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농어민들의 판로지원을 대폭 확대하기에 이른다.

타 홈쇼핑사에 비교하여 공영홈쇼핑은 20번대 하위채널 사용, 대기업·수입제품 판매금지,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만을 100% 취급하는 등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취급액 기준 총 6,382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며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위한 새로운 판로개척 유통망으로 빠르게 안착해 가고 있다.

표 II-3-3-27 | 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5. 7.~12	2016년	2017	2018	합 계
취급 매출액	1,500	5,057	5,828	6,382	18,767
상품수	789	1,565	1,741	1,589	5,684

특히 벤처기업 신제품, 기술개발 제품 등 1,420개의 창의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여 3,28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창업·혁신기업 사업화 초기제품의 시장진입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제4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1 수출 현황

■ 해외시장총괄담당관 공 윤

2018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2년 연속('17~'18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특히, 2015년 962억불(△6.8%), 2016년 995억불(+3.4%), 2017년 1,032억불(+3.7%), 2018년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052억불을 기록하며 '15년 이후 3년 연속 호조세를 달성하였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2018년 94.2천개(+2.0%)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10 |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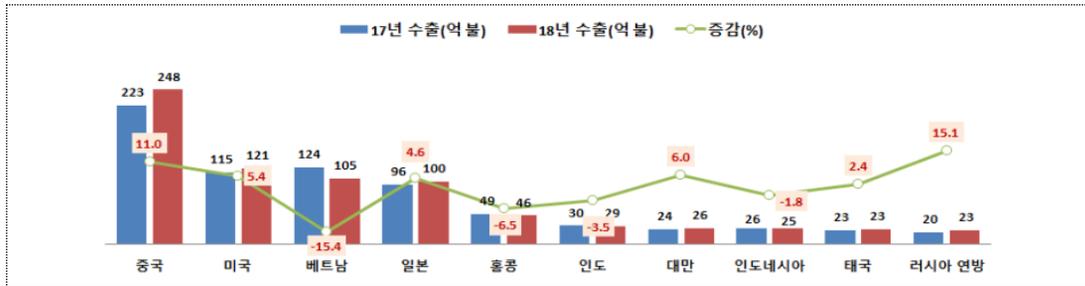
(단위 : 억불, %, 개사)



2018년 중소기업 수출은 상위 10개 국가 비중이 70.8% 차지하였으며, 6개 국가 수출이 증가하였다. 기존 주력시장(중·미·일) 및 대만, 태국,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3년 연속('16년~'18년)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며 특히,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미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림 11 | '18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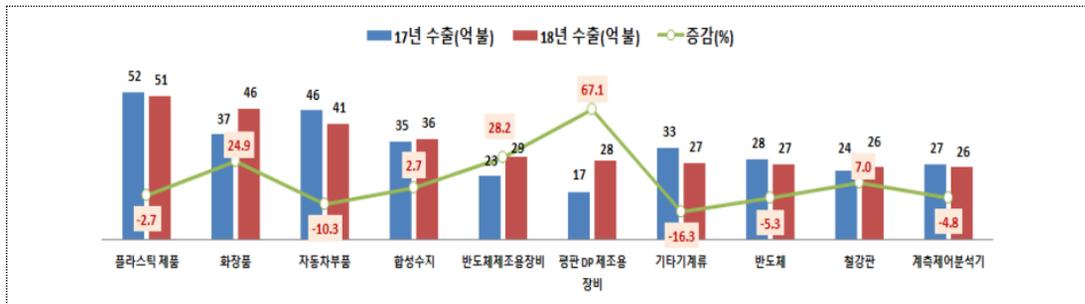
(단위 : 억불, %)



2018년도 주요 수출 품목은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으로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이 32.0%를 차지하였다. 특히 화장품, 평판 DP제조용 장비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2배, 1.6배, 1.3배 성장하였다.

그림 12 | '18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현황

(단위 : 억불, %)



주 : 증감은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MTI 3단위 기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해외진출지원담당관 허 연
- 해외진출지원담당관 김 회 중
- 해외시장총괄담당관 공 윤
-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이 흥 열
-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이 상 훈
- 해외시장총괄담당관 신 호 용

가.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수출역량에 따라 무역교육, 홍보 및 제품 디자인, 온라인 수출 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에 필요한 제반 마케팅 활동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1996년에 시작된 동 사업은 2010년까지는 수출 100만불 이하 ‘수출초보기업’과 내수 기업만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1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지원 대상을 글로벌 강소기업 까지 확대하고 수출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으로 확대 개편 하였다.

2017년부터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선택권 확대를, 민간 수출서비스 공급자간에는 경쟁을 유도하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출바우처 제도는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의 신개념 수출플랫폼으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사업에 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이 추가되어 현재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수출성공패키지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1996년부터 추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으로, 내수 및 수출실적 100만 달러 미만 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기업에게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쏠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자율적으로 서비스 공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총 9,659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 지원한 기업의 수출증가율은 58.1%를 기록하고, 내수기업의 40.3%가 수출에 성공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18년 전체 수출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은 2.5%)

표 II-3-4-1 | 수출성공패키지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개, 백만불)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2018	계
예 산	280	290	306	528	529	1,933
지원업체	1,696	1,519	1,416	2,637	2,391	9,659
수출실적	1,357	1,562	236*	1,238	432	4,825

* 2016년은 내수 및 10만불 미만의 초보기업을 위해 수출기업화만 지원

표 II-3-4-2 | 수출성공패키지 성과

(단위 : 개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지원기업	1,696	1,519	1,416	2,637	2,391	9,659
지원기업 수출증가율*	17.1	3.5	35.3	24.2	58.1	-
지원기업 중 내수기업	364	292	631	931	977	3,195
내수기업 중 수출성공기업	114	106	282	364	394	1,260
내수기업 수출성공률	31.3	36.3	44.7	39.1	40.3	38.9

* 수출증가율은 직전년도 대비 지원년도의 증가율을 적시하므로 계는 생략

2) 아시아하이웨이

2017년까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던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은 2018년부터 진출지원 대상 국가가 중국 외 인도, 아세안(ASEAN) 10개국 까지 확대되며 사업명이 아시아하이웨이로 변경되었다.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쏠과정에 필요한 마케팅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 바우처) 메뉴판 內 자유롭게 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공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 인도, 아세안(ASEAN) 수행기관의 상세 정보 제공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 하였으며, 공동마케팅 프로그램(온라인 판매전 및 신제품 런칭쇼)을 후속지원하며 지원성과를 극대화하였다.

2018년 수출잠재력이 높은 295개사에 150억 원을 지원하여 338백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사업 참여 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내수기업이었던 45개사 중 32개사가 첫 수출에 성공하였다. 또한 신규시장 진출 및 수출증대에 따른 사업 확대로 409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다.

표 II-3-4-3 | 2018년 아시아하이웨이 참여기업 지원성과

(단위 : 개사, 천불, %, 명)

지원기업수	수출성과		고용성과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신규고용	고용증가율
295	337,871	4.9	409	5.6

3)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고용·매출·수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수출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었다.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비수도권은 15%이상) 증가한 고성장기업, 수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수출유망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201개사(1,175억 원)의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다.

참여기업에게는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소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수출 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메뉴판 內 자유롭게 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공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표 II-3-4-4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성과

(단위 : 개사, %)

구 분	지원기업	수출증가율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2015년	499	4.1	8.4	7
2016년	604	2.8	11.4	9.2
2017년	662	3.4	7.0	10.3
2018년	436	7.9	-	8.2

* 18년 지원기업의 매출성과는 조사 중

4)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수출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기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금융기관이 집중 지원하는 중앙-지방-민간 간 우수 협력 모델이다.

* 성장사다리 : 내수→수출 10만불→수출 100만불→수출 500만불 이상→수출 1,000만불 이상

* 히든챔피언 : 지역우수기업→글로벌강소기업→월드클래스기업→히든챔피언

동 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소벤처 기업부는 해외마케팅, R&D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며, 민간 금융기관은 융자 및 보증분야를 우대 지원한다.

글로벌 강소기업사업(2011년~)과 지역 강소기업사업(2014년~)이 기업규모 등에서 유사함에 따라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육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 두 사업을 통합하였다.

표 II-3-4-5 | 글로벌 강소기업 및 지역 강소기업 선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글로벌 강소기업	81	110	102	140	55	121	129	210	948
지역 강소기업	-	-	-	23	72	-	-	-	95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요건은 매출액 100~1,000억 원, 수출액 500만 불 이상인 중소기업으로(단, 혁신형기업은 매출 50~1,000억 원, 수출액 100만 불 이상), 2018년에는 21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자격 유효기간은 4년이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8년간 1,043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62개사가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 ('11) 3개사 → ('12) 3개사 → ('14) 9개사 → ('15) 8개사 → ('16) 15개사 → ('17) 15개사 → ('18) 9개사

표 II-3-4-6 |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 산	42	40	32	50	40	60	100
지원업체	121	162	160	167	150	176	183
수출증가율	9.7	11.7	4.3	1.5	0.6	15.1	12.6

* 수출증가율은 직전년도 대비 지원년도의 증가율

5) 단체 해외전시회 바우처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관을 구성하는 단체참가 해외 전시회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통합 모집하여 참여기업의 전시회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도입되었다.

2018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참여수요와 파견실적이 높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는 122건의 전시회(중기부 80, 산업부 42)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참여기업을 모집 하였다.

참여희망 기업은 전시회 주관부처와 관계없이 희망 전시회에 교차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절차를 통해 전시회 참가우선권을 받은 기업에게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직접경비의 50%를 천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II-3-4-7 | 2018년 단체해외전시회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선정결과

구 분	참여대상 전시회수	참여기업(개사)			전시회(건)		
		신청	선정	경쟁률	신청	선정	경쟁률
중기부	80	1,325	820	1.61	2,432	1,000	2.43
산업부	42	697	661	1.05	1,148	743	1.55
합 계	122	2,022	1,481	1.37	3,580	1,743	2.05

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1) 무역촉진단 파견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인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은 산업트렌드, 기술동향 등 글로벌 최신 시장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업교류의 장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업종별 단체 및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이 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전시회는 업종별 전문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전시회에 참가하며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직접경비의 50%를 기업당 11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시장개척단은 신흥시장 위주로 1:1 바이어 초청상담을 진행하며 참여기업에게 상담장임차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 경비의 100%를 기업당 11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13회의 해외전시회에 10,011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47회의 시장개척단에 총 482개 개업을 파견하였다.

2)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동일·유사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전시회 파견, 시장개척단과는 달리 목표시장에 대한 진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조사 등 사전준비, 현지 마케팅활동, 바이어 초청 등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30개 기업으로 구성된 1개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2.5억 원이 지원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9개 컨소시엄을 통해 총 2,273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80개 컨소시엄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2017년도부터 기존 무역촉진단 사업에서 개별사업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관단체 참가자격 확대 및 주관단체별 성과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표 II-3-4-8 | 무역촉진단 파견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외전시회	143회(2,201)	150회(2,511)	176회(2,735)	83회(1,416)	61회(1,148)
시장개척단	9회(105)	7회(76)	24회(229)	3회(34)	4회(38)
수출컨소시엄	26회(358)	36회(342)	31회(348)	47회(577)	59회(648)
계	178회(2,664)	193회(2,929)	231회(3,312)	133회(2,027)	124회(1,834)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2010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동 사업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형 수출 지원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6,100여개 기업을 지원하여 약 5,200억 원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다.

2013년도부터는 사업내용을 민간 자원의 과제공모형식으로 전환하여 기업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대기업의 해외홈쇼핑 플랫폼 활용, 현지 사무공간 및 물류창고 공동 활용 등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였다.

2015년도에는 K-POP 공연과 연계하여 한류를 활용한 중기제품 마케팅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 해외온라인 몰에 '한국 중기제품 전용관'을 구축 하는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참여기업수도 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16년도에는 기존 K-POP 공연 연계뿐만 아니라 한류스타 및 콘텐츠 활용 등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해외매장 내 상설판매장 지원, 해외거점을 활용한 증기제품 현지화 개발지원, 해외전시회(Booth in Booth) 참여 등을 통해 동반 진출 사업 영역을 다양화하였다.

2017년도는 대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프로젝트 공동수주 및 솔루션 현지화, 투자유치 지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발전·상생할 수 있는 해외진출 과제로 사업유형을 확대하였고

2018년도에는 BTS 등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K-POP공연, 예능, 드라마, e스포츠 등으로 한류 마케팅 활용 분야를 다각화하였으며, 향후에는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v커머스에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역량제고와 수출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표 II-3-4-9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

[단위 : 회(개사)]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외전시회	1회 (3)	2회 (15)	7회 (92)	6회 (63)	8회 (91)	11회 (96)	10회 (82)	-	-
수출상담회	4회 (68)	4회 (70)	7회 (93)	6회 (61)	6회 (80)	9회 (112)	-	-	-
홈쇼핑지원	-	-	-	1회 (32)	3회 (192)	9회 (398)	7회 (221)	12회 (412)	14회 (443)
해외인프라 활용	-	-	-	2회 (43)	6회 (149)	14회 (409)	12회 (737)	22회 (352)	53회 (489)
한류연계	-	-	-	-	2회 (91)	5회 (147)	10회 (346)	6회 (226)	8회 (257)
역직구물	-	-	-	-	-	-	-	5회 (260)	-
계	5회 (71)	6회 (85)	14회 (185)	15회 (199)	25회 (603)	48회 (1,162)	39회 (1,386)	45회 (1,250)	75회 (1,189)

4)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전자상거래활용수출은 비용, 시간, 인력 등 제약 극복이 가능하며, 대외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해외 마케팅 방식이지만, 중소 수출기업 중 약 12.4%만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NS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발달과 인프라 확대로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르고, 거대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선점과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프라 제공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는 판매대행 사업과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① 판매대행 사업

해외 쇼핑몰에 판매계정을 보유한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인력, 예산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하여 제품 등록, 마케팅, 배송, C/S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8년에는 투입 예산 39억 원 대비 15배에 달하는 610억 원 수출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시장진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표 II-3-4-10 | 온라인쇼핑몰 판매실적 현황

(단위 : 개사 / 억원, '18.12월말 기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기업	1,028	1,543	1,531	1,524	2,011
판매실적	108	433	443	464	610

②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육성 사업

업종·테마별 전문몰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쇼핑몰 신규 구축,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18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8년 47개 사를 지원, 사업 예산(24억) 대비 18배에 달하는 432억 원의 온라인수출 판매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II-3-4-11 | 독립몰 판매실적 현황

(단위 : 개사 / 억원, '18.12월말 기준)

구분	2018	비고
지원기업	47	
판매실적	432	국내 자사몰, 해외 플랫폼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높은 물류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라인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물량을 집적해 배송비를 낮추고 물류 창고 제공으로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동물류 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5)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WTO 체제의 정착과 FTA의 확대로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WTO TBT 통보문 현황 : 1,234건('07년) → 2,197건('12년) → 2,587건('17년) → 3,065건('18년)

최근 EU(유럽연합)에서는 의료기기 지침(Medical Device Directive)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을 강화하여 2020년부터 강제 시행할 예정이며, 중국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강화('16.12월) 이후 인증 획득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해야하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증 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며,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0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811개의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II-3-4-12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예산	100	206.9	132.6	164.6	176.5	106.5	106.5
지원인증	2,959	3,706	3,416	3,001	4,467	2,476	2,811

앞으로도 해외규격인증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획득 역량을 제고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수출기업 지원 및 해외교류 인프라 확충

- 해외시장총괄담당관 신 호 용
- 해외시장총괄담당관 방 지 현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1998년 1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도, 경기북부 사무소 등 총 14개의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역투자 진흥회의(2013.5월) 및 대외경제장관회의(2013.5월)를 통해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수출지원기관을 한데 모아 원루프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동 계획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8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의 5대 광역권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단 설치를 시작으로 17년까지 경기, 인천, 울산, 전북 등 11개 지역에 지원단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접점을 확대하였다.

현재 수출지원센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3-4-13 | 수출지원센터 구성 현황(18.5)

(단위 : 건, 개사)

구 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단			총계
	공무원	전문위원	사무원	파견	계	코트라	중진공	소계	
서울	5	1	1	2	9	-	-	-	9
부산	3	1	1	-	5	18	3	21	26
대구·경북	3	1	1	-	5	23	6	29	34
광주·전남	3	1	1	-	5	14	3	17	22
경기	3	3	1	-	7	41	6	47	54
경기북부	1	1	1	-	3	13	-	13	16

구 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단			총계
	공무원	전문위원	사무원	파견	계	코트라	중진공	소계	
인천	4	1	1	-	6	17	4	21	27
대전	5	1	1	-	7	21	4	25	32
울산	2	1	1	-	4	12	4	16	20
강원	2	1	1	-	4	9	-	9	13
충북	5	1	1	-	7	12	4	16	23
전북	3	1	1	-	5	13	3	16	21
경남	3	1	1	-	5	17	4	21	26
제주	2	1	1	1	5	-	-	-	5
소계	44	16	14	3	77	210	41	251	328

표 II-3-4-14 |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단위 : 건, 개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장수출애로	4,124	4,862	5,606	4,892	6,408
수출유망기업 지정·관리	893	760	744	772	1,077
수출역량강화사업(기업화,고도화)	1,835	1,519	1,419	3,380	2,39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143	1,657	1,834	878	1,056
글로벌강소기업	160	167	150	135	183



〈2018년 수출지원사업 설명회(2.19)〉



〈2018년 지역수출지원협의회 개최(10.4)〉



〈2018년 글로벌강소기업 교류회(11.29)〉

나.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여 현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회계·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에 멕시코시티, 2014년에 중국 시안, 카자흐스탄 알마티, 베트남 하노이, 2016년에 중국 충칭, 칠레 산티아고, 2017년 태국 방콕, 미얀마 양곤에 신규 개소하여 현재 14개국 22개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현재 299개의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4-15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단위 : 개)

지역	미 국				멕시코	칠레	러시아	UAE	독 일	카자흐스탄
	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멕시코 시티	산티 아고	모스 크바	두바이	프랑크 푸르트	알마티
설치시기	2006.2	1998.9	2004.3	2003.11	2008.3	2016.11	2006.9	2006.11	2000.4	2014.11
입주규모	20개	18개	12개	23개	9개	9개	10개	11개	15개	8개

지역	일본	중 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태국	미얀마
	도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시안	충칭	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	뉴델리	방콕	양곤
설치시기	2004.3	2002.8	2006.5	2003.11	2014.4	2016.12	2004.12	2014.6	2006.8	2006.11	2017.12	2017.12
입주규모	15개	21개	21개	14개	7개	10개	15개	15개	10개	16개	10개	10개

현지진출 희망 중소기업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를 통해 현지 초기 시장개척과 정착에 있어 사무공간 및 회의실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기존 입주기업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현지 시장동향과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상호 정보공유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인프라에 입주해 해외 바이어에게 공신력을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 초기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해외진출 유망 국가와 스타트업 산업생태계 우수 도시를 대상으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창업, 투자유치, 한류마케팅 등 수출BI를 거점별 특성화하여 개편하는 지속적인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창진원 등 국내 유관기관, 해외 민간네트워크, 해외 KBC(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등과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연계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II-3-4-16 |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실적

(단위 : 개, 천달러)

국 가	지역	개소 시기	수출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미 국	뉴욕	2006.2	25,501	11,088	39,713	22,660	51,677	28,947	27,374	52,042
	시카고	1998.9	39,483	31,867	41,250	45,039	25,054	27,072	34,372	59,203
	워싱턴	2004.3	7,104	2,100	14,569	15,319	12,500	17,103	13,180	37,179
	LA	2003.11	59,205	25,023	16,074	47,046	72,389	127,733	113,239	75,005
브라질	상파울루 (*17.01폐쇄)	2004.11	47,373	64,213	55,199	48,619	1,101	981	-	-
독 일	프랑크푸르 트	2000.4	57,844	31,192	48,256	38,816	36,859	35,498	45,647	79,729
일 본	도쿄	2004.3	20,771	22,156	26,031	28,794	31,415	14,505	50,257	53,948
중 국	베이징	2002.8	36,019	46,192	15,656	36,600	38,125	7,903	766	4,954
	상하이	2006.5	34,184	57,787	76,320	130,795	91,349	69,492	84,786	28,635
	광저우	2003.11	50,335	43,720	14,020	10,842	16,826	16,750	25,557	9,021
	청두 (*17.07폐쇄)	2007.12	16,481	8,981	28,305	29,524	96,084	36,286	1,700	-
	시안	2014.4	-	-	-	18,988	6,197	3,814	9,522	7,279
	충칭	2016.12	-	-	-	-	-	-	4,812	13,877
베트남	호치민	2004.12	7,261	3,338	16,225	48,843	54,045	57,550	26,629	26,721
	하노이	2014.7	-	-	-	13,554	16,048	38,533	28,125	29,942
싱가포르	싱가포르	2006.8	22,696	56,034	21,320	9,192	15,661	17,376	19,631	13,860
러시아	모스크바	2006.9	2,641	4,772	11,973	16,255	26,846	36,798	49,193	12,731
UAE	두바이	2006.10	11,370	9,169	25,142	28,002	30,134	34,295	36,933	42,601
인 도	뉴델리	2006.11	23,280	25,865	7,806	27,427	22,611	23,800	23,547	28,117
멕시코	멕시코시티	2008.3	9,647	21,184	14,828	16,444	18,818	17,284	10,549	16,413
카자흐스탄	알마티	2014.11	-	-	-	-	865	2,641	45,220	45,789
칠 레	산티아고	2016.11	-	-	-	-	-	-	1,905	26,481
태 국	방콕	2017.12	-	-	-	-	-	-	-	7,073
미얀마	양곤	2017.12	-	-	-	-	-	-	-	7,809
14개국	22개소	-	471,195	464,681	472,687	632,759	664,604	614,361	652,944	678,409

4

국제협력 추진

- 국제협력담당관 강성국
- 국제협력담당관 이일준
- 국제협력담당관 김석동
- 국제협력담당관 윤지은
- 국제협력담당관 정기순
- 국제협력담당관 김은경
- 국제협력담당관 박강범

'18년은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경향 등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정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한 해였다.

정부는 이러한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국가 및 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교류 추진,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 고위급 교류 등 정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여건과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진출이 확대뿐만 아니라, 혁신 창업을 통한 한국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다자간 협력으로 APEC, OECD 등 회의체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 경험을 회원국과 적극 공유하고, 회원국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진출 기반을 다지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다.

가. 양자협력 활동

정부는 중소기업 진출 국가 및 방식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 등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장벽을 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 간 기술교류를 적극 추진하였다. 국가 간 기술교류는 수출하는 기업·국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통적인 수출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 상호 호혜적인 협력 사업 방안으로서, 상대국의 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기술 라이선싱, 부품·소재 및 장비 수출,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신남방 지역에 기술 교류센터를 설립(인도네시아 '18.4, 인도 '18.7)하여 기술교류를 통한 중소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페루 기술교류센터를 설립하였고, 제1회 한-페루 기술 매칭 컨퍼런스('18.10)를 개최하였다.

'19년에도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맞추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중소기업 기술교류 매칭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교류 분야 협력 국가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친환경·신재생에너지·스마트 시티 등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교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요녕성과 중소기업 분야 협력 MOU를 체결('18.6)하였으며,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공업신식화부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 MOU를 체결('18.6)하였다.

신남방·신북방 지역 이외에도 우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돕기 위해 UAE 경제부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18.3), 이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분야 협력 MOU('18.8)를 체결하였으며, 싱가포르기업지원청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18.7), 에콰도르 산업생산성부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 MOU('18.8) 등을 체결하였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8.6월 한-러 스타트업 서밋, '18.7월 한-인도 스타트업 포럼 및 '18.10 한-프랑스 스타트업 서밋, '18.10월 한-덴마크 스타트업 서밋 등을 개최하였다. 각각의 행사에는 양국 스타트업 및 VC, AC 등이 참여하는 투자 상담회,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여 양국 스타트업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우리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위급 면담을 통한 양국 중소기업 분야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18년에는 이탈리아, 태국, EU, 조지아,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등 총 16개국 장·차관급 인사 및 주한 대사와 면담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7년 중소기업벤처부 승격이후 해외 정부와 중소기업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더 중소기업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 다자협력 활동

1)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활동

APEC 내 중소기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매년 참가하여 APEC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우수 정책을 전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하조직인 중소기업 실무그룹회의(SME Working Group Meeting)에도 중소기업정책 실무자가 매년 2회 참가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PEC 회원국 간의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소기업장관 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9월, 대구에서 중소기업 혁신 촉진이라는 주제로 제12차 APEC 중소기업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구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고 장관회의 각료들은 동 제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여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화함으로써, 한국은 APEC 역내에서 혁신 주도국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설립에 대해 APEC 회원국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2월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공식 개소되었으며, 그 후 2009년 1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동 센터가 이관되었다.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는 매년 APEC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기금을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PEC 협력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2010년 10월, 일본 기후에서 개최된 제17차 중소기업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소

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녹색기술'이란 제목으로 국가간 녹색기술 교류, CDM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하여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2005년에 '대구 이니셔티브' 1주기(2006년~2010년)의 성공적 수행 결과 발표 및 2주기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녹색 성장을 위한 '그린 이니셔티브' 추진을 제안하여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었다.

2011년 5월, 미국 몬타나에서 개최된 제18차 APEC 중소기업장관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과 그린 이니셔티브의 추진 체계 및 성과를 발표하여 많은 국가들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APEC 중소기업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한국의 리더십과 기여에 대하여 중소기업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8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9차 APEC 중소기업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린 이니셔티브 추진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우수정책 사례로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이를 회원국에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3년 9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20차 APEC 중소기업장관 회의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창조경제의 등장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선순환 창업 벤처 생태계 구축추진 현황을 '선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2014년 9월 중국 난징에서 개최된 제21차 APEC 중소기업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소기업 발전과정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촉진, 창업인프라 조성 및 실패기업 재도전 지원,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촉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성장촉진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활동 등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2015년 9월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개최된 제2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창업밸리 조성, 창업을 위한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확대, 창조적 혁신적 제품의 시장진입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강화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활동 등에 관해 발표하였다.

2016년 9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3차 APEC 중소기업장관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혁신'을 주제로, 수출 확대, 신성장동력 육성,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소개하였다.

2017년 9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제24차 APEC 중소기업장관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라는 주제 하에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 및 GVC 통합 촉진, 기술 접근성 개선 및 교육·컨설팅·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환경 조성 및 창업 촉진 및 기업 윤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만, 2018년은 APEC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 사정으로 중소기업장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한편, 2018년에는 APEC 회원국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 경험을 공유하고 APEC 회원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APEC 회원국과 한국의 청년 기업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기업가 네트워크 강화 포럼」을 개최(‘18.10.25~27) 하였고, APEC 회원국 간 중소기업 혁신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 중소기업 기술교류 전람회」에 참여하였다.

2019년에는 9월 칠레에서 열리는 제25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10월 서울에서는 ‘AI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하여 APEC 역내 중소기업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혁신 비즈니스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2)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활동

OECD는 이사회 및 위원회와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소속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작업반(WPSMEE)’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제6차 중소기업 작업반회의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제9차 회의를 1997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OECD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는 매년 2차례 정례적인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매년 해당 회의 참석을 통하여 OECD 회원국들의 경제 및 중소기업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반 내에서 발간되는 ‘OECD Scoreboard’ 보고서, 국가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성과평가 지표 등 작업반 내 수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14년 만에 제3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으며, OECD 사무총장 및 OECD 회원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생산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과 기업가 정신 제고’를 주제로 각 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수규 차관이 참석하여 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참여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OECD에서 2~3년마다 회원국의 경제상황 및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방안을 제언하는 한국경제보고서에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올바로 평가받고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에도 선진국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신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신규정책 마련 및 개선에 활용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OECD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 등 중소기업 분야 OECD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3) ASEIC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활동

제8차 아셈정상회의(2010.10, 벨기에) 공식인준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된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는 ASEM 회원국 중소기업간 친환경 기술협력을 위해 개도국 대상 컨설팅, 친환경 혁신기술, 글로벌 포럼 개최, 전문가 회의 운영, 지수(ASEI) 개발, 인도네시아 GBC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① 친환경 혁신 역량강화

친환경 혁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여건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했다. 2018년에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 친환경 패키징 등을 주제로 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지 참가 기업으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참여기업의 친환경 혁신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② 글로벌 포럼

ASEIC은 2015년부터 아시아-유럽 지역의 정부와 유관기관, 중소기업,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에코이노베이션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8년에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 강화”를 주제로 2018 ASEIC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을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기구와 ASEM회원국 정부관계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친환경 혁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이외에도 ASEIC은 아시아-유럽재단(싱가포르), 한스자이텔재단(독일),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일본), 스톡홀름환경연구소(스웨덴) 등 ASEM 역내 주요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ENV포럼을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관련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 등 유럽-아시아 간 친환경 혁신 분야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③ 친환경 혁신 역량 전문가회의

전문가회의는 2014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 공식화되어 '15~'17년에 걸쳐 총 5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전문가회의에 참여한 13개 ASEM 회원국은 중소기업 친환경혁신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 중소기업 자문 서비스 제공,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동협력 사업안을 발굴하여 이를 2016년 올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 11차 ASEM 정상회의에 2017-18년 ASEM 활동으로 공식화하였다. 2018년에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재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친환경 혁신 기업가 정신 훈련, 한-덴마크 친환경 혁신 스타트업 서밋 등을 추진하였다. 전문가회의의 주요 목표는 ASEM 회원국가와 공동으로 ASEM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을 위한 분담금 출연 등 ASEM역내 회원국 간 공동협력을 도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④ 친환경 혁신지수(ASEI) 연구

ASEM 친환경 혁신 지수는 ASEM 회원국들의 친환경 혁신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의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이다. 2012년부터 ASEI 지표개발을 통한 아시아-유럽 15개국 지수분석을 시작으로 2013년 25개국, 2014년

49개국에 이어 2015년부터는 매년 ASEM 전 회원국인 51개국을 대상으로 지수를 발표하고 친환경 혁신 정책과 제도현황, 기업의 혁신사례 등을 조사·평가했다. 또한 ASEIC은 2015년부터 ASEM지역의 총 10개국(한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호주, 몽골, 인도, 영국)과 공동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⑤ 그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ASEIC이 운영 중인 GBC는 한-인니 간 정부와 민간 협력의 가교역할을 도모하고 ASEM지역 중소기업의 인니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한-인니 중소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등 현지정부와 협력을 통하여 한-인니 중소기업 혁신 포럼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GBC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ASEM 회원국의 중소기업에게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ASEIC은 ASEM 조직 내에서 아시아-유럽의 친환경 동반 성장을 위한 가교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 향후 회원국 간 공동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ASEM 중소기업간 친환경 혁신 및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참고

우리나라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가 현황

회의별	일시 및 장소	발표내용	참가자
1차('94.10)	일본 오사카	▪ 중소기업의 5대 애로분야	산자부 장관
2차('95.9)	호주 Adelaide	▪ 금융시장의 효율성 연구 등	산자부 차관
3차('96.9)	필리핀 Cebu	▪ 중소기업의 세계화 여건 조성 등	이우영 청장
4차('97.9)	캐나다 오타와	▪ APEC 중소기업 활동을 위한 기본틀 마련 등	정해주 청장
5차('98.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말련 주도 중소기업 발전계획 채택	추준석 청장
6차('99.4)	뉴질랜드 Christchurch	▪ 역내 경제위기의 극복방안 등	추준석 청장
7차('00.6)	브루나이	▪ 인적자원, 금융,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한 회원국 경험 공유 등	신동오 차장
8차('01.8)	중국 상해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 논의	최동규 청장
9차('02.8)	멕시코 아까풀코	▪ 협력수혜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개발	이석영 청장
10차('03.8)	태국 치앙마이	▪ APEC 역내 기업가 사회의 강화 주제로 기업가 정신 등 논의	유창무 청장
11차('04.10)	칠레 산티아고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바람직한 정부정책 논의	김성진 청장
12차('05.9)	대한민국 대구	▪ 중소기업 혁신촉진을 주제로 인적자원 개발 등 논의	김성진 청장
13차('06.9)	베트남 하노이	▪ 무역과 투자를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우수사례 공유	이현재 청장
14차('07.3)	호주 호바트	▪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	이현재 청장
15차('08.9)	페루 FLAK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주제 우수사례	홍석우 청장
16차('09.10)	싱가포르	▪ 중소기업 글로벌시장 접근 및 무역 장벽 제거 지원 주제 우수사례	홍석우 청장
17차('10.10)	일본 기후현	▪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녹색기술	김동선 청장
18차('11.5)	미국 몬타나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김동선 청장
19차('12.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그린이니셔티브 결과 보고	송종호 청장
20차('13.9)	인니 발리	▪ 선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한정화 청장
21차('14.9)	중국 난징	▪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한정화 청장
22차('15.9)	필리핀 일로일로	▪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축	한정화 청장
23차('16.9)	페루 리마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혁신	주영섭 청장
24차('17.9)	베트남 호치민	▪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이상훈 국장

'18년도에는 주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사정으로 중소기업 장관회의 미개최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1절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상생협력 촉진

1 대·중소기업간 경영현황

▪ 상생협력정책과 노 성 현

성장성 측면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3.1%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5년 이후 대기업의 수익성이 상승하여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4-1-1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비교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증가율	대기업(A)	0.3	-0.4	-4.7	-1.3	7.9
	중소기업(B)	5.6	4.4	8.0	8.6	11.0
	(A)-(B)	-5.3	-4.8	-12.7	-9.9	-3.1
영 업 이익률	대기업(A)	4.7	4.4	5.5	6.5	7.6
	중소기업(B)	3.2	3.1	3.6	3.9	4.0
	(A)-(B)	1.5	1.3	1.9	2.7	3.6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전산업)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평균 63.3% 수준이며, 2017년 중소기업 임금비중은 대기업 대비 65.1%로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2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대 기 업	4,583	4,823	5,017	5,131	5,145
중소기업	2,938	3,008	3,110	3,228	3,351
중소기업 임금비율(대기업=100 기준)	64.1	62.3	62.0	62.9	65.1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구.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상용임금, 전산업)

2

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 거래환경개선과 박 순 흥
- 거래환경개선과 신 종 화
- 거래환경개선과 송 시 연
- 거래환경개선과 홍 선 아
- 거래환경개선과 강 민 규

가. 수·위탁 기업간 대금지급 현황

1)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 현황

기업 간 거래에서 수·위탁 관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정상적인 대금 결제 여부는 자금력이 미약한 수탁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관련한 애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중을 보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81.3%로 어음 결제에 비해 62.6%p 높았다.

표 II-4-1-3 |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중

(단위 : %)

연 도	현금성 결제			어 음
	현 금	어음대체결제	소 계	
2011년		79.2		20.8
2012년		73.1		26.9
2013년		77.0		23.0
2014년		75.9		24.1
2015년		76.4		23.6
2016년	74.3	4.7	79.0	21.0
2017년	75.8	5.5	81.3	18.7

* 어음대체결제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2012~2018)

2017년 어음 납품대금 평균 60일 이내 결제비율은 6.0%로 전년대비 1.9%p 감소하여, 어음분야는 여전히 결제기일이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고 있다.

표 II-4-1-4 | 연도별 어음 납품대금 평균 결제기일

연 도	59일 이내	60일 초과			
		소 계	60~89	90~119	120일 이상
2011년	5.9	94.1	21.5	58.5	14.1
2012년	11.1	88.9	26.1	49.9	12.9
2013년	16.4	83.6	24.9	44.1	14.6
2014년	10.9	89.1	42.1	37.1	9.9
2015년	12.9	87.1	40.1	38.1	8.9
2016년	7.9	92.2	38.6	50.0	3.6
2017년	6.0	94.1	58.3	31.0	4.8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2012~2018)

2)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매년 실시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별점¹⁹⁾을 부과한다. 그리고 별점이 누적되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별점에 따라 교육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위탁기업의 법령 위반 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²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실태조사의 경우 총 조사대상 12,000개사 가운데 657개사가 법을 위반하였으나,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하고 최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별점을 부과하였다.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표 II-4-1-5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결과 법령위반기업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업체(개)	4,000	5,000	6,000	6,000	6,500	12,000
위반업체(개)	371	517	596	479	598	657
납품대금 분야	369	498	593	478	576	646
준수사항 분야	12(10)	20(1)	4(1)	2(1)	24(2)	12(1)
개선요구	23	31	19	68	28	13

* ()는 납품대금 분야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업체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2013~2018)

표준약정서 사용과 현금성 결제 100% 등을 실천한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신용평가기관(신·기보) 우대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5개사가 선정되었다.

나.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1) 의무고발 요청권 행사

공정거래 분야는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공정위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추가 검토를 통해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의무고발요청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甲의 위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온 대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비율이 낮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으로, 도입 이후 고발비율이 도입이전에 비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09~'13, 8.2% → '14~'18, 15.5%)를 거두고 있다.

2018년 까지 17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고발요청 하였으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감액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수급사업자, 피해금액, 적극적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하였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5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인 및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한다는 방침이다.

2) 수·위탁 분쟁조정 지원 활성화

수탁·위탁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의 사전 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05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위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수·위탁거래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

표 II-4-1-6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06~2018)

구분	접수 건수	분쟁유형					조정결과			
		대금등 미지급	발주 기피·중단	대금 감액·인하	수령 거부	기타	성립	불성립*	중단	비대상
합계	489	357	42	23	11	56	202	194	76	17
2006년	26	22	1	-	2	1	10	15	-	1
2007년	39	30	3	1	-	5	18	21	-	-
2008년	42	30	3	1	-	8	20	19	-	3
2009년	45	36	2	5	-	2	19	24	-	2
2010년	65	50	2	7	-	6	28	33	-	4
2011년	35	32	1	-	1	1	17	18	-	-
2012년	52	40	5	1	-	6	15	34	-	3
2013년	45	30	5	-	-	10	18	23	-	4
2014년	20	12	6	-	-	2	13		7	-
2015년	22	15	5	2	-	-	12	1	9	-
2016년	33	11	5	4	4	9	10	3	20	-
2017년	31	21	1	1	3	5	12	-	19	-
2018년	34	28	3	1	1	1	10	3	21	-

* '05~'13년 불성립 : 중단 포함

3)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대기업 등의 갑질 근절을 위해 지역·업종별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확대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11.29일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14개소에 설치 하였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2017.11월 중소기업 사업자 협·단체 15개에 확대 설치하였으며, 2019년에는 4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국 69개소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상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자문이나 분쟁 조정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13년 58건, 2014년 513건, 2015년 593건, 2016년 627건, 2017년 779건, 2018년 1,334건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수·위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2019년 도입될 예정으로 중소기업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여부, 조정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가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실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생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 상생협력정책과 우 경 필
- 상생협력정책과 송 승 현
- 상생협력정책과 임 호 순
- 상생협력정책과 이 슬 기
- 상생협력지원과 안 병 철
- 상생협력지원과 손 정 아

가. 대중기간 상생협력 추진 배경 및 경과

최근 경제의 화두는 AI, IoT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경쟁력을 강조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이다. 독일, 미국,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각 부처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도태는 대·중소기업의 격차확대로 이어질 것인바,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상생협력 정책을 시작으로 3차례의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왔다. “제1차 동반성장 기본계획(‘08.1)”을 통해 협력형 기술개발 확대, 거래관행·결제조건 개선 등 하도급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였다. 이후 민간합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 장치 마련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11.5)”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왔으며,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4.12)” 수립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파트너 관계 개선 등 한층 성숙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2017년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이 수직적·폐쇄적 생태계를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전환과 혁신의 주체인 기업들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다. 또한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8.5)”을 수립하여 신뢰 구축, 소득주도 성장, 열린혁신 선도 등 3대 전략과 납품단가 제값받기,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공정한 성과배분으로 소득격차 완화, 대기업의 혁신자원 개방 등 9대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나.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주요 실적 및 성과

(1) 성과공유제 확산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위탁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목표를 미리 합의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나타난 협력활동의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하는 경영혁신 모델로, 1959년 일본의 도요타(Toyota) 자동차가 고안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7월에 민간기업인 포스코(POSCO)가 중소 협력사와 상생과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공유제와 유사한 BS(Benefit Sharing)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5월 ‘제2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고시를 제정(‘12.4)하여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성과공유제 도입·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까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도입(‘15)하고, 2018년도에는 지방공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 등록기업(누적)은 2012년 77개로 시작하여 2018년 396개로 확대되었으며, 확인과제(누적)는 2012년 997개에서 2018년 5,937개로 증가하였고, 참여 수탁기업(누적)은 2012년 566개에서 2018년 6,769개로 확대되었다.

’18.6월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배분, 물량매출확대 등 현금성 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였다.

표 II-4-1-7 |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인센티브	내 용
평가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
세제혜택	• 참여기업이 성과공유제 시행 목적으로 성과공유 재원을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수익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익계약 체결 가능
포상	• 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우선구매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공공부문)
정부 R&D 관련 우대	• 중기부 및 산업부 R&D 과제 선정평가에 우대 배점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18.11월에 발표하였다. 기존의 성과공유제 외에 기업의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여부 및 유형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수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정된 내부 자원을 극복하는 새로운 이익공유모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의 3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정부는 민간중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정착·확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2010년에 신설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 말 누적 기준 196개 기업으로부터 10,067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43,1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776억 원 지원되었다.

표 II-4-1-8 | 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협 약				출 연			
	대기업	공기업	중견(소)기업	합 계	대기업	공기업	중견(소)기업	합 계
금 액	8,462	1,856	1,298	11,616	7,552	1,785	730	10,067
기 업	95	34	73	202	94	34	68	196

* 2017년도 12월 말 기준

2017년부터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율 7%에서 10%로 상향(제8조의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100조의32) 등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어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지원이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기금 사용목적(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을 폐지하고 전면 개방(제8조의3)하여 대기업 등은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기금을 활용한 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 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2017년 11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협력재단에 기금 관리·운영 업무를 추가하고, 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제20조의5)를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제13조의4)하여 생산성 향상, 기술보호, 창업지원, 국내외 판로 등의 사업에도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3)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상생협력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협약 이행평가(정량)와 동반위에서 해당 대기업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가하여 계량화한 지표이다.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체감도조사(정성)'로 구성되어 교차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평가 결과 우수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를 받는 기업은 2011년 56개사에서 2016년 169개사, 2017년 185개사 2018년에는 200개사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중견기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2·3차 협력 중소기업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2013년에 중견기업 20개사를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였고, 2019년에는 107개로 전체 평가기업('19년 220개사 예정) 중 약 50%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6년도부터 “미흡”등급을 신설하여 지수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한 경우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 최우수 및 우수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13 |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구 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공정위)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동반위)
대 상	대기업	1·2차 협력 중소기업, 대기업
방 식	대기업별 제출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
주 요 평가항목	① 계약의 공정성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공정성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정당성	① 거래관계 · 공정거래(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 기간 등)
	②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② 협력관계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 대기업 지원 실적
	③ 상생협력 지원 · 금융(자금)지원 ·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채용 지원 · 효율성 증대 정도 ·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매입액 적극조정 ·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③ 동반성장 체제 · 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추진체계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환경조성(1·2차협력사 연계 지원)
	④ (가점) CP협약결과, CCM 인증, 재협약, 비협약사 대금지급조건 개선, 경영 직·간접 지원 등 (감점) 법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 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④ 상생협력 지원 · 공평한 성과의 배분 ·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 상생협력기금, 창업기업 지원 · 국내외 판로지원, 상생결제 시스템 등

표 II-4-1-9 |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등 급	기 업 명(가나다순)
최우수 (31개사)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 SDS, 유한킴벌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호반건설, CJ제일제당, GS건설,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우수 (64개사)	계룡건설산업, 남양유업, 대덕전자, 두산중공업, 롯데마트, 롯데정보통신, 롯데지알에스, 롯데하이마트, 르노삼성자동차, 빙그레,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양사, 세메스, 신세계건설,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오투기, 오리온, 웅진코웨이, 유라코퍼레이션, 이랜드월드, 이마트, 제일기획, 카카오, 코닝정밀소재,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케미칼, 풀무원식품, 한국아쿠르트,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양,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상호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오트모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홈쇼핑, 호텔신라, 화신, 효성중공업, CJ오쇼핑, CJ올리브네트웍스, GS리테일(GS25), GS홈쇼핑, HSD엔진, KCC건설, LF, LG하우시스, LS산전, SK실트론, SK하이닉스, SPC삼립
양호 (68개사)	가온전선, 경신, 고려아연,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농협유통, 대우건설, 대원강업, 대한항공(항공우주), 더페이스샵, 대상테크코리아, 동국제강, 동원F&B,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알미늄,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롯데홈쇼핑,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매일유업, 부영주택, 삼성물산(패션부문), 삼호, 세방전지, 세아베스틸, 신세계인터내셔널, 쌍용자동차, 아성다이소, 이니스프리, 이랜드리테일, 일진전기, 코리아세븐, 코스트코코리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태영건설, 평화정공, 풍산, 하림, 하이트진로,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국지엠, 한국프랜지공업, 한샘, 한온시스템, 한화케미칼, 해태제과식품, 현대로템,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화승알앤에이, 휴맥스, 희성전자, BGF리테일, CJ푸드빌, GS리테일(GS수퍼마켓), HDC현대산업개발, LS엠트론,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LS전선, OCI
보통 (19개사)	다스,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볼보그룹코리아, 서울반도체, 성우하이텍, 신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오비맥주, 코리아씨키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태광산업, 태평양물산, 파트론, 한국바스프, 한솔테크닉스, 홈플러스, DB하이텍, S&T모티브
미흡 (7개사)	덕양산업, 서연이화, 서연전자, 에코플라스틱, 이레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한솔섬유

*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동반성장위원회

그림 14 |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주무부처	인센티브 내용
기획재정부	•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신청(PQ) 가점 부여
법무부	•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거래위원회	• 최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R&D 사업참여시 우수등급 이상 기업 우대
동반성장위원회	•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4)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민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 28개 기관 평가를 시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평가대상을 총 2차례에 걸쳐 개정, 평가대상을 58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계량형 평가지표(18개)를 제시하고 중소 협력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4개 등급으로 발표하였다. 2018년 58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대외 공표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비계량 지표로써 3년간의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표 II-4-1-10 | 2018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

등 급	기 관 명(가나다순)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
우수 (7개)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양호 (22개)	가스공사, 수력원자력, 서부발전,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한전KDN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로교통 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 단지공단, 에너지공단,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보통 (21개)	광물자원공사, 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마사회, 부산 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 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 공단, 한국관광공사, 승강기 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원자력 환경공단, 인터넷진흥원, 철도 시설공단, 콘텐츠진흥원	코레일유통
개선 (8개)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5)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정보공유는 모든 영역에 있어 활동을 촉진한다.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은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사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DB화하여 자사 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도 쉽게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 6월 시범오픈 이후 2018년까지 1,722개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었으며, 이중 66.9%에 해당하는 510개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중소기업에게 개방되어 운영되었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자체 운영하는 상생협력 관련 사이트를 시스템에 연동하여 중소기업이 기업별 협력사 등록절차 및 신규거래 제안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웹 홍보물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생협력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상생누리라는 상생협력 종합 플랫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여 대기업, 공공기관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경쟁력 있는 잠재 협력사를 조기에 발굴하고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표 II-4-1-11 | 지원 범위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 ('18.12월말 기준)

(단위: 개, %)

구 분	지원 범위	등록	
		건수(개)	비율(%)
협력사 지원	기존 협력사	447	26.0%
계열사 오픈	기존 협력사 + 계열사 협력사	37	2.1%
부분 오픈	기존 협력사 + 미거래 기업(%)	86	5.0%
전체 오픈	모든 중소기업	1,152	66.9%
합 계		1,722	100%

표 II-4-1-12 |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 ('18.12월말 기준)

(단위: 개,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누적)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교 육	139	26.5	82	21.4	222	27.3	443	25.7
판 로	66	12.6	70	18.2	155	19.0	291	16.9
컨 설 팅	95	18.1	22	5.7	61	7.5	178	10.3
기 술	49	9.4	46	12.0	67	8.2	162	9.4
특 허	20	3.8	12	3.1	5	0.6	37	2.1
금 용	71	13.5	36	9.4	58	7.1	165	9.6
창 업	9	1.7	22	5.7	34	4.2	65	3.8
인 력	10	1.9	11	2.9	31	3.8	52	3.0
네트워킹	8	1.5	6	1.6	20	2.5	34	2.0
기 타	57	10.9	77	20.1	161	19.8	295	17.1
합 계	524	100	384	100	814	100	1,722	100

거래 관계에 있어 2차 이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 계획」 발표('14.11.17)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까지 총 운용액은 292조 2,888억 원, 구매기업은 357개(민간기업 308개, 공공기관 49개), 거래기업은 179,977개가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9개 은행이 상생결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하도급 기업 간에 상생결제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확산을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0.1%~0.2%)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다.

2018년에는 상생결제제도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및 상생결제 의무화 조항을 마련하였다.

표 II-4-1-13 |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총 운용액(억원)	245,931	666,643	935,991	1,074,323	2,922,888
구매기업-1차(억원)	242,716	658,026	925,797	1,061,231	2,887,770
1차 이하(억원)	3,215	8,617	10,194	13,092	35,118

표 II-4-1-14 | 상생결제제도 기업 규모별 실적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민간기업				공공기관	합 계	
	상호출자 제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계			
도입기업수(개)	126	165	17	308	49	357	
결 제 액	구매기업→1차사	2,516,352	329,513	5,655	2,851,520	36,250	2,887,770
	1차 이하	30,628	3,573	88	34,289	829	35,118
	합 계	2,546,980	333,086	5,743	2,885,809	37,079	2,922,888

(6)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 간에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최대 6년) 하거나 시설·품목·수량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근거하여 도입하였고, 2006년부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의 신청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확산되자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본격화하였다.

표 II-4-1-15 | 연도별 대형마트 및 SSM 출점(누계) 현황

(단위: 개)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대형마트	360	387	392	415	428	440	449	455	463
SSM	667	889	1,032	1,144	1,179	1,216	1,222	1,209	1,307

* 출처 : 체인스토어협회, 농협

2018년 말까지 총 971건 접수되어 956건(98.5%)이 처리되었고, 15건이 진행 중에 있다. 종료건 중 대부분이 자율조정으로 완료(757건, 79.2%) 하였고, 정부가 강제조정 권고한 건은 20건(2.1%)이다. 업종별 신청은 SSM이 717건(73.8%)으로 가장 많고, 대형마트가 110건(11.3%)이며, 생활용품판매,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등 기타업종이 144건(19.2%) 순이다.

2009년 사업조정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신청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대기업의 신입태 출현에 따라 신청업종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표 II-4-1-16 | 사업조정처리현황

(2018년 12월 기준)

구분	신청	조정 완료			반려	진행
		자율조정	조정권고	소계		
합계	971	757(78%)	20(2%)	777(80%)	179(18%)	15(2%)
대형마트	110	87(79.1%)	2(1.8%)	89(80.9%)	21(19.1%)	-
SSM	717	562(78%)	13(2%)	575(80%)	131(18%)	11(2%)
기타	144	108(75%)	5(3%)	113(78%)	27(19%)	4(3%)

표 II-4-1-17 | 연도별 사업조정 처리현황

(2018년 12월 기준)

연도	신청	조정완료						반려	진행중
		자율조정	합의타결	신청인철회	입점철회	조정권고	소계		
2009년	145	108	46	15	47	9	117	28	-
2010년	146	125	67	25	33	-	125	21	-
2011년	127	103	55	23	25	-	103	24	-
2012년	137	93	52	23	18	-	93	44	-
2013년	79	63	32	5	26	-	63	16	-
2014년	94	72	46	9	17	3	75	19	-

연도	신청	조정완료						반려	진행중
		자율조정	합의타결	신청인철회	입점철회	조정권고	소계		
2015년	68	56	38	6	12	1	57	11	-
2016년	47	37	36	-	1	1	38	9	-
2017년	69	55	43	7	5	6	61	5	3
2018년	59	46	29	7	10	-	46	2	11

* 사업조정 처리기간 2년 이내

정부의 강제적인 권고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당사자 간에 상생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사업조정 우수사례 〉

□ ○○마트 △△점 자율조정 사례

- 대기업이 창고형 할인점 형태로 대형마트 개점을 계획하자, 슈퍼조합이 골목슈퍼 소상공인 매출 하락 등 경영상 피해 우려를 이유로 사업조정 신청
 - 소상공인은 창고형 할인점이 동일상품을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판매하여 피해가 크다며 개점 연기를 요청한 반면, 대기업은 도매위주 판매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없다는 입장
 - 담당 조정관의 적극적 중재로 자율조정을 통해 공동구매 등 상생방안 마련하여 합의
 - 대기업의 구매력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상품을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골목슈퍼의 물품구입비 10%가량 절감
- * 대기업은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외에도 소상공인과 중복되는 일부 품목 판매제한 또는 대용량 판매, 무료 배달 제한 등 상생합의 ('18.1)

2011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 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시작하였고, 2018년까지 총 110개 업종·품목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동반 성장 위원회) 자율적 합의기반으로 운영되어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정부가 직접 업종·품목을 지정·운영하는 형태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대기업 사업 제한을 강제할 경우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의 검토를 선행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가 연구용역('17.4월)을 통해 적합업종 법제화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17.5월)하여 추진하였다.

2017년 국회에서도 적합업종 법제화 취지 법안이 다수 발의(4개 법안 / 이훈 의원, 정유섭 의원, 이현재 의원, 이언주 의원)된 바, 중기부는 동반위의 추천절차, 대기업 사업진출의 예외적 승인방안, 지정해제 절차 등을 포함한 법제화 방안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고, 국회에서 2018년 6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동 법률에서 위임하는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 예외적 승인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2018년 12월 13일자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영역 조정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는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자생력을 확보하여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업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제과점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 22개 업종·품목에서 15개 공동사업을 지원하였다.

제2절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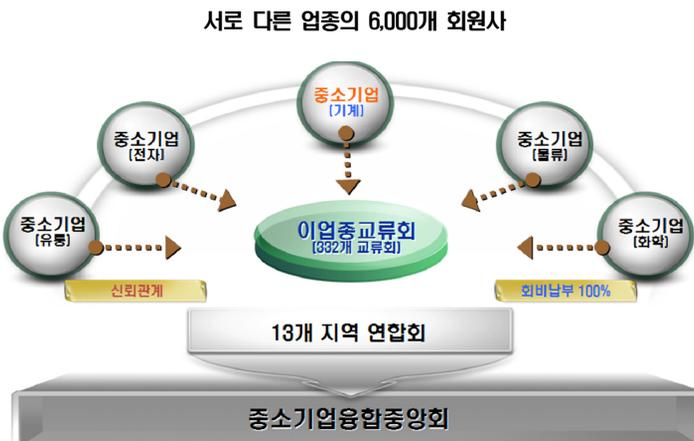
1 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 기술정책과 남 경 탁
- 기술개발과 황 조 인

가. 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

1994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 이업종교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교류지원부를 설치하여 이업종교류 지원업무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업종 단위교류회 신규결성 및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CEO포럼 등의 사업을 보조하고 매년 단위교류회 및 참여기업의 교류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전시하는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문화조성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5 |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구성



중소기업융합대전은 2004년부터 이업종교류회 소속 기업의 단합과 교류성과 공유를 위해 전국을 순회 개최하였던 중소기업 한마음대회를 2014년 정부의 융합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토록 중소기업융합대전으로 격상시켜 매년 기업 간 교류와 협력활동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수여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4-2-1 |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최기간	6.21	5.22~23	9.4~5	5.21~22	4.22~23	4.14~15	5.12~13	4.26~29	5.15~16	6.10~11
개최지역	대전 충남	제주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대구 경북	울산	강원
참가규모	290	400	550	550	1,100	1,200	1,400	1,560	1,558	1,800

표 II-4-2-2 |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최기간	9.26-27	10.28	10.19	10.23	10.30
개최지역	천안	대전	서울	익산	대전
참가규모	1,500	1,000	1,000	1,000	714



중소기업융합대전 개막식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개회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축사



대통령표창 수여



국무총리표창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수여

나. 기술혁신센터 지원

실리콘 벨리는 혁신 창업가, 대학, 연구소 등이 잘 어우러져 전세계 혁신창업을 주도하는 창업의 메카이다. 판교테크노벨리는 IT, BT, CT, NT 및 첨단 융합 기술관련 국가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하여 첨단 기술단지를 조성하여 관련분야 중소기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곳이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월 판교에 대학·연구기관 전문인력을 집적시킨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산업생태계 중심 R&D 및 인적교류 기반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업 간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등과 공동 R&D 기획 및 수행 등을 위해 개방형 사무공간 제공, 다양한 기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기술상담 및 특허·법률 상담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력 R&D 연계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협력R&D 연계지원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5개 증가한 총 25개 과제이다.

표 II-4-2-3 | 협력 R&D 연계지원 실적

(단위: 개)

연도	기계 소재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학	지식 서비스	합계
2017	6	5	2	2	1	4	-	20
2018	3	11	3	3	2	2	1	25

지난해인 2018년에는 총 168개 기업에게 개방형 사무공간을 제공했으며, 총 589건의 기술상담 중 2건의 기술이전을 완료하였다. 기타 교류 프로그램은 총 29회, 1,490명이 참석하였으며, 지속적인 협력기관 모집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표 II-4-2-4 | 교류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회, 명)

연도	포럼		기술세미나		마켓		네트워킹		합계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2017	8	292	23	927	8	550	6	145	45	1,914
2018	14	363	8	414	3	120	4	593	29	1,490

2

포용적 동반성장 확대

- 정책총괄과 김 영 철
- 소상공인혁신과 임 영 주

1. 여성기업 육성 정책

가. 여성기업 일반현황 및 정책개요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수는 '16년 기준 약 1,433천개로 전체 기업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분포는 숙박·음식업이 31.4%, 도·소매업이 29.0%로 주로 경쟁포화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5.9%에 불과하다.

표 II-4-2-5 | 여성기업 현황

(단위 : 천개사,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기업	3,125	3,235	3,354	3,419	3,545	3,604	3,676
여성기업	1,204	1,254	1,306	1,336	1,378	1,394	1,433
비율	38.5	38.8	38.9	39.1	38.9	38.7	39.0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가공

표 II-4-2-6 | 여성기업 주요 업종별 현황(2016년)

(단위 : 천개사, %)

연도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전체기업	727(19.8)	1,010(27.5)	308(8.4)	154(4.2)	413(11.2)
여성기업	450(31.4)	416(29.0)	165(11.5)	89(6.2)	85(5.9)
비율(%)	61.9	41.2	53.6	57.8	20.6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가공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원활한 창업 지원과 여성기업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기하고자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정부는 다양한 여성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실태조사’(2년마다 실시, 2003년부터 「통계법」에 따라 지정통계로 승인), 국내외 여성기업 관련 통계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나. 여성기업 지원 정책

1) 여성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창업보육공간(19년 기준 총 225개실)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였으며, 유망 여성 창업·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2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여성전용 벤처펀드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 여성기업 판로 촉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여성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14년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공공구매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년 대비 0.67조원(6.7%)이 증가한 10.6조원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여성기업 확인기업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II-4-2-7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 체	113.0	111.5	119.2	116.9	123.4	123.4
여 성	4.48	5.49	7.14	8.34	9.91	10.58
비율	4.0	4.9	6.0	7.1	8.0	8.6

표 II-4-2-8 |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청	8,767	10,080	10,683	11,723	14,409
발급	7,467	8,153	9,242	10,450	12,541
누적	14,427	19,809	24,337	27,601	31,689

아울러,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통해 방송 등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에 맞추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수출실무교육, 전문가 컨설팅,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여성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3) 여성기업 인력 등 지원

2017년부터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 가능한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를 통해 여성기업의 전문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CEO 등 여성경제인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국내·외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 교육 과정,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과정, 세계여성경제인대회 등 국제 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등도 지원하였다.

아울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여성경제인 DESK(9개 센터)를 설치하여 경영 전략·마케팅·수출 등 분야별 전문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4) R&D, 금융 등 지원

여성기업들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전용 R&D 및 여성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R&D나 정책자금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II-4-2-9 | 여성기업 R&D, 정책자금, 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전체	여성기업	비율	전체	여성기업	비율
R&D	10,222	490	4.8	10,353	509	4.9
정책자금	46,661	5,133	11.0	44,150	4,675	10.6
보증	520,091	29,735	5.7	522,977	31,109	5.9

5)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

여성기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관련 통계 DB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가. 장애인기업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은 2018년 말 등록을 기준으로 총 인구의 4.9%인 258만 명이며 2018년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249만 명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0%로 전체 인구 63.9%에 비해 58% 수준이고, 고용률은 34.5% 전체 인구 61.3%로 56% 수준이며, 실업률도 6.6%로 전체 인구 4.0%에 비해 약 1.6배 정도 높아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4-2-10 | 연도별 장애인 현황

(단위: 만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인구	5,114	5,133	5,153	5,170	5,178	5,183
장애인구	250	249	249	251	254	258
비율(장애인구/총인구)	4.89	4.85	4.83	4.85	4.85	4.98

자료: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표 II-4-2-11 | 장애인 경제활동 동향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14년	장애인	2,449	970	39.6	37.0	6.6
	전체 인구	42,453	26,762	63.0	60.8	3.6
2015년	장애인	2,444	922	37.7	34.8	7.9
	전체 인구	42,975	27,211	63.3	60.9	3.8
2016년	장애인	2,441	941	38.5	36.1	6.5
	전체 인구	43,387	27,455	63.3	61.0	3.7
2017년	장애인	2,460	953	38.7	36.5	5.7
	전체 인구	43,735	27,828	63.6	61.3	3.6
2018년	장애인	2,495	922	37.0	34.5	6.6
	전체 인구	44,141	28,184	63.9	61.3	4.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2018년 5월 기준)

2017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체수는 3.9만 여개로 총 사업체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92.7%)이 소상공인이고 평균 기업체 종사자수는 2.93명, 그 중 장애인 종사자는 평균 1.06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 기업규모 : 중기업 460개(1.1%), 소기업 2,458개(6.2%), 소상공인 37,049개(92.7%)

표 II-4-2-12 | 장애인기업 업종별 분포

(단위 : %)

구 분	도·소매	개인서비스	제 조	숙박·음식업	기타
분 포	30.0	20.9	20.0	15.1	14.0

자료 : 2017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장애인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일반기업에 비해 크게 높아 장애인기업이 장애인의 소득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2-13 |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 %)

구 분	정부기관 ¹⁾	공공기관 ¹⁾	민간기업 ¹⁾	장애인기업 ²⁾
고 용 률	2.70	2.65	2.11	36.3

주 : 1)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내부자료(2017년 12월 말 기준)

2) 2017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결과

나.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장애인기업도 더불어 잘 사는 경제실현을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다. 2005년 7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2006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2008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장애인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장애인을 경제 주체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고용창출의 안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체계적 지원으로 늘어나는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장애인구 증가(만명) : (2015) 249 → (2016) 251 → (2017) 254 → (2018) 258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 연도〉

* 장애인기업수 : (2011) 32,685개 → (2013) 34,761개 → (2015) 39,536개 → (2017) 39,967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2017〉

우선, 창업교육은 장애 정도와 유형, 경제활동 경력 및 전문기술 보유 여부 등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을 강화를 위하여 창업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교육 신설하였으며, 2018년에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보다 용이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또한 정부 기초,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8대 선도사업 중 장애인 창업이 용이한 아이템의 특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특화교육과정 : ICT 기술창업, 영농창업(곤충, 버섯, 팜세어)

창업초기 장애인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와 장애경제인의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표 II-4-2-14 | 연도별 장애인 창업지원 현황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맞춤형 장애인 창업교육	기초 763명 특화 190명 인턴 134명	기초 635명 특화 229명 역량 112명	기초 633명 특화 168명 역량 183명	기초 719명 특화 262명 역량 136명 재기 40명	기초 790명 특화 351명 역량 95명 재기 36명 수출 34명 폐업 94명	기초 916명 특화 172명 역량 112명 재기 52명 코칭 139명 창업컨설팅 162명
장애인기업 CEO 교육/연수/세미나	5회, 222명	5회, 200명	4회, 146명	4회, 153명	4회, 162명	8회, 226명
장애인 점포지원	23개 점포	8개 점포*	32개 점포	35개 점포	43개 점포	32개 점포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						90명 (청년 38명)

* '14년은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회수된 보증금으로 8개 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최적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창업점포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215개 점포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그간 지원된 보증금의 상환(회수)되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 32개 점포를 지원하였다.

그간 창업점포지원을 통해 창업한 사업자의 영업지속률에 대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일반사업체 대비 약 2배가량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II-4-2-15 | 창업점포지원 사업수혜업체와 일반사업체 비교

기 준 연 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창업 연도	점포 수혜자1)	일반 기업2)									
2016년	(2015년)	90.6%	65.3%	(2014년)	75.0%	50.7%	(2013년)	69.6%	41.5%	(2012년)	76.2%	33.5%
2015년	(2014년)	87.5%	62.7%	(2013년)	82.6%	49.5%	(2012년)	81.0%	39.1%	(2011년)	61.9%	32.8%
2014년	(2013년)	95.7%	62.4%	(2012년)	81.0%	47.5%	(2011년)	76.2%	38.8%	-	-	-
2013년	(2012년)	100.0%	60.1%	(2011년)	76.2%	47.3%	-	-	-	-	-	-
2012년	(2011년)	95.2%	59.8%	-	-	-	-	-	-	-	-	-

- 주 : 1) 창업점포 수해자('11년 21명, '12년 21명, '13년 23명, '14년 8명, '15년 32명) 국세청 사업자등록 현황조회
2) 2017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준 연도별 신생기업 생존율(2018.12.10., 통계청)

아울러 2018년부터는 창업초기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초도 물품비,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90명의 창업자를 배출하였으며, 이중 청년창업자가 38명으로 청년 실업률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장애인기업의 자립·성장기반 구축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08년 1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역센터(132개 창업보육실, 2개 창업준비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역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 분야의 애로상담 및 정책안내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표 II-4-2-16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주요시설	장애인 창업보육실, 강의실, 경영애로상담실 및 회의실, 편의시설 등
주요사업	장애인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관련 창업부터 판로까지 지원

표 II-4-2-17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현황

소재지	규모(㎡)	설치일자	설치내역	보육실 수
중앙센터(본관)	2,135	2008. 1	보육실(14개), 재단사무처 등	14개사
대구	503	2008.12	보육실(6개), 회의실 등	6개사
광주	527	2008.12	보육실(9개), 창업준비실, 회의실 등	9개사
부산	686	2009. 5	보육실(9개), 창업준비실, 회의실 등	9개사
대전	420	2009. 7	보육실(6개), 회의실 등	6개사
경기	663	2010.11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인천	313	2012. 7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경남	298	2012.11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소재지	규모(㎡)	설치일자	설치내역	보육실 수
울산	429	2012.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전북	322	2013.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강원	310	2013.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제주	268	2013.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전남	333	2014.11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충북	326	2014.11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경북	412	2015.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충남	370	2015.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8개사

3) 장애인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보 지원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2008년 3월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기업 물품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2016.7월에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목표 설정 시 그간 전체 구매액의 0.45%로 운영하였던 것을 전체 구매액의 1%로 구매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장애인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장애인기업 확인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연평균 22.9%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8년 총 2,533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16년 대비 362건(16.7%) 증가하였다.

표 II-4-2-18 | 연도별 장애인기업 확인현황

(단위 : 건)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청	1,263	1,699	1,746	2,081	2,171	2,533
발급	969	1,300	1,414	1,764	1,712	2,132
누적	1,765	2,269	2,714	3,191	3,490	3,839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2016년도에는 1.1%(1.3조원), 2017년도에는 1.2%(1.5조원), 2018년도에는 1.4%(1.7조원)를 달성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4-2-19 |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구매액	6,826억원	7,959억원	10,899억원	13,231억원	15,406억원	17,677억원
공공기관 수	516개	740개	765개	775개	788개	836개

또한 장애인기업에게 국내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여 2017년에는 133개사에서 36,894백만 원, 2018년에는 525개사에서 55,900백만 원을 낙찰 받는데 성공하였다.

2018년에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장애인기업 총 8개사를 선정, UAE(두바이)에 파견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 중동지역 본부와 SCHS(UAE 장애인기관) 등의 현지 유관기관과 장애인기업 중동지역 판로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 대상 현지 수출동향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하여 총 67만\$의 수출계약액을 달성하였으며,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온라인마케팅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등의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을 통하여 470만\$의 수출금액을 달성하였다.

2019년에는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UAE(두바이)와 베트남(호치민)에 각 1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3절 지역 중소기업 육성

1 지역 중소기업 현황

- 지역혁신정책과 강 효 민

가. 지역 경제동향

2017년 시도 전체의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은 1,732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90조원(5.5%) 증가하였다. 시도별 규모는 경기(414조원), 서울(372조원), 충남(124조원) 순이며, 제주(18조원)가 가장 적었다. 2017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수도권(7.0%)이 비수도권(3.9%)보다 높으며, 처음으로 수도권의 비중(50.3%)이 비수도권(49.7%)을 넘어섰다.

표 II-4-3-1 |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지역내 총생산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565,247,799	1,641,957,177	1,731,544,802	100.0	5.5
- 수도권	772,957,747	813,628,195	870,508,429	50.3	7.0
- 비수도권	792,290,052	828,328,982	861,036,373	49.7	3.9
서울	344,426,006	359,439,923	372,110,001	21.5	3.5
부산	78,238,069	81,263,509	83,298,746	4.8	2.5
대구	48,868,979	49,757,726	50,796,020	2.9	2.1
인천	75,674,836	80,859,230	84,059,372	4.9	4.0
광주	32,516,321	33,921,753	35,371,125	2.0	4.3
대전	34,061,848	35,944,729	37,303,243	2.2	3.8
울산	69,673,899	72,197,266	75,079,413	4.3	4.0
경기	352,856,905	373,329,042	414,339,056	23.9	11.0
강원	39,565,560	41,738,165	43,651,235	2.5	4.6
충북	52,655,723	56,660,887	61,314,417	3.5	8.2
충남	111,265,147	117,074,893	124,419,192	7.2	6.3
전북	45,641,149	46,894,601	48,613,179	2.8	3.7
전남	65,454,234	68,576,688	71,224,017	4.1	3.9
경북	94,987,663	99,350,979	102,969,639	5.9	3.6
경남	103,995,403	107,961,643	108,973,425	6.3	0.9
제주	15,366,057	16,986,143	18,022,722	1.0	6.1

주 : 세종특별자치시는 과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충북 및 충남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지역소득

2018년 전국 경제활동인구는 27,895천명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7,058천명), 서울(5,335천명), 경남(1,801천명) 순으로 많으며, 울산(602천명), 제주(379천명), 세종(152천명)은 적은 편에 속했다. 세종이 전년대비 15.2%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부산이 가장 큰 비율(2.1%)로 감소하였다.

표 II-4-3-2 |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경제활동인구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27,418	27,748	27,895	100.0	0.5
- 수도권	13,737	13,956	14,038	50.3	0.6
- 비수도권	13,681	13,792	13,857	49.7	0.5
서울	5,372	5,396	5,335	19.1	-1.1
부산	1,754	1,766	1,729	6.2	-2.1
대구	1,301	1,291	1,282	4.6	-0.7
인천	1,598	1,607	1,645	5.9	2.4
광주	753	766	779	2.8	1.7
대전	800	791	792	2.8	0.1
울산	599	605	602	2.2	-0.5
세종	-	132	152	0.5	15.2
경기	6,767	6,953	7,058	25.3	1.5
강원	771	811	812	2.9	0.1
충북	867	880	898	3.2	2.0
충남	1,266	1,174	1,216	4.4	3.6
전북	960	944	940	3.4	-0.4
전남	994	988	988	3.5	0.0
경북	1,490	1,488	1,488	5.3	0.0
경남	1,763	1,775	1,801	6.5	1.5
제주	363	382	379	1.4	-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년 전국 실업률은 3.8%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다. 시도별 실업률은 서울(4.8%), 울산(4.6%), 대구(4.4%) 순으로 높으며, 충북(2.4%), 세종(2.3%), 제주(2.0%)는 낮은 편에 속했다. 경북과 광주가 각각 전년대비 1.3%p, 0.9%p 증가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부산과 전남이 각각 0.5%p, 0.4%p 감소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표 II-4-3-3 | 지역별 실업률

(단위 : %, %p)

구분	2016	2017		2018	
		실업률(%)	전년대비 증가(%p)	실업률(%)	전년대비 증가(%p)
전국	3.7	3.7	-	3.8	0.1
서울	4.2	4.5	0.3	4.8	0.3
부산	3.9	4.6	0.7	4.1	-0.5
대구	4.1	4.0	-0.1	4.4	0.4
인천	4.9	4.6	-0.3	4.3	-0.3
광주	3.1	2.9	-0.2	3.8	0.9
대전	3.2	3.4	0.2	4.2	0.8
울산	3.8	3.5	-0.3	4.6	1.1
세종	-	2.3	-	2.3	0.0
경기	3.9	3.9	0.0	3.8	-0.1
강원	2.8	2.6	-0.2	2.9	0.3
충북	2.6	2.2	-0.4	2.4	0.2
충남	3.2	2.8	-0.4	3.1	0.3
전북	2.1	2.5	0.4	2.7	0.2
전남	3.0	3.2	0.2	2.8	-0.4
경북	3.2	2.8	-0.4	4.1	1.3
경남	3.3	2.9	-0.4	3.0	0.1
제주	2.2	1.9	-0.3	2.0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지역 중소기업 현황

1)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17년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경기(825,738개), 서울(775,474개), 부산(269,017개) 순으로 많으며, 제주(55,097개), 세종(12,322개)은 적은 편에 속했다. 2017년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세종과 제주가 각각 전년대비 15.1%, 4.2%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수도권의 사업체수 비중은 58.4%로 비수도권(41.6%)과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I-4-3-4 |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단위 : 개, %)

구분	2015	2016	2017		
			사업체수	비중	전년대비증가율
전국	3,600,882	3,672,327	3,732,997	100.0	1.7
- 수도권	2,106,292	2,147,327	2,181,662	58.4	1.6
- 비수도권	1,494,590	1,525,000	1,551,335	41.6	1.7
서울	774,363	773,860	775,474	20.8	0.2
부산	262,346	266,651	269,017	7.2	0.9
대구	189,494	194,387	198,000	5.3	1.9
인천	174,407	179,718	184,450	4.9	2.6
광주	105,060	107,364	109,295	2.9	1.8
대전	103,727	105,013	106,949	2.9	1.8
울산	75,843	77,901	78,671	2.1	1.0
세종	9,462	10,709	12,322	0.3	15.1
경기	778,534	804,975	825,738	22.1	2.6
강원	120,212	122,891	125,869	3.4	2.4
충북	110,972	114,195	115,330	3.1	1.0
충남	143,696	146,792	150,783	4.0	2.7
전북	130,413	131,323	131,505	3.5	0.1
전남	129,389	131,862	134,861	3.6	2.3
경북	199,643	203,144	206,151	5.5	1.5
경남	243,063	248,672	253,485	6.8	1.9
제주	50,258	52,870	55,097	1.5	4.2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재편·가공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24.2%), 서울(23.0%), 부산(7.0%) 순으로 높으며, 울산(2.2%), 제주(1.2%), 세종(0.3%)은 낮은 편에 속했다.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서울, 울산, 전북, 경북,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세종이 전년대비 13.0%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반면, 울산은 가장 큰 비율(3%)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수도권 비중은 52.2%이며, 수도권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1.1%)도 비수도권(0.7%)보다 높았다.

표 II-4-3-5 |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수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종사자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5,127,047	15,392,246	15,527,605	100.0	0.9
- 수도권	7,921,828	8,018,404	8,104,239	52.2	1.1
- 비수도권	7,205,219	7,373,842	7,423,366	47.8	0.7
서울	3,637,052	3,599,169	3,575,057	23.0	-0.7
부산	1,052,248	1,080,723	1,083,571	7.0	0.3
대구	693,816	717,631	722,471	4.7	0.7
인천	743,130	754,599	771,855	5.0	2.3
광주	407,584	429,696	436,530	2.8	1.6
대전	399,876	409,280	415,648	2.7	1.6
울산	347,298	349,643	339,177	2.2	-3.0
세종	44,544	47,732	53,934	0.3	13.0
경기	3,541,646	3,664,636	3,757,327	24.2	2.5
강원	390,201	399,666	412,073	2.7	3.1
충북	457,250	470,699	478,468	3.1	1.7
충남	585,239	604,484	617,878	4.0	2.2
전북	454,034	458,893	456,148	2.9	-0.6
전남	455,996	458,583	464,658	3.0	1.3
경북	736,415	747,085	745,626	4.8	-0.2
경남	998,734	1,009,956	1,005,148	6.5	-0.5
제주	181,984	189,771	192,036	1.2	1.2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재편·가공

2) 신설법인

2018년 지역별 신설법인 수는 서울(32,355개), 경기(25,285개), 부산(4,893개) 순으로 많으며, 제주(1,372개), 울산(1,346개), 세종(574개) 등이 적은 편에 속했다. 부산, 광주, 울산, 충남, 경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전남이 전년대비 13.2% 증가하여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반면 충남은 가장 큰 비율(4.9%)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신설법인의 수도권 비중은 60.8%이며, 수도권 신설법인의 전년대비 증가율(4.6%)도 비수도권(2.5%)보다 높았다.

표 II-4-3-6 | 지역별 신설법인 수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2018		
			신설법인 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96,155	98,330	102,042	100.0	3.8
- 수도권	59,057	59,298	62,018	60.8	4.6
- 비수도권	37,098	39,032	40,024	39.2	2.5
서울	31,498	30,900	32,355	31.7	4.7
부산	4,814	4,907	4,893	4.8	-0.3
대구	2,959	3,061	3,157	3.1	3.1
인천	4,099	4,073	4,378	4.3	7.5
광주	3,199	3,803	3,715	3.6	-2.3
대전	2,266	2,238	2,359	2.3	5.4
울산	1,416	1,390	1,346	1.3	-3.2
세종	504	569	574	0.6	0.9
경기	23,460	24,325	25,285	24.8	3.9
강원	1,792	2,038	2,139	2.1	5.0
충북	2,375	2,404	2,530	2.5	5.2
충남	3,203	3,454	3,284	3.2	-4.9
전북	2,799	2,967	3,199	3.1	7.8
전남	2,905	3,214	3,637	3.6	13.2
경북	3,407	3,690	3,858	3.8	4.6
경남	3,896	3,985	3,961	3.9	-0.6
제주	1,563	1,312	1,372	1.3	4.6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3) 벤처기업

2018년 지역별 벤처기업 수는 경기(11,307개), 서울(8,708개), 부산(2,301개) 순으로 많으며, 울산(469개), 제주(182개), 세종(108개) 등이 적은 편에 속했다. 대구,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세종은 가장 큰 비율인 20%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2018년 벤처기업수의 수도권 비중은 58.9%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벤처기업수의 전년대비 증가율도 6.5%로 비수도권(1.5%)과 큰 격차를 보였다.

표 II-4-3-7 | 지역별 벤처기업 수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2018		
			벤처기업 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33,360	35,282	36,820	100.0	5.2
- 수도권	19,289	20,377	21,695	58.9	6.5
- 비수도권	14,071	14,905	15,125	41.1	1.5
서울	7,536	8,180	8,708	23.7	6.5
부산	2,186	2,240	2,301	6.2	2.7
대구	1,556	1,689	1,622	4.4	-4.0
인천	1,510	1,544	1,680	4.6	8.8
광주	781	834	842	2.3	1.0
대전	1,243	1,305	1,426	3.9	9.3
울산	464	498	469	1.3	-5.8
세종	83	90	108	0.3	20.0
경기	10,243	10,653	11,307	30.7	6.1
강원	616	665	695	1.9	4.5
충북	948	1,014	1,033	2.8	1.9
충남	1,158	1,304	1,354	3.7	3.8
전북	740	756	769	2.1	1.7
전남	670	753	780	2.1	3.6
경북	1,672	1,705	1,729	4.7	1.4
경남	1,791	1,871	1,815	4.9	-3.0
제주	163	181	182	0.5	0.6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현황

4) 중소기업 매출액 및 수출액

2017년 중소기업 매출액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26.3%), 서울(23.5%), 부산(6.9%) 순으로 높으며, 강원(1.9%), 제주(1.0%), 세종(0.3%) 등이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의 수도권 비중은 54.9%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중소기업 매출액은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충남이 전년대비 9%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표 II-4-3-8 | 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단위 : 억원, %)

지역별	2015	2016	2017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23,299,796	24,169,863	25,362,164	100.0	4.9
- 수도권	12,812,318	13,267,097	13,931,207	54.9	5.0
- 비수도권	10,487,479	10,902,766	11,430,958	45.1	4.8
서울	5,773,644	5,836,446	5,957,315	23.5	2.1
부산	1,626,423	1,670,689	1,737,779	6.9	4.0
대구	987,680	1,026,147	1,065,716	4.2	3.9
인천	1,173,401	1,226,795	1,300,225	5.1	6.0
광주	602,836	638,030	674,954	2.7	5.8
대전	523,354	544,614	578,405	2.3	6.2
울산	512,252	516,925	510,601	2.0	-1.2
세종	73,272	81,648	87,593	0.3	7.3
경기	5,865,273	6,203,856	6,673,667	26.3	7.6
강원	427,777	461,575	493,331	1.9	6.9
충북	740,439	776,481	836,258	3.3	7.7
충남	978,800	1,029,946	1,122,542	4.4	9.0
전북	611,368	635,045	658,513	2.6	3.7
전남	583,973	605,674	630,242	2.5	4.1
경북	1,126,911	1,175,186	1,225,150	4.8	4.3
경남	1,481,812	1,500,313	1,555,656	6.1	3.7
제주	210,582	240,493	254,218	1.0	5.7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재편·가공

2018년 중소기업 수출액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32.7%), 서울(26.0%), 부산(6.5%) 순으로 높으며, 강원(0.7%), 제주(0.2%), 세종(0.2%)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수도권 비중은 64.4%로 비수도권(35.6%)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울산, 세종, 충남,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중소기업 수출액이 증가하였고, 제주가 가장 큰 비율(27.3%)로 증가, 세종이 가장 큰 비율(29.4%)로 감소하였다.

표 II-4-3-9 |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액

(단위 : 달러, %)

지역별	2016	2017	2018		
	중소기업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99,524,283,381	103,209,386,764	105,196,003,174	100.0	1.9
수도권	64,062,996,062	66,667,408,268	67,746,831,788	64.4	1.6
비수도권	35,461,287,319	36,541,978,496	37,449,171,386	35.6	2.5
서울	27,415,064,293	26,552,808,927	27,335,594,362	26.0	2.9
부산	6,499,620,910	6,774,223,018	6,842,548,610	6.5	1.0
대구	3,558,967,093	3,553,296,808	3,772,688,544	3.6	6.2
인천	6,140,384,828	5,781,385,422	6,021,696,734	5.7	4.2
광주	787,434,840	929,998,603	957,626,949	0.9	3.0
대전	1,053,406,890	1,072,107,291	1,121,331,706	1.1	4.6
울산	1,224,105,530	1,118,718,848	1,102,151,634	1.0	-1.5
세종	287,743,305	251,628,469	177,609,114	0.2	-29.4
경기	30,507,546,941	34,333,213,919	34,389,540,692	32.7	0.2
강원	609,757,160	640,332,602	713,526,687	0.7	11.4
충북	2,619,706,078	2,582,157,407	2,922,760,087	2.8	13.2
충남	5,355,222,564	5,384,040,982	5,170,116,876	4.9	-4.0
전북	1,053,174,267	1,171,211,610	1,261,879,565	1.2	7.7
전남	994,527,061	1,440,057,335	1,230,630,319	1.2	-14.5
경북	4,767,470,307	4,935,827,940	5,306,194,322	5.0	7.5
경남	6,524,969,453	6,536,348,003	6,676,626,879	6.3	2.1
제주	125,181,861	152,029,580	193,480,094	0.2	27.3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통계

2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 기획총괄과 남 현 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일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

1) 규제자유특구 신청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가 신설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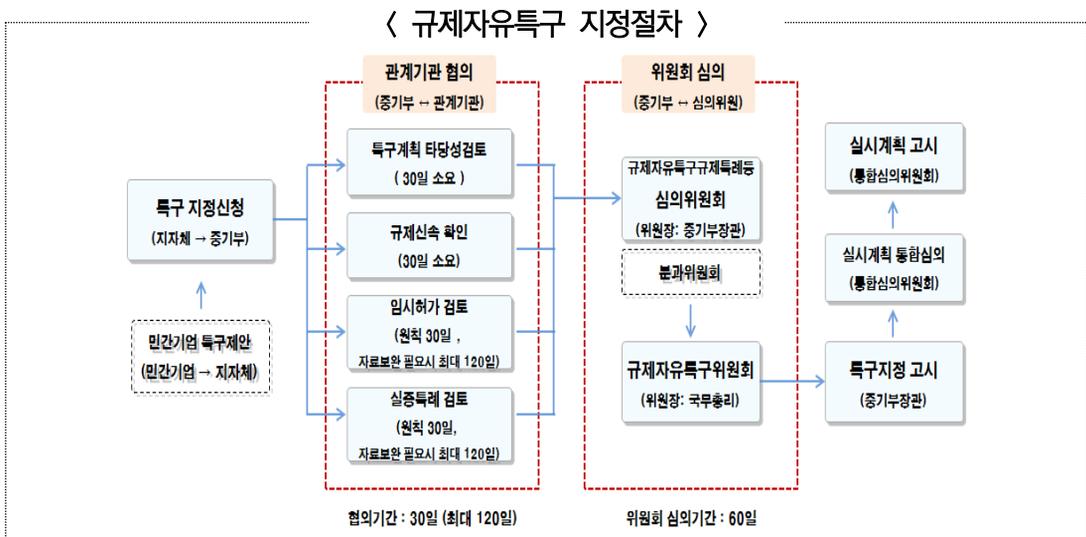
* 지역혁신성장사업 :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 지역전략산업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이 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부담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2)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체계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사업계획은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검토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규제개혁, 혁신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에 시·도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계도 강화된다.



3)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먼저, 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기업들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법에 열거되어 있는 특례들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특화특구	규제자유특구
메뉴판식 특례	128개 적용	201개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적용 :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또,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법령정비 될 때 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 기회를 갖게 된다.

〈 규제혁신 3종 세트 〉

- * (규제 신속확인)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도지사에게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 * (실증을 위한 특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 (임시허가)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다.

4)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장치 마련

규제자유특구에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규정하였다.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사업을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

나. 규제자유특구 시행시 기대효과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 등 3가지 목적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먼저,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확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 발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하여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진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존 규제에 의해 사업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 주요 운영방향 및 향후 계획

2019년 4월 법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연구, 산업기반 등 혁신성장자원을 활용한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통해 검증된 규제특례는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신사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문제간의 균형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3

지역 특화산업 육성

▪ 지역기업육성과 이 철 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시·도, 시·군·구에 특화된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

1995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되어 오던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은 광역 시·도 단위의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지역전략산업육성 사업이 종료(1999~2012년)됨에 따라 기존 시·군·구 중심의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은 유지하되, 지역전략산업을 광역 시·도 단위의 수요와 집적도, 특화도 및 육성의지를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으로 개편하여 지역 특화산업육성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13년부터 현재의 사업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표 II-4-3-10 |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구 분	1999~2002년 (국민의 정부)	2003~2007년 (참여정부)	2008~2012년 (이명박정부)	2013~2016년 (박근혜정부)	2017~ (문재인 정부)
시·도	전략산업 : 4개 지역 1단계 (1999~2003년)	전략산업 : 4개 지역 2단계 (2004~2008년)	Post 4+9 지역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역연고산업육성	
	전략산업 : 9개 지역 1단계 (2002~2007년)				
시·군·구	지역 특화산업(1995년~, 연고산업 중심)				

동 사업은 2017년 7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 기업부로 사업이 이관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신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0월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제조업 중심 63개 지역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의 48개 산업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표 II-4-3-11 | 지역주력산업현황

사도	주력산업	사도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이 지역 경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기부와 14개 시·도가 협업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과제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종합관리 등을 담당하고, 광역 시·도에 13개 지역사업평가단을 운영, 현장밀착형 과제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사업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림 16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사업과 디자인, 기술지도, 마케팅 등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비R&D사업으로 구분되며, R&D 사업은 크게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에서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은 시·도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평균 지원액 2억 원당 1명의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주력산업 기술개발사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창의성과 융합성이 우수한 R&D 과제를 지원하는 ‘융복합R&D’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시·군·구 지역 내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폴뿌리기업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지원을 통해 시·군·구 소재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 중에 있다.

2017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 시행계획인 ‘2018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에 415개 과제 802억 원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57개 과제 240억 원을 지원하여, 총 472개 과제에 1,042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에 순신규고용* 1,278명을 창출하였고, 제품 개발을 통해 발생한 사업화매출액은 3,441억 원으로 정부 지원금 10억 원당 31.1억 원의 사업화 매출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순신규고용 : 본 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에 사업의 기여율을 반영

표 II-4-3-12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성과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 산	1,708	1,595	1,105
고용 (순신규고용)	1,421	1,436	1,278
사업화매출액	2,382	3,088	3,441

'18년부터는 신규 과제 선정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으며, 정부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첫걸음기업’ 및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를 통해 정부 지원 소외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사업의 선정방식을 「先투자 → 後정부지원」 형태로 전환하여, TIPS, VC, 엔젤 등 민간 투자기업에게는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 중에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기획 및 개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기업(ESP)의 참여도 우대 중에 있다.

한편, '18년부터는 주력산업 기술개발사업의 국비 2억 원당 1명의 신규 고용 창출 의무 조건을 ‘청년 고용 의무’ 조건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II-4-3-13 | 2018년 사업 개선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평가지표 중 '고용' 관련 배점	10점	'중소기업 고용영향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20점 배점 (일자리의 양질 각 10점)
일자리 안정자금 가점	해당없음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에 가점 5점 부여
첫걸음기업 가점	해당없음	정부 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가점 5점 부여
민간 투자기업 가점	해당없음	TIPS, VC, 엔젤 등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가점 5점 부여
기술전문기업 참여 확대	해당없음	기술전문기업(ESP)이 참여기관으로 참여시 민간부담 의무 면제
신규고용 의무조건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 의무	국비 2억원당 1명 청년 고용 의무 조건으로 전환

2019년에는 사업 일몰에 따라 신규과제 없이 약 473억 원의 예산으로, 188개 기술 개발 과제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및 지역 스타 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후속사업을 기획하여 '20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및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분야 지역기업에 기술지원·지도, 사업화지원(디자인,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고하여 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2015년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8년부터는 성장성이 높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스타기업'을 지자체 주도로 선정하여 전담 PM 매칭을 통한 성장전략 수립부터 마케팅, 기술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종합 제공,

글로벌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기업의 수출유망제품 지원을 위해 수출전문가 컨설팅, 전문무역상사 활용 해외바이어 연계 등 사업화신속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역이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조선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을 추진하여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려 노력하였으며,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하여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을 지원하였다. 한편, 중앙의 지역 산업육성정책과 지역의 산업 기획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전국의 18개 테크노파크의 기획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과 14개 시·도가 함께 연차별 실행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산업육성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18년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주력산업 기업지원 176개 과제(305억 원), 사업화신속 지원 17개(102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5개(20억 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 35개(112억 원) 등 총 284개 과제에 799억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3,500개사 대상 7,500여건의 혁신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의 순신규고용 1,212명을 창출하였으며, 789억 원의 사업화매출액을 창출하였다. 또한, 수출유망기업 1,169개사 발굴, 수출새싹기업 142개사 지원으로 수출액 5.5백만 불을 달성하는 등 지역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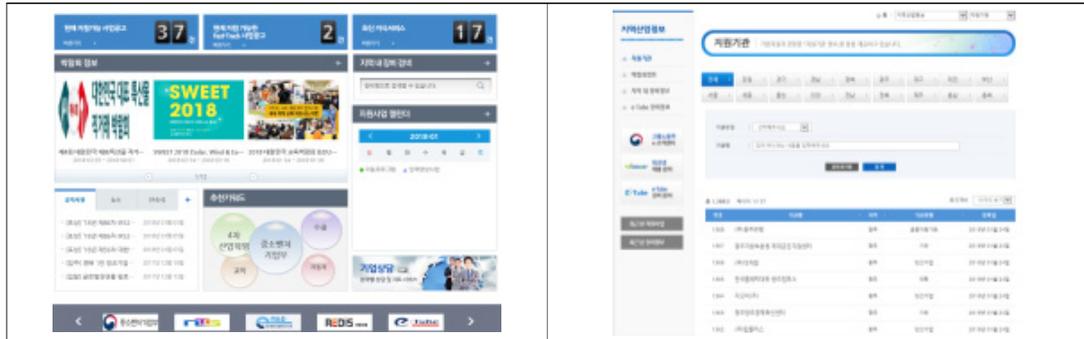
표 II-4-3-14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BIR&D) 성과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 산	1,018	835	799
고용 (순신규고용)	1,465	1,264	1,212
사업화매출액	665	802	789

한편, 2016년부터는 지역산업 현황 및 정부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을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 중에 있으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의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성과분석 및 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17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RIPS 공고현황 및 박람회 정보

지역별 지원기관 및 역할정보

2019년에는 834억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할 약 200개의 지역혁신기관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4천여 개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화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며, 특히, 18년 ‘지역 스타기업’으로 기선정된 기업 중 성장가능성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R&D연계지원을 추진하여 지역기업 성장기반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내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성장대상 기업을 발굴, 자율적으로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도 기획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업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관에 대한 정책기획 기능과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을 지원하는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향후 지역 내 테크노파크 기능을 재정립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4 지역특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지역특구과 정 익 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제도를 '04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역특화특구는 직접적인 재정·세제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 부처의 특구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가. 지역특구 지정절차

지역특화특구는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협의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표 II-4-3-15 | 지역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나.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현황

지역특구제도가 2004년 도입된 이후 2018년 말을 기준으로 209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나, 13개가 해제되어 총 196개의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2차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와 진도 울금산업특구를 새로 지정하였고 원활한 특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가 계획 변경을 하였다.

표 II-4-3-16 | 연도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누계	6	41	72	96	118	132	143	150	151	155	163	172	184	194	196	
연도별	지정	6	35	31	25	22	14	11	8	3	5	8	11	16	12	2
	해제	-	-	-	1	-	-	-	1	2	1	-	2	4	2	-

2018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개 중 150개가 특화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청도, 전남도, 제주도는 소속된 모든 기초지자체가 특구를 운영 중이다.

표 II-4-3-17 | 지역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구수(개)	12	7	4	3	3	1	0	2	18	14	14	18	15	40	28	14	3

다.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활성화

지역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도 특구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고려하여 지역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역특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하여 특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182개 특구의 '17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성과가 우수한 10개 특구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받고, 9개 우수특구는 중기부장관표창 및 포상금이 주어졌다.



2018년 우수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

5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 지역기업육성과 이종육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은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위기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의 경제회복을 위해 위기지역 기업대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년 4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되는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동년 5월 울산(동구), 경남(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목포·영암·해남)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8년 6월 위기지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 3개 지역(전북, 전남, 울산)의 위기대응지역 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원기업 컨설팅 및 연계지원을 수행하는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영하였고, 이후 2019년에는 경남지역을 추가하여 총 4개 지역의 기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별 신청·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애로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연계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공고 접수 시 기업이 제시하고 전문가 진단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연계지원을 수행하며, 주관기관과 전문가의 1:1 현장밀착형 관리를 통해 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지속 지원한다.

2018년 동 사업 추진을 통해 3개 지역에 48억 원(지역별 1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47개사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76개사 대상 135건의 프로그램 연계지원 결과, 지역의 순신규고용 70명 및 사업화 매출액 59억 원을 창출하여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II-4-3-18 | '18년 지원기업 수행 프로그램

지역	지원 기업수(개)	지원프로그램(건)								소계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설계· 디자인	마케팅	공정개선	기술지도	기타	
전북	23	16	2	1	1	-	7	1	-	28
전남	26	23	4	5	9	2	-	-	2	45
울산	27	27	7	6	3	10	-	9	-	62
합계	76	66	13	12	13	12	7	10	2	135

표 II-4-3-19 | '18년 사업성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예산	고용 (순신규고용)	사업화매출액
2018년	48	70	59

2019년에는 경남지역을 추가하여 4개 지역 64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총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당면한 중단기 기술애로 진단, 제품개발 지도 등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특허·인증·마케팅·공정개선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4-3-20 | '19년 사업신청 및 연계지원 선정기업 현황('19.7월 기준)

지역	신청 기업수(개)	선정 기업수(개)	경쟁률
전북	36	21	1.71 : 1
전남	37	13	2.85 : 1
울산	52	24	2.17 : 1
경남	39	22	1.77 : 1
합계	164	80	2.05 : 1

또한, 자동차·조선분야 부품을 양산하는 전·후방 연관 중소기업간 협동조합,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대체부품 개발, 사업다각화 등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설계부터 판로개척까지 전주기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경제의 경기침체 완화 및 조속한 경제회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생태계 촉진

1

소상공인 현황

▪ 소상공인정책과 이 우 중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188천개, 종사자수는 6,365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5.3%, 전체 고용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50천개, 종사자수는 163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동일한 반면, 종사자 수 비중은 0.4%p 증가하였다.

표 II-5-1-1 |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체	전체	3,545,473	3,604,773	3,676,499	3,737,465
	소상공인	3,063,001	3,084,376	3,137,700	3,188,006
	비중	(86.4)	(85.6)	(85.3)	(85.3)
종사자	전체	15,962,745	16,774,948	17,051,453	17,294,316
	소상공인	6,046,357	6,065,560	6,202,033	6,365,094
	비중	(37.9)	(36.2)	(36.4)	(36.8)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가공 및 재편

사업체 기준으로 업종별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27.7%), 숙박 및 음식점업(20.3%), 제조업(11.3%) 순이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5.3%), 숙박 및 음식점업(21.4%), 제조업(18.3%) 순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서 생활형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5-1-2 | 2017년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비 중	종사자수	비 중
전(全) 산업	3,188,006	100.0	6,365,094	100.0
도·소매업	884,411	27.7	1,610,757	25.3
숙박 및 음식점업	646,820	20.3	1,359,481	21.4
제조업	359,903	11.3	1,166,088	18.3
기타	1,296,872	40.7	2,228,768	35.0

* 자료 :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가와 비교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은 영국(95.6%)과 한국(85.3%)이 높게 나타나며, 미국(60.9%)은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또한, 종사자수 비중은 한국 36.8%, 영국 32.9%, 독일 18.6%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미국은 10.1%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5-1-3 | 주요국의 소상공인 현황

구 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소상공인	비중(%)	소상공인	비중(%)
한국(2017)	3,188	85.3	6,365	36.8
미국(2015)	4,666	60.9	12,491	10.1
일본(2014)	3,475	62.7	8,545	14.9
영국(2017)	5,445	95.6	8,790	32.9
독일(2016)	1,983	80.4	5,416	18.6

주 : 각 국가의 소상공인 기준

- 미국 : 고용주 포함 5인 이하 (개인사업체, 파트너십, 법인기업)
- 일본 : 상시 20인 이하(제조업, 건설, 운수), 상시 5인 이하(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
- 영국 : 종사자 10명 미만,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 200만 유로 이하
- 독일 : 종사자수 10인 미만 그리고 연간매출액 2백만 유로 미만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중소기업통계

소상공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수의 46.6%(1,484천개)를 차지하고,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은 27.6%,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은 10.4%,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10.4%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종사자수로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48.0%(3,052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27.0%, 충청권은 10.0%, 호남권은 10.3%이다.

표 II-5-1-4 |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 ·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체	643,107	231,578	173,771	156,937	93,963	91,991	67,629	10,124
(비중)	(20.2)	(7.3)	(5.5)	(4.9)	(2.9)	(2.9)	(2.1)	(0.3)
종사자	1,246,478	456,752	333,313	315,296	185,569	175,497	129,880	21,024
(비중)	(19.6)	(7.2)	(5.2)	(5.0)	(2.9)	(2.8)	(2.0)	(0.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84,334	112,441	100,231	130,756	116,395	120,799	183,876	222,628	47,446
(21.5)	(3.5)	(3.1)	(4.1)	(3.7)	(3.8)	(5.8)	(7.0)	(1.5)
1,490,415	212,951	198,726	257,572	219,524	234,098	355,962	440,758	91,279
(23.4)	(3.3)	(3.1)	(4.0)	(3.4)	(3.7)	(5.6)	(6.9)	(1.4)

* 자료 : 통계청, 2015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2002년 621만 명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자영업자²¹⁾수는 등락을 반복하다 2008년~2009년 경기침체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은 564만 명을 기록하였다.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2002년 최고 수준(27.9%)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은 21.0%를 기록하였다.

21)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표 II-5-1-5 |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자수	자영업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자영업자
2002년	22,232	6,212 (27.9)	2.3	1,614	4.3	4,598	1.7
2003년	22,222	6,066 (27.3)	-2.4	1,630	1.0	4,436	-3.5
2004년	22,682	6,161 (27.2)	1.6	1,677	2.9	4,484	1.1
2005년	22,831	6,141 (26.9)	-0.3	1,656	-1.3	4,486	0.0
2006년	23,188	6,109 (26.3)	-0.5	1,630	-1.6	4,479	-0.2
2007년	23,561	6,048 (25.7)	-1.0	1,567	-3.9	4,481	0.0
2008년	23,775	6,005 (25.3)	-0.7	1,538	-1.9	4,467	-0.3
2009년	23,688	5,749 (24.3)	-4.3	1,532	-0.4	4,217	-5.6
2010년	24,033	5,643 (23.5)	-1.8	1,515	-1.1	4,127	-2.1
2011년	24,527	5,657 (23.1)	0.2	1,526	0.7	4,132	0.1
2012년	24,955	5,768 (23.1)	2.0	1,570	2.9	4,199	1.6
2013년	25,299	5,703 (22.5)	-1.1	1,533	-2.4	4,169	-0.7
2014년	25,897	5,720 (22.1)	0.3	1,581	3.1	4,139	-0.7
2015년	26,178	5,622 (21.5)	-1.7	1,609	1.8	4,013	-3.0
2016년	26,409	5,614 (21.3)	-0.1	1,584	-1.6	4,030	0.4
2017년	26,725	5,682 (21.3)	1.2	1,608	1.5	4,074	1.1
2018년	26,822	5,638(21.0)	-0.8	1,651	2.7	3,987	-2.1

표 II-5-1-6 |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자수	자영업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고용주	자영업자	고용주	자영업자	고용주
2002년	22,232	6,212 (27.9)	2.3	1,614	4.3	4,598	1.7
2003년	22,222	6,066 (27.3)	-2.4	1,630	1.0	4,436	-3.5
2004년	22,682	6,161 (27.2)	1.6	1,677	2.9	4,484	1.1
2005년	22,831	6,141 (26.9)	-0.3	1,656	-1.3	4,486	0.0
2006년	23,188	6,109 (26.3)	-0.5	1,630	-1.6	4,479	-0.2
2007년	23,561	6,048 (25.7)	-1.0	1,567	-3.9	4,481	0.0
2008년	23,775	6,005 (25.3)	-0.7	1,538	-1.9	4,467	-0.3
2009년	23,688	5,749 (24.3)	-4.3	1,532	-0.4	4,217	-5.6
2010년	24,033	5,643 (23.5)	-1.8	1,515	-1.1	4,127	-2.1
2011년	24,527	5,657 (23.1)	0.2	1,526	0.7	4,132	0.1
2012년	24,955	5,768 (23.1)	2.0	1,570	2.9	4,199	1.6
2013년	25,299	5,703 (22.5)	-1.1	1,533	-2.4	4,169	-0.7
2014년	25,897	5,720 (22.1)	0.3	1,581	3.1	4,139	-0.7
2015년	26,178	5,622 (21.5)	-1.7	1,609	1.8	4,013	-3.0
2016년	26,409	5,614 (21.3)	-0.1	1,584	-1.6	4,030	0.4
2017년	26,725	5,682 (21.3)	1.2	1,608	1.5	4,074	1.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준비된 창업 유도

- 소상공인정책과 전 근 표
- 소상공인지원과 편 장 범
- 소상공인정책과 김 창 민
- 기업금융과 권 도 영

가. 소상공인 정보제공

1) 소상공인방송(yestv) 운영

소상공인방송은 생계활동으로 정보습득과 오프라인 교육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 창업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교육, 점포경영, 정부지원 정책 등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 1,450개의 전통시장 소식, 이색점포·상인 소개 등을 방송(TV)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방송 채널이다.

2012년 1월부터 송출을 시작하여 2018년 연말 기준 KT Olleh tv(255번), Sk Btv(271번), LG유플러스(246번) IPTV 3개사와 전국 82개 권역의 케이블TV를 통해 1일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표 II-5-1-7 | 소상공인방송 실시간방송 송출 현황

구분	회사명	송출사명	채널번호
IPTV	KT	Olleh tv	255번
	SK브로드밴드	Btv	271번
	LG유플러스	U+ tv G	246번
케이블TV	티브로드 (23개사)	(서울)종로중구, 서대문, 광진성동, 동대문, 도봉강북, 노원, 강서 (부산)서부산, 동남, 낙동 (대구)대구, TCN대구, 대경 (인천)서해, 남동, 새롬 (경기)수원, ABC, 한빛, 기남 (충남)중부, 세종 (전북)전주방송	218번 외
	CJ헬로비전 (16개사)	(서울)은평, 양천 (부산) 해운대기장, 금정, 중부산, 중앙 (인천)북인천 (경기)나라, 드림씨티 (강원)영서, 영동 (전북)전북 (전남)호남 (경남)경남, 가야, 마산하나	313번 외

구분	회사명	송출사명	채널번호
	딜라이브 (16개사)	(서울)중앙, 서서울, 용산, 동서울, 중랑, 북부, 노원, 마포, 구로, 강남, 송파, 강동 (경기)경동, 경기동부, 경기, 우리	257번 외
	CMB (11개사)	(서울)동서, 한강 (대구)수성, 동부 (광주)동부, 광주 (전남)전남 (대전)대전, 동대전, 충청, 세종	168번 외
	현대HCN (8개사)	(서울)동작, 관악, 서초 (부산)부산 (대구)금호 (충북)충북 (경북)경북, 새로넷	548번 외
	개별SO (8개사)	광주방송, 울산중앙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금강방송, 서경방송, 제주방송, 푸른방송, 남인천방송	각기 다름

(주)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8년도 소상공인방송을 시청한 IPTV 가구는 1일 평균 43,684가구로 2012년 방송 송출을 시작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5-1-8 | 소상공인방송 연도별 IPTV 일평균 시청 가구수 추이

(단위 : 가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IPTV	720	6,430	5,855	9,139	15,607	20,789	43,684

소상공인방송은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지원 정책 및 이슈사항 등을 전달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전담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창업·경영 교육·정보 프로그램, 전통시장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개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였다.

표 II-5-1-9 | 2018년 소상공인방송 신규 제작 프로그램

(단위 : 편)

분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편수
중소벤처	yestv뉴스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 및 관련 정보 등 유용한 정보 제공과 대변인 역할 수행을 위한 보도 프로그램	240
	중기부서, 상생혁신을 말하다	중소기업벤처창업부 실·국장, 지방청장들을 통해 정책지원 소식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보는 정책대담 프로그램	17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말하다	중소벤처 유관기관장들을 통해 중소·벤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소개	9

분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편수
소상공인	대기만성 CEO	업종별 성공한 CEO들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비결 및 노하우 등을 강연 형식으로 전달	15
	달려라 소상공인	혁신형 우수 소상공인의 경영전략과 성공비결을 소개하고 소상공인특화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9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미래를 열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와 상생의 의미를 전달하고 정부지원정책 및 국내외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	4
	알토란 창업교실	창업 공통정보, 업종별 실전경영, 신사업 창업 기본교육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 경영교육 프로그램	25
예비창업	알수록 유용한 창업	업종별 창업절차, 노하우 등 예비창업자가 이해하기 쉽고 창업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 제공	20
전통시장	여행, 장만할까?(시즌2)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소개하는 여행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40
	일취월장	'청결, 신뢰, 편리' 전통시장 3개 서비스 혁신과 연결하여 상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	3
	돈이되는 비법 꿀단지	전통시장 상인의 점포 운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의 형태별, 업종별 특징에 맞춘 경영교육 프로그램	31
	시장 토크배틀 빅매치	전통시장 관련 키워드를 주제로 전통시장의 문제점과 발전 가능성 등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5

소상공인방송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예비창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모바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TV)외에 방송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마당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네이버 TV, 유튜브 등을 통해 VOD(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II-5-1-10 | 소상공인방송 VOD 이용 현황(유튜브, 네이버TV)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청건수(건)	89,981	46,268	120,261	152,961	272,332	338,764	456,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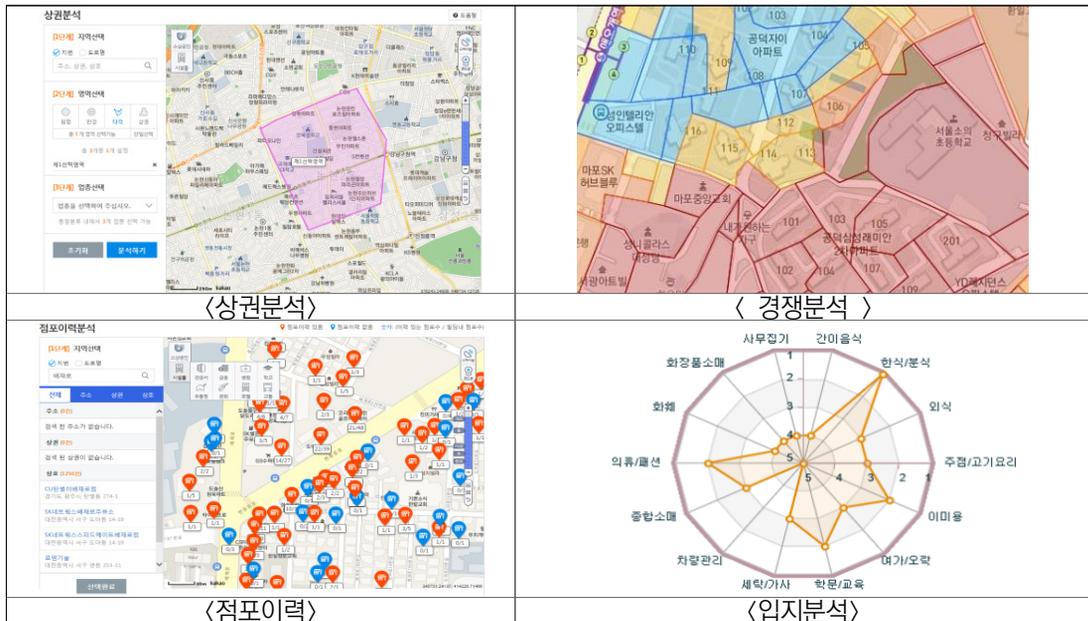
2)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과정에서 입지 선정(44.8%), 업종 선택(17.5%)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6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어려운 상권 정보를 15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권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특정지역·업종에 대한 상권현황을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 업소별 경쟁영역을 분석할 수 있는 경쟁분석서비스, 특정 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알려주는 점포이력서비스, 그 외 입지분석, 수익분석, 창업 기상도, 경영컨설팅 등의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8 | 상권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



소상공인 창업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권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2006년 7월 개시 당시 월평균 10,185건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2017년 1,090,586건, 2018년 1,253,588건으로 최근 4년간 평균 18.75% 상승하였다.

표 II-5-1-11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실적 (월평균)	581,378 (48,448)	494,048 (41,171)	598,919 (49,910)	635,020 (52,918)	818,860 (68,238)	897,315 (74,776)	1,090,586 (90,882)	1,253,588 (104,465)
증가율	85.6%	△15.0%	21.2%	6.0%	29.%	9.6%	21.5%	14.9%

* 이용건수 증가율 : (당해건수-전년건수)/전년건수×100

민·관간 공유정보 확대 및 상가업소 조사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2018년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이상)는 89.1%로 대다수의 이용자가 만족을 나타냈다.

표 II-5-1-12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자 만족도	77.8%	79.8%	82.4%	87.0%	88.2%	88.5%	88.7%	89.1%

2018년에는 시장 환경 및 경영현황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별 최적의 경영전략을 제안하는 경영컨설팅, 성공점포의 요인 및 패턴분석을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추천하는 업종추천, 상권 및 업종에 대한 위협요인을 파악하여 이상상황을 예보하는 창업기상도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그림 19 | 상권정보시스템 18년 제공 주요서비스

향후에는 현 상황에서 창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자가진단 서비스, 예비창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현장방문 없이 프랜차이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3)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별 맞춤형 정책 및 창업·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인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소상공인마당 메인페이지 이용 시 단말기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구현하였고, 소상공인마당 앱 실행 시 로그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자동로그인 기능을 도입하여 콘텐츠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그림 20 | 소상공인마당 기능 개선



또한, '교육정보', '전통시장 통통' 등 분리 운영되던 웹사이트를 소상공인마당으로 통합하여 대민 사이트를 일원화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내역을 인터넷·모바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소상공인마당 앱의 다운로드 횟수는 총 46,448건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이용자 만족도(5단계 척도, '만족'이상)는 최근 3년 평균 89.6% 대비 1.8%p를 상회하였다.

표 II-5-1-13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자 만족도	74.7%	84.5%	90.1%	87.6%	90.0%	91.4%

향후에는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혜택 계산기 기능 구현, 간편 로그인 및 회원가입 간소화 등 서비스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홍보 및 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 증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나.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예비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에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이후 종합적인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신설한 이래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창조형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소상공인 사관학교사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신사업육성지원 사업을 통·폐합하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도록 개편하였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 과잉진입을 방지하고 신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론·실습교육, 점포경영체험, 멘토링, 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이다.

2018년에는 2기수(7~8기) 307명이 이론교육을 수료하고 그 중 275명에 점포체험 교육을 제공하여, 최종 26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교육 후 예비창업자의 창업 준비도가 교육 전 69.2점에서 교육 후 83.1점으로 13.9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3.8%로 나타났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을 추진한 이후 '15~'18년간 총 1,378명 선발하고 이론교육을 수료한 1,200명 중 1,053명에게 점포체험교육을 제공하여, 최종 969명이 졸업하였으며, '15년부터 '18년까지의 1~8기 졸업생 중 약 67.5%가 창업에 성공하였고, 월 1,005만원의 매출과 연 0.9명의 고용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수원) 등 전국 6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에서 150시간 이내의 창업이론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생은 이론교육 수료 후에 6개 지역 중심상가에 구축된 16개 점포 체험장에서 창업하여 4개월간 매장경영을 체험하고, 점포체험시 개별 전담 멘토링도 지원받는다.

졸업생은 소상공인창업자금을 1억 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며, 우수 졸업생을 심사·선발하여 사업화 보조금을 2천만 원 한도(개인부담 50%)로 지원한다.

표 II-5-1-14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장 현황

점 포 명		주 소
서울	총무로점	중구 총무로2가 50-6외 3필지
	대학로점	종로구 혜화동 143-2
	종랑점	종랑구 숙선옹주로 6-9 상가 111~118호
	명동점	중구 회현동3가 11-3 세대빌딩 1층
	공덕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60
부산	센텀시티점	해운대구 우동 1484 제A-103B2호
	범일점	동구 범일동 830-9 천일빌딩 1,2층
대구	범어점	수성구 범어동 198-2 골드타워 1층
	두류점	달서구 두류동 487-7 두류동빌딩 1층
	삼덕점	중구 삼덕동2가 270-1 소석빌딩 1층
광주	상무지구 1호점	서구 치평동 1216-3 쌍둥이빌딩 1층
	상무지구 2호점	서구 치평동 1254-1 엠씨타워 1층
경기	신동점	수원시 영통구 신동 938-1, 신동빌딩 1층
대전	둔산 1호점	서구 둔산동 1275 아이빌딩 1층
	둔산 2호점	서구 둔산동 1043 현대빌딩 1층
	궁동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88, 궁동 482-2

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자금관련 애로는 모든 기업들에게 가장 큰 애로 중 하나다. 소상공인도 1999년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업체당 7,000만원(일부자금 1억 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2018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특별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성장기반자금은 제조기반 기술의 경쟁력 강화,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제고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13,871개 업체에 6,974억 원을 지원하였다. 경영안정자금은 청년일자리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영애로 해소 등 소상공인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43,638개 업체에 13,578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8년도 신규자금인 소상공인특별자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과 경감 및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매출과 대출금 상환을 연동한 자금으로 115개 업체에 24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I-5-1-15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1999~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업체	208,229	15,128	25,502	29,825	44,233	48,341	64,497	57,624	493,379
지원금액	53,479	5,050	9,345	10,305	14,939	17,550	22,450	20,575	153,693

2017년에 자금을 수혜 받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²²⁾,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업체가 82.5%로 나타나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소상공인 보증 지원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현황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6개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경제 안정화를 위해 12조 743억 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소상공인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전체 보증공급의 92.6%인 11조 1,774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였다.

22) 「2018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분석」,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12.

표 II-5-1-16 |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 보증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8년			2017년		
	총보증	소상공인보증	비중(%)	총보증	소상공인보증	비중(%)
업체수	497,304	489,287	98.4	478,419	470,843	98.4
금 액	120,743	111,774	92.6	116,229	105,476	90.7

보증공급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의 보증공급 업체 수(30.4%)와 금액(30.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지원되었다.

표 II-5-1-17 | 종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보증공급	업체 수	42,194 (8.5%)	99,395 (20.0%)	120,624 (24.3%)	151,278 (30.4%)	83,814 (16.9%)
	금액	18,998 (15.7%)	20,460 (16.9%)	26,632 (22.1%)	37,030 (30.7%)	17,622 (14.6%)
보증잔액	업체 수	78,733 (7.6%)	210,709 (20.0%)	253,182 (24.4%)	323,870 (31.3%)	169,164 (14.0%)
	금액	24,766 (12.7%)	36,702 (17.9%)	48,187 (23.6%)	66,270 (32.4%)	28,678 (14.0%)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보증금액별 보증공급 금액은 3천만원 이하 보증금액이 58.8%를 차지하는 통계 수치를 볼 때, 신용경색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재단의 보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5-1-18 |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계
2017년	금 액	68,127	24,130	10,595	13,377	116,229
	비 중	58.6%	20.8%	9.1%	11.5%	100%
2018년	금 액	70,955	26,287	12,142	11,358	120,742
	비 중	58.8%	21.8%	10.1%	9.4%	100%

2) 주요 특례보증 제도시행

가)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18.2월)

- * 대상기업 : 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②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③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소재 기업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공급규모 : 2조원
- * 지원한도 : 본건 최대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2,5921건, 9,038억원 (2018년말 기준)

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서비스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확대 운용

- * 대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자활기업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지원한도 : 4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348건, 145억원 (2018년말 기준)

다) 창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등 지원 협약보증

금리인상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의 금융지원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도모

- * 대상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기타 경영애로 소상공인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6,199건, 1,434억원 (2018년말 기준)

라) 장기분할상환 해지보증

창업초기기업(7년 이내)에 한해 보증부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운용하여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 사업에 전념토록 지원

- * 대상기업 : 신용보증접수일 현재 업력 7년 이내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기준 6등급(1~6등급)인 개인기업
- * 시행시기 : 2017년 11월
- * 공급규모 : 1,650억원
-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2,056건 / 396억원 (2018년말 기준)

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2억 원까지 신속한 보증지원으로 경영정상화 도모

- *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 시행시기 : 2005년 12월
- * 지원한도 : 2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8,054건, 2,916억원 (2018년말 누계 기준)

바)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창업기업 육성 및 지속적 성장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 대상기업 : 창업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우대창업지원 기업
- * 시행시기 : 2015년 10월
- * 공급규모 : 1천억원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제조업은 2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3,327건 / 1,078억원 (2018년말 누계 기준)

사)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 기업에 대한 경영성장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장애인기업
- * 시행시기 : 2008년 7월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4,473건, 1,264억원 (2018년말 누계 기준)

3) 정부정책과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한 보증지원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특례보증 및 보증제도 개선으로 2018년 보증공급 목표(11조원) 대비 약 1조원 초과한 12조 743억 원을 달성하였다. 일자리창출기업, 최저임금 준수 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금리인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다양한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였다.

첫째,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저금리(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 1.3%, 분할상환의 경우 기준금리 + 1.67, 금융기관별 상이)로 지원하였다.

둘째,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 신·기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취급기준 개정(재보증비율 50%→60%)을 통해 보증지원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금리인상 및 최저임금 보장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의 금융지원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시행하였다. 지원한도는 최대 5천만 원 이내 운전자금으로, 가산 금리 없이 기준금리(2% 후반대)를 적용하여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게 금리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4) 고객편의 제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금융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가) 통합전자보증 확대

재단의 업무생산성 향상 및 서류 간소화를 통한 고객편의향상 등을 위한 통합전자보증시스템 도입을 지속 추진하여, 신탁,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와의 통합전자보증시스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증료 은행수납 및 카드수납, 금융기관 조회서 확인 등을 구현, 고객편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나) 행정정보 이용 확대 추진

고객이 보증신청 시 재단에 제출하는 국세납세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과세정보를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재단 담당자가 직접 열람 및 출력 가능토록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단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다) 신용보증 리스크 축소를 위한 부분보증 도입 확대

재단의 효율적 보증 운용, 보증리스크 축소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체 사업자 보증(일반보증 기준) 중 55.4%를 부분보증으로 운용하였으며 향후 부분보증 비중을 더욱 확대하여 재단의 효율적인 보증운용 및 리스크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라) 지역신보의 제규정(규정, 기준, 요령 등) 표준화 추진

보증업무 및 채권관리 관련 제법령의 지속적 개선으로 급변하는 국내경제, 금융(보증)환경 변화 대응위한 능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재단 현업에 필요한 기준보완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7개의 보증규정 8개의 관리규정을 표준화하였다.

특히, 정부의 재기지원 활성화 정책에 맞춰 부실채권 정리(매각, 소각)관련 내용과 회생지원 보증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업무방법서 등 관련 표준화규정을 개정하였다.

마) 창업리스크 경감을 위한 연대보증면제 확대

법인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창업실패 부담을 완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면제 업무처리방법’을 시행하였다.

이에, 업력 및 신규보증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기업의 신규·증액보증에 대하여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기업들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여 창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다.

〈 법인기업 연대보증 면제 추진현황 〉

- 실제경영자 이외 기업경영에 관여도가 낮은 기타 이해관계인 연대입보 금지('13.8월)
- 창업 후 7년 이내의 법인기업 대상으로 실제경영자 연대보증 면제('17.8월)
- 법인기업의 신규·증액보증에 대하여 실제경영자 연대보증 입보 폐지('18.4월)

5) 효율적인 재보증제도 운영

가) 재보증의 정책기능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수출기업·일자리창출기업 등 중소기업 중점지원 부문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시행하였고, 신보증양회의 재보증비율을 상향(50%→60%)하여 지역재단의 적극적 보증공급 확대를 유도하였다.

나) 재보증 리스크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

2억 원 이상 고액보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보증 평가시스템의 평가등급 산정체계를 개선하였다. 보전금청구 시 지역재단에서 제출하던 추가적 필요서류(신용평가서류, 신용조회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였고, 심사 시 지역재단에 확인하던 필요정보(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정보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심사자가 직접 확인)하여 보전금지급 절차를 개선하였다.

3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지원과 조 동 후
- 소상공인지원과 송 성 동
- 소상공인정책과 이 재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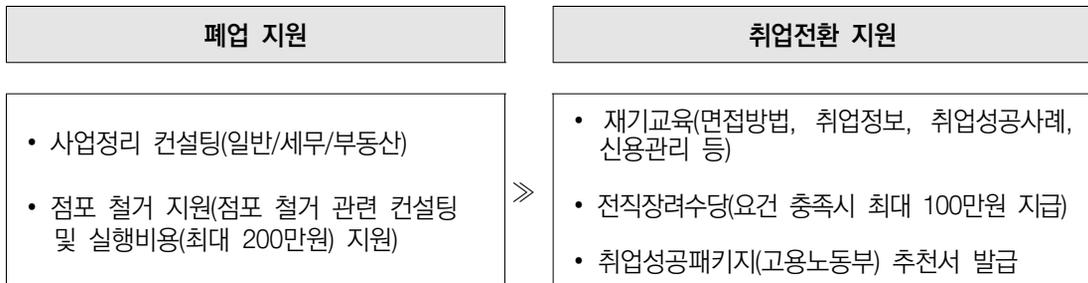
매년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60~70여만 명으로서 소상공인의 과도한 폐업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중기부는 폐업·한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폐업 소상공인 : '14) 76.5만 → '15) 62.8만 → '16) 61.4만(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가.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이 폐업 부담을 덜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폐업 지원(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과 취업전환 지원(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으로 나뉜다. 2018년에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총 8,158명(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 철거 지원 4,132명, 재기교육 4,026명)을 지원했다,

그림 21 |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로

나누어 폐업 절차, 자산·시설 처분, 신용 관리, 사업장 양수도, 보증금 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행비용(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면접 방법, 이력서 작성, 취업 정보, 취업성공사례, 신용관리 등 취업역량 강화교육(재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9세 이하의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서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이다.

또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와 임금근로자 전환 촉진을 위해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한다. 폐업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수료 후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수료)을 하거나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천서를 발급하여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나. 재창업패키지

재창업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비과밀업종으로 재창업하거나 업종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 40억 원의 예산을 통해 3,517명(교육 2,984명, 멘토링 533명)을 지원했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및 마케팅, 현장 견학, 상권분석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 수수료 후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마케팅, 세무, 창업 절차 등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재창업패키지를 통해 4,831명이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에 성공하였으며,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2007.9.5)되어, 2018년 기준 재적가입자는 1,097,018명(누적가입자는 1,404,254명)이며 9조 5,239억 원이 조성되었다

폐업,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부상에 의한 퇴임,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는 대출(납부금액 90%범위 내), 소득공제(연 500만원),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월부금의 150배까지), 수급권 보호(공제금 압류 등 금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한도는 '17년부터 기존의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확대한 것으로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상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중은행을 통한 공제제도에 대한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진 2010년 이후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성장하여, '17년 6월 공제출범 10년 만에 누적가입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참고로 일본의 유사제도인 '소규모기업공제제도'는 100만 명 달성에 15년 소요). 아울러 '17.8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60개 지원센터에서도 가입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폐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신규 도입되었다. 기준보수 1·2등급을 선택한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한다.

* 2018년 실적 : 총 2,491명, 438백만원 지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납부실적을 확인한 후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환급한다.

그림 22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1·2등급 가입자 수가 전년대비 21.2%(1,105명) 증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2절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1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소상공인지원과 신 대 순
- 소상공인지원과 이 경 우
- 소상공인지원과 남 기 동
- 소상공인지원과 송 성 동
- 소상공인지원과 송 상 호
- 소상공인혁신과 이 신 영

가. 소상공인 경영교육

2006년부터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교육은 업종전문교육, 경영개선 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e-러닝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까지 총 2,469,769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소상공인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전문기술교육 과정은 신 메뉴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소상공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직접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경영개선교육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성과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설·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전문기술교육 6,586명, 경영개선교육 3,632명 등 총 10,21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2018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료생의 97.2%가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교육 수료생의 '18년 현재 월평균 매출액은 556만원으로 전년(455만원) 대비 22.2%, 순이익률 32.1%가 증가하였으며 경영역량지수가 교육 전 100점 기준으로 교육 후 117.4점으로 상승하여 2017년 107.5점보다 9.9점 상승하였다.²³⁾

온라인을 통한 e-러닝과정은 점포를 비우기가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을 통한

23) 2018년 소상공인교육 성과보고서

경영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최신 경영기법의 전수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1,709,734명이 수료하였다.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18년에는 123,88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오프라인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주요 권역별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9년 대전·서울·광주·부산 등 전국 4개 지역에 개소한데 이어, 2010년에는 대구에 개소하여 총 5개의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밀집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시내 중심가 위주로 설치하였다.

전용교육장은 시청각 시설을 구비하여 무료로 제공할 뿐 아니라, 시·공간적 제약으로 주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직장인 및 소외계층(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에는 2,18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나. 소상공인 역량 강화

소상공인들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표 II-5-2-1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연혁

시행시기	내 용
2005년 5월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에 의하여 시범사업 추진
2005년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사업 추진
2006년	자영업 컨설팅사업 추진
2015년	소상공인 역량 Jump-Up프로그램 시범추진

사업체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전문가를 통해 인력·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경영 전략, 상품 및 메뉴개발 등의 기술전수, 사업정리 및 상사(商事) 분쟁 등에 따른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컨설팅 분야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도 소상공인컨설팅은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을 4,580건 실시하였고, 무료법률구조는 영세 소상공인(중위소득 125% 이하)중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및 상가임대차 등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된 민사상 법률문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464건을 지원하였으며, 역량 jump-up프로그램은 전년대비 매출액 15% 이상 또는 2년 이상 매출액 연속 감소 업체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 후 신제품·브랜드 개발, 마케팅, 법률자문, 내·외부 리모델링, 실행 지원 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도 총 494건을 지원하였다.

표 II-5-2-2 |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예산	59	57	60	70	90	73
일반컨설팅	6,886	9,154	4,693	4,562	5,171	4,580
무료법률지원	364	335	434	436	445	464
역량Jump-up			14	298	499	494
총 지원건수	7,250	9,489	5,241	5,296	6,115	5,538

2018년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을 받은 후 매출증가 업체비율이 66.9%로 증가하였고 점포 월평균 매출액 10.6% 증가하였다.

표 II-5-2-3 |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성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증가업체비율	64.4%	60.4%	65.2%	63.3%	65.1%	66.7%	66.9%
매출증가율	4.5%	5.0%	7.1%	7.3%	7.4%	5.8%	10.6%

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모여 협업하는 협동조합 모델이 일자리·지역 균형발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개발, 생산, 판매, 공유 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6년째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유도한 후, 공동의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인프라 구축과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조합원)의 매출 및 수익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과는 차별화 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협업 및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소상공인이 협업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6년(2013년~2018년) 간 총 1,455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수혜를 받았다. 2018년에는 공동브랜드·네트워크·마케팅·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291개)과 소셜커머스 입점, 지역판매전 개최 등 판로지원(300개)을 하였다.

'18년 8월부터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안정적 설립, 조합원 간 유대 강화, 조합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을 거점으로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시범으로 추진함으로써 협동조합 성장에 필요한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II-5-2-4 |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단위 : 억원, 개, %)

연도	예산	실적(2,757개)		성과
		공동사업	판로	지원조합 조합원 평균매출액
2013년	347	433	-	11.0% 증가
2014년	246	364	17	12.6% 증가
2015년	240	397	116	12.9% 증가
2016년	187	315	117	12.8% 증가
2017년	193	283	124	12.5% 증가
2018년	249	291	300	성과 측정 중('19.12월 결과 도출)
계	1,462	2,083	674	

협업아카데미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협업교육을 통해 공동사업 비즈니스모델 수립, 조합실무 습득, 갈등관리를 통한 협업마인드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별 아카데미 상호간 협력을 통해 협업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였다.

공동사업 지원은 브랜드개발·마케팅·장비·기술개발·네트워크(홈페이지 등)·시스템구축 등의 분야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2~5억 원 한도)의 70~80% 이내를 보조하여 지원한다.

2018년 상반기에는 공동사업 선정방식을 수시선정에서 월 1회 선정으로 개편(2~5월, 4회)하고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10회), 기획보도(10회), 다큐멘터리 제작(YesTV), 우수사례집 홍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 사업에 착수하였다.

표 II-5-2-5 |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현황(2018.12월말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지원	291	26	14	40	50	37	6	30	6	12	20	27	23

하반기에는 조합성장의 기초가 되는 협업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국 6곳에 협업아카데미를 선정하고 협업인큐베이팅(조합설립), 협동조합 실무교육, 갈등관리, 협업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였고,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로드맵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공동판로 전문교육(65개 조합) 실시, 온라인 판로 확대(V-커머스), 지역판매전을 개최(188개 조합, 4회)하여 조합상품 홍보 및 매출 증대를 꾀하였다.

'18년 7월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여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 정책홍보관을 운영하였고 판매부스에 참여(24개 조합)하였다.

향후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업교육, 판로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 대한한약협동조합 우수사례 〉

- (설립계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제배를 이루어 공동구매 약재의 품질향상과 위탁제조 과정에서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 설립
- (설립개요) 2014년 / 조합원 15명 / 대표자 : 이진경
- (사업효과) 설립 → '18년

(매출)	3.4억 → 45억	(조합원 수)	15명 → 15명
(고용)	4명 → 8명	HGMP 한약재 인증	



라.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과 혁신의지가 있는 골목슈퍼를 현대식으로 육성하고, 시설현대화·정보화에 기반한 조직적 역량 결집으로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부터 2018년 말 현재 총 11,560개의 골목슈퍼를 나들가게로 선정하여 점포 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였다. 사업 초기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나들가게에 대해 전문가의 점포운영 종합지도를 바탕으로 POS 기기 설치, 간판교체 등을 지원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POS 활용교육, 부진점포 회생 지원 등 사후관리 위주로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II-5-2-6 |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 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개점지원	2,302	3,005	4,704	-	517	232	363	254	183	11,560
경영지원				1,611	1,807	1,816	734	956	1,200	8,124
선도지역						6	6	10	3	25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들가게 선도지역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사업비의 80%, 최대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6개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5개 선도지역이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신규 선정된 3개 지역과 2016년과 2017년에 선정된 기존 16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19개 선도지역이 운영되었다. 이들 선도지역은 지역 상권 특성을 반영한 모델숍

개발, 점포환경 및 경영개선, 점주역량교육, 지역특화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II-5-2-7 | 나들가게 선도지역 선정현황

선정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선정규모	6개	6개	10개	3개
선정지역	서울시 송파구, 부천시, 제천시, 제주시, 포항시, 영월군	서울시 금천구, 안양시,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 춘천시	서울시 동작구, 시흥시, 천안시, 충주시, 정읍시, 김제시, 광주시 남구, 김해시, 창원시, 안동시, 원주시	수원시, 광주시 서구, 목포시

한편, 2018년부터는 동네슈퍼의 협업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생적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심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동네슈퍼 체인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해 회원 점포에 대한 경영 지도, 점주교육, 상품배송, 공동구매·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체인사업 운영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 지역별로 총 10개의 슈퍼마켓협동조합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체인사업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심의 동네슈퍼 협업화 성공모델을 육성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마.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프랜차이즈는 개별기업들의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다. 개별 소상공인의 조직화 등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2009년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도입,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본격 실시하면서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과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및 연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은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가맹점 2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 개발과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20개 업체에 대하여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가맹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맹본부의 체계화 수준 및 성장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가맹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가맹점 20개 이상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브랜드별 평가)이다. 수준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구성되며, 2등급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하고 엠블럼(문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우수프랜차이즈로 19개 브랜드를 지정하였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된 브랜드 4개를 명예의 전당에 등록하였다.

또한,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① 가맹본부 및 가맹점 체계화 컨설팅, ② 브랜드 디자인 및 IT 개발, ③ 브랜드 홍보 및 교육 등의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및 관련법규, 마케팅 방법, 해외진출방법 등 가맹본부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2018년에 가맹본부 및 가맹점 관계자 등 920명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표 II-5-2-8 | 수준평가 연계지원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평가결과 지도	○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지도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 I ~ II 등급에 대하여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및 엠블럼 수여
브랜드 재정비 지원	○ 체계구축 컨설팅(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가맹점주 교육	○ 브랜드별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시행
홍보 지원	○ 소상공인 방송(yestv) 광고, 박람회 개최시 부스를 운영하여 우수프랜차이즈 홍보, 명예의전당 운영

2019년도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은 기존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수준평가제도 운영과 더불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과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월적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프랜차이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가맹점과 공유하는 체계를 수립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18년에는 10개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지원하였고, '19년에는 15개 내외의 프랜차이즈에 대해 운영하고 향후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내수시장 포화상태 해소를 위해 코트라와 협업하여 국내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해외로드쇼를 개최하여 현지 투자파트너 상담 및 기업IR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외 투자파트너를 국내로 유치하여 투자상담회 및 글로벌 프랜차이즈포럼도 개최하는 등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바.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물류비 절감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 건립은 중소기업업자의 유통 물류기능의 공동화와 효율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해오다 200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진행하고 있다.

물류단가 인하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물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도매 배송, 검품, 보관 등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경우, 건립비의 일정비율(중앙정부:지자체:민간부담 = 6:3:1)을 지원하였다.

공동물류센터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37개소에 총 84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현재 부산, 제주 등 전국 35곳에서 운영 중이고 김해, 포항 2곳은 건립 중이거나 개소를 준비 중이다.

표 II-5-2-9 | 시도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2018.12)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5(2)	1	3	1	1	1	1	8	3	2	5	2	3(1)	3(1)	1

* ()안은 건축 중인 센터 수

표 II-5-2-10 | 건립중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위 치	연면적	총 사 업 비				운영주체
			총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포항	대도동	1,319	2,232	1,340	548	344	수퍼조합
김해	풍유동	3,500	9,500	5,700	2,850	950	수퍼조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조합원 간의 공동구매와 제조사 직거래를 통해서 슈퍼마켓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 공급망이 부족한 지방소재 골목슈퍼의 상품구매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 중소소매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2018년 실태조사 결과, 물류센터 당 평균 매출액은 약 94.5억 원으로 센터 당 평균 회원 수 592명이 물류센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물류센터 이용 소매업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6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물류센터 이용 사유로는 첫 번째로 일괄구매 가능(38.2%)하다는 점과 다음으로 저렴한 가격(32.2%)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 백년가게 육성

그동안 소상공인은 사업체·종사자 수 등 양적 측면에서는 확대되어 왔으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빈번한 창업과 폐업으로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노포(老鋪)처럼 우리나라에도 대를 이어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그 성공사례 전파를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바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우선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우수 소상공인을 ‘백년가게’로 선정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백년가게 육성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8년에는 81곳을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백년가게 1호점’ 현판식(‘18.9)을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서 지역별 현판식을 진행하여 백년가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국내 유명 O2O플랫폼과 유관기관협력을 통한 홍보, 전문가의 집중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성과확산과 개별점포의 역량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II-2-5-11 | 시도별 백년가게 선정현황(2018.12)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81	15	8	4	4	1	2	5	1	10	5	9	4	3	3	6	1

2018년도 선정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2.5%가 매출·고객 증가효과를 보였으며, 선정 후 가장 큰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표자의 인식변화와 자부심 증가’가 3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백년가게 선정자체가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2019년도에는 지역의 숨어있는 우수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자체 및 민간기관의 추천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대표자의 강의활동, 교육콘텐츠 제작·활용을 통해 백년가게의 우수성을 알리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백년가게 육성 방안 발표(18.6)



백년가게 1호점 현판식(18.9)



백년가게 온라인 홍보(예시)

표 II-2-5-12 | 전국 백년가게 지정점포(2018.12)

연번	점포명	소재지	연번	점포명	소재지
1	청해진	서울 강동구	42	영빈관	충북 음성군
2	동신명가	서울 강동구	43	제천식육점	충북 제천시
3	장군식당	서울 노원구	44	단골집	충북 진천군
4	삼거리면지막순대국	서울 영등포구	45	송애집	충북 진천군
5	창성옥	서울 용산구	46	신화당분식	충북 청주시
6	만석장	서울 은평구	47	남주동해장국	충북 청주시
7	새만포면옥	서울 은평구	48	대동관	충북 청주시
8	형제상회	서울 은평구	49	공원당	충북 청주시

연번	점포명	소재지	연번	점포명	소재지
9	선천집	서울 종로구	50	재건갈비	충북 청주시
10	하나로회관	서울 종로구	51	금수장장어구이	충북 청주시
11	신안촌	서울 종로구	52	큰마을영양굴밥	충남 서산시
12	정우상사	서울 종로구	53	큰덕	충남 천안시
13	을지OB베어	서울 중구	54	진주회관본관	충남 천안시
14	명동칼국수	서울 중구	55	학암식관	충남 태안시
15	부산복집	서울 중구	56	만쪽통나무집식당	충남 태안시
16	일송면옥	부산 금정구	57	개미상회	전북 고창군
17	죽도집	부산 기장읍	58	계화회관	전북 부안군
18	동래할매파전	부산 동래구	59	진미식당	전북 익산시
19	협신전자	부산 부산진구	60	대한서림	전북 익산시
20	77돌곱창	부산 사상구	61	늘채움	전북 전주시
21	쉐라미	부산 사하구	62	탐외국어사	전북 전주시
22	옥미아구찜	부산 수영구	63	해화당한약방	전북 정읍시
23	한국밸브상사	부산 영도구	64	정읍낙시	전북 정읍시
24	(주)국제의료기	대구 달서구	65	제일스포츠	전북 정읍시
25	스미센	대구 동구	66	금메달	전남 무안군
26	청신한약방	대구 중구	67	풍미통닭	전남 순천시
27	백초당한약방	대구 중구	68	(주)경덕농수산	전남 순천시
28	알미골	인천 강화군	69	옥수굴비	전남 영광군
29	더리미집	인천 강화군	70	외바우	경북 경주시
30	고려화문석	인천 강화군	71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	경북 안동시
31	부영선지국	인천 미추홀구	72	나드리	경북 영주시
32	민들레	광주 서구	73	불로식당	경남 창원시
33	한도안전상사	대전 대덕구	74	화성갈비	경남 창원시
34	동신위생도기	대전 대덕구	75	봉래식당	경남 창원시
35	유일관	경기 가평군	76	동승춘	강원 삼척시
36	대원옥	경기 수원시	77	함흥냉면옥	강원 속초시
37	금화상회	경기 수원시	78	동아서점	강원 속초시
38	안일옥	경기 안성시	79	진미양념통닭	강원 원주시
39	지동관	경기 의정부시	80	철원막국수	강원 철원군
40	연양불고기	울산 연양읍	81	메바우명가춘천막국수	강원 춘천시
41	향원복집	제주 서귀포시			

2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혁신과 장 준 수
- 소상공인혁신과 손 형 욱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35.9만개 사업체에 114.3만 명이 종사하여 전체 제조업 대비 사업체수로는 84.0%, 종사자수로는 28.2%를 차지한다.

제조과정에서 부품 및 반제품 제작 등으로 완제품의 제작에 기여하고 숙련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후화된 시설은 경쟁력을 저해하고 협업부족으로 완제품 생산 및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5년 시행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등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개별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등 소공인 전용사업을 마련하여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1개 시도에서 기계·금속(문래동), 의류제조(범일동) 등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영·기술교육, 컨설팅, 협업공동사업, 작업환경개선 등 242개 사업으로 총 6,574명을 지원하여 참여소공인의 40.0%가 연평균 9.3%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장비, 공동창고, 전시·판매장 등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기반시설을 서울, 경기, 대구 등 4개 지역에 추가 구축하여 총 16개로 확대하였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홍보동영상 제작, 인증획득 등을 참여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했으며 성과조사 결과 매출액은 16.1%, 고용인원은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2-13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내역(2018.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온라인 입점	오프라 인입점	전시회 참가	영상 제작	방송 광고	디자인 제작	인증 획득	컨설 팅	해외 배송	합계
선 정	142	69	194	234	46	287	128	111	57	312
지원액	668	319	1,584	1,990	341	1,400	578	521	234	7,635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 애로 해소, 디지털 접목을 통한 공정개선 등 소공인 100개사를 선정하여 제품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노령화로 인한 숙련기술의 사장방지를 위해 3개 대학을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얼리, 의류제조, 전기장비 분야 소공인 126명을 선발하여 교육훈련 및 숙련기술 전수를 실시하였다.

표 II-5-2-14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현황(2018.12월말 기준)

연 번	센 터 명	집 적 지	분 야	비 고
1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	중구(쌍림동)	인쇄	'13년 개소
2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3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4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5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중구(성내동)	귀금속	'14년 개소
6	서울 신당 의류 센터	중구(신당동)	의류봉제	'15년 개소
7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8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9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시흥시(신천동)	기계금속	
10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화성시(팔탄면)	자동차부품	
11	대전 정동 인쇄 센터	동구(정동)	인쇄	
12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	대덕구(상서동)	기계금속	
13	금산 인삼(식품) 센터	금산군(금산읍)	식품(인삼)	
14	대구 노원 안경 센터	북구(노원동)	광학(안경테)	
15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16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센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신발	
17	광주 충장로 한복 센터	동구(충장동)	의류봉제(한복)	
18	광주 서남 인쇄 센터	동구(서남동)	인쇄	

연 번	센 터 명	집 적 지	분 야	비 고
19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전주시(팔복동)	기계금속	'16년 개소
20	서울 반포 섬유 센터	서초구(반포4동)	섬유제품	
21	고양 장항 인쇄 센터	고양시(장항동)	인쇄	
22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23	안양 호계 전자부품 센터	안양시(호계동)	전자부품	
24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25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장비	
26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장비	
27	서울 독산 의류제조 센터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28	성남 상대원 제과제빵제조 센터	성남시(상대원동)	제과제빵	
29	청주 중앙 인쇄 센터	청주시(중앙동)	인쇄	
30	전북 순창 장류제조 센터	순창군(순창읍)	장류제조	'18년 개소
31	대구 평리 의류봉제 센터	서구(평리동)	의류봉제	
32	군포 당정 금속가공 센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33	대구 대봉 의류봉제 센터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34	김해 진례 도자 센터	순창군(순창읍)	비금속광물(도자기)	

표 II-5-2-15 | 공동기반시설 연계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2018.12월말 기준)

연 번	명 칭	범 위	비 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C24, C25, C29) 집적지구	문래동	'16년 지정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기타 제품 제조업(C33) 집적지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집적지구	성수동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중앙동	'17년 지정
5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동 기계·금속(C29, C25) 집적지구	대야·신천동	
6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식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주문진읍 (산업단지 제외)	
7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의류(C14) 집적지구	범일동	
8	경기도 양주시 남면 섬유제품(C13)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남면 (산업단지 제외)	
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영덕동	

연 번	명 칭	범 위	비 고
	집적지구		
1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식료품(C10) 집적지구	사천면	
1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북면 (산업단지 제외)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의류(C14) 집적지구	독산동	'18년 지정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의류(C14) 집적지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1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금속가공(C25) 집적지구	군포1동	
1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구(C32) 집적지구	가산면	
16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의류(C14) 집적지구	대봉1동	

제3절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1 전통시장 현황

▪ 시장상권과 전진점

많은 국민들의 생업 터전인 전통시장은 2017년 현재 전국에 1,450개이며, 점포 21만개, 상인 36.4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전통시장 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12월)

전통시장 실태조사 보고서(2018.12월)에 의하면 16년 대비 전통시장은 9개, 점포는 약 0.7천개가 증가하였고, 상인은 0.5만여명 감소하였다.

표 II-5-3-1 | 연도별 시장수 · 점포수 · 상인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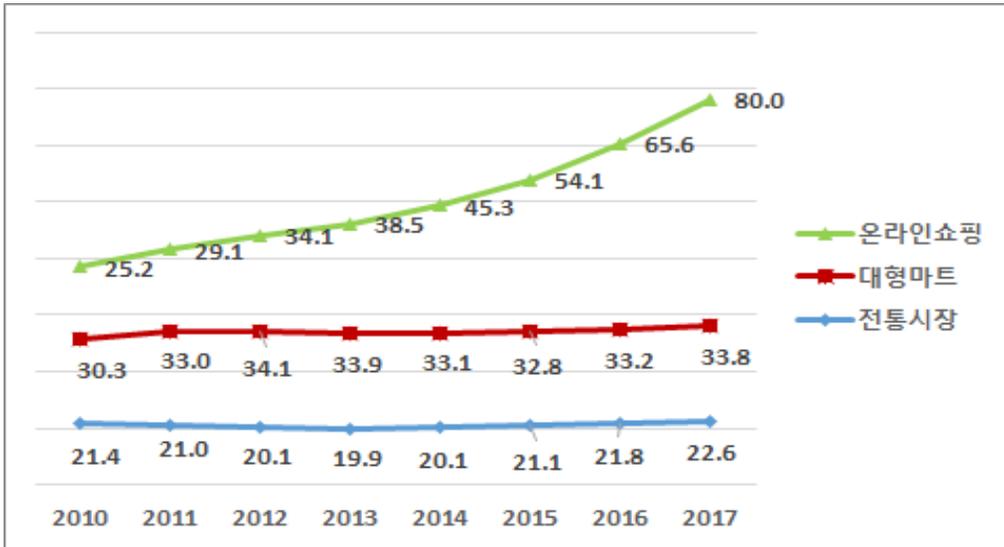
구분	시장수	점포수	상인
2012년	1,347개	194,750개	333,485명
2013년	1,372개	203,036개	334,370명
2014년	1,398개	203,643개	353,070명
2015년	1,439개	207,083개	356,176명
2016년	1,441개	209,193개	368,930명
2017년	1,450개	209,884개	363,660명

* 2011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미 실시

대형마트·SSM 등 기업형 유통점의 골목상권 잠식, 온라인, 소량·근린형 등 소비 트렌드 변화, 저성장 고착화와 함께 서민층의 소비여력 저하 등으로 2013년까지는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감소세였으나, 2014년 최초로 매출액이 반등하여 2017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60년대) 전통시장 ⇨ ('70~'80년대) 연쇄점수퍼마켓 ⇨ ('90년대) 편의점·대형마트 ⇨ ('00년대 이후) 온라인·홈쇼핑·SSM

그림 23 | 유통형태별 매출 추이



* '10년~'14년 대형마트 매출액은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수치

* 자료 : 온라인쇼핑동향조사(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통계청),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 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활성화가 양호한 시장이 41.1% (595개), 취약한 시장은 16.5%(239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인조직 활성화, 빈점포 감소, 서비스 향상 등 시장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매출액 상승 등 경영여건이 다소 개선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5-3-2 |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2017년)

전 체	양 호		보 통	취 약	
	A수준 (매우 활발)	B수준 (활발)	C수준 (보통)	D수준 (미흡)	E수준 (침체)
1,450개	152	443	616	203	36
	595		616	239	
100.0%	10.5	30.6	42.5	14.0	2.5
	41.1		42.5	16.5	

2

특성화 시장 육성

▪ 시장상권과 이왕재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등에 비해 물리적 편의시설도 부족하지만 그간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보다는 주차장·아케이드, 공용시설 등 시설을 비슷한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8년부터 전통시장의 고객흡인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설·환경 대신 지역 문화와 특산물,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연계하여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살거리·즐길거리가 있는 관광·쇼핑형 전통시장으로 특성화 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18년에 신규 추진한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는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의 자원(관광·문화·예술·특산품)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간조성, 관광 상품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하였다.

시장의 고유브랜드 개발, 지역관광지와 연계, 스토리텔링 도입 등으로 시장매출 증대 및 고객유인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로 부분 개편하여 2년간 최대 10억원(신규시장 31곳, 계속시장(2~3년차)57곳), 11년간 총 215곳을 특화 육성하였다.

* 시장(누적, 곳) : ('08~'11) 42 → ('12) 39 → ('13) 71 → ('14) 94 → ('15) 127 → ('16) 149 → ('17) 184 → ('18) 215

2016년부터는 시장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외에 글로벌명품시장, 골목형시장 등 다양한 특성화 지원모델을 추가로 개발하여 전통시장의 유형별·규모별 맞춤형 특성화 지원을 추진하였다

방한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시장을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은 유명관광지나 한국적 콘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외국 관광객이 가볼만한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체험 및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야시장을 개설하며, 외국인 안내·통역·환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3년간 최대 50억 원 지원하며 2015년도 6곳, 2016년도 4곳 등 총 10곳을 육성하였다.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는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성과 우수 시장을 선별하고 지역 시장의 롤모델이자 지역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 협업사업의 기준이 되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특화요소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로 개편하여 2년간 최대 20억 원, 총 13곳(’16년 4곳, ’17년 7곳, ’18년 2곳)을 육성하였다.

특성화첫걸음(기반조성, 컨설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을 폐지하고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으로 신설하였으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3년간 총 202곳(’15년 73곳, ’16년 68곳, ’17년 61곳)을 육성 완료하였다.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3대 고객 서비스 혁신 및 2대 상인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1년간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며, 2018년 34곳을 육성하였다.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 사업은 향후 특성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강하지만 기반이 열악한 시장을 대상으로 기초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대 6개월간 시장별 최대 15백만 원까지 총 24곳을 육성하였다.

표 II-5-3-3 |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 육성시장 현황(2018.12월 말 기준)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신규 (31)	1년차 (31)	강원	정선군	사북시장	
		경기	부천시	역곡상상시장	
		경기	파주시	금촌통일시장	
		경기	부천시	부천강남시장	
		경남	김해시	김해삼방시장	
		경남	창원시	성원그랜드쇼핑	
		경남	창원시	창동통합상가	
		경남	고성군	고성공룡시장	
		경남	통영시	북신전통시장	
		경북	경주시	경주중앙시장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광주	남구	무등시장			
		대전	동구	신도꿈지락시장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			
		서울	강서구	송화벽화시장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			
		세종	세종시	전의왕의물시장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인천	미추홀구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인천	계양구	작전시장			
		인천	서구	인천강남시장			
		전남	여수시	여수전통서시장			
		전북	전주시	전주모래내시장			
		전북	전주시	전주신중앙시장			
		전북	정읍시	정읍샘고을시장			
		전북	군산시	군산공설시장			
		충남	서산시	서산동부시장			
		충남	보령시	보령중앙시장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충북	청주시	원마루시장			
		충북	청주시	청주서문시장			
		충북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계속 (57)	2년차 (35)	강원	삼척	삼척중앙시장	
				강원	정선군	정선임계사통팔달시장	
				강원	원주시	원주자유시장	
				경기	파주	문산자유시장	
				경기	수원	수원연무시장	
				경기	부천	부천자유시장	
				경기	양평	양평용문천년시장	
경기	하남			하남신장시장			
경남	밀양시			밀양내일·아리랑시장			
경남	거제시			거제고현종합시장			
경남	김해시			김해동상시장			
경북	포항			포항효자시장			
경북	고령군			고령대가야시장			
광주	남구			봉선시장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대구	달서구			서남신시장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대전	서구			한민시장			
부산	사상구			부산새벽시장			
부산	영도구			봉래시장			
부산	동구	자유시장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		
		인천	서구	가좌시장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		
		인천	남구	석바위시장		
		전북	고창	고창전통시장		
		제주	서귀포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충남	당진군	당진전통시장		
		충남	천안시	천안남산중앙시장		
		충북	진천군	진천중앙시장		
		강원	춘천	풍물시장		
		강원	강릉	중앙·성남시장		
		경기	여주	여주한글시장		
		경기	양평	양수리시장		
	경남	합양	지리산함양시장			
	경남	양산	양산남부시장·상가			
	경북	상주	상주중앙시장			
	경북	영주	선비골문화시장			
	대구	중구	약령시장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			
	부산	동구	부산진시장			
	부산	사상구	르네시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			
	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전통시장			
	전남	광양	광양5일시장			
	전북	익산	매일·중앙·서동시장			
	전북	군산	신영시장			
	제주	제주	중앙로상점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충북	제천시	제천 중앙시장			
	충북	음성군	음성 무극시장			
		3년차 (22)				

표 II-5-3-4 |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 육성시장 현황(2018.12월 말 기준)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신규 (2)	1년차 (2)	강원	속초시	속초종합중앙시장	
		전남	순천시	순천아랫장	
계속 (11)	2년차 (7)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연합)	
		경북	구미시	구미새마을중앙시장(연합)	
		광주	서구	양동복개상가(연합)	
		부산	북구	정이있는 구포시장	
		전북	부안군	부안상설시장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	
		충북	충주시	충주자유무학시장	
	3년차 (4)	서울	강북	수유마을시장(연합)	
		경기	인천	신기시장(연합)	
		강원	정선	정선아리랑시장	
		제주	서귀포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표 II-5-3-5 | 2018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시장 현황(2018.12월 말 기준)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계속 (4)	3년차 (4)	서울	중구	동대문시장(연합)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경기	수원시	수원남문시장(연합)	
		경북	안동시	안동구시장(연합)	

표 II-5-3-6 | 2018년 첫걸음시장 육성시장 현황(2018.12월 말 기준)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신규 (58)	기반조성 (34)	강원	철원군	와수전통시장	.
		강원	고성군	고성거진시장	.
		강원	영월군	영월종합상가	.
		경기	부천시	부천중동시장	.
		경기	군포시	산본시장	.
		경기	안양시	중앙인정시장	.
		경남	의령군	의령전통시장	.
		경남	고성군	고성시장	.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경북	문경시	문경중앙시장	.	
		경북	포항시	포항큰동해시장	.	
		경북	울진군	울진바지계시장	.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	
		대구	동구	방촌시장	.	
		대구	북구	팔달신시장	.	
		대전	서구	가수원상점가	.	
		대전	중구	중앙로지하상가	.	
		부산	부산진구	부산평화시장	.	
		부산	동구	부산남문시장	.	
		부산	사하구	괴정골목시장	.	
		서울	성동구	독섬역상점가	.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시장	.	
		서울	강서구	화곡동본동시장	.	
		세종	세종시	세종대평시장	.	
		울산	중구	태화종합시장	.	
		인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	
		인천	부평구	십정종합시장	.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	.	
		전남	강진군	강진중앙로상가	.	
		전북	익산시	익산북부시장	.	
		전북	김제시	김제전통시장	.	
		충남	천안시	명동대흥로상점가	.	
		충북	청주시	북대가경시장	.	
		충북	제천시	제천동문전통시장	.	
		충북	보은군	보은종합시장	.	
		건설탕 (24)	강원	양구군	양구중앙시장	.
			경기	부천시	원종중앙시장	.
			경기	부천시	원미종합시장	.
			경기	수원시	장안문거북시장	.
			경기	여주시	여주375아울렛	.
			경기	평택시	통북시장	.
			경기	평택시	안중시장	.
			경북	울진군	후포공설시장	.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경북	안동시	안동중앙신시장	
		경북	문경시	문경전통시장	
		광주	서구	양동경열로시장	
		광주	동구	남광주해뜨는시장	
		대구	달성군	화원전통시장	
		대구	중구	번개시장	
		부산	중구	월드밸리상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지하도상가부전몰	
		부산	부산진구	당감새시장	
		부산	사상구	사상시장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청과시장	
		서울	용산구	용문전통시장	
		서울	중구	삼익패션타운	
		인천	중구	개항누리길상점가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시장상권과 편 선 영

대형마트와 SSM의 확산,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아케이드, 진입도로 등 편의시설 및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였다.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2018년까지 1,255개 시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국비 2조 1,090억 원을 지원하여 4,437건의 시설을 개선하였다.

2018년에는 296개 시장에 아케이드 53건, 진입로 22건, 기타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48건 등 788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8년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시설현대화를 실시한 시장의 매출이 10.4% 증가하였고, 고객 수는 3.8% 증가하였다. 반면, 미개선 시장의 경우는 매출이 0.4% 하락하였으며, 고객 수는 0.5% 증가하였다.

표 II-5-3-7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지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규지원시장(개)	68	58	105	67	38	39	38	62	36	35
지원건수(건)	261	259	383	330	308	330	303	284	285	296
지원금액(억원)	1,749	1,572	1,660	1,606	1,430	1,388	805	808	753	788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의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2년 30%이던 민간 부담률을 2004년에 10%까지 인하하였고, 2009년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5~10%까지, 2011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5년부터는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와 같이 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상인부담을 면제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선 지중화사업, 상·하수도,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과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을, 2009년에는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을, 2010년에는 공동물류창고와 다목적광장을, 2013년에는 공동판매장까지 상인 자부담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

전통시장의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아케이드 설치의 경우 사업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료 부담 및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8년도 주차장 조성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72 곳에 1,162억 원, 주차장건립이 어려운 26곳에는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 12억 원을 지원하여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 완화에 노력하였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선정 후 부지매매계약 및 지방비 확보된 곳을 우선지원 하는 등 만성적 집행부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설개선 및 주차장 건립을 완료한 시장은 매출과 고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 100개 시장과 미실시한 10개 시장을 대상으로 매출액이나 고객증가 등을 조사한 결과, 시설현대화 종합개선 시장은 미실시 시장에 비해 매출증가 점포비율은 1.4배, 고객증가 점포비율은 1.4배, 상인 만족도는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3-8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성과 평가(2018.12월)

구 분	종합개선	부분개선	미실시
매 출 증 가 점 포 비 율 (%)	50.6	46.5	33.7
고 객 증 가 점 포 비 율 (%)	48.9	47.3	34.7
상 인 만 족 도 (점)	79.9	73.5	64.9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종합개선(10억 이상 지원), 부분개선(10억 미만 지원)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및 공영주차장건립은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져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시장경영혁신 지원

- 시장상권과 김 민 수
- 시장상권과 전 진 섭
- 시장상권과 이 왕 재
- 시장상권과 권 오 운

아케이드 설치, 주차환경 개선 등 노후 시설 개선 등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인프라 지원과 함께 시장상인의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와 경영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2002년도부터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5-3-9 | 시장경영혁신지원 예산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억원)	287	369	410	488	747	763	1,593	1,800	1,968	2,149

가. 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지원

전통시장·상점가의 매출과 고객유입 증대를 위해 공동마케팅 활동을 장려하여 2015년 225개, 2016년 250개, 2017년 250개, 2018년 245개의 시장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그랜드세일(설, 추석, 213곳), 코리아세일페스타(10월, 196곳), 2017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가을축제(9월, 489곳), 2018년 전통시장별 특색을 살린 자율 행사(2월, 240곳),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전통시장 가을축제(9월, 310곳)를 실시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기여하였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행정, 회계실무 능력 부족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유통·마케팅·행정분야 실무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145명, 2015년 146명, 2016년에는 146명, 2017년에는 242명, 2018년에는 244명을 지원하였다.

공중파인 KBS 6시 내고향 ‘어서와, 우리시장 처음이지’ 코너를 통해 매주 1회 우수 전통시장을 소개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설·추석 등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여 전통시장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나.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 청년상인을 육성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5-3-10 |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예산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청년상인창업지원	51억	218개 점포	51억	178개 점포	51억	128개 점포	38억	25개 점포
청년몰조성	-	-	127.5억	14곳, 274개 점포	157.5억	12곳, 215개 점포	157.5억	9곳, 162개 점포 (예정)
청년몰활성화·확장	-	-	-	-	-	-	71.5억	20곳
청년상인도약지원	-	-	-	-	-	48개 점포	-	107개 점포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교육, 점포 임차료 및 인테리어 지원,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14개 시장을 조성하였고, 2017년에는 12개 시장을 선정하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집적지구를 조성중이며, 2018년에는 9개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2019. 하반기 개장예정). 2017년까지 청년몰당 지원금액은 점포 20개 기준 15억 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지원되었으나, 2018년부터 기존의 청년상인 들만 입점하던 청년몰 지원에서 확장되어, 청년몰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원금액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5-3-11 |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시장 수	14	12	9

기 지원한 청년몰의 시장안착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몰의 홍보, 마케팅, 교육 등 S/W중심의 청년몰 활성화지원과 시설개보수, 추가공간조성 등 확장지원을 추진

하고 있다. 2018년에는 활성화지원 13곳과 확장지원사업 8곳을 지원하는데, 활성화 지원은 1년간 3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며, 확장지원은 1년간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5-3-12 | 청년몰 활성화·확장 대상시장 리스트

사업명	시장리스트	갯수
활성화지원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원주중앙시장, 천안명동대흥로상점가, 수원영동시장, 대전중앙메가프라자, 군산공설시장, 양산남부시장, 문경중앙시장, 산격종합시장, 인천개항누리길상점가, 여수중앙시장, 금산시장	13
확장지원	천안명동대흥로상점가, 수원영동시장, 군산공설시장, 양산남부시장, 정선아리랑시장, 여수중앙시장, 금산시장	7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 전통 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창업에 따른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20개 시장 218개 점포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1개 시장 178개 점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4개 시장 등 128개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중앙에서 모집하여 25개 점포를 입점 지원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점포당 지원금액은 최대 40백만 원이었으며, 2018년에 지원사업이 종료되었다.

표 II-5-3-13 |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시장 수	20	21	14	-
지원점포 수	218	178	128	25

다.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은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2013년부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표 II-5-3-14 |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예산	450	1,220	2,972	2,972	2,972	2,272
대상시장수	200	501	773	747	357	382

* 2013~2015년 1차 전체시장 전수점검 완료, 2016~2018년 2차 전체시장 전수점검 완료

2018년부터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설·추진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소방관서·상인이 화재를 초기 진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구조 및 특성에 따라 개별점포형과 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1점포당 설치비를 국비기준 최대 56만원까지 지원한다. 2018년에는 총 255개 시장 28,286개 점포를 설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II-5-3-15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구분	설치내역	지원한도(국비 기준)
개별점포형	○개별점포 : 감지기(유·무선) ○공용부분 :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시장당 최대 '56만원 x 신청점포수 산출금액' 이내 (개별점포+공용부분=56만원) * 국비 70%, 민간 30%
오픈점포형	○공용부분 : 감지기(유·무선),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화재피해로 당장 생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도 운영 중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전통시장 상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최대 6천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2018년에는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특약상품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넓히고, 가입기간도 최장 3년으로 확대하였다.

표 II-5-3-16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구분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연 66,000원	연 132,000원
		B급	연 101,500원	연 203,0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자기부담금 30만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		
	화재벌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보상 (형법 170조) 1.5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26,600원(자기부담금 10만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

상품권은 모든 국민이 애용하는 구매수단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그동안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던 시·도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역적 한계와 편의성 부족으로 유통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시·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통합한 것으로, 전통시장의 수요 촉진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8년도 온누리 상품권은 1조 4,916억 원이 판매되었으며, 상품권 구매자별 현황을 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10.7%,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이 11.8%이며, 개인 구매 비율이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절기에 소비가 위축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설명절 상품권 특별할인(5%→10%) 실시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상향 등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II-5-3-17 | 2018년도 온누리상품권 주체별 구매비율

(단위 : 억원, %)

공공부문	기업부문	개인부문	계
1,592 (10.7%)	1,760 (11.8%)	11,564 (77.5%)	14,916 (100%)

온누리상품권을 처음 발행한 2009년 7월 이후 2009년 105억 원의 연간 판매액이 2018년에는 1조 4,916억 원으로 142배 수준 증가하여, 누적판매액이 약 6조 6백억 원(60,610억 원)을 달성하였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품권 구매실적 배점을 2011년 0.1점에서 2012년 0.3점, 2013년부터 0.3~0.5점으로 지속 상향 조정하였고, 2012년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10%)를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2017말부터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 상품권 지급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온누리 상품권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의 구매패턴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상품권 발행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말에는 8개의 쇼핑몰을 통합하여 쇼핑몰간 상품검색 및 가격비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전통시장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전통시장의 대표브랜드로 조기 안착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단일 상품권으로써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 상인 교육 및 상인 대학

물리적 인프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람에 체화되는 경영마인드는 대를 이어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2005년부터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을 위해 시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5-3-18 | 상인교육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육인원(명)	41,736	39,178	38,683	32,673	36,538	30,157	28,596

시장 내 빈 점포나 공공장소 등을 활용하여 의식혁신, 친절서비스, 점포관리기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상인대학 과정도 2006년부터는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98개 시장 9,469명, 2015년 100개 시장 7,671명, 2016년 100개 시장 8,348명의 상인, 2017년에는 89개 시장 7,367명의 상인을 교육하고, 2018년 48개 시장 1,097명의 상인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바.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전국 전통시장은 나름의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 홍보하면 매출액이 늘고 고객이 많이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우수 전통시장 홍보 및 전통시장 미래상 제시를 통해, 상인 스스로가 시장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2018년 10월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18년 우수시장 박람회에는 14.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13.5억 원의 직접 매출도 발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표 II-5-3-19 | 연도별 박람회 개최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시	10.31~11.2	10.23~25	10.21~23	10.27~29	10.12~14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창원)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	대구 엑스코 (대구)	정선종합경기장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
참가 규모	17개 시·도 124개시장	17개 시·도 114개시장	17개 시·도 125개 시장	17개 시·도 120개 시장	17개 시·도 140개 시장
고객, 매출	16만명 관람, 10억원 매출	17만명 관람, 11억원 매출	17.2만명 관람, 11.1억원 매출	12만명 관람, 11억원 매출	14.5만명 관람, 13.5억원 매출

5

상권 활성화

▪ 시장상권과 김진철

우리 주변을 보면 특정지역에 많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지하도상가 등을 포함하여 주변 상업지역 점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상권을 형성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및 대형마트 입점 등에 따른 상권 쇠퇴가 발생하였고, 그간 개별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지원과 주차장, 아케이드 등 시설 기반의 지원 정책은 상권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통시장(상점가)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고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상업지역 중 상업활동이 침체되었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상권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점포수 기준 :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 침체 및 침체 우려 기준 : 구역 내 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액 및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상권 전반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사업으로 해당 구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사업*과 활성화사업**을 모두 지원한다. 이 때 비영리법인 형태의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인·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 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

표 II-5-3-20 | 상권활성화 지원 현황(2016년)

지 역	상권활성화구역명	구역내 시장 및 상점가	점포수 (개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3) :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 시장, 의정부청과야채시장, ○ 상점가(5) : 의정부지하상가,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행복로, 부대찌개 거리	2,546
경기성남	산성로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단대마트시장 ○ 상점가(2) : 산성대로, 광명로	2,419
충남 부여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부여중앙시장, 부여전통 시장 ○ 상점가(1) : 석탑로(궁남로)	966
전남 순천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중앙시장 ○ 상점가(6) : 옷장 인접상가, 원도심상점 가, 중앙지하상가, 문화의거리, 황금로패션가, 중앙지하상가	636
울산 울주	언양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언양공설시장, 언양종합 시장 ○ 상점가(1) : 언양상점가시장	419
부산 해운대	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해운대시장 ○ 상점가(2) : 구남로, 애항길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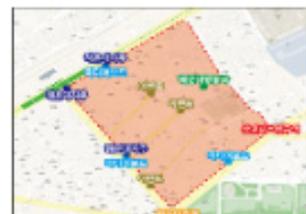
2014년부터 경기 의정부를 비롯한 6개 구역 상권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구역별 2016년 연평균 매출액이 2015년 대비 8.5% 증가하고, 고객수도 5.7% 증가를 시현하여, 상권 내 서민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

2018년부터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 12. 20.)의 핵심 과제로 선정되어 '22년까지 30곳의 대표 상권을 육성·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방식 개편을 통해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 자부담 비율을 50%로 하여 5년간 총 80억 내외로 지원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권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상인이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상생협약과 사업 추진에 대해 1/2 이상 동의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였다.

사업 개편 이후 2018년 9월에 3곳을 선정했고, 2019년에는 10개 내외의 상권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2022년까지 30곳(누계)의 상권을 선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권으로 육성·관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표 II-5-3-21 |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2018년)

지 역	상권활성화구역명	구역내 시장 및 상점가	점포수 (개소)
대구 북구	칠성종합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8) :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삼성시장, 칠성전자주방시장, 진·경명시장, 칠성원시장, 본시장	897
경기 수원	수원역전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3) : 역전시장,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매산시장 ○ 상점가(1) :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946
전남 강진	강진 중앙로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1) : 중앙로상점가	413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규제혁신과 백진육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규제의 영향은 매우 크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 차단하는 안정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이외에도 경쟁제한평가(공정거래위원회) 및 기술 규제영향평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영역에 대해 개별부처에서 독립적으로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2018년까지 총 3,147개 법령, 7,158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로 평가된 총 521건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 철회, 시행시기 유예,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 적용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에 의견을 제출한 결과, 이중 242건(46.5%)이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시 최종 반영되어 규제부담 완화,

비용경감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하였다.

2018년에는 환경, 보건(식약), 고용, 안전 등 규제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총 306개 법령, 649건의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50건의 규제대안을 마련하였고, 이중 28건(56%)이 최종 반영되어 제도시행 이후 가장 높은 성과를 시현하였다.

또한, 2018년 규제영향평가로 최종 반영된 28건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연구원)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자 규모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규제 집행으로 영세기업의 규제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6-1-1 | 연도별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실적

(단위 : 건)

연 도	평 가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 영 륜
	법령건수	규제건수	제출건수	반영건수	
2009년	376	726	153	61	39.9%
2010년	337	707	40	19	47.5%
2011년	494	1,204	82	37	45.1%
2012년	584	1,433	55	26	47.3%
2013년	308	667	39	19	48.7%
2014년	240	627	42	21	50.0%
2015년	271	575	15	8	53.3%
2016년	84	211	11	6	54.5%
2017년	147	359	34	17	50.0%
2018년	306	649	50	28	56.0%
총 계	3,147	7,158	521	242	46.45%

아울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10.18)으로 2019년부터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화' 검토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면제, 유예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6-1-2 | 2018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표사례

I. 시장 진입요건 완화	
규 제 명 (부처, 법령)	냉매회수업 등록 기준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반영내용	냉매회수업을 영위하는 냉동기 유지·보수 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인 "2명 이상"을 "1인 이상"으로 규정(10.27 공표)
수혜대상	냉매회수업체 등 약 1천 개소
기대효과	◆ 1인 사업자(소상공인)의 신규 인력 채용 비용 약 150억원 절감 기대 * 산출근거 $\text{외부감사비}(1,000\text{개}) \times 1\text{인 사업자 비중}(50\%) \times \text{공조냉동기계 기능사 1인 연봉}(3\text{천만원}) = 150\text{억원}$

II. 제약 규제 신설 억제	
규 제 명 (부처, 법령)	외부감사대상 기준 * (금융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영내용	▶ 자산 기준치는 현행(120억) 유지 ▶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안(사원수 50인 미만) 마련(10.30 공표) * 외감대상 규모 추정(금융위 추정) : 현행 대비 300개 감소 : (현행) 28,900개사 → (입법예고안) 33,000개사 → (수정안) 28,600개사
수혜대상	외부감사 편입회사 (약 4,400개)
기대효과	◆ 연간 약 880억원의 외부감사 비용 절감 기대 * 산출근거 $\text{외부감사 비용}(\text{약 } 2,000\text{만원}) \times \text{외부감사 대상 제외 기업 수}(\text{약 } 4,400\text{개}) \text{로 연간 } 880\text{억원 절감}$

III. 규제 적용시점 조정	
규 제 명 (부처, 법령)	기능성원료 4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반영내용	기존 포장제품의 재고 소진, 포장지 변경 등을 위한 업계부담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9.5 공표)
수혜대상	기능성 원료 4종 제조·수입업체 (295개소)
기대효과	◆ 기존 포장재 재고소진에 따른 자원 절약과 포장지 변경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로 규제 순응도를 제고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 정책평가과 김 기 상

일자리 창출·경제성장 주역으로서의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정부·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부재로 부처간 협업을 통한 효과적 정책 대안 마련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 총괄·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기본법(6월) 및 동법 시행령(12월)을 개정 하였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가 포함 되었다. 동 심의회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업계 대표 등 30명 내외로 당연직으로는 중소기업정책 유관 부처 및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처 차관급이며, 위촉직으로는 업계대표,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하위 위원회인 실무조정회의 구성은 심의회 안건 발굴 및 부처간 실무조정으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 구성은 창업·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각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 향후 운영계획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전문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3

행정혁신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 장 훈

신산업분야 출현, 온라인시장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안이 넘치고 협업이 일상화된 조직문화 구축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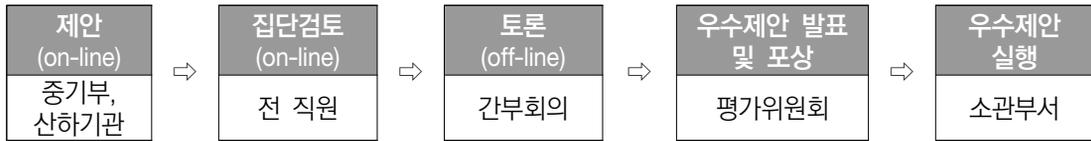
첫째로, 제안이 넘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벤처형 조직으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먼저 기존 상명하복식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 의사소통을 위해 수평적 소통채널 “아무말 대잔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직원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해 제안을 발전시키고 있다.

〈 ‘아무말대잔치’ 현황(‘18년말 기준) 〉

구 분	제안수	조회수	댓글수	‘좋아요’ 수
총계	646	575,819	4,444	11,816

특히, 아무말 대잔치는 정부 업무보고 시 업무혁신 우수사례로 언급되는 등 내외 부적으로 조직 내부 소통을 위한 대표적인 혁신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새로운 정책개발 및 내부 행정혁신을 위해 혁신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 제안 및 평가, 정책반영 시스템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정책아이디어를 상시 제안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니어보드(실무직원)와 핑크보드(여성)를 구성하여 조직 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기관장과 가감 없는 대화를 가지고 있다.

〈 혁신 아이디어 제안·검토·실행 프로세스 〉



두번째로, 협업이 일상화된 조직문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사결정방식과 정책추진체계를 과감히 혁신하였다. 먼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간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스크럼방식 조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현안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민간의 관점에서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관협동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실제로 정책기획단의 제안과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등을 마련하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협업 기반의 인사혁신을 위해 주요 직위에 희망자를 모집하고 공개검증을 실시하는 정책공유회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다면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구성원 상호간 역량 및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통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예산 편성과정에서 각 내역사업에 대한 지원실적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일부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 위주로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사업효율화를 추진하였으며, 본부 각 부서 및 지방청 평가 역시 성과 및 핵심지표 중심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데이터 연계 강화 및 활용을 통한 정책 효율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기존 설문에 의한 조사방식을 국세청,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등 객관적인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4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 통계분석과 우 창 훈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주 병 윤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박 미 란

현대사회는 정보의 취득 여부에 따라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정보화 사회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무슨 정책이 있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불만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실정이다.

이는 인터넷으로 정책을 알아보려면 일일이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고 어렵사리 홈페이지에 접근해도 지원시책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또 지원시책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워 실제로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공감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정부 지원정책을 인터넷, 전화, 면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의 이해증진과 정책이용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정책정보제공 및 원스톱 애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정책안내, 애로상담을 지원 하는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정책포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 m.bizinfo.go.kr)을 통해 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지방청에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정책정보 안내·상담부터 현장 방문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인 ‘기업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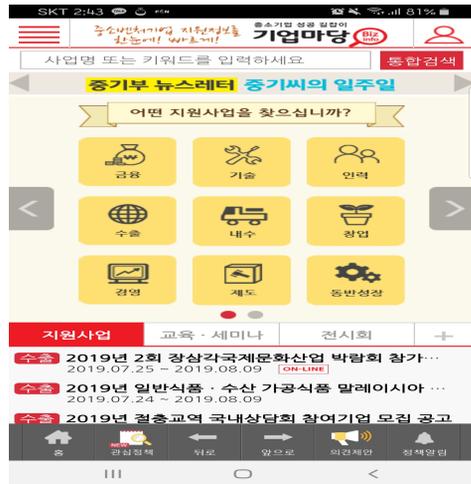
인터넷 기반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www.bizinfo.go.kr)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중소기업정책 포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구축된 동 시스템의 브랜드명을 Spi-1357 (2007)

→ 비즈인포(2008) → 기업마당(2013)으로 전환하여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모바일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앱에서도 관심 정책 조회가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2018)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그림 24 | 기업마당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화면



PC 기반 웹사이트



스마트폰 사용자 모바일앱(App)

기업마당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app)을 통해 알기 쉽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480여개 지원기관에서 추진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7,481건을 분야별(금융·기술·인력·수출 등)로 구분하여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하였고,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도 3,401건을 안내하였다.

표 II-6-1-3 | 중소기업정책정보전달시스템(기업마당) 정보제공 현황

(단위 : 개, 건)

년도	중소기업지원정보 제공기관					정보DB현황		
	계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유관기관	계	정책정보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2010년	367	30	16	4	317	5,370	2,657	2,713
2011년	403	44	16	4	339	7,364	3,658	3,706
2012년	410	44	16	4	346	7,234	3,846	3,388
2013년	436	35	16	9	376	7,946	4,407	3,539
2014년	460	35	17	8	400	7,754	5,244	2,510

년도	중소기업지원정보 제공기관					정보DB현황		
	계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유관기관	계	정책정보	교육 세미나 전시회 정보
2015년	630	35	17	8	570	8,247	4,778	3,469
2016년	417	36	17	10	354	9,156	6,620	2,536
2017년	451	36	17	10	388	10,281	7,233	3,048
2018년	481	35	17	9	420	10,882	7,481	3,401
계						74,234	45,924	28,310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마당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술유출신고·불공정거래신고·옴부즈만(규제애로신고) 등 9개 기업민원신청에 대한 서비스 개요, 신청사이트, 문의처 등을 종합 안내하는 메뉴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사회적금융 메뉴 등을 구축하여 제공하였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각종 인증 발급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이 보유한 인증 정보(63종)를 구축하여 기업마당에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유한 인증을 우대하는 지원사업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업마당 모바일앱 활용 고객이 관심키워드·분야·지역 등을 입력하면 쉽고 편리하게 관심 정책조회가 가능한 맞춤형 정책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마당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가 필요한 정책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문자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11.6만 명을 대상으로 662만 건의 정책홍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기업마당 이메일 수신 설정 회원 등을 대상(24.3만 명)으로 '희망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2,577만 건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기업마당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2018년 기업마당 방문수가 2017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누적 가입회원이 12.1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표 II-6-1-4 |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시스템(기업마당) 이용 현황

(단위 : 만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접속수	363	426	442	512	516	855	1,006	1,146
누계 (2006년~)	1,261	1,687	2,129	2,641	3,157	4,012	5,018	6,164

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및 예비창업자 등에게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1357을 누르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상담사와 통화연결이 가능하도록 '전국단위 전화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원정책 안내는 물론 경영애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5 | 1357 중소기업 콜센터(중소기업종합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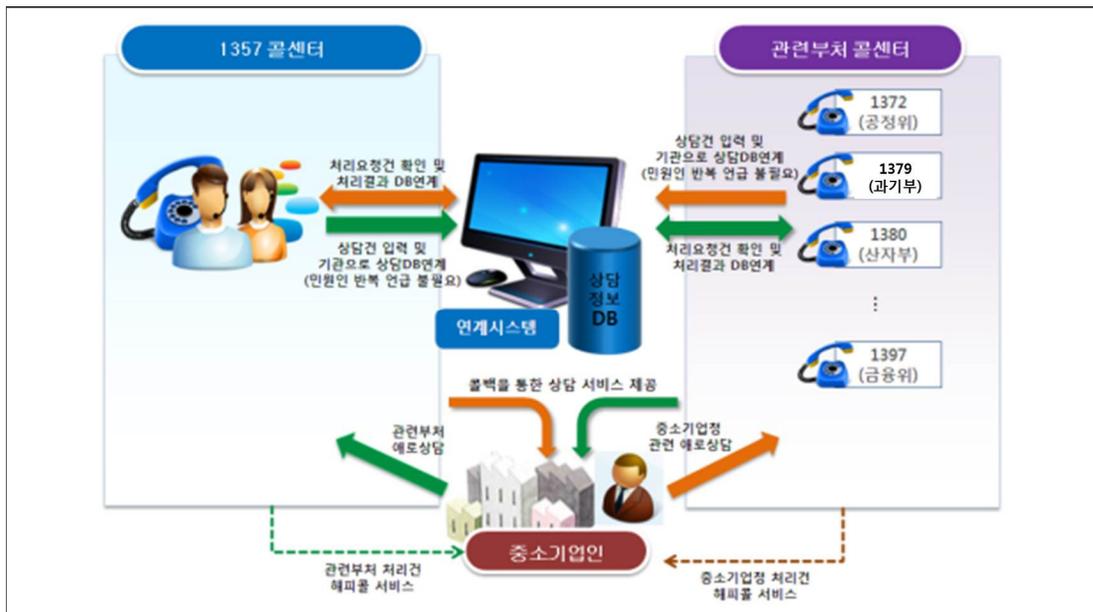
2014년 5월부터 자금, 창업, R&D 등 주요 정책별로 분산되었던 중소기업 관련 6개 기관* 콜센터를 1357 단일번호로 통합하고, 2015년 1월에는 콜센터 업무공간도 한 곳으로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구축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산학연합회

2015년도에는 무역·금융·조달·특허·고용 등 중소기업 관련 7개 중앙부처 8개 콜센터와 연계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9개 중앙부처 10개* 콜센터 연계를 완료하여 중소기업인이 9개 부처 어느 콜센터로 전화해도 한 통의 전화로 모든 애로사항에 대해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1357 중소기업통합콜), 산업통상자원부(1381 인증표준콜, 1380 FTA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79 기업공감원스톱지원), 고용노동부(1350 고객지원), 금융위원회(1397 서민금융다모아콜), 조달청(1588-0800 정부조달콜), 특허청(1544-8080 특허고객상담), 국세청(126 국세상담)

그림 26 | One Call 통합 상담 서비스



2018년에는 2011년 9.8만 건에 비해 9배 가량이 증가한 88여만 건의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였으며, 매년도 1357 중소기업 콜센터의 처리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6-1-5 | 1357 중소기업 콜센터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담건수	98,392	97,591	111,662	407,921	517,279	536,020	794,466	885,889

* 총 누계(2006년~2018년) : 3,998,859건

다.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360만개 중소기업 숫자만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다양하다. 특히, 대내외 경제 환경 및 경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여건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변동 등 무역환경 변화는 물론 임금피크제, 근로자 정년 연장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애로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적시 지원하고자 지방중기청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상주하면서 기업애로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지원해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수출 등의 기업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애로까지 해결해 주는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로 비즈니스지원단을 구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6-1-6 | 비즈니스지원단 현황('18)

(단위 : 명)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명장 가능장	기술사	기술 지도사	경영 지도사	공공 기관 경력자	기타	계
41	56	39	47	111	7	423	8	57	85	757	56	309	1,996

비즈니스지원단은 12개 지방청(5개 사무소, 1개 센터 포함)에 상주하면서 인터넷 (www.bizinfo.go.kr/link),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방문(지방청)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다.

표 II-6-1-7 |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실적

(단위 : 건)

구분	창업 벤처	법무 규제	금융 환위험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경영 전략	기술 특허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 관리	마케팅 수출입	계
'18	25,063	5,102	12,890	19,997	15,651	21,814	14,042	4,639	5,749	20,711	145,658
누계 ('09~'18)	177,443	26,467	108,634	107,247	103,307	160,703	79,668	34,366	53,630	117,393	968,858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을 새로 꾸려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7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6-1-8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실적

(단위 : 건)

구분	창업 벤처	법무 규제	금융 환위험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경영 전략	기술 특허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 관리	마케팅 수출입	계
'18	242	41	50	1,470	88	577	256	47	150	614	3,535
누계 ('09~'18)	1,617	702	446	7,901	603	3,905	979	594	1,786	2,618	21,151

비즈니스지원단은 연평균 9만여 건의 전문상담과 2천여 건의 현장클리닉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비즈니스지원단 간담회
(수도권)
('18.3.30)



비즈니스지원단 역량강화
교육(경기권)
('18.6.18)



비즈니스지원단 우수사례
선정
('18.12.3)

5

중소기업 ombudsman 운영

▣ ombudsman지원단 정 구 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정부 소속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나 정책에 대해 업계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ombudsman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을 현장 목소리에 근거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근거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두고(개정 '08.12월)하여 2009.7월에 도입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ombudsman을 위촉하며, ombudsman의 업무 활동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회의,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대 ombudsman (이민화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09.7.16),
제2대·3대 ombudsman (김문겸 송실대 교수, '11.3.17~'17.4.23)
제4대 ombudsman (박주봉 대주·KC회장, '18.2.27~'21.2.26)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인 ombudsman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직제는 2013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정식 반영 되었으며 중소기업 ombudsman의 지휘를 받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외에 타 부처 파견 공무원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직원, 자체 채용한 전문위원 등 총 3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ombudsman은 금융, 기술, 안전, 수출, 인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매년 5천 여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처리실적은 총 23,091건('18.12월)에 이른다.

표 II-6-1-9 | 규제애로 분야별 발굴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금융	기술	보건	안전	상생	세제	수출	인력	입지	창업	판로	환경	기타
'18.	4,486	355	378	520	161	120	135	36	425	732	487	348	268	521
누계 (09~17)	23,091	1,534	1,507	1,949	623	552	877	295	1,768	4,462	1,628	2,409	1,823	3,664

규제애로 처리를 위해 발굴된 규제애로 과제는 14개 분야별로 분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가 규제애로에 대한 현황과악 및 검토, 조사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다.

규제 또는 애로와 관련된 각 행정기관에서는 수용한 주요과제에 대해 옴부즈만 원클릭 알림서비스에 등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을 옴부즈만 메일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집단에도 알리고 있다.

표 II-6-1-10 | 규제애로 유형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09. ~ '17년				'18년				누계			
	총계	제도 개선	안내 시정	장기 검토등	총계	제도 개선	안내 시정	장기 검토등	총계	제도 개선	안내 시정	장기 검토등
건수	15,831	3,035	7,548	5,248	3,982	430	1,896	1,656	19,813	3,465	9,444	6,904
비율	100	19.2	47.7	33.1	100	10.8	47.6	41.6	100	17.5	47.7	34.8

특히, 중소기업계 파급효과와 타당성이 높은 핵심규제는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성장산업 3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 소상공인 부담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지역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적극 실시 하였다.

6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 재기지원과 장 희 양

중소기업은 기업경영에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자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기업경영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비롯한 제반 지원을 한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조언을 받아 경영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에 9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750개의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I-6-1-11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실적

(단위 : 업체,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업체수	1,295	1,256	1,098	924	826	1,166	750
예산	150	128	132	125	115	111	91

* 컨설팅 기반강화 예산은 제외

기술 및 경영지도사 등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성장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체질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이 정책·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컨설팅 분야를 확대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스마트화 컨설팅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고 프로세스를 단축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컨설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컨설턴트 윤리교육의 의무화와 컨설팅사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였다.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컨설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51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6.57%,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0.75%로 기업의 경영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전체 중소제조업체와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경우 외형적 성장(매출액, 고용인원)뿐만 아니라 체질개선을 통한 내실(영업이익, 비용 절감 등)을 견고히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6-1-12 | 전체 중소제조업체와 컨설팅을 받은 중소제조업체와의 경영성과 비교

성과 지표	중소제조업(5인 이상, %)			컨설팅 수진기업(제조업, %)		
	2016년	2017년	평균	2016년	2017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3.01	5.89	4.45	41.03	31.95	36.49
영업이익 증가율	5.54	4.69	5.12	46.32	39.70	43.01
비용 감소율	△0.42	0.82	0.20	0.18	2.32	1.25
노동생산성 증가율	△4.46	2.26	△1.10	15.02	8.24	11.63
고용인원 증가율	△9.53	6.04	△1.75	11.37	11.68	11.53

* 자료출처 : 중소기업실태조사(중기중앙회), 중소기업성과분석 보고서((주)리서치랩)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3부

제 1 장 기획재정부

제 2 장 교육부

제 3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4 장 문화체육관광부

제 5 장 농림축산식품부

제 6 장 산업통상자원부

제 7 장 보건복지부

제 8 장 환경부

제 9 장 고용노동부

제10장 국토교통부

제11장 해양수산부

제12장 방송통신위원회

제13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4장 공정거래위원회

제15장 금융위원회

제16장 국세청

제17장 관세청

제18장 조달청

제19장 병무청

제20장 방위사업청

제21장 농촌진흥청

제22장 특허청

제23장 기상청

제1장

기획재정부

□ 일자리 창출 및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경력단절여성은 100%)
- 중소기업(근로자수 10인 미만,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 세액공제('18년 한시)
-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 하도록 개선 ※ 일몰 3년 연장
 -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2억 원 미만 → 7천만 원 미만)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을 70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 ※ 일몰 1년 연장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700만원(중소), 500만원(중견)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 * 중소기업 : 연간 임금감소 총액 × 50% + 시간당 임금상승 보전액 × (50% → 75%)

□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기본 50% + 최대 50%(고용증가율×1/2)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은 감면 우대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 (개정)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추가

-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50%) 적용

* (현행) 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 불인정 → (개정)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편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허용

* 투자·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업종·지역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감면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현행 30% → 최대 40%)

□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30% → 40%)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 인하
(20% → 15%)
 - *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불입시 소득공제 → 만기수령시 퇴직소득 저율과세·중도해지시 기타소득 (20%)으로 과세
- 연 매출 4억 원 이하 개인음식점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18년 ~ '19년) 상향 조정
 - *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18. 12. 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1인당 3,000만원 한도)
 - *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 미달자
 - ** '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가능성 없는 국세체납액

제2장

교육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 강화

- 기존 학문(이론) 중심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현장직무능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 및 적용('18.3월)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

※ 전문교과Ⅱ 과목 : 전문공통과목 : 1, 기초과목: 179, 실무과목: 368

- 정부부처가 관련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기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 ('15) 8부3청 243교 → ('16) 8부3청 263교 → ('17) 8부2청 275교 → ('18) 8부3청 320교

□ 마이스터고 운영 내실화

- 국가·지역전략산업분야, 중장기적으로 마이스터로 성장가능한 분야의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게임콘텐츠 및 소방 분야, 2교)

※ 마이스터고 지정 실적(누적) : ('15) 47교 → ('16) 48교 → ('17) 49교 → ('18) 51교

- 기계·금속, 전기·전자 산업분야 등 연간 6천여 명의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기반 마련

※ 연간 인력 양성 인원('19.3월 입학정원 기준) : 6,280명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내실화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참여학생·기업이 증가하는 등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참여기업의 높은 만족도 달성

※ 참여학생 : ('17) 6,905명 → ('18) 10,875명 / 참여기업 : ('17) 2,108개 → ('18) 2,947개

※ 취업률 비교('17) : 도제학교 77.2%, 전체 직업계고 50.6%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 및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18.11월)

□ 직업계고 체질 개선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62교, 98개 학과)을 통해 산업 변화에 대응한 직업계고 체질 개선 유도
- 중소기업에 취업의지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장려금(24천명, 1인당 3백만원)을 신설하여 조기 입직 유도 및 중소기업 근속 유도
-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 고용부 등과 협력하여 직업교육 과정 확대 및 분야 다양화 추진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 ('16) 12,306명 → ('17) 13,119명 → ('18) 14,514명

□ 전문대학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내실화 지원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 교육과정 정착·확산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통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이 안착·확산되고 계열별 특성화 등 강점분야를 집중 육성한 결과 졸업생 취업률 상승

※ 특성화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 ('15) 69.8% → ('16) 70.8% → ('17) 71.0% → ('18) 71.2%

- 고등직업교육 신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 평생직업교육 비학위과정 이수자 수 : → ('16) 22,298명 → ('17) 26,193명 → ('18) 25,369명

□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선정대학에 재정지원 시행('18)

※ 일반대 20개교 187억원, 전문대 44개교 657억원

○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적용 대상 확대

※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7.11.)

□ 계약학과 내실화 및 활성화

○ 수업의 질 확보를 위하여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적정 정원기준*(안) 마련

- 정원기준 부재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해당 입학
년도 정원의 20/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 6.),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정('18.7.)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18)

※ 5개교 60억원

□ 대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및 활성화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고시) 제정('16.3) 및 개정('17.3)*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 운영기준 및 절차 확립

*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연장 실습시간 제한(1주 5시간 이내), 보험가입 의무화, 실질적 근로의 경우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근거 등 규정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17~'21) 추진

○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창출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산업선도형 대학*'으로 혁신 지원

* 국가 및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신산업분야 창출, 우수인력 양성, 핵심아이디어 제공 등 산업발전 및 혁신을
선도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학

○ 사회맞춤형교육, 캡스톤 디자인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현장
적응력이 높은 인재 양성 추진

□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 소정의 자격을 갖춘 대학생 4,611명에게 학기당 대학 등록금 및 취업지원금 200만원 지급('18) (전년 4,152명 대비 459명 증가*)

* '18년 추경 편성을 통해 I 유형 70억 증액

- (중소기업 재직 유도) 중소기업 재직 중 조기 자산형성을 연계지원*하고 1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의무재직 기간 조정('18)**

* 중소기업 의무재직 기간을 충족한 희망사다리 장학생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고용부 협업)

** 1기업 장기근속 시, 최대 6개월 단축(2년 의무근무를 1년 6개월로 단축)

□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 지역사회·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재직자·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 21개교* 선정·지원('18)

* 동국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아주대, 중앙대, 경희대, 동덕여대, 한성대, 서원대, 한밭대, 청운대,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부경대, 영산대, 동서대, 경상대, 순천대, 조선대, 제주대

- 성인학습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온라인·블렌디드 러닝 등 유연한 수업방식 적극 활용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축운영

- 기본계획 수립('15. 1월)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15.3~6월), 시범운영('15.6월),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개소('15.7.6)
 - * 센터 공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확보 및 환경조성, 콜시스템 및 홈페이지·통합 DB 구축, 전화상담원(9명) 및 전문기술 상담위원(8명), 지원 협업기관 69개 등
- 기업현장 방문, 출연연 및 타부처 산하기관·대학 등과 협력·연계를 통해 기업 기술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 수행
 - * 장비활용(3,409건), 기술자문(10,145건), 정보제공 등(53,687건) 등 총 67,241건 기업수요 접수·처리('15.7~'18.12 누적)
-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공공기술 이전 및 후속연구·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수요발굴지원단 운영
 - * 추진실적 : 24개의 수요발굴지원단이 총 1,400개의 수요기업으로부터 발굴한 기술사업화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도입 406건, 기술출자 15건, 일자리 매칭 411명, R&D 지원 273건, 투자유치 11건, 컨설팅 2,109건 등을 제공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 (특구기술사업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중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이전·출자시키고 기술사업화를 지원
 - * '18년 228개 과제(459억원)를 지원하여, 매출액 1,392억원과 신규고용 1,272명 달성
- (연구소기업 설립) 출자기술에 대한 사업화 기획 및 기술평가 등을 지원하고, 특구법 등 제도정비를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이 대폭 증가
 - * '16년 339개(신설 179개) → '17년 520개(신설 181개) → '18년 704개(신설 184개)

- (기술금융 지원)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별 펀드 기획 및 조성

* 3차 R&D특구 펀드: '16년 188억원(창업) → '17년 501억원(제품개발) → '18년 733억원(성장)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강화

- (기업지원) 연구산업 혁신성장 추진에 따른 연구산업 기업 유입 촉진* 및 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연구산업 기업 총 종사자 수 증가**

*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 수 증가 ('16년) 978개 → ('18.12월) 1,378개, 41.2% 증가

**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수 증가 ('16년) 26,760명 → ('18.12월) 32,812명, 22.6% 증가

- (시장확대) 연구산업 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내 서비스 공급·수요 간 협업 활성화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 R&D 바우처 사업(213억 규모)의 연구산업 기업 참여 확대('18.4), 수요·공급 매칭 활성화를 위한 연구산업 시장 설명회 개최(2회, '18.4월,10월)

□ 중소 벤처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K-ICT 본투글로벌센터 운영)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향하여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지원부터 해외 진출 관련 전문 컨설팅까지 전 주기적 서비스 제공

* '18년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등 총 1,708건의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해외 법인설립 11건, 해외 사업계약·제휴 20건, 해외 투자유치 266억원, 해외특허출원 88건 등 성과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해외 액셀러레이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ICT분야 스타트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18년 씨엔티테크, 로아인벤션랩, 와이앤아처 등 6개 액셀러레이터를 선정·지원하여 총 48개 창업초기 기업의 창업·성장·글로벌 진출을 지원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ICT 분야 창의·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18년 32개의 혁신 아이디어 총 4개 신규창업, 28개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 IR·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통해 60억원 규모 투자유치 달성

□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 전시·수출상담회, 스타트업 IR,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융복합 해외마케팅 행사 (K-Global@)를 통해 국내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우수사례 및 기술력을 홍보하여 해외진출 판로 확보 및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

- '18년 인디아(7월), 미국 실리콘밸리(11월), 중국 선전(12월) 등 3개 지역에서 K-Global@ 행사 개최(국내기업 84개사, 총 1,031건 수출상담)

□ 재도전 사업화 및 멘토링 서비스 지원

- (재도전 지원) 재도전 기업인 복귀를 위해 재도전 컴백 캠프 개최(연 4회), 마케팅 및 홍보 지원(18개사), 재도전 창업보육센터 입주(20개사), 재도전 패키지형 지원(38개사) 및 재도전 인식제고 활동 등을 통해 재기 기반 마련

* '18년 투자유치 1.9억원, 법인 설립 9건, 신규고용 77명 등 성과 창출

- ICT분야 우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라디오 캠페인 녹음·집행 등 실패·재도전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 추진

- (일몰사업) 2018년을 끝으로 'K-Global ICT 재도전 패키지 지원사업' 종료

- (벤처 1세대 멘토링 지원) 벤처1~3세대 CEO멘토단의 1:1전담 멘토링, 실전창업교육, 투자역량강화, 성공벤처CEO기업견학 등을 통해 ICT 분야 초기창업기업 및 재도전, 예비창업자 창업성공을 제고

- 2018전담멘티 248개사(창업초기기업 166개사, 예비창업자 62개팀, 성장기업 20개사)대상 3,593건, 오픈멘토링(일반창업자 1,337개사/명) 대상 2,796건 등 총 6,389건의 멘토링 서비스 제공

- '18년 투자 유치 71건(458.9억 원), 자금유치 284건, 특허 출원·등록 199건, 법인 설립 72건, 고용증대 561명 등 성과창출

□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수출지원 성과) 국내 우수 SW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준비도 제고, 네트워크 확충,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확대 등 해외진출 전단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134백만 불 규모의 수출지원 성과 창출
- (수출 준비도 제고) 해외 목표시장에 부합하는 SW 사용자 환경·기능·언어 현지화 및 국내 SW인력의 글로벌 개발역량 강화 지원
 - 현지 환경의 언어·문화 분석을 토대로 목표 시장에 맞는 사용자환경 개선, 매뉴얼 제작 등 수출형 SW 현지화 지원(10개사)
 - 선진개발 기법을 접하기 어려운 중소 SW기업 개발자를 대상으로 美실리콘밸리의 SW개발문화 및 최신 개발 방법론 습득 기회 제공
- (네트워크 확충) 해외 기술협력 컨퍼런스 개최 및 국내 수출 협의체 운영
 -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IT시장을 대상으로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첨단기술 교류 및 국내기업 현지 파트너쉽 기회제공(200여명 참석)
 - 주요 권역별(5개) 및 IT·SW 협력 분과별(3개) SW 해외진출 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업 간 정보 교류 및 국내외 네트워킹 지원
-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확대) 해외 정보화 컨설팅 수립을 통한 사업기회 발굴 및 미국, 인도 거점기반 현지시장 진입지원
 - 국제기구, 현지정부와 공동으로 해외 프로젝트 대상 정보화 컨설팅을 수립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기회 제공(14개 과제)
 - 해외거점(미국 실리콘밸리, 인도 벵갈루 등)을 기반으로 국내 SW 수출기업의 현지시장 안착 및 매출확대 지원

□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 우수 CG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CG전문기업육성’ 지원(총8개사)
 - * 해외매출 194억, 신규일자리 창출 81명 달성
- 북경영화제('18.4월), AFM(미국필름마켓, '18년 11월) 연계 CG 비즈매칭 상담회 개최
 - * 국내 CG/VFX, 애니메이션 관련 각 10개사 참가, 상담건수 345건, 계약액 21.4억원 달성
- 국내 컴퓨터그래픽(CG) 시장 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CG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2018년 CG 리크루팅 캠프’ 개최('18.8월)
 - * 국내 CG/VFX, 애니메이션 관련 11개사, CG전문인력 80명 참가, 현장면접을 통한 실채용 25건

□ 지역SW산업진흥지원

- (지역SW기업성장지원) 지역 맞춤형 중소SW기업 인력양성, 마케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등 성장 지원(46.53억 원)
 - * 지역SW기업 407개사 지원, 매출 8,367억원, 신규고용 1,181명, 인증 143건, 특허 249건 등
- (지역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에 SW기술을 적용하여 SW제품의 상용화·국산화·사업화 지원(101.39억 원)
 - * 77개 기업지원, 과제관련 매출 144억원, 신규고용 269명, 인증 50건, 특허 101건 등
 - (신규) 지역별 SW융합전략산업분야에 기반한 SW융합제품 개발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과제 및 초기SW기업 상용화 지원(42개 과제)
 - (계속) 지자체내 공공서비스 중에서 개선이 시급하나 재정의 문제로 지연되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SW융합을 통한 제품상용화, 현장 적용 및 지역 확산 (5개 과제)
- (지역SW품질역량강화) SW품질역량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내 중소SW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의 테스트, 컨설팅,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12.68억 원)
 - * SW품질 컨설팅 264건, 테스트 328건, 인증 94건, SW품질 전문교육 1,363명 등

□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지원

- (기술개발) 대·중·소 상생형 조선해양 분야 ICT융합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지원 (167.44억 원)
 - (기반기술개발) 조선해양 IoT·빅데이터 기반기술 및 SW개발자 환경 기반기술 개발 지원 (2개 과제)
 - (응용기술개발) Ship/Shipyard/Service 분야에 ICT융합을 적용한 응용기술 개발 지원 (22개 과제)
 - * 신규고용 9.6명/10억당(목표 8명/10억당), 좋은 일자리 창출(정규직비율) 84.3%(목표 75%), 사업화 26건(목표11건), SCI(E) 논문 11건, 특허등록 7건(출원 40건) 등
- (기반조성)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 건립·운영 및 ICT·SW 품질·성능 검증 인프라 구축 및 조선해양 ICT융합 클러스터 기반 조성 (27.4억 원)
 - * 시설장비가동률 37.3%(목표30%), ICT창의융합센터 공정률 50%(목표50%) 등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화 수준 향상 지원

-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1,510개사)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203개) 제공 ('18년 기준)
 - 기업 업종별(제조업, 정보통신업 분야 등) 적합한 클라우드를 추천·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관리 및 보안성 강화 지원(27억 원)

□ ICT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ICT 중소기업에 ICT 및 ICT 기반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 (84개 과제, 350억 원)
- (ICT유망기술개발지원) ICT분야의 신생기업 및 중소(벤처)·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수요를 반영한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111개 과제, 380.62억 원)

- ICT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업계 기술수요를 반영한 ICT와 타 산업간 융합혁신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56개 과제, 159.58억 원)

* K-Global 300 기업지원 11개 과제, 투자유치연계형 11개 과제, 일반형 34개 과제

- ICT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지능정보화 기술 기반으로 4차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55개 과제, 221.04억 원)
- (전파산업 중소기업 지원)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력·인프라·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분야 중소기업에 기술개발과 제품화 제작비용 및 전파인증비용 지원 (163건, 12.8억 원)

□ 정보보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국내 정보보호업체에 제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환경 및 전문교육 제공
 - 테스트베드 이용 144개사, 이용업체 대상 전문교육 실시(6회 169명)
- 정보보호 제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및 전시회·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지원
 - 정보보호 해외진출 전략거점 운영(5대권역, 29개국), 정보보호 비즈니스 상담회 및 쇼 케이스 개최(6회, 52개사),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20개사)
- 중소기업이 보유한 각각의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통합·융합 보안 제품을 협업 개발 할 수 있도록 개발비용 지원
 - 통합·융합보안 제품 개발 및 제품화 완료(7건)
- 융합산업에 필요한 보안기술 및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전문인력 지원(45명)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콘텐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센터 확장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인큐 베이팅 및 게임제작, 유통, 수출 지원 강화
 - 게임벤처(30개) 및 중소기업(50개) 대상 게임개발 공간 제공 및 게임테스트 베드·소프트웨어·교육·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 전략시장 및 신흥시장* 게임전시회 한국공동관 참가 등 국내게임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한 비즈매칭 지원
 - * 전략시장 : 차이나조이(8월), 게임스컴(8월), 동경게임쇼(9월)
 - 신흥시장 : 태국게임쇼(10월), 인도네시아(10월)
 - 국산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해외 직접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인프라, 컨설팅, 운영관리(GM), 빌링, 마케팅, 번역 지원
 - * 온라인게임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지원(13개),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24개)
- (온라인·모바일 게임 및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 지원)
 - 온라인·모바일 게임 및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인디게임 개발 지원,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 등
 - *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26개),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지원(17개),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10개), 가상·증강현실 활성화 방안 연구 등
- (애니메이션)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TV시리즈, 극장용 등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지원, 해외전시마켓 참가 및 아시아 공동마켓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
 - * TV시리즈 14편, 극장용 6편, 단편 10편 작품 지원 및 웹애니메이션 3편 작품 신규지원 등
 - * 애니메이션 해외마켓 KIDSSCREEN(2월), MIPTV(4월), MIPCOM(10월) 등 참가 및 아시아애니메이션서밋 개최(11월)

○ (방송영상콘텐츠)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우수 콘텐츠 발굴·제작지원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 우수 다큐멘터리, 단막극, 연속물 제작지원(다큐멘터리18편, 단막극4편, 미니시리즈4편)
- * 우수 신진 단막극 기획개발 지원(중단편 기획안 4편, 다큐기획개발 8편)
- *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웹드라마, 융합형콘텐츠 등 21개 과제)

- 해외 유력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 또는 한국공동관 운영(11개 마켓/ 157개 방송기업 지원), 국내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BCM/5월, 벅스코, BCWW/9월, 코엑스) 등을 통한 중소 방송영상업체 콘텐츠 비즈매칭, 마케팅 등 수출 촉진 지원

- 수출용 방송콘텐츠 대상 번역, 더빙, 종합편집 등 현지화 재제작 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중소기업 47개 작품)

○ (문화기술 R&D 지원) 문화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확대 및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 콘텐츠산업 현장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18년 17건 지원)

- 기업 간 교류협력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콘텐츠(C)와 기술(T) 기업을 위한 오픈포럼 3회, 네트워크 2회, 성과전시회 2회 개최

- 해외전시 지원을 통한 문화기술 해외진출 확대 및 문화기술 R&D 해외시장 판로 촉진을 위해 글로벌 문화기술 한국공동관 운영

CHTF(중국하이테크페어) 2017('18.11.14~18) : 상담건수 238건, 상담금액 \$95,520,942

□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 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신규 1,461억 원) 조성 및 완성보증(신규 1,079억 원), 이차보전(이자지원 대출규모 347억 원) 제도 운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 자금 조달 확대

- 다양성(독립, 예술 등) 영화제작사 자생력 강화 지원

- 독립·예술영화 등 제작지원 (총 80편 / 49.8억 원)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을 통해 독립·예술영화 상영기회 확대 및 관객의 다양성 문화 접근 증진(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7개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24개관)
- 개봉예정인 저예산영화의 상영·배급 지원(28편)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관광기업 발굴·지원) 혁신적 관광기업을 발굴,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 및 교육·컨설팅, 국내외 홍보·판로개척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등을 통한 관광벤처기업 발굴(86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 예비관광벤처 : 3,000만원(상품·서비스 개발비 / 자부담 25%)
 - 관광벤처 : 1,400만원(홍보·마케팅비 / 자부담 25%)
 - 관광특화 교육 ‘관광벤처아카데미’ 운영(7회),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6회),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42건)
 - 관광벤처보육센터 확대 조성·입주(41개) 및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4개 프로젝트) 등 안정적인 기업성장 및 협업 환경 조성
- (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관광벤처 특별융자**, 크라우드 펀딩 등 투·융자 지원
 -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운영(‘15~’19년 총 970억 원, 기금 550억 원 포함), 관광벤처사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18년 20억 원 규모 내)
 - * 제1호 펀드(‘15년 결성): 총 220억(관광기금 130억, 민간 90억), 제2호 펀드(‘16년 결성): 총 200억(관광기금 100억, 민간 100억), 제3호 펀드(‘17년 결성): 총 270억(관광기금 150억, 민간 120억), 제4호 펀드(‘19.2월): 총 280억(관광기금 170억, 민간 110억)
 - ** ‘18년 3/4분기 기준금리: 2.48%, 중소기업은 공지금리 대비 0.75% 우대
 - 관광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활용 자금 확보 지원(펀딩설계, 콘텐츠 제작·펀딩 수수료 등), 투자자문위원회 개최(5회) 등 후속 투자유치 지원

□ 국내 유망 중소 스포츠기업체 경쟁력 강화

○ 스포츠용품 인증 획득 지속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용품 인증 '18년 실적 59건(목표 78건 대비 75.6% 달성)

** 해외 전시회(5회) 참가업체 평균 상담액 392만불, 총 상담액 1,832만불(46개 업체)

○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및 고부가가치 용품 개발을 위한 중소 스포츠 업체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

* ('15년) 41개 업체 137억 원 → ('16년) 51개 업체 315억 원 → ('17년) 95개 업체 383억 원 → ('18년)
50개 업체 420억 원

** '청소년형 가상현실 기반 스포츠 교육 플랫폼 개발' 등 총 30여개 과제 77억 원 지원

제5장

농림축산식품부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 연구 지원 및 산업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동물시험 및 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임상시험) 30품목,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등록 컨설팅 지원 10품목
 - * 지원규모('18) : 21억원(국고보조 60%, 자부담 30%)
 - 기능성 농식품자원 실태조사, 통합DB 구축으로 체계적 산업육성 지원

□ 식품외식종합자금

- 식품가공업체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 현대화, 국산원료 매입에 필요한 원료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지원규모('18) : 1,353억 원(노후시설 현대화 100, 가공원료매입 969, 외식업체 육성 74, 농공상용복합형 중소기업육성 210)
 - * 시설자금(연 2~3%, 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연 2.5~3.0%, 2년 상환)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식품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대한민국식품대전 개최 및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용판매장 확대, 면세점, TV 홈쇼핑 입점지원 등 제품홍보, 판로지원

- 지원규모('18) : 77억 원(식품컨설팅 20, 한국형메쓰거라이 경영컨설팅 1,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활성화 20, 대한민국식품대전 14)

* 식품 및 메쓰거라이 컨설팅(자부담 5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대한민국식품대전 100%

□ 사료산업종합지원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실시하여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사료 원료구매자금 및 시설 개보수자금 융자 지원

- 사업규모('18) : 568억 원(사료원료구매자금 558, 시설개보수자금 10)

* 지원조건 : 원료자금 융자 80%(2년 거치 일시상환, 3%), 시설자금 융자 70%(3년거치 7년상환)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을 융자로 지원

- 지원규모('18) : 3,386억 원(원료구매지원 3,338, 수출시설현대화 48)

* 지원조건 : 원료자금 융자 80%(고정금리 (2.5~3%)·변동금리 중 택일, 1년 상환), 시설현대화 융자 80%(고정금리 (2~3%)·변동금리 중 택일,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출전문단지’, 품목별 수출출통합조직 육성, 전문 판매조직인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물류비·안전성검사·검역·통관·보험·브랜드 홍보 등 맞춤형 지원 추진

- 지원규모('18) : 713억 원(생산기반 구축 38, 판매조직육성 38, 수출업체 맞춤지원 633, 농식품수출바우처지원 4)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확대

○ (맞춤지원) 단계별 서비스 차별화, 연계 강화로 수출 성장사다리 제공

* 수출초보기업(신규수출기업화)→수출유망기업(지사화사업)→수출강소기업(월드챔프)

○ (지사화사업)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단계별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 규모 확대**

* (진입) 기초마케팅지원 등 → (발전) 신규거래선 발굴 등 → (확장) 수출 및 현지화지원 등

** '16) 3,273개사 → '17) 5,032개사 → '18) 4,734개사 → '19) 4,843개사(예정)

○ (해외전시회) 정부의 미래 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유망 분야* 전시회 참가 확대

* 고부가가치서비스, 생활소비재 분야 : '17) 19회 → '18) 21회

○ (수출바우처)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이 지원사업 메뉴판*에서 필요한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자유롭게 수출 마케팅 서비스 이용

* '18년말 기준, 932개사 5,846개 서비스로 메뉴판 구성

○ (월드챔프*) Pre/Post 월드챔프를 도입해 전후방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 수출 시장 확보 지원

* 기업 중심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18년 총 183개사 지원)

** 최장 지원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월드챔프 5년 + Pre 또는 Post 3년)

○ (전자상거래) 글로벌 온라인 대표 플랫폼(아마존, 쿠팡, 이베이)과 유통 쏠주기형(기업발굴-입점-마케팅-물류) 수출지원 프로그램 추진

* '16) Amazon US, Qoo10 플랫폼 → '17) Amazon JP, eBay 추가 총 4개 플랫폼으로 확대

- (글로벌 파트너링) GP 상담회 등 중소기업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수출계약 269건(4.2억불) 달성
 - * GP 상담회 개최 : 자동차 14회, 전력기자재 4회, 기계 5회, 조선 4회 등
 - * 거점 무역관 확대 : ('17) 45 → ('18) 47개소(추가 거점무역관 : 방콕, 선양)
 - * 해외 전문인력 확대 : ('17) 5명(일본3, 미국1, 유럽1) → ('18) 8명(일본4, 미국2, 중국1, 유럽1)
- (무역보험) '18년 중소기업에 대해 52조원(중소 32.2조)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
 - * 중소기업 지원실적(조원) : ('16) 43.4 → ('17) 47.9(중소 28.9) → ('18) 52.0 (중소32.2)
- (FTA 활용) FTA활용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 제고
 - * FTA 활용지원 컨설팅 건수 : ('17) 4,600개사 → ('18) 4,800개사
 - * 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 : ('17) 58% → ('18) 60%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 (R&D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R&D 지원 비중 확대
 - * 중소기업 지원 비중(KEIT 기준) : ('15년) 55%(6,859억원) → ('18년) 57%(7,474억원)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등 중소기업 전용사업 운영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기획하는 현장 중심 과제지원 확대
 - * 자유공모·품목지정형 과제 비중(신규과제 기준) : ('15년) 65.0% → ('18년) 75.05%
- (기술 사업화) 공공연구 등의 최신 R&D, 기업의 수요기술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공급기술-수요기술간 온·오프라인 연계 매칭 지원
 - 혁신기술 보유 우수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자금 등 기술금융을 통한 사업화 지원 확대
 - * '18년 산업기술금융 종합지원(GIFTs) : 3,400억원 지원(투자 1,400억원+융자 2,000억원)

-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접점에 있는 테크노파크(TP)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 기술이전 지원건수 : ('16) 955건 → ('17) 985건 → ('18) 1,015건
- 대기업·공공연구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실시
 - * 기술나눔 추진실적 : ('16) 342건 → ('17) 177건 → ('18) 398건
-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 *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예산 : ('16) 456억원 → ('17) 450억원 → ('18) 420억원
- 중소·중견기업의 우수기술 확보 채널 다각화를 위해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 가공·홍보하고 최신 기술시장 동향 정보 제공** 확대
 - * NTB 등록기술 가공 및 제공건수(누적) : ('16) 1,000건 → ('17) 2,000건 → ('18) 3,000건
 - ** 등록기술의 이전 여부 및 연구자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편(계속) 특허청, 중기공, 산단공 협력 통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 제공 추진
- (R&D 국제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 하기 위한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확대
 - * 신규과제 지원 : ('17년) 48개 → ('18년) 57개 → ('19년) 60개
 - 유레카(EUREKA)* 등 글로벌 R&D 프로그램 참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 * 독일, 프랑스 등 범유럽 기술강국 44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R&D 네트워크
 - 민간 중심 국제협력 지원을 위해 ①공공연구소 내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센터 신설*, ②글로벌 기술협력 지원단(K-TAG)** 확대 ('18년 421명)
 - * 공공연구소 기술전문성 등을 감안 '18년 3개 내외 센터설치 → 단계적 확대
 - ** 유럽·美·日 거주 교포공학인 네트워크로 국제공동R&D 타당성과제 지원 역할 수행

□ 업종별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지속 및 전문인력 양성
 -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장비·소재 업체의 R&D·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제25조의5) 유지
 -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장비·소재 유망기술 5개 분야 세액공제율 : (R&D 투자) 최대 30%, (시설투자) 최대 10%
 - 기업 수요와 연계한 초고속컴퓨팅, 차량용반도체 등 설계 전문교육 및 현장형 실습을 통해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 양성('18년 누적 2,242명)
 - *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 ('17년) 49억 → ('18년) 61억
- (디스플레이) AR·VR, 차량용 등 異種 산업간 융복합 신시장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확대 지원
 - *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시장활성화 지원사업」 ('16~'19, '18년 37.5억원)
 - 중소·중견기업에 부품·장비 관련 석사급 우수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속 추진('18년 18.6억 원)
 - 對中 수출 확대를 위한 로드쇼, 무역상담회, 한·중 산업 교류회 추진
 - * 수출로드쇼·무역상담회 및 한·중 디스플레이 산업교류회(5, 6, 9월) 등
- (뿌리산업)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18.6월, +111개)하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뿌리기술 위주 집중 지원
 - * '18년 173억원, 28개 과제(계속 24개, 신규 4개) 지원
 -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54명)하고, 외국인 기능인력 전문대학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74명)해 뿌리기업에 공급
 - * 대학원 '18년 24.5억원,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7개교 운영
 -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4개)하고 특화단지에 공동활용 시설 지원(7개)
 - * '18년 38억원, 특화단지 지정·지원사업 신청 건 평가(1, 2분기) → 특화단지 지정 고시 → 특화단지 지원 협약 진행

- (디자인·엔지니어링)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활용(21개사) 및 중소기업의 생산 서비스 활용(12개사) 지원
 - 대구·울산·익산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제조 전주기에 걸친 설계 엔지니어링 SW·장비 활용 및 애로기술 지원
-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벤치마킹 등 우수기술 확산을 위한 대표공장 및 고도화기술 시험·성능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안산) 구축
 - * 대표공장(3개) : 동양피스톤(뿌리), 신성이엔지(전기·전자), 영신금속공업(자동차부품)
- (신재생에너지) 혁신제품형 과제 확대, 중소기업 참여 필수과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신재생 R&D예산 860억 원 지원*
 - * '18년 전체 예산 2,079억원 대비 41.4%('17년 예산 798억원 대비 62억 상향 지원)

□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용자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위주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은 금리 우대 ('18년 3,000억 원)
 - * 중소기업 지원비율 : ('16년) 98.6% → ('17년) 98.7% → ('18년) 98.8%
 - * 분기별 변동금리(최저 1.50~1.75%), 3년거치 5년상환 수준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대상시설(82개 항목)에 지원
- (에너지진단) 중소기업에 에너지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18년, 12.71억 원)
 - 에너지사용량 연 2천toe~1만toe 중소기업에 진단비용 30% 지원
 - * 165개사에 8.1억원 지원하여, 연 38천toe의 에너지절감 잠재량 도출
 - 공통제조공정 활용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진단비용의 70% 지원
 - * 5개 뿌리기업 진단결과 1,017toe 에너지절감 잠재량 도출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수출) 세계일류상품*, 수출도약기업 및 소비재·서비스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 기업화 촉진

* 세계일류상품 : ('01년) 120개 품목, 140개 기업 → ('18년) 784개 품목, 876개 기업

** 수출도약기업(100개), 소비재 선도기업(50개), 서비스 선도기업(27개) 등

- (R&D) 월드클래스 300* 사업과 중소-중견기업 공동 R&D** 지원을 통해 유망 강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WC300 기업 41개 추가 선정(총 297개) → R&D-수출 등 패키지 지원('18년 1,232억원)

** 12개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공동 R&D 지원('18년 37억원)

- (인력)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캠퍼스 스카우트**, 핵심연구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기업간 미스매칭 해소 지원

*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18,5), Leading Korea, Job festival('18,11)

** 유망 기업이 지방 대학을 직접 찾아가서 채용 설명회 개최(총 6회)

*** 청년 석·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18년 9.9억원)

- (성장디딤돌) ‘중소→중견’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세제·고용 등 12개
성장걸림돌 과제 개선 완료

* 내일채움공제 과세특례 확대, 고용증대세제 도입,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확대 등

제7장

보건복지부

□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의료기기, 신약개발 분야 실용화 성과 창출

- 신약, 재생의료, 의료기기 등 미래유망 보건의료분야에 전년대비 19.2% 증가한 487.5억 원의 중소기업 R&D 투자

※ 첨단의료기술개발(243억, 59개 기업), 의료기기기술개발(99억, 28개 기업), 감염병위기 대응기술개발(91.6억, 41개 기업) 등 161개 기업 지원

- 의료기기 품목허가*, 글로벌 신약 임상시험승인·기술이전** 등 보건의료분야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개발 성과 창출

※ (주)대승의료기기 의료용분석장치(설태분석을 위한 설진기), (주)시지바이오 합성 골이식재 등

※※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슈퍼박테리아 바이오신약 'SAL200' 총 6억 6,750만 달러, (주)에이비엘 바이오 이중항체 안구치료제(ABL001) 총 5억 9,500만 달러 기술수출 등

제8장

환 경 부

□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82억원)

-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중소기업장에 대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1,338대)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5.73억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제고토록 계획(4개 업체)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9억원)

- 굴뚝 TMS 부착 사업장 중 중소기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정도관리비, 유지관리비 중 일부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

□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15억원)

- 중소기업 중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기술 지원 실시

□ HAPs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4억)

-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자문(53개소 컨설팅)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기술지원(14억)

- 유증기회수설비 운영 주유소의 운영 방법 및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부적합률, 유증기 배출량 저감(155개 컨설팅)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25억원)

- 중소기업 우수 실용화 기술의 현장적용 및 실증화 연계로 환경현안해결 및 중소환경 기업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과제(7개) 지원

□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11.5억원)

- 미활용 유망기술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기술사업화 후속연구 추진을 위한 계속 과제(8개) 지원

□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258.17억원)

- 6대 환경분야 기술수준 향상과 환경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수출산업화 제고를 위한 사업화 과제(64개) 지원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180.35억원)

- 단기간 시장 활성화 및 현장적용이 시급한 분야의 중소기업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사업화 기술개발 과제(49개) 지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Bridge 프로그램’ 추진

* 중소 환경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현안 대응기술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우수 성공 과제와 컨소시엄 연구추진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24.5억원)

- 기존 매립·소각·해양배출을 대체하여 발생폐자원을 처리와 동시에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실증시스템 기술개발 신규(2개) 과제 지원

□ 화학사고대응기술개발(46.3억원)

-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발생 대비 VR/AR기반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사고발생시 현장의 유해화학물질 측정 기술 등 계속(6개) 과제 지원

□ 환경개선자금 지원(48억원)

- 기업의 환경투자 촉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총 620억 원 규모, 이차보전)
 - 국내 폐기물처리와 관련, 민간 소각장, 매립장 시설 융자지원

□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34억원)

- 환경산업 성장기반 마련 및 글로벌 국가산업으로 육성 지원을 위하여 중소 환경산업체의 시설개선,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총 455억 원 규모, 이차보전)
 - 중소 환경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위하여 마케팅·홍보 자금 지원범위 확대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1,284억원)

- 중소 재활용업체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장기·저리 자금 대출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의 자원화 활성화 및 자원순환 산업체계 구축 촉진
 - 영세재활용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편성 지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48억원)

- 중소환경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출을 위해 사업화 컨설팅 13개사 지원(신규거래처 88개사 증가), 사업화 개발자금 24개사 지원(전년 대비 과제매출액 84%증가, 신규 고용 54명 창출), 사업화 투자유치 50개사 지원(민간자금 115.7억 원 투자유치)

□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79억원)

- 국내 유망 환경기술을 해외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실증화사업화를 위한 국제공동사업 지원(20개 과제, 40억 원)
- 성장 잠재력이 높은 환경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 추진(13개 기업, 26억 원)
-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12개 과제, 13억 원)

제9장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보조* 및 용자** 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685억원, 6,952개소 보조)

** 산재예방시설 용자 (1,661억원, 950개소 용자)

- 보육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시설설치비 89개소, 교재교구비 98개소, 인건비 512개소 등)

□ 고용유지 및 촉진 기업에 대한 지원

- (고용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실직예방 지원(1,262개소, 33,295명)
- (고용촉진) 여성 가장, 장애인 등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16,519개소, 19,792)

□ 우수 중소기업 취업을 통한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산

- (중소기업 탐방)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강소기업 체험기회(1~5일) 제공으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18년도 중소기업 탐방: 10,229명 참여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등 3자가 기여하는 자산형성 사업

* (2년형) 1,600만원 =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3년형) 3,000만원 = 청년 600만원 + 정부 1,800만원 + 기업 600만원

- ('18년) 청년 106,402명, 기업 39,365기업 신규가입

□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확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체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
 - ('18년) 2,642천명, 412,458백만 원 지원
- 中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위한 개인지원제도 개선
 - *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자비 부담 면제, 훈련비를 고용부가 훈련기관에 직접지급 등
 - ('18년) 495천건(비용지원건수), 95,235백만 원 지원
- 중소기업의 이러닝 훈련(기술·공학분야) 공급을 위한 평생능력개발 이러닝 시스템 구축·운영('15.4월~)
 - 온라인 가상장비를 통한 실습환경 조성, 학습자-교·강사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www.e-koreatech.ac.kr)
 - 중소기업의 이러닝 환경을 지원하고 민간이 보급하기 어려운 기계·전기전자·메카트로닉스 분야 등 이러닝 콘텐츠 개발*
 - * '18년 62개 과정(누적 11분야 413개 과정) 개발, 학습자 수는 연인원 232,862명(누적 연인원 917,842명)
 - 고위험·고가 장비의 주 기능을 가상으로 구현하여 실제 상황처럼 진행되는 가상 훈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 '18년 10개 과정(누적 55개 과정) 개발, 민간공공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 특성화고교 등 102개 기관 322개 과정 보급
 - 240개 중소기업과 MOU 체결, 320개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제공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 ('18) 252,159명, 234,124백만 원 지원
 -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적 포함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지원
 - ('18년) 71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 50백명, 재직근로자 424백명 등 474백명 직업훈련 실시

□ 우수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우수숙련기술인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수립('12년)에 이어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수립('18.3월)
 - * 우수숙련기술인의 선정분야를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종으로 확대, 국내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및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향상 방안 등
- 대한민국명장 선정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숙련기술인의 경력개발경로 구축
 - * 명장선정시 우수숙련기술자 가점(10점) 부여('18년)
- 숙련기술인 우대를 위한 숙련기술인들이 학교,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 ** '18년 말 현재 대한민국명장 선정(634명), 산업현장 교수단 위촉(1,888명),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숙련기술인 배출(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준우승) 등

□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 여건 제고

- 한국어시험 외에 근무경력·자격·훈련 및 직능수준 등을 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를 13개국(기존9+신규4)으로 확산
 - * 선발포인트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인원: 22,168명
- 뿌리산업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 후 외국인력을 도입('17~'18년 용접분야 시범사업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지역별 전문 컨설턴트를 선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무관리 교육, 행정신고 안내 및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 등 EPS 현장 컨설팅 시범 실시(이천·논산·밀양·통영)
-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2,232명) 및 사업주 대상 교육 실시(5,782명)

□ 중소기업 인력 지원 강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확대 및 다각화를 통한 인력지원 강화(52,047개소, 163,533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인력지원 강화
 - * 신규채용인건비 지원(134개소, 63억원), 임금보전 지원(58개소, 53억), 설비투자 지원(41개소, 11억원), 설비 투자용자 지원(22개소, 191억원)
- 중소기업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지원 강화
 - (업종별 재해예방)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기술지원
 -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85,424개소),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위탁)(329,545개소),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184명), 제조·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25,740개소) 등 실시(467억원)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성능 검사 실시
 - * 위험 기계기구 / 방호장치 보호구 / 산업용 기계기구 안전인증(57,281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45,538건) 실시 (60억원)
 - (유해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근로자 건강장해 유발 유해인자 보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및 보건관리 기술지원
 -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142억원, 40,024개소), 특수 건강진단 비용 지원(131억원, 179,97명),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전성 평가(2,214개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30,305개소) 등(338억원)

□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금지원

- (판로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지원 등
 - (온라인)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 및 공공조달 정보 제공, 판로지원 사업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36.5+, www.sepp.or.kr) 구축·운영
 - (오프라인)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 운영 및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등
 - * 판매장 : '18년말 기준 전국 99개 공동판매장 운영
 -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18.7.13~7.15 대구시)

- (공공구매 지원)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구매연계상담, 공공구매 지원센터(☎1566-5365) 운영 및 권역별 공공구매 상담기관 운영을 통한 상시 구매상담

* '18년 구매상담 9,939건, 설명회·기획전 304회, 정부합동워크숍 2회 개최

○ (자금지원) 사회적기업 투자지원 및 정책연계를 통한 대부지원

- (투자지원) 모태펀드 제5호 조합 추가 조성(108억 원) 및 사회적기업 대상 투자 시행(총 164억 원)

*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 5개 조합, 290억원 규모 운영 중

- (대부지원) 미소금융사업 등과 정책연계를 통해 대출 지원 시행('18년 1,171억 원, 810건)

* ('18년 지원) 미소금융 30.4억원, 중소기업정책자금 295.2억원, 사회적기업전용 특별보증 50.5억원, 신용보증기금 나눔보증 795억원

□ 중소기업 근로체계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 (컨설팅 지원) 중소·영세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전문 컨설팅 1,508건 지원

-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도(주52시간제) 관련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추경 등을 통해 교대제 개편, 임금보전방안 설계 등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 확대('17년 102건 → '18년 651건<추경 450건>)

- (교육 지원) 장시간근로 개선, 임금·평가체계 개선 등 일터혁신 주요 분야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지원을 위한 교육 제공(1,016명)

-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CEO 대상 혁신 마인드, 경영기법, 사례 등 코칭 지원(30개소)

- (인프라 구축) 일터혁신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제작,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일터혁신 촉진·확산

□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속 실시
 - 심화컨설팅 1,062건을 비롯하여 총 2,432건의 컨설팅 실시

표 Ⅲ-9-1-1 | 컨설팅 실적

(단위: 건)

계	기본 컨설팅	심화 컨설팅	운영 컨설팅
2,432	1,325	1,062	45

제10장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R&D)

-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9개 업체, 48.1억 원)
 -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통해 우수 기술이전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위험요소 최소화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19개 업체, 101.27억 원)
 -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을 시장 수요 및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기술개량,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신기술 인증 확보 등 지원
-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14개 업체, 49.75억 원)
 - 재난안전, 취약주택, 교통시설물 등 국토교통분야 국민의 생활안전을 담보하는 요소기술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연구 지원
- 서비스 R&D 융합기술 사업화(7개 업체, 37.89억 원)
 - 기존 R&D 시제품 성과에 추가하여 ICT 기반의 유지관리 등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 사업화 확대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건설시장 수주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52개사에 전담전문가 파견컨설팅 132회 지원 등(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운영, 93백만원)
 - * 그 외 전문가 상담지원(12건), 전문가 자문위원 간담회, 해외건설 중소기업 진출지원 설명회(2회) 운영
-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수주교섭 및 타당성 조사 비용 등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52억 원)
 - * 프로젝트 입안구상, 금융조달 방안 수립,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 사업성 분석 및 발주 예정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사전조사, 발주처 면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중소기업 물류효율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물류효율화) 중소기업의 물류체계 진단을 통해 개선안 수립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제3자물류 컨설팅) 제3자 물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물류진단, 개선안 수립 등 컨설팅 지원 ('18, 24개사)
 - (공동물류) 중소기업 간 운송, 보관 등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해 공동화 사업모델, 경제성 등 컨설팅 지원 ('18, 10개사)
 - (해외진출) 물류·화주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하려는 경우 '민관합동 물류 지원센터'(대한상의)를 통해 비용 등을 지원 ('18, 10건)
 - 글로벌 물류체계 진단·분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현지동향, 노무·법률 등의 현지정보도 수집·제공(worldlogis.net)
- *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최대 50% 수준(4천만원 내외)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

□ 친환경물류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다각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를 확대하여 친환경물류 활동 확산
 - * '17. 230개사 → '18. 260개사, 30개사 추가
- 물류·화주 기업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장착 보조금 지원 (1,860백만원, 사업비의 30~50%)
 - * 에어스포일러,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등 4개 사업에 대해 90개 기업 선정 및 지원
-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화주기업 19개사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관리, 친환경물류 활동 확산 도모
 - * '18년도 정기점검대상 14개사 점검결과 12개사 유지

제11장

해양수산부

□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 지원

- 산업계의 기술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미래해양기술개발) 해양 분야 미래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계 요구 기술, 아이디어의 기술개발 지원(16개 신규과제, 50.4억 원)
 - (해양중소벤처지원) 해양 분야 단기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용화 기술 개발 과제 지원(28개 신규과제, 64억 원)
 - (해양수산물기술사업화지원) 해양수산물 R&D 성과를 토대로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기술개발 및 시장검증 지원(27개 신규과제, 75.6억 원)
- 해양수산분야 대표적인 실용화 사업으로 해양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해양산업계 고용창출 확대 기여 등 해양수산물 산업 육성
 - 사업화 매출 성과는 최근 3년('16~'18) 간 평균 65억 원 이상 발생하였으며, 투입 예산(438.6억 원) 대비 평균 44% 이상(196.7억 원) 매출액 발생

□ 해양장비 및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전

- (해양장비) 해양공간이용 극대화 및 해양탐사, 해양자원개발 등을 위한 첨단 해양 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4차산업 관련 해양 IoT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 대형요트 건조기술 개발, 해양플랜트 운영·서비스 R&D 등(13개 과제, 422.9억 원)

- 해양에너지 발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조류·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및 해수온도차 발전*, 소형 파력발전시스템 R&D 추진(4개 과제, 136억 원)

* 해수온도차 발전시스템의 적도해역 실해역 실증을 위한 한-키리바시 업무협약 체결('18.12)

□ 수산분야 중소기업의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 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1개소 추가)* 운영으로 유망기업·예비창업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창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17) 4개소(부산·제주·경북·강원) → ('18) 5개소(+전남)

** 신규 창업기업 수 : ('17) 10개 → ('18) 35개(250% 증가)

*** 신규 일자리 창출 : ('17) 965명 → ('18) 1,095명(13.5% 증가)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수산기업에 사업화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18.상반기 중 지원내용 확대*(제도개선 3회) 및 관계기관(5개) MOU 체결**

* 금리인하, 기업당 지원한도 확대, 자금용도 확대, 보증기관·보증요율 확대 등

** MOU 체결('18.6) 기관 :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 수산분야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참여 확대

- 수산업의 혁신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 참여 확대* 및 수산업을 견인할 핵심 기술 확보

-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주도할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바우처사업** 추진

* '18년 중소기업 참여 과제 / 금액 : 34개 과제 / 16,240백만원

** R&D 바우처 : 주관연구기관(수요기업)에게 R&D 바우처(쿠폰)를 제공하여 대학, 출연연 등 공급기관의 R&D 역량을 선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4개 과제 / 15억원)

□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구매자금 지원(용자)

- 원료 수산물 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여건 마련

* ('17년) 652억원 → ('18년) 652억원

□ 고부가가치 新수산물식품 연구개발 본격 추진

- 수산물식품 기술개발 R&D를 집중 지원*하고, 新소비패턴을 반영한 간편식·건강식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수산물식품산업기술개발(R&D) 예산 : ('16) 42 → ('17) 51 → ('18) 72억원

** 어육소시지, 문어/멍게 조미김, 연어어묵, 명태스낵 등 시제품 14건 제작

□ 중소 가공·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 융자지원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수출하는 중소기업에 원료의 구매·저장, 가공, 수출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
 - 국내 수산물의 가격안정, 수출업계의 경영안정 및 수출 활성화 도모로 역대 최고 수산물 수출실적 달성

* '18년 지원업체 / 금액 : 120개사 / 1,319억 원

** '18년 수산물 수출실적 : 23.8억불 (전년 23.3억불 대비 2.0% 증가)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 지원

- 고비용·저효율의 연근해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공간 확보와 운영 비용절감 등을 고려한 안전복지형 표준선형 어선 개발·보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 및 중소조선 산업 활로 제공

* '18년 연안 3종(연안복합, 통발, 패류형망) 근해 1종(채낚기) 표준선형 개발 41.8억원 지원

** 연안복합 시제선 성능 검증시 유류비 절감율 16.99% 달성으로 목표(7%) 대비 242% 초과 달성

제12장

방송통신위원회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방송광고의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송출비를 할인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 (방송광고 제작지원)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광고 52개사, 라디오광고 45개사 등 총 97개사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지원
 - * TV광고 최대 5천만 원, 라디오광고 최대 3.5백만 원 지원('18년 총 25.2억 원 지원)
 -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 인력과 지식이 없는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 대상기업 중 총 39개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중소기업의 광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송광고 송출비의 최대 70%를 할인하여 '18년 총 258개 중소기업에 대해 690억 원의 송출비 할인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방송사와 협업으로 실시
 - * '16년 256개사(409억원) → '17년 232개사(452억원) → '18년 258개사(690억원)
- (지원효과) '18년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효과평가 결과 제작지원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27.3% 증가하였으며, 방송광고 이후 기업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4.06점을 나타내는 등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

□ 중소기업자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화 지원

- (공모전 및 사업화 지원) 위치기반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실시하고,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특허출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창업교육 등 사업화를 지원

※ 신규 서비스 출시, 국내·외 업체와 MOU 체결 및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도출

- (맞춤형 컨설팅) 위치정보 산업 내 중소·영세 사업자가 법, 기술, 경영 등 신규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17년 수혜 업체 : 35개 → '18년 수혜 업체 : 43개 (123% 증가)

- (제도 개선) 진입규제 등 「위치정보법」 상 과도한 규제를 개선*('18.4.17., 공포, 10.18 시행)하여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간이신고제 도입, 사물위치 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의무 면제 등

제13장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소 식품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지원 강화

○ HACCP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및 컨설팅비 지원(44.89억 원)

- ▲ (시설개선자금) 시설 개선 후 HACCP 인증 시 최대 2천만원의 50% 지원,
▲ (컨설팅비) 컨설팅 후 HACCP 인증 시 8백만원의 40%(320만원), 지방비 및
자부담 각각 30%(240만원) 매칭 지원

* 지원대상 : 소규모(5억원 미만 또는 21명 미만)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의무대상에 한함)

○ 식품 및 축산물 HACCP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현장 맞춤형 기술상담

- HACCP 인증 전·후 기술지원 : ('17) 3,129개소 → ('18) 4,801개소

○ 소규모 영업장 위해예방관리계획 확대 및 적용지원

- 신규 영업등록 및 간편식 등 미인증 업체 적용·지원

□ 중소·벤처기업 등 첨단 의료제품 제품화 지원 강화

○ 의약품(화학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한 '팜나비 사업' 운영 강화

* 주요 실적('18, 누적) : (국산 신약 개발) 31품목, (국산 개량신약 개발) 109품목

* 제품화 지원 품목(누적) : ('15) 5건 → ('18) 21건

- 벤처/임상시험기관/제약기업 등 대상·개발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정보제공

* 주요 실적('18) : (교육/워크숍) 10회, (정보제공) 국내외 의약품 개발동향 등 제공 5건

○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한 '마중물 사업' 운영 확대

* 개발실적('18, 누적) : 바이오시밀러 14품목, 유전자치료제 1품목

- 실용화 임박 제품에 대한 '맞춤형 협의체' 운영(28회)

- 바이오의약품 개발자 교육(9회), 개발초기 상담 강화를 위한 ‘규제과학상담의 날’ 운영(139건) 및 상담 사례집 발간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밀착 지원 강화
-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사업’ 운영 확대
 - 융복합 신개발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업무협약 및 공동 워크숍, 실무협의회(분기별 1회) 개최
 - * 과기부(한국연구재단), 산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기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업무 협약 체결 갱신('17.7)
 - ‘허가도우미’ 운영을 통한 집중지원업체 선정
 - * 총 102개 과제 운영, 허가도우미를 통한 품목허가 29건(로봇수술기, 특수재질골절합용나사 등)
 - 의료기기 「전주기지원 사업(맞춤형 멘토링 등)」 확대 운영
 - *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지원대상(누적) : ('16) 20건 → ('17) 39건 → ('18) 69건
 -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 * 해외수출국 정보, 인허가절차, 특허정보 및 1:1 맞춤형 정보 제공(16개국)

제14장

공정거래위원회

□ 납품단가 조정지원 제도 보완

- 납품단가 인상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요소에 추가(배점 5점)

* 협약이행 평가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오르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

* 기존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사유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제한

-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①노무비가 하도급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②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③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신청가능.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제지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이 제정하고, 8개 업종(방송업, 조선업, 조선 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경비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점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가맹거래법 개정, '18.10월)

- 가맹점 창업 결정시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규모, 특수관계인 이익 등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 '18.10월)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대규모유통업법 개정, '18.10월)
- 대형쇼핑몰·아울렛 등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대형쇼핑몰, 아울렛 입점업체도 보호대상에 포함(대규모유통업법 개정, '18.10월)

□ 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5월)
 - * ① 범위반협의 적발시스템 강화, ②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③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 유도, ④ 대리점 협상력 제고, ⑤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 확충
- 불공정행위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보급(의류업종, 4월)

제15장

금융위원회

□ 창업 생태계 조성 추진

○ 투자 중심의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 더 많은 창업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18.1월·6월 제도개선 방안 등 차질 없이 추진)

* ('16) 115건, 174억원 조달 → ('18) 185건, 303억원 조달(74% 증가)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한도를 확대**('18.4월)하는 한편, 하나의 기업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19.1월)

* 중개업자 홈페이지 → 발행인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 단순사실 통보 허용

** 연간 기업당(200만원→500만원) 및 총 (500만원→1,000만원)

*** 연간 모집금액 : 7억원 → 15억원

○ 창업실패 시 위험 부담 경감

- 신·기보, 중진공, 신복위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창업지원' 사업 활성화

* 「재창업지원」 사업 : 재기신청자 정책금융기관 채무 최대 75% 감면,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신규 자금 지원(중진공 대출 150억원, 신보 보증 308억원)

- '18년 재창업 지원을 포함한 재기지원 보증공급은 '17년 신보 공급(약 230억 원)의 1.3배 수준인 308억 원으로 확대

- '17년 재창업 지원을 포함한 재기지원 보증공급은 '16년 신보 공급(약 37억원)의 6.2배 수준인 230억 원으로 확대

□ 창업기업 도약 및 성장지원

○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회수펀드인 세컨더리펀드(3,151억 원)를 조성

○ 정책금융 역할 강화

-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등 총 47.1조원(신보)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해 신보보증확대

* 신보 보증(조원) : ('17) 11.4 → ('18) 11.9(0.5↑)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기업 지원 강화

- 기술금융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18년까지 대출 112.2조원 공급(누적)

* '16년 58.4조원 → '17년 84조원 → '18년 112.2조원으로 확대

□ 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영업비용 절감

-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17.7월)하여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영세)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중소) 매출액 2~3억원 → 3~5억원

- 카드수수료율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정액제 → 정률제로 개편하여 소액결제자 많은 업체의 부담 경감('18.7월)

*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 →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

- 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발표('18.8월)

*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도 매출액이 영세·중소가맹점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19.1월 시행)

*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카드대금을 1영업일 조기 지급('18.9월 시행)

-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18.11월)

*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구간을 30억원 이하까지 확대 및 연매출액 5~10억원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1.4%, 연매출액 10~30억 가맹점은 1.6%로 설정('19.1월 시행)

제16장 국세청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 (납세유예) 경기침체, 원자재·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
 - * 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 (15) 253천건 → (16) 455천건 → (17) 429천건 → (18) 334천건
- (공감소통 활성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 현장상담실, 세금안심교실 등 적극 운영
- (나눔세무·회계사 위촉)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중소기업 등에게 영세 납세자지원단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눔세무·회계사 위촉
 - * (18.6.1.) 나눔세무·회계사 1,704명 위촉
- (자금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
- (가업승계 지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통해 설명회 개최하고 세무서에 '가업승계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상담 실시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25천부)를 발간·배포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15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실시(267회)

□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신고·납부편의 제고

- (신고 도움정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통합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납세자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 최대한 제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수입납세자 도움자료 일괄조회 서비스 제공
- (미리채움 확대) 미리채움 항목을 지속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제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실시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자료, 중고자동차 구입자료
- (신고편의 제고)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지속 확대하고 간편신고 도입* 및 사용자 친화형 전자신고** 등 신고편의 확충
 - * 간이 부동산임대업자 원클릭 전자신고, 보이는 ARS 신고 서비스
 - * 작성대상 신고서 자동제공, 자동채움 항목 확대, 시나리오식 설명 제공 등
- (납부편의 제고) 종합소득세 ARS 신고자에게 가상계좌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확충
- (중소기업을 위한 책자 발간) 중소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및 회계 기준서」,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 등 책자 발간
- 쉽고 정확하게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공제·감면 등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안내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완화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등과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정기 조사선정 제외
- (간편조사 실시)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 중소기업 간편조사 및 소규모 사업자 사무실조사 지속 실시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적극적인 세정외교 전개) 주요 진출국과의 협력강화 및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체계화를 통한 세무애로 수집·해소, 성실납세 지원 실시

-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현지 세제·세정에 대한 정보 제공

- * (국제조세 설명회) BEPS 프로젝트 진행 등 최근 국제적인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최신 국제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 사항 등을 설명('18.11월)
- * (세정간담회) 해외진출이 많고 세무애로가 누적된 미국·일본·브라질 등에서 개최(34회)
- * (국제조세 공개강좌) 이전가격,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공개강좌 개최('18.11월)
- * (세정뉴스) 매월 6개국(미국·일본·중국·베트남·인니·인도) 진출기업에 최신 세정뉴스 발송
- * (외국 국세청 세무설명회)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우리 기업만을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 외국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외국상공인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 사업과 관련된 세무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 '18.3월 서울재팬클럽 간담회 참석

제17장 관 세 청

□ FTA 활용 종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지원

-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YES FTA 컨설팅(783개社 지원),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6개 센터, 1,076개社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확대(2,304개社 신규가입) 등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 FTA 신규활용 수출(1,085개社), 관세절감효과(약 389억원)

- (원산지증명 간소화) FTA 인증수출자 기업수 확대*,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품목 확대** 등으로 농수축산물 FTA 활용 수출지원

* [인증수출자 자격유지 기업수 (2017) 11,051개社 → (2018) 11,946개社 (+895)

** [간편인정 대상 확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추가, (품목현황) 농산물 1,028개 축산물 5개, 수산물 81, 전통식품 32개 등 총 1,146개

- (전문인력난 해소) YES-FTA 전문 교육 및 세관별로 특화교육을 통해 FTA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수료생을 원산지관리인력 구인기업과 매칭

* FTA 인재양성 인원(예산) : [17] 12,346명(17억원) → [18] 9,807명(14억원)

** 2018년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세관별 취업박람회 등 총 6회 개최, 95명 취업

- (e-CO교환 확대추진) 한-중 간 FTA, 아태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원활히 실시하고 있으며, 한-베 e-CO교환 합의(17.6) 등 아세안, 인도 등 新남방 지역으로 e-CO교환 추진

□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통관애로 해소 지원

- (신흥시장 지원) 新남방·新북방 정책에 따라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아세안 등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통관애로를 집중 해소

* 통관애로('18년) : [접수 136건, [해소율 92.6%, [수출기업 비용절감 515억원

- (설명회 개최) 통관애로 다발국 진출기업 대상 해외 현지 설명회 및 관세관 초청 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 개최
 - * (해외설명회) 인도, 브라질 등, (관세관 설명회) 2회(서울, 부산) 750명 참석
- (해소 지원) 관세청장회의 등 세관협력장구 확대, 관세관 증원*, '현지기동팀' 파견**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 통관분쟁 신속 지원
 - * 현지진출의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도에 관세협력관 파견('18.2월)
 - ** 제척기간 경과 플랜드 사후추징 지원(태국, '18.2월), CEPA 적용 등 현지기업 애로 지원(인도, '18.6월) 등
- (정보 제공) 우리 중소 수출 기업 등이 외국에서의 부당한 통관애로 예방을 위해 해외현지 통관정보 제작·제공
 - * 174개국 여행자휴대품 통관정보 제공('18.7), 통관애로 해소 가이드맵 배포('18.11)

□ 중소 수출기업 AEO공인 확대를 위한 지원

-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한 AEO제도·효과 홍보 및 금융지원을 통한 중소 수출업체 AEO 공인획득 지원**
 - * 시중은행과 MOU로 AEO 공인을 준비 중인 중소수출기업에 저리용자(0.5~1.5%p)
 - ** 중소수출 AEO공인업체수 : ('17) 190개 → ('18) 211개 (전년 대비 11%↑)
- 공기업(지자체)* 및 민간(상생협력기금)**과 협력, 중소 수출기업에 AEO획득자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등 자생적 AEO생태계 조성
 - * 한국서부발전(주)이 거래관계에 있는 20개 중소기업 지원(5.6억, '17~'18)
 - ** LG이노텍이 산업부 상생협력자금 1억원을 확보하여 덕우전자 지원('17.7)
-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수출국과의 AEO MRA를 추가로 체결*하고, 新시장 수출국과의 전략적 MRA 협상 진행**
 - * 호주, UAE('17.7월, 벨기에), 말레이시아('17.10월, 독일), 페루, 우루과이('17.12월, 벨기에)
 - ** 액션플랜(카자흐스탄 '17.4월, 몽골 '17.11월), MRA 추진의향서 전달(인도네시아, '17.11월)

제18장 조달청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시장 판로 지원

○ 조달사업 중소기업 지원실적 현황

〈중소기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대상사업(A)	334,392	358,490	350,763	379,676	385,908
중소기업 지원실적(B)	240,342	264,633	265,196	286,729	289,785
지원비율(B/A)	71.9	73.9	75.6	75.5	75.1

* 총 대상사업 : 내자구매, 시설계약

○ 나라장터 엑스포('18.4.25.~27.)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 판로지원

- 중소·벤처기업 283개사(739개 부스)가 참여하여 3,570만달러 수출계약

* 역대 최대규모 1만 2,750명 관람 / 8개 국제기구, 21개 외국 조달기관 관계자, 34개국 95개 외국 바이어사 참석

○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조달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²⁴기업)” 적극 확대

- G-PASS기업 수출실적 확대 및 UN 등 국제기구로 진출 다양화

* 지정기업 수 : ('13) 95개 → ('14) 200개 → ('16) 341개 → ('18) 538개

수출실적(\$): ('13) 1.3억 → ('14) 2.2억 → ('16) 4.6억 → ('18) 7.3억

24)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업체

□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 벤처나라 운영 활성화

-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 거래실적 증가('17년 52억 원 → '18년 127억 원)

* '18.12월말 기준 3,187개 상품 벤처나라 등록

○ 공공조달과 연계한 R&D 기술개발 지원 확대

* '18년 과기부와 경찰, 기상, 국방 등 드론(9종) R&D 지원 → 우수조달물품 지정(개발완료 1건, 12월)

□ 상생·협력 및 고품질 조달서비스 제공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강화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지침 마련 및 시스템 편의 개선

* ('16) 2,836건, 12.2조원 → ('17) 4,907건, 25.3조원 → ('18) 11,614건, 35.7조원

○ 수기 제출 서류를 온라인 처리로 전환하는 등 조달절차 간소화

* 온라인 처리 전환 : 우수조달물품 신청서류 23종 등 총75종

제19장

병 무 청

□ 전문연구인력 최대 지원으로 R&D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연구기관 선정 기회 확대로 R&D인력 유입 촉진
 - * 상하반기 연2회 신청·선정, '18년 374개 연구소 선정
 - * 중소기업연구소 병역지정업체 현황 : ('16)1,270 → ('17)1,406 → ('18)1,545개
- 전문연구요원 배정·편입인원 확대로 우수 인재 육성기반 조성
 - * 배정인원 : ('17)855 → ('18) 892명(전년 대비 37명↑)
 - * 편입인원 : ('16)586 → ('17)754 → ('18)868명

□ 산업기능요원 배정, 편입 확대로 기능·기술인력 지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 협약한 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부여, 졸업생을 채용한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
 - * '18년 신규 지정업체 1,029개 중 748개 업체 가점 부여(선정 업체의 72.7%)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3,624명 우선 배정(현역 배정인원의 90.6%)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인원 확대로 제조생산 분야 미스매치 해소
 - 병역지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산업기능요원 신규채용 가능
 -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수요가 많은 IT분야 편입요건 완화
 - * 편입요건 : (종전)전공·경력 2년 → (개선)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는 전공·경력 1년
 - * '18년 IT분야 편입인원 : ('17)223 → ('18)302명(전년 대비 79명↑)
- 유관기관 협업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구인구직 매칭 지원
 - 지방중기청·고용청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총 29회)

- 「병역일터²⁵⁾」 포털 활용, 병역지정업체 채용정보 실시간 알림

* (구직자) 이력서 제출한 업체에서 '면접제외' 시 알림톡 발송

* (구인업체) 채용공고에 대한 '이력서 접수' 시 알림톡 발송

표 Ⅲ-19-1-1 | '17년 중소기업 배정/편입인원

(단위: 명)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배정	편입	%	배정	편입	%	배정	편입	%
15,892	14,459	91.0	892	868	97.3	15,000	13,591	90.6

25)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산업기능요원 취업지원 포털사이트(work.mma.go.kr)

제20장

방위사업청

□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정책수요자를 확대(방산업체 중심 → 일반군수업체, 벤처 및 신규희망업체 포함)하여 기업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 (방산참여업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역량 강화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 (일반군수업체) 업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조기계약을 위한 조달업무 간소화 추진
 - (벤처 및 신규희망업체) 방위사업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한 신규진입 걸림돌 제거 및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 지원분야(자금, 인력, 기술, 시설, 수출 등)별로 산업부, 중기청 등 유관부처와 협력사항을 발굴하여 추진

□ 중소기업 대상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 대부분 중소기업인 부품제조업체가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8~'22 방위산업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수립
- '18년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10개 신규과제(개발지원금 45.94억 원)를 선정·지원, 개발 성공시 약 1,040억 원의 수입대체 기대
- 업체가 자발적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부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최근 5년('14~'18년) 수입부품 목록을 인터넷 공개

- 13~'18년 총 6개 성공과제로부터 총 145.5억 원 매출이 발생하여 중소기업은 판로 확보, 군은 무기체계 조달·운용에의 리스크* 최소화 달성

* 수입제품 단종, 해외정부 수출허가 정책에 따른 반출 불허 등

- 수행업체의 지재권 및 개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원제작사 선행특허 침해여부 판단 및 대응책 제시, 연구개발 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체계 구축 지도, 체계적인 개발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교육 실시

□ 국방벤처기업 육성 지원

-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벤처기업의 국방 R&D 지원기반 마련

-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지속 확대 ('17년 264개 → '18년 299개)

표 III-20-1-1 |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현황

센터	설립	협약기업 수	센터	설립	협약기업 수
서울	'03.09.	23	대전	'11.11.	49
부산	'08.12.	41	광주	'13.12.	37
경남	'09.09.	47	구미	'14.03.	44
전주	'09.09.	30	전남	'15.09.	28

- 국방벤처기업을 위한 개발비 및 마케팅 지원

- '17년 선정 계속과제(13개) 및 '18년 신규과제(15개)에 대하여 개발비 43.5억 원 지원

* 과제별 2년간 최대 3억원, 3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

- 美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팀 대상 홍보, 군·체계기업 등과의 기술 교류회 등 중소·벤처기업 개발제품 전시 및 홍보 지원

- 중소·벤처기업 및 관련기관의 공감대 형성 및 시범사례 공유 등을 위해 국방벤처 컨퍼런스 개최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 '18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선정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협약 체결
 - 풍부한 기술개발 경험과 수출가능성, 향후 국내 소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 * (주)아이블포토닉스(고성능 수중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압전단결정 소재의 전기-기계 복합성능 평가 및 분석기술 개발), (주)동진전기 (사출좌석 Actuator)
- 방산분야 기업 중 첫 월드클래스 300 선정 사례 발생
 - * 방산분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형 트랙 추가하여 (주)연합정밀 선정(수출비중 완화, R&D 투자비율 상향 등)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 '18년 다양한 무기체계 분야의 개조개발 과제 신규 선정
 - 개발계획의 타당성, 수출시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산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 * 천무다련장 로켓용 냉방장치, 76MM 함포탄용 근접신관 개조 등 2개 과제 선정
- 성공과제에 대하여 국제 경쟁입찰 참여 등 해외수출 적극 추진결과,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선진 방산기업과 경쟁하여 해외 수출 성공사례 도출
 - * 18년 예산 20억 대비 지원과제가 16~18년 기간중 수출등 25억의 매출 발생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 방산분야 신규기업 참여 촉진 및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분야 컨설팅 지원 강화
 - '18년 56개사(5.42억 원) 지원, 군납 또는 체계기업과 계약(26건), 기술개발 과제 참여(8건), 국방·항공품질인증 추진(9건) 등의 성과 도출
 - * 3천만원 한도, 컨설팅 비용의 75% 지원
 - 컨설팅 사업 조기착수, 중소기업 대상 간담회 실시, 적극적 홍보활동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 유도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 운영

- 핵심기술·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연구개발 주관기업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로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품목 확대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직접 가능품목을 식별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연구개발 제안서 제출 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추천한 경우 가점 부여, 제안서 미채택시에도 제안한 품목을 품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지정 현황 : 제도 시행 후 총 43건 우선선정 품목 지정 완료

□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강화

- 저금리 기조에 맞춰 업체 부담 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실질적 혜택 확대
 - * 기준금리가 4% 이상일 경우 업체 부담 금리는 0.5%(고정금리), 기준금리가 4% 미만일 경우 업체 부담 금리는 기준금리의 12.5%(변동금리)
- 수요자 중심 제도 개편을 통해 업체 편의 제고
 -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에서 20일(근무일 기준) 이상으로 연장하고,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예시를 배포하여 업체의 신청편의 제고
 - 지원대상 확대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군수품 매출비중 완화(10%→5%)하고, 무기체계 R&D 사업에 일반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보안·안전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추가, 상환기간 연장(3~7년→최장 10년), 중소기업 대출한도 폐지 등 지원확대
- 합동설명회 등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 홍보 강화 및 상담창구 다원화

□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체계 강화

- 방산 중소기업 Needs에 맞춘 수출정보를 여러 기관에 발품 팔 필요 없이 방산수출 입지원시스템(D4B)*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 기관별·출처별로 산재된 방산수출정보를 방산수출 기업에 One-stop으로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www.d4b.go.kr)

-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필요정보 조사 후,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 국방 조달 규정·절차, 입찰 시 유의사항 등 조달정보 (18년 방산시장연감 약 40개국, 국방조달시장 진출가이드 4개 등)
 - 해외 공급망(GVC) 진입을 위한 벤더·에이전트 정보 제공(벤더 및 에이전트 List 4000여개)
 - 선제적 입찰징후 포착을 위한 해외 국방획득 정보 제공 (해외에 분포된 정부채널을 통해 관련정보 확보·제공 中)
- 중소기업을 위해 복잡한 방산수출허가 관련 규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국방기술 보호 컨설팅 실시
 - * 전반기 : 42개 업체, 239명 인원 대상 실시 / 하반기 : 38개 업체, 299명 인원 대상 실시
- UAE IDEX 등 중소기업관 11회, Aero India 등 해외전시회 55개, DX Korea 국내 전시회 참가 110개 기업에 국고보조금 지원

제21장

농촌진흥청

□ 농업인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 (기반조성)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가공·생산·상품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활력화 도모
 - 사업규모('18)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33개소, 16.5억원)
 - * 창업 사업자 연간 소득 증가율 19.2% : ('17) 50.1백만원 → ('18) 59.7백만원
- (창업보육) 가공·생산 전문기술 지도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보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경영체의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가공창업 사업자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 가공 품목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농산물 가공연구회 운영, 3개회)
- (시설지원) HACCP 의무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위생수준 향상 지원
 - 사업규모가 영세(1억 미만)한 가공시설 개선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장 운영의 연속성 유지 및 가공제품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 * 2020년 HACCP 의무화 확대 : ~'14년 7개 품목 의무화, 음료류, 빵류 등 16품목으로 확대
- (상품개발) 국내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 및 지적재산권 확보
 - 신규 상품개발 81건, 특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 확보 24건

□ 농가형 가공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마케팅 기술 지원

- (조직화) 상품군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유통조직체 구성하여 협의회 운영, 전문인력 양성, 시장교섭력 강화 등 전문조직 육성

- 사업규모('18) :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10개소, 13억 원)
 - * 사업 전년비 매출액 증가율 32.5% : ('17) 201백만원 → ('18) 266백만원
 - * 사업 전년비 소득 증가율 19.5% : ('17) 108백만원 → ('18) 129백만원
- (판로지원) 다양한 유통기업과 협력을 통한 경영체 맞춤형 마케팅 확대와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시장론칭 행사 지원
 - 유통기업 연계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확대 및 대외 마케팅 활동지원
 - * 관계기관, 전문가(MD) 초청 품평회 및 판촉전 개최로 경영체 판로확대 기회 제공
 - * 홈쇼핑, 온라인, 직거래장터 등 판로지원을 통한 197개소 입점, 매출액 611백만원
- (역량강화) 생산중심에서 수요분석·마케팅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비변화에 맞는 마케팅 전략 및 판매여건 조성 지원
 - 자문위 구성을 통한 현장컨설팅(187회), 교육(70회), 현장지도(75회)
- (성과홍보) 우수사례·성과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기여
 -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경진 개최(10개소 선정)

제22장 | 특허청

□ (IP-R&D 전략지원)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 중소기업의 R&D 현장에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기업 맞춤형 전략 지원
 - 과제당* 평균 IP획득전략 5.6개 창출, R&D방향제시 4.6건 도출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73개 과제 지원
- * 지식재산권(IP) 융복합 과제 14개를 제외한 196개 과제 대상
 ※ 지원현황 : ('17) 185개(129.5억원) → ('18) 210개(147.3억원)

□ (IP-R&D 전략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지원

-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히트 상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품 중심으로 특허, 디자인, 브랜드 융합 전략 및 제품-서비스 융합 전략 제시
 -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개발 전략 424건, 특허 전략 366건, 제품-서비스 융합 전략 110건 제시
- ※ 지원현황 : ('17) 43개 (43억원) → ('18) 43개(45.5억원)

□ IP-R&D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 IP-R&D 방법론 확산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여가부 등과 협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무 중심의 IP-R&D 교육 확대
 - 4개 새일센터와 MOU 체결, IP-R&D 실무교육 실시로 교육수료 81명 중 46명 취업
 - IP-R&D 여름방학캠프를 통한 이공계생 취업지원, 캠프수료 23명 중 5명 취업
 - 'IP-R&D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온라인 1,933명, 오프라인 516명 수료)

- 지식재산 혁신기업협의회 중심 IP-R&D 자율적 연구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확산 강화 및 IP-R&D 전략 실무 매뉴얼 제작·보급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강화

- (지식재산 금융)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IP 가치평가를 통한 보증·대출·투자 등 4,537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
 - * 투·융자 연계 금융지원 금액(억원): ('14) 1,658 → ('15) 2,009 → ('16) 3,035 → ('17) 3,679 → ('18) 4,537
 - 특허관리전문회사,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및 IP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480억 원 규모의 IP 투자펀드 조성
 -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조성금액(억원): ('15) 500 → ('16) 1,100 → ('17) 480 → ('18) 994
 - 특허청·기보·신한·우리·국민·기업·대구은행과 3자간 MOU를 체결하여 IP 기반 보증서를 발급하고, 1.0%p의 금리를 우대하는 대출상품 출시
 - IP 가치평가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술 분야별·평가 요소별 맞춤형 평가 수행
 - 금융위와 함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18. 12) 발표·추진 (IP금융 목표: '22년 2조원)
 - * IP 가치평가 기관(개): ('14) 10 → ('15) 12(민간 2) → ('16) 13(민간 3) → ('17) 15(민간 5) → ('18) 18(민간 7)
 - ** 평가기관 품질관리협의회 개최하여 IP가치평가 사례 공유('17.9월. 12월)
-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특허거래전문관을 증원(9→17명)하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매칭하여 권역·분야별 IP 거래·이전 지원
 - * 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한 IP 유상거래(건): ('15) 190 → ('16) 256 → ('17) 364 → ('18) 438
 - ** IP 활용 네트워크: ('16) 사물인터넷, 해양바이오 등 6개 → ('17) 이동통신, 전기·화학 등 8개 → ('18) 사물인터넷 등 10개
 - 중소기업중앙회·ID사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분야별 특허풀 구축
 - * 중소기업중앙회와 ID社간 특허풀 활용을 위한 MOU 체결('16.7)

-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품질 및 기술적 난제를 단기간·저비용으로 해결하는 'IP 제품혁신전략' 지원 확대

* IP 제품 혁신 전략 및 사업화 지원과제(개) : ('15) 40 → ('16) 53 → ('17) 59 → ('18) 77

-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IP를 제품단위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민간에서 사업화하도록 이전

*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과제(개) : ('15) 10 → ('16) 20 → ('17) 24 → ('18) 35

□ 지역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IP 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IP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IP전략 지원

* 지원 기업수(社) : ('17) 294 → ('18) 425

** 세부지원 내역(건) : 특허출원 476, 디자인출원 32, 상표출원 9 (총 517건 지원)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IP 애로 사항을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수시 발굴 및 즉시 해소 지원

* 지원 기업수(社) : ('17) 1,450 → ('18) 966

** 세부지원 내역(건) : 특허맵 309, 디자인개발 226, 브랜드개발 165, 특허기술 홍보영상 95, 해외출원 지원 24, 디자인목업 18, 국내·외 IP컨설팅 455 (총 1,292건 지원)

-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통한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 기업수(社) : ('16) 547 → ('17) 580 → ('18) 510

** 세부지원 내역(건) : 해외권리화 612, 선택형 IP 297, 시뮬레이션 제작 150, 맞춤형 특허맵 242, 디자인맵 34, 특허&디자인융합 58, 비영어권 브랜드 36, 글로벌 IP경영진단 60(총 1,489건 지원)

제23장 | 기 상 청

□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상기후 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10개사, 기업당 5백만 원 지원)
 - 외국어 홍보동영상·카탈로그 제작, 해외시장 조사·설명회 개최 등 소요자금 지원
- 기상기후산업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 운영
 - 세계기상기술엑스포(네덜란드 암스테르담/10.9~11) 한국관 10개사 전시부스 운영 및 홍보, 국제공동현지화 사업 2개사 태국·스페인 진출지원
 - * 종합수출 지원사업 및 국제전시회 참여 지원기업 수출 성과 기업: 9개사, \$2,783,000
- 「2018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내 기상기업 우수기술 홍보 및 신규 시장 창출 도모(11.14~16, 킨텍스, 90개 기업 참가, 258부스 전시)
 - * 기상-안전-승강기박람회 병행개최로 기상기업과 타산업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 기상·기후 민감업종 날씨경영 역량강화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업종·기능별 날씨경영 교육·컨설팅 운영
 - 교육(76개사 200여명), 컨설팅(날씨경영 도입·관심기업 24개사)
 - 날씨경영우수기업 기업 홍보 및 날씨경영 홍보지원(10개사, 20백만원)
 - * 지하철 광고, 기획기사 게재, 홍보동영상 제작 등 기업 홍보와 함께 날씨경영 홍보

□ 기상산업(기업) 날씨경영 서비스 개발 및 수익창출 지원

- 민간 기상기업의 날씨경영 서비스 개발 지원

- 기상기업 서비스 개발 촉진 및 날씨경영 솔루션 확충을 위한 수요산업 협업기반 맞춤형 날씨경영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 태양광발전, 석탄화력발전 기상정보 활용 발전효율 증대, 발전량 모니터링 모델 개발 및 기상정보융합 시설물 방재 안전관리시스템, 사과농원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 기상산업 마켓플레이스 운영 및 기상기업 판로 지원

- 기상기업의 우수 날씨경영 솔루션 및 콘텐츠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운영(민간기술 및 기상청 보유기술 105건 등록) 및 네이버 검색광고 등 홍보 강화

□ 기상산업(기업) 날씨경영 서비스 개발 및 수익창출 지원

○ 민간 기상기업의 날씨경영 서비스 개발 지원

- 기상기업 서비스 개발 촉진 및 날씨경영 솔루션 확충을 위한 수요산업 협업기반 맞춤형 날씨경영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 외식업(배달) 1개사, 유통업(농수산물 구매) 1개사 날씨영향력 분석, 수요예측모델링을 통한 시스템 개발 지원

○ 기상산업 마켓플레이스 운영 및 기상기업 판로 지원

- 기상기업의 우수 날씨경영 솔루션 및 콘텐츠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운영(민간기술 및 기상청 보유기술 87건 등록, 기상 솔루션 3건 계약) 및 네이버 검색광고 등 홍보 강화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 기상기후 스타트업 및 기상기업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시장경쟁력 강화

- 입주기업(23개사) 대상 인프라 제공 및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 성장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 성과 제고

* 입주기업 주요성과: 창업 2건, 산업재산권 등록 25건

- 성장지원센터내 시제품 제작·교육·협업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 및 신규 사업모델 발굴 기반 마련(12.18.)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

- 기상기후산업의 전략적 성장을 위해 미래 핵심인재의 참신한 아이템 발굴 및 시제품 개발 지원 등 창업역량 강화
 - 청년 예비창업팀 선정(10개팀) 후 시제품 개발비 지원 확대*, 실제 창업 희망(예정)팀 대상 창업자금 지원 신설(총 60백만원)
 - * 지원규모: (17)총 48백만원/8백만원×6개팀 → (18)총 80백만원/8백만원×10개팀
 - 지역 거점 창업센터 간 협업을 통해 시민·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기상기후 창업 해커톤’ 개최(5.10.~11.)
 - 예비창업팀별 20백만원 이내 3개팀 초기 창업자금 지원
 - * 예비창업팀 주요성과: 창업 3건

□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 기상기업·예비창업자 대상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 온라인·유선·내방을 통한 상시상담(67건) 및 전문기관(특허·법무법인) 매칭을 통한 심화전문상담(28건) 실시

□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지원

-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사업자의 기상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18년 30억 원, 총 20개 과제)
 - 산업융합 및 생활중심 분야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17개사 참여
 - 비즈니스모델 개발, 솔루션 기술개발, 시범서비스 단계별 과제 수행
 - * 어업 맞춤형 해양기상 콘텐츠 고도화 및 서비스 개발, 도로 CCTV영상 활용 도로위험기상정보 및 노면상태 위험정보 제공서비스 개발 중·장기 농작물 병해충 발생위험 예찰을 위한 농림기상서비스 기술 개발 등 현장 중심 서비스 과제 추진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4부

제 1 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제 2 장 기술보증기금

제 3 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 4 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 5 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 6 장 창업진흥원

제 7 장 한국벤처투자

제 8 장 중소기업유통센터

제 9 장 (재)중소기업연구원

제10장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제11장 (주)공영홈쇼핑

제12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13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4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15장 신용보증기금

제16장 금융감독원

제17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8장 중소기업은행

제19장 한국수출입은행

제20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21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22장 한국무역협회

제23장 한국생산성본부

제24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25장 산업연구원

제26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27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제28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29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제30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제31장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제32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일반현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인력난 해소 및 청년 CEO 육성을 주요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기업투자 활성화 및 맞춤형 수출지원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정책자금 투·융자

정책자금 투·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2018년 총 17,475개 기업에 44,150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미래 신성장 분야 업종과 시설 투자, 제조 스마트화를 중점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에 기여하였으며 4개 기관 17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일관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성과를 극대화하였으며, GM군산공장 폐쇄 등 국내 산업·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기업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으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확대, 약속어음 감축, 연대보증 전면 면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였다. 또한, 중진공의 사업추진 기반인

기업진단을 통해 정책자금 용자 신청업체에 대해 총 20,693억 원의 정책자금 용자를 지원하였고, 용자 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R&D, 보증 등의 유관기관 사업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등의 중진공 사업을 연계하여 진단기업에 대해 총 10,215건의 정책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1)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 활성화와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시작으로 2010년 재창업자금, 2012년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1-1-1 |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실적(2018년)

(단위 : 개, 백만 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창업기업지원	1,896,000	8,666	2,770,918	7,544	1,896,000
청년전용창업	150,000	3,035	276,303	1,831	150,000
계	2,046,000	11,701	3,047,221	9,375	2,046,000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이다. 청년전용창업 자금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2.0% 고정금리)의 창업자금(기업당 1억 원 이내, 융자기간 6년 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과 함께 교육,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2)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 자금은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 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

사업을 통합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09년에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1-1-2 |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2018년)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신성장유망	700,000	1,431	965,726	1,301	700,000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50,000	63	63,408	58	50,000
제조현장스마트화	330,000	386	474,193	327	330,000
계	1,080,000	1,880	1,503,327	1,686	1,080,000

신성장유망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은 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2014년 신설하였으며, 장기 저리로 시설자금 및 초기가동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은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의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3)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 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 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부터 사업 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으며 2016년부터 수출금융을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으로 이관하였다.

표 IV-1-1-3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2018년)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재해복구지원	250,000	31	5,499	24	2,967
일시적경영애로지원		1,791	377,927	1,590	247,033
계	250,000	1,822	383,426	1,614	250,000

재해복구지원은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재해중소벤처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일시적경영애로지원은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미래성장가치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다.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용한 후, 2012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746개사에 1,700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에 저금리 신용대출 후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이익연동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성장공유형 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표 IV-1-1-4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18년)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이익공유형	110,000	757	155,787	678	105,352
성장공유형	60,000	87	84,800	68	64,648
계	170,000	844	240,587	746	170,000

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기존 2000년부터 운용되어 온 개발기술사업화자금에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이 추가로 편입되어 2017년도부터 신규로 사업이 개시되었다.

표 IV-1-1-5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18년)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개발기술사업화	365,000	2,016	540,318	1,805	365,000
글로벌진출지원	225,000	1,103	323,510	1,022	225,000
계	590,000	3,119	863,828	2,827	590,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은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6)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은 실패경영인 및 부실징후 기업 그리고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자금으로 업종전환 및 추가, 사업재편, FTA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자금, 실패경영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자금, 부실징후 기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선제적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증진공은 재도약 지원자금 예산 2,790억 원(사업전환 1,300억 원, 재창업 1,200억 원, 구조개선 290억 원)을 1,227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표 IV-1-1-6 | 재도약지원자금 지원실적(2018년)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사업전환(무역조정)	130,000	311	194,023	288	130,000
재창업	120,000	958	201,051	708	120,000
구조개선	29,000	271	57,100	231	29,000
계	279,000	1,540	452,174	1,227	279,000

사업전환지원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 하도록 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조정지원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실한 경우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창업자금은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인 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다. 구조개선전용 자금은 부실징후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폐업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전자금에 한해 지원하며 2015년 신설되었다.

7)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경기침체 지속, 저성장 경제환경 하에서 위기 및 실패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바, 경영애로 극복과 원활한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창구의 필요성에 의해 2014년 서울 재도전 종합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 말 기준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사전 전문상담, 자금지원, 교육, 사후멘토링, 연계지원 등 재도전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동적 창업 분위기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8) 모태조합 출자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2)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통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사업 중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에 1,615개 업체가 참여하여 70백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온라인으로는 Gobizkorea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2018년까지 중소기업 55,112개사의 223,268개의 상품정보를 DB로 구축하였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HIT500 제품 352개를 발굴하고, 국내 정책매장(행복한 백화점, 아임쇼핑)과 온라인오픈마켓(쿠팡, 11번가 등) 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 판매 지원을 통해 2018년까지 2,299개 제품이 신규 입점했다. 그리고 해외 대형유통망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은 소비자 직접판매 및 연계판매 65억 원, 프로모션 89억 원, 대리점(상) 사업 27억 원 등 2018년 한해 181억 원의 수출시적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MOU 체결(9개국 11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15개국 34명), 해외시장 진출 환경 세미나(8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1) 아시아하이웨이 프로그램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던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중국 외 인도, ASEAN까지 지원국을 확대 개편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수출바우처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쏠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수출바우처) 메뉴판 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율마케팅을 수행한다. 중국 및 아세안·인도 수행기관의 상세 정보 제공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공동마케팅 프로그램(온라인 판매전 및 신제품 런칭쇼)을 기획·운영하여 지원성과를

극대화하였다. 2018년 수출잠재력이 높은 295개사에 150억 원을 지원하여 337백만 불의 수출실적 달성(전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내수기업이었던 45개사 중에 32개사가 첫 수출을 달성하였다. 또한 신규시장 진출 및 수출증대에 따른 사업확대로 409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다.

2)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정부는 고용효과가 높은 고성장기업이 지속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의 원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출마케팅, 정책자금, R&D」 등을 지원하는 「고성장기업 육성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최근 4개년 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지방은 15%이상)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거나 수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수출액 100만 불 이상인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215개사(1,175억 원)의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해 핵심기술력 및 마케팅 역량에 대해 진단·평가하고 직접 작성한 수출마케팅계획서를 발표·평가하여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브랜드 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연간 1억 원 한도)한다. 2018년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436개의 우수한 고성장기업에 290억 원의 지원을 통해 1,528백만 불 수출실적 달성(전년대비 5.39% 증가)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업의 고용증가에도 기여하여 1,291명(전년대비 8.24% 증가)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3) 수출성공패키지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초보(내수기업~직수출 10만 불 미만) 및 수출유망(직수출 10만 불 이상~100만 불 미만)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업별 역량에 따라 시장조사, 외국어 홍보·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패키지식’으로 지원하여 참여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1996년 수출역량강화사업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수출 바우처 시스템 안에서 ‘수출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탈바꿈 하였으며, 지난 해 예비비 포함 529억 원의 예산으로 2,391개 참여기업에게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2018년 참여기업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은 24.2%로 국가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인 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내수기업의 수출성공률은 39.9%로 국가 수출실적 증대와 수출초보기업들의 역량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4)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

GMD사업은 민간 수출전문기업(Global Market Developer)이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초보·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쏠 과정(수출준비→해외영업→수출)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지역, 품목, 유통채널 등 특성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를 GMD로 선발하여 심층적이고 차별화된 통합지원을 통해 특정지역·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신흥시장, 소비재, 온라인 등으로 다변화하고 특히, 아프리카 등 특수지역 시장, 국제기구 조달시장, 현지 독립몰 등 그간 우리기업의 진출이 부진했던 분야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다방면에 전문성을 갖춘 GMD 19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초보·유망 중소기업 177개사 매칭 완료 후 활발히 시장개척 활동을 진행 중이다.

5)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은 중기부, 지자체, KOTRA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과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대응, 계약실무, 무역협상 등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후속마케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지자체, KOTRA 등과 협력하여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해외전시회 22회, 무역사절단 120회, 수출

상담회 4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13회 등 총 159회 사업추진을 통해 1,615개사, 70백만 불 수출계약체결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 참여기업의 54%인 867개사를 대상으로 중진공 자금, 연수, 건강진단 등 연계지원을 통해 수출실적을 제고하였다. 후속마케팅 지원 사업은 해외바이어의 유효한 구매오퍼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국내기업을 발굴·알선하여 해외바이어의 국내 업체방문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 사후관리를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성사율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후속마케팅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8년 총 818개사 1,832건의 해외바이어 알선지원을 통해 총 5,052만 불의 수출성약과 총 126개사 134건의 방한 바이어 지원서비스를 통해 556만 불의 수출성약을 지원하였다.

6) 중기제품거래촉진(HIT500)

HIT500이란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시장진입 초보 중소벤처기업의 유망 제품을 발굴하여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마케팅과 판로지원을 통해 제품의 시장 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중기제품을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한 후, 웹사이트 내 제품 홍보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전시장 구성, 소비자 평가와 제품 체험을 통한 입소문마케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우수한 제품 발굴·홍보뿐만 아니라 '마케팅 교육', '민간대형유통망 입점 교육', '문제해결형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였다. HIT500사업에 선정된 유망제품은 국내 정책매장(행복한 백화점, 아임쇼핑)과 온라인오픈마켓(쿠팡, 11번가 등) 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 국내 판로 지원을 통해 2018년까지 2,299개 제품이 신규 판매되어 내수 마케팅지원 사업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7) 중기제품간접광고지원(PPL)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 사업은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며, 제품 노출효과가 높은 TV·웹프로그램 간접광고(PPL)를 통해

중기제품의 인식개선 및 국내외 판로 확대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제품 간접 광고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되어, 2017년 1년간 27개 TV·웹프로그램에 160건, 2018년도에는 201건을 지원하였다. 2018년도에는 해외(베트남) TV 프로그램, SNS 채널에서도 간접광고를 실시하는 등 기존 국내 TV프로그램에서 채널 다각화를 실시한 한 해가 되었다. PPL 전·후 3개월 광고 제품 매출이 평균 31.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8)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 현지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을 경감해 주고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임차하기 어려운 12~20㎡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1년차 기준 임차료의 80% 정부지원)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정착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컨설팅 및 상담, 현지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8년 말 기준,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칠레(산티아고), 태국(방콕), 미얀마(양곤) 등 주요 해외교역 중심 국가에 설치·운영(14개국 22개소)중에 있다. 2018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6억 7,84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입주업체 성과분석 결과, 입주 전년대비 입주년도 평균 매출액은 8% 증가, 평균 수출액은 47.1%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입주기업의 경영성고가 제고되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84.4%에 이르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인큐베이터 지원성과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중진공은 국내·외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용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정보 및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외 44개국 78개 협력 네트워크와 중국 칭다오·미국 뉴저지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테스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과 MOU 체결(9개국 11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15개국 34명), 해외시장 진출환경 세미나(8회)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산업협력사절단, 국제회의 및 외빈 방한 지원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9개 신흥국 정부·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및 산업협력 사절 교환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장기적인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였고,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발맞추어 VIP 경제사절단에 참가하여 부대행사로 인도 중기공사 등과 공동으로 기술교류센터 공동운동을 약속하여 국내 기업의 인도 기술수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 칭다오·미국 뉴저지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테스크에서는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추진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제12차 APEC 중소벤처기업 장관 회의(2005) 공동선언을 통해 설립제안이 채택되었으며,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최초 설립되었다가 2009년 중진공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은 APEC 역내 회원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21개 회원국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및 산업협력기회 창출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2018년에는 APEC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목표로 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PEC 시장 진출 지원에 힘썼다. 특히, APEC 프로젝트 기금을 4년 연속 획득하였으며, 2017년에 확보한 기금(55천 불)을 활용하여 APEC 전략과제 중 하나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APEC 글로벌 청년기업가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APEC 청년기업인,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43명이 참가하여 청년기업가 네트워킹, 청년기업가 육성 정책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2018년에 확보한 APEC 기금(100천 불)을 활용, APEC 중소벤처기업인 포럼을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비즈니스

가치창출 방법, 성공사례 공유로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APEC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 혁신역량 강화 세미나를 추진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B2B 사절단 파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회원국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정보 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10)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에서 중기부 수탁으로 추진해 왔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이 2017년도부터 산업부 수탁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중진공, KOTRA, OKTA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컨설팅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해외지사화 사업의 수행사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총 42개국 120개사의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부터 협력파트너 발굴, 법률자문, 기술수출, 현지법인 설립, 국제조달시장 진출까지 여러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를 ‘진입’, ‘발전’, ‘확장’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를 특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진입’ 단계의 경우, 기초 시장조사, 수출가능성 점검, 로컬마케팅 등 기초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전’ 단계의 경우,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출장지원, 물류통관 자문 등 수출 및 성약지원을, ‘확장’ 단계의 경우, 기술수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등 기업의 타깃국가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발전단계 및 확장 단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 실적은 총 475건이며, 수출실적 902백만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8년 사업은 2019년 9월에 종료되며, 총 370건의 수출유망기업을 지원함에 따라 수출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11) 해외기술교류사업

해외기술교류사업은 한국과 신흥국 정부 간(G2C) 협력을 통해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해외 현지기업에 수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 직접 사업을 통해, 각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수요·공급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칭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술교류단의 현지파견 및 사후지원을 통해 기술 수출을 촉진한다. 2018년 기술교류 협력 국가는 인도, 태국, 페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5개국이며, 현지여건, 기술수요, 정부기관의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협력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페루(리마, 2월), 인도(뉴델리, 7월) 현지에 기술교류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양국 기업 간 기술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 국가의 공급기술(바이어) 발굴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이란 현지의 해외 코디네이터 및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지원(인니 25명, 이란 67명) 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출을 위해 신규 국내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업종별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정하여 기술진단 지원을 통해 해외 기업에 제공 가능한 250건의 기술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기존 기술진단 중심에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 간 상담회 협상 지원 및 해외 진출 자문까지로 확대하였다. 인도, 태국, 페루, 인도네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기술교류 경험이 있는 해외 현지 민간수행사를 기술사업화전문기관으로 시범운영하여 공급기술 발굴, 현지 계약진행 등 상시적인 교류 지원에 대응하였다. 2019년도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운영기간과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공급기술 발굴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상시 진출에 따른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6회의 기술교류단을 기획·운영하고, APEC 행사 내 한-중 기술교류 상담회 참가업체를 적극 지원하여, 현지 기업과 MOU 체결을 통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국내 참여기업 59개사와 253개의 현지 기업이 만나 MOU 41건을 체결하는 등 기존 제품 수출 중심에서 기술 수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였다.

12) 해외유통망진출지원사업

해외유통망진출지원사업은 해외 유수의 유통망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미흡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해외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중진공에서 해외진출 관련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유통망 진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우수제품(Made in Korea)에 대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사업은 국내생산 우수제품의 DB를 구축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코칭·실행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해외 물류 및 A/S센터 운영, 해외전시판매장 운영, 글로벌유통망 소싱페어, 현지진출 프로모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 및 현지 유통망과 연계하는 안테나숍 역할을 하는 해외전시판매장은 중국, 싱가포르 2개국 2개소에 설치·운영되어 2018년 누적 총 1,018개사 9,049개 품목 입점을 지원하였다. 글로벌유통망 소싱페어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 바이어와의 구매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유통망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하여 32개국 195개사 바이어를 초청하여 1,670만 불 계약이 이루어졌다. 2013년 사업시행 후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기반 구축 시기를 거쳐 2017년~2018년도에는 중소기업 상품소싱 시스템 개편, 사업 및 수행기관, 해외전시판매장 신규 개소(충청, 싱가포르) 및 관리체계 개편 등 사업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매출 및 글로벌화 진출 성과 확대를 이루었다.

13) 온라인수출지원

온라인수출지원(Gobizkorea)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상품 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통한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검색엔진 마케팅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 제작, 무료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Gobizkorea (www.gobizkorea.com)를 기반으로 55,112개사 223,268개 상품 정보를 DB화하여 국내상품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 간의 해외거래 네트워크망 구축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1,000개사의 상품 페이지 제작과 100개

사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총 22,208천 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온라인 무역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홍보마케팅과 글로벌마케팅 교육, 수출 상담회도 진행하였다. 구글, 야후 등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포털사이트에 검색엔진 최적화(SEO)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홈페이지를 상위노출시킴으로써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는 검색엔진마케팅 지원사업을 50개사에 지원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중국시장 타겟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어 맞춤형정보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온라인 수출관에 중국관을 신규 추가 구축하여 총 9개관을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울러, Gobizkorea 등을 통해 내도하는 해외 바이어의 구매오피 대응 애로 해결을 위해 「인콰이어리 검증→對 바이어 협상→수출 계약 체결→사후관리」까지 무역 쏘 단계를 지원하는 구매오피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총 11,562건의 사후관리 실적을 달성하였다.

14)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중 대표 사업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사업은 아마존, 쿠팡 등 세계 유명 글로벌 오픈마켓 및 국내 기반 글로벌 쇼핑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벤처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미흡한 중소벤처기업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교역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글로벌 오픈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동 사업은 외국어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글로벌 쇼핑몰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쇼핑몰 입점부터 판매, 배송까지 일괄 지원한다. 최종적으로는 상품컨설팅, 해외 물류 및 A/S센터 운영, 고객 C/S,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업 참여기업이 글로벌 오픈마켓에 진출하여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2018년도에는 국내 기반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온라인수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274개 기업 제품의 상품페이지 제작 및 번역, 쇼핑몰 등록을 진행하여 총 23,133천 불(약 262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추세 반영 및 온라인 생태계 조성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수출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2017년은 온라인 창업 희망자 5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쇼핑몰 창업부터 판매·운영교육, 글로벌 쇼핑몰 관계자와의 매칭상담회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대상 인원을 1,400명으로 확대하여 전자상거래수출교육, 온라인수출업 실습, 전자상거래수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다. 인력양성

인력양성 사업은 인력유입부터 장기재직에 이르는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21,450명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추진하였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등의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총 19,242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5개 연수원을 통해 2018년 49,228명, 누적인원 148만 명의 연수인원을 달성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구축하여 러닝팩토리 실습장비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1개의 스마트공장배움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2기 스마트공장배움터 예산을 확보하였다(70억 원).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은 2017년(누적기준) 26,813명이 가입하였으며, 2016년에 출범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7년(누적기준) 45,387명이 가입하여 청년과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5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12개 추가 신규 개소하여 총 17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인프라를 확보하였으며, 청년 CEO 지원규모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에 개교하여 8년간(누적기준) 2,390명의 청년 CEO를 배출하였으며, 매출액 18,620억 원, 지적재산권 5,373건, 일자리 창출 5,618명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1)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및 국민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중소기업 취업의사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한 해 중학생, 특성화고 학생 및 학부모 등 413개교 29,464명에게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

제공 및 지역 우수중소벤처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상별로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308개교 13,198명에게 중소벤처기업 체험 및 중소기업 바로알기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성화고에 찾아가 지역 우수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한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55회 개최하였으며, 특성화고 자녀를 둔 학부모 1,149명을 학교에 초청,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 및 진로설계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업 추진 결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학생의 비율이 참여 전 대비 34%p 증가(40%→74%)하였으며 중소기업 취업 의향 37%p(39%→76%)가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1회 중소벤처기업인식개선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으로 그리는 청년의 미래!’ 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었으며, UCC, 수기 등 63건의 인식개선 콘텐츠가 접수되었고, 전문가 심사 및 인식개선페스티벌(6.1, KT체임버홀) 공개심사를 통해 12팀을 선정, 시상하였다. 선정된 UCC 작품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여 10,810회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페스티벌에서,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을 주제로 이상직 이사장을 비롯한 명사초청 특강(4회)을 실시하고 강연콘텐츠를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프로그램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 275,487회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대국민 중소벤처기업 긍정인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2)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국정과제 41, 관련,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축소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성과공유 기업의 정의, 성과공유 유형,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사업주-근로자간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등록시스템 및 성과공유 도입 증빙자료 제출 창구인 성과공유기업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18.1). 또한 성과공유기업 확인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18.9.13)하고, 성과공유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18.12)하여 본격적인 성과공유기업 인증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성과공유기업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는데, 먼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성과공유 도입 등 일자리 양·질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고용영향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이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서 우대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업담당자들의 고용영향평가 점수 확인을 위한 전용시스템을 개발하고 30개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데 노력하였다. 성과공유협약 체결기업 대상으로 57억 원 규모의 ‘청년고용 기업지원자금’ 및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하였다. 그 외에 병역특례기업 지정 평가지표 우대 적용(1,982개사),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지정 평가 우대(175개사) 등 인센티브 제도마련을 통해 성과공유 협약 및 도입을 유도하였다. 성과공유제 도입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페이스북 이벤트, 유관기관 배너 게재 등을 통해 영상 라인 조회 수 49,325회를 기록하였다. 성과공유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으로서 ‘존경받는 기업인(14명)’을 선정하고 성과공유 우수사례를 KBS 1TV <사장님이 美쳤어요(6편)>를 통해 방영하였다. 그 결과 평균시청률 2.6% (3050연령대 시청률 32.3%) 기록,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 랭크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사람 중심 기업과 혁신성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18.11.30)하여 ‘존경받는 기업’의 성과공유 도입 모범사례를 전파·확산하였다.

중소벤처기업에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조성,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2014년부터 매년 지정, 지원해오고 있다. 매년 하반기에 사업공고 후 신청기업에 대해 ① 서면평가, ② 현장평가, ③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250개사 지정,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1,103개사를 지정하였다. 지정기업 대상으로 지정서 및 현판을 3년 간 제공하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연수비용 50% 할인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지정기업에 대해서 우수사례집(16개사 수록)을 발간하여 특성화고, 대학교 등 1,491개 학교 및 기관에 2,376부 배포하였고, 카드뉴스 제작(15개),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15개) 등 홍보 콘텐츠를 인재육성 중소기업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였다. 또한 취업포털사이트 ‘Job Korea’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채용관’을 개설, 111개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여 구직-구인 간 정보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성과공유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존경받는 기업을 모두 ‘사람 중심’ 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 전반에 사람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인력양성사업

인력양성사업은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교육 지원과 특성화고·대학의 우수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벤처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일학습 병행 문화 확산 및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 유입·양성·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산학맞춤 기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2015년 4월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이관된 사업이다. 사업 이관을 통해서 중진공 인력지원사업 목표인 「중소기업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진공 사업 간 유기적 연계로 채용부터 장기재직 유도, 기업의 역량강화까지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2018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은 200개교의 특성화고를 지원하여 3학년 취업대상자 중 13,605명을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시켜 중소벤처기업 취업률 29.4%를 달성하였으며, 핵심 프로그램인 취업(산학) 맞춤형 과정에 8,952명이 참여하여 6,413명(71.6%)을 협약기업으로 취업연계하였다.

4) 연수사업

1982년 중소벤처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지방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32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총 148만여 명 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49,228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21,530명, 지방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리더십)은 14,538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스마트공장 제조분야 전문인력(국정과제)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였고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비를 활용한 실험·실습 중심의 기술연수를 강화하였다. 또한, 현장의 기술어로 해결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한 기술에듀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기술과정을 확대하여 인력부족으로 연수 참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교육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표 IV-1-1-7 | 2018년 연수실적

(단위: 명, %)

구 분	계획(A)	실적(B)	달성율(B/A)
· 직무역량향상연수	21,310	22,695	106.4
· 정책연수	11,085	13,373	120.6
· 원격연수	12,505	13,160	105.2
· 맞춤연수*	-	496개사	-

* 2014년부터 맞춤연수는 업체수로 실적 산정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원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스마트공장배움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에서 1기, 영·호남 지역에 2기, 70억 원 스마트공장배움터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스마트공장 특화 연수원인 충청연수원 건립사업(총 사업비 352억 원)은 2018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를 위한 권역별 교육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및 지방연수원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HRD지원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공유하고, 연수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역량향상연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지식 획득 정도와 현장실무 적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학습성취도 조사'를 실시하고 과정내용 개선에 활용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취업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도 8월에 출범하였다. 동 기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는 내일채움공제와 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신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청년 취업에서 장기재직까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미취업청년과 사업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재직 시 근로자에게 1,600만 원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 대책(3.15)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공제사업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재직청년 대상 신규사업이 출범하였다. 출범 후 2018년 말까지 성과보상공제(4개 사업)에 89,226개사 226,474명(누적 기준)이 가입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한편, 공(대)기업, 지자체들과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2018년도에 대전시 184명, 울산시 105명, LH 195명, CJ제일제당 19명 등 공(대)기업 8곳과 지자체 6곳이 협력사 및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공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지자체 26곳과 협약체결을 통해 총 4,195명의 청년에 인턴, 복지지원금 등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품 매력도를 향상시켰다. 복지 부분은 공제계약 대출을 확대하고, 공제가입 후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 중인 가입자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하였다. 또한 교육 부분에서는 공제 가입자 대상 온라인 e-러닝 연수교육을 신규로 실시하였으며, 가입자 가족 참여 힐링캠프를 농어촌공사와 협력 운영하여 공제 가입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를 기존 중진공 현장 점점조직(지역본·지부)에서 추가로 중소벤처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 민간 전문기관으로 다변화하였다. 가입창구를 금융기관으로 확대(기업은행 전국 602개 지점)하여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위탁판매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공제가입에 대한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참여경로 폐지 및 임금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6)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ne-stop 지원체제로 중진공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구인애로기업을 발굴하고, 채용 조건 등을 확인하여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등의 구직자와 맞춤형 취업매칭을 진행한다. 동 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 16개 기업인력 애로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상시적으로 인력애로를 접수하여 실시간 일자리 매칭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2017년에는 구인 애로기업 1,430개사를 발굴하여 1,048명의 취업매칭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8년부터는 구직대상자를 대학 졸업생, 군장병, 미취업청년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검증된 구직인력 공급을 통하여 청년 실업문제 및 중소벤처기업 인력부족 현상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 창업·기술 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

창업·기술 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영·기술 전반의 문제 해결 방안 제시로 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경영·기술, 특화형, 원스톱 창업지원, 산업위기 대응 분야에서 750개 기업을 대상으로 91.48억 원, 4개 컨설팅 대학원에 8.79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 중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시장검증 33개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추가 R&D) 2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시장검증 지원을 통해 922백만 원의 신규 매출을 창출하였다.

1)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청년층의 기술창업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경기도 안산에서 개교하였으며, 혁신 창업자 육성 강화를 위해 2017년도에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성장까지 쏠 단계 패키지지원 방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창업성공 패키지의 창업준비 단계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등의 교육(프리스쿨)을 지원하고 있다. 프리스쿨은 창업사업화 기간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이다.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창업 스카우터는 전통적인 선발방식인 접수형 방식에서 벗어나, 중진공에서 지정한 스카우터가 직접 유망창업자를 발굴·추천하는 발굴형 선발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민간 창업생태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성장지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창업 스카우터를 개인 단위에서 창업지원기관 단위로 확대(40개)하여 우수 기술보유 창업자 및 유망(예비)창업자 유입·발굴을 강화하였다. 창업실행 단계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사업화 비용까지 one-stop 일괄지원하여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은 지속적인 청년 창업 수요증가 및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 창업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까지 5개 지역에서 운영하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플랫폼을 2018년도에 12개 지역으로 확대·신규 설치하여, 17개 지역에 혁신창업가 양성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창업자 양성규모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증가시켜 혁신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지역특화주력산업 등 기술보유 창업자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업종을 확대하였으며, 민간의 창의성과 개방적인 사고 등 혁신역량을 활용한 민간·공공협력체계를 도입하여 창업자 향성 체계를 고도화하였다. 또한, 개발기간이 장기간(최대 2년)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교자의 창업 활동 결과를 사업비 배정 및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등 창업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 창업성장 단계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마케팅·판로, 해외진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성장촉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졸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데스크벨리 극복 등 혁신성장 창업기업 도약을 지원하였다. 창업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신사업 융합 기회 제공을 위해 2018년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총동문회(2,878명)를 결성하여 개방형 혁신 및 자발적 상생협력 등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8년간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2018년 졸업생 402명을 포함한 총 2,390명의 청년 CEO를 배출하고, 매출액 18,620억 원, 지적재산권 등록 5,373건, 일자리 창출 5,618명의 지원성과를 거두었다.

2)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에는 신청접수부터 완료점검까지 중진공이 통합운영하도록 수행기관을 일원 화학 업무단계를 통합(선정평가, 워크숍→선정평가, 완료점검, 최종평가→완료점검) 하는 등 사업 프로세스 개편으로 처리기간을 42일 단축하였으며 수행역량강화 워크숍 참석대상을 신규 수진기업만 참석하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018년 사업추진을 통해 총 750개 기업을 선정하여 100.2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체계적 경영관리,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높은 컨설팅 지원성과를 창출하였다. 컨설팅사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컨설팅사가 자발적으로 우수컨설턴트를 확보하고 품질 관리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기업이 컨설팅사(컨설턴트)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기반강화 체계를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경영전략 수립 등 경영·기술 분야 컨설팅(258개사)을 지원하였으며 스마트팩토리 확산과 제조현장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컨설팅’ 확대(83개사)로 현장문제 해결 및 스마트공장 구축 효율화를 지원하였다. 사업장 취급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을 신규로 추진하여 81개사를 지원하였고 조선, 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 및 산업위기 특별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을 위한 산업위기 컨설팅(225개사)을 추진하였다. 또한, 컨설팅 대학원을 통해 컨설팅 전문인력으로 석사 85명, 박사 52명을 양성하고 컨설팅 교재 및 방법론 22건을 개발하여 컨설팅 기반강화를 통한 컨설팅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3)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의 기술개발 부문은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동 산업 전문가의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 연구원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존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개발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총 39개 업체가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2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19.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계속과제 5건을 포함하여 총 1,329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및 출원 5.5건, 시제품 출시 4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맞춤형 사업화 부문은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사업화 코칭, 사업화 지원 등을 맞춤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사업화 진단 13건, 사업화 기획 13건, 사업화 코칭 10건, 사업화 지원 12건으로 총 48건을 지원하였다. 맞춤형 사업화의 성과지표는 지원금액 대비 신규매출액(%)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의 성과는 18.9%로 목표대비 105%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4)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되지 못한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정부 R&D 투자효율개선 및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매출을 창출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R&D 성공기술 및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이며,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2018년에도 공모접수와 KOSBIR 시행기관을 통한 정부부처 R&D 성공판정 중소벤처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하였으며, 대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추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술사업화 진단 254개사, 사업화 기획 66개사, 시장검증 지원 33개사 2,577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장검증 지원 후 신규매출 922백만 원을 창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22개사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을 지원

하였다. 시장검증 지원 33개사 중 13개사에서 신규 매출 922백만 원을 창출하여 높은 지원성과를 창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계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5)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심층진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 퇴출을 유도하여 시장 내 명맥만 유지하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막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조기진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 10억 원 예산으로 총 356개 기업에 대해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356개 지원기업 중 277개사에는 ‘구조개선’ 판정으로 수출마케팅, 워크아웃, 자금 등 지원정책을 연계하고 있고 48개사에 ‘회생지원’ 처방을 통해 회생컨설팅을 연계하였으며 나머지 28개사에는 ‘사업정리’ 처방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폐업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법원 회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나 회생절차 비용조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회생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 조사위원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법원 회생개시신청서 작성,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 회생절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57개사, 2014년 65개사, 2015년 51개사, 2016년 55개사, 2017년 90개사, 2018년 92개사 등 총 410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율을 제고하고 있다. 2018년 중 회생컨설팅 완료기업 66개사 중 57개사의 경우 회생인가결정이 완료되어, 86.4%의 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가능한 지표인 최근 5년간 법원의 회합사건 회생인가율 통계수치(33.06%)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진공이 역량이 우수한 컨설턴트를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신청부터 인가 시까지 컨설팅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컨설팅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6) 정책중개

2011년부터 중진공은 기관의 강점인 현장성을 살려, 지역본지부에서 발굴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정책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발굴된 애로사항들을 정책과제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매월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에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SBC)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합동 간담회인 S.O.S Talk를 운영하여 2018년에 총 12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중진공은 ‘정부정책과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간담회와 지역본지부에서 수집한 애로사항 537건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여 게임물 자체등급 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 등 69건의 규제를 정부시책에 개선사항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불합리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전년보다 19건 증가한 75건의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소하였다.

7) 간행물 발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기술 트렌드, 우수 성공사례,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등의 정보를 담은 월간 「기업나라」를 1979년부터 발행하고 있다. 매월 1일 발간되는 「기업나라」는 중소벤처기업 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회비 납부방식의 정기구독 회원제로 운영된다. 연간 회원에게는 정가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주요 기사를 엄선해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정기구독 회원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중 서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를 진행했으며, 인터넷 웹진(nara.kosmes.or.kr)을 통해 주요 기사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제고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제공 확산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포스트’에 「기업나라」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대중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한국 ABC협회에 부수인증 매체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발행

부수에 대한 검증을 받아 정기간행물로서의 대외 신뢰성을 높였다. 주요 기사를 최신 산업 동향 및 이슈 관련 중소벤처기업 사례를 심층 취재하는 <특집>, <기획>과 함께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CEO Study>에서는 리더십, 인사조직, 수출, 마케팅 등 CEO가 회사경영 시 알아야 하는 지식과 지원시책 정보를 제공했다. <People & Company>에서는 중소벤처기업 CEO 경영철학과 우수 제품의 탄생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취재하고, <Global>에서는 현지 리포터를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경제 이슈 및 기술 동향을 전달했다. 또한 <Trend & Solution>을 통해 경영·기술 관련 트렌드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Culture & Relax>는 문화 관련 기사로 교양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실었다. 보다 다양한 시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를 운영(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특집 및 기획 코너에 대한 자료수집, 취재기업 섭외를 협업하여 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매월 「독자의 소리」 코너에서 관심 있게 본 기사 내용과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독자모니터링단 설문문을 통해 「기업나라」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 신뢰도, 건의사항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4.15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성공사례’와 ‘지원시책’, ‘제품소개’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

향후 추진방향

2019년 중진공은 ①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촉진, ②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③ 수요자 공감 대고객 서비스 혁신, ④ 청렴·소통기반 신뢰경영 구축을 중점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윈스톱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주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1) 정책자금 투·융자

□ 혁신성장 가능한 생태계 조성

(창업지원 확대) 혁신성장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자금을 확대(2018년 1조 8,660억 원→2019년 2조 800억 원)한다. 또한 창업사업연계자금에 경영·기술혁신형 창업(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기업을 추가하여 혁신형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무형자산(지재권·SW 구입 등)에 대한 투자자금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초기투자 여건을 마련한다.

(혁신성장 촉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성장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케일업 금융(2019년 1,000억 원)을 신설하여 중견기업 도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기업당 정책자금 융자한도 증액(2018년 70억 원→2019년 100억 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4개 기관에 산재된 17개 정책지원사업을 원스톱 일관지원체제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지원성과 창출을 극대화한다.

(재도전 지원) 도전적 혁신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민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재도전기업을 발굴한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통해 채무 부담을 해소하여 실패 기업인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대출 기간을 연장(시설자금 거치기간 4년→5년, 운전자금 거치기간 2년→3년)하여 실패기업인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 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촉진자금(3,000억 원)을 신설하여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신속 지원하는 '일자리하이패스 트랙'을 신설하고, 고용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우선 지원되도록 일자리 평가를 개선(일자리 배점 확대, 질적 일자리 수준 평가 강화 등)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안전망 강화) 한국GM군산공장 폐쇄 등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자동차 업종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산업위기지역 활력 제고와 취약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재해피해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평가를 생략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기기업 정상화) 4차 산업혁명, 보호무역주의, 경기부진 등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센터 내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시스템에서 상시 상담으로 전문가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전체 회생법원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협약법원 추천 회생컨설팅을 지원한다.

□ 사회적 경제 및 공정경제 기반조성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예산을 확대(2018년 350억 원→2019년 500억 원)하고, 정책우대금리(0.1%p) 적용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완화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공정경제 기반 구축)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한 1:1 상담 및 첫걸음기업 지원 비율(60%)을 통해 균등한 지원 기회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공정거래 촉진 및 협력기업 상생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약속어음발행 감축을 의무화하여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확산한다.

2)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 수출기업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수출유망 기업(제품) 발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지원센터 파견 확대 및 현장인력을 확대하여 수출유망 기업(제품) 발굴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유관 기관(무역협회 등) 및 민간 기업(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 협력을 통해 수출유망 내수기업(제품) 발굴 채널을 확대한다.

(제품 경쟁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따른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테스트마케팅 확대로 제품 현지화를 지원한다. 또한 유관 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특허청 등) 협업을 통해 디자인, 해외 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비가격 경쟁 부문 개선으로 제품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 수출규모 증대를 통한 기업성장 주도

(성장단계별 지원)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을 통한 공동물류·배송 및 기업은행과의 협업으로 환불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단계별 생태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수출 저변 확대, 쇼핑몰 입점, 자사 쇼핑몰 구축, 글로벌 쇼핑몰 육성 등 온라인수출 성장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거점 기능개편) 해외창업, 기술 수출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거점별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거점에 개방형 인프라를 조성하여 테크형 혁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글로벌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흥시장 진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미·중 중심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유라시아, 아세안 등의 신흥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북방(무역사절단), 신남방(수출 패키지) 등 신흥국별 차별화된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별 기술사업화에 대한 전담코디제를 도입하여 맞춤형 기술교류 기반 기술 수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포용성장에 기여하는 수출사업 추진

(수출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수출 시장의 급격한 성장 대비 전문인력 부족에 따라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 교육 및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하나재단,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협업하여 취약계층 대상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진공 일자리매칭시스템을 통해 채용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스타기업과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를 우대하고, 지역특화산업 및 주력품목의 해외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 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수출상담회 및 무역사절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지역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인력양성

□ 혁신성장 선도 미래핵심 인력양성

(선도산업 인력양성) 스마트공장 배움터 확대 및 증강현실 학습환경 구현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양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제조혁신을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선도 기술 중심의 융합과정 및 창업연계 등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창업생태계)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플랫폼 확산으로 지역 창업 불균형 해소 및 우수창업자 양성을 통한 균형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생과 중진공 패밀리기업, 총동문회 창립 등 매칭네트워킹 지원으로 자생적 상생기반을 구축하여 혁신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연계지원 강화) 정책자금, 클라우드 펀딩, 수출·마케팅, 기술개발 및 사업공간(어울림터 등)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에 대한 후속연계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에 기여한다.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구인-구직 매칭) 딥러닝 기반의 AI 매칭시스템 도입으로, 구직자와 기업의 구인·구직패턴 기반 프로파일링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는 기업인력애로 센터를 통해 신속한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군장병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국방부, 코레일과 협업하여 청년장병 희망열차, 취업상담센터를 통해 청년장병에게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자 역량개발)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술사관 육성, 계약학과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중소벤처기업형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한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협업으로 예비취업자에게 해외기업 탐방, 직무역량 교육 등 청년들이 글로벌 핵심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대국민 인식개선) 중소벤처기업 취업 기피에 따라 학생, 부모·교사, 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별 인식현황에 대한 교육, 인증제도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 긍정적 인식을 전파할 계획이다.

□ 기업과 인력 상생 저변 확대

(성과공유 확산) '미래성과공유제' 사업을 신설하여 경영성과급, 우리사주조합 등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으로 기업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한다.

(근로자 미래설계) 생애근로 전 단계(취업·숙련·핵심인력)에 걸친 내일채움공제로 임금 격차를 축소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기금수익을 재원으로 가입 근로자 역량 교육 및 단체상해보험 등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제2장

기술보증기금

1

일반현황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989년 설립 이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술중소기업에 약 345조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선도하였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평가와 연계한 투자, 기술·경영지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금융 종합지원 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 평가보증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술창업기업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보증지원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개발·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중개지원,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기술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촉진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기보는 창업·혁신·기술기업의 중점 지원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기보의 기술평가정보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술·산업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의 No.1 혁신성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집중할 계획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술보증

1) 총괄

기보는 설립이후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345조원 이상의 기술보증을 공급하여 기술중소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기보는 보증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보증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한계기업, 장기·고액보증기업 등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술창업기업, 혁신성장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2018년도의 총보증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6천억 원 증가한 22.4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IV-2-1-1 | 기술보증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증잔액	197,284	201,559	207,096	212,075	218,506	224,426
보증공급	196,591	200,781	209,804	216,183	222,555	224,798
신규보증	60,184	53,489	58,043	53,098	52,859	52,465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술창업기업 및 혁신성장산업, R&D활성화를 3대 중점지원 분야로 지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지원하여 기술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2-1-2 | 3대 중점지원 분야 보증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획	실적
기술창업기업	85,843	88,317	77,000	91,725
혁신성장산업	-	26,634	35,000	49,000
R&D활성화	41,937	48,348	48,000	53,138

2) 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체계 강화

기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술혁신기업에 보증지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보증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IV-2-1-3 |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비중	2017년	비중	2018년	비중
총보증공급	216,183	100.0	222,555	100.0	224,798	100.0
기술혁신기업	206,297	95.4	213,411	95.9	217,157	96.6
벤처기업	128,306	59.4	128,693	57.8	122,296	54.4
이노비즈기업	69,635	32.2	67,697	30.4	64,103	28.5
창업기업	85,843	39.7	88,317	39.7	91,725	40.8
기술평가보증	208,794	96.6	215,783	97.0	219,613	97.7
지식문화산업	36,304	16.8	37,192	16.7	40,825	18.2
일자리창출기업	49,886	23.1	61,655	27.7	61,868	27.5
유동화회사보증	2,562	1.2	2,609	1.2	1,562	0.7
총보증잔액	212,075	-	218,506	-	224,426	-

① 기술혁신기업 보증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2018년도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21조 7,157억 원으로 2017년 21조 3,411억 원 대비 3,746억 원 증가하였고, 총보증공급 대비 지원 비중도 96.6%로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② 기술창업기업 보증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창업문화 확산 등으로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창업기업 범위를 기존 '설립 후 5년 이내' 기업에서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후 보증지원 강화 노력으로, 2016년에는 8조 5,843억 원, 2017년에는 8조 8,317억 원, 2018년에는 9조 1,7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③ 기술평가 보증

기술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기보는 기술혁신기업 금융지원에 최적화된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으로 전년도 21조 5,783억 원 대비 3,830억 원 증가한 21조 9,613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평가 중심의 기술금융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3)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 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업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보는 정부의 혁신성장산업 분류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혁신성장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혁신성장산업 지원시스템은 정책금융기관 등이 혁신성장 기업의 선정·지원에 활용할 공동의 기준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공공성을 감안한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반하여 중점지원 대상을 재설정하고 지원제도를 새롭게 정립한 시스템으로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표 IV-2-1-4 | 혁신성장산업 보증지원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혁신성장산업 보증공급 실적	-	2.7	4.9
총보증공급 대비 비중(%)	-	12.3	22.0

4) 기술금융을 통한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

① 기업의 고용환경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프로그램 신규 도입

기보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자리창출 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하여 우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환경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인 ‘굿잡(Good-Job) 보증’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다. 굿잡 보증은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서 고용 취약계층(비정규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일자리 배려 기업(‘쉐어링잡’)과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기업(‘점핑잡’),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베스트잡’)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우대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②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창업보증시스템 개편 및 지원확대

미래성장 기반 조성 및 고용 없는 성장 극복을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술 창업기업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데스밸리기업(창업 후 3년~7년)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해 기술창업기업의 지원 범위를 ‘설립 후 5년 이내 기업’에서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창업기업을 업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우대 조건을 차별화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은 창업초기기업 일수록 보증료 감면을 확대하고 보증비율을 우대하여 쉽게 자금을 조달받도록 단계별 창업지원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밖에 창업유형에 따라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첼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 등 4대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 성장 보증」을 통해 10,886개 창업기업에 2조 9,131억 원 신규보증 지원하였고, 소액 창업기업 위주로 기술보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매출액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창업보증 지원제도를 통해 총 13,728개 창업기업에 3조 8,216억 원(전체 신규보증 5조 2,465억 원의 72.8%)을 신규 보증 지원하는 등 미래성장 가능성 위주의 기술 평가로 기술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업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

5)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산업 선제적 지원 강화

① ‘4차 산업혁명’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 성장동력분야 지원 강화

경기회복 지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기존 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산업 구조의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기보는 미래 주력 산업인 新성장 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인 ‘인더스트리 4.0 퍼스트 보증(FIRS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ignificant Transformation)’과 ‘4.0 스마트팩토리 보증’ 지원 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기보의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과 기업을 발굴하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써,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팜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기술혁신형 스마트팜 공급기업, 도입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기술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였다.

② 4차 산업혁명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대외협약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지원역량 강화

기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중소기업을 중점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 후 납입된 특별출연금을 기반으로 515개 기업에 889억 원 지원과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LH공사(특별출연), 경상남도(이차보전), 농협·경남은행(보증료지원)과 신규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역량을 강화하였고, 신규 도입사업인 스마트팜 지원 프로그램을 금융기관 협약보증 대상으로 추가하여 우대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6) 대학·연구소 창업지원을 위한 Tech-Valley 지원시스템 강화

기보는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을 사업화하여 “Made in Korea” 신화를 재현하고 新 경제 성장 동력 창출과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쏠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우수기술 사업화플랫폼인 Tech 밸리를 구축하였다.

기보는 금융기관 최초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항공대 등 41개 대학과 U-Tech 밸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정부출연연구소 14개와 R-Tech 밸리 구축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18년 말까지 총 151개 기업에 2,657억 원의 TECH 밸리보증을 신규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TECH밸리 플랫폼 Start-Up 기업에게는 창업자금으로 최대 30억 원의 사전 한도를 지원하고, Take-Off 기업에게는 보증연계투자 우선추천, 마케팅 및 영업전략

등 컨설팅 지원, Exit 기업에게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IPO 지원 및 기술이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7) 도전적 창업을 위한 창업안전망 구축

창업 활성화와 경제활력 유지를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겸 실제경영자에 한하여 연대보증 입보하도록 하였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 실제경영자 1인만 입보하도록 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수는 계속 감소('17년 0.48명 → '18년 0.12명)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 면제를 기술력이 우수(기술사업평가등급 AAA~A)한 비창업기업에도 적용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왔다.

또한,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 완화 및 도전적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폐지' 도입하고 17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기조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도전적 창업문화를 확산코자 하였다. '17년에는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면제 대상기업을 '설립 후 5년 이내'에서 '설립 후 7년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18년에는 '법인 연대보증 입보면제' 지침에 따라 신규보증 취급 시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였다.

또한, 기존 연대보증 보증도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2022년까지 단계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법적 변제책임 소멸완료 채무자와 법적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소각채권 채무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요소를 개선하고 구상채무 변제 완료기업에 대한 보증은 일반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등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여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도모하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IV-2-1-5 | 신규보증의 기업 당 평균 연대보증인 수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0.66	0.64	0.53	0.48	0.12

나. 기술평가

1) 총괄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미래가치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기보는 1997년 3월 기술평가업무를 개시한 이후 2018년 말까지 총 66만 여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IV-2-1-6 | 기술평가건수(누계)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술평가건수	454,097	508,773	562,361	617,448	667,404

특히, 기술평가 중 ‘정부 및 공공부문의 기술평가’와 ‘민간기관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 기술평가’ 등 일반평가보다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전문 기술평가로서 국내 기술평가 시장 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IV-2-1-7 | 연도별 전문기술평가 건수(누계)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문기술평가건수	29,728	31,267	32,692	34,384	36,006

2014년 7월부터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인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유일한 공공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으로 참여하여 은행·민간 TCB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금융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였다.

표 IV-2-1-8 |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지원현황

(단위 : 건)

TCB 제공건수				
2014년(7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
4,360	9,639	13,062	11,509	4,985

2) 기술평가 조직·인력의 전문성 강화

증대되는 평가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평가원 1개, 기술혁신센터 8개, 기술평가센터 59개를 설치함으로써 특화된 기술평가·금융 영업망을 확보하였다.

표 IV-2-1-9 | 기술평가 운용 조직체계

구분	역할	주요 업무
중앙평가원	고도로 전문화된 핵심 평가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난이도 전문기술평가(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등) ■ 정부 및 유관기관 대상 기술평가 마케팅 ■ 기술평가서 검증 및 평가지원 등
기술혁신센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거래·M&A 관련 전문기술평가(수반보증 포함) ■ 기술거래 수요발굴 및 중개·마케팅 업무 ■ 기술정보 수집 및 가공, 대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평가센터	정형화된 기술평가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보증(지식재산보증, R&D보증 등) ■ 정부 R&D 경제성 평가 등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 기술신용평가,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등

한편, 기술평가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실무를 통해 일정자격과 평가역량을 갖춘 기술평가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확대하고 있다.

표 IV-2-1-10 | 기술평가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금 전체	1,085	1,102	1,126	1,156	1,211	1,304
기술평가전담 인력	578	552	592	581	605	662
박사급 인력	147	154	168	190	215	239

* 기술평가 전담인력 : 박사급인력, 전문직 직급 부여자, 본점 기술평가부서 근무자, 중앙평가원 근무자, 기술평가팀 소속자, 기술평가사 3급이상 자격자

또한, 자체 보유 평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Pool을 구성·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3) 기술평가시스템의 신뢰성 강화

① 기술평가모형 고도화 및 新평가기법 개발

기보는 재무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선별·지원이 어려운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하여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 등급화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스템(KTRS :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을 개발하여 운용중에 있다.

KTRS는 기술사업의 미래 성공가능성 및 기술기반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기술 금융에 최적화된 평가시스템으로, 2005년 7월 기금 업무에 전면 도입 후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으로 사고율 및 리스크 예측치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보는 평가목적 및 용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평가모형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② 기술평가 글로벌화를 통한 국제신인도 제고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그 동안 기보는 국제 교류와 기술평가시스템(KTRS)의 해외 전수를 통해 기술평가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을 높여왔다. 특히 '17년 기술평가 교류를 위한 유럽투자 은행(EIB)과 업무협약 체결 및 유럽내 KTRS 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18년 EIB 금융 지원사업의 시범평가를 수행하였고,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EC H2020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유럽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KTRS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는 등 KTRS 국제화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표 IV-2-1-11 | KTRS 유럽적용 로드맵

1단계	평가준비 (~'17.12월)	2단계	시범평가 및 과제 추진 ('18년)	3단계	과제 수행 ('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향 KTRS 개발 • 현지 평가인력 구성 및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내 3개 혁신기업에 대한 KTRS 시범평가 실시 • EC H2020과제 수행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RS를 활용한 금융지원평가 Tool 개발 및 보급(~'21년)

* EU IPF 보고서('12.11월), EIB보고서('18년.3월)에서 기보 기술평가시스템을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소개

4) 기술평가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

① 국내 지식재산(IP) 금융의 프런티어로서 역할 수행

2006년부터 지식재산(IP) 기반의 선진형 기술금융인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기술가치연계보증 등을 국내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보는 2013년 8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IP) 보증 제도”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이 보유(또는 인수)한 우수 지식재산의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증지원을 통해 IP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식재산(IP) 보증은 일반 기술평가보증 절차에 기술가치평가 절차가 더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높은 평가비용이 수반되어 지원 확대에 장애가 존재하였으나, 특허청, 시중은행,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유관 기관과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 기술기업의 금융조달비용을 절감하고, 공격적인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동일한 가상공간에서 내·외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평가협업시스템(cowork-kibo)을 도입하였으며, 기술가치 평가서의 종류를 4가지로 다양화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IP)의 평가체계를 시장중심으로 개선하여 IP 금융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표 IV-2-1-12 | 지식재산(IP) 관련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IP평가보증	1,794	3,811	2,323	5,278	2,884	6,681	3,344	7,774
IP인수보증	455	535	714	863	990	1,311	1,170	1,589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R&D 종합지원 강화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R&D를 선별하고 R&D 사업화 과정 전주기를 지원하는 「R&D보증」을 2008년부터 도입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R&D 자금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는 R&D종합지원시스템 사상 최대인 5.3조의 R&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R&D 금융 지원대상을 자체개발 R&D에서 외부기술도입(개방형 R&D)까지 확대함으로써 R&D성과물(IP)의 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그 공로로 “지식재산위원장(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표 IV-2-1-13 | R&D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R&D보증 총공급	10,853	34,257	13,860	41,937	17,493	48,348	20,073	53,138
개발단계	5,023	8,103	6,835	10,651	9,171	13,794	9,955	14,364
사업화준비단계	731	1,210	749	1,180	820	1,214	802	1,102
사업화단계	5,099	24,944	6,276	30,106	7,502	33,341	9,316	37,671

③ 기후변화대응 기술금융 선도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선진국에서 전회원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6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UN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Network)에 가입하는 등 기후기술협력 추진방향 도출에 이어, '17년부터 기후기술금융 등 기후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본격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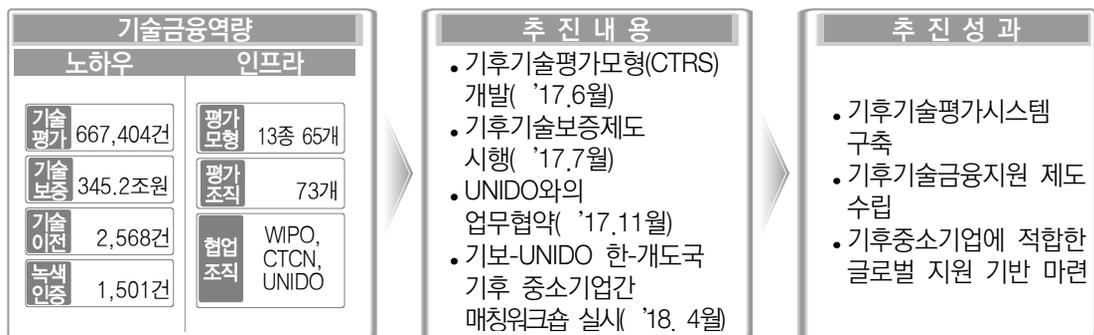
기보는 먼저 2017년 6월 기후기술평가에 적합한 기술평가모형(CTRS :Climate Technology Rating System)을 개발하고, 기후기술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 기후기술보증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여 '17년 1,293억원, '18년 3,295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기보는 기후·에너지 분야의 연간 지원 규모를 2022년까지 1.1조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보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2017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4월 한-개도국 기후기술기업간 쌍방향 멘토-멘티관계 기반 협력모델 도출을 위한 매칭 워크숍을 부산 본점에서 실시하였다. 해당 워크숍에는 4개 개도국(터키, 태국, 모로코, 파키스탄)의 5개 유망 기후벤처기업이 참여하여 국내 우수기후기술 기업과 1:1 매칭 방식으로 상호 협력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기보는 기술은 뛰어

나지만 국제화 역량이 다소 부족한 국내 기후중소기업들이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고안과 검증에 성공하였다.

아울러 기보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초청으로 2018년 5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비엔나에너지포럼’ 및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4)’에 참가하여 전 세계 기후정책 관계자들에게 기후기술 분야 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널리 전파하고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표 IV-2-1-14 | 기후기술지원 추진성과



다. TB(Tech-Bridge)사업

1) 수요중심의 대한민국 대표 기술거래 플랫폼 정립

기보는 기술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지원, 일자리 창출 등 국가 R&D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4년 1월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9월 온라인 플랫폼인 Tech-Bridge('18.12월 현재 기술수요정보DB 누적건수 : 7,174건, 공급기술정보DB 누적건수 : 340,512건)를 구축하였다.

2016년에는 기존에 기술중심의 검색기능 외에 시장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증대와 플랫폼 활용 편의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검색 신설, 기술검색 고도화 및 기관별 보유(수요)기술 코너를 신설하는 등 Tech-Bridge를 공용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특히, 금융권('18.12월 7개은행)과 기술수요 발굴 협약,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정보 집중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18.12월 현재 203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기술이

전·사업화 지원 프로세스의 체계화를 통해 2018년 1,559건의 기술이전 수요발굴과 553건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기술이전보증 593억 원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27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업무프로세스



* 기술수요 발굴, 기술매칭에서 기술금융까지 One-stop 지원

라. 보증연계투자

1) 보증연계투자

기보는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05.1월부터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과 연계하여 기보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12.3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12.6월 시행)으로 보증연계투자가 기보의 고유 업무로 법제화 되었다. 특히 기보는 기관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창업초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인증(또는 신호) 효과를 제공하여 민간의 후속투자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증융자 등 간접금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표 IV-2-1-15 | 보증연계투자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투자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투자대상기업	<p>아래 각 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R&D 및 신성장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기 보증기업(또는 보증 승인기업)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15등급 이상의 우수기술기업 *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등급 T14등급 이상 법상 벤처기업(또는 이노비즈기업)

구분	내용
개별기업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당 투자한도는 30억원, 통합한도(보증+투자)는 100억원 (단, 투자금액은 기보가 해당기업에 보증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마. 기업지원

1) 중소기업 CEO대상 무료강좌 실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유도를 위한 ‘기보벤처창업교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인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기술창업교실’, 기술창업 화두에 맞는 주제를 발굴·선정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CEO의 리더십과 핵심 역량을 배양하는 ‘기보벤처포럼’ 등을 매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표 IV-2-1-16 | 강좌별 수료자·참석자 현황

(단위 : 명)

프로그램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보벤처창업교실	191	194	128	143	152
청년·기술창업교실*	349	347	206	231	185
기보벤처포럼	-	-	-	-	431

* 舊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2) 기보벤처캠프(Kibo Venture Camp) 도입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될성부른 신생벤처를 집중 보육하고 지원함으로써 유망 스타트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전국단위 모집공고를 통해 총 393개 기업이 제2,3기 기보벤처캠프에 신청하였으며, 이중 1차 서류평가, 2차 PT평가를 통해 최종 96개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금융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체계를 구축하였다.

기보벤처캠프는 기존의 현장실사를 통한 보증 및 투자지원에서 벗어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장기간의 집중보육을 통해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기보 최초의 전문컨설팅 연계 보증 및 투자지원 시스템이며, 민간 투자자금(엔젤, 민간 VC 등)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참여기업과 투자자간 네트워킹데이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 IV-2-1-17 | 제2,3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모집공고	접수	1차 선정	최종 선정
'18.2.1 ~ 3.9	179개 기업	74개 기업(서류심사)	39개 기업(PT평가)
'18.6.25 ~ 7.20	214개 기업	100개 기업(서류심사)	57개 기업(PT평가)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일반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전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2014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신설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협업·조직화 지원, 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 시설 및 경영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조사 및 정책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및 융자 지원 등이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신사업 아이템 제공, 온·오프라인 창업교육(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이버평생교육원), 상권 정보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에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이후 종합적인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신설한 이래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창조형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신사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도록 개편하였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 과잉진입을 방지하고 신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론·실습교육, 점포 경영체험, 멘토링, 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이다.

설립 이후 2015~2018년간 총 1,378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이론교육과 점포경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9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2015~2018년(1~7기) 수료생 중 약 67.5%가 창업에 성공하였고, 월 1,005만원의 매출액과 연 0.9명의 고용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예비창업자의 창업 준비도는 교육 전 69.2점에서 교육 후 83.1점으로 13.9점 향상되었으며,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3.8%로 나타났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수원) 등 전국 6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등에서 150시간 내외의 창업 이론교육을 제공한다. 이론교육 이수 후에는 6개 지역 중심상가에 구축된 16개 체험점포에서 약 4개월 간 사업모델 검증 및 고객 응대, 서비스 마케팅 홍보 역량 함양 등 실전 창업과 같은 점포경영을 체험하고, 분야별 전담 멘토링도 지원받는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소상공인창업자금을 1억 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며, 우수 교육생을 심사·선발하여 사업화 보조금을 최대 2천만 원 한도(개인부담 50%)로 지원한다.

표 IV-3-1-1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18.12월 기준)

	점 포 명	주 소
서울	충무로점	종구 삼일대로4길 9, 라이온스빌딩 1층
	대학로점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층
	종랑점	종랑구 숙선옹주로 6-9, 묵동자이아파트상가
	명동점	종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층

점 포 명		주 소
부산	마포점(준비중)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센텀시티2호점	해운대구 센텀동로 35, 센텀SH벨리 107~108호
	범일점	동구 자성로133번길 10, 천일빌딩 1~2층
대구	범어점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6, 범어골드타워 1층
	두류점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4, 두류동빌딩 1층
	삼덕점	중구달구벌대로2191, 소석빌딩 1층
광주	상무지구 1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1층
	상무지구 2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층
경기	수원판타지움점	영통구 덕영대로 1566, 더판타지움 1층
대전	둔산 1호점	서구 둔산로 59, 아이빌딩 1층
	중앙로점	중구 중앙로 151, 한국투자증권빌딩 1층
	둔산 2호점	서구 대덕대로 195, 현대빌딩 1층

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고급기술이 필요 없는 생활분야 틈새시장의 생활혁신형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계형 업종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18년 3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멘토링하고, 성공불용자(최대 2천만 원) 지원 후, 성실실패 시 상환 면제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창업프로그램이다.

2018년에는 총 6,144명이 지원하여 4,188명이 선정되었으며, 3,584명이 창업(사업자 등록)을 완료해 성공불 용자를 지원받았다.

우수 사례

- Aton Shoes(서울 성동구)
버려지는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수제화 및 가죽 소품 제작 및 판매



- 벨룬조이(경기 성남시)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풍선아트 분야의 독자적인 콘텐츠와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 사업 초기 사업 안정화에 생활혁신형 멘토링과 성공불 용자 지원이 큰 힘이 됨



3)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소상공인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집합교육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2018년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하여 자율적으로 국민 참여가 가능한 새로운 환경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은 ‘창업-성장-재기’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및 업종별 직무기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점포를 비우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돕는 소상공인 중심의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이다.

2018년에는 136건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123,88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평균 92.5%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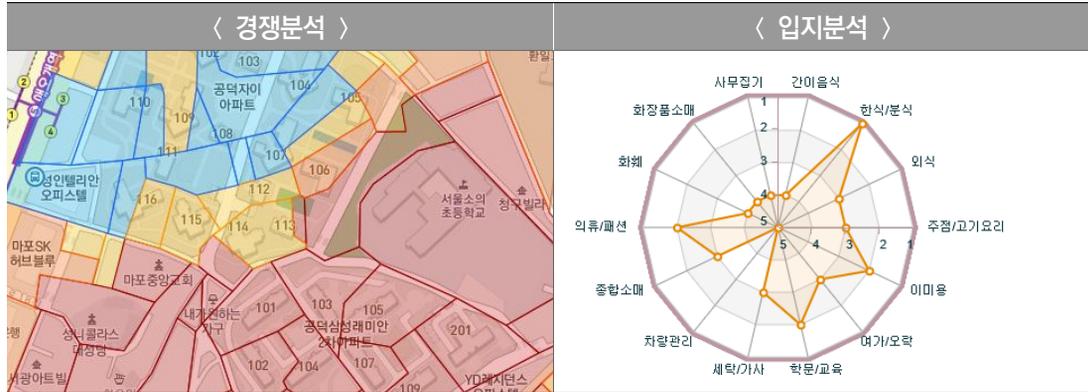
4)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15년 ‘소상공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과정 시 애로사항에서 입지선정이 42.6%, 업종선정이 16.5%로 관련 애로를 느끼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5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수집·분석이 어려운 상권정보를 41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권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특정지역·업종에 대한 53종의 상권 현황을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 특정 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알려주는 점포이력 서비스와 같은 현황정보와 특정위치·업종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정보를 알려주는 수익분석서비스와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경쟁분석서비스 등의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 상권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



창업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권정보·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2006년 7월 개시 당시 월평균 10,185건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2017년 109만건, 2018년 120만건으로 최근 4년간 평균 16.5% 상승하였다.

표 IV-3-1-2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실적 (월평균)	581,378 (48,448)	494,048 (41,171)	598,919 (49,910)	635,020 (52,918)	818,860 (68,238)	897,315 (74,776)	1,090,586 (90,882)	1,253,588 (104,465)
증가율	85.6%	-15.0%	21.2%	6.0%	29.%	9.6%	21.5%	14.9%

* 이용건수 증가율 : (당해건수-전년건수)/전년건수×100

또한 민·관간 공유정보 확대 및 상가업소 조사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상권정보시스템 2018년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이상)는 89.1%로 대다수의 이용자가 만족을 나타냈다.

표 IV-3-1-3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자 만족도	77.8%	79.8%	82.4%	87.0%	88.2%	88.5%	88.7%	89.1%

2018년에는 시장환경 및 경영현황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별 최적의 경영전략을 제안하는 경영컨설팅, 성공점포의 요인 및 패턴분석을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추천하는 업종추천, 창업기상도 등의 분석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유·수집된 약 240만 건의 상가업소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도에 기여하였다.

2019년도에는 현 상황에서 창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자가진단 서비스, 예비창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현장방문 없이 프랜차이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경영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전문교육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역량강화, 협동조합활성화, 나들가게 성과확산, 중소유통 통합구매,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소상공인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영교육은 업종별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 교육장 교육, e-러닝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까지 총 2,390,969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전문기술교육 과정은 소상공인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고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신메뉴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소상공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직접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경영개선교육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성과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설·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전문기술교육 6,584명, 경영개선교육 3,633명 등 총 12,4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18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료생의 97.2%가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교육 수료생의 '18년 현재 월평균 매출액은 556만원으로 전년(535.9만원) 대비 3.8% 증가

하였으며 경영역량지수가 교육 전 100점 기준으로 교육 후 117.4점으로 상승하여 2017년 107.5점보다 9.9점 상승하였다.²⁶⁾

한편, e-러닝과정은 점포를 비우기가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을 통한 경영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최신 경영기법의 전수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1,630,935명이 수료하였다.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드라마, 만화형식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45,08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주요 권역별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대전·서울·광주·부산 등 전국 4개 지역에 개소한데 이어, 2010년에는 대구에 개소하여 총 5개의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밀집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시내 중심가 위주로 설치하였다.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은 시청각 시설을 구비하여 무료로 제공할 뿐 아니라, 시·공간적 제약으로 주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직장인 및 소외계층(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18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2)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 경영능력 강화,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또는 업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은 위기진단을 받은 후 신제품·브랜드 개발, 리모델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6) 2018년 소상공인교육 성과보고서

표 IV-3-1-4 | 소상공인컨설팅 제도 도입 경과

시행시기	내 용
2005년 5월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에 의하여 시범사업 추진
2005년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사업 추진
2006년	자영업 컨설팅사업 추진
2015년	소상공인 역량 Jump-Up프로그램 추진
2016년	소상공인 컨설턴트 등급제 시행

소상공인은 인력·고객관리, 마케팅, 신상품 및 메뉴개발, 사업정리 및 상사(商事) 분쟁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IV-3-1-5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예산	57	60	70	90	112.8
소상공인컨설팅	9,154	4,693	4,562	5,171	4,580
산학협력컨설팅	-	100	250	-	-
무료법률지원	335	497	436	445	494
역량Jump-up		14	298	499	464
총 지원건수	9,489	5,304	5,546	6,115	5,538

2018년에는 컨설팅 수요를 고려하여 상·하반기 구분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으며, 평가강화를 통해 컨설턴트를 정예화하였다.(2017년에 868명에서 2018년에 584명으로 컨설턴트 정예화)

아울러, 조선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등에 목적예비비로 긴급 추가 지원하였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창업(예정)자에게 상권분석 지원과, 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사업 홍보도 실시하였다.

우수 사례

- 시장길가든 - 충북 충주
컨설팅을 통해 보양식 식당에서 치킨피자전문점으로 업종전환하고 IT를 활용한 배달서비스를 도입하여 월매출액 700만원 증가
(컨설팅전 월매출 400만원 → 컨설팅후 1,100만원)



2019년에는 컨설팅 매뉴얼 제작과 컨설턴트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은행과 연계한 컨설팅도 도입하여 컨설팅 품질향상과 다양한 수혜자를 확보할 예정이다.

표 IV-3-1-6 | 연도별 지원성과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증가업체비율	65.2	63.3	65.1	66.7	66.9
매출증가율	7.1	7.3	7.4	5.8	10.6
만족도율	86.2	86.4	86.5	84.5	88.5
컨설팅 개선율	94.3	94.7	89.7	89.7	93.1

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조직화 및 협업을 유도한 후 공동의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인프라 구축과 영업활성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조합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협업체” 설립·운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6년차 지원 중에 있는 사업이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의 직접지원방식과는 차별화 된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속적인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지원정책이다.

지난 5년 간(2013년~2018년) 1,7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총 2,757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인프라 구축과 판로지원, 조합 간 네트워크 등 공동판로 확대를 지원하였다.

표 IV-3-1-7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개, %)

구분	예산	실적(2,757개)		성과
		협업인프라	판로	지원조합 조합원 평균매출액
2013년	347	433	-	11.0% 증가
2014년	246	364	17	12.6% 증가
2015년	240	397	116	12.9% 증가
2016년	187	315	117	12.8% 증가
2017년	193	283	124	12.5% 증가
2018년	249	291	300	성과 측정 중('19.12월 결과 도출)
계	1,462	2,083	674	-

동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단계)협업목표 및 추진 내용이 명확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합을 선정, 공동사업에 필요한 협업인프라 구축비(최고 5억 원)를 차등 지원하고, (2단계) 판로전문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코트라 등)을 통해 다양한 공동판로 확대를 추진하며, (3단계)권역별(6곳) 협업아카데미 지정을 통한 소상공인 간 협업문화 및 협업체 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협업인프라 구축비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홍보), 공동장비구매,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 등)로 구성되며, 지원유형별 사업비를 5억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정부 80% 보조)

상반기에는 사업설명회(13회), 방송송출(6회), 지면홍보(10회), 홍보물(35,400개) 및 우수사례집 발간(4,000부) 등을 통한 정책성과 공유 및 정책홍보를 시작으로 협업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조합의 역량에 따라 일반형·선도형·체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심의 등 2단계 선발과정을 통해 정책취지(협업내용 등) 및 성공가능성(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협업인식제고 교육(30회, 838명 수료)을 연계 지원하여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표 IV-3-1-8 |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인프라 구축 지원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신청	517	72	43	61	77	58	7	67	26	35	44	27
선정	311	27	23	41	56	37	6	30	19	22	27	23
지원	291	26	20	40	50	37	6	30	12	20	27	23

하반기에는 기존 지원조합들의 신규 판로채널 개척을 위해 소셜커머스, SB광고 등 온라인(83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판매전, 박람회 등 오프라인(212개) 판로지원을 추진하였고, 해외수출 희망 조합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9개)을 지원하였다.

또한, 협업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2,177명) 운영 및 협업체별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전문컨설팅(280개), 협업체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네트워크(33회), 신규 협업체 설립을 위한 인큐베이팅(11개)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매출액 증가율,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91개의 일반형(272개), 선도형(10개), 체인형(9개) 협동조합을 발굴하였고,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협업체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최신 소비트렌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19년에는 협업아카데미 확대를 통해 기존 양적 확대 위주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자립적인 조합 운영을 유도하는 등 질적 성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고 규모화 된 협업체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 대한한약협동조합 우수사례 〉

- (설립개요) 2014년 / 15명 최초 설립 / 대표자 : 이진경
- (일반현황) 저품질 수입산 한약재 유입에 대응코자 한약재 유통업계 소상공인 15인이 모여 국내 우수한 한약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유통하기 위해 설립
- * 매출액 및 고용인원 : ('14) 3.4억, 4명→('18) 50억, 8명
- (성공요인) 한약재 직접가공 및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안정화 실현, 조합원간 철저한 분업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 정부지원(장비,마케팅)을 통해 전국 2천여 개 한의원 등에 한약재 공급 및 시장 신뢰도 향상



4) 나들가게 성과확산

‘나들가게 사업’은 대기업 편의점 및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설현대화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점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560개 골목슈퍼의 나들가게 전환을 지원하였다.

사업 초창기 시설현대화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나들가게 사후관리와 성과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점포경영지원’과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개²⁷⁾ 선도지역(26개 기초자치단체)을 선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숍 육성, 점포경영개선, 점주역량강화교육, 지역특화사업, 조직화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나들가게 선도지역 수혜 나들가게의 매출액증가율은 3.5%로, 전체 나들가게(△2.9%)에 비해 6.4%p 높게 나타나,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이 온라인시장의 확대 등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나들가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신규 선정 없이 총 13개 선도지역(14개 지자체)을 운영할 계획이며, 기 나들가게의 사후관리에 집중하고자 POS활용교육은 1,000개에서 1,200개로, 부실징후점포 점포맞춤형 컨설팅은 200개에서 400개로 확대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표 IV-3-1-9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개점지원	2,302	3,005	4,704	-	517	232	363	254	183	11,560
경영지원	-	-	-	1,611	1,807	1,816	734	956	1,200	8,124
선도지역	-	-	-	-	-	309	738	884	915	2,846
지원예산	110	215.4	334.2	34.4	56.5	68.6	62.0	82.5	66.4	1,030

표 IV-3-1-10 | 연도별 지역별 나들가게 전환 지원실적

(단위 : 개, %)

구분	'10년	'11년	'12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개)	비율 (%)
서울	341	408	656	64	16	49	35	17	1,586	13.7
부산	135	136	242	24	4	3	4	4	552	4.8
대구	139	216	281	10	10	9	8	3	676	5.8
인천	150	163	278	15	6	14	6	4	636	5.5
광주	92	156	229	31	2	3	5	12	530	4.6
대전	70	76	146	15	9	4	4	2	326	2.8
울산	93	79	106	9	10	7	0	2	306	2.6
세종	2	2	4	-	-	-	1	0	9	0.1

- 27) (2015년) 서울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충북 제천시, 제주시, 경북 포항시, 강원 영월군
 (2016년) 서울 금천구, 경기도 안양시, 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강원 춘천시
 (2017년) 서울 동작구, 경기도 시흥시, 광주시 남구,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전북 김제시·정읍시,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창원시, 강원 원주시
 (2018년) 경기도 수원시, 전남 목포시, 광주시 서구

구분	'10년	'11년	'12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개)	비율 (%)
경 기	370	563	829	66	47	94	69	52	2,090	18.1
강 원	55	147	274	19	12	29	31	11	578	5.0
충 북	126	157	233	72	15	20	11	12	646	5.6
충 남	113	148	171	25	7	7	3	6	480	4.2
전 북	187	199	329	20	10	30	8	7	790	6.8
전 남	122	170	207	32	15	19	13	13	591	5.1
경 북	167	193	312	46	31	49	24	12	834	7.2
경 남	106	137	295	28	24	15	28	25	658	5.7
제 주	34	55	112	41	14	11	4	1	272	2.4
전 국	2,302	3,005	4,704	517	232	363	254	183	11,560	100.0

5) 중소기업 공동구매

정부는 기 지원된 1만개 나들가게 등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매점포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단체 중심의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복잡한 유통단계의 축소와 조직화된 단체의 구매력을 통합함으로써, Buying-power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물류센터 운영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단체 중심의 공동구매 추진을 위해 배송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2018년 10개 물류센터에 배송장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 월평균 배송점포수 5.7%, 배송매출액 6.2%가 증가하였다. 또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공동구매 및 도매물류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건립된 물류센터 외 기 건립된 물류센터에도 물류센터 전용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체인본부 구축 및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월평균 조합매출 5.4%, 협업점포 매출 0.7%p가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조직화·체인화를 통한 동네슈퍼 자생력 제고 및 체인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상품 공급 능력이 있는 슈퍼조합을 중심으로 체인본부 기능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기반조성·체인구축으로 이원화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표 IV-3-1-11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통합 정보시스템 보급 실적 및 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물류센터수	2	1	7	5	4	3	3

나들가게와 물류센터 간 POS기반의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은 2013년 100여개 점포에서 2018년 12월 기준 519개 점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지속적인 POS 활용교육을 통한 사용률의 증가로 2018년도 213.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또한, 나들가게의 안정적인 상품공급처 확보 및 매입가 절감을 위해 물류센터 외에도 11개²⁸⁾의 민간 상품공급사를 운영 중으로, 2018년 433억 원 규모의 상품을 나들가게에 공급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상품공급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기존공급사 7개 업체 외에 신규 공급사(4개)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그 중 2개사는 가정간편식 분야로 상품 구색 다양성 확보 및 신규 고객 유입에 따른 점포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6)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음식업, 숙박업 등 일부 생계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과당경쟁 및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자원제약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성공창업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거나, 가맹점만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역량, 가맹점 지원역량, 가맹계약 공정성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가맹본부 특성, 계약특성, 가맹점지원, 관계, 시스템성과 등 5개 범주를 평가한다.

28) 나들가게 민간 상품공급사 : (주)나들리테일, (주)나들커뮤니케이션, aT사이버거래소, (주)더이음, 수협중앙회, 코레일유통(주), (주)아신, 대경인터내셔널,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 (주)엔에스아리아, (주)우린

이는 가맹점 보호 중심의 평가체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생 발전을 지향하는 평가 제도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가맹본부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맞춤형 연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준평가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13개 업체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였다. 2018년에는 28개 브랜드에 대한 수준평가와 920명에 대한 연계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

'17년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가맹본부-가맹점의 상생발전 기반마련을 위해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IT환경구축 분야를 지원하였고, '18년 10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다)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 중소프랜차이즈 성장지원, 수준평가 연계지원 등을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으로 일원화하고, 2018년에 10개 업체의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IT환경구축 등을 지원하였다.

다. 소상공인재기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과밀업종인 생계형 업종에서 특화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안정적 폐업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혹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전직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 신규 추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바탕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재기교육 등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단계에서 폐업이후 단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으로 폐업단계에서는 폐업 절차, 절세 및 신고사항, 철거 및 원상복구 등 ‘사업정리컨설팅’과 취업성공사례, 직업 정보 탐색 등 취업기본역량을 제고를 위해 ‘재기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이후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를 발급하여 전직까지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수료 후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최대 75만원(소득세별도)까지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집기설비 매각 등의 사업정리 컨설팅 연계 지원 150개사를 시범운영하였고, 2018년에는 사업정리컨설팅 4,132명(연계지원 636건 포함), 재기교육 4,026 등 총 8,158건을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점포철거컨설팅(사업정리컨설팅 연계지원) 및 전직장려수당 등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재기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표 IV-3-1-12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명)

사업실적 \ 사업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예산*	38	89	85	95*
수혜자수	3,701	9,047	7,478	8,158
전직장려수당 지급	1,254	5,192	4,674	4,040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1,975	4,446	4,304	2,807

* 목적예비비 10억원 포함

2) 재창업패키지

재창업패키지는 과밀경쟁업종인 생계형 업종에서 탈피하여 비과밀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재도전 여건을 마련하고자 2015년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폐업(또는 예정)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업종에 대한 이론 및 업종 전문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e-러닝교육(10시간)과 업종전문교육(50시간) 등의 재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수료 후 희망자에 한해 멘토링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업전환 및 재창업 희망자 총 3,517명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폐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 IV-3-1-13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사업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실적	지원예산	1,050	5,220	5,000	4,000
수혜자 수(명)	재창업교육	589	3,002	2,608	2,984
	멘토링	30	1,250	850	533
	총합	619	4,252	3,558	3,517

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7년 국정과제(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에 반영되어 2018년에 신규 도입된 사업이다.

2018년 상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자에게 납부보험료의 30%를 지원하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기준보수 1등급에서 1~2등급으로 지원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 지원하였다.

2018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1인 소상공인 총 2,491명을 지원하였으며,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폐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향후에도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라.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업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집적지 활성화 및 소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하는 한편, 개별 소공인 들에게는 관련 전시·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기술경쟁력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제품 및 기술개발 및 협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소공인특화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집적지²⁹⁾ 소공인에게 특화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 (소공인 단체, 지자체 산하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집적지 소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6개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 8개 센터, 2015년 24개 센터, 2016년 36개 센터, 2017년에는 32개로 확대 운영하였다. 소공인특화센터 운영을 통해 소공인 상담 및 특화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맞춤형 특화사업, 정책서비스 추천 등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표 IV-3-1-14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명)

사업실적 \ 사업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센터수	8	24	36	32
지원예산	2,800	10,400	14,250	12,440
수혜자수	2,233	3,416	4,527	5,614

2018년에는 센터별 중장기 발전방향에 맞춰 집적지 특성을 반영한 공동사업 운영·신규 판로를 개척하고, 혁신형 소공인 발굴 및 효율적 사업운영 개선 등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사업 내실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29)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특정한 공간에 모여 있는 지역을 의미

그림 28 | 소공인특화센터 우수사례(문래동 소공인특화센터)



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서,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장비실, 전시·판매장 등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 전국 소공인특화센터 관할지역 중 10개 집적지에 공동장비실, 공동전시장, 공동창고, 교육실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광역시·도로부터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 인프라 구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까지 5개 광역 시도 총 11곳의 집적지구가 지정 되어 소공인의 공동브랜드 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동전시장을 구축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바이어 상담, 수출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공인의 제조공정 단축, 공동구매한 재료를 사용한 비용절감, 정밀장비를 활용한 제품 부가가치 제고 등 소공인의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신규로 지정된 집적지구 5곳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표 IV-3-1-15 | 2015년~2017년 구축 공동인프라 현황(10개소)

시설명	인프라 구축현황
서울 창신동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장비실·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재단실, 장비실, 전시장, 교육실, 사무실 • (장비) 봉제장비, 연단기, CAD/CAM, 사무집기 등
서울 석관동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전시장, 상담·회의실, 사무실 • (장비) 전시장비, CAD/CAM, 빔프로젝터 등
대전 정동 인쇄 소공인 공동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동창고, 교육실, 사무실
부산 범천동 귀금속 소공인 공동장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상담·회의실 • (장비) 파괴분석기, 용접기, 3D프린터, 3D캐드 등
부산 범천동 수제화 소공인 제품홍보관·장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전시장, 상담·회의실 • (장비) 전시장비, 촬영장비, 3D프린터, 사무집기 등
서울 봉익 주얼리 소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상담·회의실 • (장비) 용접기·가공기, RP 출력기
화성 향남 기타기계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교육실 • (장비) 음향영상장비, 교육용 기구
부천 신흥 전기장비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EMI·ESD 시험장비, 쉘드룸 등
대구 성내 주얼리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3D프린터, 레이저가공기 등
전주 팔복 금속가공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머시닝센터, 3차원측정기 등

표 IV-3-1-16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11곳)

집적지구명	분야	선정기관
서울 문래 기계금속집적지구	기계금속	서울특별시
서울 종로 주얼리집적지구	주얼리	
서울 성수 수제화집적지구	수제화	
청주 인쇄출판집적지구	인쇄·출판	충청북도
경기 시흥 대야·신천 기계금속집적지구	기계금속	경기도
경기 양주 남면 섬유제품집적지구		
경기 용인 영덕 전자부품집적지구		
부산 범일 의류집적지구집적지구	의류	부산광역시
강원 강릉 주문진 식료품집적지구	식료품	강원도
강원 강릉 산천 식료품집적지구		
강원 강릉 인재 북면 식료품집적지구		

3)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수익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몰 입점, 전시·박람회 참가, 동영상·카탈로그제작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5년 처음 실시하여 전국의 유망 소규모 제조업체 889개사(2015년 209개사, 2016년 201개사, 2017년 479개사)를 선정·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지원 전과 대비하여 월평균 매출액이 10% 이상(2015년 10.4%, 2016년 15.8%, 2017년 15.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자사제품을 직접제조하기 보다는 OEM·ODM 생산하거나 아웃 소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신제품을 개발 하여도 판로가 없어 사장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동 사업으로 자사제품의 판로확대를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에는 지원한도를 20백만원 → 30백만원으로 증액, 업력·생산유형·재참여 등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소공인에게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교육, 해외배송비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초보 소공인의 해외진출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4)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사업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보유기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공인의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보유 기술제품의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공인의 기술개발 지원의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지원유형을 4개 분야로 다양화하고 우수 소공인을 우대하였으며, ① (대중명품프로그램) 소공인에게 무형문화재, 예술인, 디자이너 등과 연계한 융합형 R&D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전수자(23명)와 예술 분야 및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32개사)로 풀을 구축하여 25개사 소공인에 대중명품화를 지원 ② (기술개발 협업 지원)을 통해 소공인간 수익모델 창출(공동·생산활용)이

가능한 협업과제를 지원하여 28개 소공인으로 구성된 10개의 협업과제 개발을 추진
 ③ (기술성장프로그램) 기술개발, 생산공정 개선 등 소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30개사 소공인의 과제발굴 및 개발 추진 ④ (생산정보체계구축)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에 자동화·정보화 시스템 활용 공정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20개사를 지원하여 재고관리·공정연계시스템 구축 지원하여 그 결과, 2017년 85개
 소공인을 선정·지원하여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15.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에는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작업현장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혁신 전략을
 통해 기술성장형 R&D 지원을 통한 혁신 소공인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공동마케팅, 온누리
 상품권, 상인교육, 특성화시장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정적 영업
 기반을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1) 시장마케팅

가) 공동마케팅

공동마케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맞춤형 세일·경품행사, 각종 이벤트, 홍보
 사업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연초에 당해 지원 시장을 모집하며, 선정된 시장은 한복 패션쇼, 버블 페스티벌,
 어린이 경제교실, 장보기행사 등 지역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마케팅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요령 교육, 현장밀착 지도를 실시함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의 분석이 담긴 자료, 마케팅기법,
 성공노하우를 전파하고 우수사례를 매년 20건 이상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IV-3-1-17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공동마케팅)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년도 사업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개수	222	222	391	219	225	248	234	240
지원예산	3,149	3,367	4,806	2,282	2,473	2,749	2,431	2,571

2017년부터 전 국민의 전통시장 이용분위기 조성을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KSF) 및 여행주간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축제’를 통합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참여점포의 75%이상이 매출 및 고객이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2019년에도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 전통시장은 고객에게 실속·알뜰한 쇼핑환경 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여 새로운 놀이·문화공간으로서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 전통시장홍보

①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14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전통시장 행사이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판매하여 전통시장 인지도 제고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한다.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15회)는 10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3일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120개 전통시장 및 유관기관이 참가하였다. 3일간 개최된 박람회에서 관람객 14만 명, 매출액 13.5억 원, 88점의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이 수여되었다.

금년 2019 전국우수시장박람회(16회)는 10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3일간, 울산 동천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② 지역상품전시회

지역상품전시회는 지역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을 발굴·소개하여 상품 홍보 및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우수상품 교차전시를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경북, 대구, 대전, 인천, 부산 총 5개 지역에서 지역상품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관람객 35만 여명, 매출액 12억 원이 발생하였다.

③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방송 사업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전문채널 'YesTV'를 통해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과 연계한 여행정보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정부 지원정책 및 관련 이슈, 지역 축제를 비롯한 전통시장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yestv 뉴스 및 전통시장 주변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정보에 역사와 문화가 결합된 여행 버라이어티 '여행, 장만할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018년도에 yestv 뉴스는 매주 월~금요일 12:00, 토요일 16:30분에 방영되었으며, 여행, 장만할까는 매주 금요일 12:00에 방영되었다. yestv 뉴스 240편, 여행, 장만할까 40편 제작·송출되었다.

④ 6시 내고향

6시내고향 사업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주 고객층이 주로 시청하는 '6시내고향'에 전국 각 지역 전통시장의 매력 및 특화 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연중 매주 금요일 18:00~18:55분 동안 방영되었으며, 2018 평창올림픽 시리즈 등 정규방송 43편, 봄특집, 추석특집, 박람회 특집, 김장 특집 등 특집방송 4편, 시시콜콜 소식통 5분물 5편 총 52편이 제작·송출되었다.

2019년에는 연중 매주 목요일 18:00~18:55분 동안 방영될 예정이며, 정규방송 44편(30분물) 및 특집방송 2편(55분물) 총46편이 제작·송출될 예정이다.

표 IV-3-1-18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회, 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작 및 송출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2회 (정규 43편, 특집 4편 등)

⑤ 지역민방

지역민방 사업은 지역민간방송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의 편리성, 지역명물, 시장 맛집과 같은 정보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밀착형으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KNN, OBS, KBC, TJB, UBC, G1, CJB, JTV, 8개 민영 방송사를 활용하여 총 217편(정규 198편, 기획 19편)을 제작하여 송출하였고, 2019년에는 경쟁을 통해 8개 내외 지역민영방송사가 총 200회(정규 186회, 기획 14회) 이상 송출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⑥ 시장종합정보지

시장종합정보지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우수사례 전파, 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시장(市場)’이라는 전문 월간 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이다. 주 수신처는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공서,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 2천여 곳이며, 전용 홈페이지 및 ‘전통시장 통통’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10회(정기 5회, 특집 5회) 총 40만부가 발행되었으며, 2019년에도 연 4회(정기 3회, 특집 1회), 80면 내외, 회당 2만부를 발행할 계획이다.

표 IV-3-1-19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회, 만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행횟수 및 부수	24회, 총144만부 (격주, 회당6만부)	20회 총120만부 (격주, 회당6만부)	20회 총120만부 (월 1회, 6만부)	10회 총40만부 (월 1회, 4만부)	10회 총40만부 (월 1회, 4만부)	10회 총40만부 (월 1회, 4만부)	10회 총40만부 (월 1회, 4만부)	10회 총40만부 (총 10회, 회당 4만부)

⑦ 명절TV광고

명절TV광고 사업은 전통시장 이용이 집중되는 명절(설·추석) 준비기간에 전통시장 이용촉진 공익광고를 제작 및 송출하여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도모 및 고객 집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2월 1일 ~ 2월 28일(설 명절기간 포함 1개월간), 케이블TV 440회 등을 송출하였으며, IPTV 662,500회, 열차 내 영상(KTX 및 SRT) 581,280회, 옥외광고 5,600회 등 총 1,298,820회를 노출하였다. 2019년에는 다양한 송출·노출 매체를 선정하여 폭넓은 연령대의 고객에게 전통시장을 홍보함으로써 전통시장 실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⑧ 전통시장 홍보모델 발굴사업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중장년층의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청년 등 다양한 신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각 세대를 대표하는 모델을 선발 및 활용하여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홍보모델 선발 과정을 언론 및 인터넷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대국민 흥미유발 및 전통시장 관심도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도 대국민 전통시장 인식 제고를 위해 선발된 전통시장 홍보모델을 대상으로 포스터, 리플렛 등 이미지 촬영 및 전통시장 홍보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

* (2018년) 아동 4명, 주니어 3명, 20대 3명, 젊은 부모 4명, 중년 3명, 실버 3명 총 20명 선발

⑨ 1시장1특색 전통시장 홍보

전통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시장별 특색있는 스토리를 일간지 및 TV방송 등에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전통시장 활성화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홍보사업으로, 주요언론에 고정적으로 전통시장을 홍보하여 전통시장 인지도 및 이미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 2019년에도 대국민 전통시장 활성화 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일간지 및 방송을 통한 기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14년) 기획홍보 20건, TV방송 10건, (2015년) 기획홍보 20건, TV방송 10건, (2016년) 기획홍보 20건, TV방송 10건, (2017년) 기획홍보 20건, TV방송 10건, (2018년) 기획홍보 20건, TV방송 10건

표 IV-3-1-20 | 연도별 지원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진실적	언론기획 20회, 방송 10회				

2)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공동상품권을 발행 및 유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2009년 7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공동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였다. 2009년 200억 발행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조 5,016억을 발행해 1조 4,916억을 판매했으며(발행누적 6조 4,197억, 판매누적 6조 610억) 1,415개 시장과 187천개 점포가 가맹하였고, 전통시장 판로확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상품권을 발행(5·10만원 기명식, 충전식)하여 온라인 전통시장관(우체국 전통시장 등 8곳)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비자 및 상인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13개→14개) 하였다. 특히,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구입확대로 전통시장 공동상품권은 서민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2017년부터는 권종 다양화를 위해 지류 3만원권을 추가하여,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상품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공급하고 있다.

표 IV-3-1-21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 행 액	200	900	2,400	4,000	5,000	6,360	7,381	10,030	12,850	15,016
판 매 액	105	753	2,224	4,258	3,258	4,801	8,607	10,946	10,743	14,916
가맹시장	739	912	1,023	1,202	1,249	1,284	1,312	1,326	1,330	1,415
지원예산	13	32	64	149	321	360	731	795	791	1,080

3)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

가) 상인교육

경쟁력 있는 선진상인을 육성하는 상인대학, 전통시장 선진화를 선도할 상인지도

자를 육성하는 상인대학원, 시장 및 점포의 의식혁신을 촉진하는 맞춤형교육, 해외 우수시장 및 점포를 찾아가 시장 및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법을 체득하는 선진시장탐방, 정부지원정책 설명회, 상인대학 졸업생 및 상인대표 등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워크숍, 전통시장에서 창업 또는 가업승계를 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전통시장 창업·가업승계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도입해온 가업승계아카데미의 교육을 특화하여 전통시장 내 창업과 가업승계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표 IV-3-1-22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교육과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교육인원	39,178	38,698	32,673	37,394	30,157	28,569	
지원예산	3,579	3,428	3,265	3,285	3,285	3,307	
상인대학원	94	127	231	235	266	274	
상인대학	12,085	9,469	7,671	8,348	7,101	4,192	
맞춤형	특강 단기	20,976	17,787	16,311	15,983	18,746	20,940
ICT교육(정보화)	3,638	8,374	5,826	3,134	3,999	-	
선진시장탐방	250	226	95	94	96	97	
워크숍	2,135	2,580	2,389	9,378	3,735	2,934	
청년상인아카데미 (가업승계아카데미)	41	135	150	222	213	132	
시장지원교육	-	-	-	-	-	-	

나) 상인조직역량강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조직 육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시장 상인회에 행정·유통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인 '시장매니저' 인건비 및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상인회의 업무 수행능력 배양, 상인회 가입률 증대, 공동사업추진 역량을 강화시켜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2018년도에는 매니저 공개채용을 통해 역량 있는 매니저 지원 및 우수매니저에 대한 해외 우수시장 벤치마킹 제공을 통해 매니저 사기 진작 및 전통시장 활성화 계기에 일조하였다.

표 IV-3-1-23 | 상인조직역량강화 지원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장수(개)	69	127	144	143	144	242	243
시장매니저(명)	69	129	145	145	146	242	244

다) 성과평가 및 실태조사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상인 조직, 매출액 등 일반 및 경영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2017년 전통시장 수는 1,450개로 전년 대비 9개가 증가하였고,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은 5,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승인 제30902호)

표 IV-3-1-24 | 전통시장 실태조사 연도별 일반 현황

(단위 : 개, 명, 만원)

구 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통시장수	1,283	1,347	1,372	1,398	1,439	1,441	1,450
점포수	186,192	194,750	203,036	203,643	207,083	209,193	209,884
총 상인수	328,570	333,485	334,370	353,070	356,176	368,930	363,660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5,138	4,755	4,648	4,672	4,812	4,988	5,125

* 2011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미 실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척도인 매출액 증감 여부를 정부 지원을 받은 실시시장과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미 실시 시장으로 구분해 공표함으로써, 정부지원 사업의 정책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2017년 실시시장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8,675원이 증가하여 966원 감소에 그친 미 실시 시장에 비해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25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

(단위: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	증감률
실시시장	521,046	589,721	68,675	13.2
미실시시장	235,133	234,167	-966	-0.4

라)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 밀집 및 시설이 노후한 상가건물 등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에 대해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소방·전기·가스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전국 전체 전통시장의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관련 주기적·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상인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는 상인회 및 관할지자체와 공유하여 자율개선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개·보수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및 캠페인 개최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홍보를 통해 상인들의 안전의식 수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도부터는 시장별 안전등급제를 도입하여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른 안전등급(A~E)을 부여하여 개별시장의 취약정도 등 현황 파악 용이 및 D~E등급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및 협력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2018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3년 단위의 지속적·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거하여 분야별 점검기관의 법정점검과 통합 운영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안전점검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과도 협력을 강화하였다.

표 IV-3-1-26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예산	445	1,220	2,972	2,972	2,972	2,272
대상시장수	200	501	773	747	357	382

* 2013~2015년 1차 전체시장 전수점검 완료, 2016~2018년 2차 전체시장 전수점검 완료

참고 | 분야별 안전등급 현황

○ 소방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시장수(개)	9	97	160	70	40
비 율(%)	2.3	25.3	41.8	18.3	10.4

◆ 안전등급 기준

- 배점 = 진단 전문가 평가 점수(60%) + 설비별 점검결과 점수(40%)
- 등급별 점수

등급	총점	내용
A	90 이상	설비가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관리상태 우수
B	80이상-90미만	설비가 일부 미흡하지만 전반적인 설비의 신뢰도는 양호한 시장
C	70이상-80미만	설비가 일부 미흡하나 개선을 통하여 신뢰도 회복이 용이한 시장
D	60이상-70미만	설비가 기준에 미달,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일정 수준의 개선이 요구
E	60 미만	설비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선 요구

* 376개 시장 점검, 6개시장 점검 거부 등 점검 불가 시장

○ 전기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시장수(개)	30	222	99	12	-
비 율(%)	7.8	58.1	25.9	3.1	-
◆ 안전등급 기준배점 ○ 배점(설비안전도) = 전기적요소(70%) +환경적요소(30%) ○ 등급별 점수					
등급	총점	내용			
A	90 이상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			
B	80이상- 90미만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			
C	70이상- 80미만	시설물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危害)요소가 일정 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			
D	60이상- 70미만	중대한 부적합사항 발생으로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60 미만	중대한 부적합사항 3개 이상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와 사용제한이 필요한 상태			

* 363개 시장 점검, 19개 시장 점검 거부 등 점검 불가 시장

○ 가스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시장수(개)	113	54	30	23	119
비 율(%)	29.5	14.1	7.8	6	31.1
◆ 안전등급 기준 ○ 배점 = 전통시장 내 가스사용 업소(점포)에 대한 부적합 업소와의 비(부적합율) ○ 등급별 점수					
등급	내용				
A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10% 이하로서 주요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				
B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10% 초과 ~ 20% 이하인 시설				
C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20% 초과 ~ 30% 이하인 시설				
D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30% 초과 ~ 40% 이하인 시설				
E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40% 초과하는 시설				

* 380개 시장 점검(41개 시장 미사용), 2개시장 점검 거부 등 점검 불가 시장

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내 조기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을 감지하고 소방관서·상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케 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등록, 인정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장 영업점포의 50%이상이 신청·동의 및 민간부담금이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전통시장 구조 및 특성에 따라 개별 및 공용부분에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개별점포형과 건물구조가 개방되어 있어 공용부분에만 설치를 지원하는 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한다. 총사업비는 개별점포 및 공용부분을 합계하여 1점포당 최대 8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국비 70%와 민간부담금 30%로 구성된다.

2017년 6개 시장에 시범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구축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IV-3-1-27 |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구분	설치내역	지원한도(국비 기준)
개별점포형	○개별점포 : 감지기(유·무선) ○공용부분 :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시장당 최대 '56만원 x 신청점포수 산출금액' 이내 (개별점포+공용부분=56만원)
오픈점포형	○공용부분 : 감지기(유·무선),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 국비 70%, 민간 30%

바)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7년 1월 상품판매를 개시하여 향후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등록, 인정시장 내 점포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벌금의 특약 상품을 추가해 건물, 시설, 재고자산, 타인의 신체 및 재물 까지 폭넓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상품 보장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가입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장기계약을 도입하였다. 소멸성 상품이며 가입한도는 6천만 원(건물 3천만, 동산 3천만)이다.

표 IV-3-1-28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구분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연 66,000원	연 132,000원	연 198,000원
		B급	연 101,500원	연 203,000원	연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 30만원			
	화재벌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보상 (형법 170조) 1.5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 10만원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는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4)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가)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교육, 점포 임차료 및 인테리어 지원,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14개 시장을 조성하였고, 2017년에는 12개 시장을 선정하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집적지구를 조성중이며, 2018년에는 9개 시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5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청년몰당 지원 금액은 점포 20개 기준 15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지원되었으나, 2018년부터 기존의 청년상인들만 입점하던 청년몰 지원에서 확장되어, 청년몰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문화

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원금액도 최대 30억 원(매칭 비율 동일)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3-1-29 |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예정)
지원시장 수	14	12	9	5

나)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기 지원한 청년몰의 시장안착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몰의 홍보, 마케팅, 교육 등 S/W중심의 청년몰 활성화지원과 시설개보수, 추가공간조성 등 확장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활성화지원 13곳과 확장지원사업 8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은 활성화지원 8곳과 확장지원 5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몰 활성화지원은 1년간 3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며, 청년몰 확장지원은 1년간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지원되고 있다.

표 IV-3-1-30 |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8년	2019년(예정)
활성화지원	13	8
확장지원	8	5

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 전통 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창업에 따른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20개 시장 218개 점포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1개 시장 178개 점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4개 시장 등 128개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중앙에서 모집하여 25개 점포를 입점 지원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40백만 원이었으며, 2018년에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다.

표 IV-3-1-31 |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시장 수	20	21	14	-
지원점포 수	218	178	128	25

라)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청년상인이 시장 내 핵점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기술컨설팅, 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48곳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07곳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27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3-1-32 |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예정)
지원점포 수	48	107	270

마) 청년몰 대학협력

청년몰(전통시장)-대학협력 사업은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노령화에 대비하고 전통시장의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시장 맞춤형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청년몰의 애로과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개편되어 기존 전통시장(2년차) 8개, 청년몰 8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의 대학협력사업이 대학의 청년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접목한 것이라면, 청년몰 대학협력은 대상이 청년몰로 한정된 것이 다른 점이다.

(3) 시장활성화컨설팅

시장활성화컨설팅은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 사업 신청 전 사업타당성 검토 및 개별 점포의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진열, 선진화된 경영기법 전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도 사업에서는 총 88명의 컨설턴트가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수행목표 대비 110.9%의 수행 실적을 달성(수행목표 1,100건, 실적 1,220건)했다. 특히 17년도 사업은 컨설턴트 관리체계 강화로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컨설턴트 수당인상 등의 처우개선으로 컨설팅 품질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표 IV-3-1-33 | 자문·지도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문위원(명)	182	194	104	64	363	216	237	88	88
지도위원(명)	51	58	111	89	89	44	62	40	-

* '18년부터 점포지도의 경우 상인교육으로 통합운영

표 IV-3-1-34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장자문(건)	235	286	352	129	278	296	330	363	391
점포지도(건)	650	662	606	977	483	478	619	407	-

* '18년부터 점포지도의 경우 상인교육으로 통합운영

(4) 상권활성화

최근 구도심 쇠퇴와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상권 위축 등의 문제가 개별 시장만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 6곳, 2014년 신규구역을 선정해 2016년까지 지원하였다. 이후 지역상권법이 발의되면서 새로운 법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상권활성화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다. 이후 기존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지원을 재개하며, 이전의 지원이 3년간, 30억 원(국비 50%, 지방비 등 50%)로서 사업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 5년간, 80억 원(국비 50%, 지방비 등 50%)으로 확대 했으며,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이 붙여졌다. 이에 따라 '18년에는 3개 구역을 선정하였고, '19년 약 10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상권환경

개선(거리정비, 주차장 설치 등), 상권활성화(상인교육, 이벤트 등)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와 소상공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IV-3-1-35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곳)

구 분	상권활성화구역		상권르네상스	
	('11년~'13년)	('14년~'16년)	('18년)	('19년)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수	6	6	3	10개 예정

* 상권활성화구역 : 서울 마포 도화용강 상점가 활성화구역, 경기 성남 수정로활성화구역, 강원 동해 활성화구역, 충북 청주육거리·성안길 상권, 부산 동구 조방앞 상점가, 경남 창원 오동동어시장 상권, 경기 성남 산성로 활성화구역, 경기 의정부 구도심 활성화구역, 충남 부여도심 활성화구역, 전남 순천 원도심 활성화구역, 울산 울주 언양시장 일원 활성화구역, 부산 해운대 활성화구역

* 상권르네상스 : 대구북구 칠성종합상권활성화구역, 경기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구역, 전남 강진 중앙로 상권활성화구역, 경남 진주 중앙상권활성화구역, 광주 서구 양동 상권활성화구역, 충남 천안 원도심 상권 활성화구역, 경기 구리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5) 특성화시장

(가)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는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 우수 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시장의 롤모델이자 지역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 협업사업의 기준이 되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특화요소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지역선도시장'으로 지원시장을 선정 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으로 개편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V-3-1-36 |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 선정시장

구 분	'16년 선정시장	'17년 선정시장	'18년 선정시장
지원시장 수	4곳	7곳	2곳

* '16년 선정시장 : (서울)수유마을시장연합 (인천)신기시장연합, (강원)정선아리랑시장, (경북)안동구시장연합

* '17년 선정시장 : (부산)정이있는구포시장, (광주)양동복개연합, (경기)의정부제일시장연합, (충북)충주 자유무학시장, (충남)공주산성시장, (전북)부안상설시장, (경북)구미새마을중앙시장연합

* '18년 선정시장 : (강원)속초종합중앙시장, (전남)순천아랫장

참고 | 지역선도시장 2017년 우수사례



(정선아리랑시장) 지역 레포트 마케팅 행사와 연계한 시장 문화이벤트 개최, 특화상품 발굴·판매 등으로 지역 커뮤니티로서 역할 및 집객효과 극대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의 자원(관광·문화·예술·특산물)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간조성, 관광 상품개발,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2017년에는 신규시장 35개, 계속시장 54개를 선정하여 시장브랜드 구축, 지역관광지와 연계, 스토리텔링 도입으로 시장 매출 증대 및 고객유인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계속시장 57개를 지원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인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를 도입하여 29개의 시장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3-1-37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신규 선정 수	4곳	6곳	8곳	6곳	15곳	32곳	23곳	33곳	22곳	35곳	31곳	215곳

표 IV-3-1-38 |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중점사항 변경내역

시행시기	내 용
2008년~2009년	시설현대화 사업과 혼합하여 하드웨어 위주
2010년~2012년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장터 공연단, 시장라디오 등 소프트웨어 사업위주
2013년~2017년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ICT 및 디자인 융합 등 휴먼웨어 중심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를 도입하여 특성화기반이 확립된 시장에 한해 특성화 집중 지원

참고 | 문화관광형시장 2017년 우수사례

<p>예술 접목</p>		<p>(광주 봉선시장) 동화거리 조성, 캐릭터와 색상을 활용한 점포별 VMD, 동화시장 미술제 등의 사업 진행을 통해 '동화시장'으로 특화</p>
<p>지역 커뮤 니티</p>		<p>(오산 오색시장) 수제맥주 공방 운영, 수제맥주 특화 야시장, 프리마켓 상설화 등의 고객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대표 커뮤니티 시장으로 육성</p>

(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은 특성화 기반조성사업과 첫걸음 컨설팅사업으로 나뉜다. 특성화 기반조성사업은 3대 서비스혁신과 2대 역량강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신규 도입되어 33개 시장을 선정·지원한다. 첫걸음 컨설팅사업은 특성화 기반이 미흡한 시장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의 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24개 시장을 지원한다.

(라) 글로벌명품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은 한국적 콘텐츠와 전통시장의 콘텐츠를 융합하여 세계인이 필수 관광코스로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 고유전통·한류체험, 안내·통역 서비스, 사후면세점 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10개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2015년 6곳, 2016년 4곳).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추진 중이며, 시장별 특화된 글로벌 콘텐츠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

표 IV-3-1-39 | 글로벌명품시장 지역별 선정시장

구 분	'15년 선정시장	'16년 선정시장
지원시장 수	6곳	4곳

* '15년 선정시장 : (서울)남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대구)서문시장, (청주)육거리시장·성안길상점가, (전주)남부시장, (제주)동문시장연합

* '16년 선정시장 : (서울)동대문시장연합, (부산)자갈치시장, (수원)남문시장연합, (안동)안동구시장연합

참고 | 글로벌명품시장 2017년 우수사례

관광 상품 개발		(수원남문시장) 시장 역사(왕이 만든 시장)활용, 관광 상품체험장 운영 및 수원화성 연계 투어코스 개발로 내외국인 선호 관광특화시장으로 변모
야시장 특화		(대구서문시장) 국내 최대 규모 야시장 개설 후 국내외 관광객 선호 다양한 먹거리 판매 및 공연진행으로 관광객 체류형 시장으로 자리매김

(6) 전통시장 ICT 기반조성

전통시장 ICT 기반조성 사업은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및 SSM 등과 차별화된 전통시장 고유의 장보기·배송 서비스를 도입하여 쇼핑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2013년~)를 지원하고 있다. 1인 가구의 확산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에서도 장보기·배송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인식 개선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3-1-40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시장 수	49	70	82	66	65	67

바.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체감 및 예상경기를 파악하여 정보소요자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용자 지원업체 사전진단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효과,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1)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별 맞춤형 정책 및 창업·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인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소상공인마당 메인페이지 이용 시 디지털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웹사이트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구현하고, 소상공인마당 앱 실행 시 로그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자동로그인 기능을 도입하여 콘텐츠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교육 정보, 전통시장 통통 등 분리 운영되던 웹사이트를 소상공인마당으로 통합하여 대민 사이트 일원화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내역을 인터넷·모바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하였다.

이처럼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일일콘텐츠를 강화하여 정보접근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마당 앱 '18년 총 46,448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 이상)는 최근 3년 평균('15년~'17년) 89.2% 대비 2.2%p를 상위하였다.

표 IV-3-1-41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자 만족도	74.7%	84.5%	90.1%	87.6%	90.0%	91.4%

2019년에는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혜택 계산기 기능 구현, 간편로그인 및 간편회원 가입 기능 구현, 반응형 웹 확대 등 서비스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홍보 및 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 증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가) 전국소상공인대회 개최

소상공인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의지를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07년부터 매년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해 왔다.

'2018 전국소상공인대회'는 2018년 11월 2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으며,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132점의 포상을 수여 하였다. 부대행사로 소상공인 판매관, 체험관, 업종별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행사 참가자들에게 우수한 소상공인업체를 홍보하고, 매출증대와 판로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제 3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소상공인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019년에는 11월 1일 경기도 일산시 킨텍스에서 소상공인 주간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추진 예정이다.

나)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소상공인의 우수기술을 발굴 및 전파하고,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업종별 기능경진대회’를 2013년 신규로 개최하였다.

2018년에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제과, 조리, 떡류, 메이크업, 국제미용, 분장예술, 맞춤형복, 귀금속가공, 플로리스트, 선물포장, 가스판매 등 총 11개 부문을 선정하여, 업종별로 특화된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6,878명의 소상공인이 결선에 참가하고, 약 125,459명의 일반시민이 참관했다. 메인행사로는 소상공인 기능경진이 이루어졌고, 부대행사로 업종별 기능전수부스, 작품 전시관, 시식·체험·판매관 등이 진행됐다.

2019년에는 11월 1일~2일 경기도 일산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와의 공동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추진 예정이다.

다) 협력기반 조성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창업·경영정보, 기관소식 등을 수록하여 소상공인 종합정보지 ‘소상공인場’을 정기간행물 형태로 제작·배포하여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연간 총 4회, 온·오프라인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은 공단 홈페이지 내 ‘홍보마당’ 공식게재, 공단 페이스북과 공단 뉴스레터에 링크형식으로 배포하고, 오프라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와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유관기관, 중소기업청, 외부독자를 통해 배포하였다.

2019년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노고에 대한 위로 및 격려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가)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는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체감 및 예상경기를 파악하여 정보수요자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현안문제 해결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14204호, 2001년)

표 IV-3-1-42 | 그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표본수 변화

(단위: 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상공인	2,010	3,200	3,200	2,000	2,200	2,200	2,400	2,400
전통시장	1,146	1,300	1,306	1,000	1,000	1,000	1,300	1,300

* 기존 각각 실시하던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전통시장 경기동향조사를 2014년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로 통합

* 2017년 소상공인 표본 수는 제조업 추가, 전통시장은 지역별 지수 공표를 위해 각각 증가

소상공인은 제조업,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주요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정보, 경기전반·매출·영업이익·자금사정·원재료조달사정의 체감경기 및 예상경기 등을 조사한다.

전통시장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소매업 및 근린생활 서비스업 등 주요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정보, 경기전반·매출·영업이익·자금사정·원재료조달사정·구매고객수의 체감경기 및 예상경기 등을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매월 18~22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이다.

표 IV-3-1-43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추이

구분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8.10	'18.11	'18.12
소상공인	체감	56.6	64.0	79.7	71.9	71.6	62.2	52.5	55.7	67.9	72.8	66.3	62.1
	예상	86.9	81.6	103.0	104.0	93.1	84.7	83.9	73.9	99.4	93.7	93.6	86.8
전통시장	체감	44.2	79.5	67.0	69.4	62.3	54.1	45.5	38.5	73.2	66.5	68.0	52.7
	예상	87.5	90.9	92.6	104.5	94.1	76.8	86.1	74.2	106.8	95.8	98.3	82.8

나) 소상공인시장 정책조사연구

소상공인시장 정책조사연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시장 종합대책 수립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분석’,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 연구’, ‘전통시장 빈점포 활용방안 연구’, ‘자율상권법과 상권상생 발전법의 통합타당성 검토 연구’, ‘소상공인·전통시장 통계기반 구축’ 등의 기초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3)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용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부터 자금의 정책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V-3-1-44 | 연도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업체	29,825	44,233	48,341	64,497	57,624	244,520
지원금액	10,305	14,939	17,550	22,450	20,575	85,819

201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업체 대상 조사결과³⁰⁾,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액 증가점포 비율은 82.5%, 고용증가율은 7.93%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신규 고용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성장기반자금

성장기반자금은 제조기반 기술의 경쟁력 강화,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2018년에는 13,871개 업체에 6,974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하였던 소공인 특화자금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규 운용하였고,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여 장수 소상공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을 지원하였다.

표 IV-3-1-45 | 2018년 성장기반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출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18년	6,974	14,163	9,814	13,871	6,974	100.0

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은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영애로 해소, 사회적경제 기업·생활혁신형창업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8년에는 43,638개 업체에 13,578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14,268개 업체에 4,067억 원을 지원하였고,

30) 2018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분석,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12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감소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긴급자금을 신설하여 4,406개 업체에 1,820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여 3,095개 업체에 1,042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 경영안정화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신설 및 협동조합 대상 시범운영을 통해 52개 업체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신설하여 1,915개 업체에 379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V-3-1-46 | 2018년 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출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18년	13,578	58,720	24,095	43,638	13,578	100.0

다) 소상공인특별자금

영세 소상공인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매출과 대출금 상환을 연동한 매출연동상환자금을 신설하여 115개 업체에 24억 원을 지원하였다.

단, 소상공인의 매출공개 부담, 대출금 자동상환으로 인한 사업비 융통 어려움 등으로 수요가 부족하여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19년에는 해당 자금을 폐지하였다.

표 IV-3-1-47 | 2018년 소상공인특별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출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18년	129	145	35	115	24	18.6*

2019년에는 사업성이 우수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자금지원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설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폐업 방지 및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취약계층 성장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지원대상을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일반현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2002년 1월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06년 동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기반 조성,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R&D사업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기능과 정보화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 보급 확산 및 부합화 지원,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수준평가,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중소기업분야 R&D 사업 평가관리 기능이 일원화됨에 따라 모든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따라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었다. 위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유망기술분야 발굴 및 확산, 수요자 중심의 평가관리체계 개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힘썼으며, 사업성 심층평가 확대 및 R&D 성공기업 사업화 지원·성과 확산,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사후조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R&D 지원 및 관리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총 7개 R&D 지원사업을 수행·지원하여 총 8,839개의 과제에 8,802억 원의 R&D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제도 운영,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경영혁신플랫폼 운영,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등

총 4개의 정보화 지원사업 수행·지원으로 828개 과제에 392백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기정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자생적인 성장,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1) R&D기획역량제고사업

동 사업은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제에 대해 기획 전문기관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분석·진단 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R&D기획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임직원 및 관련단체 대상으로 R&D 쏠단계에 대한 기획역량을 강화 하는 교육, 그리고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과의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R&D기획지원 사업은 수행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R&D자금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이에, 2018년도에 지원한 342개 과제 중 우수과제는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과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하여 서면평가 면제 또는 가점 등으로 우대한다.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2018년 8억 원의 예산으로 오프라인 4,938명, 온라인 2,533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오프라인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86.7점의 만족도를 보이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국·공립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및 R&D 역량 제고,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을 통하여 267개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에 52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V-4-1-1 | R&D기획지원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4,000	5,000	5,000	10,560	10,833	35,393
R&D기획지원 (지원금액)	154	204	178	179 (5,460)	342 (5,591)	1,057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금액)	-	-	-	300 (5,100)	267 (5,242)	500

2)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생산성 향상 및 공정혁신은 중소기업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민간 자율 영역이라는 인식으로 그간 정부지원이 소홀하였다. 특히 제품·공정개선 과제를 가지고 있으나 소요자금 부족 등 자체추진이 곤란한 중소기업에게 단기소액의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기존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에서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단기·소액의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으로 전면 개편·시행중이다. 자체 연구 인프라·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조공정 개선으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2018년에는 제품공정 총 3회(1,4,8월) 뿌리기업공정 총 2회(2,7월) 신청·접수를 시행하였으며, 개발기간 9~12개월 이내,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1억 원까지 지원하고, 소기업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개발 후 징수하는 기술료는 면제한다.

2018년 1,152개 과제에 44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도 444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4-1-2 |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30,003	31,160	37,714	36,035	44,383	179,295
지원기업수	611	594	680	838	1,152	3,875

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지원규모는 2,800억으로서 일반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디딤돌 창업과제(1,429억), 고기술·유망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혁신 창업과제(425억), 엔젤투자사 등의 투자·보육·멘토링을 조건으로 기술창업팀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806억 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40억)으로 세분화하였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 초기기업의 안착화와 성장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서 잠재역량을 지닌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도모 및 매출액 증대, 고용창출 등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V-4-1-3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141,361	162,360	188,811	197,627	279,983	970,142
지원기업수	1,102	1,230	1,332	1,364	2,257	7,285

4)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관계는 생산 중심적 상생문화의 형태로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편협한 인식 및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은 이미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본 사업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추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수요처 및 투자기업(정부·공공기관·대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물품 및 신기술·신제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의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 징수 등 주요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수요처의 분야 및 특성에 따라 구매조건부사업 국내수요처과제(공공·민간부문)와 구매조건부사업 해외수요처과제(해외부문),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R&D협력펀드 투자)으로 구분하여 구매조건부사업 국내 및 해외 수요처과제는 2년 이내, 5억 원 한도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은 2년 이내에 10억 원 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와 투자기업에서 구매를 전제로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국가 R&D사업의 사업화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과 기술전문기업 협력 R&D사업을 신설하여 2018년엔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 하여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에 147억 원을,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 촉진을 통해 R&D 사업화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전문기업 협력R&D사업에 107억 원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2018년 1,101개 과제에 1,70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1,947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4-1-4 |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최근5년)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133,621	138,620	141,950	156,121	170,235	740,547
지원기업수	707	704	699	1,040	1,101	4,251

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개발 소요자금의 최대 65%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본 사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키워 주는 핵심 기술개발사업으로 수출기업과 혁신형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①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②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과 VC 투자기업 대상으로 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간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1997년 300억 원에서 2018년 2,269억 원 수준으로, 기정원은 신청기업의 신청부터 협약까지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표 IV-4-1-5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실적(최근5년)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과제수	1,087	1,107	1,029	1,147	1,384	5,754
지원금액	2,470	2,620	2,260	2,394	2,269	12,013

6)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지원규모는 1,395억으로서 정부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첫걸음과제(372억),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하는 도약협력과제(296억),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마을과제(169억), 인적·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연전용과제(324억),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79억)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산학연 R&D지원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102억)을 2017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으로 편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대표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V-4-1-6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최근5년)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과제수	1,865	2,179	2,082	3,457	4,034	13,617
지원금액	145,822	152,003	138,236	130,814	139,478	706,353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과제(수혜기업) 포함

7)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은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과제로는 제조업이 생산하는 제조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지원하는 제품서비스화과제, 기술창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신규서비스창출과제, 시장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업종공통서비스과제로 구분되며 최대 1년에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지원규모는 80억으로 326개의 신청기업 중 45개사(경쟁률 7.2:1)에 8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117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4-1-7 |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	-	5,800	8,320	14,120
지원과제수(건)	-	-	34	45	79

표 IV-4-1-8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예 산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R&D 기획역량제고사업	55	55	55	55	106	108	434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415	300	312	377	360	444	2,208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314	1,414	1,624	1,888	1,976	2,800	11,016
	상용화기술개발사업	1,265	1,284	1,333	1,420	1,436	1,702	8,44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448	2,470	2,620	2,260	2,394	2,269	14,461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1,388	1,458	1,520	1,382	1,308	1,395	8,451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	-	-	-	58	83	141

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1)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적용, 기존 개별지원 체계에서 공동활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3년 경영혁신플랫폼을 구축, 2014년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은 업종·단체별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특화형 솔루션과 기본형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화형솔루션은 정보화가 취약한 중소기업(조합·단체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시장성이 부족하여 민간에서 개발 보급이 어려운 업무용 소프트웨어(56개)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기본형솔루션은 정보화 초기기업을 위한 금융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관리 등 8개의 업무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2018년부터는 데이터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4-1-9 |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6,906	6,000	3,970	4,000	4,000	4,000	28,876
지원업종수*	7	14	7	4	10	14	56*

* 기본솔루션 8개 제외

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산시점관리(POP), 제조실행계획(MES) 등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으로 개편되어 2,800개사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의 경우 656개 업체의 신청과제를 접수받아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를 거쳐 518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사업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률을 측정한 결과 시스템 구축 후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27.3% 이상 향상 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1-10 |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7,000	8,000	8,000	9,900	15,000	31,400	79,300
지원기업수	135	144	146	149	193	518	1,285

3)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사업을 통해 총 22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에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위협 탐지 및 공동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표 IV-4-1-11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1,930	1,940	1,490	1,440	1,300	1,750	9,850
지원기업수	27	27	43	44	34	46	221

4)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또는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4-1-12 |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	-	-	-	-	2,000	2,000
지원기업수	-	-	-	-	-	250	250

표 IV-4-1-13 | 연도별 정보화 지원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예 산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중소 기업 정보화 지원	경영혁신플랫폼기반사업	69	60	40	40	40	40	289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70	80	80	99	150	314	793
	기술유출방지사업	19.3	19.4	14.9	14.4	13	17.5	98.5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	-	-	-	-	20	20

다. 정보화정책 조사연구사업

중소기업 정보화정책 조사연구사업은 대내외 정보화 경영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차별화된 정보화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인 객관적·분석적 자료를 제공한다. 2018년에는 총 4,300개 기업(대기업 300개사, 중소기업 3,700개사, 지원기업 300개사)을 대상으로 1:1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은 전년대비 5.26%p 증가하였다.

표 IV-4-1-14 |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추이

(단위 : 점, 개사)

연 도	중 소 기 업		대 기 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정보화 수준	기업수	정보화 수준	기업수	
2013년	50.18	4,003	67.64	300	74.2
2014년	53.21	3,725	69.10	315	77.0
2015년	55.95	3,614	71.08	300	78.71
2016년	59.97	3,700	72.78	300	82.39
2017년	61.05	3,700	72.92	300	83.7
2018년	67.15	3,700	75.48	300	88.96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일반현황

신용보증재단중앙회(KOREG, 이하 신보중앙회)는 2000년 설립된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한 보증지원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특례보증 및 맞춤형 보증을 통해 104만 건, 20.5조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서민의 자금애로 극복 및 경영생활안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보중앙회는 전국 16개 지자체가 관할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설립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보증채무 상환 불능 시 발생하는 손실의 일정부분(30~80%)을 보전하는 재보증 기능을 수행하며 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위기, 2016년 조선업계 구조조정, 2017년 조류독감, 2018년 최저임금 상승 등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 악조건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중앙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보장 경영애로기업 및 위기지역 지원 특례보증 등 다양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6개 지역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2017년 전체 보증공급 규모 중 업체 수 기준 98.4%(489,287개 업체), 공급액 기준 92.6%(11조 1,774억 원)를 지원하였으며,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국내 경기회복세가 정체되는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보중앙회는 앞으로도 기관의 미션인 ‘소기업·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파트너로서 지역경제발전과 서민의 행복추구 기여’를 달성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 금융전문기관을 거듭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탄력적 보증지원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강화

2018년 재단은 국내경제 안정화를 위해 12조 743억 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소상공인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전체 보증공급의 92.6%인 11조 1,774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였다.

표 IV-5-1-1 |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8년			2017년		
	총보증	소상공인보증		총보증	소상공인보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업체수	497,305	489,287	98.4%	478,419	470,843	98.4%
금 액	120,745	111,774	92.6%	116,229	105,476	90.7%

업종별 보증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보증공급 업체수(30.4%)와 금액(30.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지원되었다.

표 IV-5-1-2 |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보증공급	업체 수	42,194 (8.5%)	99,395 (20.0%)	120,624 (24.3%)	151,278 (30.4%)	83,814 (16.9%)
	금액	18,998 (15.7%)	20,460 (16.9%)	26,632 (22.1%)	37,030 (30.7%)	17,622 (14.6%)
보증잔액	업체 수	78,733 (7.6%)	210,709 (20.3%)	253,182 (24.4%)	323,870 (31.3%)	169,164 (16.3%)
	금액	24,766 (12.1%)	36,702 (17.9%)	48,187 (23.6%)	66,270 (32.4%)	28,678 (14.0%)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보증금액별 보증공급 금액은 3천만원 이하 보증금액이 58.8%를 차지하는 통계 수치를 볼 때, 신용경색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재단의 보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1-3 |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계
2017년	금 액	68,127	24,130	10,595	13,377	116,229
	비 중	58.6%	20.8%	9.1%	11.5%	100%
2018년	금 액	70,955	26,287	12,142	11,358	12074451
	비 중	58.8%	21.8%	10.1%	9.4%	100%

2) 주요 특례보증 제도시행

가)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18.2월)

- * 대상기업 : 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②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③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내 소재 기업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공급규모 : 2조원
- * 지원한도 : 본건 최대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25,921건, 9,038억원 (2018년말 기준)

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서비스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확대 운용

- * 대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자활기업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지원한도 : 4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348건, 145억원 (2018년말 기준)

다) 창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등 지원 협약보증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의 금융지원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도모

- * 대상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기타 경영애로 소상공인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6,199건, 1,434억원 (2018년말 기준)

라) 장기분할상환 해지보증

창업초기기업(7년 이내)에 한해 보증부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운용하여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사업에 전념토록 지원

- * 대상기업 : 신용보증접수일 현재 업력 7년 이내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기준 6등급(1~6등급)인 개인기업
- * 시행시기 : 2017년 11월
- * 공급규모 : 1,650억원
-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2,056건 / 396억원 (2018년말 기준)

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1억 원 까지 신속한 보증지원으로 경영정상화 도모

- *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 시행시기 : 2005년 12월
- * 지원한도 : 7천만원(제조업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8,054건, 2,916억원 (2018년말 누계 기준)

바)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성장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장애인기업
- * 시행시기 : 2008년 7월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4,473건, 1,264억원 (2018년말 누계 기준)

사)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창업기업 육성 및 지속적 성장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기여

- * 대상기업 : 창업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우대창업지원 기업
- * 시행시기 : 2015년 10월
- * 공급규모 : 1천억원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제조업은 2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3,327건 / 1,078억원 (2018년말 누계 기준)

3) 정부정책과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한 보증지원

신보중앙회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특례보증 및 보증제도 개선으로 2018년 보증공급 목표(11조원) 대비 약 1조원 초과한 12조 743억 원을 달성하였다. 일자리창출기업, 최저임금 준수 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금리인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다양한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였다.

첫째,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저금리(일시상환대출의 경우 기준금리+1.3%, 분할상환의 경우 기준금리+1.67, 금융기관별 상이)로 지원하였다.

둘째,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시행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 신·기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취급기준 개정(재보증 비율 50%→60%)을 통해 보증지원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금리인상 및 최저임금 보장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의 금융지원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시행하였다. 지원한도는 최대 5천만 원 이내 운전자금으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2% 후반)를 적용하여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게 금리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나. 고객편의 제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중앙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1) 통합전자보증 확대

신보중앙회는 재단의 업무생산성 향상 및 서류 간소화를 통한 고객편의향상 등을 위한 통합전자보증시스템 도입을 지속 추진하여, 신탁,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와의 통합전자보증시스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증료 은행수납 및 카드수납, 금융기관조회서 확인 등을 구현, 고객편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2) 행정정보 이용 확대 추진

고객이 보증신청 시 재단에 제출하는 국세납세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과세정보를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재단 담당자가 직접 열람 및 출력 가능토록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단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3) 보증 리스크 축소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보증 도입 확대

신보중앙회는 재단의 효율적 보증 운용, 보증리스크 축소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체 사업자 보증(일반보증 기준) 중 55.4%를 부분보증으로 운용하였으며 향후 부분보증 비중을 더욱 확대하여 재단의 효율적인 보증운용 및 리스크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4) 지역재단의 제규정(규정, 기준, 요령 등) 표준화 추진

신보중앙회는 보증업무 및 채권관리 관련 제법령의 지속적 개선으로 급변하는 국내 경제, 금융(보증)환경 변화 대응위한 능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재단 현업에 필요한 기준보완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7개의 보증규정 8개의 관리규정을 표준화 하였다. 특히, 정부의 재기지원 활성화 정책에 맞춰 부실채권 정리(매각, 소각)관련 내용과 회생지원 보증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업무방법서 등 관련 표준화규정을 개정하였다.

5) 창업리스크 경감을 위한 연대보증면제 확대

법인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창업실패 부담 완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면제 업무처리방법'을 시행하였다. 이에, 업력 및 신규보증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기업의 신규·증액보증에 대하여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기업들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여 창업활성화 생태계 구성에 기여하였다.

다. 효율적인 재보증제도 운영

1) 재보증의 정책기능 강화

신보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수출기업·일자리 창출기업 등 정부의 중소기업 중점지원부문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였고, 재보증 비율을 상향(50%→60%)하여 지역재단의 적극적 보증공급 확대를 유도하였다.

2) 재보증 리스크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

중앙회 신보중앙회는 2억 원 이상 고액보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보증평가시스템의 평가등급 산정체계를 개선하였다. 보전금청구 시 지역재단에서 제출하던 추가적 필요서류(신용평가서류, 신용조회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였고, 심사 시 지역재단에 확인하던 필요정보(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정보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심사자가 직접 확인)하여 보전금지급절차를 개선하였다.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

신용보증재단은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공익법인이다. 주요 업무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기본재산의 관리, 구상권의 행사 등이며,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의 신용보증재단에서 138개 본·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표 IV-5-1-4 | 지역재단의 지점수 현황

강 원	경 기	경 남	경 북	광 주	대 구	대 전	부 산
5	20	12	10	5	6	3	7
서 울	울 산	인 천	전 남	전 북	제 주	충 남	충 북
18	3	6	10	4	2	7	4

1)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속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이며 적정한 대위변제를 위한 준비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표 IV-5-1-5 |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단위 : %, 억원)

구 분	출 연 현 황						이월 이익금 (B)	기본 재산 (A+B)	
	지자체		정 부		금융기관 등				계(A)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8년	20,890	44.6%	7,027	15.0%	18,874	40.3%	46,791	△11,404	35,387

2) 지역재단의 신용보증지원 현황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2018년 보증공급은 12조 743억 원, 보증잔액은 20조 4,60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밀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전문성 강화로 3.1%대의 비교적 낮은 보증사고율을 기록했다.

표 IV-5-1-6 |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

(단위 : 건, 억원, %, 배)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보증 공급	건 수	497,304	478,419	464,329	448,844	357,150
	금 액	120,743	116,229	111,849	106,386	85,057
보증 잔액	건 수	1,035,658	984,378	910,813	833,213	756,842
	금 액	204,606	191,673	179,713	162,423	144,501
보증 사고 순증	건 수	45,401	39,526	36,407	33,659	36,559
	금 액	6,424	5,634	5,149	4,630	4,762
	사고율	3.1	2.9	2.87	2.85	3.30
대위 변제 순증	건 수	32,947	29,116	25,189	25,116	34,516
	금 액	4,260	3,522	3,160	2,930	3,474
	변제율	2.08	1.84	1.76	1.8	2.4
운용배수		5.8	5.5	5.1	5.0	4.8
기본재산		35,387	34,977	34,970	32,224	30,376
재단 수		16	16	16	16	16

제6장

창업진흥원

1

일반현황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창업진흥전담조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기반 창업을 촉진시켜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8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국내외 진출지원, 창업자를 위한 자금·인력·판로지원 및 정보제공, 창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창업실태 통계조사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3본부 1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63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다. 2018년 예산은 4,829억 원으로 창업저변확대,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 전주기 창업지원을 통해 16,000여명의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및 입주지원을 하였으며,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약 492만 명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창업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창업저변확대

1)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표적 사업인 비즈쿨(Bizcool)은 학교(School)내에서 경영(Business)을 배운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센터 등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2002년부터 시작하여 16년 동안 3,296개교, 1,811천명을 지원하였다.

특히 평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를 위해 2018년에는 초·중·고·학교 밖 비즈쿨 지정학교(센터) 561개 지원하였고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표 IV-6-1-1 | 비즈쿨 운영실적

구 분	'02~'12	'13	'14	'15	'16	'17	'18
지원예산(A)	216.1억원	45억원	50억원	60억원	83억원	76.65억원	76.65억원
비즈쿨학교(B)	1,027개교	135개교	200개교	412개교	448개교	513개교	561개교
참여학생수	580천명	116천명	133천명	190천명	247천명	262천명	283천명
비즈쿨캠프	89회, 8,850명	22회, 1,808명	15회, 1,035명	11회, 585명	19회, 989명	9회, 469명	9회, 417명
창업동아리	4,622개	830개	1,053개	1,329개	2,092개	2,781개	2,803개



청소년비즈쿨 국내캠프



청소년비즈쿨 해외캠프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2) 대학기업가센터

미래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융합 실전형 창업교육(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전국에 9개 대학기업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9개 대학기업가센터(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양대)에서는 창업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수한 창업전공강좌를 운영하여 대학생의 창업수요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고 있다.

표 IV-6-1-2 |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공강좌 수(개)	37	183	235	264	296
강좌수강생(명)	1,271	7,614	13,273	17,959	17,255
창업네트워킹(건)	86	243	337	558	571
콘텐츠제작(건)	40	69	68	62	58

3) 창업리그 등 기업가 정신

가) 대한민국 창업리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이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창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창업을 테마로 한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4개 부처(중기부,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One Brand인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통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각 부처별 특성을 살린 예선을 통해 “도전! K-스타트업” 본선 대회 진출팀을 선발하고, 부처별 우수팀이 모여 공개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왕중왕 10개팀을 선발하여 시상 및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 예선대회 : 혁신창업리그(중기부), 학생리그(교육부,과기부), 국방리그(국방부), 글로벌리그(중기부)

2018년에도 부처 통합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부처별 예선을 통해 본선 대회 진출 135팀을 선발하였고, 공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왕중왕 10개 팀을 선발하였다.

* 접수 (5770) : 혁신창업리그(2,414건), 학생리그(786건), 국방리그(800건), 글로벌리그(1,770건)

* 선발 : 예선(135팀) → 통합본선(40팀) → 1차 결선(20팀) → 2차 결선(10팀) → 왕중왕전(순위 결정)

또한 대회 전 과정을 총 8부작으로 제작하여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과 창업열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 방송 : 스타트업 빅뱅 (JTBC, '18.10.31~12.19(매주 수요일) 18:30~19:50 (총 8회))

아울러 후속연계 프로그램으로 본선대회 진출자 및 수상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보호 연계, 크라우드 펀딩 참가, 기술보증기금 연계,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다.

표 IV-6-1-3 | 최근 5년간 창업리그 주요 추진 성과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참가자 수(팀)	5,094	5,057	6,545	4,055	5,770	26,521
수상자 수(팀)	10	10	10	10	10	50
창업	10	9	10	10	8	47
폐업	0	1	0	0	0	1
창업 성공률(%)	100	90	100	100	80	94



본선 대회 출정식



도전! K-스타트업 방송



해외전시회 참가

나) 벤처창업박람회

2001년부터 지속된 벤처창업박람회는 기업·지자체·정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창업행사”로서 창업 생태계를 대·내외에 홍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스케일업(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 행사는 민간위주의 벤처·창업기업 및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의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에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세계 각국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기

위해 투자 유치,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의 장을 마련하고, 해외 벤처 투자자와 국내외 스타트업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IV-6-1-4 | 벤처·창업대전 참가규모(최근 3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참가업체	495개	263개	100개	858개
참관객	18,185명	13,899명	30,740명	62,824명



기조연설



네트워킹



전시

다) 조사연구

창업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에는 15건의 과제(연구과제 : 8개, 창업통계 : 7개)를 수행하였으며 중장기('18~'27) 벤처·창업 정책 방향 마련 등의 정책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창업기업 실태조사,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창업지원사업 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창업·벤처정책 활성화 대책 수립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9년 추진 예정 연구과제는 총 8건(연구과제 : 3개, 창업통계 5건)으로 정책자료 및 창업통계 제공을 위해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표 IV-6-1-5 | 창업조사·연구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예산	700	700	1,000	950	950	950	950	6,200
추진과제(건)	13	19	21	22	15	15	15	120

라) K-스타트업(K-startup)

K-스타트업은 창업정보에서 사업 신청 및 선정 사업비 정산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한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등 정부 창업사업을 통합제공하는 창업포털(www.k-startup.go.kr)이다.

2015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117개 기관의 창업 정보의 종합 제공과 수요자 관심분야를 고려한 분류체계 구성 및 맞춤형 간편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하였다.

또한, 창업정보를 온라인 창구로 단일화하여 (예비)창업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창업에 관한 애로를 해소하였다.

K-스타트업을 통해 창업교육부터 멘토링, 판로·해외진출까지 창업에 관한 제반 정보를 One-Way, One-Gate로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예비)창업자가 손쉽게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부 창업관련 정보의 통합 제공과 지속적인 콘텐츠 제휴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로그인 및 맞춤형 알림 서비스 개발 등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표 IV-6-1-6 | 최근 3년간 K-스타트업 이용실적

(단위 : 건, 명)

구 분	총 방문자수	월평균	일평균	회원수
2016년	2,894,514	241,210	7,909	223,074
2017년	4,056,319	338,027	11,114	257,844
2018년	4,925,304	410,442	13,494	309,731

마)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운영

2010년 2월 개통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은 분산되어 운영 중인 법인 설립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창업자들의 법인 설립 시 겪어왔던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등기소, 지방세납부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 인터넷지로시스템, 4대

사회보험 연계시스템 등을 통합·연계한 시스템으로 법인설립의 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6-1-7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절 차	기간		절 차	기간
① 상호 검색	1	→	① 법인인감 제작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② 상호 검색 4대보험 등록 취업규칙 신고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등기신청수수료	3
③ 자본금 확인	1			
④ 법인등록세 납부	1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③ 4대 사회보험료 납부	0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1			
⑧ 취업규칙 신고	1		3단계	4일
8단계	14일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라 무액면 주식발행기능 추가 하였으며, 연계기관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신청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신규 프로세스 개발 등 지속적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법인설립만 지원하던 시스템을 대법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모든 유형*의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2010년 시스템 운영이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38,553명의 창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하였다.

표 IV-6-1-8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건)

구 분	법인설립	전화상담	인터넷접속
2010년	1,005	18,569	206,018
2011년	1,673	35,642	216,548
2012년	2,403	51,406	260,977
2013년	3,021	51,319	322,011
2014년	4,052	58,837	585,574
2015년	5,045	60,369	584,374
2016년	6,048	61,444	567,688
2017년	7,111	52,898	522,403

구 분	법인설립	전화상담	인터넷접속
2018년	8,195	49,656	538,406
합계	38,553	440,140	3,803,999

4) 창업대학원

2004년부터 중앙대학교, 한밭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호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석사과정의 창업대학원을 설치하여 2014년 상반기까지 지원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5개 대학원(국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을 선정하여 보다 넓게 저변을 확대하였다.

표 IV-6-1-9 | 창업대학원(석사과정) 설치 현황('18년 기준)

구 분	국민대	계명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부산대
대학원명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글로벌창업 경영대학원	글로벌 창업 대학원	정경·창업 대학원	기술 창업 대학원
개설	2014.9월	2014.9월	2014.9월	2014.9월	2014.9월
형태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5학기	5학기	5학기

5) 스마트창업터

ICT기술로 연결되는 융복합 시대에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7년 전국 대학, 전문기관 등에 총 20개의 스마트창업터 주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창업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과 멘토링을 제공하였으며,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고객 인터뷰를 수행하며 창업 전에 사업성을 검증하고 고객반응을 제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선발을 거쳐 우수한 창업팀에게는 사무공간과 개발자금 등을 제공하여 아이디어를 이용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8년도에는 총 3,824명의 창업자가 창업실습교육에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고, 이 중 535팀에 대해 시장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평가를 거쳐 134개의 창업팀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부터는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단계별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실전창업교육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표 IV-6-1-10 | 스마트창업터 주관기관

기 관 명	비 고	기 관 명	비 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울 산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남산업진흥재단	경 기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 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 북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 북
한국특허정보원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 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 북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 남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프라이머	온라인

6)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재무 상황이 열악한 초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2018년 신설되었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면 ‘세무·회계’, ‘기술보호’ 부문의 바우처(사업비)를 연 100만원 한도(최대 2년)로 지원한다. 바우처는 ‘세무·회계’ 부문의 기장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며, ‘기술보호’ 부문의 기술임치 계약(갱신)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2개 주관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을 통해 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였

으며, 2018년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총 8,698개사를 지원하였다. 2019년부터는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비 집행절차 등 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표 IV-6-1-11 | 2018년 지원대상 선정절차

모집공고	요건 검토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K-startup 신청	자격, 기타 요건 등 검토	우선 신청자 순으로 확정	3자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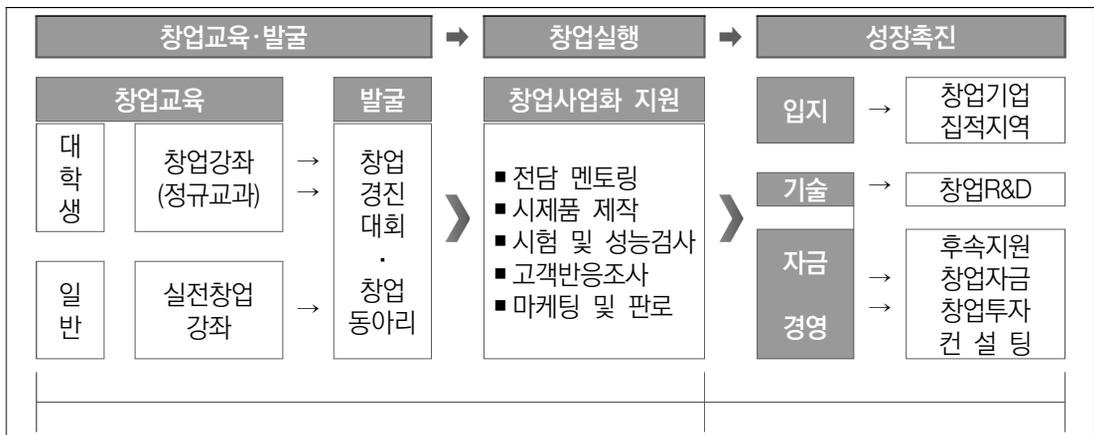
나. 창업선도대학 육성

1) 창업선도대학

우수한 창업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전국 43개교)으로 지정·운영하여 창업교육(기업가정신, 실전 창업강좌) → 창업자 발굴(창업동아리, 경진대회 등) → 창업실행(시제품제작, 멘토링, 창업공간 제공, 자금지원 등) → 성장촉진(투자유치, 컨설팅 등)에 이르는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였다.

창업선도대학은 창업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창업지원단)을 갖추어 전문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창업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명실 공히 전국 단위의 대표적 창업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림 29 | 창업선도대학 지원 체계도



2018년에는 우수 제조 인프라를 보유한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참여대학(서울대, 아주대, 경북대)을 전환평가 후 선도대학으로 편입하여, 전국 총 43개 창업선도대학을 운영하였다. 창업선도대학은 (예비)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교육, 창업활동 공간 제공, 집중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초기창업자 발굴 플랫폼으로서 청년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2019년부터는 창업지원사업 사업 개편에 따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표 IV-6-1-12 | 창업선도대학 지정현황('18년 기준)

수도권(17)		강원권(2)	충청권(7)	호남권(6)	동남권(7)	대경권(4)
서울(10)	경인(7)					
건국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송실대 연세대 인덕대 한양대	가천대 경기대 단국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산기대 인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순천향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한남대 호서대	광주대 원광대 순천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울산대 창원대	계명대 경북대 경일대 대구대

* '18년 신규 창업선도대학(3개)은 진한 글자체로 표시

표 IV-6-1-13 | 창업선도대학 주요실적 및 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구 분	예산	창업아이템 사업화				대학생	창업강좌	일반인	창업강좌
		선정	창업	매출	일자리	개설	수강	개설	수강
2011년	250	537	524	297	1,435	86	4,461	15	514
2012년	250	510	504	367	1,150	147	8,004	18	610
2013년	402	590	573	340	1,196	159	11,201	18	628
2014년	508	629	616	515	1,401	470	27,608	28	1,005
2015년	652	913	889	1,306	2,339	545	25,800	114	2,144
2016년	753	997	986	2,418	3,061	708	30,692	157	3,053
2017년	972	1,326	1,303	6,259	4,573	897	38,869	176	3,653
합 계	3,787	5,502	5,395	11,502	15,155	3,012	146,635	526	11,607

* '18년 최종실적은 주관기관 최종점검 이후 확인가능('19년 하반기 중)



창업자 전문교육 실시



시제품 제작 지원



맞춤형 컨설팅 제공

다. 창업사업화 지원

1)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액셀러레이터, 초기전문 VC 등 민간이 선별한 유망한 기술창업팀 중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은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 원의(차등지급) 사업비를 통해 시제품 제작, 국내외 마케팅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다.

2018년에는 우수 졸업 TIPS 창업팀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포스트 팀스(Post-TIPS) 프로그램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지방소재의 초기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프리팀스(Pre-TIPS)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2019년에는 통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TIPS R&D 신청 시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일원화하였다.

표 IV-6-1-14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 육성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예산	5,000	5,000	6,000	25,000	53,600	94,600
지원기업수	27	45	56	250	365	743

나)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예비)창업자가 선배 벤처기업 내에 입주하여 사업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된 예비 창업자 등에게 시제품 제작, 판로·마케팅, 멘토링 등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선도벤처 기업가와 예비 창업자간 협력비즈니스를 통한 투자·아웃소싱, 공동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선도벤처기업은 매출액이 제조업 100억 원, 비제조 5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창업 준비공간,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총 586개사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여 고용 2,261명, 매출 1,103억 원을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을 활용하여 창업 초기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모델로 인해 창업자의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다.

표 IV-6-1-15 |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성과('18,12)

연도	지원(개사)	고용(명)	매출(억원)	투자유치(억원)
'11	30	251	161	13
'12	50	128	83	12
'13	84	213	147	47
'14	84	336	119	48
'15	83	475	226	166
'16	88	454	226	89
'17	82	267	85	23
'18	85	137	56	19
계	586	2,261	1,103	417

2)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이 도약단계(3~7년차)에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성장축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3~7년차 창업기업의 사업모델(BM) 개선, 국내외 시장진입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5년도에 시범사업(50억 원)으로 시작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16년도에는 100억 원, '17년도에는 600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18년도에는 800억 원, '19년도

에는 840억 원으로 확대되어 3~7년차 창업기업 중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현금흐름을 극복하고 빠른 수익창출과 스케일 업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21개 주관기관 및 1,948개 창업기업을 선정하였으며, 2018년에 24개 주관기관 및 1,944개 창업기업을 선정하였다.('19. 5.30기준) 2019년에는 20개 주관기관 및 1,000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표 IV-6-1-16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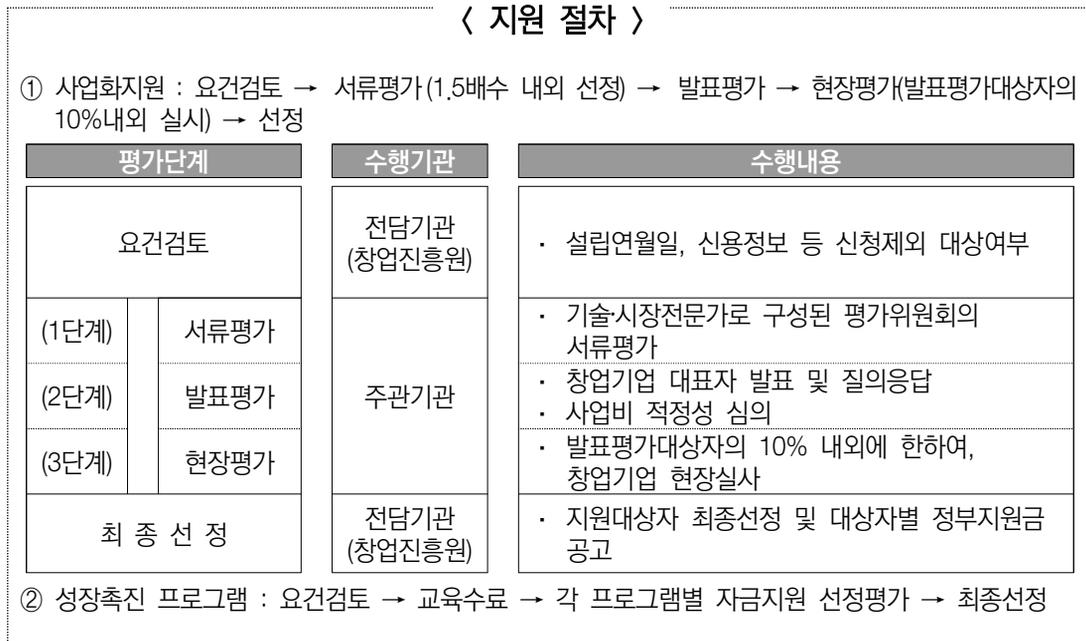
(단위 : 억원, 명, 건)

구분	신청	선정	매출	일자리
2015년	513	100	1,266	1,002
2016년	683	160	985	755
2017년	7,117	1,948	9,908	6,993
2018년	13,893	1,944	-**	-**
합계	22,206	4,152	12,159	8,750

* '15년 : 협약 종료시점, '16년·'17년 : 결산 기준

** 2018년 협약종료 시점('19년 하반기) 기준 성과조사 예정

그림 30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3)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의 기술 기반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 창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12년 신규로 도입되었다. 현지의 액셀러레이터³¹⁾를 활용하여 창업자가 글로벌 진출 초기단계에 해외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현지에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을 양성하고자 함이다.

동 사업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직접 선발하여 해외 현지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피칭대회까지 참가 지원한다.

2012년에 미국, 중국 등 2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진출 국가를 확대하여 현재 국내 창업자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6개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총 433개 창업 팀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참여 창업팀 433개 팀이 1,489.2억 원 매출액과 1,408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460.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V-6-1-17 | 글로벌 진출지원 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연 도	예산	선정	현지진출*	투자유치	매출	고용
2012	31	39	10	88.3	91.4	91
2013	20	28	11	91.1	25.9	30
2014	30	56	25	170.1	260	76
2015	33	62	41	92	249.4	235
2016	100	113	76	707.5	296.5	579
2017	33	65	20	101.9	370.3	316
2018	38	70	12	209.6	195.7	81
합계	285	433	195	1,460.5	1,489.2	1,408

* 현지진출유형 : 법인, 지사·사무소, 합작법인

31) 액셀러레이터 : 창업자를 발굴, 투자뿐만 아니라 3~6개월 동안 투자자·고객 지향형 성공 제품을 만들도록 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또는 기업

4) 스마트벤처캠퍼스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서비스 분야는 앱·웹, 콘텐츠, SW융합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ICT기반 지식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우수 청년 창업팀을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멘토링, 개발 및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과 성장 과정을 일괄 지원하기 위해 '13년에 '스마트벤처캠퍼스'를 신설하였다.

스마트벤처캠퍼스는 2013년 수도권,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2014년 충청·호남·광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으로 확대되어 2018년 총 5개 권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지식서비스분야 창업 지원에 필요한 개발실, 교육장 등의 전용공간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청년창업자를 육성하였다.

2019년부터는 창업지원사업 사업 개편에 따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표 IV-6-1-18 | 스마트벤처캠퍼스 주관기관 현황

기관명	비고	기관명	비고
(주)옵니텔	서울·강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경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경북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울산·경남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호남

2018년까지 동 사업을 신청한 5,758팀 중 우수 창업팀 1,014팀을 선발, 지원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885개 창업팀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2,711개를 창출하였다.

표 IV-6-1-19 | 스마트벤처캠퍼스 운영 현황

연도	운영기관수	성 과			
		신청(팀)	입교(팀)	창업(팀)*	일자리창출(명)
2013년	2개	352	110	81	264
2014년	4개	980	225	168	429
2015년	4개	1,155	209	171	542
2016년	4개	1,193	170	167	531
2017년	5개	1,028	149	147	402

연 도	운영기관수	성 과			
		신청(팀)	입교(팀)	창업(팀)*	일자리창출(명)
2018년	5개	1,095	151	151	543
합 계		5,758	1,014	885	2,711

* ('13년~'17년) 자진포기, 폐업 등의 사유로 129팀 중도포기

5) 1인 창조기업 활성화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으나, 경영여건이 취약한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및 법률·세무 등의 전문가 상담·교육·네트워킹 등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제공을 위해 '09년 전국에 21개의 센터를 설치하였고, '18년 55개의 센터를 운영하였다.

창업 준비부터 보육, 마케팅까지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규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707개의 사무공간 지원을 통해 1,862건의 경영자문과 11,996명의 교육 및 세미나,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지원 성과를 달성하는 등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는 (예비) 1인 창조기업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지원을 시행하였다.

표 IV-6-1-20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 지원 내용

구 분	주요 지원 내용	시행주체
사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데스크 (1인 전용 사무공간, 서비스드오피스) 편의시설 (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프린트, 카페 등) 	주관기관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아이템 시장 멘토링 교육,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정보제공 등 	
교육·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델(BM) 개발 (사업계획서, 피보팅 등)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네트 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확대 1인 창조기업-우수창업기업 간, 입주-졸업기업간 	전담기관 주관기관

표 IV-6-1-21 | 2018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년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강원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소계	
18	14	3	8	25	2	4	4	1	5	3	2	1	1	1	1	3	2	1	30	55

표 IV-6-1-22 | 2018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현황

구분	기관(센터) 명	지역	기관(센터) 명	지역
민간센터 (18개)	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서울	우리은행	서울
	메트로비즈니스	서울	한국여성벤처협회	서울
	한성케이에스콘	서울	(주)미래서비스	인천
	오피스허브	서울	크로스비즈	부산
	(주)하우투비즈	서울	(주)비스퀘어	부산
	(주)오피스이앤씨	서울	(주)나눔미닛	대구
	(주)중원게임즈	서울	(주)디지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대구
	(주)더이노베이터	서울	(주)창조기업경영연구원	경남
(주)코너스톤웍스	서울	(주)유비컴즈	충북	
공공/지자체 센터 (37개)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
	강릉시	강원	대구 수성구	대구
	한국나노기술원	경기	대전광역시	대전
	(재)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경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	부산시 해운대구청	부산
	창업진흥원	경기	부산시 사하구	부산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경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
	의정부시	경기	서울 마포구	서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서울 성북구	서울
	의왕시	경기	울산광역시	울산
	(재)김해산업진흥의생명 융합재단	경남	인천광역시	인천
	창원시	경남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인천
	(재)포항테크노파크	경북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남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	전라남도	전남	

구 분	기관(센터) 명	지역	기관(센터) 명	지역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경북	전남 담양군	전남
	경상북도	경북	전주시	전북
	광주광역시	광주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광주 광산구	광주	충청남도	충남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	-	-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대다수 1인 창조기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에게 맞춤형 마케팅 및 다각적 판로채널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 준비 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기업 당 최대 20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 세부과제는 멀티미디어, 디자인, 광고·홍보이며 1인 창조기업들의 보유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표 IV-6-1-23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구 분	과 제	세부 지원 분야
지정형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디자인	전자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개발
	광고 홍보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표 IV-6-1-24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규모

(단위 : 억원, 개사, 명)

연 도	예 산	신 청	선 정	고 용
2014	43.0	2,198	394	221
2015	43.7	2,076	444	229
2016	51.9	2,081	463	314
2017	40.0	1,829	438	752
2018	29.0	1,320	281	416

창의적 지식재산(디자인) 사업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협업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역량 있는 대학(원)생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제품화 지원을 통한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을 목표로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시제품제작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연간 25개 창업팀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멘토링, 디자인 출원은 물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후속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의 혁신제품들이 다각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채널을 다각화하는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활동에는 상품설명회, 구매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소셜커머스 입점지원 등이 있다.

향후 동 사업을 통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아이디어의 마케팅과 판로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상품설명회·구매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온라인 소셜커머스(인터파크)
입점 지원

다) 1인 창조문화 기반조성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와 성장촉진을 위한 1인 창조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하고 있다. '15년 시행령 개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업종 확대에 기업 수 현황이 증가하였고, 체계적 정책수립 기반구축 및 정책성과 홍보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와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1인 창조기업의 현황, 창업 및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발과 학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을 통해 1인 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가 정신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의 국민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6) 판교밸리 창업존 운영

판교밸리 창업존은 시제품 제작, 글로벌 시장 진출, 연구개발 및 투자유치 등 수요자 맞춤형 윈스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보육공간이다.

[6층] 창업자 지원인프라			[7·8층] 창업자·지원기관 입주공간		
					
대회의실	중회의실	교육장	개방형 공간	반독립형 공간	독립형 공간

'17년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친 실내 공사를 통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보육공간인 '창업존'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업기업을 모집·선발하여, '19년 6월 기준 IoT,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100여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스타 벤처기업으로의 도약을 향해 노력 중이다.

판교밸리 창업존에서는 입주기업의 빠른 성장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3D 제작보육실, 글로벌테스트베드, 통번역센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기업 맞춤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7) 시니어 창업지원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퇴직이 본격화함에 따라 조기 퇴직한 시니어(4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년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창업지원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생계형 자영업(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등)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고 준비 없는 창업을 할 경우 대부분 영업부진,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하는 시니어들이 퇴직 전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니어 창업 활성화 정책을 2010년부터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는 교육내용 및 사업구조를 기술창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니어 창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성장가능성 높은 기술 창업으로 시니어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는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고경력 퇴직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을 매칭 하여 역량 있는 창업팀을 육성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을 발굴하고 One-stop 형태의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총 25개 주관기관을 통해 우수(예비)퇴직자를 발굴하고 중장년(예비)창업자에게는 교육, 공간 및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전국에 7개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25개소까지 확대 설치하여 중장년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교육과 보육을 통해 953명 창업기업 배출을 했고 매출액 620억 원, 고용 549명 달성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중장년(예비)퇴직자가 축적한 노하우와 역량이 창업생태계 내에서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뿐만 아니라 멘토, 투자자 등 지원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표 IV-6-1-25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18년)

구 분	창업자수	고용인원	매출액	지식재산권 (특허등록기준)
2016년	526명	250명	40,254백만원	95건
2017년	보육 : 791명 교육 : 250명	487명	52,200백만원	196건
2018년	보육 : 741명 교육 : 212명	549명	62,084백만원	237건



예비퇴직자 기술창업 인식교육



투자 역량 강화교육



전담인력 통합워크숍

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는 패기 넘치는 청년의 아이디어와 중·장년의 경험과 기술이 융합된 세대융합 창업팀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역량 있는 중장년을 초기 창업기업에 매칭하여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초기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에 8개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팀을 선발·지원하였으며, 선발된 창업팀은 최대 1억 원의 사업화지원금과 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의 초기창업 쏠단계를 집중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186개 세대융합 창업팀을 선정하여 445명의 일자리를 창출과 221.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194명의 장년인재를 운영하였다.

2019년부터는 창업지원사업 사업 개편에 따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표 IV-6-1-26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설치현황 (2018년)

구분	지역	주관기관
수도권(4)	서울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원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인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수도권(4)	대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전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경북(구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양산)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팀 매칭프로그램 운영



세대융합 창업팀 발굴·지원



세대융합 사업화지원

8)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대책(’18.3)’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이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 예비창업자에게는 초기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 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한다. 바우처는 창업 준비과정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재료구입, 지식재산 취득,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창업자 별 1:1 전담멘토를 매칭하여 협약기간(10개월)동안 월 2회 이상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을 위한 사전교육(8h)과 역량강화교육(16h), 브랜드 개발·시장조사·투자 등 창업실무 위주의 심화교육(16h)을 제공한다.

’18년 6월부터 총 7회 창업기업을 모집하여 1,512명의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정·지원 하였으며, ’19년부터는 예비창업패키지로 사업명을 개편하고 주관기관을 확대하여 (32개→56개) 1,700명의 역량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표 IV-6-1-27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

선정평가	지원내용																																																																																						
사업신청 예비창업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h colspan="10" style="background-color: #cccccc;">지원 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바우처 지원</td> <td colspan="10">시제품제작비(외주용역), 인건비, 지재권취득비 등 집행 (최대 1억)</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전담멘토</td> <td colspan="10">창업전담멘토 1:1 밀착지원 (경영, 기술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네트워킹</td> <td colspan="10">토크콘서트, 오픈 네트워킹 행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창업교육</td> <td>사전교육(8시간)</td> <td colspan="3">역량강화교육(16시간)</td> <td colspan="6">심화교육 (20시간)</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창업</td> <td colspan="5">창업준비(사업자등록 준비)</td> <td colspan="5">창업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기간</td> <td>1M</td> <td>2M</td> <td>3M</td> <td>4M</td> <td>5M</td> <td>6M</td> <td>7M</td> <td>8M</td> <td>9M</td> <td>10M</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세부내용										바우처 지원	시제품제작비(외주용역), 인건비, 지재권취득비 등 집행 (최대 1억)										전담멘토	창업전담멘토 1:1 밀착지원 (경영, 기술 등)										네트워킹	토크콘서트, 오픈 네트워킹 행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										창업교육	사전교육(8시간)	역량강화교육(16시간)			심화교육 (20시간)						창업	창업준비(사업자등록 준비)					창업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기간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구분											지원 세부내용																																																																												
바우처 지원	시제품제작비(외주용역), 인건비, 지재권취득비 등 집행 (최대 1억)																																																																																						
전담멘토	창업전담멘토 1:1 밀착지원 (경영, 기술 등)																																																																																						
네트워킹	토크콘서트, 오픈 네트워킹 행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																																																																																						
창업교육	사전교육(8시간)	역량강화교육(16시간)			심화교육 (20시간)																																																																																		
창업	창업준비(사업자등록 준비)					창업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기간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평가·선정 (서류→발표) 주관기관																																																																																							

표 IV-6-1-28 |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지정현황('19년 기준)

분야	일반	4차산업혁명	소셜벤처	관광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대구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송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도시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라. 중소기업 재기지원

1) 재도전 성공 패키지

2015년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재도전기업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284개의 재도전 기업을 선발하여 평균 34백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고, 동시에 실패원인 교육 프로그램, 1:1 심층멘토링, 입주공간(R-Camp) 지원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하였으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재도전 기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 조정 연계형을 신설하는 등 재도전 기업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도전 인식개선 홍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매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재도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있으며, 재도전 활성화 포럼·재도전 문화확산 프로젝트·재도전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도전 기업인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며, 재도전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도전 한마당



재도전의 날

마.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지원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지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창업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지역 혁신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교육, 네트워킹 등 일반적인 창업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부터 창업기업의 사업 아이템(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혁신센터의 강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까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기획·편성·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의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연구소, 창업지원 유관기관 등 파트너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6-1-29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기관(센터) 명	지역	기관(센터) 명	지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도 춘천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 성남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	-

바.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전략산업분야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및 창업기업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목적이 있다.

표 IV-6-1-30 | 27개 지역전략산업(2015.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지역	전략산업	지역	전략산업
대구	① 자율주행 자동차 ② IoT 기반 웰니스산업	경남	① 지능형기계 ② 항공산업
대전	① 첨단센서 ② 유전자약	강원	① 스마트 헬스케어 ② 관광
전북	① 탄소산업 ② 농생명	충남	① 태양광 ②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경북	① 스마트기기 ② 타이타늄	전남	① 에너지신산업 ② 드론(무인기)
광주	① 친환경자동차 ② 에너지신산업	제주	① 스마트관광 ② 전기차인프라
충북	① 바이오약 ② 화장품	세종	① 에너지 IoT
부산	① 해양관광 ②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울산	① 친환경자동차 ② 3D 프린팅

지역 내 전략산업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가지고 운영하였으며, 사업화 대상 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를 위해 자체적인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였다.

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시제품테스트 및 고도화, 시험평가 및 인증, 시장 검증 등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혁신센터에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실증화 지원, 기술 교육, 마케팅 지원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전략산업분야 육성 및 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주)

1

일반현황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이하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부가 설립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2005년 6월 29일 개소하였다.

모태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탈 등이 결성하는 자(子) 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이다. 모태조합은 2009년까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천억 원,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재정 4천억 원으로 총 1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결성 이후 기존 출자자의 추가 출자금 납입 및 신규 출자자 참여(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를 통해 2018년말 기준 4조 297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운용기간은 30년이며, 회수된 자금은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중소·벤처기업 투자 전용재원 풀(Pool)에 넣어 운영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해졌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운영이외 창업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VC 글로벌 펀드를 2013년부터 조성하였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개소하여 국내 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엔젤투자 확대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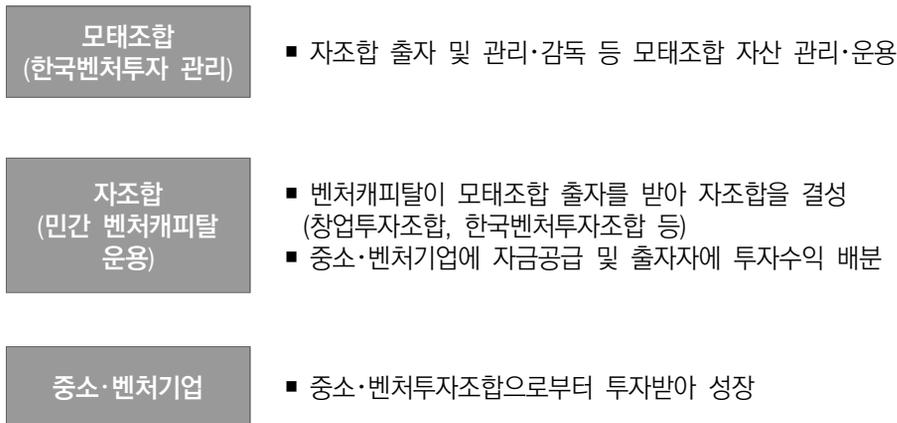
주요 사업 추진 실적

가. 모태조합 운영을 통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

1) 총괄

모태조합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출자 및 관리를 담당하고,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벤처캐피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태조합은 정부가 투자재원은 공급하되 투자 의사결정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시스템으로서 투자에 있어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단년도 예산배정 범위내 지원 방식에서 탈피,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Revolving System)으로 운영됨에 따라 벤처 투자 시장에 안정적으로 투자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표 IV-7-1-1 | 모태조합 운영 체계



2018년 말 기준 중기부, 문체부 등 총 8개 부처가 모태조합에 출자하였으며, 그 규모는 4조 297억 원이다.

표 IV-7-1-2 | 모태조합 조성규모

(2018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부처	계정	'14년 이전	'15	'16	'17	'18	계
중기부	중진	9,481	1,520	1,000	5,000	500	17,501
	엔젤	1,590	500	-	-	-	2,090
	지방	100	-	-	-	-	100

부처	계정	'14년 이전	'15	'16	'17	'18	계
	청년	-	-	-	3,300	-	3,300
	혁신모험	-	-	-	-	4,000	4,000
	소계	11,171	2,020	1,000	8,300	4,500	26,991
문체부	문화	4,120	541	360	530	540	6,091
	영화	420	100	100	180	100	900
	관광	0	130	100	150	170	550
	스포츠	0	200	200	70	100	570
	소계	4,540	971	760	930	910	8,111
특허청	특허	1,430	170	-	-	200	1,800
과기정통부	과기정통	600	500	370	200	150	1,820
고용부	중진	100	-	-	-	75	175
복지부	보건	500	300	-	-	-	800
환경부	환경	-	-	-	200	130	330
교육부	교육	-	-	-	120	150	270
누계		18,341	3,961	2,130	9,750	6,115	40,297

2) 벤처투자 자원 양적 확대

2018년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과 벤처투자액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신규 벤처펀드 조성은 전년(4조 6,087억 원) 대비 1.7% 증가한 4조 6,86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신규 벤처투자액도 전년(2조 3,803억 원) 대비 43.9% 증가한 3조 4,249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투자금액이 증가된 수치이다.

이러한 실적 달성에는 모태조합의 역할이 컸다. 모태조합은 2018년 9,978억 원을 출자하여 3조 32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는 2018년 전체 벤처펀드 조성액 4조 6,868억 원의 64.7%에 달하는 수치이다. 모태조합은 누적 기준으로는 6조 4,314억 원을 출자하여 21조 9,30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표 IV-7-1-3 | 신규벤처펀드 조성액

(단위 : 억 원)

구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펀드조성액	147,846	26,205	36,792	46,087	46,868	303,798

*2014년 이전은 2004~2014년 자료

표 IV-7-1-4 | 모태조합 출자 계정별 자조합 결성 현황

(단위 : 억 원, 개)

결성년도 계정별	2014년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중진	232	81,759	16,701	23	10,148	1,832	33	17,573	4,315	54	25,585	7,105	31	16,011	3,265	373	151,076	33,218
엔젤	11	1,400	1,290	6	1,057	990	2	300	180							19	2,757	2,460
문화	49	10,072	4,023	8	2,429	1,140	8	1,831	1,000	7	1,221	574	10	2,036	1,268	82	17,589	8,005
과기	6	1,163	535	4	828	275	6	1,381	375	2	320	200	2	350	220	20	4,042	1,605
영화	5	620	320	2	410	240	1	240	140	2	480	280	1	170	120	11	1,920	1,100
특허	30	8,353	2,447	4	850	300	4	950	640	2	300	200	3	718	270	43	11,171	3,857
보건	1	1,000	200	2	1,850	300	1	1,500	300				1	300	180	5	4,650	980
지방	1	100	50	5	576	250	3	400	200	2	250	140	1	100	60	12	1,426	700
관광				1	220	130	1	200	100				1	270	150	3	690	380
스포츠				2	385	200	1	170	100	2	290	170	1	170	100	6	1,015	570
교육										5	189	120	6	257	150	11	445	270
청년	15	2,938	1,745	9	1,743	1,050	7	876	570	21	5,348	2,820	6	1,550	835	58	12,455	7,020
환경										1	420	200				1	420	200
혁신 모험													21	8,209	3,260	21	8,209	3,260
공동*				2	560	200	3	700	390				1	180	100	6	1,440	690
계	350	107,405	27,310	68	21,056	6,907	70	26,121	8,310	98	34,402	11,809	85	30,320	9,978	671	219,305	64,314

* 과기/중진/문화 및 중진/특허 공동계정 출자 자펀드

모태 자조합은 2018년 2조 4,341억 원의 벤처 투자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2018년 전체 벤처투자액 3조 4,249억 원의 71.1%에 달하는 수치이다. 모태자조합의 누적 투자금액은 15조 1,089억 원이다.

표 IV-7-1-5 | 신규벤처투자액

(단위 : 억 원)

구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전체벤처투자액	112,874	20,858	21,503	23,803	34,249	213,287
모태자조합 벤처투자액	108,827	18,034	17,426	17,921	24,341	151,089

* 2014년 이전은 2004~2014년 자료

3) 민간자금 유치

모태조합은 벤처펀드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자금의 벤처펀드 참여를 유도하였다. 모태조합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선두주자로서 자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민간 출자자들이 모태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모태조합 출자지분에 대한 콜옵션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규 민간 자금의 벤처펀드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모태조합은 9,978억 원을 출자하여 3조 320억 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3.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벤처투자 시장 전체의 민간자금 유입도 2014년 1조 5,670억 원에서 2018년 3조 1,155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4) 취약분야 지원 강화

모태조합은 수익성 뿐 아니라 정책 목적을 보유한 펀드로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자심사 시 가점부여, 출자한도 및 성과보수 우대 등을 통해 창업초기펀드, 지방펀드, 여성펀드 등 정책 목적 조합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소셜 임팩트 펀드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창업초기조합에서 최소결성금액의 20%를 지방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투자 확대를 추진했다.

표 IV-7-1-6 | 모태조합 취약분야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초기지원	79	7,296	15	2,040	13	1,330	23	3,009	23	3,085	153	16,760
지방, 여성	16	808	6	350	4	300	3	240	2	120	31	1,818
계	95	8,104	21	2,390	17	1,630	26	3,249	25	3,205	184	18,578

5) 투자활성화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투자유치가 필요한 조선업 중소 벤처기업들과 벤처캐피탈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업구조개선펀드 간담회를 개최하여 2개 조합의 8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또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벤처투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였고, 모태 펀드 및 투자조합 홍보를 위한 한국영화 투자펀드 쇼케이스 행사를 지원하였다.

6) 벤처캐피탈 선진화 유도

한국벤처투자는 자조합 운용사 선정 시 단순 재무적 평가보다 운용인력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벤처캐피탈의 선진화 및 활성화 방향으로 심사방법과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기준수익률을 기존 5%에서 0~3%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다. 또한 모태조합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초과수익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운용사와 타출자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탈 본연의 모험자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정된 관리보수 하향 시 더 많은 성과보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고용창출 실적, 창업초기투자 등에 따라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나. 중소벤처기업 외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1)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지 네트워크가 뛰어난 해외VC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는 글로벌 우수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해외VC 글로벌 펀드를 2013년부터 조성해오고 있다.

'18년 말 현재까지 BlueRun Ventures, Altos Ventures, Walden 등 해외 유명 24개 벤처캐피탈과 2조 1,362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 178개에 5,064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여 누적 모태 약정금액 2,605억 원 대비 약 1.9배의 투자유치 효과를 시현하였다.

표 IV-7-1-7 |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펀드 조성액	810	4,438	6,268	2,510	5,391	21,362
모태 출자액	62	507	820	418	712	2,605
한국기업 투자액	521	1,580	823	1,093	729	5,064

또한, 해외VC 글로벌 펀드 투자기업 중 25개사가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아 골드만 삭스 등 해외 투자자로부터 총 9,883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였다.

2) 해외 사무소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미국(2013년), 중국(2014년), 싱가포르(2015년)에 해외 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해외 사무소를 통해 국내 기업, 현지 벤처캐피탈, 한국 벤처캐피탈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사무소에서 총 33개 기업을 해외투자자와 연결하였다. 중국 사무소에서는 KVIC Round Table를 통한 한중 VC간 네트워크 구축 및 소규모 IR 행사를 통한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무소도 싱가포르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입주한 한국기업 대상 멘토링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한국 소비재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다.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창업확대 및 일자리창출

1) 엔젤투자매칭펀드를 통한 창업초기 기업 투자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 100억 원 규모로 출범한 엔젤투자매칭펀드가 2018년말 현재 16개 1,92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표 IV-7-1-8 |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펀드 조성액	1,300	100	520	-	-	1,920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일정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의 방법으로 신주에 투자한다. 펀드의 투자대상은 총 기업가치가 70억 원 이하인 창업초기 기업이다. 2018년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는 총 67건 76억 원의 매칭투자가 집행되었으며, 누적기준으로는 617건, 727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대상기업 평균고용증가율은 2.55%로 중소기업의 명수기준 고용증가율인 2.29%대비 높은 고용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IV-7-1-9 |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 집행현황

(단위 : 억 원, 개)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투자건수	254	121	113	62	67	617
투자금액	324	148	119	60	76	727

2) 엔젤투자자 육성 기반 구축

한국벤처투자는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엔젤투자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전문엔젤제도(관련 매뉴얼 제정 및 확인업무 수행)를 운영하고 있으며 엔젤클럽 활동실적 확인을 통해 엔젤클럽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엔젤투자자 회수 지원을 위해 533억 원('16. 4월, 6월, '18. 10월)규모의 엔젤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엔젤투자자 회수지원을 위한 엔젤구주거래 정보망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엔젤투자자수는 '14년 7,060명에서 '18년 17,85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V-7-1-10 | 엔젤투자자 및 전문엔젤 수 누적 현황

(단위 : 명,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엔젤투자자	7,060	9,468	12,536	14,827	17,857
전문엔젤	11	36	93	150	126
엔젤클럽	109	138	171	189	215

제8장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

일반현황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종합마케팅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995년 12월 21일에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조직은 3본부 7실·3단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판로지원 채널 및 기능별로 백화점사업단, 홈쇼핑사업단, 마케팅지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사업단은 목동판매장(행복한 백화점)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사업단은 홈쇼핑사(GS, CJ, 홈&쇼핑, 공영홈쇼핑 등)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케팅지원실은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 강화 지원, 발굴·연계시스템운영, 온·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개최, 공동A/S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 판로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혁신성장 통합유통 플랫폼’을 목표로 신규 판로지원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제 7홈쇼핑인 공영홈쇼핑(15.7 개국)을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유통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 확대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높은 시장 진입장벽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On / Off-Line 판로지원 및 전시·홍보지원 등 중소기업 종합 마케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 백화점(목동판매장) 운영

1999년 12월 3일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목동 판매장(행복한 백화점)을 개점하여 2018년까지 총 2만 3천여 개 업체에 대해 1조 3,544억 원의 판매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간 백화점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HIT500 PLAZA(550평)'를 '아임쇼핑(700평)'으로 확대·개편('15.10)하여 2,493개('18.12) 업체의 우수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입점업체는 초기 창업기업(창업사관학교, 창업·벤처기업), 우수 중소기업(인증·특허상품), 기관 및 지자체(지역특화사업, 장애인지원센터 등), 공동브랜드 등 새내기 기업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입점 중소기업에게는 낮은 수수료 지원, 매장 판매사원 인건비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판매전 및 상담회 등을 통한 대형유통채널 연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목동 판매장에 입점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등 공익성 기획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IV-8-1-1 | 백화점(목동판매장)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 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판매지원액	10,673	606	620	624	552	469	13,544
지원업체수	10,478	1,628	2,636	2,968	2,410	2,493	22,613

* 정책매장(4층) 개편 현황 : ('11.8) 90평 → ('12.3) 350평 → ('12.9) 550평 → ('15.10) 700평

2)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IM Shopping) 확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유통센터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민간시설 등과 연계하여 신기술·벤처·창업·수출 우수중소기업 등 단일 매장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초기·영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전용판매장(IM Shopping)의 판로지원 효과 증대를 위하여 낮은 판매수수료, 판매사원 및 인테리어 비용지원, 타 유통망 연계 등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8-1-2 |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IM Shopping) 운영 현황 (2018년)

구 분	오픈일	매장면적	지원상품수
인천공항(서편)면세점	'12. 6. 27	76㎡(23평)	1,034개 품목
인천공항(동편)면세점	'15. 11. 6	42㎡(13평)	881개 품목
인천공항(T2)면세점	'18. 1. 18	84㎡(25평)	1,190개 품목
갤러리아면세점	'15. 12. 28	50㎡(15평)	623개 품목
SM서울	'16. 2. 4	31㎡(9평)	640개 품목
신세계면세점(센텀)	'16. 3. 1	66㎡(20평)	656개 품목
신세계면세점(본점)	'16. 5. 18	53㎡(16평)	689개 품목
현대 무역센터점	'18. 11. 1	13㎡(4평)	88개 품목
신세계백화점(영등포)	'17. 9. 8	52㎡(16평)	413개 품목
현대백화점(판교)	'16. 11. 9	69㎡(21평)	659개 품목
KTX 부산역사	'13. 2. 5	42㎡(13평)	665개 품목
화성휴게소(목포행)	'11. 12. 1	165㎡(50평)	860개 품목
행복한백화점 4층	'11. 3. 1	2,313㎡(700평)	13,128개 품목

3) 홈쇼핑 판로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다양한 판로지원을 위해 6대 홈쇼핑사(GS, CJ, 현대, 롯데, NS홈쇼핑, 홈&쇼핑) 및 공영홈쇼핑사, T-커머스사(K쇼핑, SK스토아, 신세계 쇼핑, 쇼핑&T, W쇼핑)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2018년까지 4,236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조 9,092억 원의 홈쇼핑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8-1-3 | 홈쇼핑사업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 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판매지원액	13,666	3,004	2,529	3,136	3,594	3,163	29,092
지원업체수	2,630	149	293	380	378	406	4,236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인 공영홈쇼핑(최대주주), 홈&쇼핑(2대 주주)에 주요주주로 참여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홈쇼핑 유통망 진입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마케팅 판로 지원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온·오프라인 유통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강화 지원, 발굴·연계시스템운영, 온·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개최, 공동A/S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판로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1) 마케팅역량강화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마케팅전략수립, 제품 개선, 홍보 등 맞춤형 마케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2) 발굴·연계시스템(www.imstars.or.kr)운영

발굴·연계시스템이란, 중소기업 상품을 모아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로 판로를 연계하는 통합유통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종합 판로지원 시스템을 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 유통MD와의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3) 온라인기획전

국내 온라인쇼핑몰 연동에 기반을 둔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몰 통합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진입 및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필요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 활용을 위한 제품 홍보동영상 제작, 홈쇼핑시장 진출을 위한 TV홈쇼핑 방송, 온라인쇼핑몰 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다.

4) 정책매장 운영

입지가 우수한 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하여 창업 및 아이디어 혁신기업의 초기 제품에 대한 시장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유통시장으로의 진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 오프라인 기획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을 진행,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 및 대형유통업체 입점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6)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정부포상, 바이어 초청 상담회, 판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판로개척 분위기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기회를 부여, 중소기업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7)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A/S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A/S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 A/S센터는 기본적인 고객 응대부터 불만 해결, 사용법 안내 등 각종 소비자 민원사항을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A/S 서비스망 구축 지원을 통한 A/S대행 처리와 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A/S역량강화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다.

8)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제품품질 인증 중심의 국가주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형성된 신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확대 등 판로개척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9)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대기업 MRO사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배양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내 ‘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표 IV-8-1-4 | 마케팅 판로지원사업별 주요 지원현황 (2018년)

사업명	주요 지원현황
마케팅역량강화	◦ 마케팅전략수립, 제품개선, 공동브랜드, 홍보, 글로벌시장진출 지원 중 기업 ‘자율선택형’ 패키지식 지원 : 72개사
발굴·연계시스템 운영	◦ 우수제품 DB발굴 성과 : 3,489개 제품
온라인기획전	◦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V-커머스 등 270회 / 199개사 지원
정책매장 운영	◦ 13개소, 2,227개 기업의 2만여개 품목의 제품 판매지원
오프라인 기획전	◦ 대형유통망, 팝업스토어, 지자체 및 기관 등 현대, 롯데, 신세계 등 72회 / 510개사 / 3,649개 제품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 221개사 참여, 311부스, 구매상담회 554건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 총 546개 중소기업의 A/S 인프라 및 A/S역량강화(교육) 지원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총 930개 중소납품업체 지원

제9장

(재)중소기업연구원

1

중소기업연구원 개요

중소기업연구원(KOSBI, <http://www.kosbi.re.kr>)은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경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기관 운영의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1993년 7월 1일 재단법인 중소기업진흥재단 부설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2004년 7월에는 조직 확대 및 연구 인력증원과 함께 독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으로 재편되었으며, 2015년 들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사업 등의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 중이다. 주요사업은 크게 연구사업, 조사·평가 및 교육 사업으로 나뉜다. 연구 사업으로는 국민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 제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조사·평가 및 교육 사업에는 중기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효율화,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및 규제영향평가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책전문가 교육 과정 등이 포함된다.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정책 연구 분야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의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비전 및 대안 제시와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4년 7월 이후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이론과 현장의 균형감각을 배양하는 등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현장성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기관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1) 정책연구

정책연구 사업의 주된 목적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과 연구·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요 국정과제 관련 기본과제 연구를 포함하여 총 30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결과물은 중장기 정책수립 등 정책개선에 폭넓게 반영된 바 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연구원은 자체 및 중기부 연구과제 제안을 토대로 정부정책방향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 성과의 질과 정책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IV-9-1-1 | 2018년 정책연구 추진 현황

연번	보고서명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 R&D기획, 기술개발비, 기술인력 지원사업
2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
3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제도 개선방안
4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5	지역특화산업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번	보고서명
6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개선방안
7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공정 구축 지원 제도 개선방안
8	창업 저변확대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9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개선과 경쟁력 제고 방안
10	중소기업 재도전 창업지원의 제도 개선방안
11	대학중심 창업정책의 발전방안
12	창업 생태계와 인프라의 개선에 관한 연구
13	벤처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 개선방안
14	벤처캐피탈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5	수출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16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제도 개선방안
17	중소기업 수출 지원정책 진단 : 중진공 기금사업
18	중소기업 내수지원사업 개편 방안 연구
19	공공구매제도운영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20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진단 및 제언
21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제도의 개선방안
22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경제 실현 방안 I, II
23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연구비 관리체계/R&D과제 선정평가체계 혁신방안
24	중소기업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
25	중소기업 통계 개선방안 연구
26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과제
27	일관지원체계 실행 및 확산방안 연구
28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선방안 연구
29	공정한 납품단가 결정에 관한 표준절차 연구
30	중소기업 정책 60년사

2) 현안연구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진단·제언 및 학술연구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안연구의 주요 결과물(발간물)로는 「중소기업 포커스」, 「KOSBI 경제동향」, 「중소기업 정책연구」 등이 있다.

가) 중소기업 포커스

「중소기업 포커스」(연 30건 발간)는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적기 분석을 통해

시사점 또는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외부기관의 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지향한다. 2018년 발간 건수는 전년대비 150% 증가하여 보다 다양한 현안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896회 언론보도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IV-9-1-2 | 2018년 『중소기업 포커스』 발간 현황

연번	제 목	연번	제 목
1	암호통화 블록체인의 활용과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혁신	16	한·인도 수교 45주년, 중소기업의 진출 전략 과제
2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25년, 성과와 향후 과제	17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3	영세성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혁신성 제고 방안	18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4	중소기업 R&D 인력현황 및 시사점	19	4차 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5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	20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6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21	韓·獨 스마트팩토리 정책 비교 및 시사점
7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ODA 정책과제	22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법 발전방향
8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23	이슬람(할랄) 시장 현황 및 진출전략
9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 성과와 개선과제	24	리쇼어링 2.0 필요 :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10	최근 기업가 정신 현황 및 시사점	25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현황 및 활성화 현황
11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진단과 해외 정책 사례	26	지역 '혁신성장'과 'R&D 중소기업'
12	빅데이터 정책의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	27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는 있는가?
13	미 중소기업 기술혁신(SBIR) 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	28	창업공간의 재해석 : 공동일터에서 공동 삶터로
14	소상공인 과밀수준, 어느 정도인가?	29	2019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 및 정책이슈
15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30	미중무역전쟁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나) KOSBI 경제동향

「KOSBI 경제동향」(연간 12회 발간)은 중소기업 관련 통계 데이터의 생산·가공·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00개 제조 중소

기업의 매출액, 수익률 등 실질 경영환경을 조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패널조사”, 경기 종합지수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매월 작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 업종별 부가가치 분석”, “해외중소기업 통계현황” 등이 있다.

다) 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학문적 개념 확립과 논리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발간된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중소기업 맞춤형 학술연구지로서 기존 학회지와 차별화된다. ‘2021년 KCI 등재(후보)지 선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간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학술지 정책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표 N-9-1-3 | 2018년 『중소기업 정책연구』 주제 및 논문 구성 현황

구분	호별 연구 논문 구성 현황
〈1호〉	<input type="checkbox"/> 제조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연구/ 오동윤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내수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 백훈 <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판로지원정책 방안/ 이동주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세경
〈2호〉	<input type="checkbox"/> 골목상권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박주영 <input type="checkbox"/>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있어서 영세사업자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이재형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과밀의 계측방법과 과밀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전인우·정완수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위상변화에 따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타당성 검토/ 남윤형
〈3호〉	<input type="checkbox"/> 창업실패두려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김영희·양동우 <input type="checkbox"/> 한국의 소셜벤처 특성 연구/ 박민진·김태영 <input type="checkbox"/> 상생협력 동반성장의 체계적 연계와 동반성장 평가 혁신 방안/ 이종욱 <input type="checkbox"/> 일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정화·이면현

주)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연3회 발간

3) 연구기반 구축

정책 DB 콘텐츠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연구의 인프라 환경 구축 등이 포함된다. 관련 주요 과업으로는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DB 업데이트(수시), KOSBI 중소기업 정책동향 브리프 발간(월간), 웹진 발행(격주), 주요국 중소기업 정책 핸드북 업데이트(연간), 이슈별 해외 중소기업 정책 심층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가) 정책 DB 내실화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비교 및 해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주요국(미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의 중소기업 관련 정의, 법령, 정책지원 기관 현황, 정책 정보 등을 조사·정리하여 가시성이 제고된 정책 핸드북 형태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정책 연구 자료의 지속적 등록을 통한 정책연구 DB 내실화 작업도 꾸준히 수행 중이다. (2018년 누적기준 국내 7,817건, 해외 12,242건 등 총 20,059건의 자료 등록)

나) 정책동향 브리프 e-letter

중소기업 정책 관계자 및 유관기관 정책 수요자 등에게 정책동향 정보를 월 1회 제공하고 있다. e-letter와 같은 경우는 14,500여 명의 회원에게 온라인 형태로 격주 간격 발송된다.

다) 연구포털 개선

2018년 연구포털 재구축을 통해 연구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행정 업무처리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연구과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결재 등을 연계하여 시스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4) 정책 공유

중소기업 정책의 당위성 확보 및 연구교류 기반 확대,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 활용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책공유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정책 공유 사업의 경우, 크게 정책연구회와 학술 세미나 등으로 구분된다.

가) 정책연구회

정책연구회는 분과별 시의적절한 현안이슈를 선정하고 이슈에 대한 정책관계자들 간의 정보공유 및 토론이 핵심이다. 2018년에는 13개 분과(벤처/판로, 중소기업혁신성장, 60년사, 중소기업중심경제A, 중소기업중심경제B, 기업가정신확산, 글로벌통상,

지원사업성과분석, 합리적납품단가, 중소기업정책혁신, 동반성장, 통일/동북아, 소상공인)에 걸쳐 총 62회를 실시했다.

나) 학술세미나

분야별 전문기관과 공동 포럼·세미나 개최를 통한 대외기관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학술세미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8년에는 총 20회를 수행하여 전년도 총 5회 개최에 비하여 학술세미나를 대폭 확대·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유관기관 중심의 공동세미나에서 확장하여 국회의원, 연구회, 위원회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외연을 확대할 수 있었다. 특히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 전략 공유 세미나인 ‘KOSBI 글썸?!’를 9차례에 걸쳐 개최하면서 행사의 연속성 및 집중도를 강화했다. 세미나에서 유의미한 사례를 정책연구과제 수행 및 성과로까지 연계하고자 했던 것이 주요 추진 방향이었다.

표 IV-9-1-4 | 2018년 학술세미나 수행 실적

일 자	행 사 명
'18.04.20 ~ 12.21	<input type="checkbox"/> 제1~9회 KOSBI 글썸?!(글로벌 강소기업 성공전략 세미나)
'18.05.14	<input type="checkbox"/> 근로자와 이익을 나누면 기업의 성과가 높아진다/성과공유제의 이해와 사례 공유
'18.06.15	<input type="checkbox"/>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18.06.25 ~ 6.26	<input type="checkbox"/> 한국경제연구학회 제17차 국제학술대회(Challenges and New Approaches for Aging Society)
'18.09.07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18.09.13	<input type="checkbox"/> 한국의 자영업: 현황, 대책, 발전방향
'18.10.26	<input type="checkbox"/> 2018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재정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18.11.9, 12.14	<input type="checkbox"/> 제1~2회 중기정책 원로 초청 세미나
11.16	<input type="checkbox"/> 2018년도 남북경제협력 관련 세미나(남북한 산업협력 체제의 구축방안)
11.28	<input type="checkbox"/> 창업생태계 활성화 제고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
12.17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 방안과 과제 세미나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평가 및 교육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평가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효율화, 규제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며, 교육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교육과정이 있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평가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중소기업연구원은 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을 구축·운영 중이다. 분석 대상 사업에는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이상인 사업들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지원사업 정보를 구축하였다. 초기 중기청 및 중앙부처 일부 사업에 대한 지원이력 구축에서 시작하여 분석범위를 쉰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사업까지 확대하였고, 나아가 수요자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도에는 682개의 관리대상 사업(내역사업 기준 1,134개)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수혜 중소기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력 정보의 신뢰성이 기존에 비해 크게 제고되면서 2018년도에는 관리대상사업을 888개(내역사업 기준 1,436개)로 보다 확대하였으며, 221만개 기업, 563만 건(533조 원)의 지원이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상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총 7,481건(사업공고)을 제공하였고, 정책 페이지뷰(Page View) 1억 7천만 건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조회수가 24.8%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기업마당 방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145만 건, 누적 가입회원 수 12.1만 명을 기록하였다.

표 IV-9-1-5 | 통합관리시스템 정책정보 제공건수/페이지부 및 기업마당 활용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제공건수	6,620건	7,233건	7,481건
페이지부	98백만 건	141백만 건	176백만 건
방문수	855만 건	1,006만 건	1,145만 건
누적 가입회원수	9.7만 명	10.8만 명	12.1만 명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통합관리시스템의 객관적 자료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지원효과, 운영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유사·중복 사업 및 정책개선 발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6개 부처, 13개 사업(3,252억 원 규모) 관련, 유사·중복성 검토 및 통폐합 등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변경 시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기본법 개정 및 운용지침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지원한 수혜기업의 경영개선 효과(매출·수출·고용 증가율) 등에 대한 분석하고, 전 부처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 해당 정보 분석 결과를 각 수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 일조했다.

다) 규제영향평가사업

중소기업연구원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분석서 작성) 및 총리훈령(제638호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위탁업무를 수행 중이며, 이는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분야별(5개 분야 : 국토·해양, 환경, 보건·국방, 경제·고용, 산업안전 및 기타) 전문가 자문과 규제동향 파악 등 관련 연구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2018년도 규제영향평가사업 결과 신설·강화규제 총 649건(306개 법령)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수정의견 50건을 제출하였고, 이 중 28건이 반영되었다. 수정의견의 반영을 통해 2019년 이후 32,408개 중소기업에게 매년 약 1,342억 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중기부와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진행하여 19개 규제를 발굴하고 이중 16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교육 사업 : 중소기업 정책전문가 교육과정

2018년도에 중기부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5개 교육과정(총 10회 실시)을 운영하였고, 총 240명이 수료하였다. 교육과정은 신규자·정책기획자·정책실행자·정책관리자·정부협업자(산하 및 유관기관)으로 나뉘어 직급별 역량에 맞추어 실시되었다.

신규자 과정은 중기부 조직 내 빠른 적응과 효과적인 업무파악을 위한 내용으로 77명(연2회)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재직자의 경우 정책기획(5급), 정책실행(6급), 정책관리(중견 사무관)로 구분하여 정책결정 과목 구성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167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중소기업 정책공유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부협업 과정에는 59명의 산하 및 유관기관 직원이 교육을 수료했다. 직급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2018년 강사 및 교육운영 만족도가 89.7점으로 전년 (87.8점)대비 2.2%가 상승하였다.

표 IV-9-1-6 | 2018년 정책전문가 교육과정 추진 현황

(단위 : 명, 점수)

구분	신규자 과정			정책기획		정책실행		정책 관리	정부협업		계	
	상반기	하반기	9급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차	2차		
수료자	26	20	27	17	9	30	43	12	29	27	240	
만족도 평가	강의	89.8	84.2	91.0	85.8	86.6	84.9	88.0	92.8	85.5	85.8	87.4
	운영	90.9	81.4	91.7	92.6	93.8	94.4	94.8	95.0	90.1	94.9	92.0
교육생 평가	사전	57.3	74.8	-	-	-	-	-	-	-	-	-
	사후	66.3	69.3	-	-	-	-	-	-	-	-	-
교육기간	8박10일		4박5일	2박3일		2박3일	1박2일	1박2일	1박2일		-	

제10장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1

일반현황

(사)한국산학연합회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3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 사업」의 시작과 함께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1998년 1월 중소기업청의 허가과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산학연컨소시엄전국협의회」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3월에 현재의 명칭인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로 변경하였다.

협회는 대전에 소재하여 2본부 7팀 구성되어 있으며, 16개의 지역협회와 1개의 연구기관협회를 보유한 전문성과 독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산학연협력 관련 국내 유일한 기관이다. 협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협력 교류 지원, R&D 기술전문가 매칭,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효과적인 민간주도의 산학연협력을 위한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산학연협력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산학연협력 문화조성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지원정책과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1993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및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발굴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지방중소벤처 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합회가 상호 협조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학연합회는 지원사업의 주체인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의 공동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지원규모는 1,395억 원이며, 지원내용은 정부R&D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 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첫걸음협력(372억 원),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협력(296억 원),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마을과제(167억 원), 인적·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연전용과제(324억 원),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79억), 전국의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106억 원)으로 구분된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V-10-1-1 | 최근 5년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과제수	1,852	2,141	2,082	1,701	1,603	9,379
지원금액	145,822	152,003	138,236	130,814	139,478	706,353

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신제품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혁신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은 전문가 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제품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서는 시범구매 신청만으로 공공기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영업이 필요 없이 판로개척이 가능해지며, 공공기관에서는 감사 부담 없이 성능이 검증된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업무 혁신이 가능해져 이를 통해 창업 및 첫걸음기업에 대한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 참여자격을 완화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 반영을 통해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한 결과, 2018년 기준 38개 공공기관이 69개 제품, 268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정하여 공공구매시장 진출이 어려운 창업 및 판로개척 단계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 연결을 지원하였다.

표 IV-10-1-2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 현황(2018년)

(단위: 개, 억원)

사업명	창업기업	일반기업		전체
		첫걸음	첫걸음	
선정제품수	42	24	84	126
구매금액	32	13	236	268

다. 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뿌리산업은 자동차, 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최근에는 로봇,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을 위한 기반으로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뿌리기업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등, 기능·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단순노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2018년 10억 원 규모의 용역을 통해 국내 뿌리기술 전문가(대한민국 명장 등)를 활용하여 기술전수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사업(코칭 및 전승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였다.

뿌리기술 코칭은 6대 뿌리기술 분야 코칭전문가에게 기술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뿌리기업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재직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 코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 내 자발적인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뿌리기술 코칭에 참여한 기업과 학교들은 불량개선, 공정개선, 신제품개발 등의 기술적 성과와 작업시간 단축, 생산성향상, 생산단가절감 등의 경제적 성과 등을 거두었으며 높은 만족도와 19년도 재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협회는 본 사업의 품질 유지를 위해 뿌리기술 전문가의 기술지도 역량에 초점을 두고 전문가 스کیل업 교육을 실시하여, 교수법 및 컨설팅 역량 향상,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표 IV-10-1-3 | 2018년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실적

사업명	지원내용	실적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기술전문가가 기업·학교에 방문하여 기술 전수	기업 89개사 특성화고 31개교
	기술전문가의 기술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1회 실시

라. 상용화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산연협력과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선정된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발 완료된 기술(제품)은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구매조건부 산연협력과제는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신규 개설되었으며, 협회는 '17년 32개, '18년에는 30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였다.

중소기업의 산연협력과제 성공적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정산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본 교육은 4회에 걸쳐 184명의 교육 수료생 배출과 함께 우수한 수준의 참여자 만족도(89.7%)를 확보하였다.

또한 구매조건부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여 16개사에 대한 전문 컨설팅기관을 매칭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다.

마.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전통시장-대학협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째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융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둘째로, 대학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쇠퇴한 전통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리기관)과 한국산학연합회(전문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2018년까지 진행하였다.

2018년 27.4억 원의 예산으로 17개 대학에서 특화상품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2017년까지 163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다.

표 IV-10-1-4 | 3년간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지원예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	2,730	17	2,770	17	2,744

바.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R&D Life-Cycle 전 주기의 이해 및 기획력 향상을 제고하고 있다.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은 2 Track(Track 1-협회, Track 2-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운영하여 교육을 통해서 는 기업의 R&D기획력 성장을 위한 지식향상을 지원하고 코칭을 통해서 는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법, 사업화를 핵심주제로 R&D 수행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핵심주제 이외의 수요자 니즈도 반영하여 방문형교육, 협약설명회교육, IP 역량강화교육, 세미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였으며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 주말교육 및 온라인 교육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본 교육·코칭은 2018년 297회 운영하여 4,938명이 수료하였다.

표 IV-10-1-5 | 2018년도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 운영현황

(단위 : 명, %)

		구분	교육회차	교육수료	만족도
Track1	정규 교육	일반과정	12회	395	88.1
		전문과정	12회	492	85.7
		종합과정	2회	70	85.2
	방문형교육		5회	194	84.1
	협약설명회 교육		4회	320	78.6
	IP역량강화 교육		2회	75	84.9
	세미나 교육		1회	57	87.5
	소 계		38회	1,603	86.0
Track2	교육	67회	2,430	-	
	코칭	192회	905	-	
소 계		259회	3,335	-	
총 계		297회	4,938	-	

사.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대학·연구기관의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R&D기관(대학·연구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매개자의 역할 수행능력 등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또한 협회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원활한 산학연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역량 검증을 위해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의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취득 준비를 위한 종합교육과 자격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책임자교육으로 구분되며 2018년 교육 수료자는 505명,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 취득자는 119명이다.

표 IV-10-1-6 | 2018년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운영현황

구분	교육과정	시작일	종료일	수료인원
2018	종합교육	2018-04-11	2018-04-13	101
	보수교육	2018-05-03	2018-05-04	87
	책임자교육	2018-05-31	2018-05-31	70
	종합교육	2018-08-22	2018-08-24	99
	책임자교육	2018-11-15	2018-11-15	46
	보수교육	2018-11-29	2018-11-30	102
합 계				505

표 IV-10-1-7 | 2018년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시험현황

시행년도	구분	일시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2018	상반기	2018-06-30	121	106	43	40.6%
	하반기	2018-11-24	134	123	76	61.8%
합 계			255	229	119	52.0%

아.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공공기술이전 로드쇼는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개발되는 우수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고자 2013년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간의 협업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기업이 이전 기술을 기반으로 추가 R&D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이후 사장되고 있는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을 매칭하기 위해 추진되는 로드쇼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과학부가 참여하여 현재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특허청 등 6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2013년 사업 개시 이후 꾸준히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홍보 및 참여 독려, 로드쇼 행사 주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산학연Plus 시스템을 통해 1,061건의 공공우수기술을 공개하였다.

표 IV-10-1-8 |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개최 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1차)	하반기(2차)	상반기(1차)	하반기(2차)	상반기(1차)	하반기(2차)
일자	6.29	11.10	5.12	11.23	5.24	10.19
장소	서울	포항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주최	산업부·미래부·중기청 특허청·국토부·포항시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특허청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특허청	
발굴기술	479건	566건	462건	986건	372건	689건
상담기업	64	32	36	58	30	78
매칭건수	53	40	23	43	18	33

제11장

(주)공영홈쇼핑

1

일반현황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고, 공정한 유통거래 선도 및 상생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상법」 제4장 제1절에 의거하여 2015년 3월 5일에 설립되었다. 2015년 7월 14일에 채널명 ‘아임쇼핑’으로 개국 후, 2018년 11월 1일에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임 의지를 담아 ‘공영쇼핑’으로 채널명을 변경하였다.

공영홈쇼핑의 조직은 4본부 10실 3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과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능 및 채널별로 중기상품실, 식품상품실, 마케팅전략실, 고객지원실, 온라인운영실, 방송운영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6개 홈쇼핑사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로만 100% 판매 방송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사 홈쇼핑 대비 평균 10% 이상 낮은 20% 판매 수수료율로 운영하고 있다. ('18. 4월부터 판매수수료율 20% 시행)

TV 채널 중심에서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3 스크린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사업 및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직매입 판매·해외 수출 등의 다양한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상생·협력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상품개발에서부터 입점·홍보 지원 및 창업 상품의 명품화 육성까지 초기 창업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중소기업 제품 및 우리 농수축수산물물의 판로지원기능 수행

공영홈쇼핑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높은 시장 진입장벽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TV 채널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로지원 및 상품개발·홍보지원 등 중소기업 종합 마케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TV홈쇼핑 '공영쇼핑' 채널 운영

2015년 7월 14일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공영쇼핑'을 개국하여 2018년까지 총 5,684개 상품에 대하여 1조 8,767억 원의 판매 지원을 하고 있다. 다른 홈쇼핑사 대비 10% 이상 낮은 최저 판매수수료율로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며 상생협력의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IV-11-1-1 | 공영쇼핑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 분	2015년 (7.14~12.31)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판매지원액	912	588	3,023	2,034	3,339	2,489	3,319	3,063	18,767
지원상품수	407	382	926	639	1,068	673	906	683	5,684

'공영쇼핑' 채널 운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만을 100% 판매방송 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수익보다는 상생협력·지역발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영 최우선 순위 목표로 하고 있다.

2) 창업·벤처기업 제품들의 시장 진입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기술력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높은 시장 장벽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

벤처기업들의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들을 개국 후 4년간 1,420개 발굴하여 3,287억 원의 판매 지원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용 판매 프로그램 방송 및 일반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통해 판매방송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표 IV-11-1-2 | 창의혁신 제품 판매지원 현황

구 분	2015년 (7.14~12.31)	2016년	2017년	2018년
판매지원액	148억원	592억원	916억원	1,631억원
지원상품수	76개	284개	508개	552개
편성비중	9.6%	12.7%	21.9%	28.3%

* 창의혁신제품 중심으로 무료광고(제품 소개 영상) 지원 : ('18년) 76개 제품 / 1,372회

표 IV-11-1-3 | 판매지원 중인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창의혁신 상품들

구 분	주 요 내 용
스타트업 상품	○ 창업초기(창업 5년 이내) 기업 상품
벤처기업 상품	○ 벤처기업 등 신기술 개발 상품
정책지원 상품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육성 상품 * 창업지원, R&D지원, 마케팅지원, 자금지원 대상 상품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기업 상품	○ 정부기관 인증기업 및 인증기업의 상품 *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굿디자인 인증, NET인증, NEP인증 등
국제규격 인증 상품	○ 국제·해외 규격 인증 상품 * ISO, CE, FCC, UL 인증 등 / 국내·외 발명대전 수상 상품
각종 특허 상품	○ 특허출원 및 등록,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의장등록 등 ○ 기술 또는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상품
문화창달 상품	○ 국내 지자체 축제, 관광지 등과 연계한 문화여행 상품 ○ 국내 농·어촌 체험 및 문화 체험상품
전통시장 상품	○ 전통시장 연계판매 상품
사회적기업 상품	○ 사회적 기업 생산 공익 상품
국가기술이전상품	○ 국가기술 사업화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생산한 상품 ○ 농업기술원 등의 기술이전을 통한 상품 등
소비자 추천 상품	○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 상품, 크라우드 펀딩 상품
기타 창의혁신 상품	○ 기능 또는 디자인 등 창의혁신성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상품

3) 중소기업 제품들의 명품화를 위한 우수 상품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집중 판매홍보를 통해서 4년간 378개의 우수상품들

(연 취급 매출액 10억 원 이상)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 있다.

표 IV-11-1-4 | 우수상품 판매지원 · 육성 현황

구 분	10~20억	20~30억	30~50억	50억 이상	합계
2015년	22	1	0	0	23개
2016년	87	23	9	1	120개
2017년	79	27	10	3	119개
2018년	77	16	16	7	116개
소계	265	67	35	11	378개

4) 온라인 채널(인터넷·모바일) 육성을 통한 판로지원의 확대

TV홈쇼핑 채널의 판매방송 편성시간의 물리적 제약과 성장률이 둔화되어 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판로지원 확대를 위하여, 2015년 10월 12일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였다. 외부 제휴 확대 및 광고 활성화로 약 3년 만에 1,500억 원 채널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화면개선·소비자 이용편의 제고·프로모션 강화·상품 확대 등의 집중 육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판로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표 IV-11-1-5 | 온라인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구 분	2015년 (10.12~12.31)	2016년	2017년	2018년
판매지원액	69억원	579억원	1,010억원	1,505억원
운영상품수	7,564개	57,337개	335,079개	339,849개

나.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공영홈쇼핑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상품개발·마케팅 코칭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및 상생협력을 위해 4년간 27개의 정부기관·지역자치단체·유관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품발굴·지역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판로확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표 IV-11-1-6 |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현황

체결일	업무 협약처	체결일	업무 협약처
'15. 8. 31	농협 중앙회 전북지역본부	'16. 11. 3	경주시
'15. 10. 2	서울산업진흥원	'16. 11. 9	경상남도
'15. 10. 13	충청북도	'17. 2. 6	양산시
'15. 10. 29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17. 2. 20	강원도
'16. 1. 26	산림조합중앙회	'17. 5. 12	충주시
'16. 1. 2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7. 7. 11	충청남도
'16. 4. 28	경상북도	'17. 7. 21	한국농어촌공사
'16. 5. 10	경기도	'17. 8. 21	파주시
'16. 5. 25	제주테크노파크	'17. 11. 9	인제군
'16. 6. 17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18. 1. 2	대한상공회의소
'16. 6. 20	창업진흥원	'18. 8. 3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6. 7. 15	제주도	'18. 10. 19	경상북도
'16. 9. 9	소상공인진흥공단	'18. 11. 29	담양군
'16. 10. 19	하동군		

'18년 중기부 및 농림부·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우수상품 발굴 확대를 위해 전국 9개 지역에서 34회의 입점 설명회를 진행하고, 박람회 등 전시관을 운영하여 상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책기관과 협력하여 상품 품평회에서 45회의 마케팅 코칭 등을 지원하였다.

2) 기획 판매방송 프로그램의 고정 운영을 통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방송품질 개선 및 차별화된 테마 등을 개발하여, 공영쇼핑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면서 마케팅이 필요한 상품들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7개의 고정 판매방송을 운영하였으며, 특별 기획전 등을 운영하여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IV-11-1-7 | 고정 판매방송 프로그램 운영 현황('18년 생방송 기준)

(단위:백만원)

프로그램명	판매방송 횟수	주문목표	주문실적	달성률
TV행복한백화점	51회	9,301	8,205	88.2%
TV하나로마트	52회	4,727	4,713	99.7%
어랍쇼	65회	6,628	6,381	96.3%
썸언니의뷰티쇼	36회	6,588	5,696	86.5%
프리미엄식품관	32회	2,843	2,622	92.2%
창의혁신날개달아드립니다	52회	4,616	4,342	94.1%
우리는한국인	10회	1,596	1,578	98.9%
합계	298회	36,299	33,537	92.4%

* '18년 상시 운영한 원데이 특별전 운영 현황

특별기획
판매방송 프로그램○ 쌀데이(8/17), 고추데이(10/25), 김장콘서트1(11/13),
뷰티데이(11/14), 김장콘서트2(11/26)

3

향후 추진방향

가. 기관 고유의 공공성 기능 제고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의 100% 방송판매 편성과 업계 최저 수수료율 20%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강화하여 중소기업들이 시장 진입부터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인큐베이팅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 첫걸음기업의 시장진입 촉진

첫걸음기업들의 홈쇼핑 진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혁신 제품들의 초기 판로개척의 디딤돌 역할 수행하여 중소·창업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첫걸음기업들의 방송 최소 횟수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판매방송 편성비중을 '19년 50% 목표로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다.

* 첫걸음기업 : TV홈쇼핑 및 공영홈쇼핑에서 방송 판매 경험이 없는 생산업체

2) 벤더 납품거래 구조개선

민간 벤더 거래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일부 대형벤더 거래 집중현상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과도한 벤더 수수료율 적용 및 납품대금 지급 지연/미지급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들을 방지하고자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직거래 편성비중을 '20년까지 60% 편성 목표로 하며, 민간 벤더사를 통한 홈쇼핑 입점 행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나. 판로지원 확대 및 마케팅을 통한 영업 경쟁력 강화

1) 모바일 채널의 판매 확대

TV채널 성장이 정체되고 온라인채널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며, 온라인 매출 중 모바일 비중이 '15년부터 인터넷(웹) 비중을 추월하는 상황 속에서,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지원 비중은 20%대에 그치고 있다. 향후 TV채널과 연계한 e커머스 구현, 상품 Pool 확대, 프로모션 강화, 제휴물 확대 등을 통하여 모바일 중심으로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판매 지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2) 방송 화면 개선 및 차별화 프로그램 구현

스튜디오 리뉴얼을 통해 조명 및 방송세트를 개선하여 화면 품질을 향상하고, 방송 디자인 리뉴얼을 진행하여 고객들에게 상품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상품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고객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3) BI 개선을 통한 마케팅 강화

기존 BI는 법인명 '공영홈쇼핑'과 채널명 '아임쇼핑'이 혼용되면서 고객들에게 혼선이 제공되었다. '공영쇼핑'으로 BI를 개선함으로써 통합이미지를 제공하고 공영쇼핑만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새로운 BI 개선을 기반으로 공공캠페인 활성화 등 마케팅을 강화하여 공영홈쇼핑과 타 홈쇼핑사와의 차별화된 프레임 설정 및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제12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일반현황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장애인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장애인 창업 촉진 및 기업 육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장애인의 경제 참여율을 제고하고 비장애인과의 상생협력 및 공존 실현에 기여하고자 '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조직은 2본부 3실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기업육성사업은 센터운영,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장애인 창업육성의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 창업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우수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및 창업보육실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 참여 기회 확대, 판로(수출 등) 및 기술 사업화 지원, 장애인기업제품 인식개선 및 우선구매 활성화 등 장애인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 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 비장애인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장애인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정부는 경제주체로서 장애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장애인기업을 통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은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인식 개선 및 창업저변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08년부터 운영되어온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은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표 IV-12-1-1 | 연도별 창업교육 수료생 수

(단위 : 명)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교육수료생	187	181	241	834	864	953	976	984	1,157	1,400	1,553

'18년의 경우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보다 용이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총 162명이 수료하고, 이중 43명이 창업하여 26.543%의 창업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 기초,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8대 선도사업 중 장애인 창업이 용이한 아이템의 특화과정을 개설하여 곤충 및 버섯 창업 등 스마트팜 관련 영농특화교육과 ICT기술창업과정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IV-12-1-2 | '18년 기술교육 현황

교육기관	교육내용	18년 추진실적
서울대학교	ICT 기술창업 특화교육	교육수료 21명
안동진명학교	발달장애인 영농창업지원 및 영농기업 육성 (곤충, 버섯 창업)	교육수료 17명
공주대학교	장애인 영농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곤충창업 및 팜세어 제공)	교육수료 32명

'19년에는 기술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기존 3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교육과정의 온라인 확대를 통해 교육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정 내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 준비에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많은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여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장애인 예비창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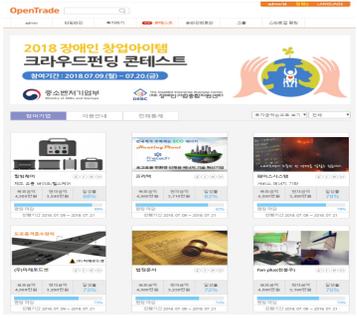
및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발굴·포상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총 11개의 아이템에 대한 시상 및 포상을 하며, 수상자에게는 장애인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 시 우대 지원한다.

‘18년부터는 모의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의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은 전문평가단을 통한 창업아이템의 가상투자 방식으로, 대상자별 IR자료를 구축·검토하는 모의투자 방식을 통해 아이템의 가치를 평가하여 창업아이템의 시장성과 사업성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다.

그림 31 | 모의크라우드 펀딩 자료

	
<p>모의크라우드펀딩 평가 홈페이지 사진</p>	<p>기업별 투자현황 결과자료</p>

‘19년에는 모의크라우드 펀딩 결과치 반영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여 시장 성과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고, 점수 산정 기준을 기존 5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하여 보다 세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3)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18년 신설 사업인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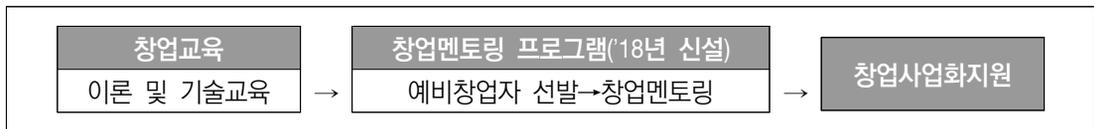
매장 모델링,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비용에 최대 10백만 원, 청년(만 39세 이하)장애인의 경우 20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며,

‘18년은 90명의 창업자 중 청년창업자는 38명(42%)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수요 검증이 가능하였다.

특히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과 연계되어 교육에서 컨설팅, 창업까지의 패키지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통합 창업지원을 수행하였다.

그림 32 | 창업지원 프로세스



‘19년의 경우 창업에 취약한 환경인 여성장애인에게 가점(2점)을 부여하여 성평등 및 성인지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기존 지원범위 외 집기 및 기자재 구입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창업 시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할 예정이다.

4) 창업보육실 운영

사업 공간 등 창업인프라 지원을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특화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총 132개 보육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장애인기업만 입주 가능하다.

입주 시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판로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3.3㎡당 1만원의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표 IV-12-1-3 | 창업보육실 현황

지역센터	규모(㎡)	보육실 수(개)	지원시설
서울	2,135	14	보육실(본관 11개, 별관 3개), 대강당, 회의실, 재단사무처 등
대구	503	6	보육실(6개), 회의실 등

지역센터	규모(㎡)	보육실 수(개)	지원시설
광 주	527	9	보육실(9개), 창업준비실, 대강당, 회의실 등
부 산	686	9	보육실(9개), 창업준비실, 회의실 등
대 전	420	6	보육실(6개), 회의실 등
경 기	663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인 천	313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경 남	298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울 산	429	8	보육실(8개), 대강당, 회의실 등
전 북	322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강 원	310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제 주	268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전 남	333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충 북	326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경 북	412	8	보육실(8개), 대강당, 회의실 등
충 남	370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합 계	8,315	132	

나.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1) 수출 및 판로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은 수출지원 및 공공판로 지원 등을 통한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수출지원 사업은 '18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8년부터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장애인기업 8개사를 선정하여 UAE(두바이)에 파견하였으며, '19년에는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총 20개사의 장애인기업을 선정하여, UAE(두바이)와 베트남(호치민)에 각 10개사를 파견하였다.

'18년에는 한국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와 SCHS(UAE 장애인기관) 등의 현지 유관 기관과 장애인기업 중동지역 판로확대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지 유관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인기업 대상 현지 수출동향 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하였다. 수출상담회 파견 8개사 중 5개사가 수출계약을 이루었으며, 총 67만\$의

수출계약액을 달성하였다. 수출상담회를 포함하여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온라인 마케팅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지원 등의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을 통하여 총 23개사가 470만\$의 수출금액을 달성하였다.

'19년에는 '18년 신규로 구축한 수출 인프라를 바탕으로 UAE 외에 베트남을 지원하는 등 수출국을 확대하였으며, 수출지원업체 수도 총 8개사에서 총 20개사로 확대 지원하였다.

'19년에 신규로 지원된 베트남 무역사절단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치민 지부,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한국무역협회 호치민 지부 등 공공·민간 기관과의 협업을 동시 추진하였다. 향후 해외 유관기관과 정책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판로지원사업은 국내외 입찰정보 제공 시스템, 공공판로(입찰 및 MAS)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입찰정보 제공 시스템(판로지원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납품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1순위 애로사항인 입찰정보 확보의 어려움('17년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을 해소하고 있다. 판로지원 시스템은 나라장터 외 학교장터, 정부투자기관, 해외입찰정보 등을 총망라해서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8년 판로지원시스템의 입찰정보 제공을 통해 발생한 낙찰 건수는 561건이며, 총 낙찰금액은 559억 원에 달한다.

또한,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은 입찰참여 희망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입찰 및 MAS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18년에는 다수공급자 계약(MAS)을 통해 구매실적 764건과 매출 26.7억 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입찰컨설팅은 총 21건의 낙찰건수와 16.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2)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지원은 장애인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을 두고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국내인증획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내권리화의 경우, 특허 1,000천원, 실용신안 700천원, 상표/디자인 3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권리화의 경우 특허(PCT, 개별국) 3,000천원, 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2,500천원, 디자인(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2,800천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18년 지식재산권 지원은 해외권리화는 4건이며, 국내권리화는 77건(디자인 6건, 상표 5건, 실용신안 5건, 특허 61건)을 지원하였다.

인증획득지원은 국내인증획득 관련 비용의 최대 80%, 3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ISO인증(3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7종), 조달가점 법정 의무인증(9종), 기업인증(3종)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8년 국내인증지원은 총 66건을 지원하였다.

시제품제작지원은 초기단계 기술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제작비용의 최대 90%,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목업 분야, 시제품 금형분야로 나뉜다. '18년은 총 25개사(제품디자인 및 목업 16개사, 금형 9개사)를 지원하였다.

3) 장애인기업등록 및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우선물품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의거, 공공분야에서 장애인기업 물품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조건 및 비율을 1%(의무사항)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시장에 대한 판로기반을 조성하였다.

표 IV-12-1-4 | 장애인기업 등록절차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6년 전체 116.9조원 대비 1.3조원 (1.1%), `17년 전체 123.4조원 대비 1.5조원(1.2%), `18년 전체 123.4조원 대비 1.8조원 (1.4%)을 달성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V-12-1-5 |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공공구매	1,169,311	1,234,078	1,234,134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13,231	15,406	17,677
총액 대비 비율	1.1	1.2	1.4

또한 장애인기업 등록업체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선구매제도 활성화가 예상된다.

표 IV-12-1-6 | 등록 장애인기업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등록 장애인기업 수(개)	3,096	3,467	3,839

제13장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 균등과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62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말 기준 943개 협동조합(72,031개 업체)과 38개 중소기업 관련단체(606,044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조직화, 협동조합 운영지도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 중소기업 국제협력기반 구축 및 수출 지원,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중소기업 인력 및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가. 중소기업 조직화 및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창출, 생산,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기업간 협업,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 결과 2018년 25개 협동조합이 신규 설립되고 협동조합 기능을 상실한 24개 조합을 해산 조치하여 943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표 IV-13-1-1 |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 합 회	25	24	23	23	23
전 국 조 합	227	222	229	228	224
지 방 조 합	339	339	327	325	323
사 업 조 합	347	356	354	366	373
계	938	941	933	942	943
조 합 원 수	71,052	72,119	71,648	71,902	72,031

또한, 정부의 협동조합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사장 연임 2회 제한 규정 신설, 이사회 구성원의 이해상반 의결권이 제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임원선임 제한기간 확대 등과 같은 협동조합 자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의 체계적인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종합 실태조사 실시근거와 전자행정 실시 근거도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생태계 속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수행되었고 미래의 협동조합의 모습을 그려보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었다.

나. 협동조합 운영지도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조합원 관리, 총회 개최, 예·결산,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및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조합운동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회계·세무, 규정 제·개정 등 일반운영과 공동사업운영 등을 현장밀착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설치(2002.5)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준비조합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18년까지 2,433개 조합에 3,520회 방문하여 협동조합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하였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45개 조합이 업종별 특성 및 환경,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9년부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타 조합의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부문은 종합대상과 8개 부문별 대상(공동구매, 공동판매, 일자리창출, 해외시장개척, 유통·물류, 사회공헌, 특화사업, 신규부문)으로 나뉘며, 많은 협동조합들이 수상 조합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합발전과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표 IV-13-1-2 |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지원 현황

(단위 : 회, 개)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도횟수	2,085	338	344	384	369	3,520
지도조합	1,532	255	211	230	205	2,433

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협동조합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기반자금 내 협동화자금을 활용하여 2018년 3개 조합, 25억 원을 추천하였다.

표 IV-13-1-3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자금) 추천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07~'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추천조합	156	6	4	6	3	175
추천액	1,292	27	22	25	25	1,391

또한 공동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재원 및 인력부족으로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3년 1월 중소기업 DMCT아워에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지원센터에 입주한 협동조합은 임차보증금, 임대료, 비품 등을 지원받으며, 최대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2015년 9월 강원지역, '16년

1월 제주지역 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 9개, 강원 3개, 제주 2개 조합이 입주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은 구매물량이 적고 현금, 신용, 담보 등 구매력이 부족하여 높은 원부자재 단가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 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용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참여기업의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은 참여기업의 소요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보증재원을 매칭 출연하여 총 600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22년까지 총 6,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표 IV-13-1-4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특징

구 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신보 보증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율 90% 이상(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3%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수수료(대출금리) 0.5%p 자동감면 -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라. 협동조합 단체표준제도 운영지원

협동조합 단체표준 운영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단체표준 및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단체표준·인증 신청에서 조합의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구축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기반 구축 및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단체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인증

단체 지정기준 연구 ▲단체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단체표준심의회와 분쟁협의 위원회를 운영 ▲적부확인 미실시 단체표준 중 활용도가 없는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한 대대적 정비를 실시하였다.

표 IV-13-1-5 | 단체표준 등록 및 인증현황

(단위 : 개)

구 분		조 합	비영리법인	합 계
등록	단체	76	81	157
	표준수	866	3,182	4,048
인증	단체	33	12	45
	보유표준수	334	195	529
	인증표준수	187	59	246
	인증업체수	3,266	856	4,122
우수	단체	15	2	17
	인증품목	79	11	90

2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부진,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발굴 및 건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정책건의, 각종 동향조사와 현안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환경을 조성하였다.

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발굴 및 정책건의

1) 중소기업 지원시책 개발 및 건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영애로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

공인의 현장의견이 더욱 시의성 있게 정부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248개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간 또한 금융·세제 및 규제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창업과 재도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던 법인 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지속 건의한 결과,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었다. (‘18.4.2일부) 고용·투자 등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책을 건의하였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 다수 과제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를 포함해 총 12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건의하였다.

2) 중소기업 정책 관련 토론회 등 회의 개최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부처장과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회 및 정당 대표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방안을 직접 건의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생산적 협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4회 개최하였다.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고자 중소기업 금융연구회를 5회 개최하였다. 2018년 중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개혁연구회를 새로이 구성하였으며 5회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이슈화하고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3) 중소기업 정책건의집 등 발간

중소기업 당면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 정부 등에 건의한 정책과제를 종합·정리하여 ‘중소기업 정책건의 집’을 발간하였다.

표 IV-13-1-6 | 중소기업 정책과제 건의 및 반영 현황(2018년)

(단위 : 건, %)

구 분	전체반영	반영		검토중	미반영	합계
		반영	일부반영			
전체 (비율)	377 (31.8)	246 (25.1)	131 (13.4)	394 (40.2)	208 (21.2)	979 (100)
분야별 (비율)	204 (30.7)	126 (23.5)	78 (14.5)	198 (36.9)	135 (25.1)	537 (100)
지역별 (비율)	173 (33.1)	120 (27.1)	53 (12.0)	196 (44.3)	73 (16.5)	442 (100)

* 자료 : 2018년 중소기업 정책건의집('19.5월, 중소기업중앙회)

나. 중소기업 관련 통계 생산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 기술개발투자, 제품판매, 수·위탁 거래, 인력, 재무구조 등 중소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서비스업의 연간 경영실태 전반을 파악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21,500개사)와 기술개발투자, 기술인력 등 기술개발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3,800개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본통계와 중소기업 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1,200개사)를 2회 실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신속히 파악하여 업계의 경영계획 수립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3,150개사)를 매달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별, 기업규모별, 시도별로 가공하여 '2018년 중소기업현황'을 발간하였고, 중소기업의 현 위상과 경제발전 공헌을 정확히 알리고 중소기업 정책 지표로 활용하고자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발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정책개발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지표'를 발간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중소기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를 발간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장애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혁신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300개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430개사),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1,056개사), 추석자금 수요조사(953개사), 자영업자·소상인 최근 경기상황 조사(300개사)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와 자금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정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300개사),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 및 정책 의견조사(300개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인식 조사(청년층 500명)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고용·일자리에 대한 인식 파악 및 일자리 인식개선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300개사),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부담현황 조사(293개사),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300개사) 등을 조사하여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부담금을 파악하고,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반부패·청렴의식 인식 현황 조사(306개사), 중소기업 투자 현황 파악 및 정책의견 조사(300개사), 중소기업 공동·협업사업 정책지원을 위한 의견조사(1,000개사) 등 총 37건의 정책기획조사를 통해 각 분야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접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공정거래질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1)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공정경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자 조사·연구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대정부·국회에 건의하는 등 정부 정책에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는 힘을 모아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확대(하도급, 수위탁거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불공정한 하도급법 처벌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령·고시 개정을 이루어냈다.

표 IV-13-1-7 | 주요 정책건의 반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법령·고시 등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확대(원재료비→공급원가) 위한 법률 개정(하도급법, 상생협력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 위한 법률 개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처벌기준 강화(공정위 고시 개정)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경제력 집중 억제, 처벌기준 강화 등)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 실시,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최를 통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하도급법’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2018년 접수된 8건 중 4건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하였다.

공정경제 하에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정착

동반성장지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지수 개편연구 및 동반성장지수 실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포스코와 동반성장 실천협약을 통해 공정원가 인정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QSS 등 상생협력 사업(5년간 75억 원)을 추진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하였다.

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도입을 건의하여 '11년 제도 도입 이후 '13년 상생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적합업종 실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18년까지 적합업종 109개 업종·품목 합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현행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정부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18.6.12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이루어냈으며, 동 법은 '18.12.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우수 중소기업 유통판로 지원

대형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증진코자 백화점협회와 MOU 체결을 통해 국내 5대 백화점에 중소기업 상생관을 설치·운영하고 상생소통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중소기업 입점 확대 및 판로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중소기업포럼(3회), 토론회(1회), 첨단물류센터 현장견학(1회) 등을 개최하여 유통업계의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 방송 입점 판매·홍보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지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산품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18년도 128개사를 지원, 약 43.6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라.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1)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미국 LA 사무소 및 아세안(베트남 호치민 소재) 사무소를 통하여 북미 및 아세안(ASEAN) 시장 진출 중소기업 지원, 현지 중소기업 조직화 및 정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민간대사 제도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다변화 등을 위해 할랄 수출상담회(7월)를 개최하는

한편 수출중소기업의 파견 편의확대를 위해 단체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며 업종별 전문 단체를 중심으로 해외전시회 단체한국관 파견 지원 135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59회 등 총 215.5억 원 규모로 지원하였다.

2) 해외 정부 및 기업인 네트워크 구축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맞춰 베트남·UAE(3월), 인도·싱가포르(7월), 프랑스(10월) 등 5개국에 3회에 걸쳐 중소기업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현지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정착 애로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동시에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한편,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라오스·말레이시아, 인도, 러시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통상정책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필리핀 대통령 초청 비즈니스 포럼(6월), 베트남 상공회의소 사절단 간담(6월), 미얀마 양곤주 의장 간담(10월), 이스라엘 前 총리 강연회(10월) 등 해외 각국 정부 및 중소기업인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통상현안 정책기능 강화 및 환경변화 대응

중소기업 무역참여 촉진방안 연구(4월), 중소기업 글로벌화 5대 혁신 과제 도출(8월),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9월),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9월) 및 성과분석(11월)을 실시하여 대정부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통상현안 이슈에 대해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트레이드 인사이트를 9회 발간하여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에 배포하였다. 신남방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아세안 및 인도와의 교역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남방 바이어 초청 상담회(11월)를 개최하였다. 국제통상위원회를 통해 수출중소기업과 소통하며 애로발굴과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수입급증 및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무역구제 절차를 진행시 필요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4)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남북경협시대 준비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관심도 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경제정보센터 사이트(onekorea.kbiz.or.kr)에서는 북한 경제, 정치 등 이슈와 전문가 칼럼, 전문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정보실(중소기업중앙회관 10층)에는 남북경협 관련 신문과 전문자료 등을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였다. 그 외에도, 북한 투자위한 관련법 설명회 등 중소기업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기업 경영현황 및 전망,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소기업계 대북진출의사 등 현안 발생 시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에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중소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여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변화를 추적하여 남한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북한 경제특구(개발구)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현안 공유 및 정보교류를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이슈 발생 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경협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전문가 집단과의 의견교류 및 향후 전망을 토의하였다.

마.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16.9)를 도입한 이후 ’17년 제1회 명문장수기업 6개사, ’18년 제2회 명문장수기업 4개사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승계 설명회 개최(年 5회), 기업승계 세제해설 핸드북 발간·배포(760권), 기업승계 실태조사 실시(‘18.12), 아름다운 바통 터치 포상(‘18.11), 명문장수기업 모범사례집 발간·배포(1,000권), 예비명문장수기업

간이진단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차세대 CEO 스쿨을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 및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3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가. 산업정책 개발 및 업종 경쟁력 제고

1)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건의, 입법화 추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16개 산업위원회를 운영(위원회 개최 54회, 정책건의 178건)하였고, 각 산업의 현장어로 수렴, 업계 현안과제 및 애로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이슈 선점과 선제적 대응정책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림 33 | 산업위원회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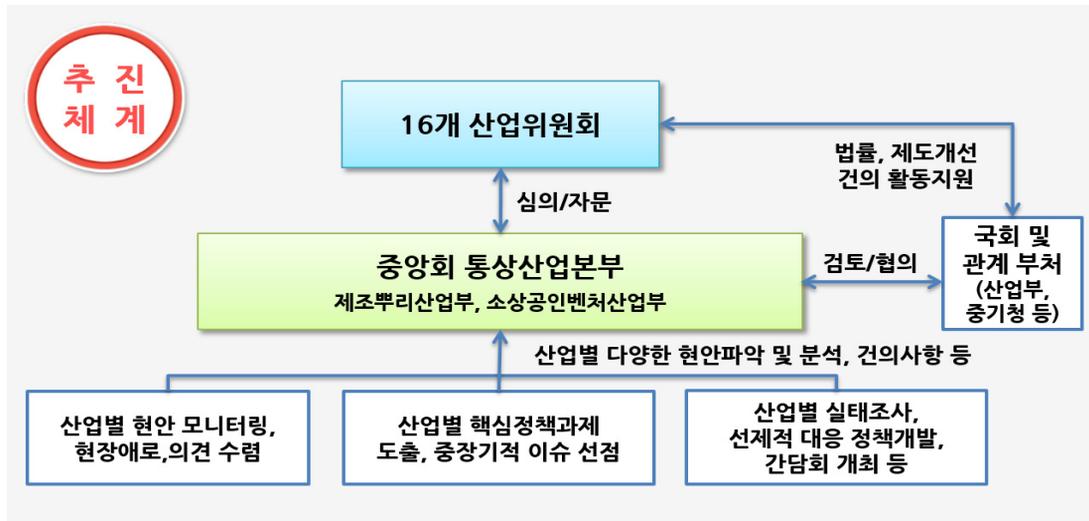


그림 34 | 산업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부서	위원회명	부서
ICT산업위원회	소상공인 벤처산업부	생활용품산업위원회	제조 뿌리 산업부
콘텐츠산업위원회		금속·부품소재산업위원회	
헬스케어산업위원회		기계산업위원회	
유통산업위원회		뿌리산업위원회	
서비스산업위원회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	
농·식품산업위원회	전기·기기산업위원회		
섬유산업위원회	플라스틱산업위원회		
종이·인쇄산업위원회	화학산업위원회		

2)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 생태계 확산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혁신 방안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신성장, 금융, 기술, 공정경쟁, 판로, 일자리 6개 혁신분과로 나누어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소프트웨어 R&D체계 혁신방안’,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방안’, ‘新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판로 확충방안’, ‘인력 미스매치 해소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시 관계부처 담당자를 초청해 중소기업 대표들의 현장 의견과, 학계, 연구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논의결과가 정부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産·學·研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 제조 정책과 개선방안’,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2018 스마트팩토리 HR Insight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력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였다.

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공장이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통해 수요 중소기업을 발굴하였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1,00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제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였다.

또한,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개별기업 위주 구축사업의 한계를 혁신하고, 속도감 있는 제조노하우 전수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인력양성을 위해서 수요·공급기업을 아우르는 기술주도형·현장중심형 설명회로 실시하고, 쉽고 체계적인 스마트공장구축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추진하였다.

다. 환경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 지원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가 '19. 6. 30일까지 화학물질 신고 시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8. 3월)되었다. 이후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8. 5월)됨에 따라 본회는 '수입되어 전량 소비되는 화학물질 중간체로 인정' 및 '유해성 표시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미미한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간소화 대상에 포함'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중간체 정의를 개선하였고, 유해성이 미미한 화학물질의 경우 47개에서 33개로 등록을 간소화하였다. 또한, 등록 물질 수가 2,300개에서 약 7천개로 확대됨에 따라 1개 물질 등록 시 기업 당 평균 6천만 원, 최대 2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을 위한 '화평법 등록 지원 사업'을 요청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마련 및 정부에서 직접 매년 100개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 산업계 이행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15. 1. 1)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화학안전 규제 및 영업허가 조건 강화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화되었다. 특히, 취급 물질의 위험 정도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 차등화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를 건의하였다. 이후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시설에 관한 고시」가 제정, 극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기준이 완화('18. 7월) 되었다. 또한, 영업허가 취득 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기술 인력 1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나, 대다수의 화학물질 취급 영세 중소기업들은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본회는 기술 인력 기준에 '중소기업이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기술 인력으로 인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종업원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기술 인력으로 인정('23년 까지)'하는 조항을 신설('18. 10월)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라. 중소기업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연구

1) 소상공인의 사업영역보호 및 자생력 강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정착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대한민국 소상공인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현장애로 발굴과 전문가를 통한 정책대안 개발, 골목상권 활성화 및 동반성장 방안을 도출하였고, 정부·국회 건의를 통해 유통채널별 거래 공정화, 온라인 분야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인하 검토를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와 더불어 58건의 사업조정을 실시하여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의 기틀을 조성하였다.

2) 중소기업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기틀 마련

우리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계적인 중소기업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제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관련 협동조합, 협회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국회·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애로를 해소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3) 우수 중소기업 유통판로 지원

대형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증진코자 백화점협회와 MOU 체결을 통해 국내 5대 백화점에 중소기업 상생관을 설치·운영하고 상생소통협의체를 운영, 백화점 통합입점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중소기업 입점 확대 및 판로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중소기업유통포럼 및 유통산업위원회 등을 통해 유통업계의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도 국내 시장의 판로를 찾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은 TV홈쇼핑에 입점을 희망하는 우수 제품 생산 중소기업을 위해 1:1 입점 설명회 및 상품추천위원회를 통해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 무료 방송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지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산품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일사천리사업」을 통해 연간 128개사를 지원, 약 43.6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4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

중소기업자간 상호부조에 의하여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여건 조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공제사업기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 등의 출연금 및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1998년 정부출연 중단 이후에는 각종 홍보 강화, 가입촉진 캠페인 활동 및 경영상담사의 가입유치 활동 등 재원 확충을 위한 가입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18년 12월말 현재 18,154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총 5,422억 원의 재원이 조성되었다.

표 IV-13-1-8 | 공제사업기금 조성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공제부금	정부출연금	이익잉여금 등	계
조성액 (비 중)	3,841 (70.8)	1,400 (25.8)	181 (3.4)	5,422 (100.0)

공제사업기금은 부도매출채권대출(제1호 대출,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 어음·수표대출(제2호 대출, 어음 및 수표의 결제 지연에 따른 도산 방지),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대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및 단기운영자금 부족 지원) 등 3종류가 있다.

총 대출금액의 98.3%인 3,860억 원(2018년 대출액 기준)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금융지원 시스템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IV-13-1-9 | 공제사업기금 대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부도매출채권 (1호대출)		어음·수표 (2호대출)		단기운영자금 (3호대출)		매출채권담보 (4호대출)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이전	12,904	6,727	225,920	51,748	68,864	25,101	103	26	307,791	83,602
2015	54	43	2,005	523	5,602	2,714	14	5	7,675	3,285
2016	26	18	1,649	436	5,182	2,907	-	-	6,857	3,361
2017	25	17	1,456	397	5,294	2,968	-	-	6,775	3,382
2018.12	32	28	1,370	400	6,409	3,499	-	-	7,811	3,927
계	13,041	6,833	232,400	53,504	91,351	37,189	117	31	336,909	97,557

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하여 대출이자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3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실시하여 2018년 총 1,328개 업체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대출 1.0~3.0%p) 하였다.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이다. 2007년 9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되어 2018년 말 현재 가입자는 1,097,018명이고, 부금 9조 5,309억 원을 조성하였다.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시중은행·상당사·홈페이지(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납부공제부금은 월 5만원~100만원까지이고,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부금전액과 적립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제금의 압류가 금지되며, 2017년부터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납부부금은 전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분기 변동)을 적용하고, 또한 가입 후 2년간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8년 말까지 폐업 또는 사망사유로 236,152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조 6,060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고, 운전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62,333건 2조 7,602억 원의 공제계약대출을 지원하였다.

표 IV-13-1-10 | 연도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건수 및 부금조성 현황(누계기준)

(단위 : 건, 억원)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685,388	43,013	195,817	18,486	251,266	23,832	271,781	29,486	1,404,252	114,818

다. 중소기업 이행보증공제 운영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이행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중소기업보증공제」는 2018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1,991개 업체에 78,649건의 공공조달계약에 대해 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약 6조 1,066억 원을 보증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민영보험사 및 업종별 공제조합이 보증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음에 따라 보증기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으나,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증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공급 독과점이 개선되는 등 보증 소비자인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이용절차 및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조합원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신용을 공여하는 자율적 금융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표 IV-13-1-11 | 중소기업보증공제 운영현황(2018.12.31, 누계기준)

(단위 : 개사, 건, 억원)

이용업체 수	증권발급 건수	보증 금액
1,991	78,649	61,066

* 이용업체 수의 경우, 중복업체 제외

라. 중소기업 손해공제 운영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손해공제(파란우산공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화재·재산종합·기업종합공제, 배상책임 손해에 대해서는 영업배상책임·근로자재해·건설기계안전공제,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단체상해공제의 7가지 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손해공제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대비 10~25% 저렴하게 공제료를 받고 있으며, 단체적 가입 추진을 통하여 중소기업 일부 위험업종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인수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IV-13-1-12 | 연도별 손해공제 가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66	2,210	1,229	2,681	1,378	2,875

마.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운영

2002년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라 1999년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와의 PL단체보험 계약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별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PL사고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PL 대책 수립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표 IV-13-1-13 | 연도별 유효계약 보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3,786	10,903	4,001	12,221	4,012	12,730	4,052	12,098	3,774	12,120

5

중소기업 인력 및 판로 지원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1)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의 인재양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1997.4.16)된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대의 교육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년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 입주 후에는 벤처기업 및 글로벌기업 등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였고, 2016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발맞춰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도모하였다. 그 외 지원시책 연계교육, 공공기관 신규 교육 등의 수주를 통해 2018년 연 8,071명이 수료하였다.

표 IV-13-1-14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교육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협동조합 임 직 원	지원시책 연계교육	맞춤형 교육 등	계
2016년	1,802	2,283	3,117	7,202
2017년	2,386	1,738	4,126	8,250
2018년	2,714	1,296	4,061	8,071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행정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 외국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현장인력을 지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인력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면 점수제 시행, 3년 취업기간 만료 후 출국 없이 다시 고용할 수 있는 재고용제도(1년 10개월),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이 없었던 근로자는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한 재입국제도, 숙련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제도, 숙식비 사전공제 방안 마련 등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여 반영해 왔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최저임금 차등적용,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 지원, 현물지급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 유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건의, 주요 공공구매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교육,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홍보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2018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총액 123조 4천억 원 중 76.0%인 94.0조원이 중소기업제품으로 조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구매 실적 대비 1.7% 증가된 규모이다.

2019년 구매목표는 837개 기관에서 총구매 124조 4천억 원의 75.4%인 93.8조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표 IV-13-1-15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018년 구매실적			2019년 구매목표		
	총구매 (A)	중소기업 (B)	비중 (B/A)	총구매 (C)	중소기업 (D)	비중 (D/C)
총괄	123.4	94.0	76.0	124.4	93.8	75.4
물품	41.7	33.2	79.0	43.5	32.6	75.0
공사	56.2	41.5	74.0	55.6	42.2	76.0
용역	25.5	19.3	76.0	25.3	19.0	75.0

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2016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18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한·지명경쟁 조항 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반영하였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한 결과 약 391억 원(계약완료 금액 기준)의 조달규모가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2018년말 기준 239개 세부제품에 대해 총 55개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한 소기업 수주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운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관련정보를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쌍방향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신청·발급, 소액수계약 대상업체 추천, 공공구매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13-1-16 | 구매정보망 등록 현황

구 분	2018년	등록 누계
중 소 기 업	22,458개 업체	207,437개 업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2,406명	46,278명

구매정보망을 통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정착되면서 공공조달시장 참여 희망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으며, 2018년은 28,365건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표 IV-13-1-17 | 공공구매론 이용 실적

구 분	2018년	18년 이전 5년 평균
신청 업체	1,451개 업체	1,577개 업체
대출 신청 금액	1,422억원	1,771억원
대출 실행 업체	1,125개 업체	1,189개 업체
대출 실행 금액	1,100억원	1,251억원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부터 구매정보망에서 신청 및 대출진행이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제공 2년간 2,320개 업체에 2,251억 원이 지원되었다.

* 2017년 기업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에 의해 대출율 감소

표 IV-13-1-18 | 직접생산확인 주요연혁

구 분	주요내용
200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시작
2010	10. 21부터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2011	유효기간 변경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폭 감소
2012	2010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급 대폭 증가
2016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고도화 완료로 이용자 편의 개선
2017	1000여개 직접생산확인 상세 기준에 대한 전산화 작업 완료
2018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유료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2007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운영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2010.10.21일부로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2016.2.1.일부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시스템을 개편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를 구성하고 업무처리속도 및 메뉴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표 IV-13-1-19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4년 이전누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누 계
업체수	142,387	24,017	28,124	27,395	28,365	250,288
제품수(세부품목)	699,799	122,974	121,057	112,119	118,996	1,174,945

4) 지방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운영

지방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2003년 4월 16일 대구에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연면적 4,673㎡(1,413평) 규모로 개설하였으며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쉬메릭) 제품과 특화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우수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6

중소기업 위상 제고 및 사랑나눔문화 확산

가. 중소기업 사기진작 및 위상 제고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2018.1.10)를 개최하여 약 746여명의 전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함께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참석하여 함께 신년하례의 시간을 나누었다.

중소기업 주간행사(2018.5.14~18) 기간 동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소기업

관련 136건의 행사가 개최되어 수천 명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등 중소기업들과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29회를 맞이한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는 344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해 포상식이 거행되었다.

12주년을 맞이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2018.6.21.~23, 제주도)은 '혁신과 협업으로 미래를 디자인한다.'라는 주제로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 CEO 및 동반자 등 733명이 참여하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미래 비전과 경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명품 강연이 마련되었다.

나. 중소기업 사랑나눔문화 확산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의 십시일반 나눔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복지증진 사업, 내수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저소득 중소기업 가족을 대상으로 장학 및 의료지원 등 범 중소기업계를 대변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였다. 설, 추석에 복지시설 247곳을 선정하여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을 지원하여 내수살리기와 소외계층 지원을 함께 도모하였으며, 군경부대 위문, 중소기업·소상공업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15억여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간에는 강원도 소재 복지시설에 관람권을 배부하여 세계인의 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영덕군 태풍피해 복구 지원,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이재민 지원,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복구 지원 등 국적을 넘어 전 세계의 재난 재해 지역에 사랑나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과 중소기업계의 위상을 높였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015년에 이어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을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3년간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실천현황을 대외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에 대한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연합 봉사활동」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소재 중소기업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활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로 활동을 정례화 시키고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일회성을 벗어나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발전하였다.

2019년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계가 사회공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단이 구심점이 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단만의 특화된 사회공헌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대학생 운영진을 선발하여 중소기업 인터뷰, 다양한 박람회·전시회 관람, 중앙회 행사 참여 등 직접 취재를 통한 현장감 있는 포스팅을 진행한 결과 블로그 포스팅 357개 및 방문자수 100만 명을 달성하였다.

‘제9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IDEA 공모전’을 개최하여 포스터·동영상·수필·지도자 보고서 이상 4개 부문 총 425편의 작품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47편을 시상하였다. 수상작품은 온/오프라인 전시되었으며,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진로교육 활용을 위한 기관 등에 배포되었다.

‘2018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대국민 호감 인식도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작성된 ‘중소기업 인식지수 결과 종합 보고서’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정책 및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직장내 에피소드 소재로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 팟캐스트’를 총 23회 제작 및 방송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친근감을 제고하고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지역의 히든스타 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제1기 우리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청년공감 서포터즈’를 약 200여명 선발하였다. 광주·전남 지역의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방문·취재를 통해 해당 업체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총 251건 제작하였다.

‘중소기업역사관’ 내 중소기업 역사(1950~2000년대), 국내 강소기업 등을 소개하고 장수기업의 물품을 전시하여 당해 방문자수 13,897명 기록하였으며, 누적 방문자 수는 80,000명을 돌파하였다.

‘대국민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TBS 라디오 광고를 총 45회 진행하였으며, KBS 아침마당 생방송에 중소기업 재직자와 본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출연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내용을 방송하였다.

라. 지방 중소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지부에서는 지방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지역특화산업 실태조사, 정책건의 및 애로파악을 위한 각종 회의, 자금·기술 및 인력 등에 관한 종합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발굴하고 건의집을 발간 및 전달하는 등 지역 핵심 이슈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 총 442건의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달하였다.

제14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일반현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4년 12월 27일 설립되었으며,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통해 명실 공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업간 협력사업 추진

1)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거나 판매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기술개발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2002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동 사업은 수요처 특성에 따라 국내수요처과제(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 해외수요처과제(외국정부, 해외기업 등) 및 민·관공동투자과제(투자기업)로 구분되며, 국내·해외수요처과제는 2년 이내 5억 원 한도, 민·관공동투자과제는 2년 이내 10억 원 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까지 국내수요처 985개사(공공 148개, 민간 837개), 해외수요처 962개사, 투자기업 70개사(공공 18개, 민간 52개)가 참여하였다.

2)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2008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투자기업으로 참여하는 기금매칭형 R&D사업을 시작하였다.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수요가 있는 R&D 과제에 투자할 자금을 사전에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한 후,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이 일정기간 구매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향후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재단은 70개 투자기업과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6,462억 원을 조성하였고, 883개 과제 총 4,248억 원을 집행하였다.

표 IV-14-1-1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

구 분	협력펀드	투자기업명
민 간 (52)	4,770억원	경창산업, 국제종합기계, 네이버,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대상, 대우조선해양, 동양물산기업, 디아이씨, 렉스코, 롯데마트, 루멘스, 르노삼성자동차, 미래나노텍,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성림첨단산업, 세하, 아이즈비전, 아진산업, 에스에너지, SFA반도체, SK텔레콤, LS엠트론, 엠씨넥스, 오텍캐리어, 용산, 웅진에너지, 이레에이엠에스, 이엘케이, 인성정보,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앤지, 케이엠더블유, 크루셀텍, 톱텍, 파워로직스,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필옵틱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백종합건설, 한솔테크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휴맥스
공 공 (18)	1,692억원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단은 지속적인 투자기업 발굴을 통해 기금조성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사업의 수요처관리기관으로서 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 기금집행을 위한 사업수행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3) 수위탁기업간 네트워크형 공동사업(구. 원가절감형 공동사업)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또는 1차 협력사(중견기업)와 2차 협력사 간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단기간(6~8개월)에 완료 가능한 원가절감·생산성향상 과제를 추진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원가절감형 과제란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디자인변경, 제조공법 개선, 원재료·부품개발,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현하는 과제를 말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대기업(공기업)과 1차 협력사,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의 연합체다.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이 되어 과제를 추진하고 원가절감 목표 달성 시 이에 따른 성과배분을 참여기업인 대기업, 1차 협력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IV-14-1-2 | 수위탁기업간 네트워크형 공동사업 지원중소기업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참여기업수(개사)	123	43	37	19	13	235

4)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은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하고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공동의 수출활동을 지원한다.

주요 동반진출 과제유형은 글로벌 국내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거점형”, 국내 TV홈쇼핑사의 해외플랫폼을 활용한 “해외홈쇼핑 연계형”, 글로벌 한류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판촉전, 수출상담회, 스타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한류연계형”으로 구분된다.

해외거점활용 지원사업은 대·공기업이 갖고 있는 글로벌 거점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수주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거나, 해외유명전시회에 대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공동부스(Booth in Booth) 형태로 지원한다.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은 국내TV홈쇼핑사가 보유한 11개국 25개 채널에 중소

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해외 홈쇼핑사 MD³²⁾들과의 미팅을 통해 현지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 제품 수출전략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류연계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외국인들에게 한국 제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관련 대기업과 협업하여 KCON³³⁾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비즈니스 기회창출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14-1-3 | 해외동반진출 지원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주관기업 과제수(개)	65	48	39	45	75	272
지원중소기업수(개사)	1,142	1,162	1,193	1,194	1,160	5,851

5)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지원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창업·벤처기업에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 당정협의를(15.9.3, 청년 일자리 창출)에 따라 '16년 정부예산이 반영되면서 시작되었다.

육성기업의 발굴·모집 특성에 따라 2개 트랙으로 구성하여 대·공기업의 인프라 및 글로벌 역량 등을 활용하여 창업·벤처 기업의 제품개선 및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14-1-4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육성 유형

구분	출연기업
패키지방식 (집중육성)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사업모델혁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해외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 지원
단위프로그램 선택방식(맞춤육성)	육성기업 역량에 따라 사업화, 수출 및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연계, 일자리 창출 등의 단위 프로그램을 맞춤형 지원

'16년 22개의 대기업·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여 '16년~'18년까지 3년간 481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는 출연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8년 말까지 2,415개사의 창업벤처 기업을 지원하였다.

32) Merchandiser의 약자로, 유통기업군에서 판매할 제품의 구매, 추천 등을 수행하는 직무

33) CJE&MOI 해외에서 주관하는 K-pop문화연계 콘서트, 컨벤션, 콘텐츠의 약자

표 IV-14-1-5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지원실적

구분	집중육성	맞춤육성	합계(개사)
'16년 상생서포터즈	450	1,179	1,629
'17년 상생서포터즈	250	536	786

6)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민간(대·공·중견·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여 추천하면, 정부가 창업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17년 5월 일자리위원회에서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 육성 발표에 이어 '18년 민간과 정부가 1:1 매칭방식으로 총 200억 원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8년 40개의 운영기업³⁴⁾이 사업에 참여하여 총 94개의 사내벤처팀을 추천 및 선발하였다. 선발된 사내벤처팀에게는 팀당 최대 1년간 2억 원 이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표 IV-14-1-6 | 사내벤처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 선정 현황 (2018년도 말 기준)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계
운영기업	12	6	11	11	40
사내벤처팀	34	19	12	29	94

나.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성과공유제 확산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공동협력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모델이다. '04년 포스코에서 최초 도입 후 민간자율로 실시하고 있으며 '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12년 4월부터 성과공유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34) 운영기업이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 내국 법인으로 사내벤처제도를 정부와 함께 운영할 기업

확인제 운영 이후 '18년 말 기준으로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은 총 396개, 등록과제 13,213건, 확인과제 5,937건, 참여 수탁기업은 6,769개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표 IV-14-1-7 | 성과공유 확인제 현황 (2018년도 말 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등록기업(개)	170	51	49	23	103	396
등록과제(건)	4,859	1,860	2,077	2,079	2,338	13,213
확인과제(건)	1,303	1,009	993	1,281	1,351	5,937
참여 수탁기업	2,430	1,057	894	1,196	1,192	6,769

재단은 제도확산을 위해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기업에게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통해 신규모델 개발을 개발하고 확산협의회를 매년 2회 개최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舊 동반성장 투자자원) 운영·관리

2010년 정부는 민간중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정착·확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2011년 삼성전자가 출연한 1,000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 말 누적 기준 196개 기업으로부터 10,067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43,1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776억 원 지원되었다.

표 IV-14-1-8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개, 2018.12.31 기준)

구분	협약					출연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금액	8,462	1,856	1,297	1	11,616	7,552	1,785	729	1	10,067
기업	95	34	72	1	202	94	34	67	1	196

2018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전년(1,571억 원) 대비 28% 증가한 2,013억 원 조성되어 2011년 최초 조성 이후 역대 최고액을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누적 1조원을 돌파하였다.

그 중 상생협력기금에서 약 25%(2,570억 원)을 차지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출연 기업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으로 2018년 말 기준 기금 2,013억 원 중 1,321억 원(65%)을 조성하였다.

한편, 2018년 상생협력기금은 개별 대기업 및 1차 협력사 중심에서 그룹사 및 2·3차 협력사 지원을 위한 출연문화가 확산되었다. 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은 2·3차 협력사 최저임금 지원을 위하여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 1,29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고, 호반그룹(호반건설, 호반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억 원을 출연하였다.

3)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본 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사 간 상생협력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협력사 외 미거래 중소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별 자율적 상생협력 활동 및 협력사 등록절차를 안내하여 상생협력 종합 플랫폼(상생누리)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표 IV-14-1-9 | 지원 범위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18.12월말 기준)

구분	지원 범위	등록	
		건수	비율
협력사 지원	기존 협력사	447	26.0%
계열사 오픈	기존 협력사+계열사 협력사	37	2.1%
부분 오픈	기존 협력사(%)+미거래 기업(%)	86	5.0%
전체 오픈	모든 중소기업	1,152	66.9%
	합 계	1,722	100%

표 IV-14-1-10 |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18.12월말 기준)

부 문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누적)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교 육	139	26.5%	82	21.4%	222	27.3%	443	25.7%
판 로	66	12.6%	70	18.2%	155	19.0%	291	16.9%
컨 션	95	18.1%	22	5.7%	61	7.5%	178	10.3%
기 술	49	9.4%	46	12.0%	67	8.2%	162	9.4%
특 허	20	3.8%	12	3.1%	5	0.6%	37	2.1%
금 용	71	13.5%	36	9.4%	58	7.1%	165	9.6%
창 업	9	1.7%	22	5.7%	34	4.2%	65	3.8%
인 력	10	1.9%	11	2.9%	31	3.8%	52	3.0%
네트워킹	8	1.5%	6	1.6%	20	2.5%	34	2.0%
기 타	57	10.9%	77	20.1%	161	19.8%	295	17.1%
합 계	524	100%	384	100%	814	100%	1,722	100%

4) 상생결제제도 운영

2차 이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14.11.17)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까지 총 운용액 292조 2,888억 원, 구매기업 357개(민간기업 308개, 공공기관 49개), 거래기업 179,977개가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9개 은행이 상생결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상생결제의 정의(제2조의 제8호의2) 및 협력재단의 제도 운영 업무(제20조제2항제8호)를 추가하였으며,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 의무화(제22조제5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IV-14-1-11 |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총 운용액(억원)	245,931	666,643	935,991	1,074,323	2,922,888
구매기업-1차(억원)	242,716	658,026	925,797	1,061,231	2,887,770
1차 이하(억원)	3,215	8,617	10,194	13,092	35,118

표 IV-14-1-12 | 상생결제제도 기업별 실적현황

구분	도입 기업 수	전자외상매출채권 (구매기업-1차)		상생매출채권 (1차-2차)		상생매출채권 (2차-3차)		상생매출채권 (3차-4차)	
		발행실적		발행실적		발행실적		발행실적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민간기업	353	2,309,048	285,152,084,235,563	35,659	3,289,629,407,180	1,588	137,154,102,316	34	2,030,810,833
상호 출자	147	1,892,271	251,635,278,261,890	29,119	2,938,627,731,431	1,206	122,305,530,737	26	1,767,858,261
중견 기업	180	403,144	32,951,318,097,297	6,025	342,221,179,593	381	14,793,571,579	8	262,952,572
중소 기업	26	13,633	565,487,876,376	515	8,780,496,156	1	55,000,000	0	0
공공기관	49	24,563	3,625,028,992,105	1,348	82,603,193,694	33	310,241,965	0	0
총 합	402	2,333,611	288,777,113,227,668	37,007	3,372,232,600,874	1,621	137,464,344,281	34	2,030,810,833

표 IV-14-1-13 | 상생결제제도 은행별 실적현황 * 도입기업수 : 은행간 중복도입 포함

구분	도입 기업 수	전자외상매출채권 (구매기업-1차)		상생매출채권 (1차-2차)		상생매출채권 (2차-3차)		상생매출채권 (3차-4차)	
		발행실적		발행실적		발행실적		발행실적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우리은행	129	986,463	111,754,966,816,834	17,810	1,562,923,322,016	861	35,078,713,124	0	0
신한은행	145	268,414	41,373,806,710,964	4,760	526,886,829,313	408	34,197,697,962	0	0
하나은행	111	396,023	29,960,017,541,692	2,297	363,489,438,237	185	59,090,188,306	24	1,574,208,135
기업은행	51	566,997	87,391,507,635,445	8,984	573,243,974,607	96	6,059,574,791	1	100,000,000
국민은행	31	56,586	11,046,192,962,434	2,232	282,387,490,330	19	250,377,558	0	0
농협은행	151	46,959	5,812,548,746,553	870	60,283,995,471	52	2,787,792,540	9	356,602,698
경남은행	1	9,594	748,569,526,673	54	3,017,550,900	0	0	0	0
제일은행	6	2,575	689,503,287,073	0	0	0	0	0	0
대구은행	0	0	0	0	0	0	0	0	0
총 합	625	2,333,611	288,777,113,227,668	37,007	3,372,232,600,874	1,621	137,464,344,281	34	2,030,810,833

표 IV-14-1-14 |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

[소관부처]정책명	상세내용
[산업부] '14. 11. 17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	2.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3. 중소기업의 수입 안정화를 위한 결제제도 혁신 -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 자율 구축 및 확산
[공정위] '15. 1. 13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방안	4.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 의 자율 확산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
[관계부처합동] '15. 12. 16 2016년 경제정책방향	2-1 기초가 튼튼한 경제 ⑤ (대·중소기업 상생)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대·중소기업간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 - 대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에 대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결제대금의 0.1~0.2%)
[공정위] '16. 4. 7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2. 직불 유형 □ 하도급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①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부 운영)’ , ‘대금바로(서울시 운영)’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 등이 있음
[공정위] '17. 6. 28 하도급 지급 보증면제 지정고시(제2017-8호)	○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대금지급보증 면제 요건 중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한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지정 고시됨
[기재부] '17. 12. 1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특법 제7조의4제1항)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중기부 '18. 9. 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상생협력법 제2조의제8호의2) 상생결제 정의, (제20조제2항제8호) 협력재단 업무 추가, (제22조제5항)상생결제 의무화, (제27조제3항 및 제4항) 포상 및 세제지원 등 신설 및 개정

5)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정하여 동반성장 관련 다양한 행사 집중 개최하고 있다.

표 IV-14-1-15 | 연도별 동반성장 주간 개최 현황(최근 5개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최일자	'14.11.17(월)	'15.11.10(화)	'16.11.1(화)	'17.11.1(수)	'18.10.31(수)
개최장소	코엑스(삼성역)	더플라자호텔 (시청역)	인터컨티넨탈코엑스(삼성역)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동반성장 주간 행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을 시상함과 동시에 대기업·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공공기관의 특성과 경영여건을 반영하여 경영목표에 부합한 자율적 동반성장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하고 있다.

표 IV-14-1-16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시상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동반성장 포상(점)	82	45	45	44	51	267
동반성장 협약식(건)	15	10	10	11	28	74

6)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대기업의 우수협력사 발굴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구매상담 뿐만 아니라 우수 중기제품을 전시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14-1-17 | 최근 5년간 구매상담회 성과

구 분	참여기업(개사)		상담실적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담기준(건)	
2014년	194	886	1,671	총 4회 개최 경기, 전북, 대구, 서울
2015년	215	723	1,630	총 4회 개최 부산, 전북, 충남, 서울
2016년	202	596	1,472	총 3회 개최 울산, 충북, 수원
2017년	297	733	1,875	총 4회 개최 광주, 부산, 충남, 인천
2018년	279	723	1,689	총 3회 개최 대구, 충북, 인천

7) 협력네트워크 활성화(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기업과 협력사간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탁기업협의회 운영현황 실태조사, 수탁기업협의회 간담회, 동반성장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IV-14-1-18 |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누적)
대기업(개)	86	92	99	116	124	124
1차 수탁기업협의회(개)	110	114	132	160	177	177
1차 협력사(개)	176	188	206	231	263	263
2-3차 수탁기업협의회(개)	177	188	221	300	373	373

또한, 대기업과 1차·2차·3차 협력사 또는 협력사간 자금, 시장 정보, 교육, 기술 등의 협력체계가 확산되도록 정부에서는 2·3차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협력기업 네트워크 구축 하고 있다. 이는 동반성장 교류채널인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가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되도록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원사항은 유형별 교류활동(경영지원형, 역량개발형, 기술개발형, 국내·외 시장 진출형),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IV-14-1-19 | 2·3차 수탁기업협의회 지원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1	교류 활동	- 역량강화, 품질향상, 경영 등 교육 - 우수협력사 벤치마킹 - 기술·경영·시장 정보 교류활동 등	협의회 당 7백만원 한도(70%)
2	현장전문가(PM) 컨설팅	외부 전문가를 지원하여 협의회 결성과 운영 등 현장자문 상시화	협의회 당 최대 5회까지 무료 지원 (자문, 컨설팅)

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1)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위탁 받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이나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공정거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근거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14-1-20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분쟁조정(건)	384	22	33	31	34	504
법률자문(건)	337	52	68	60	71	588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4.11)에 근거 '中企 기술보호 전담 기관'으로 지정('14.12)되어 기술유출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관련 사업(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 中企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보안·법률상담(온·오프 상시 지원) 외에도 기술유출·탈취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관련 내용을 경찰청으로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술탈취 근절대책('18.2)'을 발표함에 따라 법무지원단('18.6),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18.5)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IV-14-1-21 |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지원현황(2018년 12월말, 누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기술보호 상담·자문(건)	3,134	617	4,672*	5,929	6,545	20,897
기술자료 임치(건)	16,623	8,562	9,467	9,216	9,522	53,390
기술분쟁 조정·중재(건)	-	22	17	19	19	55

* '16년도부터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보안·법률상담 지원건 대폭 증가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장치로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도입(1979~)되었으나,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고유업종 지정 업종의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06년에 제도가 폐지되었다.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급속히 확대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도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였다.

본 사업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년 9월)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권고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확장자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2011년부터 323개 업종·품목을 접수받아 총 118개 업종·품목을 합의·권고(최초 합의·권고 기준 적합업종 110개, 시장감시 2개, 상생협약 6개) 하였다. 2018년에는 최초 합의·권고 후 3년이 경과한 6개 재합의 품목(적합업종 5개, 상생협약 1개)을 재합의하고, 신규로 1개 업종·품목을 권고(적합업종 1개) 하였다. 또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된 47개 업종·품목 중 27개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20개 업종·품목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장감시를 진행하였다.

표 IV-14-1-22 | 2018년 적합업종 신청·합의 현황(2018년말 기준)

구 분	신청접수 (a+b+c+d)	진행중 (a)	합의·권고(79) (b)			해제 (c)	철회·반려 (d)
			적합업종	시장감시	상생협약		
제 조 업	265	1	7	1	46	39	171
서비스업	58	2	20	2	3	-	31
계	323	3	27	3	49	39	202

* (진행 품목) 통신기기 소매업, 목재펠릿 제조업,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4) 업종별 경쟁력 강화

본 사업은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중·소상공인이 사업영역 보호기간 동안 자생력을 확보하여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쟁력 강화에 사업을 지원한다.

2018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은 영세한 업종·품목의 과제발굴·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5개 과제발굴·기획사업을 지원하고, 공정·제품·경영 개선, 원가·비용절감, 시스템 구축 등 업종 공동의 자생력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10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V-14-1-23 | 2018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현황

구분	업종·품목	과제명
과제 기획	1 단조(기타 비철금속, 기타 철강, 동, 보통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특수강)	단조기술 전문가 육성방안 수립
	2 LED 전등기구	IoT융합 스마트LED조명 사업화 방안 수립
	3 골판지상자	골판지 원자재(원지)의 안정적 공급 방안 수립
	4 도시락·이동급식	도시락 및 이동급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
	5 사료유유지	재생유지 원료(동물성 지방) 품질관리를 통한 공급 안정화 방안
공동 사업	6 고소작업대임대업	고소작업대임대업 중소기업형 ERP 시스템 개발
	7 인조대리석가공업	주방가구용 인조대리석 표준화 개발 및 품질관리 교육
	8 LED 전등기구	LED조명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및 기술네트워크 구축
	9 관상어	아파트형 관상어 축양시스템개발 및 공동브랜드 인지도 개선
	10 아크용접기	아크용접기 제품의 판로확대 방안 수립
	11 전통떡	쌀가공식품 판로확대를 위한 온라인 판매플랫폼 구축
	12 제과점업	동네빵집 경쟁력 진단모델 및 우수인증마크 개발
	13 금형(프레스·플라스틱)	금형분야 대중소기업 공동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스마트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14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배송효율성 향상을 위한 LPG용기 유통시스템 구축
	15 맞춤형복	맞춤양복 공동브랜드 및 패션잡화 개발

제15장

신용보증기금

1

일반현황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신보는 1976년 6월 설립 이후 신용보증,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 경영지도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지난 40여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유통과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급격한 신용 경색을 차단하고,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경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18년은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부·기업 등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경기 침체 장기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역할 수행에도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신보는 총 47.1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유동성 공급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역대 최대 규모인 20.2조원의 신용보험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2.1조원의 산업기반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신용보증

1) 2018년도 기본방향 및 신용보증현황

가) 2018년도 기본방향

신보는 2018년 주요 추진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 선도’, ‘포용적 금융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나) 신용보증현황

2018년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업과 고용창출유지 기업 등 중점정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기반 강화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창업기업·설비투자보증 등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총 47.1조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2018년 말 현재 보증잔액규모는 50.5조원에 이르고 있다.

표 IV-15-1-1 | 최근 3년간 신용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보증*잔액	495,041	508,463	505,317
총보증공급	461,069	473,951	470,550
보증업체수	202,084	206,794	207,912

* 총보증 = 일반보증 + 유동화회사보증 + 시장안정특별보증

2) 추진과제별 주요 추진 실적

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 선도

① 혁신성장 분야 맞춤형 신상품 도입

‘신유형 서비스업’(ICT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또는 원격관리 서비스업) 영위 기업에 대하여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보증료 등 우대수준을 차등적용 하는 보증상품을 도입하였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현지법인 투자, 해외사업 직접 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상품 신설하였다. 해외진출기업에 적합한 보증지원 제도(‘해외투자자금 보증’ 및 ‘해외사업자금 보증’으로 구성)를 마련하여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을 적극 지원하였다.

②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신기술, 신산업 개척을 위해 미래에 도전하는 혁신창업기업을 퍼스트펍권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퍼스트펍권 보증’, 4차 산업혁명 선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4.0 Start-up 보증’, 우수인력의 분사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핀오프 Start-up 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대학발 창업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Campus Start-up 보증’ 대상을 확대하였다.

혁신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퍼스트펍권보증 등 모험자본 성격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외에도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비금융지원을 확대하였다. 혁신창업기업이 민간으로부터 원활히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데모데이를 확대 개최하였고, 혁신창업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다수의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이 기술자문, 판로확보 등 다양한 비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창업기업과 전문기관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보형 혁신창업 육성 플랫폼인 Start-up NEST 선발규모를 전년 10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였으며, 지역균형특별전형 및 소셜스타트업특별전형을 신설하여 다양한 유형의 우수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코트라, 무역협회, 서울대 공대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NEST기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지원을 확대하였다.

③ 투·융자 복합금융의 지속적 확대

보증연계투자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기업,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 혁신창업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중점 지원하였다. 특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성장초기 기업(총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성장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직접투자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투자우선부보증을 통해서는 시장친화적 제도개선에 따른 수요증가 및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등을 반영하여 보증공급 확대하였다.

표 IV-15-1-2 | 보증연계투자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업체 수	45	62	61
금액	350	400	394

나) 포용적 금융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노력 강화

전담계정 신설을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 보장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18년부터 5년간 최대 5,000억 원의 보증공급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하였다.

표 IV-15-1-3 | 사회적경제 육성 보증상품 지원계획

구 분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대상	정부 및 지자체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원 사업자	지역주민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운영하는 기업

주) 보증료 경감(0.5%→0.3%), 보증비율 100% 적용, 신용조사수수료 면제

② 연대보증 전면폐지 추진

금융위에서 추진한 연구용역(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 방안) 등을 참고하여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일례로 책임경영심사를 도입하여 대표자의 책임경영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하여 산출된 책임경영 평가등급을 보증운용에 반영하였으며, 보증지원 이후 보증기업이 주기적으로 경영자료를 신보에 제출토록 하여 상호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였다. 또한 보증부대출의 사용내역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사기성 대출 및 부실경영의 위험을 사전 차단하였다.

③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

재도전기업의 사업성·기술력·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 지원하였으며 기업가치 및 상환가능성 등에 따라 채무조정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재도전 기업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재도전 기업주를 대상으로 한 ‘재도전의 날’을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실패 경험담, 재도전 성공스토리 등 재기성공 노하우 공유 및 전파의 장을 마련하였다.

표 IV-15-1-4 |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구 분		기 준		'18년	성과		
지원 제도 개선	재기지원 보증	홍보활동	없음	실패박람회 참여, 우수사례 19건 전파	재도전 지원 확대		
		컨설팅	없음	재도전 성공률 제고를 위해 추가 도입	구분	'17년	'18년
	재창업 지원보증	영업조직 전결금액	5천만원	영업조직 전결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재기 지원 보증	193 억원	252 억원
		컨설팅	1회	보증지원 후에도 추가 컨설팅 가능	재창업 보증	37억원	56억원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 및 성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통하여 재창업 기업의 재실패 방지 노력을 지속 전개하였으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등 외부 전문 기관과 협업을 통한 경영컨설팅 및 CEO 연수프로그램 강화로 ‘선순환 재도전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하였다.

다) 안정적 재정관리

① 부실감축을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목표부실률을 '17년 대비 0.3%p 낮은 4.5%로 설정하였으며, 시나리오 분석을 다양화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기단계별 맞춤형 대응방안 수립하였다.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하여 정책목표 달성과 리스크관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별 리스크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리스크 총량관리는 강화 하되, 창업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 정책적 우선 분야는 리스크 한도를 완화 하여 원활한 보증지원 유도하였다.

② 구상권 관리체계 효율화

연대보증인 폐지 등 회수환경 악화를 감안하여 구상권 회수목표를 '17년 계획(4,700억 원) 대비 300억 원 감소한 4,40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특수채권 주채무자 원금감면 제도 신설, 채무감면 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채무상환의지를 견인하였으며, 구상권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17년 회수실적 5,009억 원 대비 약 128억 원 감소한 총 4,881억 원을 회수하여 환경악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회수감소 추세를 최소화하였다.

구상권 관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보증채무이행 심사 전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채권은행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보증채무이행의 신속성 강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양도담보물 관리방식 도입(IoT단말기를 활용한 담보물 무인원격관리) 등을 추진하였다.

나. 신용보험

신보는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2에 의거 신용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997년 9월 부도난 어음을 보상하는 어음보험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4년 3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보험대상을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8년 신용보험 인수총액은 총 20조 1,605억 원으로 연간 목표 20조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2004년 매출채권보험 도입 이후 인수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정부 핵심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을 강화하였고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재도전기업에 우대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구매기업 인수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하였다.

2018년 주요 개선 사항으로 잠재고객 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영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보험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온라인 간편인수보험을 도입하였으며, 금융기관 보험료 지원협약 체결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표 IV-15-1-5 | 신용보험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목 적	내 용
정부핵심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및 재도전기업 인수확대
고객 친화적 제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인수요건 완화 ■ 금융기관 보험료 지원 협약을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
사업 운용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고객 발굴시스템 구축 ■ 온라인 간편인수 보험 도입

다. 산업기반(인프라)신용보증

신보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주요업무로는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민간투자제도의 연구·개발, 금융컨설팅, 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등이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총 11개 사업에 2조 832억 원의 보증 공급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질적인 면에서는 사업재구조화를 돕는 유동화회사보증, 저리자금으로의 리파이낸싱보증을 각각 1조 2,487억 원, 2,845억 원 공급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자체 재정절감 및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도로에 편중된 보증지원대상을 다원화하여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하였고 신규 인프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철도, 병영 시설 등에 대하여 6,727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였다.

그 밖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을 확대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장 니즈를 반영한 보증상품을 공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IV-15-1-6 | 보증승인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보증승인	25,905	20,286	20,832
보증잔액	93,325	98,536	105,539
사 업 수	10	8	11

제16장

금융감독원

1

일반현황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現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금융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유도

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2018년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96.3조원이며, 전년 말 대비 증가 규모는 40.8조원이다.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개인사업자 비중이 2017년 44.1%에서 2018년 45.1%로 늘어났다.

표 IV-16-1-1 |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16년 말	2017년 말(A)	2018년 말(B)	증감(B-A)
중소기업 자금지원	610.1	655.5	696.3	40.8
중소법인대출	349.0	366.6	382.5	15.9
개인사업자대출	261.1	288.9	313.8	24.9

2) 관계형금융

관계형금융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이 양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량정보 뿐만 아니라 비계량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여신, 지분투자, 비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 대출금리 측면과 기반산업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8년 말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취급 실적(잔액기준)은 7조 5,536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 6,326억 원 증가하는 등 기존의 재무정보 위주의 대출취급 관행에서 벗어나 비재무정보를 폭넓게 활용하는 새로운 대출취급 프로세스로 정착되었다. 특히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 단기자금 위주로 취급되는데 비해 관계형금융은 모두 3년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고 평균대출금리(2018년 말 3.72%)도 전체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3.88%)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비중이 40.2%로 기반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

1) 금융애로 상담 등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 금융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자금지원제도와 경영·금융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2018년 5월에 조선업, 한국GM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는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불안정이 우려되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특별상담반을 설치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10월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중인 각종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배포하였고,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 119 제도’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기 전에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2018년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실적이 우수한 은행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2018년 중 지원건수는 12,193건으로 전년(8,199건) 대비 3,994건(48.7%) 증가하였으며, 특히 1억 원 미만 소액차주에 대한 지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3)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중소 납품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2017년에 마련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결제원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담대 이용정보를 집중·공유하였고, 구매기업의 미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판매기업의 연쇄부도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더해 8월에는 납품대금의 조기회수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만기가 180일인 외상매출채권과 동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만기를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제17장

대한상공회의소

1

일반현황

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 한성상공회의소 창립 이래 우리나라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해왔다. 전국 18만 대중소 상공인을 대변하는 국내 대표 종합경제단체로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세계 190여 개국 상공회의소와 글로벌 연계망을 바탕으로 범세계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가산업 발전과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정부 정책 제언, 경제현안 조사·연구, 국제통상 진흥 등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공모전과 시상식 개최를 통해 기업인의 지위 향상 도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조직은 6본부 및 32개 팀과 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연구소를 비롯하여 ‘규제개선추진단’, ‘민관합동투자지원단’, ‘혁신성장옴부즈만지원단’, ‘산업혁신운동중앙추진본부’ 등 정부와의 협력 사업에서 민간 대표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경영지원 활동

1) 코참경영상담센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연간 약 15,000건의 경영애로 관련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실무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기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영애로 관련 상담 방법은 전화, 온라인, 방문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서울시 25개구 상공회에 상주하는 전문위원을 통해 상담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하여 상담할 수 있다.

〈2018년 경영상담 실적〉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창업/경영	무역/관세	특허	총합계
5,148	4,200	2,093	2,225	1,130	421	15,217

2) 계약서 검토 서비스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난해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고 조언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서비스 분야는 크게 4개 영역으로 경영 일반, 노무, 무역, MOU 등으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 야	주 요 내 용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
근로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
무역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
MOU	업무협약

검토위원은 대한상의가 위촉한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계약서를 검토 지원하고 있다.

3) 정부지원제도 활용 지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별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 또한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원시에도 사업계획서를 비롯하여 여러 문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지원을 하다 신청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경영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여 기업에게 알맞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고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사업계획서 작성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제도 활용 컨설팅’을 서울시와 함께 운영 중에 있다.

2018년 첫 시행을 하였으며 60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참여 중소기업들은 R&D, 마케팅, 창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최종 20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선정 기업들은 자금지원부터 역량강화 교육 등의 기회를 얻었다. 2019년에는 64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준비 중에 있다.

4) 올댓비즈 (allthatbiz.korcham.net)

‘올댓비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기업판결·판례, 경제·경영 리포트, 입지정보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집결한 정보제공 포털사이트이다.

지난 2016년 첫 오픈한 이후 정부지원제도, 경영 최신정보 제공 서비스와 더불어 ‘경영상담’, ‘계약서 검토 서비스’ 등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 중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 창구 역할도 겸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약 1만여 건이 정보를 개재하여 제공하였으며, 올 해도 6천 건이 넘는 정보를 기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정보 제공 현황〉

정부지원 제도	경제경영 리포트	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판결 판례	입지정보	민간 서비스
7257건	670건	523건	562건	594건	23건

5) 중소기업정책협의회

대한상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지난해 9월 14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중소기업간의 만남을 정례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정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올해에도 7월 25일 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0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나. 중소기업·구직자 매칭 지원 활동

1) AI 인재매칭 서비스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회원사와 우수 대졸 인재를 매칭하는 채용지원 사업이다. 매칭 방식은 기업이 채용을 의뢰하면 25만명 이상의 구직자 데이터에서 구직자의 이력, 관심사, 역량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추천한다.

인재매칭 사업은 스타트업 기업 코멘토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 지원 대상 〉

- 대졸 신입인재 채용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 인재매칭 서비스 무료 이용
- 채용공고에 적합한 인재 추천
- 전국 200여개 대학에 공문 발송
- 채용 관리자 시스템 제공

〈 신청 방법 〉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채용공고 등록

* 홈페이지: <https://comento.biz/korcham>

2) 기업 방문의 날 시행

채용포털을 통해서도 알맞은 인재를 찾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기업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합한 인재와 직접 만나게 해주는 ‘인재매칭서비스’이다.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문화를 널리 알리고 청년-중소·중견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지원 대상 〉

- 향후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 방법 〉

- 홈페이지 ‘방문 기업’ 신청
* 홈페이지: <http://opencompany.korcham.net>

〈 프로그램(예) 〉

- 기업 소개
- 채용절차 안내(인재상, 면접방식 소개, 모의면접 등)
- 사무공간, 생산라인 견학
- 질의응답

다.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예정자, 재직근로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9개 개발원에서 실업자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1) 실업자를 위한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탁받아 취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교육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실업자 대상의 기계, 전기,

전자 등 뿌리산업분야와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등 4차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실업자 양성훈련 실적(93년~18년)〉

(단위 : 명)

구분	확정 인원	수료 인원	취업		자격증 취득	
			인원	%	인원	%
계	66,790	58,214	47,360	81.4%	43,114	83.6%
2년	29,553	26,332	23,007	87.4%	22,833	86.7%
1년	29,518	25,265	19,514	77.2%	20,281	80.3%
1년미만	7,719	6,617	4,839	73.1%		

2)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재직근로자의 직무 능력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약기업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훈련과정의 설계 및 운영지원과 고용유지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실적(93년~18년)〉

(단위 : 명, 8H)

구분	계	컨소시엄	사업주위탁
인원	841,919	548,712	293,207

3)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지원

산업인력 부족 등으로 근로자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과정의 설계, 사내훈련교사 역량지원, 컨설팅 및 행정지원을 실시하였다.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지원 실적(18년)〉

(단위 : 개사)

구분	훈련 컨설팅	훈련참여	행정지원	유급휴가훈련
참여기업	272	40	40	10

라. 기 타

1)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제품 결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3자(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제조업자가 PL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PL보험 혜택 〉

- 단체보험 할인적용 및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최대 40% 보험료 할인
 - 손해보험사와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 제공
 - 가입업체 입장을 최대 고려한 신속한 사고처리
 - 온라인 접수시스템(모바일 포함) 도입으로 편리한 보험료 안내
-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 가입대상 〉

- 완성품·부품의 제조, 공급 및 판매업체
- 수출·수입업체, 명의를표시 판매업체, OEM업체
-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등

〈 가입품목 〉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 : 가전, 생활용품, 의료기기, 식품 등
- 서비스용역 : 승강기, 정수기, 주차시설 등 설치, 해체 및 유지보수작업

〈 가입절차 〉



* 참여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 문의처 〉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Tel.02-6050-3875~8 / Fax.070-7614-3422)
- E-mail :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2)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은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전수하여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를 제고하고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대기업 출신 전문가 100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3개월간 파견하여 2개사씩 200개사를 지도 할 예정이다. 기업에 파견된 스마트 마이스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운영성과 제고 및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을 수행한다.

3)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 운영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는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제조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한 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하고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 보고서 및 로드맵을 제시한다.

* 수준확인 : 기존 복잡한 수준용어(기초·중간1,2·고도화)는 단순화(level 1~5)하고 단계는 국제적인 트렌드를 따라 5단계(중전 4단계)로 세분화

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처의 구매협약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받은 중소기업이 해당사업 참여 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요처 관리기관으로서 해당사업에 대한 수요처적합성 검증 및 사업홍보를 수행한다.

* '19년 지원규모 : 19년 1,589억원(계속과제 928억원 포함)

5)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대기업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는 379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 '19년 사업개요 : 사업규모 156억원(민간출연 90억원, 정부지원 67억원)

제18장

중소기업은행

1

일반현황

중소기업은행(이하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경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설비자금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시설확장에 기여하였고, 경제 성장에 따라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소기업과 창업기업 등을 발굴해 중점 지원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는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 이던 2008년~2010년 은행권 전체 중소기업대출 순증의 약 91%를 지원하는 등 ‘비울 때 우산을 씌워주는 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한편 2017년에는 「동반자금융」 체계를 구축, 성장금융(Scale-up), 재도약금융(Level-up), 선순환금융(Cycle-up)의 중소기업 모든 성장단계를 지원하여 ‘강하고 탄탄한, 혁신은행’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IBK기업은행은 2018년 英 The Banker紙 선정 글로벌 100대 은행 진입(Tier 1 Capital 기준 93위, 총자산 기준 97위)과 동시에 금융권 최초 중소기업 대출 잔액 150조 원, 개인고객수 1,500만 명 및 기업고객수 150만 개를 돌파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총자산 269조 원, 당기순이익 1조 5,110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자금조달

2018년 말 IBK기업은행의 자금조달 잔액은 2017년 말에 비하여 12조 7,958억 원 증가한 268조 9,266억 원을 기록했다.

자금조달 잔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예수금이 2017년 말 대비 3조 3,140억 원 감소한 105조 6,314억 원을 기록하였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102조 7,841억 원으로 15조 591억 원 증가, 차입금은 26조 4,600억 원으로 1조 3,146억 원 증가, 자본은 20조 709억 원으로 1조 663억 원 증가하였다. 그밖에 기타 재원은 13조 9,802억 원으로 1조 3,302억 원 감소하였다.

자금조달의 잔액별 구성비는 예수금 39.3%, 중소기업금융채권 38.2%, 차입금 9.8%, 자본 및 기타 부문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1-1 |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말		2018년 말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 수 금	108,945,455	42.5	105,631,408	39.3	△3,314,047
중 소 기 업 금 융 채 권	87,725,011	34.3	102,784,070	38.2	15,059,059
차 입 금	25,145,340	9.8	26,459,950	9.8	1,314,610
(정부 및 기금)	(14,161,719)	(5.5)	(15,573,743)	(5.8)	1,412,024
(한은등기타차입)	(10,983,621)	(4.3)	(10,886,207)	(4.0)	△97,414
자 본	19,004,572	7.4	20,070,917	7.5	1,066,345
기 타	15,310,464	6.0	13,980,249	5.2	△1,330,215
합 계	256,130,842	100.0	268,926,594	100.0	12,795,752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상각후원가대출채권 204조 6,123억 원(76.1%), 상각후원가 유가증권·기타자산 등 기타 부문 49조 6,649억 원(18.5%), 현금 및 예치금 12조 7,687억 원(4.7%), 유형자산 1조 8,807억 원(0.7%) 등으로 각각 운용되었다.

나. 자금공급

2018년 중 IBK기업은행은 공급액 기준으로 2017년 중 대비 4조 9,873억 원 증가한 67조 879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대출금 공급액과 투자 공급액이 각각 4조 9,619억 원, 254억 원 증가하였다. 2018년 말 대출금 잔액은 2017년 말 대비 10조 8,996억 원 증가한 192조 9,940억 원, 투자 잔액은 1,187억 원 증가한 1조 1,462억 원을 기록했다.

표 IV-18-1-2 | 자금공급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공 급			잔 액		
	2017년 중	2018년 중	증감액(△)	2017년 말	2018년 말	증감액(△)
대출금	617,863	667,482	49,619	1,820,944	1,929,940	108,996
투자	3,143	3,397	254	10,275	11,462	1,187
합계	621,006	670,879	49,873	1,831,219	1,941,402	110,183

1) 지원대상별 대출현황

2018년 중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금으로 50조 8,221억 원을 공급하였고 41조 6,071억 원을 회수하였다. 그 결과 2018년 말 중소기업자금대출 잔액은 2017년 말 대비 9조 2,150억 원 증가한 151조 5,825억 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78.6%를 차지했다.

가계자금대출은 13조 6,244억 원이 공급되었고 11조 8,670억 원이 회수되면서 잔액은 33조 6,571억 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17.4%를 차지했고, 대기업 및 공공기타 부문대출은 2018년 말 기준 7조 7,545억 원을 기록했다.

표 IV-18-1-3 | 지원대상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말		2018년중		2018년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중소기업자금	142,367,451	78.2	50,822,149	41,607,139	151,582,461	78.6	9,215,010
가계자금	31,899,652	17.5	13,624,407	11,866,966	33,657,093	17.4	1,757,441
대기업 및 공공기타	7,827,318	4.3	2,301,630	2,374,450	7,754,498	4.0	△72,820
계	182,094,421	100	66,748,186	55,848,555	192,994,052	100.0	10,899,631

2) 재원별 대출현황

2018년 중 재원별 대출 실적을 보면 금융자금은 61조 239억 원을 공급하고 51조 8,373억 원을 회수하였다. 기금 및 재정자금은 5조 3,470억 원을 공급하고 3조 9,553억 원을 회수, 외화자금은 3,773억 원을 공급하고 559억 원을 회수하였다.

2018년 말 잔액 기준 재원별 대출금은 금융자금이 176조 5,365억 원으로 총 대출금의 91.5%를 차지하였고, 기금 및 재정자금이 15조 413억 원으로 7.8%, 외화자금이 1조 4,163억 원으로 0.7%를 차지했다.

표 IV-18-1-4 | 재원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말		2018년중		2018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금융자금	167,349,825	91.9	61,023,915	51,837,286	176,536,454	91.5	9,186,629
기금및재정자금	13,649,601	7.5	5,347,001	3,955,329	15,041,273	7.8	1,391,672
차관자금	-	-	-	-	-	-	-
외화자금	1,094,995	0.6	377,270	55,940	1,416,325	0.7	321,330
합계	182,094,421	100.0	66,748,186	55,848,555	192,994,052	100.0	10,899,631

가) 금융자금대출

IBK기업은행 대출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금융자금의 2018년 말 잔액은 176조 5,365억 원으로 2017년 말보다 9조 1,866억 원이 증가하였다. 금융자금대출의 잔액 구성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금이 136조 414억 원으로 총액의 77.1%,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은 40조 4,950억 원으로 총액의 22.9%의 비중을 차지 하였다.

표 IV-18-1-5 | 금융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말		2018년 중		2018년 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중소기업자금	128,131,586	76.0	45,413,630	37,503,809	136,041,407	77.1	7,909,821
일반자금	39,218,239	24.0	15,610,285	14,333,477	40,495,047	22.9	1,276,808
합계	167,349,825	100.0	61,023,915	51,837,286	176,536,454	100.0	9,186,629

나) 기금 및 재정자금대출

2018년 말 현재 각종 기금 및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의 잔액은 15조 477억 원으로 2017년 말보다 1조 3,877억 원 증가하였다. 구성별로는 온렌딩자금 5조 6,231억 원(37.4%),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조 927억 원(20.6%), 해외온렌딩 자금 1조 9401억 원(12.9%), 지방구조조정자금이 1조 9,049억 원(12.7%),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이 6,592억 원(4.4%), 환경정책자금이 4,167억 원(2.8%)순으로 지원되었다.

3) 용도별 대출현황

2018년 중 용도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운전자금으로 47조 6,605억 원, 시설자금으로 19조 876억 원을 공급하였다. 2018년 말 기준 운전자금 잔액은 2017년에 비해 4조 4,488억 원 증가한 118조 8,666억 원이고, 시설자금은 6조 4,508억 원 증가하여 74조 1,275억 원을 기록하였다.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운전자금이 2017년 말 62.8%에서 2018년 말 61.6%로 감소한 반면 시설자금은 37.2%에서 38.4%로 증가하였다.

표 IV-18-1-6 | 용도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말		2018년 중		2018년 말		증감액 (△)
	잔 액	구성비	공 급	회 수	잔 액	구성비	
운전자금	114,417,732	62.8	47,660,538	43,211,703	118,866,567	61.6	4,448,835
(금융자금)	(108,693,010)	(59.7)	(44,270,889)	(40,949,728)	(112,014,171)	(58.1)	(3,321,161)
(기금및재정자금)	(5,487,806)	(3.0)	(3,333,207)	(2,209,951)	(6,611,062)	(3.4)	(1,123,256)
(외화대출금)	(236,916)	(0.1)	(56,442)	(52,024)	(241,334)	(0.1)	(4,418)
시설자금	67,676,689	37.2	19,087,648	12,636,852	74,127,485	38.4	6,450,796
(금융자금)	(58,656,815)	(32.2)	(16,753,026)	(10,887,558)	(64,522,283)	(33.4)	(5,865,468)
(기금및재정자금)	(8,161,795)	(4.5)	(2,013,794)	(1,745,378)	(8,430,211)	(4.4)	(268,416)
(외화대출금)	(858,079)	(0.5)	(320,828)	(3,916)	(1,174,991)	(0.6)	(316,912)
(차관자금)	-	-	-	-	-	-	-
합계	182,094,421	100	66,748,186	55,848,555	192,994,052	100.0	10,899,631

주 : ()내는 운전 및 시설자금의 재원별 구성

4) 산업별 대출현황

2018년에는 모든 산업별 대출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전년 말에 비해 3조 2,676억 원 늘어난 91조 7,324억 원을 기록하였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전년 말 대비 1조 6,718억 원 증가한 24조 9,656억 원을 기록하였다.

표 IV-18-1-7 | 산업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말		2018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잔 액	구성비	
농업·임업 및 어업	209,676	0.1	217,760	0.1	8,084
광업	179,982	0.1	207,040	0.1	27,058
제조업	88,464,814	48.7	91,732,366	47.6	3,267,552
(음식료업)	(3,203,066)	(1.8)	(3,606,000)	(1.9)	(402,934)
(섬유·의복 및 가죽)	(5,546,871)	(3.1)	(5,600,173)	(2.9)	(53,302)
(목재·나무제품 및 가구)	(1,152,428)	(0.6)	(1,193,729)	(0.6)	(41,301)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	(3,337,691)	(1.8)	(3,393,404)	(1.8)	(55,713)
(석유·화학물·고무·플라스틱제품)	(13,508,330)	(7.4)	(14,287,314)	(7.4)	(778,984)
(비금속광물제품)	(2,519,375)	(1.4)	(2,706,914)	(1.4)	(187,539)
(제1차금속)	(5,663,645)	(3.1)	(5,677,287)	(2.9)	(13,642)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51,450,385)	(28.3)	(52,893,623)	(27.5)	(1,443,238)
(기타제조업)	(2,083,023)	(1.2)	(2,373,922)	(1.2)	(290,89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277,848	1.3	2,491,255	1.3	213,407
건설업	5,345,753	2.9	5,411,261	2.8	65,5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3,293,855	12.8	24,965,625	13.0	1,671,77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783,300	3.2	6,501,299	3.4	717,999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8,955,843	10.4	21,390,704	11.1	2,434,86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5,683,700	3.1	6,419,650	3.3	735,950
기타(개인대출)	31,613,763	17.4	33,369,466	17.3	1,755,703
합계	181,808,534	100.0	192,706,426	100.0	10,897,892

주 : 은행계정 총대출금 잔액 기준 (개인대출은 카드론 제외)

5) 투자 현황

2018년 중 IBK기업은행은 2017년 중에 비해 254억 원 증가한 3,397억 원을 투자하였다. 일반 부문 투자는 2017년 중 대비 5억 원 감소한 1,523억 원을 공급하였고, 문화콘텐츠 부문에는 7억 원 감소한 260억 원을 공급했다. PEF는 2017년 중 대비

266억 원이 증가한 1,614억 원을 공급했다.

한편, 잔액 기준으로는 일반 부문 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2017년 말에 비해 962억 원 증가한 6,111억 원을 기록했고 문화콘텐츠 부문은 70억 원 증가한 612억 원의 잔액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PEF는 2017년 말 대비 155억 원 증가한 4,739억 원을 기록했다.

표 IV-18-1-8 |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공 급			잔 액		
	2017년 중	2018년 중	증감(△)액	2017년 말	2018년 말	증감(△)액
일반투자	1,528	1,523	△5	5,149	6,111	962
문화콘텐츠	267	260	△7	542	612	70
PEF	1,348	1,614	266	4,584	4,739	155
합계	3,143	3,397	254	10,275	11,462	1,187

다. 주요 정책금융

1)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은 2017년 중 대비 3,025억 원 증가한 12조 244억 원을 공급하였고 창업·성장초기기업 지원자금은 4조 2,481억 원 증가한 24조 6,360억 원을 공급하였으며,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조 5,449억 원 증가한 14조 5,400억 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유망 서비스업 지원자금은 1조 3,919억 원 증가한 6조 9,782억 원을 공급했으며, 부품생산 중소기업지원자금은 5,536억 원 증가한 5조 2,757억 원을 공급했다. 기술개발자금은 3,485억 원 증가한 1조 9,962억 원을 2018년 중에 지원하였다.

표 IV-18-1-9 |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 실적		증감(△)액
	2017년 중	2018년 중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	11,721,896	12,024,430	302,534
창업·성장초기기업 지원자금	20,387,896	24,636,013	4,248,117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12,995,157	14,540,048	1,544,891
유망 서비스업 지원자금	5,586,301	6,978,177	1,391,876
부품생산 중소기업 지원자금	4,722,071	5,275,719	553,648
기술개발자금	1,647,696	1,996,219	348,523

2) 온렌딩자금에 의한 지원

온렌딩자금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수출기업, 지방소재기업, 창업·벤처기업지원,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등의 용도로 2018년 중 2조 1,536억 원 공급하였으며, 2018년 말 잔액은 5조 6,232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온렌딩자금은 해외사업 수주 및 수출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위해 2016년부터 지원한 자금으로 2018년 중 1조 2,180억 원 공급하였으며, 2018년 말 잔액은 1조 9,401억 원이었다.

표 IV-18-1-10 | 온렌딩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년 말 잔액	2018년 중		2018년 말 잔액
		공급	회수	
온렌딩자금	5,475,434	2,153,624	2,004,228	5,623,151
해외온렌딩자금	1,056,020	1,218,010	333,922	1,940,108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의한 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지원, 제도약지원, 신성장기반 조성 등에 2018년 중 8,122억 원을 공급하였으며, 2018년 말 잔액은 3조 928억 원이었다.

표 IV-18-1-11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년 말 잔 액	2018년 중		2018년 말 잔 액
		공 급	회 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918,435	812,235	637,910	3,092,760

라. 주요 추진업무

1) 동반자금융 지원체계 구축

IBK기업은행은 창립 56주년을 맞이한 2017년 8월, ‘중장기 중소기업지원 로드맵’인 ‘동반자금융’을 선포하고 이를 전면 시행하였다.

동반자금융이란,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의미하며, 기업에 대해 성장금융(scale-up), 재도약금융(level-up), 선순환금융(cycle-up)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림 35 | IBK기업은행 동반자금융 주요내용



2018년은 ‘동반자금융 정착의 해’로, 은행과 고객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공사례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표 IV-18-1-12 | 2018년 동반자금융 주요 추진 실적

성장 금융	<input type="checkbox"/> 1%대 초저금리 특별대출 공급, 「IBK Only-one동반자대출」 출시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자금공급 확대 (대출 24.6조원, 투자 397억원) <input type="checkbox"/> 「IBK동반자컨설팅」 프로젝트 추진 ('18년 1,139건)
재도약 금융	<input type="checkbox"/> IBK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전초기지 역할 수행 <input type="checkbox"/> 기업금융 숲 업무의 디지털화 구현, 중소기업 디지털금융 접근성 강화
선순환 금융	<input type="checkbox"/>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Exit투자 지평 확대 (Exit투자 7호 205억원 실행)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M&A지원 사업 추진

2019년은 ‘동반자금융 2.0의 해’로서, 기존에 추진된 과제의 안정적 정착과 고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각 부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혁신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이다.

표 IV-18-1-13 | 2019년 동반자금융 중점 추진 사항

성장 금융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지원 Line-UP」 강화 (초저금리 대출, 성공의 법칙 패키지) <input type="checkbox"/> 「IBK형 창업육성플랫폼」 안정화 (IBK창공 3호 부산 개소) <input type="checkbox"/> 「IBK동반자컨설팅」 멘토링 역량 업그레이드
재도약 금융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경영지원 디지털 플랫폼 IBK-BOX 구축 <input type="checkbox"/> IBK 혁신성장기업 지원 고도화 (신성장혁신기업 4백억 투자)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지원 획기적 강화 (소상공인 AI 경영컨설팅 등) <input type="checkbox"/> 글로벌 네트워크 안정화·본격화 (베트남 법인전환, 미얀마 지점전환)
선순환 금융	<input type="checkbox"/> Exit 및 체질개선 지원 고도화 (Exit PEF 2호 설립) <input type="checkbox"/> M&A지원 사업 본격화

2) 창업, 초기 성장기업 지원

가) 「창업벤처기업부」로 재편

IBK기업은행은 동반자금융 첫 단계인 성장금융(Scale-up) 전담 조직으로서 창업부터 성장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의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동반자금융 시너지 확대 및 실행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 1월 「창업벤처 지원단」에서 「일자리창출팀」을 편입하여 「창업벤처기업부」로 재편하였다.

「창업벤처기업부」는 동반자금융 中 성장금융 부문 총괄 및 대외기관 요구사항 대응, 창업·벤처기업 특화상품 개발, 영업점 경영평가 및 마케팅 지원, IBK형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創工)」 구축·운영, 창업·벤처기업 컨설팅 등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i-ONE JOB」 및 「일자리 채움펀드」 운영, 「채용 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나) 성장 초기기업 지원 강화

창업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자금 부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00조 원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공급하기로 계획하였고, 창업기업에 대한 전행적인 자금지원 노력에 힘입어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4조 2,481억 원 증가한 24조 6,360억 원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IBK벤처Start-up대출', 우량 벤처기업이 Death-Valley를 극복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IBK벤처투자매칭대출' 등을 통해 벤처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전년 대비 3,025억 원 증가한 12조 244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경제 활성화 및 창업국가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다) IBK창공(創工)을 통한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업육성플랫폼인 「IBK창공(創工)」을 2017년 12월 설립하였다. 「IBK창공(創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육성 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BK창공(創工)을 통해 선발된 기업은 사무공간 무상 제공, 투·융자 지원, 국내외 데모데이 및 글로벌 투자 유치, 맞춤형 멘토링 및 판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IBK창공(創工)」의 가장 차별화된 강점이다.

「IBK창공(創工)」은 2017년 12월 'IBK창공(創工) 마포'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 'IBK창공(創工) 구로'를 추가 개소하여 총 40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중이다. 또한 2022년까지 혁신 창업·벤처기업 500개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단순 자금공급자를 넘어 기업의 성장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명실상부한 금융권 대표 창업육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표 IV-18-1-14 | IBK창공(創工) 1기 주요 성과

금융	□ 투자 46억원, 대출 38.9억원 지원
비금융	□ 국내외 IR, 전담 컨설팅 및 멘토링 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296건 등

3)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IBK기업은행의 일자리창출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실업난 해소를 통해 공공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제적 효용을 제고하는 공유가치 창출형(CSV) 사업으로, 2009년부터 10년간 취업자 수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시작한 「잡월드 청년취업 10만 명 프로젝트」를 8년 10개월만인 2017년 12월 조기 달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5년간 취업자 수 10만 명 달성을 위해 「신일자리창출 10만 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18년 말 기준 취업자 수 21,047명을 달성하였다.

또한, 채용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및 주요 기관의 채용정보 통합검색 등의 기능을 담은 중소기업 취업 전문포털 「i-ONE JOB」을 신규 구축하였다. 그리고 금융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채용 활성화를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채움펀드」를 조성하여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인원 1인당 50만 원~100만 원의 금융비용을 지원하여 2018년 말 기준, 285개 중소기업에 16억 72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8년 총 4차례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우수 기업과 구직자 매칭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했으며, 전문 헤드헌터가 수수료 없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핵심인재를 선별·추천하는 맞춤형 채용 서비스 「IBK스카우트」를 통해 2018년 말 기준, 322개 의뢰기업 중 122건의 헤드헌팅 매칭을 성사하였다. 그 밖에 청년 구직자,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우량 중소기업 탐방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림 36 | 우량 중소기업 전문 채용플랫폼 「i-ONE JOB」



표 IV-18-1-15 | 2018년 채용박람회 일정 및 성과

(단위 : 개, 명)

구 분	참여 기업	참여 인원(추산)	
		중 채용 인원 (1차 합격)	
조선일보 내일희망 채용박람회 (4.20)	49	2,000	
		357	
SK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 (5.31)	76	2,000	
		307	
일자리 품는 수원시 채용박람회 (7.4)	70	2,000	
		495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8.29~30)	59	14,000	
		869	

4) 기술금융 지원체계 강화

기술금융이란 재무정보 이외에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2014년 7월 기술금융 지원을 시작하였고, 2018년 말 현재 총 43,566개 기업에 대하여 53조 5,618억 원의 TCB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쏘 은행권 총 지원액의 32.7%에 달하는 실적으로, 기술금융 선도은행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2018년에는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대출 정착로드맵 Level 4」(최종 단계) 달성으로 자체 TCB평가를 전면 실시하였고, 기술평가 역량 및 전문성 확보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아우르는 통합 여신모형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업현장 실사 시 맞춤형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공공연구기관, 산학연 등이 보유한 공급기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2019년에는 성장성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금융 본질을 추구하는 'IBK형 기술 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술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신용대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평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5)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강화

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 민족 특유의 끼와 솜씨(창의력과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전담 국책은행으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자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18-1-16 | 최근 3개년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대출	투자			총 계
		직 접	간 접	소 계	
2016년	3,670	155	163	318	3,988
2017년	4,137	176	91	267	4,404
2018년	6,024	205	55	260	6,284
계	13,831	536	309	845	14,676

주 : 프로젝트투자+지분투자, 투자조합 출자 캐피탈 콜 기준

상업영화 투자수익 일부를 독립·저예산영화에 투자함으로써 영화산업 선순환 생태계에 기여하고 공공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사업」 협약 금융기관 선정 및 상품 출시로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자금융을 강화하였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IBK기업은행간 한국영화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 「신과 함께 롯데컬처웍스-IBK 기업은행간 협력기업 공동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협약」 체결 및 상품 출시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간접투자조합을 신규 결성하였다.

6) 기업인 명예의 전당 운영

IBK기업은행은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기업을 일으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인들을 기리기 위해 2004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15회에 걸쳐 35명의 기업인을 헌액하였으며, 2018년에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분야 전문기업인 (주)상아프론테크 이상원 회장을 헌액하였다.

7) 중소기업 CEO 간 교류 활성화 장 마련

가) IBK최고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우수 기업 CEO들과의 교류를 통해 거래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1993년 「IBK최고경영자클럽」을 창립했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의 경영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조찬세미나와 강연, 회원사 모범사원 선발 등 회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중소기업 CEO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명품 클럽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 IBK여성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인 여성 CEO들의 기업 활동을 돕고 교류와 친목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12년 「IBK여성경영자클럽」을 창립했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의 효율적인 지식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경영전략세미나 및 조찬강연, 우수기업 탐방 등 여성경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여성 경영인들의 비전과 리더십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 CEO 모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 IBK미래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IBK와 거래하는 젊은 경영인들과 가업승계 예정자들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차세대 경영자로서 필요한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2005년 「IBK미래경영자클럽」을 창립했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2회 경영전략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선진기업 탐방, 조찬세미나 등 회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경영인들의 새로운 성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8) 컨설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선도

IBK기업은행은 글로벌컨설팅팀 출신 경영컨설턴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70여명의 전문가를 보유한 금융권 최대 규모의 컨설팅 조직을 갖추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전략·관리, 인사·노무관리, 생산관리 등을 포함하는 경영컨설팅 및 가업승계, 세무/회계, M&A, 법률, 그린, 특허 컨설팅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애로 해결과 성장지원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기업성장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고객맞춤형 & 가치창조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총 6,494개의 중소기업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였다.

표 IV-18-1-17 | 중소기업 컨설팅 추진 실적

(단위 : 건)

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영	45	136	125	184	218	267	252	342
가업승계	42	150	150	154	152	184	205	227
세무	39	135	123	189	204	282	273	284
회계	24	44	51	72	101	106	138	148
법률	17	44	45	56	41	32	24	48
그린	15	51	71	64	58	48	55	30
기타			4	133	228	156	141	87
합계	182	560	569	852	1,002	1,075	1,088	1,166

9)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및 역할 강화

IBK기업은행은 해외 현지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통한 동반자 금융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금융 수요가 높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 중으로 2018년 말 현재 중국 현지법인 내 16개 영업점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러시아의 3개 사무소를 포함하여 총 12개국에 28개의 국외점포망을 운영 중에 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최근 아시아 금융벨트 지평확대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현지은행인 아그리스(Agris)

은행과 미트라니아가(Mitraniaga) 은행의 인수를 마무리 했으며, 2019년에는 2개 은행을 통합하여 IBK인도네시아은행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는 은행 설립 이후 최초의 해외은행 인수·합병 사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 호치민 및 하노이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2017년 7월 현지감독당국에 법인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현지 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대표적 MOU 파트너 은행으로는 호주 ANZ, 이탈리아 UniCredit, 스페인 Santander 등으로, 2018년 말 현재 전 세계 총 17개 MOU 파트너 은행이 있으며, 이들을 통한 고객지원 실적은 누적 기준 1,267건, 미화 349백만 달러에 달한다.

10) IT(Information Technology)를 통한 디지털 혁신 추진

IBK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모바일 앱(App)을 개발하여 당행 임직원 및 대국민 체험단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19년 3월 오픈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를 활용하여 AI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패턴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화내용의 실시간 음성분석에 적용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경고알람을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피해 예방을 도모한다. 본 서비스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관련 앱의 원활한 개발 및 대고객 출시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IT담당 직원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여 정부 지원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례로 IBK기업은행의 대고객 금융생활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분야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객 금융상담 챗봇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신기술 사업의 완수를 지원하여 진행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11) 금융소비자보호 및 고객행복

IBK기업은행은 2018년을 금융소비자 중심경영 추진의 원년으로 정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고객불만 방지 선순환 체계 마련」, 「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 강화」,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내부활동 체계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고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먼저, 사소한 고객의 불만도 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객불만 방지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였다. 민원관리 주체를 확대하여 고객 불만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도를 제고하였고, 민원평가 개편 등을 통해 고객불만에 대한 책임경영을 실천하였으며,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테마민원 관리, 제도개선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및 대출 과다 고객, 외국인고객 등 고위험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내부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IBK기업은행의 다채로운 노력에 힘입어 정부가 주관하는 대외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어 대외평판 이미지를 개선하였다. 금융감독원이 '16년부터 금융회사의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는 평가 이래 최초로 Ⅲ 항목 '양호 이상'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매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산하 236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PCSI)」에서는 기타공공기관 금융부문 평가그룹 Ⅰ 1위를 기록하였다.

12) 고객정보 보호 강화

2017년(131,734건)에서 2018년(149,604건)으로 사이버범죄 건수가 증가함에도 IBK기업은행은 24시간 365일 철저한 감시를 지속하여 무사고와 함께 고객정보 보호를 달성하였으며, 다양한 타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사고(미국 ATM해킹, 인도 SWIFT 해킹 등)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중점 예방점검(ATM, SWIFT 등) 및 보안강화 활동(CPU 보안패치 등)을 지속하여 1건의 해킹사고 없이 고객정보를 포함한 내부자산을

완벽히 보호하였다.

또한 지능화되는 해킹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격 방어 인력을 집중 육성,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방어대회(국정원 주관) 공공부문(54개팀) 예선 1위, 본선 3위를 하였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산업통산자원부 주관)에서 금융 분야 2위(특선)를 하여 대외에 IBK기업은행의 사이버공격 방어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이버공격 실전 대응훈련은 완벽히 방어에 성공하였고 더 나아가 외부개발자, 고객센터, 대출모집인 등 업무용PC 2,000여대와 국외지점 시스템 및 PC, 기업은행 출자회사 7개, 핀테크 제휴업체(네이버, 쿠팡, 두나무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였다. 또한 상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해 1,500여개의 서버 및 홈페이지를 자가진단하여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내부 업무용PC의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의 출력 및 반출에 대한 승인요건과 자체점검을 한층 강화하였다.

13) 사회공헌활동 및 스포츠단 운영

IBK기업은행은 ‘참! 좋은 은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라는 믿음으로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 소외계층 아동, 문화소외계층, 청년창업자 및 비인기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책임을 완수하고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 중소기업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IBK기업은행은 2006년 4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및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익재단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2018년 까지 415억 원을 출연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7,153명에게 114억 원의 장학금과 희귀·난치성 등 중증 질환자 2,209명에게 치료비 98억 원을 지원했고 소외계층 후원사업 등에 115억 원을 후원했다. 위와 같은 나눔의 실천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완치될 때 까지 최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4월 인천시 남동구에 공단지역 내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융권 최초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IBK남동사랑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2019년 4월에는 구미공단에 두 번째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직장 어린이집 사업을 강화하여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IBK기업은행은 대표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인 'IBK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IBK신입행원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인 대학생에게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방법 등의 취업멘토링을 하고 대학생은 소외계층 아동에게 학습멘토링을 하는 릴레이식 멘토링 사업이다. 2018년까지 누적수치로 보면 멘토링을 통해 189명의 대학생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3,834명의 소외계층 아동들이 진로, 학업 등의 다양한 학습멘토링 혜택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IBK기업은행은 전국 42곳 중소기업 사업장에 위급한 순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나) 독거노인·미혼모·아동·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IBK기업은행은 2012년부터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 30개 지역에 배치된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3.5톤 트럭 내부에 취사시설, 냉장, 급수설비를 설치해 1회 최대 300인분의 배식이 가능하도록 특수 개조한 최신형 급식차량이다. 2018년 15억의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여름 폭염을 대비하여 쪽방촌을 방문해 무더위에 지쳐있는 저소득층에게 1억 원 상당의 냉수, 냉장고 등을 지원했다.

소외계층에게 자연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IBK자연나누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국립공원과 유적지 등의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57,094명이 참여했다. 특히 자연환경해설사의 안내와 설명으로 자연환경과 역사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며 치유하는 힐링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 청년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IBK기업은행은 대한민국 중점 해결 과제인 청년일자리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앞장섰다. 'IBK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소셜벤처와 청년공부가게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9개 기업에 총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IBK잡월드'를 운영하여 2018년 까지 누적 121,047명의 취업자 수를 기록, 10년 프로젝트였던 2017년 '취업자 수 10만 명'을 8년 10개월 만에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2018년에는 21,047명의 취업자 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은행으로서 사회공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수행했다. 대표적인 사업인 해외 자원봉사단은 2011년도부터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IBK기업은행 임직원이 자원봉사단으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현지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식수시설을 포함한 각종 학교부속시설과 도서관 개보수 사업을 진행했다.

마) 스포츠 지원 활성화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IBK기업은행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통해 종목활성화와 올림픽의 선전을 기원하며 지원했던 (사)대한바이애슬론연맹에 후원금 1억 원을 지속 지원했다. 더불어 하계 스포츠를 지원하고자 (사)대한하키협회에 2억 원을 후원했으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1억 원을 후원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IBK기업은행의 대표적인 스포츠 지원 활동은 2011년 8월 'IBK기업은행 알토스 여자배구단' 창단이다. 창단이후 2시즌 만에 4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사상 최단기 기록인 2012~2013시즌 통합우승을 달성했으며, 2013 KOVO컵 우승, 2013~2014시즌 정규리그 우승, 2014~2015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 2015 KOVO컵 우승, 2015~2016시즌 정규리그 우승, 2016 KOVO컵 우승, 2016~2017년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승리경기 1득점당 3만원씩 적립하는 '사랑의 스파이크' 기부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며 사회공헌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IBK사격단'을 운영하여 소속 선수들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기여했으며, 창단 이래 가장 많은 4명의 소속 선수가 '2016년 리우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보여주었다.

제19장

한국수출입은행

1

일반현황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되었다.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해외 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과 해외자원개발산업 등 국민경제에 긴요한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국가 수출촉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의 실패와 불균형 성장의 보완에도 힘쓰고 있다. 상업금융 제공이 어려운 대외거래 관련 리스크를 수용하여 국가 수출 진흥에 기여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으로 국가경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수은은 그동안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전통적인 수주산업의 업황 악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위하여 혁신성장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신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중이다.

수은은 대출, 보증 및 투자의 형태로 거래기업 앞 여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대출 48조 7,454억 원, 보증 9조 1,052억 원, 투자 1,251억 원 등 총 57조 9,757억 원의 금융을 지원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중견기업 여신지원 현황

수은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역량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 앞 여신지원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여 왔다. 2014년 수은법 개정 당시 제18조(업무)에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업무 분야로 명시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의무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앞 여신지원 규모는 확대되어 왔다. 2018년에는 은행 전체 여신 중 약 41.6%인 24조 936억 원을 중소·중견기업 앞 지원하였고, 전체 여신 대비 중소기업 앞 여신은 9조 8,340억 원으로 전체 여신 대비 17.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V-19-1-1 | 중소·중견기업 여신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은행 전체 여신	797,287	819,408	691,998	608,750	578,506
중소기업 여신 (비중)	75,561 (9.5%)	74,887 (9.1%)	82,603 (11.9%)	92,835 (15.3%)	98,340 (17.0%)
중견기업 여신 (비중)	188,841 (23.7%)	191,978 (23.4%)	154,570 (22.3%)	155,547 (25.6%)	142,595 (24.6%)
은행 전체 대출	579,208	602,152	567,839	513,601	487,454
중소기업 대출 (비중)	73,599 (12.7%)	73,214 (12.2%)	81,230 (14.3%)	91,519 (17.8%)	97,720 (20.0%)
중견기업 대출 (비중)	170,441 (29.4%)	171,802 (28.5%)	140,560 (24.8%)	146,989 (28.6%)	133,845 (27.5%)

수은은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운용을 통해 대기업 대비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담보제공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2018년 중소·중견기업 앞 대출 중 신용대출 지원 비중은 97.6%로, 지원한 대출 대부분을 신용으로 취급하였다.

나.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강소기업,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중견기업육성 프로그램이다.

표 IV-19-1-2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개사, 억원,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선정	33	-	4	-	7	
선정(인증)취소	12	41	37	8	9	
지원대상기업 (누계)	후보	300	261	229	221	220
	인증	23	21	20	20	19
금융지원 금액	95,472	93,901	81,601	72,702	68,059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 지원	1,269	1,343	1,047	1,032	844	

수은은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및 인증기업 앞 금리우대 및 수출실적 인정한도 확대 등의 우대지원을 제공하고 제품개발, 생산, 해외판매에 이르는 기업의 글로벌화 가치 사슬 전 범위에 걸쳐 필요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다.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은 중개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대출 프로그램이다. 중개 금융기관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2015년 4월 도입되었다.

2018년 말 기준 11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온렌딩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2조 4,265억 원의 온렌딩 자금을 중소·중견기업 앞 지원하였다.

표 IV-19-1-3 |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개사,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중개 기관수	8	10	11
지원 금액	9,689	18,731	24,265
중소기업 지원 금액	9,614	18,551	23,439

라. 상생금융 프로그램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거래에 대하여 금리우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립적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거래 형태에 따라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상생자금대출로 나뉘며, 2018년 총 1조 8,520억 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하였다.

- *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 * 상생자금대출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표 IV-19-1-4 |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생금융 지원금액	20,738	24,656	18,520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10,354	8,079	7,799
상생자금대출	10,384	16,577	10,721

마. 수출단계별 지원제도

수은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부터 경쟁력 있는 수출 중견기업의 육성까지 기업의 수출규모 증가에 따른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정부 선정 수출유망 내수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환위험관리 설명회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수출기업화를 위한 맞춤형 비금융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 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초보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수출실적의 100%까지) 등 금융서비스와 환위험관리 설명회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출초보졸업 중소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 불 초과 10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초보 중소기업 요건을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이다.

4) 중견전환가능 중소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앞 우대지원 지속으로 업체가 피터팬 증후군 없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매출액 규모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다.

바. 환위험관리 서비스

수은은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대외거래에 따른 환위험관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금융서비스

수은은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중소·중견기업 대상) 또는 '외화 ↔ 여타 외화'(중소기업 한정)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선물환 거래를 체결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가치변동을 방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 비금융서비스

대기업 대비 환위험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환위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은은 환위험관리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환위험관리 필요성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20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일반현황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거 1962년 6월에 설립되었다.

1995년부터 무역과 투자의 상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KOTRA에는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지원기능이 추가되었다. 2003년부터 무역, 투자 분야의 노하우를 활용한 연수교육을 담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를 위한 Contact KOREA기능을 수행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단위 무역·투자·인재유치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여 왔다. 또한 2009년 10월부터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ICT, 콘텐츠, 서비스, 의료·바이오, 친환경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분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OTRA는 2019년 7월 현재 국내 6개 본부와 84개국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국내외에서 무역·투자·인재유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1) KOTRA 지사화사업

지사화사업은 해외무역관에 소속된 전담직원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사화사업을 통하여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바이어 조사, 현지 출장 지원, 인증 취득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사화사업은 참가기업별 전담직원이 현지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마케팅 노하우 축적이 가능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바이어와 지리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언어, 시차 등을 극복할 수 있어 유용한 해외 시장개척 지원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V-20-1-1 | 지사화사업 연도별 주요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사화 업체 수(개사)	2,400	2,818	3,273	3,506	3,444
수출 성약 실적(백만불)	1,551	1,672	2,956	3,348	2,711

2) 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KOTRA는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워 직수출에 따른 물류비 과다 지출 및 신속한 납품 시스템 부재로 수출확대에 애로가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물류인프라 지원을 위해 현지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통관, 입출고, 보관, 포장, 배송, 반품지원 등 맞춤형 물류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물류비 절감과 신속한 납품 등이 가능하다.

표 IV-20-1-2 | 해외 공동물류센터 연도별 주요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참가기업수(개사)	560	575	202	202	146
수출성약실적(백만불)	400	650	565	361	160

* 2015년~2018년 구조조정(44개소→22개소→18개소→14개소)으로 참가기업 및 성약실적 감소

3)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www.buykorea.org)

KOTRA는 B2B e-마켓 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buyKOREA)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코리아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부터 바이어 중개, 거래대금결제, 국제배송 지원 등 온라인 마케팅 전과정을 지원하는 유통 플랫폼이다.



표 IV-20-1-3 | buyKOREA.org의 서비스 제공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수출상품 등록	-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까지 등록 가능 - 유튜브(YouTube)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이오퍼 조회	- KOTRA 발굴오퍼 및 바이어 등록오퍼 검색가능
인콰이어리 발송, 수신	- 바이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 가능 -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 가능
온라인 대금 결제	- KOPS 서비스를 통해 바이어는 수출거래대금을 온라인상에서 신용 카드로 결제하고, 국내기업은 원화계좌로 결제대금 정산 가능(별도계약 필요) Paypal 서비스를 통해 바이어는 수출거래대금을 Paypal 인보이스로 결제하고, 국내기업은 미화달러 계좌로 결제대금 정산 가능(별도가입필요)
수출상품 발송	- EMS 배송신청 기능을 통해 수출상품 발송(할인율 최대 17%) (별도 계약 필요)
화상미팅	- 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 가능
해외기업정보	- 기업당(연간 2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
비즈니스행사	- 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

KOTRA는 바이어 구매오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바이코리아 회원가입 전 해외 무역관이 바이어의 진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으며, 사후에도 바이어가 발송하는 인콰이어리에 대해 온라인 무역사기 의심 바이어(스팸성 인콰이어리)를 신고하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코리아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위해 원거리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 및 테마별로 중소기업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온라인전시관도 운영 중이다.

표 IV-20-1-4 | 바이코리아 사이트 운영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순방문자수(천명)	5,894	13,030	13,604	11,493	15,682
페이지뷰(천회)	55,237	89,652	98,770	120,542	126,470
바이오퍼 등록 건수(건)	16,960	19,109	21,745	23,691	24,798
신규 상품등록(건)	12,364	24,776	28,591	22,315	20,111

4)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한국 상품(및 서비스)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OTRA의 광범위한 해외조직망을 활용, 한국제품 수입을 희망하는 세계 유수의 바이어와의 수출구매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바이어를 상대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20-1-5 | 해외 마케팅 추진성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최횟수(회)	68	71	75	73	69
참가 바이어(개사)	3,445	4,190	4,572	3,313	3,232
참가 국내업체(개사)	10,759	11,269	12,316	8,832	8,116
계약추진액(백만불)	16,233	15,286	62,549	12,738	11,520

5)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KOTRA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시장조사,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및 사후A/S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V-20-1-6 | 무역사절단 최근 추진성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파견횟수(회)	174	174	184	209	218
선진/신흥	33/141	35/139	34/150	45/164	52/166
파견업체(개사)	1,562	1,465	1,577	1,779	1,925
수출상담액(백만불)	9,863	6,336	8,307	12,336	5,504

6)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무역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유망 무역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무역관을 통해 유력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주선, 시장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비지원(총 참가 직접경비의 최대 50% 지원)과 행정 서비스 지원(전시부스 임차 및 장치, 전시품 운송 및 현지통관 등), 전시마케팅 교육, 그리고 바이어 대상 현지 홍보 등 박람회 관련 마케팅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표 IV-20-1-7 | 전시회 한국관 참가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시회 참가횟수(회)	101	113	124	140	183	120	120
참가업체(개사)	1,947	2,416	2,469	2,806	3,538	3,149	2,924
상담액(백만불)	4,693	7,486	7,110	7,241	9,284	8,963	8,684

7)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지원

탄탄한 생산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의 전시회를 발굴하고 개최하여 수출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KOTRA는 경기국제보트쇼, 부산국제모터쇼,

안전산업 박람회,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등 연간 24여개 국내전시회의 해외 바이어와 참가업체의 유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0-1-8 |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지원 사업 결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횟수(회)	29	28	24
참관 바이어(개사)	1,658	1,491	1,427

8)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개별 기업의 요청에 맞는 기초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로 사업파트너 조사, 항목별 시장조사((구) 맞춤형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서비스가 있으며 바이어 연락처 확인은 연간 6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표 IV-20-1-9 |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제공건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파트너연결(건)	4,866	4,438	3,992	3,410	3,211
항목별시장조사(건)	1,421	1,612	1,921	1,413	1,460
원부자재공급선조사(건)	206	121	109	136	187
해외수입업체 연락처확인(건)	1,626	1,133	875	854	620
합계(건)*	8,119	7,304	6,897	5,813	5,478

*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건) 제외

9)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세일즈출장과 투자환경 조사출장으로 구분되는 유료사업으로 해외 세일즈출장은 거래선 확대를 위해 개별출장을 시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잠재 바이어와의 상담주선을 지원한다. 해외 투자환경 조사출장은 투자 진출을 위한 조사출장을 시행하는 기업을 위해 투자대행기관, 현지 로펌 등과의 상담주선을 지원한다.

표 IV-20-1-10 |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제공건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일즈출장(건)	231	223	191	213	303
투자환경조사출장(건)	29	11	27	28	36
합계(건)	260	234	218	241	339

10) 개별 방한바이어 수출상담 지원

한국제품 수입 수요가 있는 해외바이어가 개별 일정으로 방한하는 경우 국내 적격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고 통역을 포함한 수출전문위원들의 밀착 상담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20-1-11 | 개별 방한 바이어 지원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바이어 지원(건)	238	229	212	144	172

나. 전략산업별 해외마케팅 지원

1) ICT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ICT산업은 과거 분절화되어있던 기술들이 상호 융복합되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되면서 5G, 스마트시티, 로봇 등 새로운 분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KOTRA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IT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를 비롯하여, ICT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파트너십 구축과 글로벌 벨류체인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ICT 융복합분야의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봇, ITS(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시장개척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ITS협회 등과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예시로 중국 선전과 난징에서 로봇사절단(K-Robot)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동 ITS 로드쇼를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 전시주관사와의 협력을 통해 LED & OLED 2019, 스마트테크코리아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19 등의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개최된 GMV(Global Mobile Vision)은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바이어 초청 수출투자상담회로서, 국내 유망 ICT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행사에는 184개 국내기업과 225개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이 진행되어, 1,400여건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GMV는 참여기업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바이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후속지원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ICT수출컨설팅센터를 통해, 중소IT기업의 수출애로 상담 및 해소를 상시 지원하고 있다. 해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주요 IT시장인 미·중·일에 IT지원센터를 운영(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하여 우리 유망기업들이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실 제공부터 다양한 파트너 발굴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ICT뉴스레터를 통해, IT수출 및 해외진출관련 정보를 일일뉴스와 IT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 지식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KOTRA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뿐 아니라 의료, 프랜차이즈 등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분야, 혁신서비스 분야(VRAR, 에듀테크 등)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KOTRA 서비스산업실은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및 서비스 해외거점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여 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돕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 대표 수출플랫폼인 ‘대한민국 서비스 수출대전(KSM)’과 ‘ASIA-EU Cartoon Connection’을 ‘서울 VR·AR 엑스포’와 을 연계하여 통합 개최함으로써, 세계

각국 유망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하였다.(해외 바이어 270개사, 국내기업 440개사 참가)

더불어 중소기업의 한류활용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한류 상품박람회(KBEE)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방콕(6月), 두바이(10月)에서의 개최를 통해 콘텐츠와 한류기반 소비재 수출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3)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KOTRA에서는 차세대 수출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산업(의료기기, 제약, 병원 서비스 등)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1:1 상담을 진행하는 수출상담회의 경우,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와 연계한 ‘글로벌 의료기기 상담회’와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의약품 상담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 유망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한다.(2018년 202개사 초청)

또한 분야별 유망전시회에 대한 한국관 참가와 더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전략 시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의료사절단도 파견한다. 2018년에는 중동, 중남미, 동유럽, 동남아,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인도-사우디 등 신흥시장을 위주로 8회에 걸쳐 사절단을 파견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및 제약업계 유망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인 ‘선도기업 육성사업’, 국내 보건기관의 해외 병원 건립이나 프로젝트 수주 등 국내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보건의료 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바우처 보유기업은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4) 친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KOTRA는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동남아,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략시장의 유망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발주처(바이어) 정보, 입찰관여 및 수주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이래 프로젝트 상담회, 포럼, 전시관, 분과별 세미나, 산업시찰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 세계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해 국내기업과의 1:1 상담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 기업의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수주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8년에는 동남아, 중국, 동유럽, 중남미 지역에 환경프로젝트 수주사절단을 파견, 환경 산업 진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 및 수주 활동을 지원했다.

5)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해외시장 진출 지원

KOTRA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에서 발굴되는 각종 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수주협의회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수출상담회, 설명회, 수주단 파견 및 플랜트 수주지원센터(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KOTRA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 718여개사 2,095여명을 회원사로 하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의 63%는 중소기업이다. 수주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KOTRA 해외조직망에서 수집하는 프로젝트 정보를 수시로 전파한다. 또한 업계 정보 교류와 해외 동향파악을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수요포럼을 분기 1회 개최한다. 이 밖에도 해외수주협의회 소속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수주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지방애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상담을 수행했다.

2018년 4월에는 국내 최대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상담회인 ‘Global Project Plaza 2018’를 개최했다. 국내 기업의 개별적 접근이 어려운 글로벌 유력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 국내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사의 해외 수주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우리기업 중에는 자금력 부족으로 투자개발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하도급 프로젝트 수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는 'MDB·글로벌 개발펀드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 다자개발은행과 투자금융기관을 국내로 초청해 다자개발은행 재원 투자 프로젝트를 우리기업에게 소개하고, 우리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다자개발은행의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6) 일반물자 정부간(G2G) 교역 지원

2012년 페루 지능형 순찰차 800대의 정부간(G2G) 거래가 계기가 되어 2014년 1월 21일 대외무역법에 「정부간 수출계약」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KOTRA는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되었으며 일반물자에 대한 정부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GtoG교역지원단을 신설하였다.

KOTRA는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외국정부에 물품·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는 계약 당사자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무역 방식을 통한 수출먹거리 창출 사업으로 외국정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해외 무역관, 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우리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며, 거래 가능 주요 품목 유형으로는 특수목적차량 및 운반장비, ICT, 각종 인프라 및 관련 운용 시스템 등이 있다.

2017년 KOTRA는 미얀마 양곤 주정부에 스쿨버스 200대를 공급하는 정부간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중남미지역에 국한되어있던 G2G시장을 아시아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에는 페루 다목적함 사업을 지원하여, 1호에 이어 2호도 우리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또한, 정부간 수출계약제도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간 수출계약제도, 무역보험, 국제계약 시 유의해야할 법무사항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정부간거래관리실은 정부간 거래 프로젝트 발굴, 외국정부와의 계약 협상 및 체결 과정 지원 등 정부간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KO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무역관에 조달진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와 정부 조달벤더 초청 1:1 상담회 개최, 조달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해외 사절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5개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조달시장 진출 정보수집, 사업기회 발굴, 현지 조달 벤더와의 파트너링, 벤더등록 지원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

KOTRA는 글로벌기업의 기술협력 수요 발굴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지원하는 글로벌파트너링(GP)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의 부품공급 수요나 제품 개발 의뢰에 대응 가능한 소재부품(중간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의 기술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종합상담회를 국내외 권역별로 개최중이며 국내에서는 매년 하반기에 GP Korea(글로벌파트너링 수요발굴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GP사업은 2010년 시작 이후 총 695회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143건의 정부 R&D를 지원하였다.

표 IV-20-1-12 | GP사업 계량 실적 현황

연 도	GP상담회(회)		참가기업(개사)		R&D지원 (건)	R&D지원 (억원)
	종합	전문 (핀포인트)	해외기업	국내기업		
2010년	8	9	322	715	1	22
2011년	14	5	549	706	12	89
2012년	3	20	133	382	16	96
2013년	6	52	249	835	28	77
2014년	12	74	507	1,352	31	92
2015년	8	115	783	1,161	20	90
2016년	12	116	697	1,275	15	57
2017년	14	111	996	1,605	15	63
2018년	8	108	979	1,487	5	23

다. 중소기업 수출 애로해소 및 글로벌 역량강화

1)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

기업의 글로벌역량(Global Competence Level)을 진단하여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기업요청 시, 수출전문위원이 역량 진단에 참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 컨설팅 및 방문 컨설팅을 하고 있다.

표 IV-20-1-13 | 글로벌 역량진단(GCL테스트) 제공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진단기업(개사)	1,636	5,521	9,115	7,906	7,758

2) 이동 KOTRA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해결 지원을 위해 전국 13개 지역(서울, 경기, 경기북부, 인천, 부산, 경남, 대구경북, 울산, 대전충청,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에 찾아가는 수출상담 서비스인 이동 KOTRA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역량진단(GCL)과 연계 각 기업의 역량과 수출단계에 맞는 해외거래선 발굴, 수출지원사업 안내, 계약서 검토, 기타 수출애로 해소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20-1-14 | 이동 KOTRA 서비스 제공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방문 기업(개사)	2,303	2,703	3,304	3,770	3,910
방문 건수(건)	-	3,098	4,169	4,601	4,823

3)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센터(Trade Doctor)

무역투자상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전세계 지역 담당 전문위원이 전화, 내방, 온라인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20-1-15 |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무역상담(건)	19,584	26,081	27,501	27,829	30,582
투자진출상담(건)	6,204	11,955	11,476	10,304	11,344
합계(건)	25,788	38,036	38,977	38,133	41,926

4)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은 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여건상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으로 제한적인 내수시장에 치중하고 있으며, 수출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전이 쉽지 않다. 이러한 내수 중소기업을 위해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무역 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년간 1:1로 밀착 지원하고 있다.

표 IV-20-1-16 |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 업체 지원현황

구 분	참가기업 수	2017년 수출액	2018년 수출액	비 고
내수기업	3,000개사	US\$ 0	US\$ 66,808,987	신규수출기업(1,333개사)
초보기업	1,000개사	US\$ 6,876,138	US\$ 42,237,478	수출지속기업수(670개사)
계	4,000개사	US\$ 6,876,138	US\$ 109,046,465	

* 공사 전체 신규 수출기업수(개사) : 2,617개사(신규 수출기업화사업 1,333 + 기타 공사 마케팅 1,284)

* 초보기업이란 전년도 소액수출(전년도 실적 US\$ 5만)기업으로 수출중단 방지 지원

5) 강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월드챔프육성사업/수출중견육성사업)

기업 중심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도 월드챔프 육성사업 및 중견기업 글로벌화 가속을 위한 수출도약중견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는 부족한 해외네트워크를

KOTRA에서 보완하고, 참가기업별 제품특성, 수출 성숙도, 현지 시장상황 등 글로벌 현황진단을 거쳐 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로드맵을 수립 후, 5년에 걸쳐 참가기업과 KOTRA 수출전문위원, 그리고 KOTRA 무역관이 삼각 체계를 구축,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

2018년 말 월드챔프 183개사, 수출중견 100개사가 참가하여, 사전에 수립된 사업 계획에 따라 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 단독 로드쇼 개최, 현지 마케팅 인력 운용, 광고 등 연간 1,790회의 현지 마케팅 활동을 실시했다. 참가기업은 수출 확대, 해외 진출, 해외 거래처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체계적인 시장개척 방법을 습득하여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높일 수 있다. KOTRA는 향후 국내 강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접근방식 고도화에 맞춰 지원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IV-20-1-17 |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마케팅 전략(목표)	세부 마케팅 활동
영업망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마케팅 인력 발굴 및 운영 지원 • 현지 유통망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리점(딜러)계약 영업활동 지원)등
맞춤형 시장조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겟 시장조사 또는 시장정보 보고서 구입 지원 • 관련 산업 DB확보 • 타겟 바이어 발굴 및 텔레 마케팅 실시 • 현지 타겟고객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등
마케팅 활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및 연계 행사(패키지) : 전시회 참가지원 및 단독 IR, 기술설명회, 신제품 런칭쇼 등을 연계하여 패키지화 • 현지 세미나, 로드쇼, 시연회 등 개최 • 현지시장 Test Marketing 사업 • 유력 바이어 방한초청사업 등
홍보 활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홍보, 광고 대행사 발굴 • 스폰서쉽 마케팅 • 유력 전문지&매체 광고 • 문화 마케팅 사업 • 수출 위한 각종 판촉물 및 홍보물 제작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 Supply Chain 진출 사업 • 해외유망 기업 M&A지원 사업 •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투자유치 사업 • 글로벌 기업 관계자 방한 초청 사업 등
현지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 설립 & 공장 설립 관련 사전 타당성 법률/컨설팅 • 합작 파트너 발굴 지원 • 인증 및 특허, 상표 등 등록 및 획득 지원

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KOTRA가 운영하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수출 품목의 다양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과 생산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참가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인증 로고 사용과 함께 해외 홍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방법은 우선 우리나라가 해외시장 점유율의 5% 이상, 상위 5위 이내인 품목 중, 세계시장규모가 연 2천만 달러 이상(국내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이거나 수출규모가 연 5백만 달러인 상품을 세계일류상품(현재일류)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의 생산기업 중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 이상이거나 5위 이내인 기업, 또는 수출점유율이 1위(또는 동종 상품 중 30% 이상)인 기업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현재일류)으로 인증한다. 아울러 향후 7년 이내 세계일류상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하여 후보군으로 육성하고 있다. 매년 5~7월 신규 품목과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3~4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11~12월경에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현재 784개 품목 876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으며,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R&D, 인력,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라. 중소기업 해외투자진출 및 국내복귀 지원

1) 해외투자 실무가이드 및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발간

해외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무적 도움을 주기 위한 해외투자 실무가이드를 국가별로 발간한다. 2018년 하반기에는 러시아, 라오스, 베트남 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인도, 필리핀 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할 예정이다.

격년으로 발간되는 디렉토리 자료는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로서

각종 공공기관, 연구단체, 학교, 기업 등으로부터의 이용도가 높고 각종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에는 세계편, 동남아·대양주편, 중국편의 3권으로 발간되었으며, KOTRA 해외시장뉴스 사이트에 기업 목록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기업의 연락처 등 상세정보는 파일 또는 책자 형태의 자료 구입을 통해 가능하다.

2)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사절단 파견

우리기업이 적절한 해외투자 후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며,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조사단을 파견한다. 2018년에는 총 15회에 걸쳐 수요가 높은 미국, 베트남, 중국 등의 투자진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미국, 홍콩에 이어 아세안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절차, 유망업종, 성공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6년 이래 미얀마, 인도네시아, 케냐, 에티오피아 등지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였으며, 특히 2018, 2019년에는 다수의 기업이 진출하여 붐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기업들은 투자설명회 및 현지투자조사단 참여를 통해 국가별 투자절차, 인센티브, 시장동향,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4년 KOTRA 베이징무역관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2018년 기준 중국 6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광저우, 선양), 베트남 2개소(호치민, 하노이), 아시아지역 6개소(자카르타, 마닐라, 뉴델리, 양곤, 방콕, 프놈펜), CIS지역 3개소(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울란바토르), 유럽지역 2개소(바르샤바, 프랑크푸르트), 중남미지역 2개소(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등 14개국 2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전문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센터별 자문 회계, 노무, 변호사 상담지원 등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상담과 이슈 대응 세미나 개최를 통한 현지 경영 지원, 현지정보 발굴 및 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출기업의 내수판로 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병행하며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을 지원한다.

4)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재권 이슈가 많은 주요 국가에 설치, 현지 지재권 창출보호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데스크이다. 현재 중국 7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홍콩), 미국 2개소(LA, 뉴욕),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각 1개소로 총 8개국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재권 상담, 지식재산권(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출원 비용 일부 지원 사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표 IV-20-1-18 |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유형

종류	세부내용
지재권 법률상담	• 해외 진출(예정)기업에 대한 현지 지식재산권 법률 애로 상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 현지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50%한도)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현지 지재권 (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70%한도)
해외 지재권 설명회	• 현지 단속 공무원 등 대상 한국 유명상표 설명, 진품 식별 방법 등 교육 • 현지진출 한국기업 대상 현지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진출 시 유의사항 안내
해외 지재권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 해외 주요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 지재권 제도 소개 및 지재권 유관 기관 교류 활성화 •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통한 현지국가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직접 전달

5)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서는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조세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지원 등) 및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KOTRA 해외무역관에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지원데스크(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선양)를 통해 관심 기업에게 해외현지법인 구조조정 컨설팅(매각, 양도, 축소 등) 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이 국내에 부지를 선정하고, 보조금(입지, 설비, 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이 국내복귀 단계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6) 글로벌 M&A 지원 사업

KOTRA는 해외 M&A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3.2월 ‘글로벌 M&A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로 7년차를 맞이하였다. 해외 M&A 거점무역관(30개)이 구축한 현지 부티크 및 자문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망 M&A 매물을 발굴,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KOTRA는 해외 M&A 매물 발굴, 현지 법·제도 조사를 포함하여 M&A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친 매수자문을 직접 수행한다. 특히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물발굴에 강점이 있으며 M&A 실사 수행기관 발굴도 지원한다. 그 외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딜 소싱 설명회·상담회도 개최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글로벌 M&A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해외 판로개척, 선진기술·판매망 확보, 브랜드 인수, 글로벌 기업 납품기회 확대 등의 경영목표를 단시간 내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표 IV-20-1-19 | 글로벌 M&A 지원사업 절차

① M&A팀에 사업 참여 신청 → ② M&A 전문가 개별 방문 상담으로 지원범위 설정 → ③ 사업신청서 제출 및 KOTRA와 NDA 체결 → ④ 타겟지역 소재 무역관 매물발굴 → ⑤ 국내기업 전달 및 매칭 지원 → ⑥ 매수자문 및 후속지원

마. 글로벌 시장정보 제공 및 교육

1) 해외시장정보 조사·전파

KOTRA는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 산업·상품정보, 통상현안, 경제동향, 마케팅정보 등 수출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취업·창업 등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KOTRA 해외시장뉴스 포털(news.kotra.or.kr)을 통해 생생한 해외시장 동향을 전파하고 있으며, 세계 84개 국가의 경제·산업 동향, 수입규제제도, 투자환경, 출장 시 유의사항 등 각 국가별 심층정보를 담은 국가·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수요 및 현지 여건변화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국가별 진출환경, 시장분석,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수록한 권역별·국별 진출전략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경제 및 시장 조망, 권역별 이슈 점검을 위한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가 발생할 경우, 현지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조사·전파하고 있다. 또한 우리기업이 신흥시장 및 미개척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산업과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이 열광할 세계트렌드’, ‘글로벌 산업 전시회 현장 리포트’ 등을 발간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포털(news.kotra.or.kr)과 함께 뉴스레터, 무역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다음 등 국내 유력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책 형태로 보고서를 유통하는 등 고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KOTRA 해외시장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2)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KOTRA는 해외에서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광저우, 다렌, 텐진, 하노이, 호치민, 보고타, 자카르타, 방콕, 뉴델리, 마닐라 등 7개 국 14개 지역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우리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 상시 상담, 현지 기업 애로해소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 밖에도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기능별(통관·회계·법률 등), 산업별(유통·농식품·IT·서비스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V-20-1-20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역

국가	지역	설치사유
중국	베이징	· 中 수도 소재지, 국내기업 투자진출 거점
	상하이	· 동부연안 경제중심지, 국내기업 투자진출 거점
	칭다오	· 中 물류중심지,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 밀집 지역(전체 진출기업의 30%)
	청두	· 中 서부 내륙시장 진출 거점도시, 내륙개발 확대로 최근 소비 수요 급증

국가	지역	설치사유
	광저우	· 中 최대 경제중심지(GDP 중국1위) 한-중 교역 핵심 거점
	다롄	· 中 동북 3성 경제 중심지, 국내기업 투자진출 거점
	톈진	· 中 한중교역 물류 중심지, 국내기업 투자진출 거점
베트남	하노이	· 베트남 수도 소재지역, 북부 물류 거점도시
	호치민	· 베트남 경제 핵심지역, 남부 물류 거점도시
콜롬비아	보고타	· 콜롬비아 수도 소재지,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수도 소재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태국	방콕	· 태국 수도 소재지로 아세안 물류거점 도시,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인도	뉴델리	· 인도 수도 소재지이자 거대소비시장,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수도 소재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3) 경제외교 활용포털 웹사이트 / 모바일앱

VIP 해외 순방/국민 방한 시 국가 간 합의사항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외교로 창출된 비즈니스 기회를 우리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외교 종합정보 DB를 구축, 2014년 2월 경제외교 활용포털(舊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을 오픈하였다.

경제외교 활용포털은 2013년 이후 진행된 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내용(MOU) 등 경제외교 종합정보와 경제사절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외교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정부부처 및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해외 비즈니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경제외교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성과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제외교 및 경제사절단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1월, 경제외교 활용포털 모바일앱이 출시되었다. 우리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상시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정상회담 종합정보, 후속조치·사업, 경제사절단 및 순방 연계 각종 경제행사, 해외시장정보, 경제외교 기업활용 사례 등을 우리기업들이 모바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각 국가별 현지 체류 시 필요한 실용 정보를 담고 있는 방문국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우리기업들로 하여금

경제외교 활용포털을 단순히 경제외교 및 경제사절단 정보제공 수단이 아닌 해외 비즈니스 종합 정보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KOTRA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교육과 지방소재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지방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KOTRA가 쌓아온 해외 마케팅 및 투자유치 노하우를 고객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며, 2018년 기준 총 155회 과정을 운영하였고, 교육생 3,943명이 강의를 수료하였다.

표 IV-20-1-21 | 교육과정 운영 현황(2018년 기준)

과정명	주요내용	횟수	고객수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 산업별 수출 마케팅 역량강화 과정 * 자동차부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영유아, 의류 등	9회	239명
지역전문가 과정	- 신흥시장의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 과정 *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란 등	27회	870명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 수출초보, 유망, 중견기업 대상의 역량별 맞춤형 교육 과정 * 수출첫걸음 과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해외 투자진출 실무 과정 등	13회	547명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역량 배양 과정 * 글로벌 CEO 아카데미, 국제 비즈니스 계약, 협상, 해외 파트너십 제휴, 해외 전시마케팅 등	39회	1,186명
주재원 사관학교	- 중소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 강화 과정 * 현지 경제·문화 이해, 노무·세무, 통관절차 등 실무 교육 중심	26회	448명
FTA활용 업종별 교육 과정	- 중소기업의 FTA활용 인력양성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 *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섬유, 화학, 농수산, 디스플레이, 화장품, 의료기기	29회	412명
기타교육 과정	- 지방 맞춤형 교육과정, 외국인투자유치전문가 양성과정 등	12회	241명
총계(기타과정 포함)		155회	3,943명

바. 외국인 투자유치

1) 투자유치 정보 포털 운영

Invest KOREA는 국내 투자유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IK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를 운영하고 있다. IK 홈페이지는 메인 및 10개 광역시도별 투자유치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문, 영문, 중문, 일문 4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모바일 웹(영문)도 별도 제공하고 있다.

IK 홈페이지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투자여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FTA 활용정보, 한국 투자환경, 외국인투자기업 성공사례, 유망산업, 투자가이드, R&D 정책정보 등 투자관련 제반정보와 한국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 및 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수요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지원 및 관련 다양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한 FDI 국민경제기여 부분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 대한투자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KOTRA내에 설치된 Invest KOREA는 국가 투자유치 전담 기구(IPA)이다. Invest KOREA는 각종 대한 투자 상담서비스 및 투자유치활동과 36개의 해외 투자유치활동 무역관에서 현지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2018년 269억 달러(신고기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KOTRA의 Invest KOREA 조직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대상 지역별로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투자가 실현될 때까지 해외무역관-본사-중앙/지방정부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밀착지원하고 있다.

Invest KOREA는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아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한 국가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로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무역관-본사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유망 잠재투자가 발굴에 주력한 결과, 2018년 총 2,380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관리하였으며,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표 IV-20-1-22 | 연도별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투자유치 프로젝트(건)	1,783	1,891	2,010	2,108	2,207	2,380

3)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방한 투자사절단 지원

Invest KOREA는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진출과 사업 활동을 위한 활동을 연중 수행하고 있다. 유망 잠재 투자가와 투자 유망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해외에서 투자 전담관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발굴된 유망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해외무역관 투자전담관과 함께 본사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전담으로 지정되어 한국진출에 따른 법인설립, 공장부지 물색, 인센티브 설명 그리고 유관단체 면담 등 방한 활동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방한하는 투자가에 대해서는 입지부터 행정수속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vest KOREA는 투자유치 IR과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한편 투자유치 테스크포스팀(TFT)을 파견하고 투자가를 방한 초청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깃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 IR, 지자체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 연계 해외 IR 및 라운드 테이블, 실무TFT, 지자체 수요에 의한 투자유치단 파견은 2018년 76회를 수행하였다. 한편, Invest KOREA에서는 2018년 방한투자가 769건을 지원하였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1999년 10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 개소 이래 연평균 약 376건, 2018년 말 기준 269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에 따라 금융, 세무, 건설, 회계, 노무, 지적권, 법률, 인증, 환경 등 분야별 전문위원인 흠닥터를 배정하여 단순한 경영자문에서 법규 및 행정과

관련된 까다로운 고충해결까지 현장방문, 상담, 온라인,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1:1 맞춤형 무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소그룹·분야별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정보포털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부입법·의원입법 사전단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 모기업의 고충현안 발굴 및 증액투자 유도를 위해 해외 모기업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표 IV-20-1-23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유형별 동향 (5개년)

년 도 별	처 리 현 황		처 리 유 형		
	건 수	증감률	제도개선	행정처리	기타처리
2014년	437	14	9	112	316
2015년	462	5.7	14	112	336
2016년	409	-11.4	16	106	287
2017년	289	-29.3	12	90	187
2018년	269	-6.9	6	108	155

주) 처리유형은 정부 기관의 법규개정을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를 수반하는 “행정 처리”, 자문제공 등 자체 인력을 통해 해결하는 “기타처리”로 구분됨.

5)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Invest Korea Plaza, IKP)에 위치한 투자종합상담실(Investment Consulting Center, ICC)에는 KOTRA 전문위원과 함께 8개 중앙정부부처, 8개 지자체, 2개 유관기관에서 파견 나온 22명의 공무원 및 직원이 투자신고부터 인센티브 지원, 외국인 투자가 정착지원 등 외국인투자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 민원 처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표 IV-20-1-24 | 투자종합상담실 원스톱서비스 내역

관세	국세	입지	외투 신고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비자	생활	환경	건설	운전 면허	로컬 데스크
현물출자 확인서 발급/ 관세상담	사업자 등록 및 조세 상담	맞춤형 입지지원 / 공장설립 상담	외투신고/ 등록/변경	법인등록 절차 안내/ 법률상담	조세 및 인센티브 상담	노무 상담	비자발급/ 갱신/변경	생활상담/ 현장동행 서비스	환경 관련 인허가 상담	건설 교통/입 지 상담	운전 면허 교환 발급	지자체 입지 지원/ 지역정보/ 제증명 발급 안내
관세청	국세청	산단공	KOTRA 전문위원	법제처/ KOTRA 전문위원 (변호사)	KOTRA 전문위원 (회계사)	고용부/ KOTRA 전문위원 (노무사)	법무부	KOTRA 전문위원 (영어, 일어)	환경부	국토부	도로 교통 공단	8개 지자체

6) Invest Korea Plaza 운영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Invest Korea Plaza, IKP)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사무실 임대 및 각종 행정 지원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가 전용 인큐베이팅 시설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다. IKP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가 전용 사무실(7~9층)과 KOTRA 투자종합 상담실·지자체·투자유치 유관기관·은행 등이 입주하여 IKP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잠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관 시부터 2018년 12월까지 IKP 외국인 투자가 전용사무실을 이용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총 198개 업체이며 그중 175개 기업이 IKP를 졸업하였고, 38.2억 달러의 투자 신고 실적을 나타냈다.

표 IV-20-1-25 | IKP 인큐베이터 이용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규업체(개사)	11	21	6	12	16
졸업업체(개사)	10	12	16	11	12
투자신고액(US\$ 천 달러)	224,388	105,419	102,890	109,122	46,549

7) 산업별 투자유치활동 전개

Invest KOREA는 국내 제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혁신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4차산업 혁명 관련 기술 보유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복합 리조트, 문화콘텐츠, 물류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외국인투자유치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동체계를 구축하였다.

2018년 한 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전략 및 중점산업별로 4개 분과 16개 분야 총 72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Invest KOREA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자문위원은 Invest KOREA의 국내 투자유치유망 프로젝트 발굴사업에서 심사 및 평가하고, 잠재 투자가의 심층적 인콰이어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IK자문단과의 분야별 투자유치 간담회를 통하여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 방안,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형자동차, 기능성화학소재, ICT분야의 투자유치 현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체계 구축을 위하여 IK자문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사. 해외 전문인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1) 해외 전문인력 발굴·공급

KOTRA 글로벌일자리실은 기업과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인재 발굴에서부터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비자추천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글로벌 인재 발굴 서비스

국내기업 및 기관에서 포털사이트(contactkorea.kotra.go.kr)를 통해 글로벌 인재 발굴신청을 등록하면 해외무역관을 통해 적정인재를 발굴, 의뢰처에 인재정보를 제공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무료로, 대기업에게는 유료로 인재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20-1-26 | 글로벌 인재 유치지원 절차

- ① 인재발굴 신청 → ② 해외무역관 인재발굴 → ③ 인재정보 송부 → ④ 채용 인터뷰 → ⑤ 이력확인 → ⑥ 고용계약 체결 → ⑦ 비자추천

표 IV-20-1-27 | 글로벌 인재 채용지원 실적

연도	구분	해외 전문인력 채용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합계
2014년	수요처(개)	89	17	3	109
	채용인원(명)	150	51	3	204
2015년	수요처(개)	136	34	9	179
	채용인원(명)	277	47	11	335
2016년	수요처(개)	122	32	8	162
	채용인원(명)	160	45	9	214
2017년	수요처(개)	103	3	8	114
	채용인원(명)	147	14	10	171
2018년	수요처(개)	88	7	6	101
	채용인원(명)	145	17	14	176

나) 해외 전문 인력 DB 구축

인재유치포탈(contactkorea.kotra.go.kr)에 해외 전문 인력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심 해외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국내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표 IV-20-1-28 | 전문 분야별 DB 구축 현황

(단위 : 건)

구분	공학	관리	컴퓨터	경영	연구	교육	기타*	계
2014년	723	813	440	1,466	77	89	2,272	5,880
2015년	697	950	476	1,246	70	58	2,003	5,500
2016년	336	790	230	999	62	26	2,130	4,573
2017년	369	882	75	532	25	21	1,441	3,285
2018년	179	155	93	237	22	7	434	1,127

* 기타 : 디자인, 법률, 의료, 운송, 농업 등

다) 해외 전문인력 체류비자 추천

글로벌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특정활동비자(E-7) 발급을 지원하여 출입

국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용추천서 발급시 비자 발급 상한기간은 최대 5년이며 고용기간 연장 시 비자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복수비자 발급, 영주권 발급 우대, 배우자 취업 허용, 가사보조원 동반비자 발급 허용 등이 제공된다. 고용추천서 신청은 포털사이트(contactkorea,kotra.go.k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20-1-29 |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 ① 발급 대상 여부 확인 → ②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③ 1차 서류 검토 → ④ 이력 확인 → ⑤ 외부심사 → ⑥ 홈페이지에서 고용추천서 다운로드 → ⑦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표 IV-20-1-30 | 고용추천서 발급 실적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고용추천서	310	278	370	312	168

2) 해외 일자리 창출

KOTRA는 2013년부터 해외무역관을 통해 양질의 글로벌 일자리를 발굴하여 한국 청년인재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0-1-31 | 국내인력 해외 취업지원 절차

- ① 해외기업의 국내인력 채용수요 발굴 * → ② 해외취업희망 인력모집 → ③ 적격인재 면접 알선 → ④ 고용계약 체결 * 월드잡플러스 사이트 (<https://www.worldjob.or.kr/>)

가) 해외구인수요 발굴

51개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한국인재에 대한 구인수요가 있는 해외 구인처를 발굴하고 있다.

* 해외취업 수행 무역관

(해외취업센터) 도쿄, 두바이, 밴쿠버, 베이징, 시드니, 싱가포르, 자카르타, 프랑크푸르트, 호치민, 하노이, 뉴욕, 오사카, 홍콩, 멕시코시티, 나고야, LA(총 16개소)

(해외취업거점) 토론토, 함부르크, 후쿠오카,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멜버른, 오클랜드, 뉴델리, 실리콘밸리, 상파울루(총 10개소)

(해외취업지원) 디트로이트, 런던,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모스크바, 양곤, 프놈펜, 첸나이, 워싱턴, 시카고, 마이애미, 달라스,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칭다오, 텐진, 광저우, 선양, 타이베이, 다렌, 난징, 항저우, 방콕, 마닐라, 도하(총 25개소)

나) 국내외 해외취업박람회 개최(해외취업 기회제공)

(국내) 양질의 해외기업을 다수 초청하여 국내 구직자와의 1:1 상담기회 제공(글로벌 일자리대전)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연 2회)

(해외) 현지 유학생, 국내 청년(화상상담)을 대상으로 현지기업, 진출기업과의 취업을 알선하는 해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다) 핀포인트 채용상담회 개최(개별방한기업 지원)

해외 구인기업의 채용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구직자와의 1:1 면접 및 필기시험, 채용 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

라)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해외취업자의 현지 정착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가별 네이버카페 운영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정보의 전파를 지원하고, 해외 멘토단을 운영,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현지 정착지원을 도모한다.

- 멘토단 운영 : 현지 멘토단이 정착, 법률, 노무 등에 관한 취업정보 제공
- 헬프데스크 운영 : 현지 취업 FAQ 및 QnA게시판 운영(네이버 국가별 취업카페), 무역관의 온라인 및 유선, 방문 등을 통해 현지 취업에 대한 궁금증 및 애로사항 해결

아. 신흥국 상생협력 기반 구축

1) 글로벌 CSR사업

KOTRA는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도와 기업 인지도를 제고하고, 현지 사회문제 해결과 인력육성에 기여하여 신흥국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글로벌 CSR 사업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 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며, KOTRA는 참가기업에게 사업의 기획·실행, 홍보,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KOTRA CSR - CSR 게시판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csr@kotra.or.kr로 송부하면 된다.

표 IV-20-1-32 | 주요 사업내용 및 '18년 실적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18년 실적
우리기업의 해외 CSR 활동 지원	A형 자사제품· 서비스 체험형 CS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적 바이어나 소비자가 체험 및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 (예시) 의약품을 수출하는 P사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낮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몽골인을 대상으로 간 해독 치료제를 기증하고 전문의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잠재적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구축한 후, 현지수출 성과 확보 	37개 사업
	B형 해외 기술·경영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 기업·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신흥국 정부나 발주처를 대상으로 공유하여 네트워크 구축 ○ (예시)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하는 B사는 중남미에서 철도 발주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철도 설계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반 마련 	53개 사업
	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 (예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특산품인 코코넛 설탕을 개발, 가공 및 판매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자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원료 공급처 확보 및 상품 다양화 	6개 사업
	D형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한국의 시험·인증, 연구개발, 제품생산, 공공 서비스 등의 분야 장비와 운영경험을 신흥국에 제공 ○ (예시) K연구원은 콜롬비아의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해 온습도챔버 등 유휴 장비 12대를 콜롬비아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하고 시험·인증 시스템 전파 	2개 사업

2)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OTRA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무역투자진흥정책 및 경제발전 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함으로써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KSP(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국의 수출 진흥, 외국인투자유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문과 비즈니스 연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협력국에 친한국적 제도 수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윈-윈(win-win)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페루, 브라질, 쿠바, 이란, 케냐 등 총 6개국, 6개 사업에 대해 KSP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별 정책자문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IV-20-1-33 | 2018년 KOTRA KSP 사업 주요국 수행내역

국가명	수행 내용
인도 (방한연수)	○ (자문주제) 인도 투자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페루	○ (자문주제) 페루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한국의 경험 전수
브라질	○ (자문주제) 브라질 IT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
쿠바	○ (자문주제) 쿠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정책 수립
케냐	○ (자문주제)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 시티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
이란	○ (자문주제) 국제표준화 및 기술표준제도 자문

제21장

한국무역보험공사

1

일반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우리나라 수출·수입 보험제도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 중지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입보험은 국내 수입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수출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적기에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정부에서는 1968년 수출보험법 제정 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보험지원을 위해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신규보험종목 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수출보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1992년 약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2018년 말 기준 148조 6,275억 원을 달성하였고 국내수출의 약 20%를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1조 4,76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보험으로서의 공신력도 크게 증대되었다. 2010년에는 수출보험법 개정(2010.7.6자 시행)을 통해 공사명칭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중요물자 수입거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및 수출기반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를 추가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 지원 및 중요 광물이나 원유 등 수입이 불가피한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공사는 총 18개 국내지사³⁵⁾ 운영을 통해 권역별 중소수출기업 전담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방수출기업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 15개 해외지사 운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지원과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확대

공사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상경영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세계경기 침체 및 보호무역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인수실적은 2017년 47.9조원, 2018년 52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17,514개, 2018년 16,770개의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공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대외경쟁력 확충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2008년 인수실적 18.6조원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수 6,952개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표 N-21-1-1 |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소·중견기업 인수실적	443,427	478,818	519,663

35) 16개 국내지사 및 2개 출장소

나. 중소기업 육성방안 시행

공사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이행 및 신규 수출기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기업, 자금부족으로 수출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 희망 및 초보 기업 육성을 위한 무역보험 혁신지원방안’을 통해 한도 우대, 보험(보증)료 최대 50% 할인 및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최대 10회限)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다. 무역보험 아카데미 운영

2009년부터 중소수출기업 및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석자 특성에 맞는 제도 해설과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강사진 확충을 통해 무역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수출 예비/초보 기업에 대한 교육강좌를 추가하여 잠재 수출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IV-21-1-2 | 무역보험 아카데미 운영 내역

(단위 : 회, 개사)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최횟수	32	43	75
수료자수	1,509	1,201	2,138

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보험(증)료 지원사업 확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보험(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험(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소수출기업이 수출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 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부터 전년도 수출실적 US\$1,000만 이하인 서울 소재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험(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증)료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2018년

500백만 원, 업체당 수혜한도는 연간 200만 원이다.

또한 무역협회와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직수출실적 U\$3,000만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중이다.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의 2018년 예산은 총 200백만 원이고 업체별 수혜한도는 100만 원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IV-21-1-3 | 보험(증)료 지원 운영내역(서울시 및 무역협회)

(단위 : 백만원, 개사)

구 분		2017년	2018년
서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증)료 지원	지원금액	500	500
	수혜업체수	802	1,014
무역협회 중소중견기업 Plus+ 보험료 지원	지원금액	145	107
	수혜업체수	781	560

* 단체보험 지원 포함

마. 무역보험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고객의 거래처 변경 및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무역보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공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수출자금 조달, 수출채권 유동화, 환변동관리 등 수요자 맞춤형 무역보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바.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의 제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수출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제도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수출자가 외국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유사하게 수출기업이 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수출신용보증(선적 후)이 중계무역 거래를 제외하고 지원하는데 비해,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중계무역을 포함한 모든 수출거래가 보증대상이 된다. 또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가 보증서 발급 후 수출(대출)통지를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비해, 수출신용보증(매입)은 통지절차가 없어서 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은행에 대한 면책조항 축소로 수출신용담보력이 강화되었으며, 단기수출보험과의 연계 가입의무가 없다. 다만 결제기간이 1년 이내인 거래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3) 환변동보험 제도 운영

환변동보험(일반형)은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금액 또는 수입을 통해 유출되는 외화금액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다.

수출거래의 경우,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다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을 수출기업에게 보상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거래와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손실을 보상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기업의 이익을 회수하게 된다.

환변동보험(옵선형)은 공사는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환율 하락시에는 하락분의 일정수준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율상승시 발생하는 환수금이 부담스러운 영세수출기업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공사는 환변동보험 제도를 통해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투기적 환헤지 수요 차단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정적 실해지 유도를 위해, 공사는 유관기관, 컨설팅사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지방 주요지역에서 설명회 개최 및 개별기업 1:1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IV-21-1-4 |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및 환차손 보험금 지급내역

(단위 : 억원, 개사)

구 분	2017년	2018년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3,526	7,748
보험금 지급액	177	47
보험금 지급업체수	262	196
대 기 업	-	-
중소·중견기업	262	196

4) 지방자치단체 보험(증)료 지원

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조를 통해 보험(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관별로 연도별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장 위치, 수출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내 수출중소기업에게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으로 지원기관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종목에 차이가 있다. 공사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지원받고자 하는 수출중소기업은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5) 무역협회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무역협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2009년부터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 U\$3,000만 이하 중소기업 중 국무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한국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업체별 연간 수혜한도는 종목별로 각각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100만원, 환변동 보험 100만원이다. 이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기존 수입자 및 신규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에서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위험이 증가하고 환율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대금미회수 위험과 환변동 위험을 커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이다(업체별 대표 수출품목 기준 HS-Code 제1~22류(농식품), 수산물·임산물·연초류 제외).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 보험이며 종목별 한도는 업체당 연간 3,000만원이다.

7) 산림조합중앙회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임산물 수출(목재, 석재류 제외)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 보험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1,000만원이다.

8)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사업

공사는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해 회수대행 서비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외미수채권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중소기업 수출자는 공사의 대외채권추심대행 상담 서비스를 통해 미수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볼 수 있다.

대외채권회수 노하우가 풍부한 국외보상채권부에서 동 사업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별로 협약을 맺은 해외추심기관 및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회수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9)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운영

공사는 단체(유관기관, 지자체, 협회 등)의 구성원인 회원사 중소중견기업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10개 이상의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보험이며, 중소중견기업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거래에서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통상 5만 달러 범위 내). 이와 관련,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0) 기타 중소기업 우대제도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대기업의 부보율이 95%(중견기업은 97.5%)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부보율을 100%로 우대함으로써 대금미회수 발생 시 중소기업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한은 2~3개월로 대기업에 대한 보험금지급시한 3~4개월에 비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가지급 비율이 보험금액의 60%이내(중견기업 70%)인데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가지급 비율은 80% 이내로 우대하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은 전 보험종목에서 10~20%의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추가로 보험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도 책정 시에도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22장

한국무역협회

1

회원지원 프로그램 현황

1. 무역상담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 무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 · 접수, 검토, 처리경과, 완료 등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무역애로 DB를 통해 기 접수된 애로처리 내용을 업무에 활용 가능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http://tradesos.kita.net · 전화 : 1566-5114 (내방상담 가능) · 무역협회 국내 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지원실(트레이드타워 49층)

[TradeSOS] 무역실무 및 해외인증 상담

→ 국내 최고 전문가로부터 수출입절차별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야	상담요일	상담시간	컨설턴트
수출입절차	월~금	09:00-18:00	전문 상담역
신용장/대금결제	월~금		전문 상담역
통관/관세환급/HS분류	월~금		관세사
무역실무분쟁대응	월		전문 변호사
국제계약/클레임	화, 목		국제 변호사
세무/회계	수		공인 회계사
환리스크	목		외환 전문가
해외인증	월~금		인증 전문가
전자상거래	목		전문 글로벌 파워셀러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http://tradesos.kita.net · 전화 : 1566-5114 (내방상담 가능)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서비스실 (트레이드타워 1층) 		

[TradeSOS] 무역현장 MC(멘토링&컨설팅) 자문서비스

→ 수출 30년 경력의 무역현장 전문위원이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1:1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자문분야	해외마케팅	· 해외시장 진출전략, 해외거래선(바이어) 발굴, 바이어 상담 등 해외시장진출 관련 전반적인 상담
	무역실무	·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 운송/보험/통관, 대금회수, 무역클레임 상담 · 무역실무 현장교육
	무역지원제도안내	· 무역금융, 환변동보험, 신용조사 등 · 무역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무역애로건의	·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무역애로의 상담 및 해결 · 경영컨설팅 자문(재무, 인사, 회계, 경영전략등)
지원 대상	· 협회 회원사 및 비회원사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tradesos.kita.net · 전화 : 1566-5114 (내방상담 가능) · 무역협회 국내 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담당부서	· 회원지원실(트레이드타워 49층)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수출전문기업화

→ 수출 달성할 때까지 무역현장 전문위원이 집중 멘토링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내용	· 수출 경력 30년 이상의 전문위원이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대상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통관 및 물류 자문 등 집중 멘토링을 통해 수출 달성까지 집중 현장 지원
지원 대상	·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수출실적 0~10만 달러 미만)
신청방법	· 온라인 : kita.net 공지사항 참조 · 전화 : 1566-5114
담당부서	· 회원지원실(트레이드타워 49층)

對韓 수입규제 정보제공 및 상담

→ 외국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현황 안내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수입규제 포털 서비스	· 對韓 수입규제 정보 제공, 월간 對韓 수입규제 보고서 발간 및 배포, 수입규제 대응 절차 관련 안내, 외국의 對韓 수입규제 총람 발간(연간)
수입규제 관련 상담	· 수입규제 대응센터 운영 -> 삭제 · 수출 시 외국에서 겪는 외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대응 상담
홈페이지	· http://antidumping.kita.net
담당부서	· 통상지원단(트레이드타워 48층)

2. 해외시장개척

tradeKorea(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 전 세계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귀사의 상품을 홍보하고 거래제안서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바이어와 국내셀러 간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로 年평균 812만명 방문 및 64,000건의 인콰이어리가 접수 · tradeKorea 가입 후 tradeKorea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상품 홍보 가능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DB 타겟마케팅 : 무역협회 보유 160만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접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 영문 홈페이지 제작 : tradeKorea 도메인활용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지원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 실시간 바이어 인콰이어리 정보 제공 ·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 35개국 143개사 빅바이어 소싱지원(IKEA, Watsons 등) · 샘플 소액결제 서비스 : 샘플 주문, 배송 등 소액결제 원스톱 지원 · 송금수수료 우대서비스 :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수수료 할인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 품목별 매칭 전문가가 국내기업과 해외바이어간 밀착 매칭 지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Korea.com 가입 이후 kr.tradekorea.com에서 국내가입자 전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 : www.tradekorea.com · 국문 : kr.tradekorea.com · 중문 : china.tradekorea.com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마케팅실(트레이드타워 5층)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 바이어 검색부터 C/L 제작 및 검색 바이어 대상 메일링 서비스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보유 전 세계 바이어DB 대상 유망 바이어를 검색하고, 자동으로 C/L(거래제의서)을 제작하여 검색 바이어에게 메일발송
신청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Korea 가입 시 바이어 마케팅을 위한 200 Credit 제공 (1 Credit당 1건의 바이어 대상 마케팅 메일 발송 가능) · tradeKorea 상품등록 등 활동 시 건별 Credit 제공 · 1회 통보메일 발송 건수 20건으로 제한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kr.tradeKorea.com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마케팅실(트레이드타워 5층)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 해외지부가 1:1 타겟마케팅 실시 후 발굴한 유효바이어 정보를 드립니다.

내용	· 해외지부에서 타겟마케팅 후 발굴된 관심 바이어 정보 제공 ※ 관심바이어는 제품 특성 및 현지시장수요 등에 따라 발굴이 어려울 수 있음
서비스 지역	·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전국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 서비스 대상 지역은 수시 변동/확대 가능
신청 조건	· 1회 신청당 1개 지역 서비스 원칙(최대 연 3회) · tradeKorea 활동지수 평가(유효한 담당자 정보, 충실한 상품 정보 등) ※ 각 지역별 매월 최대 15개사 선착순 접수
홈페이지	· http://kr.tradeKorea.com
담당부서	· 온라인마케팅실(트레이드타워 5층)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 글로벌 빅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국내업체와의 상시적인 거래 알선을 지원해 드립니다.

내용	· Carrefour, 3M, Walt Disney 등 유명한 글로벌 빅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국내 수출업체와 상시적으로 거래알선 지원 ※ 1개월마다 3~4건의 신규 바이어의 소싱 진행
운영방식	· 바이어의 국가/소싱품목 확인 후 해당 바이어와의 거래알선 신청 · 바이어 추천업체 적격여부 확인 후 결과 통보(최대 2주)
홈페이지	· http://kr.tradeKorea.com
담당부서	· 온라인마케팅실(트레이드타워 5층)

Kmall24(온라인 해외직판 지원 서비스)

→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귀사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홍보·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Kmall24 영문, 중문 사이트에 상품정보 노출 및 판매 · 간편 회원가입, 해외PG 결제수단 적용 등 해외 판매 최적화
지원사항	· 상품판매 지원 : 해외마케팅 및 모바일 판매 등 · 해외오픈마켓 판매 지원 : 아마존, 글로벌티몰, 이베이 등 상품 연계 등록 · 물류 서비스 지원 : 상품 검수, 리패키징 등 · 기타 운영 서비스 지원 : B2B 인콰이어리 수신, 고객문의 응대지원(CS) 등
신청방법	· Kmall24 접수페이지(Kmall24.co.kr)에서 입점신청
홈페이지	· 영문 : http://www.kmall24.com · 중문 : http://www.kmall24.com.cn
담당부서	· 온라인마케팅실(트레이드타워 5층)

해외전자상거래 멘토링 지원 서비스

→ 해외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그룹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오픈마켓(아마존 등) 입점, 상품등록, 판매 방법 · 매출 연계 방안 및 마케팅 팁 (검색엔진최적화, 배송 방법 등)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해외직판 전문 강의 · 업체별 판매 실습 및 전문 멘토링 진행 · 시즌별 매출 확대전략 및 마케팅 특강
신청방법	· 별도 모집공고 (kita.net 또는 kmall24.co.kr 공지사항 확인)
홈페이지	· Kmall24.co.kr
담당부서	· 온라인마케팅실(트레이드타워 5층)

글로벌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전 세계 유망 바이어와 국내에서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개최기간	행사명
2019. 2. 28~3. 1	· 「SPOEX 2019」 연계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019. 4. 24~25	· 「World IT Show 2019」 연계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019. 7월 중	· 글로벌 유통대기업 플랫폼 연계 수출상담회
2019. 5월 중	· 중국 수출 유망품목 바이어 초청 상담회
2019. 9월 중	·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초청 상담회
2019. 10.22~23	· 「한국기계전(KOMAF 2019)」 연계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019. 10월 중	·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초청 자동차 부품 소싱 컨퍼런스
2019. 11월 중	·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코리아그랜드소싱페어 2019)
2019. 11월 중	· 러시아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신청방법	별도 모집공고(http://www.kita.net ⇨ 공지사항)
담당부서	· 해외마케팅실(트레이드타워 5층) 및 국제사업본부(트레이드타워 47층)

* 실제 상담 일자리는 추후 안내 예정

* 상기 행사는 사정에 의해 변경/취소될 수 있음

국내전시회 개최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 참가와 더불어, 사전에 섭외한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해드립니다.

개최기간	행사명	장소
2019. 2. 28~3. 3	· 서울 국제 스포츠 레저산업전(SPOEX 2019)	서울 코엑스
2019. 4. 24~27	· 월드 IT쇼(World IT Show 2019)	서울 코엑스
2019. 10. 22~25	· 2019 부산 국제 조선 해양대제전	부산 벅스코
신청방법	· 각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SPOEX : http://www.spoex.com - World IT Show : http://www.worlditshow.co.kr	
담당부서	· 해외마케팅실(트레이드타워 5층)	

* 상기 전시회는 사정에 의해 변경/취소될 수 있음

해외전시회 참가

→ 해외 전시 참가와 더불어, 사전에 섭외한 바이어와 현지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일자	전시회	장소
2019. 4. 10~12	· 라스베이가스 보안기기전시회(ISC WEST 2019)	라스베이가스
2019. 7. 10~12	· 태국 방콕 의료기기전(MDA)	방콕
2019. 7. 15~18	· 말레이시아 이미용전(Cosmobeaute Malaysia 2019)	쿠알라룸푸르
2019. 8. 15~19	· 홍콩 식품박람회(Food Expo)	홍콩
2019. 8월 중	· 중국 장춘 동북아박람회(CNEA Expo)	장춘
2019. 10. 22~24	· 미국 LA 무선통신 전시회(MWC)	로스앤젤레스
2019. 10월 중	· 2019 추계 중국 청두국제미용전시회	청두
2019. 11. 5~10	·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	상해
지원내용	· 해외 유망 전시회 한국관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최대 50%) - 장치, 운송, 여행 업체 소개 - 바이어 상담, 현지언론 홍보 및 전시정보 및 시장동향 정보 제공	
회원특전	· 무역협회 회원증(온라인 발급) 첨부 시 우대가점 부여	
신청방법	·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sme-expo.go.kr) - KOTRA (http://www.gep.or.kr)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산용 통장 사본 1부	
담당부서	· 해외마케팅실, 국제사업본부, 국내 각 지역본부	

* 상기 전시회는 사정에 의해 변경/취소될 수 있음

해외 한국상품 전시 상담회 참가

→ 해외 전시 참가와 더불어, 사전에 섭외한 바이어와 현지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상품전명	개최기간	모집업체
동경 한국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2019. 4. 9~10	100개사
베트남 한국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2019. 5. 30~6. 2	50개사
두바이 K메디 & 뷰티 프리미엄 로드쇼	2019. 10월 (잠정)	15개사
자카르타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2019. 11. 7~9	30개사
홍콩AEON '한국우수상품대전'	미정	30개사
중국 서부 '한국우수상품대전'	미정	15개사
미국 유통망 연계 '한국우수상품대전'	미정	15개사
신청방법	별도 모집공고(http://www.kita.net ⇨ 공지사항)	
담당부서	· 국제사업본부, 해외마케팅실, 국내 각 지역본부	

* 상기 상담회는 사정에 의해 변경/취소될 수 있음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무역투자사절단 참가시 해외 현지에서 유력 바이어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역비(업체당 1인), 파견국 내 이동차량 임차비, 오·만찬 행사비, 상담회장 임차비 등 공통경비 전액지원 · 개별기업 항공임 및 체재비(숙박비)는 제외
주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포럼 및 1대1 무역투자상담회 · 한국경제 및 문화소개 로드쇼 · 현지 주요 기업/기관 방문
신청방법	· 별도 모집공고 (http://www.kita.net ⇨ 공지사항)
담당부서	· 국제사업본부, 국내 각 지역본부

* 지원내용은 사절단별, 파견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전문무역상사 활용 매칭

→ 전문무역상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출 전문기업의 해외마케팅 노하우를 제공 · 전문무역상사와 중소·중견 제조기업 간 맞춤형 매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품목별 등으로 매트릭스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맵 작성 -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무역상사와 제조기업 간 상시 온라인 매칭 - 지역별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문무역상사와의 1:1 수출상담 가능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 개최 및 지역별 업종별 협의회 개최(연중) · 신규 전문무역상사 모집(연초)
홈페이지	· http://stc.kita.net
담당부서	· 해외마케팅실(트레이드타워 5층)

3. 자금 및 비용 지원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추천

→ 수출 마케팅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마케팅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해외 특허/규격 인증 획득, 해외 홍보/시장조사 등 ·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혹은 완제품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구매(국내, 해외), 완제품 구매(국내)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무역협회 회원(회비 완납업체)
융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리 : 연 2.75% · 융자기간 : 3년(2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 융자한도 : 업체당 2~3억원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http://fund.kita.net
담당부서	· 회원지원실(트레이드타워 49층), 국내 각 지역본부

수출단체보험 가입지원

→ 회원사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해주는 수출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초기단계 수출대금 회수불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출 단체 보험가입비 일부 혹은 전액 지원 * 보험계약자 : 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피보험자 : 회원사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사(회비납부) 중 전년도 수출실적(직수출) 3천만 달러 이하 * 수출 안전망 보험은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만 가입 가능 																																												
지원내용 (단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지원을 차등 선택 가능한 수출보험 : 2종(중소중견 플러스 단체, 안전망 수출단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left;">①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원기준</td> <td colspan="3">작년 수출실적(직수출) 3천만 달러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상한도</td> <td colspan="3">50,000 USD (보상비율 :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험료/ 보험요율</td> <td colspan="3">20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협회지원율/ 업체부담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회비완납 21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회비완납 11~20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회비완납 1~10년</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 (전액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90% (업체자부담: 2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0% (업체자부담: 4만원)</td> </tr>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left;">② 수출안전망 단체보험</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원기준</td> <td colspan="3">작년 수출실적(직수출) 10만 달러 이하 (수출실적 미보유 업체도 지원가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상한도</td> <td colspan="3">20,000 USD (보상비율 : 9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험료/ 보험요율</td> <td colspan="3">2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협회지원율</td> <td colspan="3">100% (전액 지원)</td> </tr> </table>	①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지원기준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3천만 달러 이하			보상한도	50,000 USD (보상비율 :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보험료/ 보험요율	20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4%)			협회지원율/ 업체부담액	회비완납 21년 이상	회비완납 11~20년	회비완납 1~10년		100% (전액지원)	90% (업체자부담: 2만원)	80% (업체자부담: 4만원)	②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지원기준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10만 달러 이하 (수출실적 미보유 업체도 지원가능)			보상한도	20,000 USD (보상비율 : 95%)			보험료/ 보험요율	2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1%)			협회지원율	100% (전액 지원)		
①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지원기준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3천만 달러 이하																																												
보상한도	50,000 USD (보상비율 :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보험료/ 보험요율	20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4%)																																												
협회지원율/ 업체부담액	회비완납 21년 이상	회비완납 11~20년	회비완납 1~10년																																										
	100% (전액지원)	90% (업체자부담: 2만원)	80% (업체자부담: 4만원)																																										
②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지원기준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10만 달러 이하 (수출실적 미보유 업체도 지원가능)																																												
보상한도	20,000 USD (보상비율 : 95%)																																												
보험료/ 보험요율	2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1%)																																												
협회지원율	100% (전액 지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공지 혹은 회원사 업무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지원실(트레이드타워 49층), 국내 각 지역본부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 회원사의 수출준비, 바이어 발굴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용	· 수출준비단계, 바이어발굴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무역협회 회원(회비 완납)				
지원내용	· 해외시장 개척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 회비 납부 연차에 따른 지원액 차등 · 지원 내용				
	구 분		로 알 (21년차 이상)	골 드 (11~20년차)	실 버 (1~10년차)
	지원 사항	① 기본	90 만원	70 만원	50 만원
		② 추가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지원한도 (①+②)	100 만원	80 만원	60 만원
* 추가(지원금) : KITA 멤버십카드 신규 발급에 한해 지원 ** 전체 소요비용의 10%는 업체 자부담(통·번역 서비스 제외)					
<이용가능 서비스> ① 무역협회 외국어 통번역 지원서비스 ②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모바일, PPT, 인쇄 등) ③ 홍보 동영상 제작 ④ 무역아카데미 연수 ⑤ 해외바이어 발굴 ⑥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⑦ 글로벌 B2B e마켓플레이스 이용 ⑧ 수출상품 해외광고 ⑨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⑩ 운송비 * 사업시행 시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내용은 공지란 참조					
신청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내 공지란 혹은 메뉴 참조 ※ 신청접수기간 : 1월 말~12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담당부서	· 회원지원실(트레이드타워 49층), 국내 각 지역본부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서비스(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에 통합 시행)

➔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비완납 회원사로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승인업체 *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에 통합됨에 따라,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승인 후 이용 가능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온라인) ② 통번역 서비스 신청 및 이용(온라인) · 지원한도 				
	구 분		로 알 (21년차 이상)	골 드 (11~20년차)	실 버 (1~10년차)
	지원 사항	① 기본	90 만원	70 만원	50 만원
		② 추가	10 만원	10 만원	10 만원
	지원한도 (①+②)	100 만원	80 만원	60 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지원금) : KITA 멤버십카드 신규 발급에 한해 지원 ** 통·번역 서비스는 업체 부담금 없음 				
이용가능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18개 언어 (단, 국제전화 통역은 영·중·일만 가능) 				
서비스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관련 문서의 번역 및 통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 : 무역서신, 수출계약서, 수출 제품 카탈로그 등 - 통역 : 국내에서의 바이어 상담, 전시회, 공장견학 - 국제전화 통역 : 수출업체와 바이어가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통역사가 중간에서 순차 통역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http://tradesos.kita.net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지원실(트레이드타워 49층) 				

SERI CEO 프로그램 이용

→ SERI CEO와의 제휴를 통해 회원사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합니다.

내용	· SERI CEO 교육프로그램 수강 지원		
지원대상	· 무역협회 회원(회비 완납)		
지원내용	· SERI CEO/Pro 무료수강 : 회원사별 SERI CEO 및 Pro 무료수강(각 1명)		
	구 분	이용대상	혜택 기간 (무료이용)
	SERI CEO	CEO/임원 (1명)	2개월
	SERI Pro	직원/관리자 (1명)	2개월
	내 용	- SERI CEO교육수강(온라인/모바일) - SERI Pro교육수강(온라인/모바일)	
	· SERI CEO 연회비 할인 - 무료 수강(2개월) 경과 후 추가이용 시(연회비 20% 할인, VAT제외) · SERI Pro 연회비 할인 - 무료 수강(2개월) 경과 후 추가이용 시(연회비 10% 할인, VAT제외) * 서비스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내용은 공지란 참조		
신청방법	· SERI CEO/Pro 무료수강 신청 -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내 SERI CEO 무료 이용		
담당부서	· 회원지원실(트레이드타워 49층)		

4. 무역정보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KITA.net)

➔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인 KITA.net에서 무역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서비스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사이트(http://www.kita.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무역정보 및 한국·해외 무역통계, 굿모닝 KITA 등 제공 • 영문 사이트(http://www.kita.o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사용자들을 위한 협회소식 안내 및 무역통계 제공 • Smart KITA(모바일 앱)/m.kita.net(모바일 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KITA.net의 무역정보를 쉽게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iOS, Android 지원)
주요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net (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사 : TradeSOS(무역애로건의, 무역실무상담), 무역증명서 발급, 협회사업 참가신청, 무역업고유 번호 부여 등 - 무역정보 : 국내외 무역뉴스, 해외시장정보, 국가정보, 무역서식, 실무매뉴얼 등 - 무역통계 : 한국무역통계, 59개국 해외무역통계, 세계경제 및 세계무역통계, 해외 부품소재통계, 맞춤형분석통계 등 - 해외마케팅 : 바이어매칭, 해외오피정보, 무역지원사업, 해외인증, 비관세정보 등 - 교육·취업 : 무역아카데미 과정소개, 자격시험 안내, 국내외 취업지원센터 등 - 협회소개 : 협회소식, 입찰공고, 사업·지부 안내 등 - 국가·업종 맞춤 정보검색 : 대륙/국가, 업종/품목 별 맞춤 정보검색 • KITA.org (영문)- 외국인들을 위한 협회소개 및 행사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상품 거래알선 및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tradeKorea, Kmall24 연계) - 최신 한국 경제 뉴스 제공 - 한국무역통계 제공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빅데이터실(트레이드타워 5층)

국가무역 정보포털(TradeNAVI)

→ 48개 무역유관기관이 입수한 최신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공내용	해외마케팅	해외오피/조달/전시회 정보, 국가별시장/법령/마켓플레이스 정보, 각종 업종단체 해외 시장 보고서 등
	해외 기업정보	무역협회, KOTRA, 무보,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최신 해외기업정보 (회사명, 취급상품, 홈페이지 등) 약 68만 건
	수출지원	무역통상진흥종합시책, 분쟁해결/규제대응, 지원사업/제도, 무역정보 제공기관, 글로벌무역정보/서비스산업정보MAP, 무역정보안내지도, 무역용어/서식 등
	무역규제	주요국 통관거부사례, TBT통보문, 환경규제, 인증, 규격, 수입요건, 전략물자, 분쟁광물, 규제안내 등 사례접수 및 대응지원
	FTA/관세	기본관세, FTA 협정세, 감면세, 부가세 등 세율정보 및 FTA 현황/원산지/사후검증대응 정보 제공
	뉴스	해외시장/관세/기술규제/수입규제동향, 동영상무역정보, 유관기관 소식 등 최신 무역트렌드 제공
	무역통계	EU, 미국, 중국, 인도, ASEAN, 대만, 홍콩, 브라질, 러시아 호주, 캐나다, 터키 등 59개국 무역통계 제공
	무역애로	Trade SOS(무역협회), Trade Doctor(KOTRA), FTA1380 등 각종무역 애로 접수창구 및 애로사례 모음, 전문가 상담 안내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워드/HS 코드/국가/업종별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 '해외시장 종합보고서'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관세, FTA, 수출지원사업, 무역통계 등의 정보를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 · 최신세율 · 규제정보 상시 업데이트, 무역정보안내지도 서비스 제공 · 직관적 UI, 활용팁 등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DB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28개국) 및 미국 · 인도 · 아세안 · 중국 · 대만 · 홍콩 · 브라질 · 러시아 · 일본 · 터키 · 캐나다 · 호주 · 멕시코 · UAE · 사우디 · 남아공 등 총 59개국의 무역정보 DB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tradenavi.or.kr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빅데이터실(트레이드타워 5층)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 국내 최대의 무역통계 D/B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해 드립니다.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및 세계 59개국 수출입 현황을 품목별, 국가별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공 · 수출진단통계, 수출의탑 포상시물레이션 등 맞춤형 분석형 통계정보 제공 · 품목별(MTI, SITC) 취급업체 및 전문무역상사 정보 등을 제공
DB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및 중국·미국·일본·중국·EU(28개국)·호주·캐나다·아세안·중남미 등 총 59국 무역통계 DB 보유 · 세계경제 및 세계무역통계, 해외부품소재통계 등 주제별 무역통계 DB 보유
홈페이지	· http://stat.kita.net (www.kita.net ⇨ 무역통계)
담당부서	· 무역빅데이터실(트레이드타워 5층)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수입규제 전문 컨설팅 및 통합 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애로를 해소해 드립니다.

제공내용	수입규제 통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입규제 조사 및 통상 보고서 등 최신 정보 제공 - 국가별 수입규제 판정 절차 및 현황 - 국내외 통상 유관기관 및 컨설팅 업체 컨택 포인트 - 국가 및 기관(무역협회, WTO 등)별 최신 통상 보고서 제공 					
	수입규제 전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그룹(회계 및 관세 컨설턴트) 연계 심화 컨설팅 제공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전문가 그룹 연계 컨설팅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컨설팅 접수</p> <p>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 온라인 접수 or 전화접수 (1566-5114)</p> </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p>유선 상담 및 현장 방문</p> <p>1차)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2차) 수입규제 전문가 그룹</p>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사례 공유</p> <p>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p>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p> <p>무역협회 및 전문가 그룹</p> </td> </tr> </table> </div>	<p>컨설팅 접수</p> <p>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 온라인 접수 or 전화접수 (1566-5114)</p>	<p>유선 상담 및 현장 방문</p> <p>1차)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2차) 수입규제 전문가 그룹</p>	↓		<p>사례 공유</p> <p>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p>
<p>컨설팅 접수</p> <p>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 온라인 접수 or 전화접수 (1566-5114)</p>	<p>유선 상담 및 현장 방문</p> <p>1차)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2차) 수입규제 전문가 그룹</p>						
↓							
<p>사례 공유</p> <p>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p>	<p>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p> <p>무역협회 및 전문가 그룹</p>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 지원 · 수입규제 전문가와 연계하여 심화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전략적인 대응 지원을 위해 '기업별 수입규제 대응 전략서' 제공 · 對韓 수입규제 관련 종합적인 대책 마련 및 민관 공동 대응을 위한 '수입규제 협의회' 사무국 운영 						
DB 현황	· 對韓 수입규제 현황 및 국내외 네트워크 연락처 등 DB 보유						
홈페이지	· http://antidumping.kita.net						
담당부서	· 통상지원단(트레이드타워 48층)						

중국 비즈니스 포털

→ 중국 비즈니스 정보 및 법률상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신 비즈니스 정보 이용 가능 • 중국 교역 및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계약관련 분쟁 자문(중국 최신 법령, 시장정보, 전시회정보, 중국 관세율, 중국교역 Q&A 등)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china.kita.net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실(트레이드타워 47층)

연구 보고서 「Trade Focus / Trade Brief」

→ 무역 관련 각종 연구 보고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수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무역현안·이슈, 수출입동향 분석 및 전망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기업 트렌드와 영향 • 미래 유망 수출산업 트렌드 연구 • BRICs, 아세안 등 신흥시장 진출전략의 체계적 수립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http://iit.kita.net • 오프라인 : 신청한 회원사에 한하여 무료 배포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역연구원(트레이드타워 48층)

KITA 전자도서관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구원의 모든 보고서와 다양한 전자책(eBook)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회원사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PC로 이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도서관 웹사이트(http://ebook.kita.net)에 KITA.net ID로 로그인 - KITA.net ID가 없는 경우 무료 가입 후 이용 • ②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Play Store 또는 iTunes 앱스토어에서 “KITA 전자도서관” 앱을 다운로드·설치 후 KITA.net ID로 로그인 - KITA.net ID가 없는 경우 무료 가입 후 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 전자도서관 주요 서비스」 - 무역협회 및 유관기관 발간자료(일반인 이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ebook.kita.net 로그인 후 이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향분석실(트레이드타워 6층)

정보자료실

➔ 무역 관련 4만 여 권의 소장 자료 및 온라인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 무역협회 회원사
이용 방법	· 이용시간 : 사전예약제로 운영(월~금 09:30~17:30) · 위치 :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6층 603호 · 장서 검색 : http://edms.kita.net/
소장자료	· 각국의 무역업체, 제조업체 디렉토리 · 국내외 경제 및 무역 관련 통계집 · 경제 및 산업 연감, 각국의 관세율표 등의 참고도서 · 경제 및 무역 관련 일반도서 · 한국무역협회 간행 자료 등
담당부서	· 동향분석실(트레이드타워 6층)

KITA 비즈니스 라이브러리

➔ 무역 관련 4만 여 권의 소장 자료 및 온라인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이용시간 : 상시(단, 자료 안내는 평일 10:30~22:00) · 위치 :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 내 위치 · 장서 검색 방법 ① KITA 비즈니스 라이브러리에 비치된 전용 태블릿 PC 사용 ② 별마당 도서관 내 비치된 KITA 전자도서관 전용 검색 PC 사용
소장자료	· 국내외 경제 및 무역 관련 간행물 · 경제 및 무역 관련 일반도서 · 한국무역협회 간행 자료 등
담당부서	· 동향분석실(트레이드타워 6층)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 매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찬 강연을 갖습니다.

강사	· 정부부처 장관, 유력기업 CEO, 경제·인문사회·과학 분야별 전문가 등																										
일시	· 매월 중·하순경 07:20 ~ 09:00 (단, 8월, 12월은 제외)																										
대상	· 무역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원 ※ 조찬회 연간 회원제로 운영 (무역협회 회비 완납사만 가입가능)																										
멤버십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멤버십 구분</th> <th>연회비</th> <th>대상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연회원</td> <td>개인회원</td> <td>20만원</td> <td>1명</td> </tr> <tr> <td rowspan="2">법인회원</td> <td>50만원</td> <td>3명</td> </tr> <tr> <td></td> <td>100만원</td> <td>7명</td> </tr> <tr> <td rowspan="3">1회 참석</td> <td>협회 회원사</td> <td>10만원</td> <td>1명</td> </tr> <tr> <td>협회 비회원사</td> <td>20만원</td> <td>1명</td> </tr> <tr> <td>협회 신규회원사*</td> <td>무료</td> <td>2명</td> </tr> </tbody> </table>			멤버십 구분		연회비	대상인원	연회원	개인회원	20만원	1명	법인회원	50만원	3명		100만원	7명	1회 참석	협회 회원사	10만원	1명	협회 비회원사	20만원	1명	협회 신규회원사*	무료	2명
	멤버십 구분		연회비	대상인원																							
	연회원	개인회원	20만원	1명																							
		법인회원	50만원	3명																							
			100만원	7명																							
	1회 참석	협회 회원사	10만원	1명																							
협회 비회원사		20만원	1명																								
협회 신규회원사*		무료	2명																								
※ 조찬회 연회비는 무역협회 회비와 별도이며, 중도환불은 불가합니다. ※ 협회 신규회원사는 당해연도에 한해 1회 무료참석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별도공지 (http://www.kita.net ⇨ KITA최고경영자 조찬회 ⇨ 운영안내) ※ 조찬회 멤버십 가입은 회원서비스실로 문의																										
담당부서	· 회원서비스실 조찬회 사무국(트레이드타워 1층) · 전화 : 02-6000-5028/5134																										

5. FTA 활용

FTA 정보제공 및 업계 의견 수렴

→ FTA 관련 정보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해 드립니다.

FTA 활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별 · 품목별 수출 및 수입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FTA 활용 실무정보에서부터 협정문, 연구 · 조사자료, 정책자료, 최신뉴스 등 국내외 FTA 활용정보 통합제공
FTA 협상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협상에 대한 업계의견을 정부협상단에 전달 (통상산업포럼사무국)
설명회/세미나/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해외 FTA전문가의 FTA 활용 비즈니스 전략 제공 · 국내 및 해외 FTA전문가와 직접 상담 지원
FTA 활용기법 발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 성공사례집 발간 및 배포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fta1380.or.kr 및 http://antidumping.kita.net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활용지원실(트레이드타워 3층), 통상지원단(트레이드타워 48층)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지원

→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업체 애로를 해결해 드립니다.

FTA 현장방문 컨설팅(OK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전문가들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종합 컨설팅 실시 · FTA교육,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발급 등 FTA 활용과정 지원 · 서류 및 증빙 관리, 검증 대응방법 등 사후관리 지원
검증기업 대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사후검증 수검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 세관의 검증이 진행 중인 수출기업 적시 지원(방문) - 소명자료 작성 지원, 검증 주요 포인트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사후검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한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 전문가(관세사)와의 1:1 상담 및 주요 검증절차 안내
검증대비 사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원산지 사후검증대응 관련 책자 보급(e-Book 서비스 지원) · 사후검증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검증 최신동향 및 유형별 검증사례 및 사전대응 노하우 제공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원산지지원실(트레이드타워 3층)

FTA 활용 컨설팅 및 교육

→ FTA 활용을 위한 업체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을 실시해 드립니다.

찾아가는 1380 방문 컨설팅	· 관세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FTA관련 현장 애로 해소(1회, 무료)
FTA활용 교육	· 교육대상 : 수출업체 임직원 · 교육내용 :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대응 등 · 무역아카데미(서울,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 참조) 및 국내지역본부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교육	· FTA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lting (교육+컨설팅) · FTA KOREA 원산지관리 시스템 활용 실습교육(연중 수시)
담당부서	· FTA활용지원실(트레이드타워 3층), 무역연수실(COEX 4층)

한중 FTA 활용지원 컨설팅

→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FTA 활용	· 품목분류, 관세율, 한국 통관, 한중FTA · APTA 상담
중국 수출	· 대금결제, 무역서류 작성, 국제운송, 거래조건, 중국 통관
시장개척 및 투자	· 중국 시장정보 및 바이어 발굴, 투자진출정보, 현지법인 설립 등
원산지관리	· 원산지 판정 및 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서
중국 인증	· 중국 내 각종 인증 취득 및 대응방법
지식재산권	·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상담 및 계약서 검토
농수산물 수출	· 농식품 수출절차, 지원사업, 라벨링, 농식품 시장동향정보
담당부서	· 차이나데스크(트레이드타워 3층)

FTA 콜센터 (☎ 1380)

→ FTA 활용 관련 궁금증을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 FTA 활용과 관련한 업종별, 협정별 전문 상담 · 필요시 기업 현장 방문 컨설팅 병행
이용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0으로 전화
담당부서	· FTA종합지원센터(트레이드타워 3층)

6. 교육 및 채용

무역아카데미

→ 무역업체 임직원들이 무역분야 전문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고의 강사진에 의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과정

단기교육과정 (전 과정 20%할인 및 마일리지 적립)	기초무역실무	정규무역실무, 신입사원 무역실무, 무역실무기초 단기숙성, 초스피드 무역스타트업 등
	무역실무심화	신용장, 운송/통관, 수출입리스크관리, 관세환급 등
	마케팅·외환	브랜드 마케팅, 수출마케팅 실습, 비즈니스 협상, 환위험 관리 등
	비즈니스 외국어	영문 이메일 작성기법
	FTA	FTA종합무역실무, FTA원산지관리, FTA사후검증 대응전략 등
	주력산업 전문가과정	화장품/의류섬유/기계부품/자동차부품 수출 Expert
	해외시장 진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진출전략과정 등
맞춤형 위탁연수	· 기업체 및 공공기관 대상 수요자 요청에 따른 맞춤형 연수 가능	
인력양성 프로그램	· 무역마스터과정, SMART Cloud IT마스터과정, 베트남 글로벌마스터 과정, 패션의류무역마스터 과정, 글로벌무역인턴십, GTEP 등	
CEO 과정	· 글로벌물류 최고경영자 과정 (GLMP: Global Logistics Management Program for CEOs)	
자격시험과정	· 국제무역사 1급, 국제무역사 2급, 외환관리사	
홈페이지	· http://www.tradecampus.com	
담당부서	· 무역아카데미(COEX 4층)	

온라인 교육(스마트 러닝)

내용	· e러닝, 모바일러닝, 온/오프 블렌디드 교육, 온라인 위탁교육 · 무역실무, 외환·금융, FTA활용전략, 글로벌마케팅, 자격시험 대비, 지역별 전문가과정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즈니스 외국어 등 360여개 교육과정 개설
이용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 http://cyber.tradecampus.com
담당부서	· 무역아카데미(COEX 4층)

일자리지원센터 (수출기업 무역인력 알선)

➔ 수출 기업에게 청·장년 무역인력을 알선해드립니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포털(잡투게더) 운영을 통한 구인기업/구직자 인력 매칭 - 글로벌 무역인력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수출기업 채용지원 -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 수출기업 무역인력알선 지원 · 해외 일자리 지원사업(K-Move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지정 해외취업 지원센터(K-Move센터) 운영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가별 채용공고 검색 지원 - 화상면접 지원, 국가별 구인정보, 비자정보, 직종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 무역인력알선 신청 - 전 화 : 1566-5114 - 이메일 : tradejob@kita.net - 온라인 : 잡투게더 홈페이지 구인/구직 신청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jobtogether.net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 일자리지원센터(COEX 2층 상사전시장 B27~29)

7. 포상 및 발급

무역의 날 포상 추천

➔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업체와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포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의 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7월 ~ 당해연도 6월까지 1년 내에 각 탑 해당금액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에게 수여 -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만불대 : 1, 3, 5백만불(3종) * 천만불대 : 1, 2, 3, 5, 7천만불(5종) * 억불대 : 1~9억불(9종), 10~90억불(9종), 100~800억불(매 50억불 단위, 15종) · 개인 포상 : 수출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장(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kita.net ⇨ 협회사업 참가신청 ⇨ 무역의 날 포상 · 신청기간 : 7월말 (예정)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지원실(트레이드타워 49층), 국내 각 지역본부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시상

→ 신기술 및 아이디어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한 우수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목적	· 무역업체의 수출의욕을 고취하고 무역인의 사기 진작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
시상대상	· 무역업체 CEO
시상주기	· 매월 1명(8월, 12월 제외)
신청방법	· http://www.kita.net/info/notice/ 공지란에 신청양식 다운로드 · 공적조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kitahanbit@kita.net)
담당부서	· 회원지원실(트레이드타워 49층)

한국무역협회 회원 가입 및 변동사항 신고

→ 무역협회 회원 가입과 변동관련 업무를 온/오프라인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가입방법	· 인터넷 http://www.kita.net ⇨ 회원사 ⇨ 회원가입 ⇨ 가입신청 · 방문신청 : 회원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1층), 국내 각 지역본부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내방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내방 신청시 : 내방자 신분증, 명함 지참
회비납부	· 회비 : 35만원(입회비 20만원+연회비 15만원) · 납부방법 - 신용카드/가상계좌 결제 (http://www.kita.net ⇨ 회원사 ⇨ 회원가입 ⇨ 회비안내 참조)
변동사항 신고 인터넷 이용 (회원)	· http://www.kita.net ⇨ 대표 ID로 로그인 ⇨ 회원사 ⇨ 회원사 정보변경 · 자사정보 직접 수정 후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또는 팩스송부(본부 및 13개 국내 각 지역본부) ※ 단, 지위승계 변경 신청은 내방 또는 팩스로 증빙서류 제출
담당부서	· 회원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1층), 국내 각 지역본부

온라인 증명서 발급

→ 무역협회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24시간 온라인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발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증명서를 24시간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실적증명서 * 수출실적 증명서(한글, 영문) * 수입실적 증명서(한글, 영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증명서 * 회원증(한글, 영문, 사우디대사관 제출용) * 무역업 고유번호증 * 회비영수증(입금증) * 수출의 탐 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아카데미 증명서 * 단기과정 수료증/온라인 수료증/자격증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ebdocu.kita.net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1층), 국내 각 지역본부, 무역아카데미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 APEC 19개국을 비자 없이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는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BTC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가입국 방문 시 별도의 입국 VISA없이 출입국을 보장 · 가입국 공항 내 전용 수속레인으로 신속한 출입국 수속 가능 <p>※ 인천국제공항 패스트트랙(Fast Track) 이용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설 : (제1터미널) 1·6번 출국장 및 2~5번 출국장 측문 (제2터미널) 1·2번 출국장 교통약자우대출구 - 대 상 자 : ABTC 카드 소지자(동반 3인 이용 가능)
가입국 (총 19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호주, 브루나이, 칠레,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러시아 (미국, 캐나다 : 비자면제 혜택 없이 전용 수속레인 이용만 가능)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
체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입국으로 국가별로 59~90일
안내 및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abtc.kita.net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1층)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 서비스 무역업체들도 유관기관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실적 증명 발급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확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 디자인, 컴퓨터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 동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등
발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 입출금 증빙 발급(거래 외국환은행) ⇨ 온라인 수출입확인 및 증명 사이트 (http://onlinetrade.kita.net)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담당자 검토 및 승인(3~7일) ⇨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적증명서 출력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onlinetrade.kita.net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1층)

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물품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해 드립니다.

확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증명발급 신청서(요청시 별도 송부) · 제증빙서류 각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과의 매매계약서 - 보세구역 반입 인수증 - 대금청구 인보이스 - 외국인 송금 수취 증빙(타발송금계산서+전신문, USD 환산액 표기)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1층), 국내 각 지역본부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외국인력 채용을 위한 외국인 사증 발급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무역업체
대상 외국인	· 무역관련 전공(경제, 국제통상,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또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 종사자
담당부서	· 회원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1층)

해외지사 설치인증 추천

→ 수출업체의 해외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해외지사 설치 인증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 10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업체 - 상기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 해외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추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1566-5114 · 전화 상담후 내방 (FAX 처리는 불가)
신청방법	· http://www.kita.net ⇨ 해외지사 설치인증 추천 (추천서 다운로드) 작성 후 내방 또는 우편접수
담당부서	· 회원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1층)

8. 시설 및 서비스 이용

KITA 트레이드 벤처플라자

→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내 사무공간인 벤처플라자 입주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입주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 창업 3년 미만의 신규 창업업체 · 무역협회 회원사(회비 완납업체) 														
이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장소</th> <th>구분</th> <th>개수</th> <th>면적(m²)</th> <th>월 이용료(원, 부가세 별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트레이드 타워(2층)</td> <td>1인실</td> <td>13</td> <td>4.95~7.59</td> <td>148,500~227,700</td> </tr> <tr> <td>2인실</td> <td>4</td> <td>7.92~10.56</td> <td>273,200~364,3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사무기기 및 무료 인터넷 이용 가능 · 업무보조 서비스(우편물 수취 및 내방객 안내 등) 	장소	구분	개수	면적(m ²)	월 이용료(원, 부가세 별도)	트레이드 타워(2층)	1인실	13	4.95~7.59	148,500~227,700	2인실	4	7.92~10.56	273,200~364,300
장소	구분	개수	면적(m ²)	월 이용료(원, 부가세 별도)											
트레이드 타워(2층)	1인실	13	4.95~7.59	148,500~227,700											
	2인실	4	7.92~10.56	273,200~364,300											
입주업체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입주사 모집 및 선정 (상·하반기 각 1회) ※ 모집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업체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주기간 : 1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연장심사 후 최대 1년 연장 가능) · 비용 : 1년 임대료 및 보증금(1년 임대료와 동액) 선납 														
홈페이지	· http://bizcenter.kita.net														
담당부서	· 회원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1층)														

KITA 비즈니스센터

→ 무역협회 회원사 및 전시 참가업체에게 무역센터 내 회의공간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내용	· 회원사 및 코엑스 전시회 참가업체 전용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
위치	·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 · 코엑스 1층
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이드타워 : 2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1개, 8인실 1개 - 코엑스 : 4인실 4개, 8인실 1개 · 사무기기 : PC(인터넷 포함), 복사기, FAX
이용시간	· 09:00~18:00 (월~금,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http://bizcenter.kita.net에서 예약 신청·확인·변경 가능 · 현장신청 (단, 온라인 사전예약자 우선)
홈페이지	· http://bizcenter.kita.net
담당부서	· 회원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1층)

uTradeHub(통합전자 무역서비스)

➔ 무역 업무를 온라인에서 One-Stop으로 처리해주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에서부터 외환, 결제, 요건확인, 물류, 통관 등 무역업무 전반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무역업무 단일창구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장 통지, 원산지증명발급 신청, FTA Korea (원산지판정/관리), 적하보험, 수출 환어음매입(네고), 요건확인,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 제반 무역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www.utradehub.or.kr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마케팅실(트레이드타워 5층)

KITA 멤버십카드

➔ 우대혜택이 풍부한 회원사 전용 기업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사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기업카드 겸용 KITA 멤버십카드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휴 카드사 : 현대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부산은행(부산 소재기업 限) 주요 우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사 회비 대납(연간 3,000만원 이상 사용실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카드, KB국민카드는 1,000만원 이상 차등 대납 -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추가 지원(한도액 10만원 상향 조정) - 무역센터 시설 이용 우대 및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주차장 할인, 공항리무진 할인, 전시회 무료/할인 입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참조
발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사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www.kita.net ⇨ 메뉴 : 회원사 > KITA 멤버십카드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지원실(트레이드타워 49층) 문의 :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KITA 할인서비스클럽

→ KITA할인서비스클럽을 통해 회원사들의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제공서비스	제휴업체
국제특송	FedEx코리아
	DHL코리아
	우체국 EMS
특허 지적재산권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이룸
시험/검사/포장	인테크CNS
통역/번역	플리토
	팬트랜스넷
	에버트란
	중앙통역번역센터
출장(호텔/항공/보험)	호텔패스
	레드캡투어
	현대해상
신용정보/대금회수	NICE D&B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신용정보
중국인증	CCIC KOREA
	중국 현지업체(의보상회, 베이징알란과무)
해외인증	한국경영정보
공인인증서	한국무역정보통신
외환수수료 우대	KB국민은행
D-U-N-S 번호 발급	NICE D&B
정보보안/클라우드	보안1번지
	다우데이터
로밍	와이드모바일
신청방법	http://www.kita.net ⇨ 회원사 ⇨ KITA 할인서비스클럽
문의	Tel : 1566-5114, E-mail : discount@kita.net
담당부서	회원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1층)

* 위는 2019년 1월 현재 제휴현황으로, 최신 제휴현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수출입 물류지원

RADIS(수출입 운임할인 및 컨설팅 서비스)

→ 중소기업체들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을 위해 운임할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내용	· 무역협회 물류협력업체를 통해 고객 맞춤형 물류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물류비 할인</td> <td>· 포워딩, 3자물류, 내륙운송 협력업체 이용시 우대요금 적용</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컨설팅 및 상담</td> <td>· 운임 및 각종 물류요금 견적 서비스 · 물류비 적정성 검토 및 물류시스템 진단 · 물류애로상담</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수출입물류 정보</td> <td>· 해상/항공 시장운임 정보</td> </tr> </table>	물류비 할인	· 포워딩, 3자물류, 내륙운송 협력업체 이용시 우대요금 적용	컨설팅 및 상담	· 운임 및 각종 물류요금 견적 서비스 · 물류비 적정성 검토 및 물류시스템 진단 · 물류애로상담	수출입물류 정보	· 해상/항공 시장운임 정보	
물류비 할인	· 포워딩, 3자물류, 내륙운송 협력업체 이용시 우대요금 적용							
컨설팅 및 상담	· 운임 및 각종 물류요금 견적 서비스 · 물류비 적정성 검토 및 물류시스템 진단 · 물류애로상담							
수출입물류 정보	· 해상/항공 시장운임 정보							
신청/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http://shippersgate.kita.net · 이메일 : kscn@kita.net 							
담당부서	· 물류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49층)							

RADIS Global (물류기업 해외 네트워크 활용 서비스)

→ 물류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지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물류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물류 및 유통을 지원 · 물류협력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토스, TNT Express 	
주요 서비스	· 운송, 수출입 통관, 관세대납, 보관 및 재고관리, VAL, 구매/판매 대행, 배송, 클레임 처리 등 사후관리	
신청/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http://shippersgate.kita.net ⇨ RADIS 이용안내 ⇨ RADIS Global 바로가기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 : kscn@kita.net 	
담당부서	· 물류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49층)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물류 컨설팅 서비스

→ 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물류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물류진단/컨설팅 및 물류상담 · 수출입 물류비 절감방안 제시 · 물류 IT·설비 구축방안 제시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 · 물류관련 이슈가 있거나 물류시스템 개선의 의지가 있는 기업 · 기업현황 및 물류 관련 정량적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컨설팅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DIS 협력업체 및 제3자물류업체 등
신청/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 kscn@kita.net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서비스실(트레이드타워 49층)

2019년도 KITA 해외전시회 캘린더

전시회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취소될 수 있음

시기	파견국	전시회명	전시기간	담당부서/지부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비재전시회	2.8~12	충북
	일본	일본 PB&OEM 개발전	2.19~22	경기북부
3월	중국	상해 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	3.1~3.4	대구·경북, 충북, 전북
	미국	춘계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시회	3.17~3.20	전북
4월	미국	라스베가스 보안기기전시회(ISC WEST 2019)	4.10~12	해외마케팅실
	홍콩	홍콩 춘계 전자전	4.13~4.16	대전세종충남
	일본	동경 한국 상품전	4.9~4.10	아중동실, 서울(강남), 경기, 인천, 강원, 경남, 대구·경북, 전북, 부산
	중국	심천 국제 선물 및 가정용품 박람회	4.25~4.28	전북
	UAE	두바이 뷰티 월드 박람회	4.15~4.17	전북
5월	중국	광저우 춘계수출입교역전(3기)(캐논페어)	5.1~5	충북
	홍콩	홍콩 국제 식품박람회	5.7~5.10	인천
	태국	MTA방콕 기계박람회	5.8~5.11	전북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제 뷰티 엑스포	5.12~5.15	대전세종충남
	중국	상해 국제 미용 박람회	5.20~5.22	대전세종충남, 전북
6월	베트남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5.30~6.2	아중동실 및 지역본부
	베트남	MTA호치민 기계박람회	7.2~7.5	전북
	싱가포르	싱가포르 선물용품 · 사무용품 전시회	7.10~7.12	인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이미용 전시회	7.15~18	해외마케팅실
	태국	방콕 의료기기 전시회	7.10~12	해외마케팅실
7월	인도네시아	Food & Hotel 인도네시아 2019	7.24~27	인천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	7.28~7.31	대전세종충남, 전북, 충북
	미얀마	미얀마 국제 프랜차이즈&라이프스타일쇼	7월 중	전북
	8월	홍콩	홍콩 식품박람회(Food Expo 2019)	8.15~19
9월	러시아	모스크바 생활용품전	9.11~13	충북, 전북
	일본	추계 동경 국제 선물용품 전시회	9.3~9.6	전북
10월	홍콩	홍콩 추계 국제 보석전시회	9.18~9.22	전북
	중국	광저우 중소기업 박람회	10.10~10.13	전북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미용박람회(코스모뷰티)	10.17~19	충북
	미국	LA 무선통신 전시회(MWC)	10.22~10.24	해외마케팅실, 대전세종충남
	홍콩	홍콩 메가쇼(HONG KONG Mega Show part 1)	10.20~10.23	대전세종충남, 전북, 충북
11월	중국	청두 국제미용전시회	10월 중	청두지부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	10.31~11.4	전북, 충북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11.5~11.10	중국실, 국제협력실, 경기, 대구경북, 전북, 전남, 제주
	필리핀	필리핀 국제 건축박람회	11.7~10	충북
	홍콩	홍콩 국제 미용박람회	11.14~11.16	강원, 전북, 충북, 광주전남, 인천
미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11.7~11.9	아중동실, 대전세종충남, 전북
	UAE	두바이 건축박람회	11.25~28	충북
	중국	홍콩 한국우수상품대전	미정	해외마케팅실
중국	서부 한국우수상품대전	해외마케팅실		
미국	유통망 연계 한국우수상품대전	해외마케팅실		

2019년도 KITA 무역상담회 캘린더

상담회는 사정에 의해 변경/취소될 수 있음

시기	개최지	상담회명	참가바이어	담당부서/지부
2월	코엑스	「SPOEX 2019」 연계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30개사	해외마케팅실
4월	코엑스	「World IT Show 2019」 연계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40개사	해외마케팅실
6월	인천	일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10개사	인천지역본부
9월	인천 / 광주	[인천-광주 공동]해외 우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40개사	인천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10월	코엑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초청 자동차 부품 소싱 컨퍼런스	해외바이어 5개사	유라시아실
	코엑스	「KOMAF 2019」 연계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15개사	해외마케팅실
	제주	제주 글로벌 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바이어 20개사	제주
11월	코엑스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Korea Grand Sourcing Fair)	해외바이어 150개사	해외마케팅실
	서울	러시아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유라시아실

2019년도 KITA 주요 회원서비스

서비스 및 지원내역은 사정에 의해 변경/취소될 수 있음

시기	서비스명	내용	담당부서
상담 / 컨설팅	수출단계별 무역실무 컨설팅	국내최고 전문가로부터 수출입절차별 컨설팅 서비스 지원	회원서비스실 (tradesos.kita.net)
	무역현장 방문 자문 서비스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 컨설팅 지원	회원지원실 (tradesos.kita.net)
	FTA 활용 종합컨설팅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지원	FTA종합지원센터 (fta1380.or.kr)
	물류 컨설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각종 컨설팅 지원	물류서비스실 (www.kita.net)
해외마케팅 지원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내수기업 1000개사를 선정 1:1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회원지원실 (www.kita.net)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18개국 언어 대상 통번역 서비스 지원 (회원사별 이용한도 차등지원, 번역료 90~100%지원) * 수출지원바우처 서비스 통합	회원지원실 (tradesos.kita.net)
	APEC 기업인여행카드 발급	APEC 가입 19개국에 대한 무비자 수속 카드 발급	회원서비스실 (abtc.kita.net)
	Kmall24 B2C쇼핑몰 운영	B2C 해외직판 쇼핑몰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온라인마케팅실 (www.kmall24.co.kr)
	바이어DB 타겟마케팅	바이어 검색, C/L 제작, 메일링 서비스 지원	온라인마케팅실 (kr.tradekorea.com)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협회 해외지부와 마케팅오피스가 발굴한 맞춤형 유효바이어 정보 제공	온라인마케팅실 (kr.tradekorea.com)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글로벌 빅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 상시 거래알선 지원	온라인마케팅실 (kr.tradekorea.com)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tradekorea.com내 상품 및 기업정보 미니사이트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마케팅실 (kr.tradekorea.com)
자금지원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3년간 연 2.75%의 금리로 해외마케팅 또는 수출이행자금 융자지원(한도액 2~3억원)	회원지원실 (fund.kita.net)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회원사 대상 수출준비, 바이어발굴 단계 바우처 제공(업체당 40 ~ 100만원 한도/ 지원비율 : 90~100%)	회원지원실 (www.kita.net)
	수출단체보험 가입 지원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담보 보험 비용 지원(회비 납부 연차에 따라 보험금 일부 혹은 전액지원)	회원지원실 (www.kita.net)
시설 이용	구인구직 무역인력 매칭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 해외일자리포털 등을 통해 중소기업 무역인력매칭 서비스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www.jobtogether.net)
	KITA 멤버십카드 발급	무역센터시설이용/연회비 납부혜택/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용신용카드 발급	회원지원실 (www.kita.net)
	트레이드 벤처플라자 입주	신규 내수업체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트레이드타워 사무실 임대 지원	회원서비스실 (bizcenter.kita.net)
	KITA 비즈니스센터 이용	회원전용 바이어상담, 회의공간 운영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등 2곳)	회원서비스실 (bizcenter.kita.net)

제23장

한국생산성본부

1

일반현황

한국생산성본부는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32조에 의거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사업, 지수사업, 조사연구사업,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법의 개발 및 보급사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부위탁사업, 아시아생산성기구(APO)와 관련되는 정부업무의 대행, 공장자동화·사무자동화·공장관리합리화·물류합리화에 관한 연구·컨설팅·교육훈련·기술개발 및 설비의 책임감리,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감리 및 평가 등 정보화 진흥사업, 생산성향상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증발급 사업, 생산성향상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시청각교재, 정기 간행물, 도서 등의 제작·발간 및 각종 정보자료의 개발 보급,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기술조사 및 연구용역,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상담·교육사업, 생산성회원제도의 운영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및 전문요원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9본부(단·소·실), 31센터·팀, 4지역본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서울 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에 소재하며, 경기도 이천의 연수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다년간에 걸쳐 우리 산업 현장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산성경영체제 및 한국형제조혁신방법론(KPS) 보급과 산업혁신운동, 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컨설팅 방법론 제시와 고품질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산업 체질 강화와 새로운 생산성 제고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국가생산성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터 혁신 등 정책과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컨설팅/교육/자격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규 모델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 및 인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생산성향상 사업

1) 국가 생산성대상,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한국생산성본부는 1962년 생산성상을 제정하여 경영의 발전과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국가 생산성대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요구되는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소개하여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혁신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제고 및 근로자의 참여 도모를 이끌어 냈고 동시에 측정된 경영, 평가된 경영, 체계화된 경영 기법을 보급·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생산성향상의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국가적 생산성 의식의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포상하고 기업 및 소속단체에서 생산성향상 운동과 경영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영자 및 임직원을 추천받아 생산성 향상 유공자로 선정·포상하고 있다.

표 IV-23-1-1 |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생산성대상·유공자 포상(사·명)	80	78	81

2) 생산성관련 조사·연구 및 경영생산성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는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전략, 임금정책의 기초가 되는 노동생산성통계와 상장기업의 노동생산성분석 등을 분기별로 편제·발표하여 생산 효율화, 기술투자, 성과배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케 하고 있으며, 외국선진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보급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IV-23-1-2 | 생산성 통계 발간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생산성 통계 발간(종)	6	6	6

3)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등급 인증제도의 보급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시스템의 생산성 혁신역량 수준을 진단·인증하고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PMS인증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는 이상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수준을 감안,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에 집중하여 진단함으로써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23-1-3 | 생산성경영체제 보급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PMS보급·확산 기업(사)	190	181	195

4) 한국형제조혁신방법론(KPS)

한국생산성본부는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제고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우리 산업환경 및 기업수준에 적합한 생산성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혁신방법론인 한국형 제조혁신방법론(KPS : Korea Production System)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KPS는 제조표준모델, 평가체계, 실행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TPS/Lean 생산시스템을 모방적으로 채택하거나 TPM-ERP-6시그마와 같은 개선 기법들을 유행 따라 시도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업의 제조철학과 산업특성에 맞는 제조운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도 지속적인 방법론 개선과 KPS 보급,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노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 진단 및 수준확인을 위한 제조혁신 부문의 원칙과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제조혁신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5)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대기업이 핵심파트너로 육성할 1·2·3차 협력사에 대해 경영·제조현장·기술 등 입체적 현장진단, 혁신환경 조성, 제조혁신방법 제공, 기술기반 구축,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생산성향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21개 컨소시엄, 156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 생산성향상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6) 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부터 자발적인 동반성장의 기치아래 현장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참여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활동을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형제조혁신방법론(KPS)모델을 제공함과 더불어 인력지원 등 산업혁신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5차년인 2018년에는 411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참여기업들의 낭비제거와 원가절감, 품질개선 및 임직원의 혁신의식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산업생태계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7) 4차 산업혁명 아젠다 제시

한국생산성본부는 차세대 생산성 향상 기반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산업 전반에 보급·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에는 각계 전문가 및 중견·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ICT트렌드, 플랫폼 비즈니스, 로봇 등 글로벌 트렌드와 인문·문화 예술을 주제로 북클럽을 운영함으로써 다가오는 산업 변화와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바 있다. 2019년에도 남북경협, 혁신성장 등 정책 아젠다는 물론 AI(인공지능), 사물지능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기반한 경영진의 변화 사례 인식 제고를 위한 북클럽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8)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익기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우리 기업의 산업·경영 정책현안 및 기술 변화 대응 등 국가와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익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수렴과 더불어 중소기업 글로벌화와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생산성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산성플러스저널 발간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협의회 및 포럼을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성 아젠다 제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컨설팅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1958년 현대적 경영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영 컨설팅을 시작한 이래 선진이론을 도입·정착시켜왔고, 인사/조직, 전략, 성과측정 등에 대해 전략수립에서 관리시스템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바탕으로 객관성이 요구되는 공공분야 컨설팅을 비롯 제조 현장 합리화, 품질관리,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에서 나아가 데이터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특성과 최신 경영 트렌드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정책 및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정책연구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으며, CS전략수립, CS측정모델구축, CS경영시스템 구축 등의 고객만족 컨설팅과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전략, 브랜드체계 전략 수립 등의 브랜드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글로벌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글로벌 탄소 에너지경영 인증제도, DJSI지수 발표 및 지속가능경영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IV-23-1-4 | 컨설팅 지원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컨설팅지원(건)	778	930	956

다. 교육훈련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인력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인적 자원의 고급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이론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과정을 도입, 제시하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품질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경영관리, 생산품질, 정보화 등 직무직능분야별로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교육과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관리능력 및 조직개발 등 주요 테마별 주문식 교육인 수탁교육, 인터넷, 우편통신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인 스마트러닝 교육 등의 과정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

표 IV-23-1-5 | 교육 및 훈련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개/수탁교육(명)	154,608	158,028	173,927
스마트러닝교육(명)	42,633	32,561	29,681

라. 아시아생산성기구(APO) 협력 사업

생산성향상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개발을 목표로 아시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 APO)와 상호협력사업을 통해 각국의 생산성관련 정보 및 인적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이를 국내기업 등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APO 회원국간의 경험 및 정보를 상호교류하기 위해서 매년 수차례의 APO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사례를 회원국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인바운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태국, 몽골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표 IV-23-1-6 | 세미나 개최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내 주관 APO 프로그램(개)	4	5	4

마. 정보기술자격검정 사업

기업종사자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처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공인 정보기술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정보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대적 흐름과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자격, SW코딩자격,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인증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서비스업 및 개인의 정보화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과제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IV-23-1-7 | 정보기술자격인증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ITQ 등 자격인증(명)	1,090,867	1,061,779	1,069,879

제24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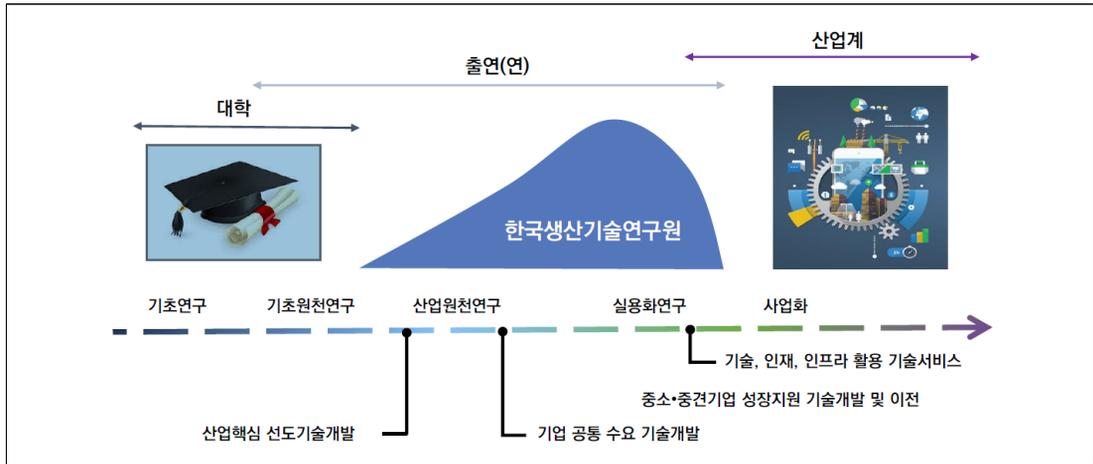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1989년 국가에서 설립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다.

그림 37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연혁

태동 및 기반구축기 (89~97)	성장·발전기 (98~03)	지역체제 구축기 (04~12)	신성장기 (13~present)
			
<p>19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공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설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지원 활동 기틀 마련 <p>199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HDTV 시대 개척 <p>19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원 이전(충남 천안) 종합기업서비스센터 개소 	<p>199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연) 육성법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로 소속 변경 <p>20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km/h급 한국형 고속전철차량 개발 반도체 생산설비 국산화 <p>20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부 '올해의 최고 기술' 선정 (사이버 엔지니어 U24) 	<p>20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체제 구축(호남, 동남, 대경) <p>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최초, 세계 2번째 안드로이드 로봇 개발 <p>20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전지용 웨이퍼 잉곳 제조기술 개발 <p>2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초 예코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합금기술 개발 <p>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 	<p>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개소 <p>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질 나노박막 코팅기술 개발 예측시 원천기술 기업 이전 <p>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울산, 제주지역본부 신설 무기바인더 제조기술 기업이전 <p>2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미래부) <p>2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 지정

3대 중점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2대 핵심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술주도형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선도하며 심화연구 및 축적된 생산기술을 중소기업에 보급·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8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역할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술주도형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1) 현장밀착형 기술실용화 지원체제 구축

지역별로 특화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해 3대 중점 연구분야로 대표되는 뿌리산업기술(인천), 융·복합 생산기술(안산), 청정생산 시스템기술(천안) 전문 연구소를 구축하고 서남지역본부(광주), 동남지역본부(부산), 대경지역본부(대구), 강원지역본부(강릉), 울산지역본부(울산), 전북지역본부(전주), 제주지역본부(제주)의 7개 지역본부 구축·운영을 통해 현장밀착형 기술실용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 글로벌 중소기업 지원 체제 강화

해외 진출 글로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해외 선진 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센터 운영(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기술 지원은 물론 진출국에 대한 기술 확산 지원으로 현지 장비, 부품·소재산업의 한국화를 추진 중이다.

그림 39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현황



나. 기관주요임무 중심의 3대 중점 연구영역의 전략적 육성

생산기술 분야 연구개발과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이라는 기관주요임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의 기술력 향상, 부품·소재 산업의 품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생산기술’, 친환경 생산혁신을 위한 ‘청정생산시스템기술’, 고부가가치 융합신사업 창출을 위한 ‘융·복합생산기술’의 3대 중점 연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24-1-1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기능

구분	내용
뿌리생산기술	우리나라 주력 기간산업 부품소재의 품질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조, 금형, 용접·접합, 열처리, 소성가공 기술개발 및 확산
청정생산시스템기술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의 효율적, 환경 친화적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확산
융·복합생산기술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산업의 발전을 혁신하고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융·복합생산기술 개발 및 확산

다. 중소기업 지원 체제 효율성 강화

산업계의 발전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3대 중점연구부문별 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전략기획단’을 설치('17.1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히든챔피언(히든히어로) 육성, 새로운 혁신 기술 접목을 통한 기업의 신기술 발굴 지원을 위해 ‘중기혁신지원센터’를 설치('19.1월)하여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1) 공동R&D지원

지역 중소기업과의 커뮤니티채널(파트너기업 교류회,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 기술 수요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기업 매칭 R&D 등을 수행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시까지 박사급 연구원이 전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N-24-1-2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D지원 사업 현황

구분	내용
파트너기업 수요대응 생산기술 지원사업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를 통해 접수된 파트너기업의 긴급한 현장애로기술을 접수 받아 우리 원의 기술력, 인력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 및 자체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타킷형 히든챔피언육성 지원사업	해외 시장진입 및 점유율 확대가능 기술을 타킷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기술스펙까지 개발 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Go Together Program 사업	대기업(중견기업) 1~3차 협력사들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출연 3자 공동 기술애로해결 지원
수요기반형 플랫폼형 R&D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보유한 특화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중소제조 기업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기술의 실용화 연구 추진
기업주문형 R&D 사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수요를 받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자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개발 완료 후 사전 협약에 따른 기술이전

지역	인천	경기	충청	서남	대경	동남	강원	울산	전북	제주
주요 기술*	뿌리 산업 기술	융합 생산 기술, 지능형 로봇, 섬유	생산 시스템, 그린공정 소재	동력 부품, 광관련 기반 기술	극한 제조 기술, 건설기계 부품	해양 플랜트 기자재, 지능형 정밀기계 부품	비철 금속 기반 소재 공정	제조 현장 ACE화, 기후 변화 대응 기술	농기계 특화 기술, 친환경 융접 공정	천연 생태 자원 가공

* 광역경제권 지역본부 내에 특화보유기술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2) 장비활용지원(개방형 실험실)

1,000여종의 연구원 보유 장비를 지역본부 42개 개방형 실험실에 재정비하여 연구 장비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개방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 이용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4-1-3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방형 실험실 현황(42개)

지역본부	개방형 실험실
미래산업전략연구소 (2)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공용실험실, 패키징기술센터 공정실험실
뿌리산업기술연구소 (12)	재료물성분석/재료시험 공용실험실, 화학분석 공용실험실, 주물기술지원 공정 실험실(경서), 표면·소재분석센터, 뿌리기술 공동활용 분석평가실험실, 도금기술 지원 공정실험실, 사이버설계기술지원/첨단장비지원 공정실험실, 소성가공 공정 실험실, 열처리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용접접합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정밀금형 공정실험실, 자전거제조기술지원 공정실험실,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공용 실험실
융합생산기술연구소 (5)	유해물질 화학분석 공용실험실, 정밀측정 공용실험실, 산업용섬유 공정실험실, 섬유시제품 공정실험실, 의류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 (4)	음향진동 공용실험실, 지능형청정소재 공용실험실, 에너지설비성능인증 공정 실험실, 스마트자동화 공정실험실
서남지역본부 (5)	에너지환경(RoHS) 공용실험실, 정밀모터시험·분석 공용실험실, 초정밀 측정 및 재료물성분석 공용실험실, 나노기술집적 공정실험실, 정밀 금형TRYOUT 공정 실험실
동남지역본부 (5)	융합플레이팅 공용실험실, 정형프로세스 공용실험실, 첨단하이브리드 공용실험실, 주물기술지원 공용실험실, 초정밀가공 공용실험실
대경지역본부 (5)	바이오메디칼기술센터 공용실험실, 성형기술/첨단장비지원 공용실험실, 고령주조 기술지원 공용실험실, 시스템설계기술지원 공용실험실, 건설기계부품시험평가지원 공용실험실
울산지역본부 (1)	친환경청정기술 공용실험실
강원지역본부 (1)	비철금속 공용실험실
전북지역본부 (2)	농기계신뢰성 시험연구센터 공용실험실(김제), 탄소경량소재 공정실험실(전주)

표 IV-24-1-4 | 개방형실험실 장비활용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술지원 (장비활용)	시험/검사/분석	42,959	43,337	45,067
	시작품제작지원 등	23,648	17,184	18,737
	소 계(건)	66,607	60,521	63,804

3) 인력지원

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핵심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기업에 장기(3년 이상) 파견하여 핵심R&D인력으로 활동토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24-1-5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지원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지원인력수(명)	60	49	47	
지원기업 수	66	49	47	

나) 기업현장출장 지원 사업

중소·중견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급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수행을 통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4-1-6 | 기업현장출장 지원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지원 건 수	1,840	1,580	1,193	
지원기업 수	501	476	384	

4)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시장수요 기반의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이전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확산 시스템 고도화 및 성과확산 관련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연구원 파트너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휴면)특허 유·무상 매각 수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트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V-24-1-7 | 기술이전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전건수	397	229	242

5) 창업보육지원

자생력이 미약한 창업기업에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생존, 성장, 발전하도록 각 센터별로 특화된 기술 분야를 기반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인프라(전담연구원, 공간, 연구장비 활용) 및 경영 등 기본 서비스에서부터 공동기술 개발, 기술지원, 공용장비, 제품생산까지 One- Stop 생산기술혁신형 창업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지원하고 있다.

표 IV-24-1-8 |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센 터 명	2017년	2018년	비 고
	업체 수	업체 수	
시화창업보육센터	폐쇄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공간 165㎡지원 · 멘토지정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지원 · 경영, 마케팅, 기술지도 교육 연수지원
천안창업보육센터	8	폐쇄	
부산창업보육센터	폐쇄	폐쇄	
합 계	6	0	

6) 기술커뮤니티 지원

기술분야별, 지역별, 업종별 유사기술·산업중심의 산·학·연간 기술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보유기술 및 노하우의 확산 거점을 마련하고, R&D성과공유, 기술수요발굴,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의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40 | 기술커뮤니티 지원



표 N-24-1-9 | 기술커뮤니티 운영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기술커뮤니티 구성	51	51	31	
참여기업 수	669	662	451	

7) 기업혁신 활동 지원

연구원과 협력관계를 통한 동반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 수요파악 및 정책반영, 연구원의 개발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파트너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트너기업에게 연구원의 모든 기업지원 활동 우선권을 부여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N-24-1-1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파트너기업 운영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신규기업	469	376	271	
기업 수	3,306	3,633	3,780	

또한 연구원 보유기술 및 노하우 확산을 위한 거점 구축으로 지역본부별 특화기술 분야별, 지역별, 업종별 유사기술 중심의 기술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신산업 발굴 및 대응전략 도출을 통해 대형 성과 창출이 가능한 기업의 기술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연구원 파트너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3~5년간 1인 2社 이상의 집중 전담지원 글로벌기업 육성계획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개방형 실험실을 활용하여 고도장비 지원, 현장출장/파견,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을 통한 고급인력난 해소 지원 등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형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표 IV-24-1-11 | 기술지도/상담 지원 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기술지도 수	3,751	4,131	4,016	
기술상담 수	1,190	697	562	

제25장

산업연구원

1

일반현황

산업연구원(KIET)은 국내외 산업·기술, 기업정책 등과 관련된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국가의 경제/산업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그동안 산업연구원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우리 산업과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 연구 분야를 시의 적절하게 변화시켜 왔다.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해소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전략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에 관한 선제적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조직은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를 비롯하여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등 7본부 2센터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는 중소·벤처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조사·분석하여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산업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연구는 창업, 금융, 기술, 인력, 판로, 동반성장, 글로벌화,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에 집중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벤처기업정책 연구 분야별 주요 연구실적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장 기반 구축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연구본부의 연구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1)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중소기업의 중장기 발전비전 및 세부전략 수립, 중소기업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정책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물로는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전략 및 시책방향,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체제 개선방안, 21세기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실효성 평가 등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향후 바람직한 좌표와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육성전략(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 중소기업 지원 체제 발전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여러 부처에서 복잡다기하게 추진되면서 지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 중소기업 관점에서 정부 규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추세 둔화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 성장 둔화의 원인을 규명하였고, 미래전략 2020 중소기업 부문 과제 연구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다. 제조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발전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융합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및 경쟁력 실태분석, 중소기업 성장장벽 유형과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진단·분석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이 주요 국정 전략으로 제시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체제의 한계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 연구로는 수요 독점적 대·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의 급진적 혁신을 통한 경제적 성과 제고방안, 혁신성장 지향형 기술사업화의 효율적 지원 방안 연구, 알고리즘 담합과 경쟁정책 등이 있다.

2019년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쟁제한적 환경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장수 중소기업의 경영특성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벤처기업 및 창업 정책에 관한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엔진인 벤처기업 육성과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인 일자리 창출의 실천수단으로 창업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정책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지방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 창업 활성화 5개년 계획, 창업보육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 법인·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 중소기업 창업환경 분석,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의 수급구조 분석, 기업가 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등이 있다.

특히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현 실태 및 과제, 우리나라의 창업부진 실태와 시사점,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와 정책과제,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현황과 시사점,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시사점,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기술창업기업의 지방 입지촉진 및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창업원의 다양화 및 창업 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성 지식·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윈스톱 온라인 창업시스템의 국제비교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내실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실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벤처기업의 재도약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함과 아울러, 벤처 생태계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벤처기업정책의 진화과정과 공과를 살펴본 후 미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국벤처정책 20년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7년 이후에는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은 혁신창업 활성화에 있으며, 혁신창업은 벤처창업을 주축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이라는 전제 아래 창업정책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역 창업 혁신 생태계 스코어보드 지표개발 및 정책제언, 스타트업 파크(창업마을) 조성방안 연구,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역량 분석과 생존율 제고 방안, 청소년 비즈쿨 장기발전 방안 수립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3)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금융활성화에 관한 연구

금융, 인력 등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경영자원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 중소기업의 소매금융 이용 활성화 방안,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중장기 운용방안 및 전략, 벤처캐피털산업의 구조변화와 발전과제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금융기관 자금 간 지원방식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자금과 일반 금융기관 자금 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사업 성과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 원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수급 애로요인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 고용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고성과 작업제도의 활용 실태와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방안, 고급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활용과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정책의 성과 및 과제, 중소기업 고용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향후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R&D 인력 및 질 좋은 인력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주요 이슈와 해외 운영사례의 시사점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 현황 및 분석, 경력경로 연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부족 해소방안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신용보증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보증 공급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신용보증제도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재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일자리 창출형 기술금융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도 수행하였다.

4)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심화와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빠른 추격이라는 틈바구니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성화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과제로 부각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결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구조 및 활성화 방안, 국가기술개발 용자지원 정책 평가,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실태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형화와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현황과 확대방안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R&D 특성분석 및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R&D 특성과 혁신역량을 규명하고 정책대상의 합리적 설정과 함께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투자와 개발 활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R&D 사업 평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R&D 사업의 분산·중복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10년간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영향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를 추진하여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결정요인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기술적 혁신성과와 상업적 혁신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KOSBIR의 제도와 운영상 나타나는 과제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R&D자금 지원과 중소기업계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최근 수년간 세계 최고 대비 75% 내외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측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기술수준 측정방식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공공기술구매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간 협력기술개발 활성화 및 성과제고 방안,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중소기업 네트워크화 지원정책 추진방안 수립 연구,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중소기업기술 통계조사 조사대상 업종 확대 검토 연구를 수행하였다.

5)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연구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심화 추세를 보이는 기업 간, 업종 간,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이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이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실태 및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종합대책, 중소기업의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하도급거래 구조변화 분석과 발전방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조사연구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 등이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으로 상호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구매조건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이론과 논리, 동반성장지수 구성요소에 관한 예비연구 등을 추진하여 동반성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를 비롯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개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및 개편방안, 대·중소기업 간 공급사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주요 산업별 대·중소기업 성과 및 거래구조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동 번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의 작성과 분석, 성과공유제 확산 시행효과 분석,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방안 등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다.

최근에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하기를 위해 동반성장 자율평가제 평가체계 구축 연구,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실적평가 추진 방안, 기업 간 하도급 체계 공정화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6) 지방화·글로벌화에 관한 연구

지방화·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지역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해오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전략,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개선 방안 등이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생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원내외 지역산업발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미국, 유럽, 중국 등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화·글로벌화 전략 연구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진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방안,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평가지표 개발,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의 중소기업 파급영향 및 정책수요 조사·분석,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실태와 시사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와 강소기업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수출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글로벌화에 부응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 실태 및 전략적 육성방안, 뉴노멀 하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특성과 정책방향, 혁신기업의 중국진출전략, 중국 일대일로 대응정책 등을 연구하였다.

한편,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FTA 유망품목 선정 체제 구축 및 정책과제, 혁신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새로운 글로벌 수출환경에서 기존 수출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점검해보고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율화 방안,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중소 지식서비스 기업의 수출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육성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7) 시의성 있는 주요 현안과제 연구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기업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이 국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현안문제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수행한 주요 연구로는 중소·벤처기업의 부도 원인과 방지대책, 중소기업의 인력난 현황과 정책방안,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 환율 변동이 대·중소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현안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일자리대책 종합 평가,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융합화와 신사업창출 촉진방안, 중견기업 육성방안, 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원으로서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6차 산업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988에 도달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함과 아울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기업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에 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와 촉진방안,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구조의 역동성 강화,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실태와 발전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과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방안,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수출영향 및 정책방향, 현장 경험을 통해 본 중소기업의 AI 발전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고용의 구조적 특성과 변동요인 분석, 제조업 업종별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현황과 과제, 인력구조변화가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국내외 주요 지원사업

1) 싱크탱크로서의 대정부 지원업무

산업연구원은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업무 연계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토론회, 포럼, 간담회 개최를 통해 축적된 연구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한편, 정책 수요가 높은 연구과제는 사전 기획에서부터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정책 관계자를 참여시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개최되는 각종 중소기업 관련 위원회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한 대표적 연구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사전조정,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육성전략,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전략, 중소·벤처기업의 문제와 개선 대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현황 점검 및 과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지식재산권 기본계획 수립, 창업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기업활력촉진법 상의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 시행 계획 검토의견, 창업정책 관련 정책제언(4차 산업혁명 분야) 평가 등 다수가 있다.

2) 중소·벤처기업 정책 수립 관련 의견수렴

중소·벤처기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중소·벤처기업 대표, 관련 조합 및 협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협의회,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현장의 살아있는 의견을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협의회 또는 토론회로는 중소기업 경영성과 장기부진의 원인과 대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6차 산업화 정책과 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구조변화 실태와 정책과제, 창업정책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등이 있다.

3) 국내외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중소기업 유관 기관과의 지식 공유를 위해 상호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연구원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연구포럼에 유관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중소·벤처기업 연구를 위한 지적 기반의 확대와 함께 전문가 네트워크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지식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외국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

기금사업(EDCF)의 일환으로 후발 개도국의 경제 관련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연수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또한 OECD, APEC, ASEM, G20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관련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중소·벤처기업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제리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경험을 전수한 바 있으며, 한국과 독일의 금융시스템·중소기업 혁신과제, 한중 산업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등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사례 등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중소기업 관련 연구 결과를 영문으로도 발간하고 있다.

주요 발간자료로는 Experiences of Korean SME Policies, Development and Policy Issues of SME Scope, Finance Mechanisms for the New Industry Growth,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Global SME and Policy Implications, Comparison of Technology Innovation Patterns Depending on the Innovative Capability of SME and Policy Implications, High-growth SME's Job Creation Performance and Its Implications, R&D Support Policy and Its Strategic Direction in Korea, Measures to Promote Youth Start-ups 등이 있다.

최근에는 What Factors Lead Korean SMEs to become Global Hidden Champions?,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Korean SMEs and their Implications, Policy Considerations for SME Globalization in the Creative Economy, Status of Convergence among SMEs and Policy Implications, Status of Women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Current Statu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ME Structural Change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M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tart-up Policy and Tasks 등을 발간하였다.

제26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일반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33호)」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며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정보연구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가 통합되어 2001년 1월에 설립되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의 정보은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 체제 구축
- 지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화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지원
- 정보의 종합유통체제 구축·운영
- 정보의 분석·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의 연구개발 및 자문
- 국내외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 동향의 조사·분석·예측
- 과학기술 연구망 등 글로벌 첨단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관련 기술 개발·지원
- 초고성능 컴퓨팅 기반 구축·운영 및 관련 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분야 정보보안체계 구축·운영 및 지원(신설 2014. 10. 21)
-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 지방 과학기술 진흥 및 중소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 정보관리·유통시스템 보급 및 정보인프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 부대사업, 지역정보화 체제 구축·운영,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과학기술정보·데이터 구축

1) 과학기술정보 수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분야 핵심학술지, 학술회의자료, 연구개발보고서,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16개국 405개 기관과 과학기술정보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글로벌 과학기술정보의 지속적 연계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454개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을 통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구축

국내외에서 수집한 각종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기술 문헌정보를 국내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및 구축하고 있다.

표 IV-26-1-1 | KISTI 정보서비스 보유자원 현황

(2018. 12. 31. 기준)

구 분	보 유 량	비 고
국내외 과학기술 논문	93,146,511건	국내외 학술지, 학술회의 수록논문, 학위논문
국내외 특허정보	37,239,266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
연구보고서	312,666건	국가연구개발보고서, 분석리포트
과학기술 동향	47,096건	글로벌동향브리프, 동향지식지
저널/프로시딩	385,069건	국내학회 저널, 해외 인쇄 및 전자저널, OA저널
연구자/연구기관 정보	1,208,911건	연구자/연구기관 정보 및 연구실적
합 계	132,339,519건	

3)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rdp.kisti.re.kr)은 연구데이터³⁶⁾의 중요성과 가치가 증가되고 연구데이터의 공유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발견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 데이터를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구데이터 등록

연구자들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연구데이터 파일과 프로젝트, 데이터셋,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등록한다.

• 연구데이터 검색

국내외 연구데이터에 대한 통합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검색된 국내외 연구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41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서비스 개념도



36)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정의)

• 연구데이터 분석

대용량 데이터 분석 환경과 개인 분석 환경을 제공하며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커뮤니티

연구 주제별 연구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지원하고, 연구 데이터 공유 및 분석 환경을 제공하여 커뮤니티 기반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연구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 IV-26-1-2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주요 제공 연구데이터

구 분	내용
국내 연구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시설장비 : 거대 현미경 관측 데이터(2셋) - 인체영상 데이터 (317셋), 도시환경 IoT 데이터 (2셋) • NIA 인공지능 데이터 (4셋) ※ 특허/법령/일반상식/이미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 조사 결과 데이터 (742셋) • 한국표준연구원 참조표준데이터 (8,583셋)
해외 연구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AIRE EU 연구데이터(약 66만 셋) • ARDC 호주 연구데이터(약 14만 셋)

나.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융합·연계 서비스

1) ScienceON(사이언스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 국가R&D정보, 연구데이터, 슈퍼컴퓨팅 자원, 정보·데이터 분석 기능 등 다양한 과학기술 지식인프라를 하나로 융합·연계 하여 연구 전주기에 필요한 KISTI의 전체 정보와 기능을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 7월 현재 ScienceON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주요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30종(300여 개 기능)에 대한 안내·검색·활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2 | ScienceON 서비스 개념도



ScienceON은 여러 지식인프라를 전문정보활용, R&D정보활용, 공유협업, 인프라 자원 이용 등으로 분류하여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객의 소속이나 직종 유형, 연구 분야, 연구단계 등에 맞게 가장 적합 한 인프라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서비스', 고객이 미처 몰랐던 서비스를 먼저 제시 해주는 '선제적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현재 활용하는 인프라의 선후행 관계에 있는 일련의 기능들을 묶어 연계성을 강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R&D를 수행하는 전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특히 R&D 활동 전주기의 연구목적별(동향조사, 기획, 실험, 평가, 사업화 등)로 차별화되어 서비스 되는 KISTI 개별 지식인프라(또는 서비스)의 핵심고객 전체를 ScienceON의 잠재 핵심고객으로 설정하여 개인 연구목적형 시나리오 기반 정보 활용, 데이터 분석, 컴퓨팅 자원 기반 실험환경을 연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ScienceON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www.ndsl.kr)과 검색기능을 융합하여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자들이 어제 어디서나 과학기술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 및 특허, 동향정보,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758개 학·협회와 700여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보컨소시엄(KESLI)을 운영하며 국내 학계 및 기업들이 국내외 최신 동향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수집 및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26-1-3 | NDSL 정보 제공 유형별 서비스 내용

유 형	서비스 내용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논문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학술지/ 프로시딩 KESLI에 포함되는 국내 전자저널 · 해외논문 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SLI에 포함되는 해외 전자저널(Elsevier, Wiley, Scince, Cell, IEEE 등) -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 260여 기관에서 소장한 인쇄 /전자저널 -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목차정보를 구축한 저널 -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저널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제공하는 핵심저널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EE 발행한 해외 프로시딩 - 영국국립도서관에서 구축한 해외 프로시딩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허 (1948년 이후 공개/등록, 약 3백만건 이상) <li style="text-align: center;">+ · 미국, 일본, 유럽 특허, WIPO 특허 (1976년 이후 공개/등록) <li style="text-align: center;">↓ <li style="text-align: center;">검색 ~ 원문입수까지 한 번에 가능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 연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이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으로부터 인쇄 또는 전자로 납본, 수집된 연구보고서 - 2009년 이후: 국가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보고서, 각 부처·청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전자원문을 제공받은 연구보고서 · 분석리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SEN 분석리포트 - ReSEAT 분석리포트(2004~2017) - KISTI MARKET REPORT(2011~2017) - iCON 지식리포트
저널/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학술지/ 프로시딩 - KESLI에 포함되는 국내 및 해외 전자저널 (ScienceDirect, Springer, IEEE, ACM 등) -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 500여 기관에서 소장한 인쇄/전자저널 -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목차정보를 구축한 저널 -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저널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제공하는 핵심저널

유 형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프로시딩 IEEE 발행한 해외 프로시딩 영국국립도서관에서 구축한 해외 프로시딩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 정보 연구자의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실적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관 정보 연구기관의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실적

2)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국가R&D사업 기획에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R&D사업에 관련된 17개 부처·청과 연계하여 사업과제 정보, 인력정보, 연구시설장비정보, 성과정보 등을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www.ntis.go.kr)이다. 2008년 3월 31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림 43 | NTIS 서비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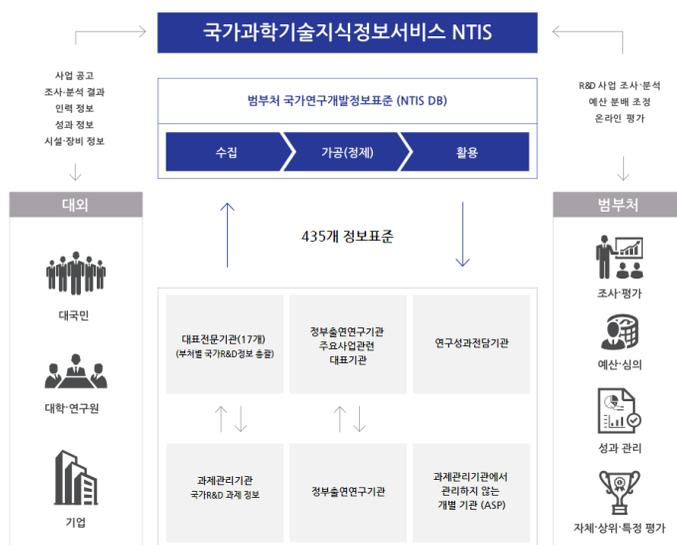


표 IV-26-1-4 | NTIS 주요 제공 정보

(기준 : 2018년 12월말)

구 분	건 수
국가R&D과제(2002년~)	70만 건
국가R&D사업 참여 인력 및 평가위원 정보	22.4만 건
연구시설·장비정보	10.5만 건
성과정보(논문, 특허 등)	논문 93만 건, 특허 36만 건 등 (총 503만 건 : 성과물 포함)

NTIS 서비스 개시 후 기업 회원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가입회원 12만 명 중 33%인 약 4만 명이 기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2018년 12월 말 기준). 기업 회원은 NTIS 서비스 가운데 사업공고, 인력, 특허, 기업지원R&D정보 등에 관한 수요가 많다.

기업지원R&D정보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기업이용자의 국가 R&D 과제 참여를 위한 기반지식습득, 협업을 위한 연구자·연구기관 탐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용자 관심정보 기반의 국가R&D 맞춤형 정보 패키지 제공을 통해 기업이용자의 과제 기획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NTIS 맞춤형교육」 및 「NTIS 이용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e-Asia Award 2011, UN 공공행정상 2012,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 2015,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장관표창 2017, WITSA(세계정보기술서비스 연맹) 공공부문 Winner 수상 2018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다. 중소기업 정보지원 사업

1) 연구용역 및 사업타당성분석

연구원 자체의 정보분석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유망아이템 발굴, 기술기획을 위한 산업·시장 분석, 보유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등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기술 기획 및 사업화 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의사

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방법론을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사업은 주로 기업이나 연구계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경영활동, 정부의 과학 및 산업·기술정보,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타당성분석 사업인 R&D기획지원 사업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시장성분석, 사업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수립 등의 종합적인 R&D 기획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고, 해당 기업의 기술·경영능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체의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하고 신규시장 진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나 타 기관의 소장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공동 분석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2) 산업·기술동향정보 연구

정보분석 연구를 통해서 특정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연구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연구보고서는 산업·기술 전반의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국내외 산업·기술동향 및 특정기술의 개발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유망아이템 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CTO를 핵심고객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기술 조사, 유망아이템 발굴, 사업화 평가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선진 기술·제품·산업동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기술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도입 및 국내우수기술의 해외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교육과 중소기업의 R&D 기획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산업·시장에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 요구되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경영기법과 정보시스템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술사업화 정보조사·분석업무의 고도화를 꾀하여 고부가가치 고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KISTI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자원 및 분석역량을 활용하여, 유망아이템과 관련된 분석형 정보, 통계 데이터 기반의 산업·시장 정보 및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 가치평가를 웹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시스템(BOSS, <http://boss.kisti.re.kr>)은 KISTI가 발굴한 350개의 중소기업형 신사업 아이템을 산업, 시장, 기술, 경쟁사, 투자동향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적합한 신사업 유망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시장 분석 시스템(KMAPS, kmaps.kisti.re.kr)은 산업·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공공 통계정보를 연결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재 산업·시장에 대한 규모, 경쟁환경, 미래 수요 등의 분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술가치평가 시스템(STAR-Value, www.starvalue.or.kr)은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정보와 기업 재무정보, 특허정보, 기술수명주기 정보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웹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산학연 간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시장정보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단순정보지원에서 지식정보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 기존의 단순정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와 인텔리전스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적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중소기업 근접지원 및 협력

KISTI는 정보분석서비스와 시스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신기술 탐색부터 기술 이전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의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 대학, 산업체, 국공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약 1만 2천여 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ASTI를 통해 지역기반 협력커뮤니티를 구축·운영하여 지역협력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R&D 활동을 개선시켜 기술경쟁력을 갖도록 ASTI 소속 중소기업들에게 R&D 기획 지원, 맞춤형 정보분석, 기술가치평가,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패밀리기업 300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지원, R&D 기획지원 등을 추진했다. 사업화 전주기에 걸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 출연연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5)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Modeling and Simulation) 기술지원사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및 장비부족을 극복하고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연구장비 활용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인력, 장비, 예산 등 자체 자원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기술개발을 위한 M&S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급 전문인력과 슈퍼컴퓨팅 자원 및 해당 분야 해석 기술 등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신기술 개발, 제품 성능 향상 등을 돕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서는 CAD/CAE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물리적 제품 제작 및 실험을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의 제품 제작 (Modeling) 및 공학해석(Simulation)으로 대체함으로써, 실물 시험 횟수를 최소화하여 제품개발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기관의 주요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등의 수탁 사업의 형태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39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표 IV-26-1-5 |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 현황

(기준 : 2018.12.31 현재)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중기청 사업		-	-	-	48	42	30	5	25	14	11	-	3	2	1	-	181
산업부 사업														8	5	6	13
KISTI 주요 사업	슈퍼컴 M&S	-	21	25	-	-	-	-	15	23	16	42	42	37	29	18	250
	단순 기술지원	24	-	-	-	-	-	10	-	24	1	-	-	-	-	-	59
기타사업												4	-	4	3	1	11
합계		24	21	25	48	42	30	15	40	61	28	42	45	47	38	25	514

* 슈퍼컴 M&S : 슈퍼컴퓨팅 기반 Modeling & Simulation을 통한 제품개발 컨설팅(장기)

** 단순 기술지원 : 제품설계 및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문, M&S 교육 등 단발성 기술지원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설계 과정에서의 애로기술에 대한 슈퍼컴퓨팅 기반의 공학해석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중소기업들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다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자체 인력 및 인적 네트워크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첨단 고급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제품 개발, 기술경쟁력 확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ANSYS·FLUENT·CFX·ABAQUS 등의 다양한 구조 및 열유체 해석 소프트웨어들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문 해석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체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설계를 도와준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성능이 검증된 공개프로그램 및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서 쉽게 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맞춤형 M&S 소프트웨어(HEMOS)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가시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가상 품평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공학해석 전문 기업이나 250여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 및 자문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담당자들이 첨단 기술개발 장비인 슈퍼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슈퍼컴퓨터 활용 환경(ezSIM)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2013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기존의 ezSIM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한 HEMOS-Cloud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들은 자동차, 선박, 건축 및 생산 설비, 생명공학, 반도체, 항공우주,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지원 수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제품 개발 시간을 약 51.0% 단축하고 제품 개발 비용을 약 55.6% 절감한 동시에 매출을 약 30%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0여 년 간의 슈퍼컴퓨터 활용기반 제품설계 시뮬레이션 지원으로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는 총 1,500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창출도 약 500여명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27장

한국디자인진흥원

1

일반현황

가. 설립목적

한국디자인진흥원(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은 국내 유일의 국가주도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디자인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정책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디자인 산업기반을 조성하며, 디자이너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디자인을 통한 국민행복과 산업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주요사업

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디자인 비즈니스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우수 디자이너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및 실무디자이너 교육 지원, 디자인, 기술 융합 상품 기획 플랫폼개발, 디자인 해외진출 지원 및 신흥시장 개척 비즈니스 교류,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디자인개발지원, 디자인코리아페스티벌 및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등 진흥사업, 기타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정부의 연구, 위탁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 조직 및 예산규모

- 1) 조직현황 : 3본부 10실 4센터 1사무국
(정원: 134명, 현원: 116명)
- 2) 예산규모 : 43,287백만원(2018 결산, 매출액 기준)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디자인전문회사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1)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지원은 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육성하여 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92년 시행 그간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2018년 말 현재 6,500여 개 사 기업이 전문회사로 신고 되어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을 이룬 산업규모에 비해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체계화하고 디자인전문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 마련 등 디자인 전문회사의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자인산업 고도화에 맞는 신고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전문회사의 수요에 맞춰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글로벌 디자인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요건은 신고분야별 디자인 전문 인력 1인 이상이며, 종합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전문 인력 3인 이상,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회사의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억압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2017년 10월 신고요령 확대 개정을 통하여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표 IV-27-1-1 | 연도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실적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회사 수(누계)	3,519	4,023	4,604	5,228	5,458	5,610	6,582

또한, 우수디자인기업의 발굴·선정을 통해 디자인기업의 역량강화를 장려·육성 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으며 국가 디자인 산업발전과 국가 브랜드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형화·전문화된 디자인기업의 부재에 따라 정부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리딩 디자인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을 통해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집중 발굴, 지원하고 디자인 비즈니스 창출 극대화를 위한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표 IV-27-1-2 | 연도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실적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회사 수	35개사	30개사	39개사	32개사	20개사	20개사

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홍보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분야	외국어종이카탈로그, 외국어전자카탈로그, 외국어동영상, 외국어포장 디자인, 외국어모바일앱, 외국어홈페이지, 해외온라인, 쇼핑몰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

3) 중소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에 경력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과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구 분	지원내용
지원유형	인력지원(디자이너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지원인력	전문학사학위이상의 디자인 인력
지원기간	협약일(지원인력 근무시작일)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원규모	정부예산 범위 기업당 1명 이내, 40개사 내외
지원금액	· 책임급 : 200만원 , 선임급 : 150만원 , 주임급: 110만원

나. 국내 디자인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1) 디자인코리아 개최

진흥원은 세계 우수디자인상품을 전시하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 정보 교류 및 기업 간 디자인 비즈니스와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코리아 행사를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디자인코리아는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을 구현하고 디자인산업의 역량을 증대코자 하며, 범국민적인 디자인 행사로 문화 가치확산 및 국내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디자인코리아 2018」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디자인 중심의 콘텐츠 전시 및 바이어 매칭과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 정보 제공되며, 세계 18개국 541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11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 중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및 다양한 기업 대상 부대행사 등을 구성하여 참가 기업을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했으며, 전시 기간 중 약 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그림 44 | 2018 디자인코리아 전시장 전경



다. 디자인 저변확대를 위한 디자인문화 확산

1)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사업은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홍보함으로써 기업의 디자인 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상품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디자인 선정 제도이다.

외관구성, 사용목적, 재료사용, 상업생산 등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제품디자인 외 6개 분야의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에는 GD마크가 부여된다. 1993년도부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신설하여 우수디자인에 대한 국내 최고 상격 시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6년에는 호주표준청과 양국 간 굿디자인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여 선정상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2013년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를 신설하는 등 선정 범위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 중이거나 당해년도 출시 예정인 상품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상품은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지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조달품목으로 등록) 시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하며 국내·외 전시 참가를 통한 홍보기회 제공 등 각종 우대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그림 45 | 2018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전시장면(2018. 10. 31)



그림 46 | 2018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주요성과



- ▲ 대통령상 삼성전자주식회사 스마트 오디오 VL 시리즈 ▲ 국무총리상 동부건설(주) 시흥 본선 상공형 휴게소 ▲ (주)큐라코 자동대소변처리제품

표 IV-27-1-3 |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품(전체)	1,703점	1,222점	1,349점	1,120점	1,146점	875점
선정	623점	478점	520점	443점	472점	339점

2)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1966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로,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디자인 컨셉과 혁신이 편견 없이 디자인 자체로만 평가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이다.

출품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프로 디자이너에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매년 약 2천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참가한다.

세계화를 위한 해외 심사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1차 심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출품부분도 32개 세부 카테고리로 다양한 디자인의 참여 기회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1차를 통과한 257명의 수상자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 디자인 비즈니스 행사 ‘디자인 코리아 2018’에서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전시기간 현장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워너(WINNER)와 골드(GOLD) 수상자가 가려졌다. 또한 최고의 영예인 그랜드 프라이즈(GRAND PRIZE)에게는 ‘대통령상’과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 외에도 수상자들에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디자이너스 파티 개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상자들의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고 있다.

표 IV-27-1-4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출품 및 선정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품 수	1,769점	1,408점	1,421점	1,439점	1,703점	1,769점
선정 수	393점	308점	262점	252점	293점	257점

그림 47 | 우수디자인상품선정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시상식 (2018. 11. 28)



제28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

설립목적 및 기능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영역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여성경제인의 능력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이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일반현황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는 1971년 10월에 설립된 대한여성경제인협회가 전신으로,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당시 여성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7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협회는 본회와 전국 17개 지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사는 2,600여개이다. 또한 센터는 전국 17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협회는 '여성기업의 성공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경영능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여성경제인단체와의 교류 협력, 여성경제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자료 및 통계의 조사 수집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여성창업 촉진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TV홈쇼핑 입점 지원, 인증브랜드 ‘여움’, 서로사랑네트워크,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을 수행 중이다. 넷째,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여성경제인DESK 운영,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 주 요 사 업 ▶

- 여성창업촉진지원 :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
-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TV홈쇼핑 입점지원, 인증브랜드 ‘여움’, 서로사랑네트워크,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 여성경제인DESK 운영,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조사연구

3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여성창업 촉진 지원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여성창업경진대회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확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등이 있다.

1) 여성창업경진대회

가) 개요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창의적이며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로 여성의 창업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할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팀)이거나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이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총 25명의 우수 팀에게 시상 및 포상을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투·융자 연계 지원(최대 3억 원), 여움 인증 및 흡쇼핑 입점우대, 수출지원 등의 판로지원과 1년간 창업보육실 무상입주(전국 17개 센터 226개 보육실)를 지원한다.

표 IV-28-1-1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팀) 및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창업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 및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1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2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500만원 우수상(3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5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및 상금 200만원(1명) 우리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4명) 특별상(1명) : IBK기업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1명) 입상(13명)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상 및 상금 각 20만원(13명) 수상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금 및 투·융자 연계(최대 3억원), 여움 인증 및 흡쇼핑 입점 우대, 수출지원, 1년간 창업보육실 무상입주(전국 17개 지역, 226개실)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3

나) 현황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사업계획 공고, 지역별 참가업체 모집, 서류 및 발표 심사, 시상식, 결과보고 및 사후 관리로 진행된다. 홍보는 SNS, 블로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여성경제인의 날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표 IV-28-1-2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2018년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는 총 933팀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410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00팀이 참가하여, 전체 참가자 중에서 약 65% (2018년 기준)가 서울 및 경기도에서 참가하였다.

표 IV-28-1-3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18년도)

(단위: 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참가수	410	35	59	31	53	42	18	21	200	15	22	17	10	933

다) 성과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팀 수는 2016년 382팀, 2017년 400팀, 2018년 933팀으로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상자는 49팀으로 지난 3년간 수상팀의 약 80%가 창업하였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은 대부분 검증된 아이템을 가진 기술창업으로 현재 일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 창업보다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표 IV-28-1-4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구 분	연도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참가팀수	382	400	933
수상팀수	12	12	25
창업업체수	6	8	25

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가) 개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창업보육 공간·정보·인프라 제공을 통해 여성의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경제인이며, 여성기업 창업보육시설 및 전문가 컨설팅, 각종 인증획득 지원, 판로지원과 정부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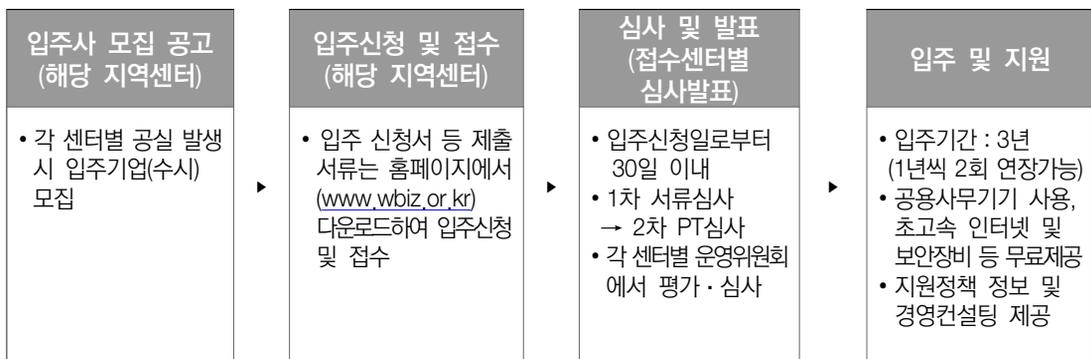
표 IV-28-1-5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센터 입주기업 및 여성경제인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지원시설(회의실, 사무집기, 인터넷, 보안장비 등) • 경영, 회계/세무, 재무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비,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마케팅 및 판로지원 • 중소기업 지원시책·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성공 여성CEO와의 네트워킹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3

나) 현황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보육실 운영,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제작, 성공한 여성 CEO와의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 유망업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 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보육센터 입주는 입주시 모집 공고, 입주신청 및 접수, 심사 및 발표, 입주 및 지원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28-1-6 | 센터의 창업보육실 입주프로세스



현재 전국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총 보육실 226개 중에서 179개의 보육실이 입주된 상태로써, 지역적으로는 인천센터의 보육실수가 1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대구/경북, 울산, 충북이 각각 16개, 경남과 제주, 광주, 경기북부가 각각 15개 순으로 각 지역 센터 내에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입주한 업체의 업종은 IT, 패션 및 생활용품, 일반제조, 뷰티, 섬유류, 출판광고 등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입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육실 입주 여성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28-1-7 |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현황

(단위 : 개, 2018년 12월 기준)

구분	보육실수	입주 업체수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주요 업종
중앙	9	8	방송/드라마 세트 디자인 응용 2차 저작물, 여행용가방제조, 물티슈, 클렌징화장품, 운동기구, LED방열판, 에너지관리SW개발 등
서울	16	13	관절인형 제조, 육아도우미매칭, 인테리어 리모델링, 잡화, 화장품, 광고, 전자상거래, 출판기획, 방향제 탈취제 등
부산	10	9	디퓨저제조, 브로콜리가공품, 유아교구, 생활소품, 환경컨설팅 등
대구/경북	16	11	웨딩드레스, 한지공예, 천연염색, 수저받침대, 떡볶이가맹사업, 홈패션 등
광주	15	9	애견용품, 미술교육 콘텐츠, 업사이클링 디자인, 인쇄, 출판, 악기 제조 등
대전	10	7	생활용품, 소프트웨어 개발, 플라스틱, 알루미늄 창호, 화장품원료개발 등
인천	17	16	도시락용기, 비누꽃다발제조, 생화꽃다발(클래스운영), 유아용품, 연마용소모재, 휴대 폰 부품, 화장품, 웹사이트 구축, 데코레이션 시트 등
울산	16	12	교육지도사 양성 비즈니스, 소이캔들, 탈취제, 교구살균기, 전자상거래 등
강원	13	10	생화프리지저브드 액세서리, 골전도헤드셋, 광고디자인, 인형(장난감) 등
경기	11	10	교육 서비스, 유아용품, 천연 향초, 패브릭 잡화, 커피원두 무역업, 교통카드 시스템 등
경기북부	15	15	친환경침구, 과학교육콘텐츠, 친환경 수용성 난연제, 피규어제작,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주차구역 무인단속시스템, 개릭터봉제 완구 등
충북	16	15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면접어플, 인테리어소품, 반려동물식품, 장신구 등
전북	12	9	공예,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DIY한지조명, 커피룩 등
경남	15	9	금속기계 제작, 천연비누, 컴퓨터 프로그래밍, 패류양식 및 가공식품 제조
제주	15	8	판촉물 제작, 영상촬영 서비스, 식품 제조, 광고, 디자인,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충남	10	8	섬유 디자인, 아동복대여, 중국어통번역, 방향제, 가방, 광고물제작 등
전남	10	10	다시마 가공식품, 영상제작, 디자인(광고물제작), 친환경캔들, 향암농산물 등
합계	226	179	-

다) 성과

입주여성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16년 16.8%, 2017년 17.1%, 2018년 19.4%로 매년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입주업체의 만족도는 2016년 92.0점, 2017년 92.0점, 2018년 86.0점으로 평균 90점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표 IV-28-1-8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단위: %,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업체평균 매출액증가율	16.8	17.1	19.4
입주업체 만족도	92.0	92.0	86.0

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가) 개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이며, 연 2.0% 이자율에 최대 1억 원까지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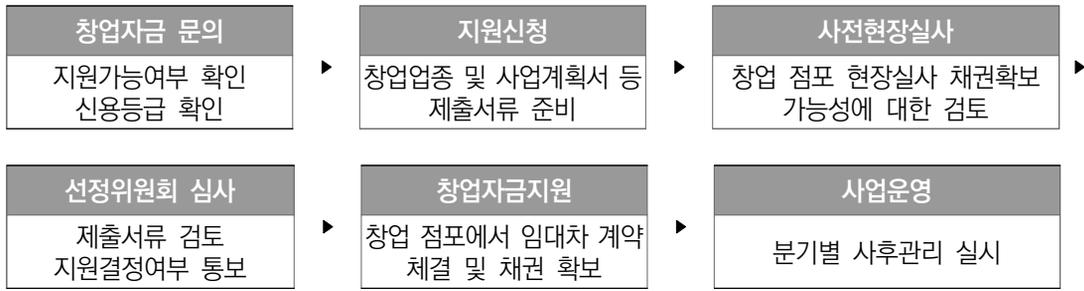
표 IV-28-1-9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요건: 저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및 신용등급 1~7등급 이내 * 지원제외대상: 주점업, 사치·향락업종 예비창업자, 신용관리대상자, 사업자 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 등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억원, 연 2.0% 이자율, 최대 6년(연장 2회 가능)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나) 현황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6개 지회에서 문의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지원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사업담당자의 창업점포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선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선정되면 창업자금을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원사업 선정자들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48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1999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2018년까지 저소득 여성가장 총 680여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신규지원자 14명, 기존 지원자 중 기간연장 신청자 12명에게 지원하여 총 26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IV-28-1-10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6년 지원인원	2017년 지원인원	2018년 지원인원
신규지원	7	22	14
기간연장	12	9	12
합계	19	31	26

나.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여성경제인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국제회의 파견 지원 사업 등이 있다.

1)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

가) 개요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여성기업 특성에 맞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여성CEO MBA 교육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CEO 및 임원이며, 강사료, 교재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교육 내용을 ‘경영실무’와 ‘협상스킬’ 분야로 나누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28-1-11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전국 여성CEO 및 여성임원
지원사항	• 강사료, 교재비 등 • 교육횟수 및 시간 : 총 8회, 약 24시간
교육내용	• 경영실무 : HRD, 마케팅, 브랜딩, 재무관리, 홍보, 법률, 세무, 특허 등 • 협상스킬: 리더십, 조직관리, 고객관리, 협상방법,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나) 현황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은 매년 경영트렌드를 반영하여, 여성CEO의 교육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여성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며, 입학식/수료식 전국 통합행사를 통해 여성 경제인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절차는 지역별 신청자 모집단계, 교육실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행된다.

그림 49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프로세스



2006년 4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28-1-12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최 현황

(단위: 개, 주)

구 분	연도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개최지역 수	16	16	16
지역별 개최기간	26	12	12

개최 지역별로 참가자 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상·하반기에 연 2회, 총 26회로 개최하여 광주가 10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 경남이 84명, 충북이 80명 순으로 참가자 수가 많았다. 2017년에는 연 1회 개최하였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 특히 참가자 수가 많았는데, 서울 45명, 경기북부 44명, 인천 40명 순으로 참가자 수를 보였다. 2018년은 기존 여성CEO MBA 교육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AMP 1기로 새롭게 운영하였는데, 서울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2명, 경기 41명 순으로 참가자 수를 보였다.

표 IV-28-1-13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단위: 명, %)

지역	2016년		2017년	2018년	
	경영실무	협상스킬			
수도권	서울	42	42	45	124
	경기	37	-	38	41
	경기북부	-	34	44	25
	인천	37	-	40	18
대구·경북	36	39	32	34	
대전/충청	충북	46	34	35	24
	대전	32	26	30	30
	세종충남	-	49	26	24
광주	36	72	38	23	
전남	24	-	32	24	
전북	30	36	32	20	

지역	2016년		2017년	2018년	
	경영실무	협상스킬			
부산/울산/경남	부산	-	47	26	29
	울산	37	31	26	14
	경남	34	50	32	42
강원		28	41	32	20
제주		-	59	30	37
합계		419	560	538	529

다) 성과

교육 수강생 수는 2016년 951명, 2017년 538명, 2018년 529명으로 연도별 목표치인 500명 이상의 수강생을 확보하여 꾸준한 교육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 수강생 만족도 또한 2016년 94.3점, 2017년 93.5점, 2018년 83점으로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도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V-28-1-14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성과

(단위 : 명, 점, %)

구 분	연도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교육 수강생수	951	538	529
교육 수강생 만족도	94.3	93.5	83.1

2)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가) 개요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전국 여성경제인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여성CEO로, 강사료 및 교재비 등의 참가비를 지원하며, 초청강연, 정책토론회, 경영애로 상담, 네트워킹 등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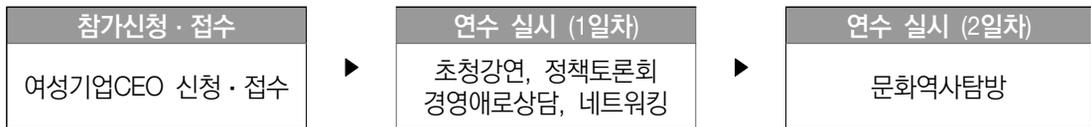
표 IV-28-1-15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여성CEO
지원사항	• 강사료, 교재비, 숙박료 등 참가비
연수내용	• 초청강연, 정책토론회, 경영애로 상담, 네트워킹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99

나) 현황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비롯하여 1박 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기업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상담 및 정책건의를 위한 여성경제인 DESK를 운영하였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여성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림 50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2018년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의 참가자 수는 1,039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다.

표 IV-28-1-16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참가자수	731	951	1,039

다.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 TV홈쇼핑 입점지원, 공동브랜드 여움, 서로사랑네트워크 운영 등이 있다.

1)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가) 개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은 수출초보 여성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규수출기업화,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교육을 지원하며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기업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초석 마련을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표 IV-28-1-17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출기업화: 컨설팅, 홍보물제작, 해외마케팅 등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유망 전시회 참가 및 전문바이어(B2B) 매칭 • 수출교육: 무역실무,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등 해외 마케팅 교육 실시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4

신규수출기업화 사업은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별 1:1 맞춤형 수출 컨설팅으로 효과적인 전략 수립 지원 및 수출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유관기관의 수출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표 IV-28-1-18 |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직접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액 10만불 미만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문가의 1:1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DESK 전문위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및 바이어정보 제공 외국어 홍보자료 제작비 및 번역비 지원

수출교육은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특정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 전략 교육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표 IV-28-1-19 | 수출교육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여성기업 대표 및 실무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초보 무역실무 교육 유망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별 마케팅 교육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여성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 거래되는 해외 유력 바이어 전문전시회(B2B) 참가지원을 통해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신규 거래선을 개척 및 확대하여 수출여성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글로벌 최신 트렌드와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의 글로벌 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표 IV-28-1-20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수출유망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유력 바이어 전문전시회(B2B) 참가지원을 통한 신규거래선 개척 및 확대 최신 글로벌 트렌드와 수요를 파악하여 해외 시장 진출 역량 강화

나) 현황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은 수출전문위원과의 1:1 기업별 맞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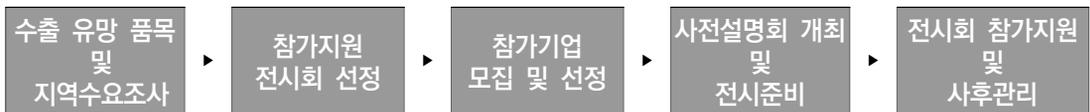
컨설팅을 통한 수출전략수립 단계, 무역실무교육 등을 통한 수출역량개발 단계,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활용한 수출활성화 단계,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기업화 단계로 추진된다.

그림 51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프로세스



특히,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향후 수출 유망 사업 품목 및 수출 희망 지역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참가를 지원할 전시회를 선정한다. 이후 참가 기업 모집 및 선정, 사전설명회 개최, 사전마케팅, 통역원 매칭 등 전시 준비지원, 전시회 참가 현장 지원 및 사후관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2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신규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은 2018년에는 20개사를 지원하였고 이 중 12개사(60%)가 총 130,000달러 수출에 성공하였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2018년 러시아, 중국, 베트남 3개의 전시회에 총 30개사를 참가 지원하여 14,495천 달러 수출상담 및 27,990달러 수출에 성공하였다. 또한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해 수출마케팅 교육을 4회 추가 실시하여 계획(80명)대비 200% 증가한 16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표 IV-28-1-21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 목록

구분	'18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명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모스크바 추계 가정용품 전시회 (8개사 지원) · '18년 심천 추계 소비생활재 전시회 (12개사 지원) · '18년 하노이 식품 전시회 (10개사 지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 개요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은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시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V-28-1-22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지원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다.

나) 현황

여성기업 확인접수는 온라인(www.smpp.go.kr)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접수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검토 후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그림 53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여성기업 확인제도에 따른 발급건수는 2016년 9,242건, 2017년 10,450, 2018년 12,541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가 증가하였다.

표 IV-28-1-23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단위: 건)

구분	연도별 실적		
	2016년	2017년	2018
확인서 신청건수	10,683	11,723	14,409
확인서 발급건수	9,242	10,450	12,541

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가) 개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여성기업 확인제도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확인서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사이트를 통한 입찰정보 제공 및 입찰실무 상담과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안내 등을 지원한다.

표 IV-28-1-24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체 공공구매 업무 담당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제공: 실시간 공공기관 입·낙찰 정보제공 및 상담 공공기관 구매설명회 개최 안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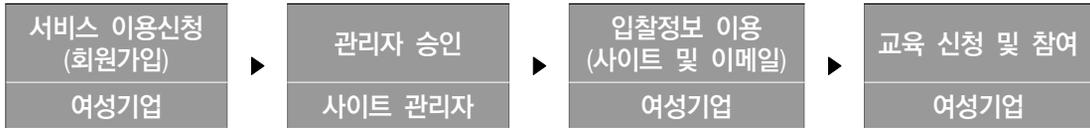
나) 현황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과 입찰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지원사업은 온라인 제품등록, 승인, 완료 및 게시 등 총 3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은 서비스 이용신청, 관리자 승인, 입찰정보 이용, 교육 신청 및 참여 등 총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 54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그림 55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다) 성과

공공구매 제도 홍보를 통해 여성기업의 입찰 참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입찰 참여 여성기업 수는 1,696건으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하였다.

표 IV-28-1-25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구 분	연도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입찰참여 여성기업 수	1,413	1,601	1,696

중소기업제품 전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은 2014년 111.5조원, 2015년 119.조원, 2016년 116.9조원, 2017년 123.4조원, 2018년 123.4조원 이며 그 중에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액은 2014년 5.49조원, 2015년 7.14조원, 2016년 8.34조원, 2017년 9.9조원 2018년 10.58조원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4.9%, 6.0%, 7.1%, 8.0%, 8.6%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구매실적이 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공공기관 제품 구매에 있어서 여성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IV-28-1-26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단위 : 조원, %)

구분	연도별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구매액	111.5	119.2	116.9	123.4	123.4
여성기업제품구매액	5.5	7.14	8.34	9.9	10.58
구매비율	4.9	6.0	7.1	8.0	8.6

자료: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4) TV홈쇼핑 입점 지원

가) 개요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제품을 발굴하여 TV홈쇼핑 입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한 여성기업을 선정하여 홈쇼핑 입점 교육, 제품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상품품평회, 영상제작비, TV홈쇼핑 입점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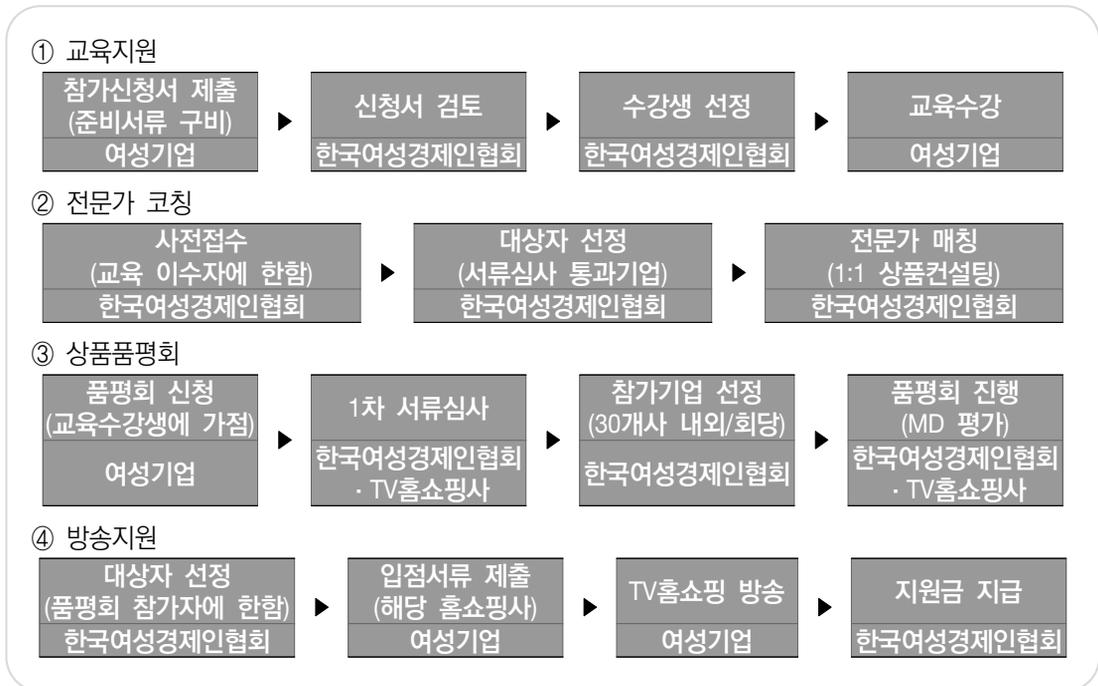
표 IV-28-1-27 |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규모	• 여성기업 150개
지원 대상	•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여성기업
지원 내용	• 홈쇼핑 입점교육, 전문가 코칭, 홈쇼핑 방송수수료, 인서트영상 제작비 등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확인서, 제품소개서, TV홈쇼핑 입점희망 신청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jin.kim@wbiz.or.kr)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나) 현황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방송에 필요한 홈쇼핑 방송프로세스, 제품카테고리별 상품전략 교육 및 전문가 코칭을 통해 방송에 적합한 상품으로 리뉴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방송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품평회를 거쳐 최종 방송업체를 선정한다. 지원금 중 방송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해당 TV홈쇼핑사에 일정 비율로 시기에 맞춰 지급하며, 여성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는 영상제작비 지원금은 방송 송출이 완료된 후 각 기업별로 협회의 지원금 지급절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그림 56 | TV홈쇼핑 입점 지원 프로세스



다) 성과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2017년 처음 시작한 지원사업으로 2년간 450여 개사가 교육 및 품평회를 통해 홈쇼핑 및 제품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았고, 38개사가 85회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참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18% 상승, 고용 1.7% 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IV-28-1-28 |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성과

(단위 : 개사, %)

구분	내용					
	2017			2018		
	목표 기업 수	지원기업 수	목표대비 기업지원률	목표 기업 수	지원기업 수	목표대비 기업지원률
홈쇼핑 입점교육 및 품평회	200	206	103	150	231	154
방송 지원	15	16	106.7	16	22	137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5) 인증브랜드 '여움'

가) 개요

인증브랜드 '여움'은 일반 국민들에게 여성 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현재는 인증브랜드 초기 사업화 단계로 품질은 우수하나 자체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제품을 보유하여 지원이 필요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중소기업 회원사가 대상이다. 사업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전체 여성기업인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표 IV-28-1-29 | 인증브랜드 여움 운영 추진내용

구분	2017	2018	2019 목표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업체(회원사)모집 일반소비자 대상 홍보 국내 유통채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업체(회원사)확대 국내 및 수출 유통채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업체(전체 여성기업) 확대 수익모델 구축 사회적 책임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움몰: www.yeoum.co.kr 여움 홍보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B1 개관 (2018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4 		

나) 현황

2016년 인증브랜드 '여움' 개발 이후 1기와 2기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여움 3기가 선정되었다. 연 1회 정규 모집 외 상시 모집도 받고 있다. '여움'에 선정된 기업은 기수에 관계없이 활동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여움몰과 여움홍보관에 입점 가능하다.

그림 57 | 인증브랜드 선정절차



다) 성과

인증브랜드 ‘여움’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배너광고를 통해 홍보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여움몰로 유입시켰다. 또한 2017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여움 브랜드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여움 브랜드전’을 통해 참여 업체가 대형 마트에 입점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온라인으로는 여움몰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통 채널의 MD와 벤더들이 ‘여움’에 선정된 기업의 상품을 론칭하기 위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여움 홍보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약70개사의 상품이 전시 중에 있다.

6) 서로사랑 네트워크

가) 개요

서로사랑 네트워크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제품에 대해 회원사간 직거래 장터를 통한 판로확보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로사랑 네트워크는 여성기업 간 상호거래를 통해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동반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표 IV-28-1-30 | 서로사랑 네트워크 운영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서로사랑 네트워크는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회원사의 매출 증진을 도모하고, 가입하고 있는 회원사 제품을 홍보하여 거래의 활성화 및 매출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41 서로사랑 네트워크 사이트 : www.welove7co.kr

나) 현황

서로사랑 네트워크는 회원사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회원사간

구매를 통해 판매자에게는 판로확보를 통한 매출증대 효과를 주고, 구매자에게는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능하여 생산자와 구매자의 공동이익을 제고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직접생산제품에 한하여 판매자 신청 및 제품등록이 가능하며 이용 문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가능하다.

그림 58 | 서로사랑 네트워크 판매자 신청 절차



7)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가) 개요

국제회의의 한국 대표단 파견 지원 사업은 각 국가별 정책 공유 및 세계 여성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한국 여성 대표단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성 기업 대표이며 회의 참가비, 차량 임차료, 통역비 등 공통경비를 지원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공식회의 및 세미나, 워크숍, 현지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 참가를 통한 네트워킹 형성이며 전 세계 여성경제인 간담회, APEC 여성경제포럼(APEC-WEF), 세계여성경제인대회(FCEM) 등 국제회의의 참가를 지원한다.

표 IV-28-1-31 |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 여성기업 대표
지원 사항	• 회의 참가비,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의 공통경비 지원 • 지원내용 - 개막식, 본회의 및 세미나 등 공식행사 참가 - 주제별 워크숍 참가 및 발표 - 네트워킹 런치 및 만찬 참가를 통한 해외여성경제인과 교류 - 주최국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 참여
2018년 참가지원회의	• FCEM 세계위원회(미국, 뉴욕) - 기간 및 인원 : 2018년 4월 12일~14일/ 11명 • 대만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대만, 타이페이) - 기간 및 인원 : 2018년 11월 23일~26일/ 6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나) 현황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공식회의에 참가하여 국가별 여성지원정책을 공유하며 주최국과의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한다. 절차는 참가자 모집단계, 파견 준비단계, 대표단 파견단계, 결과보고단계로 수행된다.

표 IV-28-1-32 |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기업에게 유용하며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여성경제인대회는 2006년 국내에 처음 유치한 이후, 2012년 재유치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동 대회에서 아시아 지역위원대표 및 운영위원회 부회장이 한국 대표단에서 선임된 성과도 얻게 되었다.

다) 성과

2018년은 여성경제인들의 국제회의 참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17명이 참석하여 당초 목표 15명 대비 115% 달성률을 기록하였다. 2017년은 APEC 여성경제포럼과 FCEM 세계여성경제인협회 총회에 참석하였고 2018년도는 FCEM 세계여성경제인협회 총회 및 대만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대만, 타이페이)를 개최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가 증가하고 있다.

표 IV-28-1-33 |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참가자 수	11	7	18	
파견회의	APEC 제20회 회의	-	APEC 제22회 회의	
	-	-	FCEM 제65회 회의	FCEM 제66회 회의
	한미 첨단산업 포럼 제1회 회의	중국 상해 Global Forum	-	대만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

라.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재정비 지원사업은 여성경제인DESK운영,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연구조사 등이 있다.

1) 여성경제인 DESK 운영

가) 개요

여성경제인 DESK는 여성경제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해결하기 위한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2014.12, 대통령 주관 「여성기업인 초청 오찬간담회」)하여 여성기업 정책건의 전용창구로서 「여성경제인 DESK」를 설치하였다. 지원대상은 예비 여성창업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예비 여성경제인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경제인이다.

표 IV-28-1-34 | 여성경제인 DESK 신청 및 상담 분야

구 분	내 용
창업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 · 수출입

나) 현황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들은 9곳에 거점을 두고 전국 17개 지역센터에서 여성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그림 59 | 여성경제인 DESK 프로세스

단계	수행 방법	비고
여성기업 (신청)	▶ 정책아이디어 및 현장경영 애로사항 신청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	여성기업
여성경제인 DESK 접수 (해당지역 센터)	▶ 정책건의 및 현장 경영애로, 규제 신청접수	17개 지역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접수
전문위원 상담 (센터 방문 또는 기업)	▶ 분야별 전문위원 상담 및 해결	-
관계부처 협의 및 해결	▶ 미결과제 접수 및 해결 ▶ 정책건의 및 현장 경영애로, 규제 개선 및 부처협의, 필요사항 이관해결	중소벤처기업부
결과 안내 (여성경제인 DESK)	▶ 처리결과 종결 및 회신	-

다) 성과

여성경제인 DESK는 ① 중앙·강원, ② 인천·서울, ③ 경기, ④ 충북·세종충남, ⑤ 대전·전북, ⑥ 광주·전남·제주, ⑦ 대구경북, ⑧ 부산·울산, ⑨ 경남으로 총 9개의 거점지역을 두고 있으며, 각 거점지역에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상담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IV-28-1-35 | 연도별 여성경제인 DESK 상담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담건수	1,066건	1,766건	1,874건

2)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가) 개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물리적인 제약 없이 전문적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과 매칭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프로젝트 등록부터 완료까지 단위별 1:1로 전담 관리하여 초기 상담 및 조율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경력검증을 통해 인재 추천 및 전문분야별 비즈니스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28-1-36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개요

구분	내용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력을 물리적 제약 없이 합리적 비용으로 매칭하여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등 유연한 업무환경 제공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주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이 인력 검증 및 인재 추천 등 자문 컨설팅 •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Escrow),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 안전결제 지원 • 업무용 SW를 클라우드 방식 (SaaS)으로 제공하고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 수행평가, 경력증빙, 경력개발 등 사후관리 ※ 일자리허브 참가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혜택 : IBK기업은행 대출금리 추가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
참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 중소·벤처·초기창업 여성경제인 • 전문인력 : 전문가·경력자, 개인·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 ※ 주요분야 : 디자인 / IT개발 / 홍보마케팅 / 수출무역 / 회계재무 / 인사총무 등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www.iljarahub.or.kr) 회원가입 • 여성기업 : 회원가입 및 프로젝트 등록 • 전문인력 :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Tel. 02-369-0963, E-mail. iljarahub@wbiz.or.kr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 www.iljarahub.or.kr

전문 인력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이 프로젝트 계약부터 완료까지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및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여성기업회원이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일자리허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전문인력을 검증하여 계약에서 전문인력의 프로젝트 수행 후 안전결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시 업무용 S/W와 클라우드를 제공함으로써 재택근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인력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60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개념도



나) 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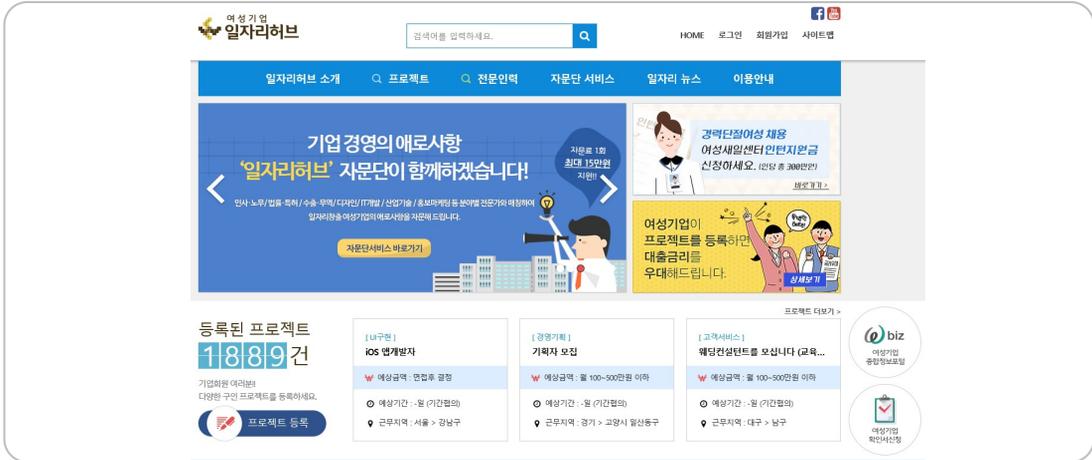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2017년 11월 3일 여성경제인의 날에 맞춰 론칭쇼를 개최하고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설명회, 유관기관·단체³⁷⁾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지도를 확산하였다. 2018년에는 백업솔루션 도입 및 모바일 실시간 관리 기능 확대로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법률·회계·인사·디자인·경영 등 12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144명)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신청·매칭·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기업회원 256개사 및 전문인력 회원 1,148명 가입, 1,059건의 프로젝트 등록 및 82건을 매칭하였다.

표 IV-28-1-37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성과

구분	기업회원 수	전문인력 수	프로젝트 수	매칭 수(비율%)
성과	256개사	1,148명	1,059건	82건(8%)

37) 여성경제단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여성가족부 중앙새일센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인쿠르트(주),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등

그림 61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3)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가) 개요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여성경제인 및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보, 여성기업 관련 통계 자료 제공 등 여성기업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였다. 효율적 운영·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의 경영지원 및 창업여성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카테고리별 정보 분류·업데이트를 통한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 취득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향상 되었다. 포털시스템 최적화로 온라인 사업 등록·신청 및 여성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과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2014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여성기업 제품 구매)의무화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만을 홍보할 수 있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사이트를 구축하여 여성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 IV-28-1-38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여성경제인 및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여성창업자
지원내용	• 포털사이트를 통한 사업 지원 및 경영정보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한 여성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확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41

나) 현황

(가) 여성기업 제품 판로확대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³⁸⁾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웹사이트를 구축 하여 온라인 마켓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경제인의 판매채널 다변화 및 여성기업 제품 홍보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약 1,430여개의 업체가 상품 등록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약 1,700여개 업체 등록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그 외 다양한 여성기업 정보

여성기업 통합 DB구축 및 검색시스템 도입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유형별, 생산 제품별, 산업분류 등을 통한 여성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 구축으로 통합로그인,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일정관리, 설문조사, 전자결재, 문서함, 주소록 관리,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62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사이트
<http://www.wbiz.or.kr>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http://shopping.wbiz.or.kr>

38)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4. 1.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967호, 2013. 7. 30., 개정)

다) 성과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3개년 추진 프로젝트로서, 1차년도(12년)에는 통합망 기반 구축단계, 2차년도(13년도)에는 통합망 고도화 단계, 3차년도(14년)에는 통합망 운영·개선 사업단계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대내 통합시스템인 사내 인트라넷과 기업정보관리, 지원사업관리 부문, 대외 통합시스템, 여성기업지원정책 정보, 온라인 기업 마케팅, 민원처리, 여성기업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고, 2013년도에는 포털사이트 업데이트 및 지원사업관리 기능개선을 위해 창업, 교육, 여성가장 창업자금, BI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시스템, 설문조사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구축, 그룹웨어와 결제 연동 가능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하도록 구축하고, 통합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2014년도에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업데이트로 여성기업 제품 등록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다. 2015년도에는 공공기관의 DB연계 개발로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콘텐츠를 보강하고, 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개발로 운영 환경이 개선되었다. 2016년도에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여, 사용자 접근 및 편의성을 증대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여성기업 종합 정보포털 DB 서버 업데이트를 통한 사이트 안전성 및 보안성이 향상 되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여성 기업종합 정보포털 회원 수는 19,629명이며,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사이트에 등록된 여성기업 수는 1,439개, 등록 제품 수는 11,563개 이다.

4) 여성기업 조사연구

가) 개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위해 여성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관리 및 여성기업 정책기반 자료 제공, 정기조사를 통한 여성기업 현황 제시 및 연구보고서 발간이다.

표 IV-28-1-39 | 여성기업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구분	내용
소개	•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위해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주요목적	•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관리 및 여성기업 정책기반 자료 제공 • 정기조사를 통한 여성기업 현황 제시 및 연구보고서 발간
주요성과	• (여성기업 조사연구) 여성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관련 동향 분석 등 종합적 연구조사 실시 - (정기과제) 여성기업 백서, 여성기업 관련통계 자료집, 여성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 (수시과제) 여성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 여성기업 애로 실태조사 - (이슈연구) 여성기업 이슈브리프, 여성기업 동향 브리프 - (통계구축) 수출 여성기업 DB, 공공구매 실태 DB - (정책공유) 세미나, 토론회 개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02-369-0900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나) 현황

여성경제연구소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관련 동향 분석 등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연구보고서 체계를 정비하여 정기연구, 수시연구, 연구용역으로 나누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경제인들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하고 있다.

다) 성과

보고서 발간 건수는 2015년 8건, 2016년 8건, 2017년 8건이었다. 2018년부터 성과관리를 세분화하여 연구·용역보고서 10건, 이슈·동향브리프 15건을 발간하였으며, 세미나는 2회 개최하였다.

표 IV-28-1-40 | 여성경제연구소 실적

(단위: 건)

구분	연도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고서발간 수	8	8	8	연구·용역 보고서	이슈·동향 브리프	세미나
				10	15	2

자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제29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1989년 7월부터 전국각지에서 결성되기 시작한 민간 주도의 중소기업이업종교류그룹을 대표하기 위해, 1994년 11월 23일 전국 이업종 교류 연합회로 창립하였다. 이후, 1994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 및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5년 6월 중소기업청의 허가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6월 (사)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로 명칭을 변경, 2009년 3월 (사)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로 명칭을 변경, 2011년 11월 현재의 명칭인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융복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융복합화를 이끌어 왔다. 2018년 말 기준 전국 13개 지역 연합회와 269개 융합교류회(6,058개 중소기업)를 회원으로 하여 이업종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으로 중소기업간 부족한 경영 및 기술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고, 국내 기업 간 교류 협력을 넘어, 해외 한인기업인들과의 국제 교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간 교류 및 협력활성화 지원, 중소기업간 네트워크기술 개발사업 사전기획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지원

가. 중소기업간 교류활성화 지원

1994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 이업종교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교류지원부를 설치하여 이업종교류 지원업무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업종 단위교류회 신규결성

및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CEO포럼 등의 사업을 보조하고 매년 단위 교류회 및 참여기업의 교류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전시하는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문화조성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9-1-1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 합 회	13	13	13	13	13	13
교 류 회	329	332	315	315	301	269
회 원 사	7,029	7,141	6,546	6,546	6,078	6,058

중소기업융합대전은 2004년부터 이업종교류회 소속 기업의 단합과 교류성과 공유를 위해 전국을 순회 개최하였던 중소기업 한마음대회를 2014년 정부의 융합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토록 중소기업융합대전으로 격상시켜 매년 기업 간 교류와 협력활동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수여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29-1-2 |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최기간	6.21	5.22~23	9.4~5	5.21~22	4.22~23	4.14~15	5.12~13	4.26~29	5.15~16	6.10~11
개최지역	대전 충남	제주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대구 경북	울산	강원
참가규모	290	400	550	550	1,100	1,200	1,400	1,560	1,558	1,800

표 IV-29-1-3 |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최기간	9.26-27	10.28	10.19	10.23	10.30
개최지역	천안	대전	서울	익산	대전
참가규모	1,500	1,000	1,000	1,000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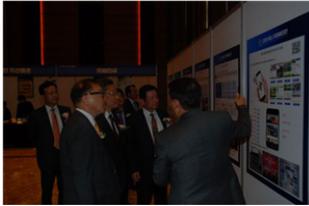
개막식



최수규 중기부차관 축하



이상민 국회의원 축하



전시장 관람



내빈



정부포상 수여

나. 중소기업간 협력활성화 지원

초연결·초속도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괄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제품개발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동종 또는 이업종 기업 간 경영·기술 정보교류를 통해 구축된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협력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보완적인 기능을 보유한 기업과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나의 사업체처럼 경영 활동을 하는 협업으로 위험과 성과를 분담하여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협업사업 계획 승인제도를 도입, 협업자금 융자지원 등을 실시하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표 IV-29-1-4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승인수	5	48	31	13	15	33	24	19	23	18	13	18
참여 기업수	15	111	75	32	34	72	80	47	54	42	29	59

협업 지원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제품개발·생산·디자인·판매 등에서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업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시제품 제작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에서 기업 간 핵심역량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을 위해 「교류→사업기획→R&D→사업화」등 단계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간 협업은 참여기업 간 구축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 간 충분한 교류활동 없이 단시간에 구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업 참여 기업 발굴 및 협업기업 간 중간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협업전문가 역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업전문가역량강화 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협업 승인제도를 협업 선정으로 완화하여 사업신청·선정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정보 제공을 위한 협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협업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표준화된 협업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등 협업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협업활성화 세미나



협업활성화 세미나



협업활성화 세미나



협업전문가 양성교육



협업전문가 양성교육



협업전문가 양성교육

2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융합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중소기업 성장한계 애로사항 해결과 성장한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R&D패러다임 요구에 부응하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체를 대상으로 R&D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기업 간 협력 사업이다.

그림 63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협력 유형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전기획지원은 기술개발 실효성 검증에 위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2단계 R&D사업 진입하도록 아이디어 구체화와 수평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개발기관 매칭,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표 IV-29-1-5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지원 현황

구분	지원기업	협업체 구성						상호협력계약서 및 공증추진	비고
		3개	4개	5개	6개	7개	합계		
2017년	61개	30	11	2	2	1	46	61개	
2018년	32개	20	4	5	2	1	32	32개	
2019년	37개	23	5	6	2	1	37	37개	

사전기획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구축부터 사업화 전략수립 까지 R&D 및 사업화 전단계를 포괄하는 과제기획 추진을 통해 R&D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술개발 이후에 빠른 상용화 추진을 위한 사전 기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표 IV-29-1-6 | 네트워크 기획지원 프로그램 구성

구 분		주요내용
네트워크 구성		• 기술협력파트너 매칭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환경 분석	기업현황 분석	•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시장분석	•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종합
	해외시장 분석	•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기술 분석	기술분석	•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및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분석, 기술의 위치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지적재산 전략분석	•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분석,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
경제성분석		• 예상매출액 분석, 예상원가 추정, 수익성지표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략 수립	R&D	•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사업화	• 산업환경·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수립
네트워크 협력 계약 체결/ 공증		• 각 주체별 도출 성과물에 대한 정의 및 표준계약에 따른 합의사항 도출 (공증지원, 수익배분 방안 등)

앞으로도 협업기반 개방적 혁신 R&D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 진출, 연구개발 리스크 분산 및 기간 단축, 개발비용 절감 등의 기업 간 협력사업의 기술개발 성과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기획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전문적 역량을 통해 기술융합의 중소기업의 협업성공 모델창출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3

중소기업 인력 지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15년 5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동관리협의회로 지정받아 특성화고 산학맞춤반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인력공동관리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 기술사관 학교 등의 졸업예정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중소기업 사이에서 인력채용에 관한 매개체의 역할로써 '15년도에는 2개교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취업 후 복교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조직적응 수준을 분석하고 조직적응 강화 지도를 통해 30명 중 13명을 재취업 시키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15년도 특화프로그램 교육



'15년 채용박람회



'16년도에는 9개의 특성화고 취업예정자 총 45명을 대상으로 취업 전 조직적응 검사 및 1:1 맞춤 지도를 통해 학교와 함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취업 후에도 기업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추진하였다.

'16년도 특화프로그램 교육



'16년 취업 후 사후관리



) 김유나 (경일관광경영고) 김다영 (서일국제경영고)
주식회사 제이디블유트리니티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2016.9.5 2016.8.29

'17년도에는 본회 385개사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실태조사, 21개 학교, 609명을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 및 공동채용박람회 1회 등 총 380명을 취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 해소 및 원활한 취업지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7년도 특화프로그램 교육



'17년 채용박람회



'18년도에는 315개사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 채용 실태조사, 17개 학교, 415명 학생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하였다. 또한 청년장병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교육 및 행사를 운영하여 전역 후 취업을 연계하였다.

'18년도 특화프로그램 교육



'18년 채용박람회



4

중소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

가. 중소기업 간 교류 및 협력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산하 전국의 13개 연합회는 매년 1회 융복합기술개발 및 융합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합플라자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말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사의 제품과 기술홍보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 간 교류 및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을 기하고 있다.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리더 합동 워크샵에서는, 이희범 前산업자원부 장관의 ‘세계 통산질서의 변화’ 관련 주제로 발표 시작으로 홍콩 무역 발전국 지부장의 ‘홍콩을 이용한 중국시장진출 전략’ 세미나를 통해 전국 융합 교류 리더와 함께 국내 기업 간 교류를 넘어 해외 한인기업인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리더합동 워크샵



리더합동 워크샵



리더합동 워크샵

나. 중소기업 간 협력생태계 구축 지원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현정부의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6,000여 회원수를 10,000 회원수로 확대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제30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일반현황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200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과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2001년부터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 INNOBIZ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 기술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3의2)

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기업) 간 상호교류 및 경영,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이노비즈 인증제도 운영, 정부 위탁사업 수행(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이노비즈기업의 국내외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본회, 경기 판교 소재)과 전국 9개(강원,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 전북, 충북, 제주) 지역협회를 보유하여 지역 이노비즈 기업의 애로해결 및 정책지원 등 현장 밀착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일자리와 해외진출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민간 최초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전국 최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을 달성하는 등 이노비즈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지원으로 2013년 일자리 창출 국무총리 표창, 201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2015년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 2017년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15년 중국(헤이룽장성) 대표사무소, 2016년 한-이란(테헤란) 기술교류센터, 2017년 한-베트남(하노이) 기술교류센터, 2018년 한-인도네시아(자카르타) 기술교류센터 설립 등 해외 거점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에도 힘을 쓰고 있다.

협회는 보다 체계적인 이노비즈기업 지원을 위해 ‘이노비즈협회 5개년(‘18~’22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 글로벌, 기술혁신 등 각 분야별 목표와 전략 및 과제를 설정하였다. 협회 모든 임·직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제품부터 기획·개발·생산·서비스까지 기업 내 모든 활동들이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 바로 ‘이노비즈기업’이다.

이노비즈기업은 2001년 약 1,000여개에 불과했지만 참여정부(‘03~’08년) 시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정책기조 하에 본격적으로 발굴·육성되어 2018년 현재 18,000여개 규모의 거대 기업군*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 284조원을 기록, 국내 실질GDP(1,597조원)의 약 17.8%를 차지하며 같은 해 삼성전자(239조원, 15%)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줬다. 또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연평균 3만개 이상 총 28만 5천여 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이노비즈기업 수 변화추이 : (‘01) 1,090개사 → (‘06) 7,183개사 → (‘11) 16,944개사 → (‘16) 17,708개사 → (‘17) 18,091개사 → (‘18) 18,093개사

**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총 누적 285,446개) : (‘10) 32,009개 → (‘11) 30,744개 → (‘12) 33,898개 → (‘13) 37,367개 → (‘14) 30,264개 → (‘15) 32,638개 → (‘16) 34,259개 → (‘17) 35,660개 → (‘18) 18,607개

또한 일반 중소제조기업 대비 3배 이상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중소기업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이노비즈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회는 정부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및 기술혁신 지원 사업

1) 혁신형기업(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혁신형기업(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은 이노비즈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지원 규모는 7.18억 원으로 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1억), 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이노비즈기업 발굴·선정 등 관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이노비즈넷 운영·관리(0.95억),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기술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시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4.53억),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활동을 유도하여 정부사업 참여 시 혜택을 주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0.7억)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매년 직전연도 12월말 기준의 이노비즈기업 중 2,000개의 표본을 추출하고 기술혁신, 수출현황 및 애로사항과 지원 정책 평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재무현황 등을 분석하여 일반 중소제조업, 대기업과 비교 실시하고 있다.

표 IV-30-1-1 | 2018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주요 결과

구 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종사자	평균 수출액*	수출기업 비중	평균 R&D 투자비율
결과 값 ('17.12기준)	157.1억	7.5억	41.9명	70.7억	51.8%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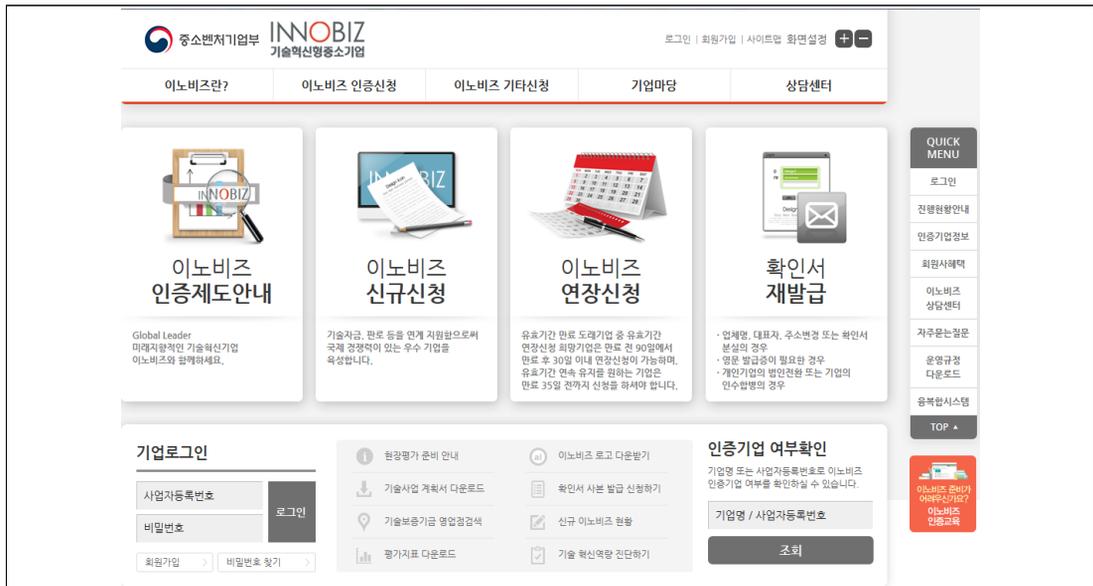
* 수출액은 1억 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조사

② 이노비즈넷 운영·관리

이노비즈넷 운영·관리는 2004년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이노비즈기업 선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민

사이트로써 이노비즈기업 신청 및 평가, 확인서 (재)발급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상담원 배치, 관련 유관기관(기술보증기금,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담당자 업무 협조 등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림 64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화면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2000년부터 기술혁신 관련 전시회와 포상을 위해 매년 정부주도로 개최되어 왔는데 2005년부터는 이노비즈협회 등 민간이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라는 슬로건 하에 8.30(목)~9.1(토) 3일간 COEX 3층 Hall C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참석자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실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 중소기업 임직원 등이 7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전시규모는 336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351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또한 2018년 포상규모는 기술혁신 및 기술인재 분야 훈·포장 등 173점(정부포상 47점, 기관표창 126점)이 수여되었고,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컨퍼런스 등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각종 부대행사도 실시하였다.

그림 65 | 2018년 제19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주요 스틸 컷



④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마일리지 500점 당 가점 1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마일리지 시스템(www.millige.or.kr)을 운영하여 참여기업 관리, 교육기관 및 과정 등록, 가점활용 안내 등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영혁신 활동 및 신규 교육기관 심의를 비롯하여 제도개선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표 IV-30-1-2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운영 실적('14년~'18년)

사업연도	참여기업	적립기업	활용기업	교육기관	교육과정
2014년	163개사	0개사	0개사	32개	722개
2015년(누적)	1,002개사	793개사	3개사	43개	2,289개
2016년(누적)	8,084개사	5,818개사	50개사	49개	3,928개
2017년(누적)	12,325개사	8,113개사	112개사	52개	4,859개
2018년(누적)	18,307개사	13,368개사	181개사	55개	5,755개

2)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내부 숙련 기술인의 잦은 이탈을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손실 및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생산기술인력 대부분이 향후 10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숙련기술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제조 경쟁력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숙련기술, 노하우, 암묵지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숙련기술 인력의 고령화와 은퇴로 기술 절벽의 위기가 도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러한 기술전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9.22억 원('18년)의 예산으로 기술업무 수행 체계화를 통한 현장의 표준 준수율 및 작업성과 향상, 숙련기술인 보유 기술, 노하우에 대한 손실 방지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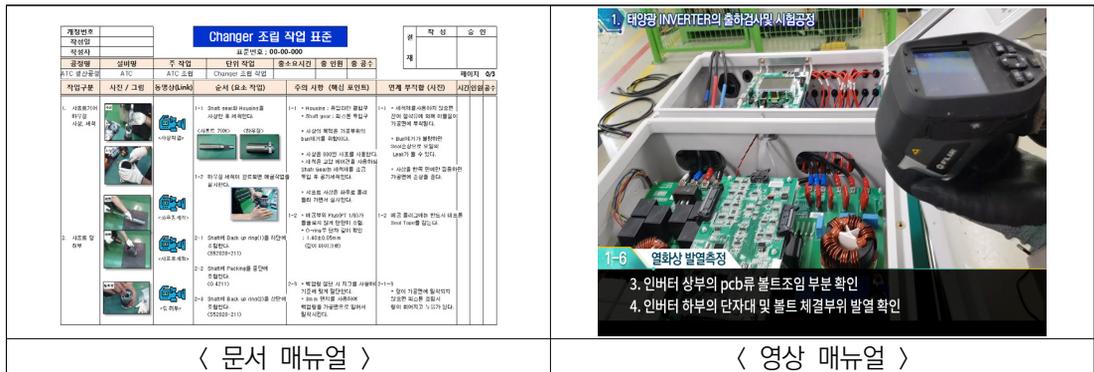
본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작업공정, 설비관리 등 작업자와 연계된 불량 해소를 통해 생산성 저하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숙련기술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노하우의 체계적 전수를 통해 현장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조기 전력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 숙련기술인이 보유한 암묵적 기술 및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해당 기술전수를 위한 매뉴얼(문서, 영상) 총 80건을 제작하였으며, 숙련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생산량 향상, 품질불량률 감소, 작업시간 단축 등 향상 해당 공정(Task)의 생산성 약 40%가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80개사)의 83%가 만족도 및 효과성 역시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1-3 |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지원 실적('16년~'18년)

지원 내용	2016년	2017년	2018년
• 지원기업 수	100개사	100개사	80개사
• 숙련기술인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과 기술·노하우의 체계적 전수를 위한 매뉴얼 제작	총 100건 (문서: 100개, 영상: 100개)	총 100건 (문서: 100개, 영상: 100개)	총 80건 (문서: 80개, 영상: 80개)
• 매뉴얼 기술임치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 건수	100건	100건	80건
• 사업성과 (생산량 증가, 불량률 감소, 작업시간 단축)	생산성 40.9% 향상	생산성 38.1% 향상	생산성 40% 향상

그림 66 | 문서 및 영상 매뉴얼 예시



3)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은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민첩한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절실한 시기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문턱을 낮춰주는 본 사업을 통해 국내외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용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클라우드 시장 확산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본 사업은 2017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6개 클라우드 기업의 380개 클라우드 제품을 선정하여 2,750개 기업에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30-1-4 |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의 지원 실적('17년~'18년)

구 분	서비스 등록 실적		도입 실적		비고
	공급기업 수	클라우드 서비스 수	대상	도입실적 수	
2017년	101개社	177개 서비스	산업단지	1,200개	
2018년	105개社	203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1,550개	사업진행 중

나.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16년 7월부터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되며, 청년 재직자가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청년납부금(300만원)과 정부지원금(1,300만원) 등 총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청년납부금(600만원)과 정부지원금(2,4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협회는 참여기업의 편의성 증대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사업 운영 및 참여기업 관리’를 위한 전용시스템을 독자 개발·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본 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련 알림 및 공지, 서류 제출 등을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업 스스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별 참여단계 및 지원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총 7,390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을 달성했으며, 본회 및

6개 지회와 함께 전체 운영기관 146개중 전국 최대 규모로 사업을 운영, 앞으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30-1-5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6년~'18년)

구 분	본회	지 회							합계
		강원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2016년	518명	25명	240명	62명	158명	-	37명	-	1,040명
2017년	2,230명	187명	232명	228명	240명	220명	177명	124명	3,638명
2018년	3,873명	468명	550명	492명	770명	653명	584명	-	7,390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실시

2)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18년 6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정부·기업·청년의 3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납입해 5년 이상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3,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즉, 청년은 월 최소 12만 원 이상 6개월 납입(5년간 720만원), 기업은 월 최소 20만 원 이상 6개월 납입(5년간 1,200만원)하게 되며, 정부가 3년간 총 7회 1,080만원을 적립해주는 구조이다.

본 사업은 기업 납입금 부담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일반연구·인력개발비)하여 세액 공제하고, 근로자 공제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 50% 감면혜택 등을 마련,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에 본회 및 6개 지회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2018년 12월 기준 총 1,718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을 달성했다.

표 IV-30-1-6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8년)

구 분	본회	지 회						합계
		강원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2018년	629명	60명	182명	500명	119명	148명	80명	1,718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 6월부터 실시

3) 이노-마이스터 장학사업

이노-마이스터 장학사업은 체계적인 기술 인력 육성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교육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의 우수 기술 인력을 우수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에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NH농협은행, 이노비즈협회,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가 2011년 8월 기업육성자금 및 장학지원에 관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노비즈기업과 우수 국립마이스터 고교생을 매년 100여명 규모로 채용 연계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총 589명의 채용연계 및 장학금 지급을 진행했으며, 우수한 고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대다수가 제조업인 이노비즈기업의 경우, 기술인력 채용수요가 높기 때문에 기업현장에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우수한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알리고 채용을 연계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표 IV-30-1-7 |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실적(1기~7기)

참여기수	1기 (13.2 졸업)	2기 (14.2 졸업)	3기 (15.2 졸업)	4기 (16.2 졸업)	5기 (17.2 졸업)	6기 (18.2 졸업)	7기 (19.2 졸업)
채용연계수	80명	85명	65명	90명	84명	86명	99명

4)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 협의회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인 인력공동관리 협의회로 지정받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우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인력공동관리 협의회는 전문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예산을 지원 받아 전국 각지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구인기업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인력 채용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협회는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운영, 2018년 현재까지 6년째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 채용연계를 위하여 현장실습기업과 선도기업(교육부) 발굴 등 특성화고등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 중이며, 본 사업의 지원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00여개 특성화고등학교와 긴밀한 네트워크로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표 IV-30-1-8 |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실적('13년~'18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채용연계	100명	100명	104명	94명	82명	82명	82명

5)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이노비즈협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현장 인턴 및 취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 뉴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구직자를 모집하여 전문교육(2개월)을 실시한 후 기업과 교육수료자 간 인턴매칭을 통해 연결하고, 인턴근무(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해당기업은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최대 72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에서 담당할 업무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교육과 더불어 조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교육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를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입사 후 기업에 안정적인 적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시범사업부터 현재까지 75명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3명을 정규직 채용 연계를 지원했다.

표 IV-30-1-9 |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17~'18년)

구 분	교육	인턴	취업
2017년	24명	14명	14명
2018년	51명	38명	29명

다. 이노비즈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1)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이노비즈협회는 해외기업과의 기술 융·복합 활성화 및 기술수출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혁신 및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기술교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베트남을 시작으로 이노비즈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주무 시행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다. 2017년에 지원 국가의 증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2018년은 협회가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독일, 덴마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페루, 카자흐스탄을 맡아 진행 중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① 해외 기술교류단 파견 기회 제공 ② 통역, 현지차량 등 기술수출 활동 지원 ③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전문가 진단 ④ 현지 기업과의 교류성과 달성 가능 기업의 경우는 별도 평가를 통해 수출지원 컨설팅 등 사후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동 사업은 일반적인 상품무역을 지양하고,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술교류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상대국 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기술 라이선싱, 부품소재 및 장비 수출, 합작법인 등 다양한 기술협력 및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장벽을 넘기 위한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요기술 발굴 및 교류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 기술교류센터(Technology Exchange Center)를 설립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6년 6월부터 한-이란 기술교류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개소된 한-인도 기술교류센터까지 5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개도국을 중심으로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표 IV-30-1-10 |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실적 ('14~'18년)

구 분	교류실적			
	기술교류단	협력기업매칭	금전계약성과	성과금액(억원)
2014년	50개사/5회	20건	1건	2.4
2015년	43개사/3회	32건	2건	25.8
2016년	101개사/8회	34건	4건	2.5
2017년	161개사/12회	108건	3건	9
2018년	172개사/18회	119건	12건	47
합 계	527개사/46회	313건	22건	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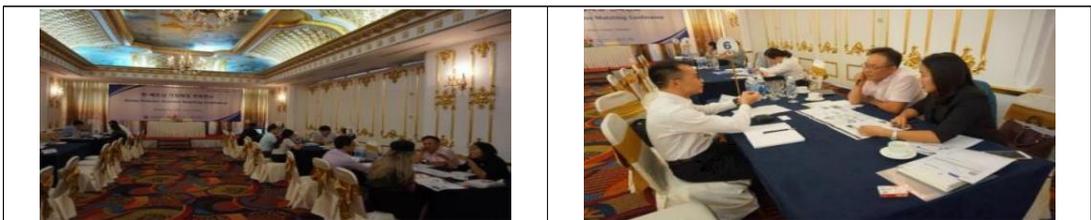
* 기술교류를 통해 베트남 진출을 결정하고 2015년 현지 공장설립 투자한 2건, 108억 원 별도

2)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로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Target)시장 파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

이노비즈협회는 2018년 9월 전기전자 및 기계금속 분야 중심 중소기업 7개사로 수출컨소시엄을 구성, 베트남 하노이 지역 파견을 통한 맞춤형 상담회 및 현지기업 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전기전자 및 기계금속, ICT 분야 중심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 하노이 지역 파견과 베트남 기업을 초청하여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사후관리까지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67 | 수출컨소시엄 맞춤형 상담회 및 현지기업 방문



3) 수출바우처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이하 수출바우처)의 ‘현지 바이어매칭 상담회’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현지 맞춤형 기업매칭 상담회 개최 및 기업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부처 수출지원 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원기관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수행) 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 플랫폼이다.

그림 68 | 수출바우처사업 기업매칭 상담회



협회는 2018년 동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총 2회, 5개사를 해외에 파견하여 기업매칭 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향후에도 추가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과 직접 대면하는 심층상담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교류의 Quick-Win Success(단기간 내 눈에 보이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4) 해외전시 지원 사업

해외전시 지원 사업은 마케팅 능력이 취약하고 수출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게 전문 업종 위주 해외전시회 한국공동관 구성, 참가 지원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노비즈협회는 2008년부터 매년 3~4개의 해외전시회 한국공동관 구성 및 파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미국 라스베가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및 인도네시아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프랑스 파리 인테리어 디자인 및 데코전시회 등 총 3개 전시회에 3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표 IV-30-1-11 | 해외전시회 이노비즈 공동관 지원 실적('18년)

전시명	일자	장소	품목	참가규모
2019 프랑스 파리 인테리어 디자인 및 데코전시회(춘계)	'19.01.18~ 01.22	프랑스 파리	디자인 데코, 인테리어 전 분야	9개사 10개 부스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18.11.14~ 11.1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플라스틱 성형기계, 플라스틱 금형 등	10개사 12개 부스
2018 미국 라스베가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18.05.08~ 05.10	미국 라스베가스	건축, 주택	11개사 12개 부스

제31장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1

일반현황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공장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제조업 전반의 선진적 스마트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되었다.

스마트공장추진단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하고, 스마트 공장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구축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19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내 이원화된 지원 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기관으로 통합되어 스마트공장 정책 지원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실적 및 성과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은 현장자동화(센서, 컨트롤러 등),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MES : 제조현장운영시스템), 제품개발(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SCM : 수요예측, 생산계획수립 등), 기업자원 관리(ERP) 등으로 구분된다.

2018년 신청과제를 접수받아 사업계획서 요건검토, 현장실사, 원가감리, 최종평가(기술위원회)를 거쳐 2,178개사를 선정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였다.

표 IV-31-1-1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8,000	48,200	62,285	93,739	212,224
지원기업수	308	649	1,219	2,178	4,354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는 신규구축 사업과 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대·중소 상생형 사업, 제조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거점에 구축을 지원하는 시범공장사업, 유사 제조 공정(업종 등)을 가진 기업이 공통으로 특화된 솔루션을 구축하는 업종별 특화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표 IV-31-1-2 | 유형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

(단위 : 개)

구 분	지원기업	지원조건	비고
신규구축	1,543	50%, 최대 5천만원까지	추경 포함 일관지원사업 포함
대중소상생	597	30%, 최대 5천만원까지	
시범공장	12	50%, 최대 3억원까지	추경 포함
업종별 특화	26	50%, 최대 4천만원까지	

나.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실적 및 성과

1) 인력양성

스마트공장 추진기업의 핵심운영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였다.

현장인력 교육은 스마트공장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스마트공장 운영 및 구축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된다. 2018년에는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함께 총 30회에 걸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1,1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였다.

표 IV-31-1-3 | 핵심운영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



〈 중소기업연수원, 안산 〉



〈 중소기업연수원, 부산경남 〉

2) 스마트공장 인지도 제고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콘텐츠 개발, 홍보물 제작·배포,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① 언론홍보

스마트공장 성과확산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대한 對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기사, 인터뷰·기고 등 100여건의 언론 홍보를 진행하였다.

〈한국경제TV, 스마트공장 기획보도 영상(3.23)〉



② 전시회

스마트공장 관련 국내외 동향과 현안 공유 및 정책 수요자들의 현안 공유를 위해 '2018 스마트공장 엑스포' 및 '2018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 참가하여 전시관을 운영하였다

〈 전시관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③ 우수사례집 발간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도입 기업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희망 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성공사례에 대한 구축효과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 우수사례집 발간 〉



제32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

일반현황

지역의 열악한 정보보호 현황을 개선하고자 지자체와 연계하여 2019년 현재 전국 8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식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인식제고 활동과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현황 〉



2

2018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방향

가.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전문교육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지역 학계·산업계와 협업을 통한 정보보호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 인천, 울산 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정보보호 전문 컨퍼런스’가 있다. 정보보호 전문가의 보안강연부터 패널토의, 보안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400여명이 참석하는 큰 규모이 행사이다. 해당 컨퍼런스를 통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기초 가이드 역할도 제시하고 있다.

정보보호 전문교육은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정보보호 관련학과 대학생에게 무료로 지원하며, 초급과 중급수준으로 교육을 분류하여 참석인원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2018년도까지 총 4,880명의 인원에게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교육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여 지원자들이 더욱 폭넓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주요 운영 실적〉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 정보보호 전문교육	-	1,210명	1,419명	952명	1,299명
○ 정보보호 세미나	9회	45회	90회	79회	85회

나.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기술서비스 지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3대 주요 기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보보호 현장컨설팅으로써 정보보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시스템·네트워크 등 ICT 전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취약점 점검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웹 취약점 점검으로써 기업이 보유한 홈페이지에 대한 주요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지원한다. 마지막 서비스는 민감정보보호 조치로써, 기업이 보유·관리하는 고객정보 또는 기업의 민감 정보에 대한 관리를 점검

하고, 조치방안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위 서비스 외에도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지역 전략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내재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과 지역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생협의체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2018년도부터는 정보보호 의지가 있으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700만원 상당의 종합컨설팅과 컨설팅 결과조치를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비용 최대 300만원을 매칭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주요 운영 실적〉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 정보보호 서비스	254건	1,433건	3,295건	3,665건	4,003건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100건	485건	969건	1,030건	1,119건
웹취약점 점검	130건	620건	1,280건	1,553건	1,663건
기업 민감정보보호 조치	24건	328건	1,046건	1,082건	1,221건
○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	-	-	-	195건

다. 2019년도 추진방향

올해부터는 종합컨설팅 사업에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지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는 보안제품 구매 대비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별도의 운영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도 컨설팅 지원 목표는 총 250건이며, 추후 수요에 맞게 지원 목표 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혜기업들의 피드백을 받아 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연차보고서 작성자 및 연락처

목 차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1부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통계분석과	고건호	042-481-6853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통계분석과	고건호	042-481-6853
1. 업종별 동향			
2. 분야별 동향			
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1절 민간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1. 신설법인 현황	통계분석과	고건호	042-481-6853
2. 창업저변 확대			
가. 창업교육	창업촉진과	정동찬	042-481-1629
나. 기업가정신	벤처혁신기반과	강병택	042-481-8953
다. 도전 K-스타트업	창업촉진과	고종현	042-481-4553
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촉진과	주재범	042-481-8909
3. 기술 창업 활성화			
가. 창업선도대학 육성	기술창업과	이성룡	042-481-4386
나.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촉진과	정동찬	042-481-1629
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기술창업과	박형묵	042-481-4413
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기술창업과	이광범	042-481-4414
마.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기술창업과	홍명기	042-481-3991
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기술창업과	이광범	042-481-4414
사.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기술창업과	이광범	042-481-4414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가.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창업정책총괄과	강태수	042-481-1684
나. 창업보육센터(BI) 운영	창업생태계조성과	정길섭	042-481-1691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벤처혁신기반과	서정남	042-481-1652
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청수	042-481-1692
마. 메이커 활성화 지원	창업생태계조성과	마경준	042-481-4580

목 차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청수	042-481-1692
사.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 양성	창업촉진과	정동찬	042-481-1629
5. 지식서비스기업 성장 촉진			
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창업촉진과	임제학	042-481-4523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촉진과	임제학	042-481-4523
다. 1인 창조기업 문화조성	창업촉진과	임제학	042-481-4523
라. 스마트창업터 운영	창업촉진과	정동찬	042-481-1629
마. 스마트벤처캠퍼스 운영	창업촉진과	정동찬	042-481-1629
2절 벤처열기 확산을 통한 혁신벤처국가 실현			
1.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가. 벤처기업 성과	벤처혁신정책과	김민지 송제훈 김영길	042-481-4494 042-481-4425 042-481-1639
나. 벤처기업 지원현황	벤처혁신정책과	김영길 백진석	042-481-1639 042-481-1635
2. 벤처투자 현황	투자회수관리과	김승택	042-481-4422
3. 벤처투자 확대			
가. 모태펀드 운영	벤처투자과	정미리	042-481-1649
나. 엔젤투자 활성화	투자회수관리과	정원철	042-481-4487
4.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투자과	오성업	042-481-3974
3절 재도전 환경 조성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가. 재창업교육	재기지원과	김혜남	042-481-4475
나.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재기지원과	김혜남	042-481-4475
다. 경영위기기업의 발굴 및 회생 지원	재기지원과	민승주	042-481-4356
라.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FTA 피해기업 구제	재기지원과	문종원	042-481-4530
2. 재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가.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부담 완화	재기지원과	민병철	042-481-6841
나. 신속한 회생 지원	재기지원과	민승주	042-481-4356
다. 신용회복 및 불이익한 신용정보 관리 체계 개선	재기지원과	민병철	042-481-6841

목 차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촉진			
1. 중소기업 인력수급 현황	일자리정책과	황선희	042-481-1663
2. 근로자 임금상승 및 근로환경 개선			
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	인력지원과	여운상	042-481-4465
나. 성과공유제 도입 및 확산	일자리정책과	박현용	042-481-4365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인력지원과	조아해	042-481-4424
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일자리정책과	정미라	042-481-1662
3.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인력지원과	백승표	042-481-4467
나. 기술사관 육성	인력지원과	박회경	042-481-6875
다.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인력지원과	박회경	042-481-6875
라.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인력지원과	조아해	042-481-4424
마.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인력지원과	김종길	042-481-4369
바. 국립 공업고등학교 육성	인력지원과	백승표	042-481-4467
사.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인력지원과	윤희정	042-481-4493
아. 중소기업 인식개선	일자리정책과	박현용	042-481-4365
자. 중소기업 재직자 연수원 운영	인력지원과	박정은	042-481-4471
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1절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기술정책과	이종호	042-481-4459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1)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기술개발과	황조인	042-481-4445
2)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지원	기술개발과	강성원	042-481-4442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기술개발과	강성원	042-481-4442
4)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	기술개발과	조무근	042-481-4401
5)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술개발과	조무근	042-481-4401
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기술정책과	최한식	042-481-8955
7)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기술개발과	오보연	042-481-4452
8)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기술개발과	김범철	042-481-4582
3. 스마트 공장 확산			
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기술정책과	김준영	042-481-4437

목 차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나.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술정책과	김준영	042-481-4437
다.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술정책과	김준영	042-481-4437
라.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기술정책과	김준영	042-481-4437
4.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확대	기술정책과	조영삼	042-481-4436
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기술정책과	김연학	042-481-4406
다. 뿌리중소기업 육성	기술정책과	최한식	042-481-8955
5.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가. 중기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기술보호과	백원현 김기현 김혜규	042-481-4405 042-481-4458 042-481-4400
나.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기술정책과	허일록	042-481-4457
2절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기업금융과	정진관 윤성웅	042-481-4388 042-481-4382
2. 정책자금 지원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의 및 운영 현황	기업금융과	윤성웅	042-481-4382
나. 2018년 정책자금 운용성과	기업금융과	윤성웅	042-481-4382
3. 신용보증 공급	기업금융과 벤처혁신정책과	정진관 김성훈	042-481-4388 042-481-4485
가. 보증지원 규모 확대	기업금융과	정진관	042-481-4388
나.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기업금융과	정진관	042-481-4388
4. 매출채권보험 운용			
가.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기업금융과	정진관	042-481-4388
나. 매출채권보험 영업 채널 확대 노력	기업금융과	정진관	042-481-4388
다. 매출채권보험 제도개선 추진	기업금융과	정진관	042-481-4388
3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판로지원과	신규호	042-481-4569
2.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국내 판로 촉진	판로지원과	강기삼	042-481-4377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판로지원과	신규호	042-481-4569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과	염정수	042-481-4466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판로지원과	염정수	042-481-4466

목 차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조합참여 허용	판로지원과	염정수 전상용	042-481-4466 042-481-8919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판로지원과	최병진	042-481-8918
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판로지원과	이상수	042-481-4546
사.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	판로지원과	전상용	042-481-8919
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판로지원과	신규호	042-481-4569
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판로지원과	신규호	042-481-4569
차.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판로지원과	이상수	042-481-4546
카.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및 모니터링	판로지원과	신규호	042-481-4569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가. 마케팅역량강화 지원사업	판로지원과	김호진	042-481-8950
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차운영	판로지원과	김호진	042-481-8950
다. 온라인 판로지원	판로지원과	이병삼	042-481-4483
라.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판로지원과	김호진	042-481-8950
마.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판로지원과	이병삼	042-481-4483
4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1. 수출 현황	해외시장총괄담당관	공 윤	042-481-1656
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해외진출지원담당관	허 연	042-481-3980
가.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해외진출지원담당관	허 연	042-481-3980
1) 수출성공패키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허 연	042-481-3980
2) 아시아하이웨이	해외진출지원담당관	허 연	042-481-3980
3)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해외진출지원담당관	허 연	042-481-3980
4)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해외진출지원담당관	허 연	042-481-3980
5) 단체 해외전시회 바우처	해외진출지원담당관	김희중	042-481-3965
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1)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진출지원담당관	김희중	042-481-3965
2) 수출컨소시엄 사업	해외진출지원담당관	김희중	042-481-3965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해외시장총괄담당관	공 윤	042-481-1656
4)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이홍열 이상훈	042-481-4461 042-481-4355
5)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해외시장총괄담당관	신호용	042-481-1654

목 차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3. 수출기업 지원 및 해외교류 인프라 확충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시장총괄담당관	신호용	042-481-1654
나.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해외시장총괄담당관	방지현	042-481-4473
4. 국제협력 추진			
가. 양자협력 활동	국제협력담당관	박강범	042-481-4499
나. 다자협력 활동	국제협력담당관	박강범	042-481-4499
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1절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상생협력 촉진			
1. 대·중소기업 간 경영현황	상생협력정책과	노성현	042-481-4470
2.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거래환경개선과	홍선아	042-481-8958
1)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 현황	거래환경개선과	홍선아	042-481-8958
2)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거래환경개선과	홍선아	042-481-8958
나. 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1) 의무고발 요청권 행사	거래환경개선과	신종화	042-481-3966
2) 수·위탁 분쟁조정 지원 활성화	거래환경개선과	송시연	042-481-1668
3)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거래환경개선과	송시연	042-481-1668
3.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가. 대중기간 상생협력 추진 배경 및 경과	상생협력정책과	우경필	042-481-4387
나.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주요 실적 및 성과			
1)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협력정책과	송승현	042-481-3959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상생협력정책과	임호순	042-481-6835
3)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상생협력정책과	임호순	042-481-6835
4)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상생협력정책과	임호순	042-481-6835
5)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상생협력정책과	이슬기	042-481-3970
6)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상생협력지원과	인병철	042-481-4394
		손정아	042-481-3971
2절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 발전			
1. 중소기업 간 협업 유도			
가. 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	기술정책과	남경탁	042-481-4402
나. 기술혁신센터 지원	기술개발과	황조인	042-481-4445
2. 포용적 동반성장 확대			

목 차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여성기업 육성 정책			
가. 여성기업 일반현황 및 정책개요	정책총괄과	김영철	042-481-4363
나. 여성기업 지원 정책	정책총괄과	김영철	042-481-4363
2)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가. 장애인기업 현황	소상공인혁신과	임영주	042-481-4566
나.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소상공인혁신과	임영주	042-481-4566
3절 지역 중소기업 육성			
1. 지역 중소기업 현황	지역혁신정책과	강효민	042-481-1697
2.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기획총괄과	남현재	044-865-9713
3. 지역 특화산업 육성			
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기업육성과	이철한	042-481-1678
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지역기업육성과	이철한	042-481-1678
4. 지역특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가. 지역특구 지정절차	지역특구과	정익채	042-481-1603
나.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현황	지역특구과	정익채	042-481-1603
다.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활성화	지역특구과	정익채	042-481-1603
5.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역기업육성과	이종욱	042-481-1679
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1절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생태계 촉진			
1.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정책과	이우종	042-481-4410
2. 준비된 창업 유도			
가. 소상공인 정보 제공	소상공인정책과	전근표	042-481-3988
나.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소상공인지원과	편장범	042-481-4528
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김창민	042-481-4361
라. 소상공인 보증 지원	기업금융과	권도영	042-481-4454
3.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가.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지원과	조동후	042-481-8997
나. 재창업패키지	소상공인지원과	조동후	042-481-8997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상공인지원과	송성동	042-481-4583
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이재준	042-481-3983
2절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1. 소상공인 성장 지원			

목 차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가.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지원과	신대순	042-481-4596
나. 소상공인 역량 강화	소상공인지원과	이경우	042-481-4490
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지원과	남기동	042-481-4491
라.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	소상공인지원과	송성동	042-481-4583
마.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소상공인지원과	송상호	042-481-3952
바. 중소기업공동매물류센터 건립	소상공인지원과	이경우	042-481-4490
사. 백년가게 육성	소상공인혁신과	이신영	042-481-3916
2.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혁신과	장준수 손형욱	042-481-4576 042-481-8923
3절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1. 전통시장 현황	시장상권과	전진섭	042-481-8930
2. 특성화 시장 육성	시장상권과	이왕재	042-481-4547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장상권과	편선영	042-481-4563
4. 시장경영혁신 지원			
가. 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지원	시장상권과	김민수	042-481-4517
나.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시장상권과	이왕재	042-481-4547
다.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강화	시장상권과	권오운	042-481-4560
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	시장상권과	전진섭	042-481-8930
마. 상인 교육 및 상인 대학	시장상권과	이왕재	042-481-4547
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시장상권과	권오운	042-481-4560
5. 상권 활성화	시장상권과	김진철	042-481-4335
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규제혁신과	백진욱	042-481-4344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평가과	김기상	042-481-1672
3. 행정혁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장훈	042-481-8932
4.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통계분석과 고객정보화담당관	우창훈 주병윤 박미란	042-481-6852 042-481-4397 042-481-4592
5.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옴부즈만지원단	정구은	02-730-2476
6.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재기지원과	장희양	042-481-6844

<정부 부처>

목 차	과명	담당자	연락처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장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오성태	044-215-4533
제2장 교육부	기획담당관	임혜진	044-203-6853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이우일	044-202-4426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김국찬	044-203-2213
제5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권영민	044-201-2139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윤용석	044-203-4365
제7장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박주은	044-202-2307
제8장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김미옥	044-201-6705
제9장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김동형	044-202-7030
제10장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전우정	044-201-3263
제11장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차석근	044-200-5122
제12장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김기호	02-2110-1376
제13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이겨레	043-719-1414
제14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홍수진	044-200-4585
제15장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박은경	02-2100-2867
제16장 국세청	법인세과	권영훈	044-204-3323
제17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김은득	042-481-3257
제18장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정상현	042-724-7050
제19장 병무청	산업지원과	김명순	042-481-2817
제20장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김현진	02-2079-6443
제21장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홍송원	063-238-1028
제22장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윤현선	042-481-8181
제23장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이상성	02-2181-0854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실	김주리	055-751-9297
제2장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연구소	김지민	051-606-7378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래기획팀	송미주	042-363-7698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기획실	송영옥	042-388-0218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영전략부	박성만	042-480-4013
제6장 창업진흥원	기획조정실	한은수	042-480-4382
제7장 한국벤처투자(주)	경영기획본부 기획관리팀	양다송	02-2156-2471
제8장 (주)중소기업유통센터	기획조정팀	박형주	02-6678-9218
제9장 (재)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윤용석	02-707-9869
제10장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기획교육팀	남덕원	042-720-3311
제11장 (주)공영홈쇼핑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류효림	02-6350-8769
제12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	김용탁	02-2181-6511
제13장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심동진	02-2124-3032
제14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진승룡	02-368-8781
제15장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홍종일	053-430-4115
제16장 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	정 진	02-3145-8415
제17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본부 혁신성장팀	윤순창	02-6050-3862
	회원본부 회원복지팀	정철윤	02-6050-3454
제18장 중소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이현호	02-6322-5109
제19장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허재연	02-3779-6268
제20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획혁신팀	고다연	02-3460-7065
제21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전략팀	김예슬	02-399-7059
제22장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	권도겸	02-6000-5201
	대외정책협력팀	오승현	02-6000-5447
제23장 한국생산성본부	기획재무센터	이재욱	02-724-1012
제24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기정책실	이민경	041-589-8584
제25장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양현봉	044-287-3171
제26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획실	손해원	042-869-0787
제27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지원실	이성수	031-780-2146
		이재혁	031-780-2214
제28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민형	02-369-0922
제29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사업본부	전홍철	042-331-0579
	교류협업지원사업팀	신민정	042-331-0577
제30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정책기획본부	김정석	031-628-9686
제31장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보급확산팀	박형민	042-388-0850
제32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총괄센터	복재준	061-820-1329
		이승민	061-820-1221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 발행일 | 2019년 8월

|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 발간등록번호 | 11-1421000-000002-1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우 35208)

| 문 의 |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556)로
연락바랍니다.
